



노중평의 나라

고담 노중평

소개글

노중평이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나는 이 나라의 사람이 맞는가? 내 이웃들도 나처럼 이 나라 사람들이 맞는가? 세월이 갈 수록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이방인들처럼 보이니 이게 웬 일일까?

목차

1	마고삼신을 섬기는 한국 여성교회	9
2	국신에 대하여	12
3	다가올 여성의 시대에 마고파 여성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14
4	삼각산은 무당산	16
5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역사의 전환점이 된 여러 사건들	19
6	캐나다의 마지막 날	22
7	명성황후 산신제례	25
8	파주집에서	28
9	종성자를 신으로 볼 수 있을까?	32
10	백석동천에서 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38
11	동방선파의 도부신인과 그노시스파의 소피아	41
12	白衣仙族	45
13	흑 뒤에 흑적이 오고 그 뒤에 백이 온다	48
14	이동섭님의 보길도 문학체험 참관기	50
15	오방기	54
16	마고는 누구인가	59
17	여성교회 예배 참석기	63

18	군포시의 뿌리를 찾기 위하여 풀어 본 지명풀이	68
19	특별한 종교가 시작된 날	72
20	신정아에게 죄를 짓는 사회	77
21	중국의 홍산문화 왜곡에 대응해야 할 국가전략의 필요성	79
22	단군왕검의 아이콘은 올빼미일까 수리부엉이일까	83
23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검증 쇼를 보면서	85
24	꿈 이야기	92
25	신화해석과 굿해석의 유사성	94
26	군웅거리와 조상거리의 발생지로 볼 수 있는 청구국의 탁록	98
27	나는 친파? 우리의 2세는 친미파?	109
28	굿에서 상고사 찾기	112
29	박정희를 청산하고 새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까	123
30	수술	125
31	드라마 대조영에서 대조영이 세운 발해국과 대진국	127
32	무교신학이 존립하려면	130
33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포럼에 대한 소견	133
34	석촌 무교대학강의 태극기천도외	136

35	TV에서 무당 스타가 되기 시작한 박미령의 신 내림을 통해 본 쑤의 세계	144
36	은퇴자와 젊은 유학생	149
37	한나라당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152
38	평산 소놀이곳에서 법고창신과 온고이지신	154
39	멀쩡한 사람으로 돌아가자	162
40	무교경전	164
41	앞으로 축복을 받느냐 재앙으로 떨어지느냐는 우리가 하기 탓이다	166
42	무교대학교재 2 종교로서의 무교	170
43	드라마 장희빈에 나오는 무당	174
44	치우천왕과 황제의 탁록대전 미스터리	176
45	사신과 삼족오	181
46	한국 배달나라 단군조선 후세역사의 고리 구월산 삼성당	187
47	한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	192
48	삼신산	195
49	무교를 탈고하고 나서 출자성에 가다	215
50	어리석은 양떼가 물려가듯	217
51	정월 대보름에 ‘出子成’ 에 가다	219

52	또 다시 별내면에 가다	223
53	상고사 연구회 출범	226
54	2월 22일 역사천문학회이 다시 모이기로 하였다	228
55	'중공 탈당 1800만' 성원행사 열려	230
56	별내(은하수)에서 수락산아기씨가 삼각산고깔 벗어 놓고 불암산서낭신장님과 동침중이시군요	232
57	꿈에 현신하신 벼락대신은 마고대신	234
58	단기 4340년 춘분날 14시 18분에 부암동 산에서 天祭를 지내다	249
59	역사천문학회와 역사인지학	252
60	격암 선생	254
61	역사천문학회	256
62	〈천부경〉의 一析三極 논리에서 나온 한양거리 산신마지에서 거성	257
63	역사천문과 창덕궁 촬영	263
64	역사천문학회와 2006년 월미도 칠석제	271
65	역사천문학회의 꿈	275
66	역사천문학회 이야기	278
67	1999년 역사천문학회 탁록기행 치우천왕 알현	281
68	역사천문학회 정해년 첫 모임	290

69	지금의 공무원은 박정희대통령 당시의 공무원보다 우수하지 못하다	295
70	丁亥年 벽두에 아주 특별한 만남	296
71	정해년의 천부경	298
72	백성을 거지로 만드는 나라 백성의 꿈	300
73	아주 특별한 동짓날	302
74	2006년은 저물어 가는데 모처럼 남태령 한양굿판에서 하루해를 보내다	306
75	친구들 45년 만에 안면도에 가서 함께 하루를 보낸 이야기	317
76	계양산 1인 단독시위를 계기로 찾아보는 계양산 추론의 역사	321
77	산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하직 인사 오고 죽은 사람은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간다	324
78	인천 서구 연희동 도당산에서 맥이 끊긴지 60년 만에 다시 올리기 시작한 도당제	330
79	격암 선생 사상의 핵심 〈生初之樂〉	337
80	어머니의 시계	340
81	〈천부경〉과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논리구조	341
82	부여 유왕산에서 의자왕과 망국유민 추모제	354
83	드디어 절망으로 가는 사회가 되다	358
84	도부신인이 올 복사골 심곡동에 자리 잡은 巫家 〈出子成〉의 格菴類의 해석	361
85	유승구씨는 그냥 묻히기에 아까운 사람이다	364

86	이민 간 한 재외 동포 金鐘琬 선생이 잡지의 날 받은 은관문화훈장	368
87	창수사자 부루태자가 굿판에서 창부가 되어 주는 검단 대곡의 가현산	371
88	桃符神人마지를 위하여 삼각산을 떠나 富川의 시민이 되다	376
89	천성적으로 巫畵를 그리는 화가 兪辰守씨와 나눈 황당한 대화	379
90	차례 상에 오르는 제물에 숨겨진 역사	384
91	단군왕검에게 사로잡힌 재일한인 최호정씨를 삼각산축제에 초대하다	387
92	꿈을 꾸며 한 세상을 살아가다	393
93	우덕당에 좌정한 마고 할머니	397
94	〈소놀이굿〉에서 칠성님과 마부	401
95	무당이 고깔 벗고 장삼을 벗으면 마고할머니 되고, 고깔 쓰고 장삼 입으면 칠성님이 되는 소놀이굿	407
96	글쓰기에서 일제청산과 중국청산	410
97	무당 이해경씨가 출연한 영화 '사이에서'	414
98	격암유록에 기록된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	418
99	역사 연구자가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역사 직관력과 역사 통찰력	421
100	정부는 언제부터 오지랖이 넓게 중국정부의 친절한 대변자가 되었는가?	423

마고삼신을 섬기는 한국여성교회

노중평

앞으로 무교가 예배를 보는 시대가 온다면 어떠한 형태의 예배를 보면 될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는 작은 여성교회가 있어서 여기에 소개한다.

우리나라에 마고삼신을 섬기는 여성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여성교회가 출범할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호응하여 독자적인 행보를 내걸었으나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다가오는 유형 무형의 탄압과 질시에 견디다 못하여 많은 사람이 초지를 잃어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골수분자들만 남아서 이 교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

이 교회는 대표자가 없다. 다음 주일 예배에 내세울 대표자를 이번 주일에 정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 교주나 당회장이 없는 유일한 교회가 되었다. 그 날의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이끌어 간다. 이는 마치 박해 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2011년 4월 10일 오후 3시에 마고삼신을 신봉하는 김혜숙 씨가 대표가 되어 인도한 예배를 여기에 소개한다.

예배는 명상, 징울림, 촛불점화의 순서로 시작되었다. 다음엔 예배의 부름으로 들어갔는데, “마고 궁희 소희 동정녀 천지창조 마고삼신 만만세, 마고 궁희 소희 동정녀 하나님 어머니 마고삼신 만만세, 마고 궁희 소희 동정녀 인류생산 마고삼신 만만세, 어머니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소서, 우리의 뜻을 어머니를 통하여 이루게 하소서, 마고와 궁희와 소희의 이름으로 만만세” 를 외친다. 이어서 십자가 성호를 긋고 짝 짜공을 3번 한다.

드디어 찬송가를 부르게 되는데, 찬송가는 <우리찬송가 11번> “참 아름다워라” 를 부른다. 다시 김혜숙 씨의 인도로 어머니를 찬양한다.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내 몸과 내 동생 낳아 주시고, 사랑과 수고로 길러 주시네 길러 주시네,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만생명 낳아서 길러 주시며 말씀의 빛으로 가르치시네 가르치시네,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스스로 높아 만 가는 어머니, 어머니 손잡고 따라 가야지 따라 가야지,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만자손의 어머니 만백성의 어머니, 하늘보다도 땅보다도 더 좋은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찬양을 마친 다음엔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마고삼신 십천상제 만만세”를 외친다. 여기에서 십자가는 칠성님의 성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엔 김미선 씨의 반주를 깔고 어머니의 나라에 대하여 묵상한다. 묵상을 끝내고 나서 씻김기도로 들어간다. 기도의 제목은 〈일본 쓰나미 방사능 씻기〉이다. 그런데 김혜숙씨가 한 기도가 이상하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도 1: 천수 천수 천수가요 마고삼신 칠석 하나님께 천수가요

다함께: 이마전 이터전 쓰나미 방사능 천수가요

기도 2: 동서남북 천수가요 팔도명산 천수가요

다함께: 7000만 남북인민 천수가요

기도 3: 개벽장 물애기씨 궁희 소희 천수가요

다함께: 정의의 칼 양날을 쥐신 복녀님이 천수가요

기도 4: 내려오는 천수 감로수로 만부정을 다 돌려 씻어 냅니다

다함께: 남남북녀 정의의 칼로 세상을 청소하고 남북통일 이룹시다

기도를 마치고 감사찬송 〈우리찬송가 66번〉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부른다. 다음엔 여성교회의 공적인 기도로 들어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위에 임하시고 만물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도 굶주린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에만 연연했던 자들을 용서하소서. 이웃을 향해 침묵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평화 없는 현실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 하소서. 사랑과 희망, 정의와 평화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여성교회 안에서 느닷없이 성명서가 발표된다.

“남북 교류 현황을 표면화시키고 7000만 국민이 희로애락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서의 내용은 “남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남북통일 작업은 믿을 수 없으니 통일에 관련한 모든 행사를 여성들에게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남자들이 보기에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내용인데 여성교회의 이름으로 버젓이 주장하고 있다.

과격하진 성명서가 낭독된 후에 예배는 다시 차분히 진행된다. 마고와 궁희와 소희의 이름으로 만만세를 부르고 십자가 성호를 긋고 짹짹을 3번한 후에 예배를 모두 마친다.

국신國神에 대하여

-포천 죽엽산 국태민안 산신제례를 기획하며

노중평

과연 국신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가 국신이라면 민족종교 진영에서 국신으로 모셔온 단군왕검을 들 수 있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민족종교 진영에서 단군왕검을 국신으로 모셔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국신을 모셔 온 역사는 조선의 제47세 고열가단군이 구월산에서 삼성제례를 지내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국신의 대상이 된 분들은 한인천제, 한웅천왕, 단군왕검 세 분이었다. 조선왕조시대에 평양에 삼성사를 짓고 국신의 위패를 옮겨가면서, 한인천제와 한웅천왕의 위패를 없애버려 두 분은 국신의 지위에서 탈락하였다. 대신에 고구려시조와 고려태조가 국신의 자리에 들어갔다. 무가巫家에서는 단군왕검만을 국신으로 인정하였다. <무당내력>에 보면 단군왕검을 국신으로 인정하여 모셔 들이는 거리가 제석거리(칠성거리), 대거리(최영장군거리), 성조거리, 별성거리 등이다. 이들 거리는 반드시 단군왕검을 청배한다.

이로써 단군왕검이 국신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대거리에서 최영장군을 청배하고, 별성거리에서도 최영장군을 청배하는 것으로 보아서, 조선왕조시대에 무당들이 최영장군을 국신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시대에 최영장군을 국신으로 모셔 들였다면 대한민국시대엔 어떤 신명을 국신으로 모셔 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최근에 필자는 명성황후를 모셔 들인 여무를 여러 사람 만나 보았다.

명성황후가 직접 현신했다고 하는 여무가 있는가 하면, 부대부인 민씨로 볼 수 있는 할머니가 명성황후를 모시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조선왕조시대의 국신격國神格에 있었던 최영 장군이 명성황후에게 밀려나고, 명성황후가 오늘 날 국신격으로 모셔지게 된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2011년 4월1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포천시 소재 죽엽산에 있는 명성당에서 명성황후와 고종황제의 신위를 모시고 궁중제례인 종묘제례 형식으로 산신제를 지냈다. 명성당의 당주이자 ‘명성황후산신제례 보존

회장' 인 채진희씨가 그의 몸주 할아버지로부터 4월 19일 제례를 지내라는 하명을 받고 한 달 여 동안 '한국전통제례연구소' 와 준비하여 죽엽산 국태민안 명성황후 산신제례를 지내게 된 것이다.

이 산신제례에는 민가에서 처음 종묘제례형식으로 제례를 지낸다는 의미가 있고, 무가巫家에서 대한민국의 국보신國保神을 명성황후로 모신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이 제례를 기획할 때 남한과 북한의 두 정부에서 대한제국의 법통과 정통성을 계승하지 못하고 이 나라를 뜯 조상의 나라로 추락시켰으므로 무가 쪽에서 계승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종묘제례 형식의 제사로 기획하였다.

이 제사를 영속성 있게 계승하려면 신당이 신사형태神社形態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 신사문화의 복원이 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일이다.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에 “제사는 반드시 옛날의 실예實例에 따라서 지내야 한다....대백두산의 천단에서 제사를 행하고, 백악산 아사달에 제사 올린다.... 제사지낼 때는 삼신에게 제사지내는데, 생폐牲幣를 갖추어 드린다.” 고 하였다.

이 유습이 종묘제례에 그대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생에 해당하는 제물은 소, 양, 돼지이고, 폐에 해당하는 것은 백帛인 비단이다.

제천단은 야외에 만들었다. 이 제단을 삼신일체상제의 단(〈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이라 하였다. 그러나 삼성에게 제사지낼 때는 삼성당을 지어서 제사하였다. 삼성당제사三聖堂祭祀가 신사제사神社祭祀의 시작 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가올 여성의 시대에 마고파 여성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노중평

앞으로의 시대는 여성의 시대라고 한다. 남성이 주도해 온 인류의 역사를 여성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이유는 마고의 유시에 나와 있듯이 해혹복본解惑復本の 시대가 오기 때문이라 한다.

이 해혹복본의 최고 정점에 마고가 있다. 우리는 이미 현세의 기운이 이렇게 변해 가고 있음을 지구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각종의 정보를 접하면서 느낌으로 알 수 있다.

이 느낌이 직녀성에서 지구를 콘트롤하기 위하여 보내오는 천기일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지구의 자전축이 정북을 향하여 접근하면 할수록 그 기운은 강해질 것이다. 정북에서 0도를 넘어가면 새로 시작되는 1도에서부터 직녀성시대가 될 것이고 지구에서 어느 누구도 이러한 지구물리학적 현상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천기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쪽은 미래를 예언하는 미래학자나 지구물리학자나 역사천문학자들이다. 여기에서 종교가 빠질 수 없다.

각종 종교들이 암담한 미래를 예언하였다. 불교는 태양의 심판을 예언하였고, 기독교는 칠성의 심판을 예언하였다. 격암 선생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내전으로 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한국이 멸망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탄생되는데 이 일을 주도하여 이끌어 갈 사람을 도부신인桃符神人이라 하였다. 도부신인이란 성주산聖主山에서 태어나는 마고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때에 성주산에서 소 울음소리가 날 것이라 하였는데, 소 울음소리는 곧 지진을 의미한다.

대종교는 앞으로 지구상에 새로이 출현하게 될 종교의 이름을 천신교라 하였다. 필자는 이 천신교가 격암 선생이 미래에 출현할 것으로 예언한 지구단일종교인 선仙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시대 역사를 살펴보면, 마고가 시작한 삼신교三神敎가 한웅시대의 태백진교太白眞敎, 단군왕검시대의 덕교德敎로 발전하였다가, BC 238에 단군조선이 진에게 멸망하면서 고구려시대에 천신교天神敎로 이름을 바꾸어 출현하였고, 발해국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오다가 발해국이 멸망하면서 천신교가 사라졌다.

삼신교, 태백진교, 덕교, 천신교로 이어지는 이들 종교는 모두 삼신교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종교들이었다. <천부경>의 일석삼극의 원리를 바닥에 깔고 있었다. 이들 종교를 한 마디 말로 줄이면 선仙이 된다. 고원 최치원 선생은 유불도儒佛道 3교가 모두 선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이 말은 선교에서 나왔다는 말이다.

일본의 센다이(仙台)는 일본 칠석제로 유명한 곳이다. 칠석제는 그 의미가 마고할머니의 화신인 직녀성에게 지내는 제사를 말함인데, 이곳에서 금년 3월에 지진이 일어나 쓰나미가 덮쳐 일본이 크게 낭패를 당했다. 작은 도시가 사라졌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후쿠시마(福島)는 원자로가 붕괴되어 전 세계를 방사능 공포로 몰아넣었다. 레이저광선만이 방사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유출된 방사능을 모두 제거하려면 레이저광선을 생산해야 하는데, 일본을 다 팔아도 돈이 모자라 레이저 광선의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이 이번 지진 후유증 관리를 잘못하면 일본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의 국가들이 동반멸망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센다이에서 매년 칠석제를 지낸다. 매년 해온 칠석제에 대한 공수로 마고할머니가 일본이 붕괴할 것이라는 공수를 보내왔다고 볼 수 있다.

인류는 새로 올 마고시대의 문턱에 서있다. 마고시대가 다시 오면, 마고가 창시한 선이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일 것이다.

이 일을 주도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종교잡탕국가로 타락시킨 남성들이 아니라 직녀성시대를 이끌어 가야 할 여성들일 것이다. 여성들 중에서도 마고신봉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면 이 나라에서 여성들이 4.19혁명과 같은 혁명을 일으켜 종교잡탕국가로 전락한 이 나라의 종교를 바로 잡아 마고의 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이번이야 말로 기독교인들이 마귀로 몰아 배척한 마고의 실체를 밝혀내는 복본귀진復本歸眞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다시는 종교 사기꾼이 득세하여 인류를 농락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삼각산은 巫堂山

노중평

내가 오래 전에 두 분의 무당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삼각산에서 내림굿을 하였다고 하였다. 지금 이분들은 잘 나가는 무당이 되어 있다. 3년 전에도 나이가 든 무당을 한 분 인터뷰했는데, 이분도 삼각산에서 내림굿을 하였다고 하였다. 이분도 잘 나가는 무당이 되어 있다.

나는 이 분들이 잘 나가게 해준 삼각산의 삼각이라는 말과 삼신산의 삼신이라는 말을 같은 말로 보고 있다. 삼각산을 삼신산으로 보는 것이다.

산山자를 보면 그 형상이 삼신산의 형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산이라는 문자가 갖게 되는 주술성이 삼신산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삼신산은 발해만 밖에 있는 산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삼신산을 찾는 사람들이 이 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나는 조선과 삼한 시대에 우리 민족을 시작한 레이족萊夷族의 근거지를 삼신산으로 보고 있다. 이 삼신산이 있는 곳이 봉래와 등주수로에 있는 섬들이다. 여기가 삼신산의 근거지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등주수로에 묘도군도廟島群島가 있다. 묘자를 보면 여기에 단군왕검이 세운 조선의 종묘宗廟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단군왕검은 태산북두泰山北斗가 되는 태산을 중요시하여 이곳에서 천제天祭를 지냈고, 강화도의 마리산에서 지제地祭를 지냈다. 마리산이 레이족이 제齊에게 쫓겨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제사를 지냈다고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시할 수 있는 산이 삼각산이다. 삼각산은 조선왕조시대에 한성漢城의 진산鎭山이었다. 이 산에서 나라에서 중사中祀를 지냈다. 중사란 종묘에서 제사재낼 수 없는 전시대의 임금들 제사지낸다는 뜻이다. 그러니 각 시대의 임금들의 혼백이 제사 때마다 이곳에 모여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삼각산에 인수, 백운, 만경의 세 봉우리가 있어서 삼각산이라고 하는데, 삼신산에서 삼신의 기운이 발원하여 마리산을 거쳐 이곳에 오므로 이 산에 삼신의 기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삼각산을 보면 해가 삼각산을 지나가며 지고, 달이 삼각산 뒤쪽에서 떠오른다. 그리고 인수봉 위로 북두칠성이 뜨니 가히 마고가 내리신

천부삼인天符三印이 삼각산 위 하늘에 있다고 할만하다.

나는 번동에 살면서 삼각산 축제를 계획하였다. 이 산이 조선왕조시대에 중사를 지내온 산이므로 이 산에서 이 나라의 어디에서도 지내지 않는 한인, 한웅, 단군왕검의 제사인 삼성제례三聖祭禮를 지내자는 생각에서였다. 이 일이 잘 진행되어, 마침 <조선왕조실록>에 삼성제례홀기가 있어서 강북문화원에서 이 홀기를 가지고 제사지낼 수 있었다.

조선왕조시대엔 궁중에서 종묘사직宗廟社稷에 제사지낼 때 조복으로 불리는 제복을 입었고, 이 제복은 제용감濟用監에서 만들어 관사官司에 보관했다가, 종묘사직에 제사지내는 대사大祀 때, 임금이 류관旒冠을 쓰고 면복冕服을 입고 방심곡령放心曲領이라는 허리띠를 매면 제관들이 이를 보고 공복公服을 벗고 제복祭服으로 갈아입었다.

제복은 궁 안에 보관했다가 대사 때 꺼내어 입게 됨으로 원칙적으로 궁 밖에서는 입으려 해도 입을 수 없는 관복官服이었다. 제관이 입으면 제복이라고 불렀고 문무백관이 입으면 조복朝服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제복과 조복의 차이는 제사에 제관으로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불러지는 명칭상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므로 종묘사직에 제사지낼 때 입는 제복을 대궐 밖에서 지내는 중사中祀나 소사小祀 때에는 원칙적으로 입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나는 삼각산 축제 때 김금화 선생을 오셔다가 황해도굿을 제사 뒤에 올렸다. 인근에 사는 할머니들이 와서 열심히 구경하였다. 할머니들은 허리춤에서 지전을 꺼내어 제단에 올리고 절을 하였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하여 나는 삼각산에서 칠석다례七夕茶禮도 만들어 올렸다. 삼성제례에 준하는 제사방법을 만들 수 있었으므로 칠석다례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 제사에는 모두 여자만 참석하였다. 자시子時에 여자들이 하얗게 소복차림으로 정성스럽게 다례를 행하는 모습이 대단히 아름답고 신비스러웠다. 8년 후에 칠석제를 광화문 광장에서 자시에 올려 공개하였다. 지금은 칠석제가 가히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칠석제를 하는 사람들이 다례로 지내는 이 칠석제를 누가 만들었는지 밝히지 않으므로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되고 말았다.

나는 삼각산에서 명성황후신원굿도 올렸다. 나의 5대조가 장희빈묘의 능참봉을 지냈고, 5대조 고모할머니가 고종황제의 상궁을 지낸 집안에 내력이 있어서 그런지, 명성황후 친필 <국화절지화菊花折枝畫> 한 폭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국화에 주술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문단에 진출하면서, 돌아가신 명성황후의 혼백을 주인공으로 한 장편소설 <황후신당굿>을 발표하였는데, 이해 광복절 날에 이 소설을 가지고 황해도굿으로 명성황후신원굿을 한 무당은 그날 5대일간지 1면에 실리고 한동안 잘 나가는 무당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죽엽산 굿당의 당주무당이 죽엽산에 신당을 지어 명성황후를 모시고 있었는데, 궁중의례로 좌정시켜 드리고 싶다고 하여 종묘제례에 준하여 담제□祭로 모시기로 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련의 이야기들이 모두 삼각산에서 올린 삼성제례에서 시작된 것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역사의 전환점이 된 여러 사건들

노중평

역사를 보면 그 시대에 마치 점을 찍듯이 점을 찍고 넘어가는 사건들이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숨 가쁘게 역사의 전환점에 왔을 때 그러한 사건들은 터져왔다. 그럴 때마다 그 사건에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일제시대 때 광주학생운동, 북한의 6.25남침, 자유당의 3.15부정선거, 4.19학생의거, 5.16혁명, 광주5.18민주화운동이 그러한 경우이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감지해 내지 못하였거나, 역사의 흐름을 감지해 내지 못하고 그 역사에 휘말려 왔다는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직자의 무지와 탈법으로 촉발된 3.15부정선거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많은 시민과 학생이 청와대 앞의 대학살로 죽은 후에 부정선거가 바로잡혔고, 자유당은 몰락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2011. 5. 18. 광주 무등산에 있는 풍암정사 楓巖精舍에서 전국 각처에서 모인 무교인들이
5. 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를 지냈다.

5.16혁명도 군대의 움직임은 군 수뇌부나 정부의 수뇌부에서 감지하고서도 아무도 이를 막으려 하지 않는 이상스런 사건이었다. 모두 올 것이 왔다는 투로 6.16혁명을 받아들였다. 당시의 사회가 돌아갔던 상황으로 보아서 과연 지금 우리가 5.16혁명에 대하여 쿠데타라는 말을 써도 될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마산과 광주에서 촉발된 사건들이 특정한 시기에 우리역사에 전환점이 되어 왔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일로 생각 된다. 여기엔 무엇인가 역사적 숙명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노력만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우발성이 있고,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숙명성이 이들 사건의 결말에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광주의 예를 보면,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 있는 4백 명 이상의 실종인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수의 실종자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혹시 당시에 작전에 참여했던 군대가 시민을 살상한 범위 밖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하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재수색을 해야 무엇인가 사건 해법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광주묘역에서 매년 성대하게 추도식을 연다고 해서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의혹은 그대로 남고 한은 한 대로 싸여가게 될 것이다.

캐나다의 마지막 날

마누라들이 캐나다에 가겠다고 열심히 모은 여행비용을 모두 남편들에게 하사하는 바람에
줄지에 캐나다 여행을 떠났다. 6박 7일의 일정인데, 캐나다를 떠나기 하루 전에 록키산맥에 있는
아이스필드에 들러 사진 몇 컷 찍었다. 여행에 남는 것은 사진 밖에 없다는 철칙을 철저하게 지킨 셈이
다.



캐나다의 마지막 날

노중평

캐나다의 마지막 날

귀국편 機 36D석에 앉아

Adio Album을 듣는다.

2010년에 공연한 Opera CD

전 20곡 중에서

지금 몇 곡쯤 흘러갔을까

캐나다 교민 스튜어디스가 준

프랑스 산 와인을 마시며

이 세상에 와서 방황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하리

신학의 지식 학문하는 방법을 모르는

내 친구는 예수에 빠져

천당 갈 꿈을 꾸는

광신자가 되었다

나는 종교는 즐기는 것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나

대한민국엔 내 말을 믿어주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다

캐나다에서 유일한 나의 수확

아이스 필드 크레바스 저쪽에

사랑하는 이를 버리고 온 듯한

절망감을 느끼며

나는 한 떼의 무당들을 데려와
록키산맥의 거대한 잠을
무당방울 소리 하나로
깨어나게 할 꿈을 꾀다.

☞ 메일보내기 ☞ 오류신고 ☞ 프린트 ☞ +가 ☞ -가

“송고한 조국에 가슴에 담은 명성황후 산신제례” **즐거찾기**

2011년 04월 21일 (목) 11:33:49

이길상 기자 ✉ bohwa@newscj.com



▲명성황후 산신제례 보존회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명성굿당에서 '제1회 죽엽산 국태민안 명성황후 산신제례'를 지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제1회 죽엽산 국태민안 명성황후 산신제례’ 개최

[천지일보=이길상 기자] 명성황후 산신제례 보존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명성굿당에서 ‘제1회 죽엽산 국태민안 명성황후 산신제례’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최수진 (사)대한경신연합회 이사장, 노중평 역사천문학회 회장, 채진희 명성황후 산신제례 보존회 회장을 비롯해 명성황후를 추모하려는 시민□무속인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산신제례기획자 노중평 회장은 “산신제례란 죽엽산에 명성황후의 신명을 모셔 들여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며 제사의 성격은 담제(□祭)로 지낸다”며 “담제란 탈상을 한 이후에 지내는 것인데 이번 제사가 구월산의 삼성당처럼 당을 지

어 명성황후를 당에 좌정시켜 드리는 제사이므로 담제라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진 이사장은 축사에서 “명성황후께서 일본군의 자객에 의해 건천궁에서 살해당한 사건은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비극적 역사로 남아 있다” 며 “국가가 강성해야 이웃 나라들이 넘보지 않는다. 그래서 민족사관에 기초한 우리 역사 바로 보기와 역사를 통한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명성황후 산신제례를 계기로 일본을 똑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며 “비운에 가신 국모 명성황후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조국애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자 죽엽산 명성당에서 산신제례를 갖게 된 것을 전국 무속인과 함께 축원드린다” 고 전했다.

채진희 회장은 “죽엽산의 죽엽을 파자해보면 군대를 의미한다고 한다. 명성황후의 신명을 모셔 온 분이 여럿이 있으나 군대를 의미하는 지명에 합당하게 명성황후를 모셔 온 분들은 없었다” 며 “이런 점에서 죽엽산의 명성당이 명성황후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번 산신제례의 특징은 궁중제례인 종묘제례 격식을 따랐다. 원래 민가에서는 종묘제례를 거행할 수 없으나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를 부부신명으로 함께 모셨기 때문에 종묘제례가 가능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산신제례가 끝난 후 이운익 대한경신연합회 포천지부장, 무령당 장대감 등 무속인들의 한양굿 공연이 이어졌다.



▲ 노중평(오른쪽) 회장과 채진희(왼쪽) 회장이 명성황후의 신당인 명성당에서 숯대를 들고 나와 산신제례를 지내기 위해 행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친구들이여 파주집에 가서 소주나 한 잔하자

노중평

파주집은 을지로 입구 쪽에 있는 도가니탕집이다. 이곳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서 다시 가게 되었다. 먼저 그곳에 갔을 때는 집사람과 함께 갔었다. 그때 집사람은 도가니탕을 시키고 나는 설렁탕을 시켰다. 느끼한 음식을 내가 좋아하지 않으므로 설렁탕을 시켰던 것이다.

파주집 근처에 옛날에 내가 다녔던 청계淸溪국민학교가 있었다. 지금 학교는 없어지고 무슨 회사가 들어서 있다. 어린시절에 내가 뛰놀던 운동장은 주차장이 되어 있다. 그때 나의 단임 선생님의 성이 명명이었다. 지금 그 선생님의 이름은 잊었지만 성만은 기억에 남아 있다.

내가 청계국민학교에 갔을 때는 1.4후퇴에서 막 서울이 수복되어 서울에 들어왔을 때였다. 집이 시청 뒤에 있어서 시청 뒤 집(지금은 시청에 흡수되었다)에서 청계국민학교에 다녔다. 나는 그때 6학년이었다. 6학년은 단 한 반이었다. 남학생이 반, 여학생이 반이 함께 공부하였다.

나는 특출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중학교에 가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름을 잊어버렸다)에 응시하여 전교에서 1등을 하였다.

그때 서울에서 최고로 치는 중학교가 경기중학교였는데, 나 혼자만이 경기중학교에 갈 수 있는 점수를 딴 것이다. 그때 경기중학교에 갔으면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나라의 지도층에 들어갔던가, 실력이 딸려서 자퇴했든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내게 문재文才가 있음을 발견해 주신 분은 명 선생님이었다. 그때부터 글을 써야 할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았던 외삼촌(작고)와 외사촌형이 자기들이 다니는 서울공업에 가라고 꼬셨다.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가서 보니까 서울공업이 중학교를 하나 낳아서 영등포중학이 되어 있었다. 경기중학에 갈 수 있는 점수를 가지고 시험 치는 시늉만 하면 갈 수 있는 신설 영등포중학에 합격하게 된 것이다. 후에 서울공업은 영등포중학을 버리고 강남중학을 다시 낳았고 영등포중학은 새로 영등포고등학교를 만들었다.

서울공업에 가고 싶어했던 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단히 온당치 못한 처사로 생각된다. 나의 중학교의

정체성이 애매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짓은 머리가 텅 빈 사람이라 해도 하지 않을 짓이다.

3년 후엔 결국 서울공업 건축과에 가게 되었다. 가서 보니 건축은 나의 기질에는 맞지 않는 공부였다. 어영부영하며 3년을 보내고 졸업하였다. 그러나 명 선생님 덕에 일찌감치 깨달은 글 쓰는 것은 놓지 않았다. 소설이나 시를 써야 글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의 취미가 엉뚱한 데로 발전하고 있었다. 소설이나 시 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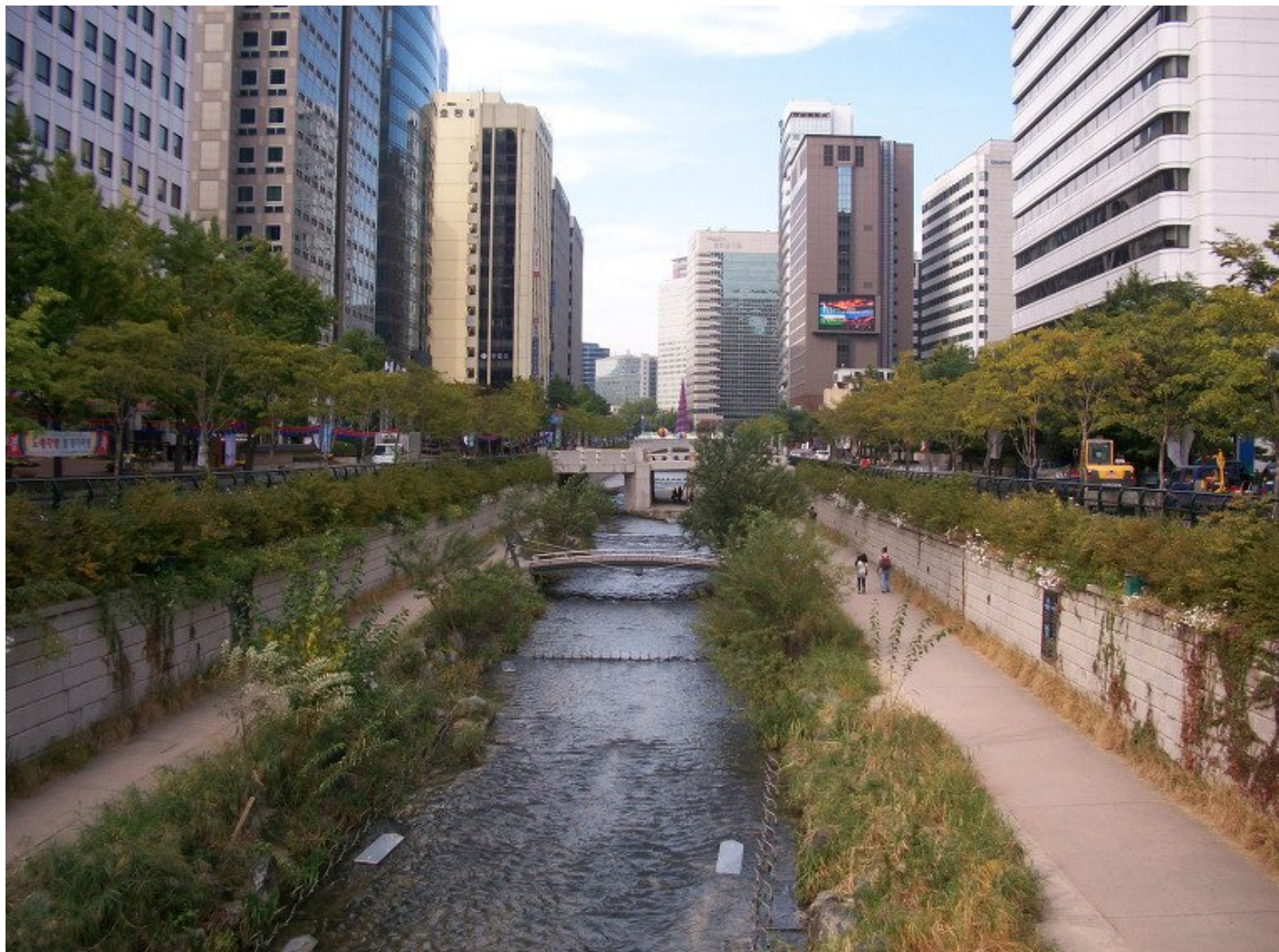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한다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므로, 내게 제일 손쉬운 것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다. 시험보아서 공무원이 되면 철 밥통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무원이 되었다.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문단에 나갔고, 글을 쓰면서 신화, 상고사, 전통종교, 문자학 쪽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제는 무엇인가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돈과 안락과 권력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다 부질없게 보이는 것들이다.

내겐 아직도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나이를 너무 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대낮에 지난번에 집사람과 마주 앉아서 자작으로 소주를 딸아 마시면서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 근처에서 겪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였다. 오늘 또 옛날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주집 주인은 먼저 왔던 나와 집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콩지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멀지 않은 앞날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하나 이루어진다면, 나의 친구 몇 명을 파주집에 데리고 와서 도가니탕을 시켜 놓고 소주를 한잔할 생각이다. 그러면 수표교 옆 동네에 살았던 공수, 을지로 2가에 삼일기업이 있을 때 백수인 내게 열심히 술을 사준 소현이는 아마 즐거워할 것이다. 나와 친구들이 가면 밥상에 백김치를 놓아주던 공수의 큰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시청 뒤에서 뒤통거리는 나를 안스러워 하던 내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수표교가 있는 청계천은 이렇게 변했다. 오늘날 청계천은 녹색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상징처럼 되었다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써서 문단의 말석을 차지했는데, 퇴직을 하고 나서 글을 쓰는 선후배 동료들이 모여서 만든 문학동아리에서 작품집을 하나 내고 있다. 어느 해엔가 신년회를 3.1빌딩에서 한 적이 있었다. 회원들이 다 돌아간 후에 나는 홀로 남아서 6. 25사변 이전에 살았던 옛 동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내려다보는 곳이 총무로 3가였다. 나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던 해에서부터 6. 25사변이 나기 직전까지 중부경찰서 맞은편에서 살았다. 그때는 을지로 거리에 전차가 달렸고, 제비들이 길 위를 스치며 날아다녔다. 6. 25사변이 터지던 날 그 이후로 전쟁 영화를 보는 듯한 세월이 흘러갔다. 나는 그때 청계국민학교로 가기 전에 지금은 극동빌딩이 들어서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일신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때의 다정했던 친구들은 지금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어디에 사는 지도 모르고 있다.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지금 만난다고 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6. 25 사변이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헤어지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살았을 것이다.

그때 아래윗집에 살았던 죽자竹子는 지금 살아 있거나 한 것인지.... 나보다 한 학년 위 6학년이었던 죽자

는 내가 평생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 얼굴마저 잊어 기억나지 않지만, 죽자는 내 가슴 속에는 언제나 일신국민(요즈음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다. 나는 5학년 학생이고.

내가 글쟁이가 된 후에 나의 글에서 단 한 번도 반 일적反日的인 글이 나온 적이 없었다. 늘 우호적인 글이 써졌다. 이걸 내가 친일파여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친일파가 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키를 잡아주는 사람으로 한국 사람인 아버지와 일본 사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죽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나는 언젠가는 한국과 일본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와 일본이 언어가 다르더라도 조상이 같으므로 일본의 신도와 한국의 무교가 융합이 되는 때가 오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인종에 다문화시대로 가고 있는 지금 생각해 볼 일이다.

中性子を 신으로 볼 수 있을까?

노중평

2010년 11월 1일, 신문과 방송은 다음과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아래 글은 <뉴시스> 보도(ppjaye5444@newsis.com)를 재구성한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양명승)이 1일 오전 연구원내 냉중성자 실험동 현장에서 냉중성자 연구시설(CNRF;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을 준공하였다.

냉중성자 연구시설은 냉중성자(cold neutron) 산란장치 7기로 이뤄져 있는데, 7기의 냉중성자 산란장치 중 40m 중성자 소각산란장치(40M-SANS), 18m 중성자 소각산란장치(18M-SANS), 수직형 중성자반사율측정장치(REF-V), 생체계면 반사율측정장치(Bio-REF) 등 4기는 시험 가동을 완료하였고, 이날부터 국내외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나머지 3기 중 극소각산란장치(KIST-USANS)는 내년 4월 중에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며, 냉중성자 3축 분광장치(Cold-TAS)와 디스크초퍼 비행시간분광장치(DC-TOF) 등 2기도 내년 초 설치, 이후 초기 가동시험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현재 세계에서 냉중성자 연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미국, 독일, 호주, 일본, 헝가리 등 6개국으로, 하나로 냉중성자 연구시설은 지난해 9월 첫 냉중성자 생산 이후 냉중성자속(neutron flux, 1 cm²의 면적을 매 초 통과하는 중성자의 수)과 생산량 등 냉중성자의 품질 측정 결과 프랑스 ILL, 독일 FRM-2에 이어 세계 3위권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한 바 있다.

냉중성자는 4~20 옹스트롬(Å)의 파장을 가지고 있어 1~100 나노미터(nm) 영역의 물질 구조를 연구하는데 주요한 수단이 되며, X-선이나 레이저와 달리 극히 낮은 밀리전자볼트(meV)의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체 물질을 파괴하지 않고 볼 수 있어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생산된 중성자를 영하 250도의 액체 수소로 극저온화한 냉중성자를 이용하여, 살아있는 생체 시료의 구조 분석 등 나노 및 바이오 연구, 소재 및 재료 연구 등 다양한 기초과학과 응용 연구, 산업적 이용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냉중성자 연구시설 가동으로 그 동안 국내에서는 어려웠던 비탄성 중성자 산란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고,

마이크론, 나노, 바이오 구조 분석 분야에서 첨단 분석이 가능한 냉중성자 연구시설이 국내에서 본격 가동되었다.

냉중성자 산란장치를 이용한 연구개발 결과는 전자부품, 컴퓨터 칩, 평판 디스플레이 개발에 활용되는 나노소재 원천 기술 개발, 난치병 치료에 활용되는 약물전달 물질 개발 등에 활용되는 등 NT, BT, IT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또 나노-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에 인용한 이러한 기사는 우리나라가 물질문명 발달의 최첨단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미시의 소우주에서 소우주를 관장하고 있는 신의 존재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지금과는 다르게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고전적인 신은 창조하고 운용하고 죽이는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신, 창조된 세상을 운용하는 운용신, 창조한 생명을 죽이는 살명신殺命神의 3 가지 기능을 하는 신으로 본다. 생명 창조에서 시작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 싸이클의 기승전결起承轉結이 있는 것이다.

고전적인 우주관인 점성학적인 종교관은 천문학적인 우주를 대우주로 보고, 비천문학적인 우주를 소우주로 본다.

대우주를 신적인 존재로 보는 종교는 남두육성은 생명탄생을 관장하는 별, 북두칠성은 죽음을 관장하는 별, 또한 북두칠성을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는 별로 본다. 그러나 오늘날 대우주에서 특정한 별들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점성가들이나 믿을 정도로 역할이 축소되었다.

양자물리학적인 종교관은 우주를 소우주로 보고, 소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양자를 외곽신外廓神으로, 중성자를 외곽신이 둘러싸고 있는 내곽신內廓神으로 보고자 한다. 양자와 중성자의 결합체인 쿼크를 하나의 영생체로 보기 시작하면 신의 형태가 내곽신과 외곽신으로 구성된 쿼크형의 신으로 생겼다고 보는 것이다. 모든 물질의 기본 형태인 쿼크가 그러하듯이 신으로 호칭될 수 있는 쿼크의 특징도 파동과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쿼크를 시간적인 존재로 보면 에너지의 파동으로 보이고, 공간적인 존재로 보면 빛의 알갱이인 광자로 보인다고 양자물리학자들이 말하였다. 원자에 둘러싸여 있는 중성자는 원자핵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 수록 외부로 방출려 하는 힘이 증대되어 가는 극소단위의 존재물이다. 이 쿼크가 가지고 있는 운동성과 활동성이 창조와 파괴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양자역학적인 신의 능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때의 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이다. 여기에서 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성자이다.

〈조선일보〉 ‘뉴 테크놀로지 판’ 에 이길성 기자가 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위에 쓴 글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이 인용해 보기로 한다. (필자 정리)

예를 하나 들어 보기로 한다. 웨이퍼로 불리는 소재가 있다. 순수한 실리콘 결정체가 웨이퍼인데, 실리콘은 실리콘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중성자를 쏘이면 실리콘 원자가 비금속 원소의 하나인 인으로 변하면서 도체나 부도체가 아닌 반도체가 된다. 이 웨이퍼를 한 장 한 장 잘라내면 반도체 웨이퍼가 된다. 이때 중성자가 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인 실리콘 결정체가 만들어졌을 때 이를 완성 이전 단계의 신으로 볼 수 있다.

중성자는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을 촉발시키는 입자이다.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이 시작되면 엄청난 수량의 중성자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튀어나오는 중성자는 냉중성자와 열중성자로 구분된다. 실험용 원자로에서 얻을 수 있는 중성자는 1초에 단위면적(cm^2)당 100조 개에 가까운 수준이다.

냉중성자는 에너지가 X레이의 100만분의 1 수준이다. ‘방사선측정장치’의 X레이보다 파장이 길고, 전자현미경의 전자보다 파장이 짧다. 이 범위가 1~100나노미터 크기를 측정하기에 좋은 파장이다. 냉중성자는 나노생명과학분야에서 인체의 세포막을 뚫고 침입하는 메커니즘을 관찰하는데 쓴다. 냉중성자를 쏘면, 살아있는 세포나 병원균의 세포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핵분열과정에서 감속재減速材를 거치며 에너지가 1억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중성자를 열중성자라고 한다. 열중성자는 1나노미터 이하의 원자세계의 관찰, 암세포의 표적標的 치료, 초고가의 반도체 생산에 쓰인다.

암을 치료할 때는 붕소가 포함된 화학물질을 체내에 주입한다. 붕소성분이 암세포에 달라붙는다. 열중성자를 붕소가 달라붙은 암에 쏘면, 붕소가 붕괴하면서 짧은 파장의 전파가 나와 암세포를 죽인다. 붕소항암치료는 뇌종양에 좋다.

이상을 보면 중성자가 냉중성자와 열중성자로 나뉘어 창조하거나 소멸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성자가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성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른 비유를 들어 보기로 한다. 이번에도 예수님 비유이다.

예수님이 바울 앞에 빛으로 나타나신 동안 예수님의 에테르형 몸(영체)에서 나온 빛이 바울의 육신을 감전시킨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모른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질량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감전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의 몸에서 중성자를 너무나 많이 방출시켰으므로 중성자의 방출량을 증대시키면 시킬 수록 암세포가 파괴되듯이 점점 빠르게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을 죽일 의사가 없으므로 그가 죽지 않을 만큼 중성자를 내보내고 그 양을 더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때 바울의 몸에서도 전자가 튀어 나온다. 예수님이 보내는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바울의 몸에서 방출되

는 전자의 량도 그만큼 더 튀어 나온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전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불가능할 것이다.

내 자신도 이러한 체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한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먼저 빛의 입자와 전자의 성질에 대하여 우리가 쓰는 언어로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광전효과를 통해 빛이 전자와 상호작용을 할 때 입자로 행동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리학자이므로 많은 실험을 한 끝에 빛이 파동으로서 입자의 성질을 가질 때가 있다고 증명했을 것이다. 아마 이러한 경우가 바울이 영靈이 된 예수를 보게 되었을 때, 예수가 쏜 빛의 입자로 만들어진 물질파에 두들겨 맞아 행복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빛의 기본적인 성질은 파동이다. 빛은 파동으로서 다른 빛을 간섭하고 회절한다. 바울이 예수가 발산하는 빛에 간섭받고 회절되었을 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전자에 기력을 다 빼앗기면 이러한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카리스마 앞에서 누구든지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파동은 흔들림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파되어 나가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파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해 주는 매질이 흔들리면 에너지가 전파해 나간다. 파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매질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수집하기만 하면 파동의 실체를 증명해 보일 수 있다. 매질의 파장, 진동수, 주기, 진폭과 같은 물리량을 측정함으로써 파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입자는 질량과 위치, 운동량, 에너지와 같은 양으로 그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바울이 오늘날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파동 물리학자가 될 수 있다면, 빛으로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그에게 보낸 빛의 파동과 입자를 매질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존재를 신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동과 입자로 나타나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의 성질을 파동물리학적인 이중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파동물리학적인 이중성을 밝혀낸다고 해도 내 자신이 이를 체험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예수님이 처한 파동물리학적인 세계와 내가 처한 현실세계는 전혀 다른 별개의 세계이다. 나의 상식으로서는 통하지 않는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처한 세계를 이해하려면 또 다른 장치나 도구를 필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에서 내세운 신이 관음보살이다. 관音觀音은 음을 본다, 즉 소리의 파동을 본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리의 파동을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보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본다고 한 것이다. 소리를 본다는 말엔 관세음보살을 파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그렇다면 불교가 이러한 힌트를 어디에서 얻게 된 것일까?

〈부도지〉에 따르면, 음에는 8개 방위로 파동처 나나가는 음이 있다. 이 음이 팔여八杼의 음이다. 마고는

팔여의 음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이 말을 바꾸면 마고가 우주에 가득한 진동에서 태어났다는 말로 해석된다.

조디악 12궁도에서 보면 마고의 탄생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4,000년 전인 쌍여궁시대雙女宮時代に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이 없었던 시대에도 마고는 존재했을 것이므로 마고가 얼마나 오래 전부터 지구에 와서 좌정하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역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지상에 있는 어떠한 종교에서도 마고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종교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미신으로 몰아 쓰레기통에 버린 곳에서만 마고를 추론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고전적인 호출방법으로 마고를 호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쓰는 도구가 팔주령八珠玲으로 불리는 방울이다. 청동기시대의 유물로 팔주령이 남아 있는데, 팔주령을 울려 울려를 일으킴으로써 우주를 진동시키고, 이 진동의 파장으로 마고를 호출해 왔던 것이다.

만약 마고가 진동체라면 반드시 마고의 존재가 신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고가 빛이고 소리가므로 진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가진 존재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이중성이 증명이 되면 신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고를 신으로 증명하는 데에 유리한 점은 방울의 울림이 마고를 호출하는 도구라는 데에 있다. 울려를 진동시켜 마고를 신으로서 활동하게 하여 마고의 존재를 입증해 보는 것이다.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운동량)에 반비례하는 파장을 가진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원자 구조, 보아의 모형, 원자와 전자를 파동으로 그리지 않고 입자로 그렸다.

전자와 양자가 물질을 분해하여 마지막에 나오는 소립자이므로 이 소립자는 파동을 가지고 있다. 전자나 양성자와 같은 소립자는 측정이 가능한 성질을 나타낸다.

소립자가 파동을 가지므로 소립자의 모체가 되는 물질 또한 파동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소립자는 파동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소립자의 모체가 되는 물질의 구성체인 사람이나 자동차는 움직이는 동안 파동의 실체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나타내는 파동의 파장은 질량이 형편없이 적어서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파동의 질량을 감지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이는 우리가 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신이 빛이고 소리인 이상 파동과 입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볼 때, 신은 파동물리학과 양자물리학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신의 파장이 인간의 파장보다도 더 형편없이 질량이 적으므로 측정이 불가능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현실생활에서도 전기의 파장을 느끼는 경우와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전기메트위에서 잠을 잘 때 잠을 자는 사람은 전기의 파장을 느끼지 못하지만 매트 밖에 있는 사람이 매트 위에서 잠자는 사람에게 손을 대었을 때 깜짝 놀랄 만큼 전기의 파장을 느끼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이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자 파동에 실린 양자로 볼 수 있다.

파동의 실체는 전자(전기의 기본 양-음의 전하를 띤 가장 가벼운 하전입자)로 불리는 전기에너지에 실린 양자이다. 원자를 분석하면 그 원자 안에는 원자를 채우는 전자들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비유하여 말한다면, 한 개의 난자 안에 무수한 정자가 들어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전자는 원자보다 더 질량이 적은 입자이다. 그 질량은 수소원자의 $1/1,837$ 수준이다.

중요한 것은 전자가 모든 원자의 구성요소라는 사실이다. 전자없이 원자는 구성되지 않는다.

전자에는 양전자(양전하를 가진 전자 - 음전하를 띤 전자의 반입자反粒子)와 음전자가 있다. 양전자도 물질구성요소 역할을 한다. 전자선은 X선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한다.

글을 쓰다 보니,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글이 되어버렸는데, 말하고 싶었던 것은 중성자, 전자, 양자, 원자 등등을 신적인 존재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의 제기이다. 이들 중에서 가장 신에 근접한 것을 들라면 중성자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백석동천에서 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노중평

유승엽 선생은 나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생각된다. 내가 <유적에 나타난 북두칠성>을 출간했을 때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된 인연이었다. 그때 나는 문화역사운동단체인 [한배달]에서 북두칠성에 대하여 강의요청을 받고 인사동 한배달 사무실에 가 있었다. 유 선생이 초면에 나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여 한배달로 오라고 하였고, 그 후로 주욱 그때의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으니 20년 가까운 세월이 되었다.

한배달에서 몇몇 사람이 역사천문학회를 만들었고, 그때 유 선생이 총무를 맡았다. 나는 강북문화원에서 [삼각산축제]라는 이름으로 <삼성제례>를 복원하였다. <삼성제례>는 조선왕조 때 구월산 삼성당에서 행해오던 한인, 한웅, 단군왕검 세분 조상에게 나라에서 올렸던 유교식 제사였다.

내가 살던 동네에 삼각산이 있었고, 삼각산이 각 시대의 시조를 제사지내는 중사中祀를 행할 수 있는 산이라, 강북문화원이 생길 때 조상제사를 지내자고 제안하여, 조선왕조실록에서 번역을 하고(그때는 조선왕조실록 번역본이 세상에 나오기 전이었다), 주민을 교육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유 선생은 내가 강북구에서 부천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제사지내는 일을 뒤에서 거들었다.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하는 김용자 선생이 팽주를 하라는 내 요청을 받아들여 팽주를 하면서 <삼성제>를 도왔는데, 제사에 필요한 다기를 운송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용자 선생을 불편하지 않게 차에 모시는 등 대단한 정성으로 도왔던 것이다.

<칠석제>를 복원할 때도 그랬고, 무슨 행사든 행사 때마다 바늘에 실 가듯 도왔다. 이런 일은 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요즈음은 유 선생이 부암동 산에 [백석동천白石洞天 산후조리원産後調理院]을 짓는데 신명을 다 비치며 일하는 것을 본다. 필생의 정성을 다 쏟아 부어 이 일을 하고 있다.

사람이 하는 일에, 하늘이 하는 일, 조상이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의 세 가지 일이 있다고 보는데, 하늘이 하는 일을 천천이 하는 일, 조상이 하는 일을 지지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을 인인이 하는 일로 보면,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었을 때는 천지인天地人이 하는 일로 볼 수 있다. 지금 그가 하는 일이 천지인이 하는 일로 생각된다.

[백석동천산후조리원]을 착공을 하기 전에 내가 잘 아는 어느 분이 그 터를 보고 앞으로 이 터에서 큰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백석동천 산후조리원]을 거쳐간 아기 중에서 누군가 큰 인물이 나올 것이라는 말로 해석되는 말이다.

지금 건물 4동을 짓는데, 전면에 짓는 건물 2동은 3층 건물이고 맨 뒤 북쪽에 짓는 건물은 삼신을 모시는 [삼신전三神殿]이다. 이 외에 건물이 하나 더 있다.

나는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내가 여러 군데 산후조리원을 가 보았지만 삼신할머니(마고할머니)를 모신 삼신전을 가진 산후조리원은 아마 [백석동천산후조리원]이 효시가 아닌가 한다.

이곳에 있는 건물들이 건물 하나는 삼신인데 그 앞에 낮게 있는 2동의 건물은 백호의 두 발처럼 보인다. 백호의 2개의 발 앞에 건너다보이는 것이 인왕산이다. 인왕산仁王山은 일제점령기에는 왕포 옆에 일대를 붙여 왕旺으로 불렸다. 일본의 왕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총독부 건물을 지을 때도 본관건물(옛 청화대본관)이 서쪽인 인왕산仁旺山을 바라보게 하였다.

그런데 북쪽에서 삼신전과 삼신전을 지키는 백호의 두 발이 딱 버티고 있으니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인왕산의 왕기王氣를 제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 기상이라면 앞으로 큰 인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볼 수 있다.

필자가 왜 이런 해석을 하느냐 하면 격암선생의 예언인 도부신인桃符神人 출현설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격암 선생의 예언에 따르면 도부신인이 출생하게 되는 곳이 인부지간仁富之間이거나 성주산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현상태에 인부지간에는 왕기를 가진 산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왕기를 띤 산은 삼각산이거나 인왕산이다.

[백석동천]은 신선들이 모이는 서쪽이라는 말이다. 백석동천이 있는 마을을 백사실이라 한다. 백사실이란 백사 이항복 선생이 살았던 동네라는 뜻이다. 백석동천이 마주보는 곳에 인왕산이 있다. 그러므로 이곳이야말로 미래에 큰 인물의 출현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 곳으로 생각된다.

유선생이 10여년 동안 〈삼성제〉에 참여했던 것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볼 수 있다. 최고 조상이 도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방선파의 도부신인과 그노시스파의 소피아

노중평

소래산과 노고산이 마주 바라보이는 곳이라면 격암 선생이 <도부신인>에서 예언한 도부신인이 태어날 곳이다. 격암 선생은 또 <말운론>에서 이곳에서 삼신산인이 출현한다고 하였다. 이곳이 바로 성주산이다. 그리고 같은 <말운론>에서 부천과 인천 사이에서 삼신제왕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였다.

삼신산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때는 마고시대이다. 마고시대라면 조디악 12궁도로 따져보면 대략 지금으로부터 14,000년 전 쌍여궁시대가 된다. 박재상 선생은 그가 쓴 <부도지>에서 마고성을 마고본성(마고대성이라고도 하였다)·실달성·허달성의 삼성이라 하였다. 그러나 어느 산이 어느 성으로 불렸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

<말운론>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女古老人草魚禾艸來 相望對坐地 三神帝王始出時

여고노인초어화초래 상망대좌지 삼신제왕시출시

노고산과 소래산이 서로 대좌하여 마주보는 땅에 삼신제왕이 출현하실 때.....

이 글은 초기백제역사를 밝힐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다. 백제를 세운 소서노召西弩가 그의 아들 온조溫祚와 함께 소래蘇萊로 들어왔음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소래산에는 마고신상으로 볼 수 있는 여신의 입상이 마애磨崖 형식으로 새겨져 있다. 초기백제시대의 작품으로 추정이 가능한 작품이다. 삼신신앙-마고신앙의 유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한반도에 남아 있다. 여기가 백제의 북방한계선임을 증명해 주는 유물이기도 하다.

역사기록에서 소서노는 미추홀彌鄒忽에 상륙하여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넓은 땅을 정벌하였고, 그가 정벌한 땅을 잉벌노현(仍伐奴縣 : 지금의 시흥 · 광명 · 영등포 지역)라 하였다. 미추홀을 역사가들이 인천이라 했는데, 미추홀을 인천이 아닌 소래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소래가 소서노가 온 곳이기 때문에 소래라고 하였다고 보면, 이곳이 미추홀로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해석의 키워드가 되는 것은 女古人, 草魚禾艸來, 三神帝王이다.

女古人

여고女古는 고姑를 풀어쓴 말이다. 마고麻姑에서 마麻를 빼고姑만 썼다. 노인老人은 노인 그대로 이다. 그러므로 女古人은 마고노인이라는 뜻이다. 마고는 여신이므로 마고노인은 마고할머니-마고할미가 된다. 마고할머니를 모신 산이 노고산老姑山이다. 소서노가 처음 마고를 모시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노고산이라는 이름이 생겼을 것으로 본다.

草魚禾艸來

草魚禾艸來를 다 합치면 소래蘇萊가 된다. 경기도 시흥시始興市에 속한 소래와 소래산을 의미한다. 삼국통일기에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상륙하여 소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나, 이미 백제를 건국하기 위하여 소서노가 상륙하기 이전에 소래에 상륙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산동반도에서 소도蘇塗를 운영했던 레이족萊夷族에 속한 소성일족蘇姓一族이었다. 소성일족은 우리 고대역사에서 소풍蘇豊이라는 이름, 비서갑菲西岬이라는 이름, 하백녀河伯女라는 이름, 소벌도리蘇伐都利라는 이름을 남긴 집안이다.

三神帝王

본문에서 삼신은 마고삼신을 의미한다. 마고는 삼신이므로 제왕으로 볼 수 없는데 제왕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엔 2가지 뜻이 합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마고는 마고삼신이고 제왕은 그의 아들 도부신인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고의 나라를 마고지나麻姑之那라 하였는데, 삼신제왕은 마고지나의 제왕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마고나라의 역사는 대략 10,000년 전에서 1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문에서는 마고의 아들 도부신인이 성주산에 하강하여 오실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영지주의(그노시스파)의 여러 파 중에 동양신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파가 있다고 하는데 필자는 이들이 마고신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보고 있는 영지주의 기독교에서는 마고처럼 스스로 남녀양성을 가진 분을 하느님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 하느님이 낳은 자식이라야 신성한 자식이라 하였다. 실제로 마고가 혼자서 궁희와 소희 두 딸을 낳았다고 <부도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마고가 하느님 대접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궁희와 소희의 후손으로 신령하게 태어난 신인神人을 격암 선생은 궁을지인弓乙之人이라 하였다. 궁을지인은 음양지인陰陽之人이다. 오늘날의 남녀인 것이다. 궁을지인 중에서 도부신인이 태어나 삼신제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노시스파에서는 남신에게서 여신으로 독립(타락)해 나간 여신을 소피아(지혜)라 하였다. 그러나 악이 신의 세계 밖에 존재해 있다가 종들을 데리고 타락한 소피아를 가두기 위하여 물질세계를 창조하였다고 한다. 소피아는 물질계로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육체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소피아의 후손이라 한다. 인간은 소피아처럼 신의 빛을 자신의 내부에 가지고 있다.

소피아의 후손들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빛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왔으며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배

우기만 하면 물질계를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은 〈부도지〉에서 말하는 해혹복본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조상 중에서 소성족이 운영한 소도蘇塗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이어주는 중간세계로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당연히 종교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소도는 오늘날의 사원과 같은 곳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원의 관리자는 하백녀였다. 그노시스파에서 소도의 하백녀를 벤치마킹하여 소피아라 칭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이 신성계는 소도가 사라짐으로서 무너지고 인간들이 제멋대로 만든 화려함과 엄숙함과 신성함을 가장한 조작한 종교시설로 대체되었다. 이런 가짜를 모두 폐하고 새로운 부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부신인이 오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仙의 색깔은 백색

노중평

우리 민족을 백의민족이라 한다. 그런데 왜 백의민족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다만 백색을 숭상하여 백의를 입었기 때문에 백의민족이라 한다고 생각해 왔을 뿐이다.

과연 그랬을까? 이런 것은 막연한 추측일 뿐이다. 우리 민족이 백의민족이 아님은 단군세기에서 밝혀진다. <단군세기> 2세 부루단군 계묘년(BC 2238)3월에 부루단군이 조서를 내려 “백성들로 하여금 머리카락을 땅아서 목을 덮도록 하고 푸른 옷을 입게 하였다(下詔使民 編髮蓋首 服青衣)” 는 기록이 있다.

이 조칙詔勅을 잘 지킨 사람들이 우리와 동족인 청濔나라 사람들이었다. 당시엔 조선이나 청나라나 다 단군조선을 구성했던 오가五加에 속해 있었다. 오가는 인종 아이콘이 소, 말, 양, 개, 돼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청나라 사람들의 조상은 돼지인 저가豬加에 속해 있었다. 다른 인종들이 후대에 그들을 폄하하여 돼놈이라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을 헛 싹처럼 버리는 사람들이나 부루단군의 조칙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부루단군이 청의를 입으라 한 것은 우리가 동쪽에 사는 인종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의白衣를 입은 데엔 이유가 있었다. 백의가 선仙을 득도한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신복神服이었기 때문이다.

백의선족白衣仙族. 동방선파東方仙派의 제사. 삼각산에서 동방선파의 조상인 한인,
한웅, 단군왕검에게 삼성제례三聖祭禮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백의에는 서쪽에 사는 선인仙人의 복색服色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백의선인白衣仙人이라 불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고구려에서 선인을 조의선인皁衣仙人이라 했기 때문이다. 조의선인이란 검은 색의 옷을 입은 선인이라는 뜻이다.

신라에서는 마복麻服을 입었다. 마복을 입은 우두머리 화랑을 마복칠성麻服七星이라 하였다. 마복의 색깔은 마직麻織으로 지은 옷이기 때문에 황색黃色이었다. 황색은 오방색五方色의 중심이 되는 색이다. 신라의 화랑들은 황의를 입고 선도仙道를 수련하였다. 그래서 황의선인黃衣仙人이라 부를만 했다.

이렇게 보면 적의赤衣를 입은 적의선인赤衣仙人이 있을 법하다고 생각된다. 임진왜란 때 곽재우 장군은 항상 적의赤衣를 입고 전투에 나갔다. 그가 스스로 적의선인赤衣仙人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 유습은 지켜지고 있다. 풍물패의 복색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오방색으로 쾌자를 해 입고 풍물風物을 치는 것이다. 풍물이라는 말은 풍이風夷의 문물文物이라는 말이다. 풍이의 문물은 풍이족의 문물이라는 뜻이다. 풍이족은 1만 년 전에 한국을 세우고 풍이의 문물을 온 세계에 전파한 인종이다. 풍이족의 유습이 지금도 풍물패의 길곳에 전해 오는 것이다.

그리고 무당들도 이를 지켜 오고 있다. 장군굿, 신장굿, 대감굿을 할 때 오방기五方旗를 휘두르며 춤을 추고 또한 오방기로 점을 치기도 하는 것이다.

격암 선생은 <성산심로>에서, 선을 득도한 사람을 양백지인兩白之人이라 하였다. 양백지인은 달리 말하면 궁을지인弓乙之人이다. 이들을 하늘이 택한 사람이라 하여 천택지인天擇之人이라 하였다.

궁을이 음양을 의미하므로 양백지인은 선을 득도한 남녀 한 쌍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을 양백이라 한 것은 백의를 입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의는 선의 도복으로 볼 수 있고, 백의민족은 한민족이 아니라 선을 득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백의를 입었을 때 백의민족으로 불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산심로>에서는 이들을 선인善人이라 하였다. 선인이란 선인仙人을 의미한다. 이 나라 역사를 타종교가 침탈하기 전까지 우리 조상은 양백지인이 되는 것을 최고의 득도로 생각하였다고 생각된다.

黑 뒤에 黑赤이 나오고 그 뒤에 白이 나온다.

노중평

인류를 다스리는 것은 경제가 아니요 군사가 아니요 사상이다. 지나간 시대의 사상은 인류를 동서 두 쪽으로 갈라놓고 서로 증오하게 만든 냉전사상冷戰思想이었다. 냉적이 있는 곳은 북쪽이다. 냉은 건조하다. 그래서 고기압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그 기운이 기회가 오면 남쪽으로 내리 뻗으려 한다. 추위가 항상 북쪽에서 오기 때문이다. 북한이 가끔 남한을 못살게 구는 원인은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냉기가 발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오행에서 수극화水克火로 볼 수 있다.

인간이 냉기를 막는 방법은 지휘관이 정위치하여 냉기의 남하에 대비하는 방법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박정희대통령 시절에는 모든 지휘관은 공식생활을 하는 동안 대부분 정위치 근무를 하여 냉기의 남하에 대비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 희熙자를 보면 냉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무리를 해가면서라도 냉기의 남하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에 이상하게도 현무玄武와 유사한 무현武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 현무는 북쪽의 냉기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무현이라는 이름도 역시 북쪽의 냉기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직 중에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 만큼 북쪽에 편향적인 것은 사실이었다. 필자가 보기에 그의 이름에 냉기가 너무 많이 넘쳐서 빚어지게 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냉기가 극에 달하면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25사변이라는 것도 북쪽에 갑자기 냉기가 넘쳐났기 때문이었다. 소련과 중공이라는 거대한 호수가 있어서 무한대로 냉기를 발산하였고 북한이 이 냉기에 치어 주제도 모르고 날뛴 꼴이 된 것이 6.25사변이다. 6.25는 문자 그대로 사변이지 남북통일전쟁이 아니고 남북분쟁도 아니다. 이것이 남북통일전쟁이었다면 남침을 자행한 북한에서 승전하여 통일을 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오행의 금극목金克木이 되어 주저앉고 말았다. 냉기에 치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 희생제물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름에 박정희 대통령의 희熙자와 유사한 명明자를 가지고 있다. 나라의 책임자로서 냉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경제라는 것은 냉기가 발동하면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편안하게 안정을 시키려면 박정희 대통령처럼 지휘관 정위치 근무를 시

켜야 한다. 달리 다른 도리가 없다. 지휘관에게 5일근무제와 같은 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격암 선생의 〈생초지락生初之樂〉의 일부를 소개한다.

火水未濟混沌世 東西分明大亂年 運回周流西域道 一筐春心萬邦和
화수미제혼돈세 동서분명대란년 회운주류서역도 일광춘심만방화

화수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아 넘어가는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운동시합에서 1회전이 끝나고 2회전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2회전으로 넘어가면 그때가 동서가 대란으로 치달게 되는 때이다. 승기는 서쪽에 있다. 봄이 와서 처녀가 광주리에 봄기운을 가득 담아 세상이 화평하게 보인다. 중국이 미국과 대결을 벌이지만 승운은 미국 쪽에 있다.

雲開萬里同看日 陰陽混雜難判世 天地正位永平仙 鳥頭白兮黑赤白
운개만리동간일 음양혼잡난판세 천지정위영평선 조두백헤흑적백

구름이 열리고 만리를 같은 해가 비치니 온 지구에 해가 비치는 밝은 날이라 음기운이 사라지고 양기운만 무성하니 음양이 차서를 잃어 혼잡하게 되어 세상이 난세라 판단하게 된다.

천지가 정위치에 있어야 음양이 차서를 잃지 않아 영원히 평화로운 선의 시대라 할 것이다.

세상이 뒤 바뀌어 세상을 다스리는 검은 사상이 흰 사상이 되고 검은 사상과 붉은 사상이 흰 사상이 된다. 오두백은 백십자로白十字路를 가리키는 선사상仙思想이다. 흑적백은 양백사상兩白을 가리키는 선사상仙思想이다.

보길도 문학체험 참관기

주. 아래 글은 이동섭 선배님의 글인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옮겨 놓았다.

1) 보길도의 문화유산

어제 오후 까지만 해도 날이 흐리고 비가 뿌려서 걱정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날씨가 아주 청명하다. 오늘의 날씨도 쾌청하며 낮 온도는 31도가 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서둘라고 서둘렀는데도 8시까지 양재역에 도착하려니 아침은 걸려야 했다. 마을에서 출발하는 첫 차를 타고 분당선 시발점인 보정역에서 다시 지하철을 바꾸어 탄 후 도곡역에서 또 한번 3호선으로 환승하여 양재역에 도착하니 벌써 아침 07:30분이다. 조국장이 알려준 대로 계단을 오르고 50m를 걸어가니 황호항 회장이 벌써 나와 있었다. 조금 지나니 조성제 국장이 오늘 우리가 타고갈 봉고차를 운전하고 나타났고 곧 이어 회원들이 모였다. 오늘 문학 기행에 참여하기로 한 회원으로는 부산의 성환복 회원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이었다.

서로 인사가 교환되고 우리는 08:00에 모두 승차 양재역에서 정시에 출발했다. 오늘과 내일 양 일간에 우리 팀을 보길도 까지 태우고 갈사람은 우리회의 조국장이고 문화 유적에대한 안내와 체험의 커리큘럼은 박정필교수가 맡았다.

박정길 교수는 오늘과 내일의 일정을 설명했다. 우리가 방문하여 체험할 장소는 해남의 고산윤선도 유적지(사적368호)와 보길도의 세연정으로 정한다고 했다. 그는 목감기에 걸렸는지 마스크를 쓴채 설명인지 자랑인지 반복해가며 보길도에 대한 정보를 두세번씩이나 자상하게 반복한다.

보길도는 전남 완도군의 한 섬인데 인구는 2,902명이며 면적은 32.51Km 입방이라 했다. 이 지역은 해발 300m인데 섬에는 425m의 적자봉과 422m의 광대봉 그리고 350m의 광대봉이 정립한 섬이다. 섬은 해변에 맞닿는 절벽으로 이루어져 동백나무와 활엽수의 군락지가 많다. 이곳의 농산물은 주로 쌀과 보리, 감자 등이다. 수산물로는 천초와 미역, 김등이 있으며 해남일대에서 가장 부촌이다.

보길도는 <다도해 해안 국립공원>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을 듣고 있는동안 우리 일행을 태운 봉고차는 당진 휴게소에 멈춰 섰다. 일행은 모두 나와서 '쉬'를 하고나서 다시 승차했다.

2) 노중평의 <남사고의 나라>와 차성만의 <차의 향기>

차에 승차하자 나는 소설가 노중평의 최근 작<남사고의 나라 우체모탁국>과 과산 차성만 시인의 시집<차의향기>를 읽어보았다.

노중평 작가는 재 작년에도 <유적에 나타난 북두칠성>을 발표했다. 노중평 작가는 진인 격암선생의 계시를 받고 우체모탁국인 부천으로 이사하면서 부천 삼산과 마고지나의 역사적인 연관성을 꼼꼼하게 지명을 해자하여 설명도 하고 유적을 분석하여 입증도 하면서 누구도 손을 못 대본 중국과 우리 한반도의 상고시대 관계를 풀어 나간 것이다. 오늘의 중국은 종래 한족 우월주의를 버리고 요금원청의 중원지배를 야만족이 지배가 아닌 바로 우리 조상이라는 인식 혁명을 동북공정이라는 제목 하에 추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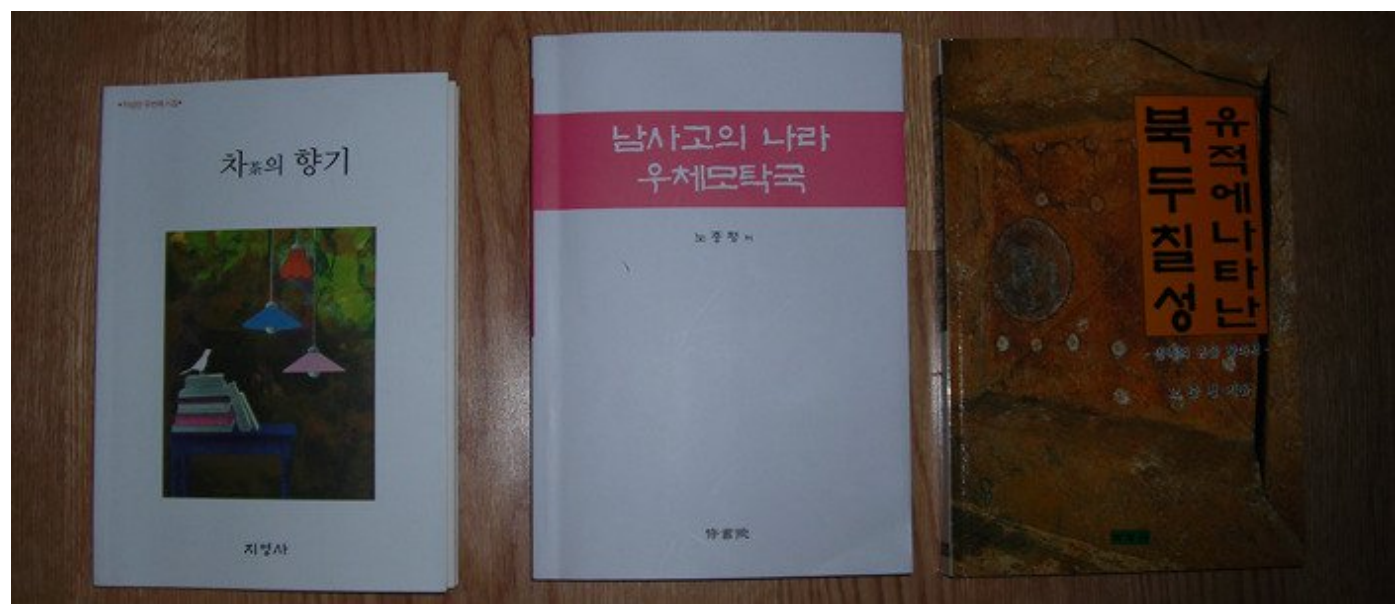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중국을 지배했던 민족은 한족 보다는 북방의 夷족이었음을 그들은 뒤늦게 자성한 것이다. 이족의 나라는 동족의 나라라 라는 공식을 세우고 동북공정은 부여, 고조선, 단군조선. 고구려와 발해는 국민이 여진인이 태반이므로 자기들 조상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이 나라의 반론은 여전히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어디에 있고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어떻게 만 따진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파고들어 연구하는 소설가 노중평은 마고지나의 정체성을 들고 나와 본체를 흔들고 있다. 아, 시원 통쾌하다. 차중에서 일독이 어려워 대충 제목을 읽었지만 일단 평가 할만한 연구라는 생각이 든다.

과산의 <차의향기>를 읽으면서 나는 고려말 선비 이승휴의 제왕운기를 떠올렸다.
한구절 식만 비교하면,

<돌고돌아서 올라가는 민족의 靈山은 長白山이 되고
天池의 물은 알수없는 언어가 되어
서해로 동해로 흘러가고 있었다.
神檀樹 아래 내려온 桓因의 땅에서
인간 세상에 뜻을 둔 배달의 자손이 있어
환웅은 오로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였으니
천부인 세개를 가지고 삼천명을 이끄는
환웅은 신단수 아래에 신시를 열었고.... 과산의 차의향기 시중에서..>

<遼東에 별천지 있으니
中朝와는 斗然히 구별되는 곳

큰 파도(洪濤萬頃) 삼 면에 둘러 있고
 북녘으로 대륙과 이어지는 땅
 중방천리 여기가 朝鮮이라고
 강산의 형승은 천하에 이름있고
 밭 갈고 우물 파는 어진고장 예법의 나라
 華人在 이름지어 小中華라고
 처음에 어느 뉘 나라를 세웠던고
 그 이름 釋帝의 손 檀君님이지
 堯와 같은 해 戊辰년에 나라세워. ... 이승휴의 제왕운기 중에서 >



차성만 시인의 [차의향기] 소설가 노중평의[남사고의 나라 우체모택국]과 [유적에 나타난북두칠성]

세종임금도 조상의 치적을 대국민 홍보하려고 용비어 천가를 지었는데 역시 시문체로 작성했다 그러나 한문을 모르는 국민을 위하여 세종임금은 언문(한글)28자를 만들어 사용하게 하여 용비어 천가의 홍보에 노력했다

3) Essay 문학에 대한 견해

작품의 형식을 말 하다가 화제가 수필의 장르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영어의 essay가 우리말 수필과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장르인지를 놓고 달리는 차안에서 토론이 벌어졌다.,
 주제발표는 내가 시작하고 박정필 교수는 반론을 제기하는데 앞에서 열심히 운전만 하는 조국장도 많은 참견을 던졌다. 나는 영어의 Essay와 우리말 隨筆은 장르가 닮았다고 주장하고 박정필 교수는 Essay는 단지 수필의 영역일뿐 같은 뜻이라 주장했다.

영미의 essay 는 수필을 포함하는 좀 넓은 장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대학에서는 방학 때 리포트를 만들어 내야 학점을 준다. 영국의 대학은 에세이를 제출해야 학점을 받는다. 리포트는 문학의 장르라고 보지 않지만 에세이는 바로 문학이다. 영미에서 말하는 에세이는 필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는 글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수필과 다를 것이 없지만 영미의 에세이는 더 구체적인 몇 가지 요건이 가추어 진다. 중립을 지킨 기사, 논문, 칼럼 등과 같이 필자의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첫째는 설득(Persuasion), 둘째는 정보전달(Exposition)이다. 셋째 이야기거리(Narration), 넷째는 묘사력(Description)이 조화를 이루며 감동을 주는 글이다. 다시 말하면 수필은 영어의 Essay 장르중 한 분야라 할 것이다.

사실 우리의 수필이란 그때그때 본대로 들은대로 느낀대로 붓가는대로 적어낸 문학작품이다.< 동아 국어 대사전>. 우리가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봉고차는 목포 인터체인지를 벗어나고 있었다. 시간을 보니 벌써 다섯 시간을 달려 12:00시 정오다.

<제2부에서 계속>

오방기의 의미

노중평

5방은 전`후`좌`후에 중앙을 더한 방위를 말한다. 또 동`서`남`북에 중앙을 더한 방위로 말하기도 한다. 전`후`좌`우라고 했을 때는 군대의 방위개념이고, 동`서`남`북이라고 했을 때는 도성의 방위개념이다.

군대에서 전`후`좌`우를 전위前衛`후위後衛`좌위左衛`우위右衛`중군中軍이라고 한다. 중군에 최고사령관인 상장군上將軍이 있고, 전방前方은 전위가 지키고, 후방後方은 후위를 담당하는 예비대豫備隊가 지킨다.

옛날에는 이들 부대표시를 사신四神과 색깔로 하였다. 사신은 좌위를 지키는 청룡靑龍, 우위를 지키는 백호白虎로 정하고, 전위는 현무玄武, 후위는 주작朱雀으로 정했다. 청룡은 청색靑色, 백호는 백색白色, 전위는 흑색黑色, 후위는 적색赤色으로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도성인 서울의 좌위에 해당하는 곳은 청룡부대가 지키고 있고, 우위에 해당하는 곳은 백호부대가 지키고 있다. 사신과 색깔이 군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백색을 부대명칭에 쓰는 부대, 예컨대 백룡이나 백마는 오른쪽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 백색이 오른쪽의 색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오랜 세월을 우리의 문화를 지배해 온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를 사행四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단군왕검 때 요임금이 토土的 반란을 일으켜 사행에 토를 더한 오행五行이 정해졌다. 이리하여 황색黃色을 중앙색中央色으로 쓰게 되었다.

도성都城의 방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북쪽이다. 한웅천왕이 천평天坪에 배달나라의 도성을 정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북쪽 방위를 정하는 일이었다. 북쪽에 우물을 파고 이 우물을 자성子井(찬 우물, 냉정冷井)이라고 하였고, 이 우물을 기준으로 하여 남쪽에 우물을 파고 여정女井(더운 우물, 온수溫水)이라고 하였다. 자정과 여정이 정해지면서 도성의 방위가 제대로 될 수 있었다. 지금도 이 유습이 지명으로 남아있다.

굿에서는 군웅거리에서 장군들이 나와 오방기를 휘두르며 오방 춤을 춘다. 이는 장군이 하나님의 직속천군直屬天軍인 신병神兵들을 인솔해 와서 오위진법五衛陣法으로 배치하여 적절하게 지휘指揮하고 통제統制하는 행위를 춤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무무巫舞가 굿을 진행하다가 장군 복색을 하면 장군으로 호칭이 된다.

장군의 의대는 지휘관으로 서 입게 되는 장군 복색, 군웅장군으로서 입게 되는 군웅 복색, 작두장군으로서 입게 되는 여러 종류의 작두장군 복색 등 장군의 의대가 다양하다. 그는 장군 복색을 갖추고서 장군이 되기도 하고 신장이 되기도 한다. 그가 다양한 변신으로 여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이유는 굿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웅이기 때문이다.

그가 춤을 출 때 행하는 행위는 하늘에서 파견한 신장으로서 또 임금을 대리한 장군으로서 군웅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가 앞으로 나가는 행위는 군대가 전진前進함을 의미하는 행위이고, 뒤로 물러서는 행위는 후진後進을 의미하는 행위이고, 왼쪽으로 가는 행위는 좌진左進을 의미하는 행위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행위는 우진右進을 의미하는 행위이다. 그가 도무跳舞를 추는 행위는 하늘에서 적敵들을 섬멸殲滅하고자 함을 의미하는 행위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행위는 공격攻擊의 도를 더해가고자 하는 행위이다. 그가 회무回舞를 추는 행위는 포위包圍하고자 하는 행위가 된다.

장군은 오방기五方旗를 지휘기로 활용하여 신병神兵을 지휘한다. 백색기는 左軍을 지휘하고, 청색기는 右軍을 지휘하고, 흑색기는 前軍을 지휘하고, 적색기는 後軍을 지휘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주팔자四柱八字를 타고 태어나는데, 죽은 후에는 천간지지天干地支에 따라 분류되어 서낭을 지키는 군대에 배속되거나, 용궁을 지키는 군대에 배속되거나, 허궁을 지키는 군대에 배속되어, 서낭을 지키는 별상성수에게 속하거나, 용궁을 지키는 용궁성수에 속

하거나, 허공을 지키는 허공성수에 속하게 되어 신병神兵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나의 조상뿐만 아니라 처가의 조상도 모두 천군에 동원되어 천도遷道에 낀 부정不淨을 씻어내는 일, 악살惡煞을 제살除煞하는 일, 마고삼신에게 지게 된 고를 푸는 일 등에 동원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역사에 이름을 남긴 여러 장군들을 만나게 된다.

무당은 굿을 하면서 장군에 빙의憑依되어 신병을 지휘한다. 즉 천도遷道を 닦으며 천도遷度を 돕는 것이다.

오방기는 마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고는 궁희穹姬와 소희巢姬 두 딸을 낳았다. 궁희에게서 청궁靑穹과 황궁黃穹이 태어났고, 소희에게서 백소白巢와 흑소黑巢가 태어났다. 이들이 유인원類人猿에서 진화하지 않은 현생現生 문명인의 조상이다. 청궁의 후손은 청색인간靑色人間(아랍계열의 인종)이 되었고, 황궁黃穹의 후손은 황색인간黃色人間(한중일계열의 인종)이 되었고, 백소의 후손은 백색인간白色人間(백인계열의 인종)이 되었고, 흑소의 후손은 흑색인간黑色人間(흑인계열의 인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 청룡, 서 백호, 남 주작, 북 현무는 이들 4대 인종의 동물 아이콘이 된다. 마고시대부터 죽어서 영가가 된 인종들이 사주四柱에 배속이 되면서 천군소집영장天軍召集令狀을 받아, 청궁의 후손은 청룡군에 배치가 되고, 황궁의 후손은 황룡군에 배치가 되고, 백소의 후손은 백호군에 배치가 되고, 흑소의 후손은 현무군에 배치가 되어 활동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원자와 원자가 결합하여 분자 단위에서 형성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자가 분해되어 원자로 나뉘고, 원자가 다시 원자핵으로 나뉘고, 원자핵이 다시 핵자로 나뉘고, 핵자가 다시 쿼크로 나뉘어 진동체이자 빛의 알갱이로 돌아간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존재이다.

이들이 지상에 살았을 때가 마고시대였다. 이들은 마고시대에 마고의 영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져 살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살아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죽어서 흩어진 것이다. 그래서 청궁의 후예는 중앙아시아를 담당하게 되었고, 황궁의 후예는 몽고와 시베리아와 동북아시아를 담당하게 되었고, 백소의 후예는 유럽을 담당하게 되었고, 흑소의 후예는 아프리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은 마고가 내린 해혹복본解惑復本이라는 유시만을 갖고 떠나갔으나, 언젠가는 마고의 유시를 실천하기 위하여 마고성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12000년

이나 지난 지금은 그들이 마고성으로 돌아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들이 마고성으로 복귀할 때는 물질적인 존재로 형상화 되어 복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존재가 해체된 영적인 존재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본다.

무당은 군웅굿을 하다가 오방기를 뽑아서 길흉화복을 점친다. 어떤 깃발의 색이 길운에 해당하고 흉운에 해당하는가를 본다. 그러나 어느 깃발이 길운에 해당하고 불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논리에 따라서 길운을 흉운으로 말할 수 있고, 흉운을 길운으로 말할 수 있다. 내가 처한 운이 시대적 상황이나 국가적 길운과 흉운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깃발을 뽑았다고 해도 6.25전쟁과 같은 전화를 당하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 다시 IMF와 같은 상황을 당해도 개인의 길운이 국가적 불운을 극복하지 못한다.

예컨대 백색기를 뽑았을 경우에 이를 백호로 해석하여 백호사신白虎死神이 문전에 와 있다는 투의 흉운으로 풀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백색에는 백호사신의 의미보다 칠성신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칠성님과 관련된 풀이가 적절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북쪽의 색은 흑색인데 언제부터인가 흑색을 꺼려하여 무가에서는 흑색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무당이외에 흑색기를 굿판에 가져나오는 무당은 없다. 대신 이치에 맞지 않는 색깔의 기를 가지고 온다. 연두색기와 녹색기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이다. 이리하여 오방색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행위로 본다.

흑색은 현무와 흑룡을 상징하는 색깔로 원래 우리의 조상인 풍이족風夷族과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었다. 그러므로 흑색을 꺼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조선왕조시대에 북쪽을 방위하는 군대에게 흑색 패자를 군복으로 입혔고, 전쟁 때는 전위에 서는 부대가 흑색 패자를 입은 현무부대였다. 군웅굿을 할 때 흑색 패자를 입는 이유는 오위진법에 따라 전위를 지켜온 전군이 흑색 패자를 입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흑색기를 신장기라고 하는 이유는 전위부대를 나타내는 기가 흑색기이자 군웅기였기 때문에 신장기라고 한 것이다.

요즈음 오방기에는 대신 할머니의 형상을 인쇄한 황색기가 있다. 이 깃발을 대신기라고 한다. 대신기는 도술이 강한 대신할머니를 그린 깃발이다. 굿하고 치성하고 점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을 대신 할머니가 좋아하신다.

황색기를 대신기로 보아야 한다면 백색기를 칠성기로 보아야 이치에 맞는다. 대신 할머니는 조상신이고 칠성님은 천신이라 조상신과 천신의 위계가 분명하게 나뉘므로 백색기를 칠성기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방기점을 칠 때, 적색기를 뽑으면 누구나 좋아한다. 적색기가 재물과 명성과 성공을 보장해주는 기라고 믿기 때문이다. 운수가 대통하게 될 것으로 보고 미리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색기라고 해서 다 좋아할 일 만은 아니다. 적색기가 후군의 깃발이므로 예비대에서 공을 세워보았자 전군에 나서서 흑색기를 휘두르는 현무군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군이 공을 세우려면 전군과 임무를 교대하여 싸워야 하는데 그러한 기회가 그리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 상황논리를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청색기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그 의미를 모르니 의미를 아는 사람은 댓글을 달아 주었으면 한다.

마고는 누구인가

노중평

대한민국 신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14000년 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
이 되는 한 여인에게 가서 밋는다. 그의 이름이 麻姑이다. 오래 전에 사셨던 분이므로, 한국
사람은 그를 마고할미라고 부른다. 제주도에 가면 그를 달리 서문대할망이라고 부른다. 서
문대할망은 서쪽에서 오신 거인 할머니라는 뜻이다. 마고가 거인족巨人族을 대표하는 분이
었으므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산이나 바닷가에 가면 할미당으로 불리는 신당들이 있는데, 신당 안에 처녀로 보이는 신상
이 놓여 있거나, 위패가 놓여 있다. 이 분이 마고이다. 그 마을에서 마을신이 된 분과 합사하
여 모시는 경우가 많다. 이 마을신의 원형이 마고이다.

마고의 나이는 언제나 18세이다. 그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를 신
선이라고 한다. 옷은 잠자리 날개처럼 투명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속살이 비치지 않는다.
그는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맞히는神通력을 가진 분이다. 중국에서는 마고
를 마고로 부르기도 하고, 金母娘娘, 또는 서왕모로 부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아마데라스
오오미카미가 마고의 변신으로 볼 수 있는 분이다. 러시아에 있는 토속인형 마료르시카도
마고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분이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나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부인
의 원형도 마고로 볼 수 있다.

마고의 나이를 대략 12500년 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12500년이라면 조디악 12궁도의 나이로 따지면, 쌍여궁시대 후기에 속한다. 쌍여궁시대의 쌍여는 여자 둘에 한분이 더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雙女는 여자 셋이라는 뜻이다. 雙을 파자하면 隹+隹+又(又是 隹가 또 있다는 뜻)가 되는데, 이는 새(隹)가 3마리라는 뜻이다. 따라서 새 3마리로 상징되는 시대가 쌍여궁시대이다. 이 시대가 조디악 12궁도에서 14000년~12000년 사이가 된다.

마고시대의 새로서 새들을 대표하는 새가 오리이다. 오리를 오리압鴨 또는 오리부臯자로 쓰는데, 鴨은 세상에 처음 나온 새라는 뜻이고, 臯는 신으로 숭상을 받는 새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오리는 처음 나온 새로서 신으로 대접을 받는 새라는 의미가 된다. 마고시대를 상징하는 새인 오리 3마리를 나무 위에 앉히고 솟대라고 하였다.

한국 농촌에는 마을입구에 솟대가 서 있는데, 솟대는 이 마을에서 마고를 할미당에 모시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표시이다. 이렇게 마을에 모신 마고를 마고삼신이라고 하였다. 마고삼신은 마고와 그의 두 딸 궁희와 소희를 뜻한다. 후대에 이들의 신명을 하늘에 올리고 織女三星이라고 하였다. 직녀는 옷감을 짜는 신이라는 뜻이다. 또한 삼신을 産神이라고도 하여 출산을 관장하는 신으로도 자리매김을 하였다.

〈符都誌〉에서는 마고가 인류의 조상으로 나오고, 그가 살던 곳을 마고성·실달성·허달성의 三城이라고 하였다. 인구가 불어나고 성이 오염되면서 살기 힘들어지자, 마고는 그의 두 딸과 함께 天水를 끌어들이 후손들을 쫓아내고 성을 청소하고 폐쇄하였다. 이때가 대략 태평양 상에 있던 무대륙이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바다 밑으로 침몰하는 시기와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이때 黃穹·靑穹·白巢·黑巢의 부족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들이 오늘날의 인류의 조상이 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인종은 황궁의 후예에 속하고, 아랍계 인종은 청궁의 후예에 속하고, 백인은 백소의 후예에 속하고, 흑인의 후예는 흑소의 후예에 속한다.

마고는 황궁에게 解惑復本이라는 유시를 남기고, 本天符三印을 주어 보냈는데, 해혹복본은

오늘날 인류가 믿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의 메시지가 되었고, 천부삼인은 돌에 해와 달과 북두칠성을 새긴 것으로, 기독교의 십자가, 불교의 만자문양, 서양의 반지, 동양의 삼태극문양으로 다양하게 변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황해도무당들이 이 천부삼인을 明斗라든 이름으로 전수해 오고 있다. 명두란 해(日)와 달(月)과 북두칠성(斗)이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에서 천부삼인이 어떻게 하여 명두라는 이름으로 후세에 전하게 되었는가를 밝힌 신화가 <단군신화>이다. 천부삼인이 황궁에서 유인에게 전해지고, 유인에게서 한인에게 전해지고, 한인에게서 한웅에게 전해지고, 한웅에서 단군왕검에게 전해지고, 단군왕검이 세운 나라인 조선이 진시황 8년에 진에게 멸망하면서 조선의 마지막 단군인 고열가단군이 구월산에 들어와 은거하면서, 三聖堂을 짓고 女巫를 堂主로 삼아 三聖(한인·한웅·단군왕검)에게 제사지내면서 전수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지금도 천부삼인이 무당을 통하여 전해 오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마고와 관련되는 지명이 많이 남아 있고, 마고를 다양한 상징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우선 상징물을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동양의 선비들이 숭상해 온 梅花이다. 매화가 마고를 상징하는 꽃이기 때문에 숭상하였던 것이다. 매화가 마고의 상징임을 보여주는 것이 칠성궁에 나오는 매화부인이다. 매화부인은 북두칠성의 부인이 된다. 그러므로 별로서는 직녀이고 꽃으로서는 매화가 되어 북두칠성의 부인이 되는 것이다.

마고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사냥곳에서 산상막동으로 나온다. 산상은 마고가 태어난 삼신산을 말하고, 막동이의 막은 마고를 말하고, 동이는 마고에게서 태어난 동이족, 즉 대한민국사람의 조상민족이 되는 것이다. 산상막동이가 가출을 하여 한동안 어머니 삼신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서 굿이 시작된다. 막동이는 사냥을 하여 삼신에게 제사지내고 배필을 맞아들여 결혼식까지 올린다.

대한민국에는 마고와 관련이 되는 지명이 많다. 노고산(강화도·서울 마포구·부천)과 마고산(경남 의창군 북면)으로 불리는 지명들이다. 노고산에서 노고는 마고할머니신이라는 뜻이

고 산은 마고할머니신을 모신 산이라는 뜻이다. 마고산은 마고를 모신 산이라는 뜻이다. 노고단으로 불리는 곳도 있는데, 이곳은 마고에게 제사지내는 곳이라는 뜻이다. 마고산성으로 불리는 곳(경기도 용인)도 있다. 삼신산·봉래·방장·영주를 지명으로 한 곳도 많이 있다. 특히 제주도는 다른 이름이 영주瀛洲였다.

문인들은 마고를 직접 시제로 삼은 경우가 드물지만, 매화는 시제로 삼아 많은 작품을 남겼다. <동문선>에 매화라는 시가 보이는데, 요대와 학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매화를 마고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고와 관련이 있는 삼신산·봉래·방장영주와 관련이 있는 시들도 보인다.

여성교회예배 參席記

노중평

여성교회는 서대문에 있는 미동초등학교 길 건너 이면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오래된 정원이 있는 넓은 2층집인데 일정 때 지은 집이다. 많은 방들이 있고 이들 방에는 여성운동단체들이 세를 들어 있다. 여성교회는 반지하처럼 생긴 1층에 세들어 있다. 이 집의 이름이 〈여성평화의 집〉이다.

기성교회에서 여성해방을 부르짖으며 나온 여성교인들이 350명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시 제도권으로 복귀했고 지금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 예배는 일요일 오후 3시에 시작되어 약 2시간 가량 진행된다. 담임목사가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는 교회가 이 교회이다. 매주 당번이 정해져 당번으로 정해진 사람이 예배를 이끌어간다.

이 여성교회에 소속된 눈보라 선생은 매달 26일경에 한번 만나는 〈上古史研究會〉의 고정 멤버이다. 내가 상고사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끝나면 근처 식당에 가서 뒤풀이를 한다.

10월 강의를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데, 눈보라 선생이 11월 초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여성교회에서 ‘마고삼신’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교인들이 마고삼신을 알 턱이 없을 것이므로 계몽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어 가겠다고 승낙하였다.

요즈음 나의 〈무교강의〉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김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강의의 참석하지 □겠느냐고 물었다. 김 선생은 가겠다고 하였다. 글서 오후 3시가 임박하면 미동초등학교 앞에서 만나 함께 가기로 하였다. 오늘 예배에 참석자는 나와 김 선생을 합쳐 모두 12명이다. 예배 볼 공간은 20명 정도가 들어가면 짝 찰 공간이다.

정 진아 간사가 와서 청소를 하더니 전기난로를 켜 방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운다.

김 경화 선생이 와서 방 가운데에 놓인 탁자 위에 탁자보를 덮고, 긴 색동천 한 가닥을 세로로 펴고 그 위에 또 한 가닥을 가로로 펴서 십자가를 만든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청동제기에 새긴 金文에서는 十자가 七자로 쓰였다” 고
내가 말한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일곱칠자가 일십자로 의미가 바뀌었다.
주보를 나누어주는데 보니 기성교회에서 보면 사이비종교로 비난을 자초할 수 있을 만
큼 파격적인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1

19권 제45호 우리나라창세신화에배 2007년 11월 18일

여 성 교 회

womenchurch

움직이는 여성교회

주일에배 : 일요일 오후 3시

성서공부 : 둘째 넷째 일요일 오후 1시

2

우리나라 창세신화에배 예배순서

인도 : 눈보라

□ 표시에서 가능한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명상 예배에서 부를 찬송을 피아노로 소개한다 다함께

징울림 조용한 명상이 끝날 무렵에 징이 3번 울린다 김경화

춧불 점화 2개의 초에 점화한다

. 눈보라

□송 영 우리 찬송가 1번 참 아름다워라 (가사는 첨부악보참조) 다함께

□성시교독 천수 천수 천수가요 칠석하나님께 천수가요 다함께

인도자: 천수 천수 천수가요 칠석 하나님께 천수가요

회 중 : 이 마전 이터전 천수가요

천지신명 일월성신님 천수산신님 사해용왕님께 천수가요

인도자: 동서남북에 천수가요 팔도명산 천수가요

회 중 : 팔만은 지신님께 천수가요

일구등신 각귀신명 천수 안에 안당에 천수가요

인도자: 식구들대로 천수가요 우마 대마에 천수가요

회 중 : 신명 신장 신애기도 천수가요 만조상께도 천수가요

동서남북에 선왕님께로 천수가요

인도자: 우환 질병 상문 삼재팔란 만부정 영부정 올라가는 천상수

내려오는 감로수 만부정을 다 둘러 씻어냅니다. 심술긋은

욕심을 다 씻어내요

□다함께: 만부정을 천수 물로 둘러내고 씻어내요

☐ 찬 송 Mother of mine / Bll Parkkinson(첨부악보 참조) 다함께
☐ 기 도
.

다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낳고 기르시는 하나님 어머니
그 이름 마고 궁희 소희 삼신 칠성 일체 상제,
마고 옥황 십천상제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당신의 깊은 뜻이 우리를 통하게 이루어 지소서
당신이 영원히 십팔세 됄과 같이 우리도 바람과 이슬을 머금으로
하여 불로불사 새영되어 꿈에도 그리운 어머니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류구원의 메시아 물애기씨를 하루 빨리 보내주소서
(눈보라 作)

3
반주 정진아
찬 양 어머니 마음(첨부악보 참조) 다함
께
이야기 나눔 “마고삼신 창세신
화” 노중평
명상과 응답
.

다함께
찬송과 헌금 우리 찬송가 11번 참 아름다와라 다함께
기 도
.

눈보라
마고와 궁희와 소희의 이름으로 만만세(3번 함)
(도리도리)(곤지곤지)(쥐암쥐암)(짹짹궁)
소식과 나눔
.

정진아
☐ 공동체 축도 모두 일어나 옆 사람과 손을 잡고 둘러서서 . . . 다함께
☐ 공동체 노래 . . . 우리 찬송가 263번 여성교회 노래(2) 다함께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여성교회에 새로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헌금은 미리 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4

소식과 나눔

1.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신 눈보라 선생님, 노중평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정책협의회의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12월 1~2일 곽라분이 선생님 댁에서 정책협의회로 모입니다. 테크노마트 앞에서 오후 3시에 모이겠습니다.

3. KNCC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선관련 여성 간담회(11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대한 공문이 왔습니다.

4. 2007년 11월 예배 안내

날짜 예배담당자 예배안내 예배형식

11월 4일 성명옥 말씀/성찬예배

11월 11일 함인숙 말씀/농민 명상예배

11월 18일 눈보라 강경화 창작예배

11월 25일 장수철 정혜영 말씀/명상예배

5. 지난주 참석자

지난주 참석자:

강경화, 곽라분이, 눈보라, 신유진, 양계성, 오상훈, 유현정, 양계성, 장수철, 정혜영, 정진아, 함인숙(12명)

예배의 형식은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였고, 내용도 무가를 도입하여 파격적이다. 천수 치기는 14000년 전에 마고가 마고성을 청소하느라고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천주교에서 미사를 시작할 때 성수치기로 쓰고 있고, 개신교에서도 성수라는 이름으로 물세례를 줄 때 씻는 의식으로 쓰고 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설교를 해 본 적이 없으나 설교아닌 설교를 하였다. 마고삼신이 모든 종교의 시조가 되기 때문에 설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마고삼신을 말하기 보다는 마고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원초성에 대한 이야기, 과학으로 신을 밝혀내는 이야기를 하였다. 후보에 내가 눈보라 선생과 함께 예배 인도자로 등재되어 있으니 후보에 등재된 대로 하려고 한 셈이 되었다.

군포시의 뿌리를 찾기 위하여 풀어 본 지명 풀이

노중평

우연히 장성군 삼서면에 들렀다가 그고장의 지명을 풀이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다. 700명 이상 들어와 읽었고 댓글을 달아 준 사람들도 있었다. 내 글을 읽은 분들이 그 고장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후에 김포 가현산에 있는 어느 굿당에 들렀다가 그곳 지명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풀이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더니 그 고장 지역신문의 한 논설위원이 쓴 논설에서 내가 쓴 글을 인용한 것을 읽은 적이 있었다.

내가 지명풀이를 자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이 지명에 그 고장의 역사를 숨겨 놓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번에 군포시문화원에 갈 일이 생겨서 문화원에 들렀다가 한자로 지명을 인쇄한 군포시 지도를 보게 되어 지명풀이로 이 고장 역사를 추론해 보는 일이 시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군포가 특수한 고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군포시는 인접한 시에서 땅을 할애받아 이룩된 신흥도시이다. 애초부터 군포가 행정단위가 아니었다가 군포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한 시에서 지역의 일부를 분할 받아 모아서 만들어진 시이므로 군포시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갖지 못한 도시이다. 그러므로 군포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도시이다. 이 과제는 군포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마침 나는 군포의 역사문화해설사 여러분에게 “민속신앙을 어떻게 축제문화에 연계시킬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다. 강의할 교안을 짜면서 대한민국의 신흥도시들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고민꺼리인 정체성에 대하여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문화원이 요청한 강의 내용을 미리 교안을 짜가지고 오긴 했지만 군포시 지도를 보는 순간에 생각이 바뀌고 말았다. 한자지명을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군포시의 고민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스토리를 엮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군포시 지도 한 장을 달랑 들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군포시는 경기도의 중서부에 자리잡고 있는데, 안양 · 안산 · 시흥 · 의왕 · 수원 각시에 둘러싸여 있다. 이들 각 시에서 살을 도려내어 만든시가 군포시이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군포시의 역사와 문화와 정체성은 없었던 도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도시로서 이제부터 정체성을 세우고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 도시이므로 군포시민의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명풀이를 시작하였다.

구황봉

구황봉九皇峰으로 볼 수 있는 산봉우리가 남쪽인 수원쪽으로 있다. 우리 무가〈철무리굿〉영정물림에서 구황을 구황대주로 호칭한다. 소지 올릴 때 호칭하는 것이다. 구황대주란 구황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구황족은 지금으로부터 9900년 전에 한인천제가 나와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했던 구한족九桓族을 이르는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14000년 전인 쌍여궁시대雙女宮時代에, 마고가 나와, 인류 최초로 세운 나라인 마고지나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로 구한족의 시대가 역사에 등장하였다.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에서는 구한족을 9황皇 64민民이라고 하였다. 구황족이 하나님으로 모셨던 최고신이 구황대주이다.

무가사설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님 소지요 / 나라 없는 백성이 있느냐 / 임금 없는 신하는 보았느냐 / 거므나
따에 희나백성들 / 나라가 편하다면 / 복자무늬 돌려 천상으로 오르시오 / 나라천 구
황대주님 명 소집니다 / 복 소집니다 / 명 소지는 품에 품고 / 복 소지는 등에 지워 /
물 아래 은당지가 지고 / 물 위에 금당지가 져서 / 맑은 소지 곱게 타서 / 신사덕에
내리신다면 / 생소지 지지말고 / 천상으로 올라가시오 (〈김금화 무가집〉 “거므나 따
에 희나백성” 철무리굿 영정물림 67쪽)

위 무가사설을 풀어 쓰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님 구황대주에게 소지 올립니다 / 나라백성이 없을 수 없고 / 임금 없는 신하
가 있을 수 없습니다 / 단군왕검의 땅에 희씨나라 백성들이 /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나
라사정이 편하다고 여기시면 / 소지올린 재가 복자무늬 형상으로 돌아 올라 / 천상으
로 오르세요 / 나라천(나라의 하늘에 계신) 구황대주님 / 명소지 올립니다 / 복소지
올립니다 / 명소지는 품에 품으시고 / 복소지는 등에 지시어 / 물 아래 사는 이는 은
당지銀塘池가 지게 하시고 / 물 위에 사는 이는 금당지金塘池가 지게 하세요 / 맑은
소지 곱게 타서 / 신사덕神社德으로 내리려 하신다면 / 생소지지지 말고 / 소음 탄내
피지 말고 / 천상으로 올라가시오

이 사설은, “소지 올리니 최고 조상이신 구황대주님이 인간 세상에 응답을 내려 보내
실 때에 물 아래 사는 사람은 은당지로, 물 위에 사는 사람은 금당지로, 신사덕을 베
풀어 내려 보내 달라” 는 뜻으로 되어 있다.

군포시의 구황봉은 무당이 굿을 할 때 구황대주에게 소지올렸던 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한 곳이 전쟁곳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금당

금당金塘은 금당으로 불리는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생긴 지명이다. 금당은 무당이 구황대주에게 소지 올린 후에 응답을 받는 곳이다. 저수지 위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금당지로 불렸고, 저수지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은당지로 불렸다.

이 고장에 금당이 있으니 구황봉에 소지올린 사람들이 금당지 위쪽에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저수지에는 군대가 쓸 물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금당 위쪽에 살았던 사람들을 군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군웅산

군웅산은 군웅곳을 하였기 때문에 생긴 지명이다. 군웅곳의 대상은 주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한 군인들이다. 어느 시대인가 이 고장이 전국을 대표해서 군웅곳을 하는 장소로 지정되었던 시대가 있을 것이다.

군포천

군포촌軍浦川이라고 하는 지명도 군웅곳을 해서 생겨난 지명으로 볼 수 있다. 군웅신으로서의 최고신은 청구靑丘의 치우천왕蚩尤天王이다. 군웅곳은 치우천왕제로 불려도 좋을 곳이다. 군웅곳에는 타살곳과 작두곳을 포함하는데, 작두곳에서는 치우천왕시대 군대의 춤으로 볼 수 있는 깨비춤을 춘다.

수리산

수리산修理山은 산 밑에 병장기兵仗器를 수리하는 수리소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지명으로 본다. 그렇다면 군포에 군대가 주둔했었다는 추론이 가능해지는데 둔대屯垓라는 지명이 이를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둔대

둔대屯垓는 진터라는 말이다. 군대가 진을 쳐서 생긴 말이다.

마도

마도馬渡는 말이 건너간 곳이다. 군바가 건너가면서 생긴 지명이니, 이 고장에 주둔했던 군대가 기마부대騎馬部隊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 왕건태조와 견훤의 싸움에 기마군이 각각 3천이 동원되어 벌인 전투가 기록되어 있다. 이곳에 기마부대가 주둔했다면 엄청난 수의 기마군이 주둔해 있었을 것이다.

대야미

대야미大夜味는 “대규모로 밤에만 즐길 수 있는 은밀한 맛”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대와 관련이 있는 여인들의 은어로 볼 수 있다. 시흥에 대야大也가 있는데 대인大人의 여음女陰이라는 뜻이다. 삼신인 마고할미의 여음을 상징하는 말이다. 군포시를 창설할 때 시흥의 일부가 군포에 편입되었으므로 이곳의 대야미는 시흥의 대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안양

군포의 북쪽에 안양安養이 있는데 국가의 안위를 지킬 군대를 기른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고장에서 기른 것이 군대일 것이다.

군포시에 속한 지명에서 이 고장이 군대가 주둔했던 고장임을 추론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직설적으로 군을 강조한 지명은군포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군포의 특수성이 있다고 본다. 군포시의 정체성과 역사를 찾아야 한다면 이 고장의 지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별한 종교가 시작된 날

노중평

2007년 10월 20일 손없는 날을 택하여 아주 특별한 종교를 표방하는 교회가 하나 굴레방 다리 가구상가 거리 뒷골목에 있는 산 건물의 지하에 들어섰다. 교주는 매화 씨이다. 나와는 상고시대의 약사·문화·종교 강의를 하면서 인연이 되었다. 나의 남다른 무교 사랑에 감동을 받은 사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매화 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를 자주 보면서 그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무병이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거침없이 어머니를 말하고 거침없이 어머니를 노래하였다. “하나님 어머니”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던 그가 지하방을 빌리더니 여름 내내 물을 퍼내고 공사하여 신당처럼 신을 모시는 공간을 하나 마련하였다.

오후 3시에 개원을 한다고 하여 시간에 맞추어 그곳에 도착하였다. 임승국 교수가 보낸 화분이 하나 건물 문 앞에 놓였다. 지하로 내려가니 공간 하나를 방으로 쓰도록 해놓았다. 매화씨 본인과 그가 어머니로 호칭하는 분이 한 분 더 있다. 용화부인 황숙자 선생이다. 처음 보는 분인데 전라북도의 무교계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분이라는 말을 매화씨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다. 전주가 집인데 매화씨가 와 달라고 하여 왔다고 한다.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임을 알 수 있다.

황 선생은 36세에 신이 내렸는데, 처음엔 이 사실을 모르고 머리가 너무 아파 서울대 학병원에 머리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수술실에서 “나도 선생이요” 하고 말문이 터져 그 길로 맨발로 병원을 나와 택시 잡아 타고 산으로 들어갔다. 월궁선녀(주, 용을 타고 서있는 여신상 그림이 있다)를 받아 그 후로 용화부인으로 불렸다.

신당을 꾸며 놓았는데, 정면에 단을 놓았고, 단에 여러 가지가 장식되어 있었다. 중앙 벽에는 옥황상제를 여상으로 그려 모셨고, 좌·우에 팔선녀를 각각 그려 모셨다. 신상으로 소복을 하고 흰 고깔을 쓴 삼불제석상을 모셨다.

매화씨가 점심 식사를 했느냐고 묻는다. 하지 않았다고 하니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한다. 셋이서 공간을 나온다. 식사를 마치도 돌아오니 여자 목사 한분이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매화씨가 여러 사람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온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가 쓸모 없었던 공간에 쏟아부은 노력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괴인 물을 퍼냈고, 벽을 흰색으로 칠했고, 제단을 □아 놓았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교회 마고지나 “를 만든 것이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황상제가 남성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데요.”

벽에 걸린 옥황상제 그림을 보며 매화씨가 묻는다.

사실 옥황상제라고 할 때는 남성이라는 느낌보다 여성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옥황상제 玉皇上帝의 옥玉은 옥녀玉女라는 문자에서 볼 수 있듯이 여자를 의미하는 문자이다. 옥남玉男이라는 문자를 쓰지 않는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황皇자도 봉황鳳凰이라는 문자에서 보듯이 암봉황을 의미하는 문자이다. 숯봉황을 봉鳳이라고 한다. 상제上帝라는 문자도 최고신을 의미하는 고姑자가 먼저 나온 뒤에 나온 문자이므로 여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옥황상제를 여신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교를 시작한 사람들이 칠성님을 음양사상의 관점에서 음두성과 양두성으로 나누더니, 음두성을 옥황상제라고 하였고, 양두성을 구천상제라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옥황상제는 여성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교신화인 <부도지>에서는 인간의 최고 조상을 팔려의 음에서 태어난 마고라고 하였고, 팔려의 음을 의인화 하면 팔선녀가 된다. 이 모두는 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라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사라지려는 상태는 양자불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음전하의 전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음전하의 전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인력이 양전하의 원자핵을 잡아당긴다. 원자핵도 음전하를 잡아당긴다.

이 잡아당기는 힘 이외에 전자파라는 것이 있는데, 전자파는 궤도 상에서 끝이 서로 닿는 고정된 파동으로 존재한다. 전자파는 원자의 내부에 존재한다.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파의 끝이 서로 맞닿아 있고 양일 때는 나타나고 음일 때는 사라지므로 마치 기타 줄처럼 진동한다. 이들은 기타 줄이라는 특정한 궤도 안에서만 움직인다.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이 양자이다. 나타나는 양자는 사라지는 음전자의 범위 안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음전자는 모자가 되고 양전자는 자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모자의 관계는 자가 아무리 많이 태어난다고 해도 母 안에서만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마고가 거인이라는 신화는 이를 말하는 것이다. 마고의 자식이 많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마고도 점점 더 커진다. 태어나는 일이 영원하게 진행된다.

마고에게서 처음 태어난 남녀는 삼신과 점대漸臺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하늘에 별자리로 표현하였다. 직녀삼성과 점대사성으로 표현된 것이다. 점대사성은 직녀별자리 앞에 있다. 이들 별을 북쪽 밤하늘에서 볼 수 있다. 북방현무칠수분야에 속한 별자리이자 자미원에 속한 별자리들이다. 북두칠성이 자미원의 외곽을 공전하면서 북두칠성에 속

한 끝별인 요광성의 기운이 직녀성이 발산하는 기운을 건드리며 지나간다. 여기에서 삼신의 역사가 시작된다. 북두칠성은 직녀의 남편이 되고 직녀는 북두칠성의 부인이 되는 것이다. 삼신은 마고가 북두칠성과 교합하여 자식을 낳는 일을 주관하고 점대는 우주에서 어긋난 율려를 바로잡는 일을 한다.

이 일을 하는 장소가 마고본성·실달성·허달성으로 불리는 마고삼성이다. 점대는 망루로서 마고 삼성 북쪽에 있다. 여기가 마고궤도의 영역이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이 마고궤도를 원자의 기저상태基底狀態(ground state)라고 한다.

점대사성이 하는 일은 우주에서 어긋난 율려를 바로잡는 일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일은 율관律管을 부는 일이다.

우리 무교가 불교·유교·기독교가 가해 온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고궤도가 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본 행사로 돌아가기로 한다. 내가 한 마디 덕담을 하고 이어서 여자 목사가 덕담을 하고 마지막으로 매화씨가 어머니 노래를 한 후에 오늘의 주빈인 황숙자 선생이 본격적으로 행사에 들어갔다.

황 선생은 흰 선녀복으로 입고, 흰 띠를 머리에 매고, 흰 종이를 얇고 길게 잘라서 대에 묶은 신대로 몸에 둘러 부정을 씻어내고, 제단에 모신 삼신(통상 삼불제석이라고 한다)에게 3배 하고, 촛불에 향을 돌려 향로에 꽂고, 제단을 바라보며 장구와 징 앞에 앉아 장구와 징을 치며 각 대신을 부르는 경을 봉독한다. 가락이 남도의 창인데 판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달리 들리기도 하여 무슨 창이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다음엔 테이프를 들어놓고 살풀이춤으로 들어간다. 신대 들고 앉아 제단 바라보며 절하고 나서 일어서더니 맨손으로 춤을 춘다. 한 바퀴 돌고 나서 선녀 옷을 벗어 오른팔에 감아 들어 바치고 나서 절한다. 벗은 옷을 앞에 그대로 놓아둔다. 앉아서 머리 띠를 벗어낸다. 흰 소창으로 고를 맨 명다리를 들어 어깨에 매고 맴돌이춤을 춘다. 칠성의 운보범으로 앞으로 3보 전진하면서 명다리를 던져 고를 풀어낸다. 고 하나를 나려둔다. 마지막 하나 남은 고를 던져 푼 후에 벗어놓은 선녀 옷 위에 두른다.

오른쪽으로 운보하고 고가 풀려 천기를 받아 영가를 실어 보낼 수 있게 된 명다리(필자는 도줄이라고 한다)를 오른쪽으로 던졌다가 당긴다. 황 선생이 창춤으로 매화씨에게 와서 앉으라고 하더니, 신대를 목에 둘러주고 들어 온 몸에 휘둘러주고 좌우로 내리친다. 오른손에 바꾸어 들고 회무를 추고 나서 다시 좌우로 내리친다. 이어서 오른쪽으로 칠성걸음으로 운보한다.

제단의 오른쪽 벽으로 다가간다. 벽에는 ‘ooo살려주세요’ 라고 쓴 백지가 석장 붙어 있다. 좋지 않은 일로 비명횡사한 여고생의 명복을 기원하는 글이다. 신대를 감싸안고 ‘마고 어머니’ 라고 쓴 천 등 ‘마고 어머니’ 를 여러 장 매단 깃대 앞에 가서 신대로 풀어낸다.

제단으로 가서 맨발을 찍은 사진을 들어 신대로 닦아낸다. 다시 매화씨에게로 와서 몸에 휘둘러주고 좌우로 쓸어낸다. 오른손에 신대 왼손에 도줄 들고 앞으로 들어 올려 들고 3회 회무를 춘 다음에 앞으로 던져 풀리게 하고 닦아낸다. 매화씨에게 절하라고 시킨다. 매화씨가 3배한다.

명다리를 오른쪽 옆으로 늘어뜨리고 양팔을 벌려 하늘을 감싸 안듯 한후에 명다리를 양팔 위에 바쳐들고 앉아 내려놓고 절한다. 천천히 일어선다. 선녀 옷을 놓아 둔 곳에 신중하게 던져 놓는다.

다음엔 선녀부채를 든다. 제단에 절하고 매화씨를 쓸어주고, 부채를 펴들고 용의 형상을 그리며 꿈틀꿈틀 앞을 향하여 운보한다. 다시 반대 요령으로 후진한다. 부채를 펴들고 매화씨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너울너울 부쳐준다. 부채를 놓고 맨손으로 춤을 춘다. 두 손을 모으고 앉아서 명기를 받는다. 날개 내리는 듯 두 팔을 늘어뜨렸다가 올리며 벗어 놓았던 선녀 옷을 들고 뒤에 커튼이 있는 곳에 가서 두고 오방기기를 들고 나온다.

운보법으로 후진하며 감겨있던 오방기를 풀어낸다. 불어낸 오방기를 왼손에 들고 운보법으로 후진한다. 오방기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어깨 뒤로 휘두른다. 아래를 향하여 휘두른다. 어깨 위로 휘두른다. 손을 어긋매껴가며 오른 손에 감아쥐고 운보법으로 후진하며 회무를 춘다.

매화씨에게 기를 뽐게 한다. 창으로 공수를 준다.

네가 성공을 하려고 왔느냐 고생을 하려고 왔느냐
슬프다 네가 이 터전에 왔을 때 무슨 생각으로 왔느냐
바른대로 고하라 할머니가 물으시니 바른 대로 대답하라
팔선녀 중에 한 선녀가 들었다
부채를 펼치며 한 선녀를 지적하라고 한다. 가운데에 그려진 선녀를 가리킨다. 그릇에 과일을 담아 들고 공양하러 가는 선녀다.
네가 짙은 선녀가 옥황선녀 팔선녀 중에 큰딸이다
네가 그 딸로 왔다
상제님 어머니 부처님 어머니로 생각하라
팔선녀 중에 제일 큰 선녀를 짙었도다
네가 고생을 잡았구나
불쌍한 내 딸아 이것이 삶이더냐
건강 주고 모든 것을 줄 적에
네 몸 아플 때는 하느님 신령님이 버린 줄 알고 왔으나
아니 프게 기도하라
한 풀고 몸 풀고 꼬리 내려
이 세상에 나와 헐 일을 허고 가야
속담처럼 인생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했는데
이 한 품고 생각하지 말고

창피한 것 망각하고
이 짓을 하였으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구나
다 잊고 한 길만 가라
새끼 잘 키워 나라에 이름 내야 한다
매화씨 딸과 친구에게 가서 공수를 준다.
얼마나 한이 많겠느냐
왕생극락할 것이요 (비명횡사한 친구를 말한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싶으나
할머니가 실렸으니 말을 해 주겠다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백미 1가마 바치고 꽃도 바쳐라
참깨를 바치든가
참깨는 서되 서흙을 바쳐라
말 듣고 싶으면 49제 할 때 할머니가 말해 줄 것이다.

내게 오방기를 뽑으라고 한다. 오른쪽에서 황기와 홍기를 뽑는다.
황기는 대신할머니기이다.

재수 있고 이름을 내고 성공하겠다.

한 번 더 뽑으라고 한다. 이번엔 왼쪽에서 뽑는다. 검은 기와 황기를 뽑는다.

검은 기는 신장기이다. 신장이 있다.
황기는 신기가 있음을 나타낸다.

오늘의 특별한 교회의식은 이렇게 하여 끝났다. 날이 어두웠다. 함께 식사하고 가라는
것을 가겠다고 작별한다. 오늘 스케치한 것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정아에게 죄를 짓는 사회

노중평

언론에 비추어지는 신정아로 불리는 한 여인을 보고 있으면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언론에 비추어지는 신정아씨는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의 희생양이 된 여인이다. 생각해 보라. 그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환경이 공부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초등학교 졸업의 실력을 갖고 북경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었던 중국의 시인 김철씨의 경우처럼 우리 사회가 학벌보다 실력이 우선하는 사회였다면 신정아씨가 속은 무시하고 껌데기를 숭상하는 이 사회를 향하여 홍길동과 같은 반란은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 사회를 훌쩍 뒤집어 실체를 보여준 신정아씨를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정아씨의 행태를 통하여 이 시대에 누가 기득권자이고 비기득권자이며, 누가 가진 자이고 갖지 못한 자이고, 누가 껌데기이고 누가 알맹이인가를 극명하게 볼 수 있었다. 나는 그점에 있어서 신정아씨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우리가 신정아씨 개인만을 욕하고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정아 창작의 가짜학벌과 가짜박사는 신정아씨가 이 사회를 향하여 던지는 신정아류의 코메디일 뿐이다. 자작극의 코메디를 연출한 한 여자를 놓고 호떡집에 불난듯 호들갑을 떨어대는 이 사회를 보면서 이 나라가 미치지 못하여 안달이 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사망하였다. 이때 우리나라에는 재난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이나 시스템이 없었다. 성수대교가 붕괴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법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여 119구급대가 창설되어 크고 작은 재난에 대비하게 되었다.

경우는 다르지만 신정아 사건도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근본에 있어서는 국가의 기강이 붕괴한다는 점에서 삼풍사건보다 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우리 사회는 가난한 국민이 돈 걱정을 하지 않고 공부하여 박사가 되어 국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제2, 제3의 신정아가 태어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다.

한 젊은 여자에게 속아 넘어간 기득권자, 가진자, 껍데기만을 숭상하는 자들에게 사회적·국가적·역사적 책임이 있다. 그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고 녹장을 부린 탓에 신정아가짜박사 가짜교수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나라는 제2, 제3의 신정아가 나오지 못하게 기득권을 방어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갖지 못한 자에게 기득권보다 더한 것이라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사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언론은 이상하게도 신정아라는 한 여자의 속옷을 들추는 데만 열심이다. 도대체 한 여자의 속옷을 그토록 열심히 들춰서 어쩌자는 것인가? 그 여자의 알몸에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저질의 포르노 국가임을 언론의 자유를 너무 많이 가진 언론이 전 세계에 공포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우리 언론은 신정아가 이 나라의 사회기강을 휘저어 놓았다는 투로 떠들어댄다. 이 사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하여는 진지한 고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벌만 있고 실력이 없다면 그러한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또한 현재 공부하지 않고 과거의 졸업장만을 중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유치원생의 졸업장을 가지고 평생을 행세하려는 무책임한 짓거리와 다름이 없는 기득권자의 횡포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병든 이 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공론이 없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어물정 넘어간다면 기득권자 사회, 가진 자의 사회, 껍데기만을 숭상하는 사회가 국가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국민에 대하여, 신정아 가짜 박사학위위조사건보다 더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이 우선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신정아씨와 같은 사람을 보호하고, 그러한 사람이 이 시대에 유용하게 쓰이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 일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신정아씨를 죽일년으로 매도하는 데에 앞장을 섰던 언론이다.

EDIT

중국의 홍산문화 왜곡에 대응해야 할 국가전략의 필요성

노중평

격암 남사고 선생은 멀지 않은 장래에 한·중·일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이 되고, 국가통합을 우리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그의 비결에서 예언하였다. 이를 기본 모델로 하여 전 세계의 국가들이 단일지구국가로 통합하게 될 것이며 지구 정부가 인천과 부천 사이에 들어서게 될 것이고 소사에 있는 성주산이 미래에 생기게 될 지구국가의 주산主山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때가 되면 지국국가 이름은 선국僊國이 되고, 지구국가인을 이끌어가게 될 이데올로기는 천지인天 地人 인仁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전 세계가 단일지국국가로 통합하게 될 지음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세계대전에 버금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 땅에는 미래 지국국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비전을 가진 자가 2개면 정도의 인구로, 이러한 정신을 갖추지 못한 자가 2개 리 정도의 인구로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 땅에서는 도부신인桃符神人으로 불리는 세계지도자만 내게 될 것이고 정부를 구성하고 군대를 구성하는 필수요원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여든 최고의 엘리트 그룹으로 편성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요즈음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직업을 갖고 살게 되었고, 내국인은 교육이민을 내세우며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인구개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격암선생의 예언이 맞아 들어간다면 앞으로 우

리나라는 이들의 후예가 이끌어가는 사회가 될 것으로 본다.

격암선생은 임진왜란 직전에 사셨던 분인데 당시의 지식인들은 암암리에 국가비전의 설계도를 〈남사고비결〉에서 찾았다. 19세기에 들어와서 민족종교가 일어났는데 민족종교는 〈남사고비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비밀리에 기독교세계가 올 것임을 예언하는 비결을 만들어 끼어 넣기도 하여 위서시비에 휘말리게 하였다.

나의 생각으로 임진왜란이 일본이 조선에 보낸 밀정들이 수거해간 〈남사고비결〉과도 깊은 연관

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한·중·일 삼국통일의 의지를 처음 보인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 그러나 그의 무력침공은 명의 개입과 조선의병의 선전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다음 명치유신 때에도 사이고 다카모리를 선두로 하여 조선강점에 성공하고 36년을 조선총독부를 두어 통치하였다. 조선통치를 이끌어간 사람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사람의 후예인 이토오 히로부미였다. 일본은 중국도 거의 다 석권하여 일본의 통치로 들어가게 하였다.

만약에 공산주의가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등장하지 않았다면 중국이 일본을 몰아내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본다.

일본이 한반도에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소사에 복숭아밭을 일구어 도부신인이 좌정할 수 있도록 무릉도원을 만들려고 하였고, 성주산에 신궁을 세워 조상신들을 모셨다. 경인철로를 놓아 공장을 지어 산업을 일으켰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경성천도론을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가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대동아공영大東亞共榮을 획책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삼국을 통일하고 만든 국도에 일본의 국도가 들어서게 되어 있었다.

나는 일본이 이렇게 거창한 국가마스터플랜을 시행하려는 무모함을 내보이는 데엔 그 배후에 임진왜란 때 수거해 간 <남사고비결>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고 본다.

일본이 두 번에 걸쳐 삼국통일을 획책하다가 실패한 후에 그 바통을 중국이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동북공정과 탐원공정을 내세우며 한반도 강점의 길로 들어섰다. 동북공정은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역사를 당나라의 역사 밑에 편성하자는 것이요, 탐원공정은 화하족의 조상으로 내세운 황제 밑에 단군조선을 넣자는 것이다. 이렇게 일차로 우리 역사를 중국역사화 하여 한반도를 중국의 변방국가화 하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티베트처럼 강점해 버리자는 의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전례에서 보았듯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여 절대로 삼국이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역사는 중국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홍산문화로 알려진 요하 일대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홍산문화유적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역사의 신명께서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삼국통일의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역사가들은 이 유적이 발굴되면 될수록 이 유적이 단군조선의 실체를 해명하게 될 것을 예견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홍산문화유물이 단군조선유물로 공인을 받게 되면(아마 중국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중국은 단군조선이 황제의 후예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 들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

게 되면 우리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에 편입되게 되고, (중국과 일본은 다량의 영문판 역사서를 만들어 전 세계의 국회도서관과 같은 곳에 배포했는데, 이들 역사서에서 중국은 우리의 역사를 중국에 종속된 역사로 기술하였고, 일본은 우리의 역사를 일본에 종속한 역사로 기술하였다)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은 중국의 역사와 정체성으로 둔갑을 하게 될 것이다.

홍산문화유적에서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가 우하량 유적지에서 발굴된 여신묘와 신전 터, 천원지방형상의 제단, 유물 등이다. 단군조선에는 조선개국 초부터 단군왕검의 비인 하백녀를 신모神母로 모시고 국가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매년 국중대회國中大會(국)를 열어 국가통합의 행사를 하였다. 최치원 선생에 따르면 단군조선이 멸망할 때 대국이 9국, 소국이 12국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국가통합의 행사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여신묘에서는 옥으로 눈알을 박은 실물 크기의 여신두상이 발굴되었다. 두상이 편두로 만들어져 있어서 여신상임을 알 수 있는데, 단군왕검 탄생신화에서 한웅의 비가 된 웅녀신상熊女神像으로 볼 수 있다.

홍산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발굴된 다수의 옥기들이다. 옥기는 장신구나 생활용기라기보다 신상 또는 신물이나 정체성 정통성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이들 옥기들이 압록강에 인접한 요녕성 수암岫岩에서 생산된 수암옥으로 만든 옥기들이라고 한다. 옥의 생산지가 압록강에 인접한 요하문명권이라는 점에서 황하문화를 대표하는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화하족의 유물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하겠다. 중국의 학자들이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황하문명에 요하문명을 어떻게 갖다 붙이게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중에서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올빼미상이다. 나는 줄저 <일본의 신도와 마쓰리>에서 올빼미상이 단군왕검을 상징하는 인종 아이콘이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증명해 주는 엄청나게 많은 유물이 발굴되어 자료가 풍부해졌다.

나의 생각은 여기가 <부소보서扶蘇譜序>에서 일실된 한국사에서 인용했다고 출전을 밝히면서, 한인천제가 기묘년에 풍주風州 배곡倍谷에서 한국桓國을 개국한 곳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부소보서>에서 한인천제를 적제赤帝 축융祝融이라고 하였는데, 이곳을 적봉赤峰 또는 홍산紅山이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서 적제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축융(불의 신)이 한인천제에게서 시작되어 기성己姓 곤오昆侖에게로 계승되어 곤오가 청동기를 제조하는 는데 쓰이게 되었고, 또한 축융은 염제炎帝神農에게도 계승되었다. 곤오는 불암산 북쪽 숙신 땅에 정착하였고, 염제는 산동성의 곡부에 정착했다. 한인천제의 축융

은 기성 곤오에 의하여 계승이 되었고, 또한 신농에 의해서도 계승이 되었던 것이다.

적봉(홍산)이 적제라는 신명의 탄생지라면 적봉의 홍산문화는 실은 한국의 한인천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이 홍산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색깔이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그 색깔은 적색이나 홍색이다. 지명을 적봉이나 홍산이라고 했으므로 적색과 홍색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인천제를 적제라고 했고, 또한 불을 다루는 축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곳에서 단군왕검의 의대가 홍포紅袍와 홍갓이라는 점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홍산이 있는 곳의 지명에는 좌기左旗와 우기右旗라는 지명이 나온다. 적봉의 북쪽 내몽고자치구 안에 파림좌기巴林左旗와 파림우기巴林右旗가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그 아래 쪽으로 요하遼河(상류를 서남목륵하)가 동서로 가로질러 흐른다. 요하의 지류인 노함하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정공이 있다. 적봉과 요하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셈인데, 좌기니 우기니 하는 지명은 神市時代의 유습으로 남

아있는 볼 수 있는 지명들이다. 신시의 중심인 시장을 세우고 시장 앞에 좌기와 우기를 세운 데에서 비롯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요하를 한수漢水(은하수)로 바꾸면 좌기와 우기는 은하수에 있는 별자리로 바뀐다. 좌기와 우기 가운데에는 하고河鼓라는 별자리가 있고, 북쪽으로 마고의 아들을 상징하는 점대漸臺별자리가 있고, 그 북쪽에 직녀별자리가 있다. 하고의 남쪽으로는 견우별자리가 있다. 이들 별з리의 분야가 북방현무칠수北方玄武七宿이다. 이곳이 견우직녀신화의 발생지일 가능성이 있다.

홍산문화유적 발굴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이 유적에 대하여 어떻게 개념을 정립하고, 만일 중국이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세워 단군조선의 실체를 황제 밑에 넣으려 든다면 어떠한 국가전략을 세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본다.

단군왕검의 아이콘은 올빼미일까 수리부엉이일까

노중평

석촌에서 현역 무당들에게 무교강의를 시작하기 몇 달 전에, 광화문에 있는 ‘어린이역사 문화학교’에 들렀다가, 이은화 선생이 중국에 가서 사가지고 온 <홍산문화>라는 제목의 두툼한 도록을 보게 되었다. 도록에 홍산에서 출토된 옥기들이 망라되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기묘하게 생긴 옥기들이 현신이라도 하듯이 수줍은 자태를 뽐내며 자료부족으로 허덕이는 내게 충격을 주었다.

벽璧으로 불리는 옥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옥기玉器들인데 단군조선의 지도층들이 소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제사용품과 장식품들이다. 청동기물을 합치면 단군조선의 실체를 밝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생을 풍부하게 강의할 수 있을 만큼 추론이 가능한 분량이다.

<홍산문화>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옥기는 치효존鷗□尊으로 불리는 올빼미이다. 김재원 선생이 <단군조선의 신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올빼미를 단군과 관련하여 소개한 이후로, 나는 김재원 선생이 집어내지 못한 부분을 내가 쓴 <일본의 신도와 마쓰리>에서 구체적으로 집어내어 단군왕검의 아이콘으로 이름을 붙였다. 이 책은 한국문학도서관 노중평 문학서재에 올라 있어 클릭을 하면 읽을 수 있다.

치효에는 鷗梟와 鷗□의 두 종류가 있는데, 앞의 치효는 올빼미를 의미하고 뒤의 치효는 수리부엉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단군왕검의 아이콘으로 올빼미를 쓰려면 치효鷗□로 써서는 아니 되고 치효鷗梟로 써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고고학에 소개된 치효는 올빼미를 의미하는 치효鷗梟가 아니라 수리부엉이를 의미하는 치효鷗□이다. 그래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허술한 점이 있다.

그날 이은화 선생이 도록을 몇 장을 복사해 주었다. 언젠가는 <홍산문화>에 대한 글을 쓰는 데 쓰려고 서재에 얹어 두었다가, 석촌에 있는 무교교양대학에 교육보조자료로 가지고 가서 해설을 해 주었더니 수강자들이 좋아하였다.

최근에 와서 단군과 조선에 대하여 검색하는 사람들이 노중평을 검색하여 찾아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검색을 해 보았더니 내가 쓴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 있었다. 내 자신이 놀랄 정도로 많은 분량의 글이었다. 남들은 자료가 없어서 글을 쓰지 못하여 신화니 뭐니 하고 헛소리를 하는 세상인데 나로서는 크게 축복을 받은 셈이다. 글들을 훑어보며 <단군시대의 홍산문화>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기로 하였다.

금년 여름엔 단군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글의 체계를 세우느라고 더위를 잊게 될 것이다. 마침 무슨 이유인지 컴퓨터가 고장이 나 쓰지 못하고 있는데 유승엽씨가 노트북을 가지고 와 요긴하게 쓸 수 있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조상님들이 세월을 지체하지 말고 작업을 하라고 보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장영호씨가 고장 난 본체를 다시 쓸 수 있도록 수리하여 가지고 왔다. 컴퓨터 큰 것 작은 것 2개를 가지고 글을 비교해 가며 쓰게 되어 갑자기 부자가 된 듯하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검증 쇼를 보면서

노중평

한나라당 청문회 비평

우리나라 사람들은 TV를 많이 보는 덕에 진실과 쇼를 구별하기 힘들만큼 혼란스러운 현실에 빠져 있다. TV자체가 진실과 쇼를 구별하지 못하는 때문이라고 본다. 진실은 진실이고 쇼는 쇼일 뿐이다. 대선예비후보자 보다 질문자에게 또 자료를 제공해 준 후보자 캠프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대선후보자들이 자주 네거티브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는데, 질문의 프로테지를 정할 때 최소한도로 네거티브의 비율만큼 포지티브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올렸어야 하였다. 경선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네거티브 일변도로 나가다가 성공하여 지명을 받은 후보가 이제부터 상대해야 할 상대당으로부터 훨씬 더 강도가 강하고 혹독한 네거티브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위해서 한나라당이 주최하는 청문회라면 두 분의 이미지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철저하게 비리를 파헤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면 수사관처럼 철저하게 심문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본다. 만약 이렇게 하다가는 스스로를 자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번에 행한 청문회에서 무엇을 밝혀야 할 것인가 하는 목적과 대상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고, 질문자의 준비도 변죽이나 울리려고 준비한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대선예비후보자에게 상처나 주는 청문회가 되었다고 보지 □을 수 없다.

부정이나 부패와 같은 것은 당:당의 청문회에서 밝히기로 하고 당 내부에서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무엇인가, 사상은 무엇인가, 어떠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미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이라고 보는가, 국가건설의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있는가, 문화에 대한 정책, 경제에 대한 정책, 대북한정

책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국방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검증하는 장이 되었어야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천하대공당으로서의 체모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선거에 역사공부를 도입하자

우리의 현실은 역사를 체계 있게 제대로 공부하여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연속방송극에 시대적 배경으로 나오는 역사 정도를 알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이외에 일본이 러일전쟁에 이겨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든 이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면서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독도에 관련된 단편적인 역사, 중국이 동북공정을 내세워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유물이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는 데 대한 반론으로 알고 있는 고구려의 역사 정도가 고작이다.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역사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정체성을 해명해 줄 수 있는 역사인 과거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체계 있게 공부할 만한 곳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이 내세운 우리 역사 상한선을 철폐했고, 대한민국이 내세우는 새로운 역사상한선은 얼마이고, 관경은 어떠했고, 어떤 문화가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고’ 하는 구체적인 이론이 합의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실세 역사가들이 나라에서 돈을 타내어 책 몇 권 만들어 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역사가가 아니더라도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실세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만하고 나라를 기만하는 일에 발이 빠져 있고, 그런 일이나 하는 데에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역사 환기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선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출마자는 누구든지 이론적으로 역사를 강의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정치인으로서 역사성이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정견을 발표하는 날 단 하루만이라도 합동으로 우리역사 강의를 하게 함으로써 출마자의 역사관을 알아볼 수 있고, 역사실력도 알아볼 수 있고, 대중선동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학문적인 설득력이 있는가도 알아볼 수 있다. 미리 공모하여 이들의 역사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단을 구성하여 이들의 실력을 검증하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역사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자각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② 우리가 어떠한 철학을 국가철학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해소해 볼 수 있게 해주는 현대사의 소용돌이를 헤쳐 나왔다.

우리의 정체성과 철학성을 도출해 낼 수 있게 해 주는 사건들로, ① 3·1절 독립선언의 날, ② 8·15 일제로부터의 해방, ③ 6·25 북한 남침, ④ 4·19 민주시민의 거, ⑤ 5·16 군사혁명, ⑥ 5·18 민주화혁명 등의 역사소용돌이를 헤쳐왔고, 이들

역사의 소용돌이는 ① 일본제국의 대한제국 국권과 영토 침탈, ② 일제로부터의 해방, ③ 국토의 분단, 남의 민주주의와 북의 사회주의의 고착화, ④ 민주주의발전, ⑤ 경제대국건설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후에, 우리의 사회가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낙후한 정치풍토가 개선되지 못하여 선거 때마다 기이한 진풍경이 연출되곤 한다. 국가철학의 부재, 정체성 확립의 미진, 역사인식의 부재가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는 56년이다. 마고시대로부터 따지면 14000년이고, 한인시대로부터 따지면 9900년이고, 한웅시대로부터 따지면 5600년이고, 단군왕검시대로부터 따지면 4400년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인식과 역사인식은 일제로부터의 해방 56년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확립했어야 할 국가철학은 완전 제로 상태에 있다. 우리의 머리에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우리의 역사인식이 56년을 뛰어넘지 못하고, 국가철학이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분리수거를 기다리는 온갖 잡동사니로 채워진 쓰레기통 신세가 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국가철학을 확립해야 하고, 정체성도 확고히 해야 한다. 국가철학을 토대로 하여 우리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국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의 낙후한 정치풍토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한풀이 투표

우리는 비이성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이성을 전혀 가동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결정을 하고 만다. 2006년 5월 29일 시행한 지방선거에서도 이성을 버리고 감정에 치우치는 우리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 결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참패하였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불로소득으로 과분한 지지표를 얻게 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패배를 고소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적 심판이라고 하지만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어서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행적을 잊고 기고만장해져 오만을 떨게 될 때 그 책임은 한나라당에 몰표를 던져 준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져야 할 것이다.

언론은 여당의 참패에 대하여 자업자득이라는 평을 하고 있다. ① 현 정권의 독선적인 정권운영과 잇단 실정에 성난 민심이 등을 돌린 결과, ② 여당의 개혁정책을 사회주의자들의 역사청산을 모델로 하여 시대착오적인 과거사 들추기에 집착하여 국론을 진보와 보수로 갈라 소모적인 보혁 갈등을 부추긴 결과, ③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양분하여 편 가르기로 사회갈등과 대립을 조장한 결과의 3가지로 들었다.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서 자신의 존재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성찰하지 못하여, 미래에 대한 국가비전을 갖지 못한 정당이 국민을 기만하면서 자초한 말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서구의 사회주의자들이 버린 갈등과 증오심을 좇아다가 그런 역사

쓰레기로 1만년 이상의 역사를 누려 온 역사민족인 대한민국 국민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대단히 무식하고 위험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열린우리당이 잡고 놓지 못하는 그 참신한 금과옥조는 이미 동구권에서 사회주의 몰락과 더불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들이다. 과거에 국제사회에서 역사청산을 주장했던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된지 오래인 구소련의 스탈린이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미 역사에서 퇴장한 사회주의식 역사청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열린우리당의 머리가 낡아빠진 사회주의로 코팅이 되어 있고 뇌 안이 텅 비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말을 하는 대한민국사람이다. 우리의 생각은 대한민국사람의 생각이어야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사람이 하는 일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외래의 철학과 사상과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 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 한다면 아는 것이 없고 지혜도 없으므로 역사를 기만하고 시대를 기만하고 나라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역사협잡꾼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먼저 역사공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역사에는 원리가 있고, 역사는 이 원리에 의하여 스스로 굴러간다. 이 역사원리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을 역사원리에서 일탈하지 않은 역사의 주역인 역사적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다. 역사의 축에서 일탈한 국가는 멸망하고, 국민은 자멸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나라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열린우리당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우리역사에 너무 무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국민은 열린우리당에 표를 주기 싫어서 주지 않았다. 왜 국민은 표를 주기 싫었을까? 필자는 역사를 움직이는 신명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이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자,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과분한 불로소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의 행적을 보면 벌써 당의 깃발을 내리고 이 땅에서 사라졌어야 했을 당이었다. 도덕성이 결여된 정당에 국민이 몰표를 준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도덕성을 갖지 못한 국민이라는 증거가 된다. 결국 열린우리당에 대한 한풀이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열린우리당에 찍기 싫어서 반사이익을 챙기게 된 한나라당이 이미 도덕성이 결여된 정당으로 판명이 나 있는데, 앞으로 한나라당이 도덕성을 어떻게 회복해 갈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일본인 학자의 자기성찰

역사는 강자의 역사이다. 모계시대의 역사는 부계시대로 오면서 흔적만 남기고 깡그리 사라졌다. 부계시대의 역사도 그렇다. 강한 자가 나타나면 약한 자의 역사는 강한 자에게 먹혀 사라지고 만다. 단군조선이 진시황 8년에 진에게 멸망하면서 철저한 역사말살로 거의 다 사라지고 겨우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단군조선의 역사는 화하족의 역사로 둔갑하였다.

한반도의 역사도 중원의 역사처럼 망각되었고 흔적만을 남긴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이런 역사나마 거의 다 잊어버렸다. 잊혀진 역사를 찾아가는 일이 시급하다. 사라진 역사를 회복시킴으로써 우리의 정체성과 사상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KBS TV는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인 학자 오사카대학 명예교수 고야쓰 부쿠니(子安宣邦)의 강연을 녹화하여 방영하였다. (5월 17일 (수) 성균관대학에서 행한 강연 〈한일관계의 역사적 현재〉) 의미심장한 방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일본에 고마로 불리던 시대, 카라로 불리던 시대가 있었으나, 일본사람은 이들 시대를 모두 잊어버려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고마는 고구려를 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초기한성백제의 국도의 이름 한성漢城이 고마固麻(곰이라는 뜻)였다는 사실을 일본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듯하다. 고구려에서는 고구려를 고마로 부르지 않았고 고려라고 불렀다. 백제의 국도 고마에서 간 사람들의 시대를 다 잊어버리고 건강부회하여 고구려라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카라(韓)는 가라加羅의 변음으로 볼 수 있다. 가라는 오가五加的 나라那羅라는 뜻이다. 오가의 나라는 단군조선을 의미한다. 단군조선이 진시황 8년에 진秦에게 멸망하여 삼한三韓이 되면서 韓이라는 문자를 쓰고 카라라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은 원래 삼한시대에 임금이라는 뜻으로 썼던 말이다. 그 연원은 동이족으로서 임금이 된 순舜임금에 둔다. 그러므로 순과 한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일본 땅에는 이렇게 백제와 단군조선의 흔적만 남아 있다. 고야쓰 부쿠니 교수는 720년경에 나·당연합군과 백제·왜연합군이 백촌강에서 싸우다가 백제·왜 연합군이 패전하면서, 왜가 백제를 버리고 카라의 역사를 버렸다고 하였다. 이후에 왜가 일본이라는 국호를 쓰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일본이 되었다.

왜가 일본이라는 국호를 쓰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정체성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스사노 미코토로 불리는 남신을 내세운다. 스사노 미코토의 다른 이름이 부루신ぶる神이다. 부루는 단군왕검의 장자인 부루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스사노 미코토를 부루단군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인의 정체성이 부루단군에게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부루단군의 후예가 부루를 조상신으로 모셔 오다가 그 이름을 일본이라는 국호를 내세우면서 버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만들어낸 신화가 스사노 미코토가 천상계(주, 단군조선의 역사로 보아야 한다)에서 지상계(신흥 일본의 역사로 보아야 한다)로 내려오는데, 카라(주, 일본에서는 신라로 보고 있다)를 거쳐 온다고 한다. 이 부분의 역사는 단군조선의 역사와 역사 단절을 선언하고, 〈일본고유존재설〉을 만들어내는데, 그 뿌리가 신라를 거쳐 왔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신흥 일본은 카라(단군조선-삼한)를 버렸지만, 스사노 미코토가 불의 신(태양신)이라는 점만은 버리지 않았다. 부루는 불이고 불은 태양을 의미하므로 태양신에 일본의 정체성을 두기 위하여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흥 일본은 스사노 미코토에게 누님을 만들어 주어 당분간 오누이신이 서로 주도권 다툼으로 갈등을 겪게 하다가 누님에게 최고신의 자리가 돌아가게 하였다. 카라계열의 스사노 미

코토를 왕따시켜 버리고 신흥 일본에 필요한 시조신을 만들어 낸 것이다. 스사노 미코토를 일본의 토착신들과 합의하여 왕따시켜버린 누님이 아마데라스 오오미카미이다. 아마데라스 오오미카미를 일본에서는 천조대신天照大臣이라고 한다. 이는 태양신을 다르게 말한 것이다. 우리 문자로 바꾸어 쓰면 한桓·단檀이 된다. 따라서 천조대신도 한인·한웅·또는 단군에서 온 말임을 알 수 있다. 일본신화는 "스사노 미코토가 천상계에 있다가 지상계로 추방당한 곳을 카라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그가 조선의 신이었음을 말한 것이다. 스사노미는 우리 말로 '스스로 사는 놈'이라는 뜻이다. 신을 그렇게 말한 것이다. 말하자면 조선의 최고신을 그렇게 말한 것이다.

조선朝鮮의 조朝는 해와 달이 뜨는 곳이므로 천상계가 된다. 선鮮은 조선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이다. 여기가 우리 황해도무가와 한양무가에 나오는 '희나백성(熙氏那羅百姓)이 사는 거므나 땅(儉之地)'이다. 스사노 미코토가 추방당한 곳은 희씨 나라 백성이 사는 거므나 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정체성이 단군조선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세월이 흘러 에도시대에 와서, 후지와라 토테칸으로 불리는 고증학자가 나와서, 일본 고대사에 남아 있는 카라의 흔적을 <총구발衝口發>이라는 책에 기록하여 놓았다. 15항목에 걸쳐서 일본의 고대문화가 중국의 문화와 카라의 문화임을 밝혀 놓은 것이다. 모토오리 모리나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총구발>을 비판함으로써 <총구발>이 유명해졌다. 그는 토테칸을 견광인이라고 하였다. 견광인이란 '미친 사람의 머리에 칼을 썬다'는 뜻이라고 고야쓰 부쿠니 교수는 말했다.

그는 "모토호리 모리나가는 <고서기古書記>의 해석을 통하여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세운 사람이다. 그가 일본어를 확립했다. 일본문화, 야마토문화를 고서기의 해석을 통하여 발견했다. 그는 근대 일본의 혼과 정신을 만들어 낸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전전일본·전중일본·전후일본을 통하여 동일한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일본의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모토호리 모리나가에게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모리나가는 토테칸과 <총구발>을 비판하여 그의 이름이 역사에 남았다. 강연을 한 고야쓰 부쿠니는 노리나가를 평생 연구의 주제로 삼았으나 <총구발>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저자가 토테칸을 엉터리 고증학자라고 모리나가가 비판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그의 저술을 읽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나라 학자들 대다수가 범하는 오류를 일본인 학자인 그도 범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을 할 수 있듯이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역사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온 어느 유학생이 고야쓰 부쿠니 교수에게 '토테칸이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그는 정작 그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할 토테칸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엄청난 사실을 그 뿐만 아니라 일본인 학자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강연에서, "나는 토테칸 넘어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나처럼 모든 역사연

구가들이 토테칸 너머의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자아비판하면서, 비로소 "토테칸 너머의 세계를 보기 시작했다."고 실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아직도 일본인이 만들어준 집에 살며 그들이 준 침구 속에서 잠든 채 단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토테칸은 일본의 고대가 카라의 영향 하에 있었다고 하였다. 모리나가는 토테칸의 말을 미친 사람의 발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토테칸의 발언은 <일본고유기원설>을 흔들어놓고 말았다. <일본고유기원설>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광기狂氣의 지식에 의하여 <일본고유기원설>이 발생하였다. 광기와 정기精氣가 대결하여 광기가 정기를 압도함으로써 <일본고유기원설>이 정설이 되었다. 모리나가가 한 일이 이 일을 한 것이다.

역사를 모르거나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순수조선이나 순수일본으로 보게 된다. 자기의 모국이 갑자기 홀로 생겨난 나라처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과 일본은 오랜 옛날부터 있었다. 절대로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한 순수조선이나 순수일본은 근대에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다. 일본이 역사적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순수조선과 순수일본만을 보아왔기 때문에 무엇을 반성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고야쓰 부쿠니 교수는 대체로 이러한 요지의 강연을 하였다. 그가 한 강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점은 일본이 고마와 카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마와 카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고유기원설>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가 일본에 대하여 지적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지적과도 통한다.

일본의 역사는 일본의 역사에서 카라를 지워온 역사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카라의 정체성을 순수일본의 정체성으로 바뀌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은 정통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독선적이고 위험한 정체성이 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며 단일민족이라고 내세우는 정체성처럼 모호하고 폐쇄적이다.

우리의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자

열린우리당이 집권하면서 에도시대와 명치시대에 일본이 범한 오류, 해방 이후에 북한이 범한 오류를 다분히 감상주의에 젖어서 답습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우리 역사를 후퇴시키거나 답보상태에 빠져있게 하였다.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탓에 범하게 된 오류이다. 열린우리당이 대한민국을 순수조선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나 부질없는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선거까지 5개월이 남았다고 한다. 우리는 대선후보자는 물론이고 국민도 각자 선거에 대비하는 바가 있어야 있어야하리라고 본다.

꿈 이야기

노중평

2007.7.22. 새벽에 꿈 을 꾸었다. 꿈에 석정수石井水라는 말이 떠올랐다. 소에게 석정수를 먹이면 중력의 회전축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소는 땅에 사는 소가 아니고 하늘에 사는 소이다. 하늘에 사는 소라면 견우牽牛가 끄는 소일 것이다. 견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에게 석정수를 먹였으니 곧 하늘의 밭인 천전天田을 밭갈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석정수를 어디에서 찾는다는 말인가. 인천 가까이에 석정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지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금년에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혹시 선거와 관련이 있는 꿈은 아닐까. 내가 국운을 점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꿈이 국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풀어보기로 하였다.

격암 남사고 선생이 쓰신 비결秘訣에 석정수가 있다.

石井水(석정수)

日出山天井之水 掃之腥塵天神劍

일출산천정지수 소지성진천신검

一揮光線滅魔藏 暗迫天氣光彩電

일휘광선멸마장 암추천기광채전

天命歸眞能何將 利在石井生命線

천명귀진능하장 리재석정생명선

四肢內裏心泉水 世人何事轉淒然

사지내리심천수 세인하사전처연

祈天禱神開心門 水源長源天農田

기천도신개심문 수원장원천농전

農土曲辰寸七斗落 牛性在野 牛鳴聲

농토곡진촌칠두락 우성재야 우명성

人生秋收審判日 海印役事能不無

인생추수심판일 해인역사능불무

脫劫重生變化身

탈겁중생변화신

天生有姓鄭道令 世間再生鄭氏王

천생유성정도령 세간재생정씨왕

一字縱橫木人姓 世人心閉永不覺.

일자종횡목인성 세인심폐영불각

위 글을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日出山天井之水 掃之腥塵天神劍

일출산 머리 위에 뜨는天井宿의 물

천신의 검으로 쓸어내고

一揮光線滅魔藏 暗迫天氣光彩電

한번 광선으로 휘둘러 魔鬼星을 멸하니 숨는다
 어둠을 추적하는 천기의 광채로 번쩍이는 번개
 天命歸眞能何將 利在石井生命線
 천명으로 귀환하니 어찌하여 장차 진리를 펼치지겠는가
 이익됨이 석정에 있으니 생명선이다

四肢內裏心泉水 世人何事轉悽然
 인간의 사지 내면에 있는 마음이 석정의 샘물이다.
 세상 사람이 어찌하여 세상일이 유전함만을 슬퍼하는가

祈天禱神開心門 水源長源天農田
 하늘에 기도하고 신에게 빌어 마음의 문을 열어
 생명의 근원 장수의 근원으로 하늘 농사를 짓는 밭
 農土曲辰寸七斗落 牛性在野 牛鳴聲
 농토는 농사짓는 절의 일곱되 나락의 땅
 천우의 본성은 들소이므로 들소가 울음소리를 낸다

人生秋收審判日 海印役事能不無
 인생을 추수하고 심판하는 날
 해인이 역사하여 능히 살아남지 못하리라

脫劫重生變化身
 영겁을 벗어나 중생들 몸이 변한다
 天生有姓鄭道令 世間再生鄭氏王
 하늘에서 태어나는데 族姓에 鄭(새나라) 道(나아갈 길) 令(조상의 명령)이 있다
 세간에서 정씨왕이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一字縱橫木人姓 世人心閉永不覺.
 일자를 종횡으로 쓰면 十자가 되는 木인의 성
 사람은 마음을 닫아 영원히 깨닫지 못한다

이 비결에서는 석정수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세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모델은 井宿에 있다. 정수는 28수 중에서 남방주작칠수南方朱雀七宿에 속한 별이다. 정수가 하는 일은 하늘의 정의를 실현하고 우주의 질서를 세워주는 일이다. 남방주작칠수의 남방은 지구상에서 역사상 최초로 적제赤帝가 된 한인천제가 배출된 방위이다. 그는 기묘년에 배곡에서 한국을 세우고 천제가 되었다.

석정수는 지금으로부터 9900년 전에 한인천제가 마셨음직한 물이다. 석정수 비결에서 보여주듯이 새 국가지도자가 나오면 전혀 새로운 세상인 우주의 시대가 열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목성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의 족성에 鄭자에 숨어 있는 새나라, 그 개인이 국민을 이끌어 나가야 할 올바른 길, 선조들이 그에게 지워준 사명이 그를 제어하게 될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구나 일하며 살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본다. 일할 능력은 있는데 이런저런 제약에 묶여 일을 할 수 없는 사회라면 혁명을 꿈꾸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에게 혁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혁명을 하려고 할 것이다. 많은 국민이 이렇게 혁명을 꿈꾸는 사회라면 좋은 사회가 아니다. 혁명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늘 이 혁명지수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면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신화해석과 굿해석의 유사성

노중평

종교는 신화 속에 내재되어 있다. 신화 속에서 종교를 찾아내는 일은 신화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화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것이 종교성립이 되는 것이다. 종교적인 관점은 신화가 제시하는 태초·조물주·초·영원성·신의 탄생·인간의 탄생·신의 의도·도덕성·삼과 죽음·등 교적 사안들이 신학적인 체계로 정리된다. 이리하여 종교라는 이름의 신화석론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굿 또한 신화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신화적 상징성과 종교적 상징성은 이중구조를 가지고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굿에서 구연되고 보여주는 신화와 종교, 무신도가 상징하는 우리 신화와 종교의 역사는 제임스 처치가 밝힌 78000년 전의 뮤 제국 초기의 역사로까지 소급하지 않을 수 없게 다.

1) 전논리적 사고가 중요시하는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전논리적 사고가 중요시하는 것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이다. 인간과 세계 관계를 참여의 법칙에 따라 이해하고자 한다. 참여의 법칙이란 내가 관계 맺고자 하는 세계를 의인화하고 인격을 부여하여 나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이들의 사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인형을 누로 의인화하고, 어떠한 인격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인형은 아이의 친구 되기도 하고, 부부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 되기도 한다. 현실의 세계가 다 세계로 변하고, 아이와 아이의 대상도 변한다. 이렇게 세계와 대상이 변화는 것이 참여의 법칙이다.

2) 아이가 원시적 사고로 바라보는 신화와 굿에서 종교적 대상

아이가 인형을 의인화하고 인격을 부여하는 사고를 원시적 사고라고 하는 이 원시적 사고를 적용하면, 아이와 인형이 창출해 내는 공간은 그곳이 아닌 집이 되기도 하고, 정원이 되기도 하고, 왕궁이 되기도 하고, 악마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에 의하여 세계와 대상에 철학과 사상이 부여되고, 거기에 따라 변형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신화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신화적 현상이 언어로 진술이 되고 기록된다면 이를 신화라고 할 수 있다. 단군신화는 신화적 사고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화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이 해하기 힘든 신화이다. 그러나 이 신화를 전논리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하면, 이해가 가능한 해석이 된다고 본다.

곳에는 이미 사어死語가 된 전시대의 종교적 용어와 사물을 적시하는 언어가 이 신화적 변용을 거쳐 의미가 왜곡된 채로 살아 있다. 곳을 접하는 사람(전논리실증주의자가 아니고, 현대적 사고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을 그냥 듣고 보기만 해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곳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밝혀낸 이후에 아이의 원시사고로 또다시 의미를 밝혀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에 적용하는 것이 참여원리이다.

3) 단군신화 · 한성백제신화 · 웅진백제신화에 등장하는 꿈의 유사성

단군신화에 나오는 꿈은 참여원리에 의하여 아름다운 여인으로 해석된다. 이 왜 아름다운 여인으로 해석되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은 가질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아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것뿐이다.

또한 신화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우직한 꿈이 되기도 한다. 이 또한 아름다운 여인이 왜 우직한 꿈이 되어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 신화만든 사람들이 한 아름다운 여인을 꿈으로 만듦으로써 단순한 이야기를 신화적인 형태의 이야기로 변형시켰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단고기>류의 역사서에는 꿈이 모계시대의 웅족熊族을 의미한다고 기록하였다.

웅진국도좌정신화熊津國都坐定神話

공주의 웅진熊津(곰나루) 신화는 단군신화 · 한성백제신화에 연결되는 신화이다. 단군신화는 한웅천왕이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왕검을 낳았다는 신화이다. 한성백제신화는 백제를 세운 소서노가 한성을 국도로 정하면서 이름을 곰(麻)으로 정했다는 신화이다. 이 신화가 백제 말기에 고구려에 밀리면서 웅

을 국도로 정할 때 그대로 웅진에 옮겨 간 것이다. 그러니까 웅진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신화인 것이다.

신화는 한 사내가 연미산에 놀러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한 동굴에서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처녀와 함께 살면서 자식을 둘이나 낳았지만, 그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몰래 탈출하여 금강을 건너 도망쳤고, 꿈이 끝나고 함께 금강 물에 빠져 자살하였다는 신화이다. 사람들은 꿈의 원혼을 달기 위하여 사당을 짓고 그곳을 꿈나루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 신화는 단군신화와 한성백제국도좌정신화가 복합되어 있는 신화의 변형이다. 한 사내가 동굴에서 웅녀를 만났다는 것은 한웅천왕이 동굴에서 여자와 만나 혼인하였다는 신화를 차용한 신화이다. 그 사내가 혼인한 여자가 자식을 둘을 낳았다는 것은 고구려의 시조 추모왕 고주몽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소서노가 부여 출신의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 비류와 온조 둘을 둔 신화를 차용한 것이고, 소서노가 단군신화에 나오는 웅녀와 동일시됨으로써, 소서노가 웅녀를 계승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있다. 소서노가 웅녀와 동일시됨으로써, 왜 한성백제의 이름이 꿈이었는가 하는 이유가 밝혀진다. 꿈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웅녀를 계승한 소서노 자신이었던 것이다. 동굴에서 함께 있던 웅녀를 버리고 도망쳐 금강을 건너간 사내는 본부인이 나타나자 소서노를 버리고 본부인에게로 돌아간 추모왕 고주몽의 변형이기도 하다. 이를 볼 때, 한성백제의 명칭을 꿈으로 하였을 때도 소서노와 고주몽 사이에 웅진(꿈나루)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고 유추할 수 있다. 꿈이 두 아들을 낳고 꿈나루에 빠져 자살하였다는 것은 소서노가 세운 백제가 멸망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 원인제공자를 고구려로 보고 있다.

4) 마고의 변형 꿈

단군신화에서는 한웅천왕이 절대 권력자의 신분으로, 꿈을 여인으로 만들었다. 또 여인이 한웅천왕과 혼인함으로써 여신의 지위를 획득한다. 이는 남과 여신을 함께 필요로 했던 당시의 국가적 상황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웅천왕시대는 남자가 부계사회를 구축해가던 시대였다. 그러므로 모계사회가 퇴조할 수 밖에 없었다. 남자가 득세하더라도 마고로부터 전수한 해혹이라는 종교적 메시지와 부도건설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였다. 중심에 꿈(고마-마고)으로 형상화 한 마고가 있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따라서 한웅천왕이 마고가 제기한 해혹복본(解惑復本)이라는 종교적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웅족 여인의 여신화를 필요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꿈신화는 이렇게 구체적이다. 그러므로 황당무계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왜 꿈을 그토록 중요시하는가? 필자는 문자학의 힘을 빌려 꿈은 고마이고, 고마는 신당에 모신 마고여신이라고 해석하여 발표한 바 있다. 꿈나루에 세운 꿈사당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꿈사당이 아니라 소서노

변신한 마고사당이 된다. 소서노가 마고를 계승함으로써, 우리의 역사 상
은 14000년 전으로 확대된다.

문자학에서는 꿈을 고마로 보고, 고마는 마고여신으로 본다. 마고여신의
는 변함없이 언제나 18세이다. 인간이 세월이 가면 늙는다는 자연법칙이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고는 영원한 처녀라는 논리가 인간이 늙는다는
를 파괴함으로써, 마고에게 영원이라는 종교적 신비성이 부여된다. 이리
마고는 마고의 후예들에게 구원의 여인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마고는 하늘에서는 직녀성과 동일시된다. 그러므로 꿈과 마고와 직녀는 동
시된다. 꿈이라는 짐승과 마고라는 여신과 직녀라는 별을 하나의 복합적
으로 통합시켜주는 것은, 이들 언어가 신화적 대상이 변화한다는 신화적
성의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꿈은 마고여신을 상징하고, 마고여신은
녀성을 상징한다. 이들 상징 사이에는 상징논리라는 연결고리가 있다.

5) 인디언 아스디왈신화에서 꿈의 의미

침시안 인디언에게는 우리의 <단군신화>와 닮은 <아스디왈>신화가 있다.
신화에서 꿈은 꿈이면서 동시에 미녀이기도 하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하
있는 태양이면서, 땅에 사는 아버지이다.

<아스디왈>신화에서, “꿈이 꿈이면서 동시에 미녀라”는 신화적 진술은
단군신화>에서, “꿈이 환생하여 여인이 된다”는 신화보다 먼저 생겨난 신
볼 수 있다. 한웅천왕은 꿈을 동굴에 가두어 환골탈퇴 시켜 여인으로 환생
게 한다.

<아스디왈>신화에서, 꿈-미녀의 아버지는 태양이고, 또한 땅에서는 아버
다. 이 신화는 태양이 꿈을 낳았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칠성의 자손이라고 한다. 이 말은 큰곰(대웅성)의 자손이라는 말이
곰의 자손은 마고의 자손이고, <단군신화>에서 마고(곰)의 남편이 한웅천
므로, 한웅천왕의 자손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웅천왕이 큰곰에 비유될 수
다고 본다.

우리의 <단군신화>와 침시안의 <아스디왈>신화에는 이렇게 꿈과 미녀와
사이에 유추가 가능한 여러 가지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아득한 옛날에 그
과 우리가 같은 조상의 핏줄을 타고났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신화를 사실-역사로 해석하는 방법이 전논리적사고(前論理的思考,
e-logical mind)라는 개념의 해석방법이다.

군웅거리와 조상거리의 발생지로 볼 수 있는 청구국의 탁록

-노중평

주: ① 이 글은 우리의 무교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쓰게 된 것이다. 본문에서 양만연교수가 주장하는 초나라는 오늘날 중국인들의 조상이 아니라 단국檀國을 구성하고 있었던 곤오족昆吾族의 한 분파가 세운 나라이다. 이들이 신라를 세웠다는 것이 양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곤오족은 원래 한국桓國의 풍이족風夷族에서 출발하여 풍성風姓, 사성巳姓, 기성己姓, 희성姬姓으로 분파해 나간 성들 중에서 기성족己姓族이다. 기성족 출신의 곤오는 한인천제의 61대 손이다.

따라서 초楚나라를 세운 곤오족은 한국을 세운 한인천제의 후예이므로 역사의 정통성을 계승한 풍이족의 후예이고 풍이족의 역사를 계승한 동이족에 속하는 인종이다.

초나라의 방사 漢終이 이끌고 한반도로 온 羅성과 盧성은 유망의 성인 姜성의 후예이다. 이들은 단군조선을 구성했던 마가馬加之 후예들이다. 말하자면 기마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신라역사의 정통성을 계승한 사람들은 이들이지 동이족에서 이탈한 반역자 화하족이 아니다.

② 탁록에서 신라 땅으로 흘러들어가 정착한 기성족의 후예들이 남긴 역사는 마치 우리 민족의 대이동 서사시敍事詩처럼 보인다. 이를 사설을 만든다면 훌륭한 조상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구국과 단군조선이 멸망하면서 일어난 종족이동

신라 사람들은 배달나라 멸망기에 배달나라의 근거지인 탁록□鹿에서 온 사람들이다.

한漢은 탁록성□鹿城이라고 하였다. 서남쪽에 탁록산□鹿山이 있다.” 고 하였다.

〈광여기廣輿記〉에 탁록에 대하여, “북쪽으로 곧장 진秦의 보안주保安州로 상곡군에 속한다.” 한漢은 탁록을 탁록성□鹿城이라고 하였다. 서남쪽에 탁록산□鹿山이 있다.” 고 하였다. 탁록은 진나라 때 진에 속한 땅이었다. 그래서 진을 멸망시킨 한이 이곳의 이름을 상국商國 때부터 써오던 이름 그대로 써서 탁록성이라고 하였다. 탁록성에 탁록산이 있는데 탁록산에서 탁수가 발원한다. 탁록은 하북성 탁록현에 있다.

또 〈주례추관周禮秋官〉 주註에, “탁□을 수명水名(강 이름)이라고 하였고, 탁록현□鹿縣의 상곡上谷에서 흘러나온다” 고 하였다. 이 탁수가 청구가 멸망하여 청구를 떠나서 신라 땅에 정착한 신라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진한은 본래 연燕나라사람들이 피란해 온 곳이므로, □水의 이름을 따서, 그들이 사는 읍리읍里를 사탁沙□(주, 새 탁수, 혹은 새 탁록이라는 뜻), 점탁漸□(주, 탁수가 천천히 흐르는 곳) 등 이라고 한다” 라고 하였다.

원래 탁록은 4520여 년 전에, 치우천왕蚩尤天王(주, 치우천왕은 곳에서 도깨비대감으로 환생한다)과 황제黃帝가 10년 전쟁을 벌인 곳이다. 이 곳에서 치우천왕이 패하면서, 청구국靑邱國이 멸망하였다.

탁록이 탁록으로 불리기 전엔 청구靑丘로 불렸다. 상商(은殷) 때 청구가 탁록으로 불렸다. 상商이 주周에게 멸망하였고, 주가 진秦에게 멸망

하였고, 진은 한·漢에 멸망하였다.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도 탁록이라는 지명은 바뀌지 않았고, 지금도 중국 북경의 서북쪽에 하북성 탁록현이라는 지명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

〈삼국유사〉 진한辰韓(秦韓)조에는, 최치원崔致遠 선생의 말을 인용하여, “진한은 본래 연나라 사람들이 피란해 온 곳이므로 탁수의 이름을 따서 탁□을 수명水名이라고 하였고, 탁록현의 상곡에서 흘러나온다. 그들이 사는 읍리읍리를 사탁沙□(주, 새 탁수 혹은 새 탁록이라는 뜻), 점탁漸□(주, 탁수가 천천히 흐르는 곳)” 등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신라에서는 탁을 도라고 발음하였다.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보아서, 신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탁록에서 이주해 온 것이 틀림이 없다고 본다. 신라 사람들을 진이 망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였는데, 진이 한에게 멸망하면서, 탁록에서 유민이 발생하여 대량으로 신라 땅에 이주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탁수의 역사는 역말이 사설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제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라 땅에 진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1에는 “먼저 조선유민이 산곡 사이에 나뉘어 살며 6촌을 이루었다,” 고 하였다. 조선유민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단군조선유민, 기자조선유민, 위만조선유민의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단군조선이 진시황(BC246~206) 8년(BC239)에 진에게 멸망(〈檀君世紀〉)하였으므로, 신라에 정착한 조선의 유민은 단군조선의 유민이다. 그러므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라에 정착한 유민은 진에 멸망한 단군조선유민과 한에 멸망한 진의 유민 둘로 볼 수 있다.

한에 멸망한 진의 유민은 하나라의 선대에 황제에게 멸망한 청구국의 후손들로 볼 수 있다.

청구국 이 멸망한 이후에, BC2457년경에 천일태제天—泰帝가 다스리는 단국檀國이 생겼다. 단국은 BC2333년에 단군왕검(천일태제의 손자)에 의하여 생긴 조선의 전신이다. 조선이 진에게 BC239에 멸망했으므로, 청구국 멸망 후, 약 2128년 후에 신라가 생긴 것이다.

신라의 전신 斯盧國의 정체

사로국斯盧國이 주축이 되어 신라를 건국했는데, 사로국의 사스는 ‘새롭다’ 는 말이고, 노盧는 ‘말을 키우는 부족’ 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로국은 새 땅에 이주한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단군조선시대에 이러한 족속을 마가馬加라고 하였다. 마가는 단군조선을 세운 오가五加 중의 하나이다. 이들이 말을 키우고 말을 다루는 종족이었으므로, 기마민족騎馬民族의 조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남쪽은 왜倭와 연결되어 있는데, 지방은 4천리나 된다. 이 한은 세 종족이 있다. 첫째는 마한馬韓이요, 둘째는 진한辰韓이요, 셋째는 변한弁韓이다. 진한은 옛날의 진국辰國이다. 마한은 그 서쪽에 있다. 이 지방 백성들은 대대로 여기에 와서 사는 사람들로, 벼를 심어 곡식으로 먹고, 누에를 쳐서 비단을 짜 입을 줄 알았다.” 고 하였다. 이들 나라가 50여 나라가 된다.

이 중에서 큰 나라는 인구가 만여 호가 되고, 작은 나라는 인구가 몇 천 호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들 나라 중에서 사로국과 관련이 있는 나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속로불사국速盧不斯國 ·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 · 막로국莫盧國 · 구로국狗盧國 · 사로국駟盧國 · 정로국挺盧國 · 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 · 매로국邁盧國 등 8국이다.

8국의 이름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속로불사국은 오래전부터 말을 길러온 나라, 자리모로국은 칼을 세우고 말을 기르는 나라, 막로국은 막 조선에 속했던 말을 기르는 나라, 구로국은 구가에 속했다가 말을 기르게 된 나라, 사로국은 말을 가장 많이 기르는 나라, 정로국은 특출하게 말을 잘 기르는 나라, 모로비리국은 칼을 세우고 말을 기르던 선비족을 떠난 나라, 매로국은 뛰어나게 말을 잘 기르는 나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나라'라는 말에는 ‘말을 잘 기른다’ 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나라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나라가 斯盧國(새나라)이다.

그러나 <삼국지> 동이전 한에는 騶盧國(말을 잘 기르는 나라)이라고 하였다.

신라新羅는 사로스盧의 변음이다.

이외에 신라초기에 서라벌徐羅伐·서벌徐伐이라고도 불렀는데, 서徐는 소蘇의 변음이다. 소벌도리蘇伐都利가 사로국의 육부촌장六部村長의 수장으로서, 박혁거세를 신라의 초대 마립간麻立干(주, 마고가 세운 임금이라는 뜻)으로 내세웠다. 우리역사에서는 소벌도리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데, 소벌도리의 조상에 소풍이 있고, 소풍은 한국을 세운 한인천제의 61세손이 된다. 그러므로 소벌도리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가 신라를 세운 소벌도리를 징검다리로서 해야 중국 땅에 버려진 우리 대륙의 역사를 되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동이전> 변진전에는 24국이 나온다. 먼저 50여국이었던가 통폐합되어 24국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 중에 사로국騶盧國이 없어지고 사로국斯盧國이 생겼다. 사로국斯盧國에 새 나라라는 뜻이 있으므로, 노盧자들어가는 8나라가 사로국斯盧國에 합쳐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로국盧國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나라들이 생겼는데, 변진반노국弁辰半奴國·변진낙노국弁辰樂奴國·변진미오사마국弁辰彌烏邪馬國·변진감로국弁辰甘露國·시로국尸路國·마연국馬延國·변진정조마국弁辰定漕馬國·변진독로국弁辰瀆盧國·사로국斯盧國 등이다.

노奴와 로路와 로露는 노盧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름들이다.

말을 의미하는 마馬는 말을 키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노盧와 같은 뜻으로 썼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나라들이 공통으로 노자를 나라 이름에 가지고 있었으므로, 신라가 생길 때 신라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본다.

蘇伐都利와 己私國

박혁거세朴赫居世를 신라의 임금으로 세운 소벌도리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변진 24국 중에서 기사국己私國이 소벌도리의 나라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소벌도리의 조상이 소풍蘇豐(<부소보서扶蘇譜序>·<동근구보서東槿舊譜序>·<소씨상상계蘇氏上上系> 이고, 소풍의 원래 족성이 기성己姓이었기 때문에, 기사국을 소벌도리의 나라로 보는 것이다.

기성己姓이 원래 풍이족風夷族에서 나오므로, 사私는 사巳의 변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기己가 사巳에서 나왔음을 밝히는 문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주:

풍이족 “우리나라에서 고대에 사蛇(뱀)자의 부수인 충虫(벌레)자, 또 사巳(뱀)자로서 씨족의 성을 삼는 예가 적지 않았다. 이로써 뱀을 숭상하는 씨족(본고 필자 주, 風夷)을 이루게 되었다. 옛날의 말에서는 작은 뱀이 충虫자가 되었다. 사람과 관련하여 독蟲毒虫을 사蛇라고 하고, 지금도 사蛇를 장충長虫(긴 벌레)이라고 부른다. 때문에 고대의 치우蚩尤, 축융祝融(본고 필자 주, 衆餘餘), 우禹(본고 필자 주, 중여곤의 사위 <尙書>)...는 충虫자를 따랐다.

풍씨족風氏族의 복희伏羲, 여왜女□도 충虫자를 따랐다.” (<북희문화> 중국사회출판사 1994.5.)

이 글은 지나인支那人이 지나인의 관점에서 쓴 글이므로 이 글의 오류를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씨족이라는 말을 썼는데, 풍風은 씨족의 씨칭氏稱이 아니고 족성族姓이다.

족성은 모계성母系姓을 말한다. 다음에 풍씨족風氏族이라고 했는데, 이때엔 씨족氏族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풍씨가 아니라 풍이족風夷族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다.

이 글의 취지는 충虫자와 사巳자에서 성姓들이 나왔다는 뜻인데, 풍이족의 족성에서 복희伏羲, 여왜女□, 치우蚩尤, 축융祝融, 우禹라는 족성

이 나왔다는 것이다. 복희☐ 포희包羲라고 했는데, 포희자에 사근이 들어 있으므로 풍성으로 보고, 또한 여왜는 복희의 누이이므로 그도 또한 풍성에서 나왔다고 본다.

蚩尤의 치蚩에 충虫이 있으므로 역시 모계족성이 풍風임을 알 수 있다.

축융의 융融에도 충虫이 있으므로 모계족성이 풍風이라고 본다.

우류 또한 충虫이 있으므로 모계족성이 풍이라고 본다.

여기서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축융을 처음 쓴 분은 9,900년 전에 한국을 세운 풍이족 출신의 한인천제라는 점이다.

〈부소보서〉에, 한인천제를 적제赤帝 축융祝融이라고 하였다.

그가 풍이족의 시조가 됨으로 융融자에 충虫자를 썼던 것이다.

따라서 풍이 풍이족의 족성임이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치우천왕은 을묘년(BC2706년)에 즉위하였는데 강수姜水에서 살아 성을 강姜이라고 하였다.

유망도 강수姜水에서 오래 살았다. 그래서 그의 성이 강姜, 쑹이 되었다.

황제 또한 유망의 이복동생이므로 같은 곳에 살았고, 성이 강씨가 되었다.

강姜자에는 양羊자가 들어 있다. 양자가 들어 있는 강자를 성으로 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같은 모계집단에 소속한 유목민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적제의 61세손 곤오가 기근을 소蘇로 바꾸게 되었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강, 희, 기가 모두 풍이에서 나온 모계족성임을 알 수 있다.

소벌도리蘇伐都利를 풀어 쓰면 소도벌도읍리蘇塗伐都邑利로 풀어 쓸 수 있는데, 리는 里와 같은 음과 뜻으로 본다. 소벌도리를 풀면, “소도를 세운 벌판에 정한 도읍이 있는 곳”으로 풀린다.

변한에 속한 50여 국 중에 신소도국臣蘇塗國이 있는데, 신소도국은 소벌도리의 나라인 기사국의 신하나라이거나, 새로이 소도국蘇塗國으로 지정이 된 나라로 볼 수 있는 나라이다.

‘마고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뜻의 麻立干

신라의 임금들 마립간이라고 했는데, 마립麻立은 ‘마고를 세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마고를 세우는 일이 솟대를 세우는 일이다. 솟대를 소도에 세우는 일을 해 온 사람이 소성蘇姓 집안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박혁거세가 신라의 임금이 된 이후로 신라의 임금들이 솟대를 세웠으므로, 마립간은 솟대를 세운 신라의 임금이라는 뜻이 된다. 마고의 유습이 마고지나에서 한국으로, 배달나라로, 청구국으로, 단국으로, 단군조선으로, 신라로 전수된 것이다. (주, 소풍은 원래 풍이족의 기성으로 단국의 흥제 때 흥제에게 귀순하여 흥제 8년에 황하의 지류인 수분하綴芬河에서 제곡고신을 물리치고, 소성을 사성한 사람이다〈부소보서〉)

마고의 유습을 실천해 온 신라

여기에서 마고의 유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고가 체제를 구축한 모계사회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것이고, 그의 유시인 해혹복본과 증표인 천부삼인을 전승하는 일이다.

마고가 세운 모계사회는 공동부부의 사회였고, 이 사회는 여덟 쌍의 부부가 공동부부가 되어, 종족을 번성시키며 이끌어가는 사회였다. 〈부도지〉에서 마고가 팔려八呂의 음흉에서 태어났다고 한 것은 이를 은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라는 향찰鄕札이라는 문자를 썼는데, 향찰은 한자의 이미지를 살려서 기록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기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향찰로 기록된

문장을 그 문자가 갖고 이는 본래의 뜻을 가지고 해석을 했다간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를 추적하여 해석을 해야만 기록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신라 때 박재상이 쓴 <부도지>에 기록된 율려律呂·팔려八呂·실달성實達城·허달성虛達城과 같은 문자들이 향찰로 쓴 문자들로 볼 수 있는 문자들이다.

이들 문자에는 이들 문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이외에, 저자가<부도지>에서 향찰로 써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따로 감추어져 있다. 이 감추어진 의도를 알아내기 위하여, 필자는 이들 문자에서 이들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찾는다. 제대로 찾지 못하면, 저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데에 실패한다.

이렇게 하여 찾아낸 의미들을 종합하여, <부도지>에 기록된 위 단어들에서 신라 사회가 푸날루아로 엮어진 모계사회임을 밝혀 낼 수 있었다.

율려律呂의 율律은 달릴척ㄷ+붓울律자이다. 붓이 달린다는 뜻이다. 붓은 문필文筆이라는 뜻이고, 쫓대와 좇대를 은유한다. 여름은 입구口+꽃을곤ㅣ+입구口자이다. 입에 입이 꽃혀있음을 나타낸다. 남녀간에 교접交接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율려는 남녀간의 교접을 의미하는 문자로 본다. 따라서 이들 문자에서 이성교합異性交合이나 부부관계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팔려八呂는 팔八+여름자이다. 여름을 부부로 보면, 8쌍의 부부가 된다.

8쌍의 부부 사이에서 마고麻姑가 태어난다. 마고는 8쌍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으므로, 모계사회에서 처음 태어난 여자가 된다. 그를 낳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지 않으면, 마고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모계사회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대단치 않기 때문에 알려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가 팔여의 음에서 태어났다고 막연하게 말하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가 이룩한 모계사회를 마고지나麻姑之那라고 하였다.

옛날의 곳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청동팔령을 마고를 청배하는 데 사용하였다.

마고대성麻姑大城은 마고가 사는 큰 성이다. 모계사회를 의미한다.

실달성實達城의 실實은 집면ㄴ+어미모母+조개패貝자이다.

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앉아서 돈을 버는 형상의 문자이다. 이 문자는 성창聖娼과 관련이 있다. 아스테르신화에서처럼 1년에 딱 한번 금을 주고 여자를 사는 경우이다. 달達은 달릴척ㄷ+희망할행幸자이다. 희망을 보고 달려가는 것을 뜻한다. 성城은 흙토土+이룰성成자이다. 뜻을 이루는 땅이다. 그러므로 실달성實達城은 사내가 돈을 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사겠다는 일념으로 달려가서 뜻을 이루는 곳이다. 이러한 곳이 바빌로니아신화에 나오는 아스타르신전이다. 실달성은 마고대성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소원을 이루는 아스타르신전과 같은 곳이다.

허달성虛達城의 허虛는 점복卜+굴바위엄ㄱ+칠성칠七+북녘북北자이다.

북쪽에 있는 바위굴에서 칠성으로 점을 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위굴에서 점을 쳐서 소원을 이루는 곳이다.

마고의 출생배경이 모계사회임도 알 수 있다. 신라에서 세운 솟대는 마고의 나라인 마고지나를 상징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마고지나의 유습을 계승한 나라가 신라였고, 신라의 전신은 사로국斯盧國에 통합된 나라들로, 나라 이름에 말을 의미하는 노盧자가 들어가는 馬加족들이었다.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는 BC770년에서 BC453년까지 323년 동안에 해당한다.

이 시대의 천자국은 주나라였다. 제후국은 초기에 1000여개가 있었으나, 후기에 가서 128개로 통합되어 있었다. BC376년은 춘추시대가 끝나는 때였다.

그 북쪽으로 적狄·선우鮮虞·노路·낙洛·천泉·서徐·포蒲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우虞·외·곽·양楊·위魏·예芮·, 동쪽으로 등騰·설薛·추芻·거가 있다.

그 외 두杜·주·담·식息·나羅·노盧·선單·형 咎譚·수遂·정程·서徐·서舒·육六·향向·박薄·용·庸·영·옹雍·경涇·수水·양梁·강絳·익翼·제祭·허許·섭葉·방房·황요黃蓼·영씨英氏·계·담·숙宿·鄭의 동쪽으로 10읍인 곽·회·오·폐蔽·보補·주舟·의依·유柔·역歷·화華였다.

이들 나라 중에서 마가에 해당하는 나라로 볼 수 있는 나라들이 나羅·노盧·로路이다.

이들 성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구려족에서 나온 신농의 동이족과 황제의 화하족

처음 강성姜姓을 쓴 분이 신호身號가 염제炎帝인 신농神農이다. 그의 이름이 석년石年이다.

그를 천자天子라고 하였다. 그가 강수姜水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성을 갖게 되었다.

그를 시작으로 신농의 대가 8대 519년을 이었다.

신농의 8세 후에 태어난 분이 유망榆罔이다. 중국은 신농과 유망을 혼동해서 말하고 있다.

신농神農을 시조(주, <사기> 오제본기)로 말하면서, 8대 후손인 유망榆罔(<장자> 주)도 시조 신농이라고 기록했고, 기록자들은 언제나 이 둘을 혼동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신농에다 유망을 덮어 씌워 일어나게 된 현상이다.

유망은 소전少典의 아들로 태어났고, 황제와는 아버지가 같은 이복형제 사이였다.

이들 형제 중에서 유망이 신농처럼 강수姜水에서 자랐으므로 강성을 갖게 되었다.

(<여씨춘추> 맹하기 高수 주) 유망, 황제(황제는 희수姬水에서 자랐음)와 같은 시대에 치우천왕(배달나라의 자오지천왕, 치우천왕도 강성이었음)이 탁록에서 자웅을 겨루고 있었다.

황제가 치우천왕을 멸망하여 중원의 패자가 되었다.

이때가지가 배달나라의 구려족九黎族시대였다.

구려족은 한국의 종족명칭인 구한족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구려족시대는 치우천왕을 묘족苗族(苗桓族)이라고 하였고, 유망과 황제를 아울러 화서족華胥族 또는 화하족華夏族이라고 불렀다.

한반도에 유입된 종족이 중원의 패권을 잡은 황제가 다스리는 화하족을 뺀 다른 종족들인데, 이들이 동이족東夷族이다. 그러므로 동이족이라고 할 때는 구려족에서 황제가 다스리는 화하족을 뺀 인종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망이 이끌던 종족은 사실상 화하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인류 최초로 쿠데타를 일으킨 화하족의 역사왜곡

황제가 이끄는 화하족을 유망이 이끄는 화하족에 덮어씌워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배경에는 유망이 소전의 장자라는 데에 있었다. 황제가 소전의 장자였다면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신농으로부터 8대를 이어 유망이 물려받은 강성姜姓의 장자권長子權을 그대로 인수하기만 하면 9대 신농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자권을 유망이 가지고 있으므로 그대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화하족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유망의 후손과 황제의 후손이 한 대씩 걸러 가며 제위에 앉게 하는 제위상속의 제도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황제의 가계에서 제위상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제위는 유망(BC2517)에서 유망의 적자인 희화羲和에게 넘어가지 않고, 황제의 적자인 소호금천少昊金天(BC2474)에 넘어가게 되었

다. 황제가 치우천왕과 유망을 아우르고 중원의 패권을 차지하고서도 제위에 앉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신라의 금성金姓은 소호금천이 시조가 된다.

다음엔 유망의 손자인 전옥고양□瑱高陽(BC2467)에게로 제위가 넘어갔다.
전옥고양이 고성高姓의 시조가 된다. 고구려 고성高姓의 시조가 되는 것이다.

다음엔 황제의 손자인 제곡고신帝□高辛(BC2420)에게로 제위가 넘어갔다.
제곡고신은 다음에 유망의 증손자인 중여군衆餘鯀에게 제위를 넘겨주지 않고 자신의 아들 지曄(BC2365)에게 제위를 넘겨주어, 제위찬탈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인류 역사상 첫 쿠데타가 된다.

그런데, 지가 제곡고신의 장자가 아니라, 측실 간적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차자次子이라, 정실인 중계(중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장자인 요堯의 반발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
요가 쿠데타를 일으켜 지를 죽이고 제위(BC2357)를 차지하였다.

다음엔 거호의 아들 순舜이 쿠데타를 일으켜 요를 죽이고 제위(BC2320)를 찬탈하였다.
다음엔 제곡고신과 간적 사이에서 태어난 우禹가 쿠데타를 일으켜 순을 죽이고 제위(BC2311)를 찬탈하였다.(주, 이상 제위 즉위 연대는 낙빈 기駱賓基(1917~1994)의 연표에 의한 것이다)

황제의 후손들에 의하여 4회에 걸쳐서 연속으로 쿠데타가 일어나 3명의 제왕이 살해당했고, 1명의 제왕 후보가 축출 당했다. 화하족의 후손들이 부르짖어 온 요순의 태평성대가 실은 쿠데타의 피로 얼룩진 새빨간 거짓의 시대였던 것이다.
이 역사를 감추기 위하여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 화하족이 대를 물려가며 해온 역사왜곡이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공자와 사마천이었다. 중국역사에서 무수한 왕조의 부침이 있었지만,
이 유습만큼은 누가 제왕이 되었든 철저하게 지켜왔다. 물론 지금의 중국도 불타는 사명감에 넘쳐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유망·황제·치우천왕이 모두 구려족에 속했고, 이들을 웅족熊族(황제 쪽에서는 유웅족有熊族)이라고 하였다.
이들의 머리 위에, 천제 한인의 아들이자 신인 한웅과 곰족 여인 웅녀가 결혼하여 단군왕검을 출생시키는 단군신화가 있다. 단군신화는 웅족(유웅족)의 신화이다. 그러므로 동이족과 화하족 모두의 신화가 되는 것이다.

주:

구려족을 구성하고 있는 종족 중에 가장 강성한 종족이 웅족熊族이었다.

웅족은 황하를 기반으로 하여 탁록까지 널리 분포되어 살고 있었다.

하화족은 웅족을 유웅족有熊族이라고 하였다.

치우천왕시대에 우리의 조상은 모두 웅족에서 나왔다.

이 시대에 유웅족 중에서 세력을 키운 황제黃帝(BC2689 즉위)가 현구軒丘에서 하백천왕체제에 반기를 들고 봉기하였다. 하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한 치우천왕의 군대가 탁록대전□鹿大戰에서 10년 전쟁 끝에, 황제에게 패하여 배달나라를 대표하여 하백의 임무를 수행하던 청구가 멸망하였다.

이후로 배달나라시대는 구려족을 통합하는 구심점이 없어졌다.

황제가 그의 이복형 유망(BC2517~2474)을 아우르고, 황제의 후손과 유망榆罔의 후손이 겹사돈관계를 맺어 푸날루아체제로 황제의 후손과 유망의 후손이 번가라가며 제위를 승계하였다.

이들이 중원의 역사를 이끌어간 때가 황제-소호금천(BC2474~2467)-전옥고양(BC2467~2420)-제곡고신(BC2420~2365)-지(BC2365~2367)-요(BC2357~2320)-순(BC2320~2311)-우(BC2311~2303)의 시대였다.

전욱고양□瑱高陽에게서 곤鱓이 나왔다. 곤이 푸날루아의 법칙에 의하여 제곡고신으로부터 제위를 인수하여야 하나 제곡고신이 그의 아들 지犽에게 제위를 물려주는 바람에, 유망집안과 황제집안 사이에 맺어진 제위상속의 룰을 깨어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제위의 정통성이 곤에게서 끊어졌다.

熊心國(?~BC2333)과 檀國(BC2457~2333)이 청구국(BC2706~2598)의 뒤를 이어 배달나라를 대표하게 되었다. 단국 출신의 단군왕검은 14세 되는 해에 웅심국의 웅녀에게 장가들어 비왕이 되었다. 이때 그는 단국의 태자를 겸직하고 있었다.

단군왕검이 조선을 선포하기 전에 조선은 이미 웅심국과 단국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국의 世系는 천일태제(BC2457~2400), 지일흥제(BC2399~2334), 태일성제(단군왕검BC 2333~2241)의 3대로 이어진다.

한인천제시대에 기성기姓을 창설하여 황하일대에서 구한족의 하백임무를 수행해 오던 곤오토포족(한인천제의 61세 손)이 황제-제곡고신으로 이어지던 시대에 세력이 약화되어 하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흥제에게 귀순(흥제8년 BC2392)하였다.

이해에 제곡고신이 단국과 고신국의 경계인 황하의 지류 수분하綏芬河를 넘어 단국을 공격해 오자, 이를 격퇴하고 하백임무수행의 능력을 회복하고 흥제로부터 소성蘇姓을 사성賜姓하였다. 〈扶蘇譜序〉, 〈朝鮮紀〉

웅심국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고 단군왕검은 웅심국을 인수하였다.

또한 단국의 흥제가 붕어하면서 단국의 제위에도 올라 무주공산이 된 배달나라를 승계하였다.

이해가 무진원년인 BC2333년이였다. 그는 당시에 하백인 비서갑(한인천제의 62세손)의 딸 하백녀와 혼인하여 하백과 동맹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아직 배달나라의 정통성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다.

배달나라의 정통성을 회복하려면 곤으로부터 구려족의 정통성을 인수하여야 하였다.

정통성을 인수하는 방법이 곤으로부터 조선이라는 국호를 인수하는 일이었다.

조선이라는 국호를 인수함으로써 유망의 장자인 희熙의 집안과 과 유망의 손자인 전욱고양 집안이 조선에 통합된다는 의미가 있었다. 단군왕검은 곤으로부터 조선이라는 명칭을 인수하여 경인 23년(BC 2311) 국호 배달나라를 조선으로 개명하여 선포하였다.(〈조선기〉) 이 나라가 단군조선이다.

그러나 화하족이 동이족을 배반하고 화하족으로 홀로서기를 성공함으로써 사실상 단군신화종족시조신화권에서 떨어져나갔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은 단군신화를 버리고 그 대신에, 복희伏羲가 화서華胥와 혼인하여 화하족(華胥族)의 시조가 되었다는 억지추향의 신화를 그들의 시조신화로 삼았다.

복희는 배달나라의 6세 다의발한웅이다. 다이발한웅을 정체불명의 화서와 혼인시켜 그들의 시조로 삼고자 하였다. 그들이 이 신화를 시조신화로 택함으로써 화하족이 배달나라를 세운 구려족의 일원임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하겠다.

己姓昆吾와 帝□高辛

나성羅姓은 〈世本〉에 웅성熊姓으로 나와 있다. 웅성은 모계족성이 웅성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단군신화에 나오는 웅녀熊女를 배출한 웅족계열熊族系列의 성으로 볼 수 있다.

나성의 유래에 대하여, 그를 축융지후祝融之後라고 하였는데, 축융지후는 축융의 후예라는 말이다.

불을 관장하는 임금이라는 뜻인데,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축융이 된 분이 9900년 전에 한국을 세운 한인천제(〈扶蘇譜序〉)이다.

그러므로 나성족을 한인천제의 후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축융지후는 축융이었던 전욱고양의 후예라는 뜻도 있다.(〈廣韻〉) 전욱고양이 나국羅國(지금의 호북湖北 의성宜城 서쪽)에 봉했으므로, 라가 그의 자손의 씨칭氏稱이 되었다는 것이다.(〈廣韻〉) 춘추시대에 나국은 망하여 초국楚國이 되었다.

그 후에 나라이름이 씨칭이 된 것이다.

황제에서 시작한 나성세계羅姓世系에, 황제 9대 후에 곤오毘毘가 나온다.

이 곤오가 기성곤오己姓毘毘와 같은 사람이라면, 나성羅姓과 기성己姓은 같은 성으로 볼 수 있다.

기성곤오는 황제세계에서 黃帝-昌意-乾荒-□項高陽-称(소호금천이 낳은 딸)-老童-吳回-?-毘毘로 나오는데, 이 세계표는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전욱고양이 유망의 손자이므로, 사실상 황제-창의-건황 3대는 유망을 축출하고 황제를 갖다 붙인 황제의 세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3대를 없애고, 전욱고양 위에 소전-유망-희화를 갖다 붙여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소전-전욱고양-칭-노동-오회-?-곤오가 된다.

그러나 전욱고양 이후의 칭과 오회 등도 변조되었을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

귀순했다고 했는데(高辛暴政莫甚移 居于弗咸山北肅慎 洪帝8年 高辛氏入寇 而爲義旅將 擊退於綏東之野 洪帝致賀其功而封蘇城爲河伯一云夏伯〈蘇氏上上系〉),

그의 세계가 전욱고양 계열이어야만 왜 전욱고양의 뒤를 이어 제위에 제곡고신이 기성곤오에게 학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

하백河伯이라는 관직을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이 한인천제가 세운 한국시대에 한국을 세운 사람들인 풍이風夷족의 족성 풍風(뱀, 바람)에서 나온 기성己姓이다.

기성은 후에 단국의 흥제 때 소성蘇姓이 되는데, 기성이 소성이 되기 전에 기성으로부터 하백이 나왔다. 하백이 다스리던 기성족己姓族을 풍이馮夷라고 하였다.

풍馮은 풍風과 음이 같다. 풍馮은 풍이족에서 나온 풍이족馮夷族이라는 뜻이다.

풍馮에는 풍이馮夷가 물가-황하黃河에 살았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황하에서 말을 기르며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후에 소성蘇姓을 갖게 되면서, 순수하게 기성己姓을 고집하는 집안과 소성을 받아들인 집안의 둘로 나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성을 받아들인 사람이 소성의 시조가 되는 곤오毘毘이다.

중원에는 지금도 곤오라는 지명이 남아 있고, 곤오가 처음으로 청동술을 만든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청동으로 처음 무기를 만든 사람이 치우천왕인데, 치우천왕시대에 곤오 집안에서 청동의 주조법을 발명했거나 치우천왕으로부터 청동주조법을 전수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나支那의 선진사先秦史에서는 청동기 문명의 주역으로 치우천왕,

황제와 함께 곤오를 이 시대 사람으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백은 곤오가 단국의 흥제 8년에 수분하綏芬河로 침입한 제곡고신을 물리침으로서 흥제로부터 받게 된 관직이기도 하다. 하백을 황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황하에서 하백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생겨난 신격화로 볼 수 있다.

하백이 하는 일은 황하일대에서 일어나는 종족분쟁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이었다.

황하의 지류인 수분하綏芬河는 구려句麗로 불리던 지역이다.

단군조선시대에 부루단군은 그가 단제로 등극하던 신축원년(BC2240년)에

그의 4제弟 부소夫蘇를 수분하의 왕인 구려왕句麗王에 봉했다.

이곳은 후대에 일어난 고구려의 발생지로 볼 수 있는 곳이다.

당시에도 이곳을 중요시하여 하백을 필요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 기성곤오에게 가해진 제곡고신의 박해는, 제곡고신이 다음의 제위를 중여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중여곤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의 서자 지擊에게 물려주려고 함으로, 중여곤 계열의 사람인 기성 곤오가 반기를 들어 부당함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곡고신으로부터

기성 곤오에게 가해진 박해라고 볼 수 있다.
기성곤오는 제곡고신을 피하여 단국의 홍제에게 귀순하였다.

곤오족이 세운 楚와 羅姓과 盧姓

나성은 장손인 곤오의 6형제 중에서 막내 계운季運-부저附沮-혈웅穴熊-?熊의 4대를 거쳐서 생겨난다. 이들의 성은 나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장자인
곤오의 성인 기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뿌리를 내린 노성盧姓은 원래 9900년 전에 한인천제桓因天帝가 한국桓國을 세운 구한족九桓族에 속한 풍이족風夷族에서 나온 강성姜姓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풍이족의 강성에 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
풍이족에서 나온 성들이 풍성風姓·강성姜姓·사성巳姓·기성己姓·희성姬姓들이다.
노성盧姓은 여성呂姓·고성高姓·신성申姓과 함께 풍이족을 구성하는 족성의 하나인 강성에서 나왔다.

중국에서는 노성을 사해대성四海大姓 중에서 2번째라고 한다. 노성이 강성에서 나왔다고 했으니, 유망·전옥고양계열의 성이고, 또한 나성과 뿌리가 같은 성이라고 하겠다.

강태공은 중국의 대표적인 정치가, 전략가로 유명한 전략병서 육도六韜를 저술하여 인류에게 남겨주었다. 자손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70여 개 이상의 성씨가 분파되었다.

20세 강공康公까지 700년을 이어간다. 그 가운데에, 10세 강성姜城, 11세 고해, 고해가 제齊 한공桓公을 옹립한 공으로 말년에 盧國(오늘의 제남濟南市)의 왕이 되고, 노씨를 받게 되니, 고해, 즉 노해이며, 노씨를 사성한 시조이며, 주대周代 천자국天子國이 왕 칭호를 썼기 때문에, 제후국은 공 칭호를 썼다.
(盧泰久 경기대 사회과학과 교수 〈중국 東陽市の 盧宅을 다녀와서〉 노씨종조 435호. 2004.11.20. 주, 盧宅은 절강성浙江省 동양시東陽市에 있는 세계 제1의 종택宗宅이다)

최근에 중국 우한(武漢)의 중남민족대학 남방소수민족연구소의 양완취안(楊萬娟) 교수가 역사문헌을 고증하여, 2000여 년 전 진나라 말엽에. 신라를 건국한 사람들이 방사方師 한종漢終이 이끌고 한반도로 넘어간 3,000명의 초나라의 나씨와 노씨들이라는 설을 제기하였다.
이들이 한반도로 가서 진한辰韓과 변한弁韓의 주축을 이루었고, 신라의 먼저 국명 사로의 주축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사로스盧가 노씨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아울러 방사 한종이 단군신화에 나오는 한웅의 원형으로 생각한다는 설도 제기하였다.
단군신화도 초나라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단군설화가 숭배하는 토tem이 곰과 호랑이인데, 초나라 토tem 역시 곰이며, 초나라 왕족 성이 웅(熊)이라고 밝혔다.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다 본 두 지역(三危와 太白)이 오늘날 쓰촨(四川)성과 간쑤(甘肅)성 교차지에 있는 민산岷山과 한국 강원도 태백산을 가리킨다고 양 교수는 주장했다.
(〈후베이일보 湖北日報〉)

이 주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초나라 왕족의 성이 웅熊이라고 한 점이다.
초의 선왕이 웅역이 살던 곳 형산이 곤오족이 살던 곳이다.
따라서 초나라가 곤오족이 세운 나라임을 알 수 있다.(아래 주, 참조) 곤오족은 9900년 전에 한국을 세운 한인천제의 60대 손이다.

초나라의 방사 한종이 나성과 노성 3000명을 이끌고 한반도로 건너와 신라를 세웠으므로, 신라는 중국인이 세운 나라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초나라는 이미 풍이족에 속한 기성곤오족이 세운 나라이므로,
한국 구한족에 속한 풍이족의 후예인 동이족이다. 초가 동이족이고,
화하족이 또한 동이족의 전신인 구려족에서 갈라져 나갔으므로,
화하족이 역사의 정통성을 찾다면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주:

형산荊山을 곤오족昆吾族이 살던 곳이라고 하였다. 또 <左傳> 哀公 17년에 '곤오의 허墟'에 대하여, 웅주戎州에 있던 기성己姓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부소보서扶蘇譜序>에서 밝힌, 곤오족의 모계족성이 기성己姓이고, 풍이족 출신의 한인천제의 후손이라는 말이다.

杞가 하우씨夏禹氏 이므로 기성이 곤오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곤오가 하족夏族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문족보연구>자 유정은 곤오가 한인천제의 60대, 또 61대 양 대의 손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말이거나, 알면서도 왜곡을 한 것이다.
하우씨는 황제가 25명의 아들을 낳아 기씨杞氏를 賜姓한 기씨杞氏의 후예이다. 기성己姓은 족성族姓(모계족성母系族姓)이고 기씨杞氏는 씨칭氏稱(부계씨칭父系氏稱)이다. 그러므로 모계족성을 가진 곤오가 부계씨칭을 가진 하족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신라를 세운 사람들의 주축은 탁록에서 한반도로 건너온 사람들

신라를 세운 사람들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은 하북성의 탁록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청구(상국 때 탁록으로 지명이 바뀜)가 황제에게 멸망할 때와 단군조선이 진에게 멸망할 때 2차에 걸쳐서 한반도로 이주하였다.
그러므로 신라 사람은 청구와 단군조선의 망인들로 볼 수 있다.

초나라는 BC8세기경에 건국했으나(건국연대는 알려지지 않았다),
BC223년에 진에게 멸망했다. 진에게 멸망한 단군조선의 멸망 때(BC238)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므로 초의 망인과 단군조선의 망인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로 이주했다고 볼 수 있다.

한전에 기록된 50여 국 중에서 단 하나 초리국만 소개되어 있다면,
이 초리국을 초국을 떠난 사람들의 나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초국에서 온 사람들의 나라는 단 하나도 수록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에서 노성은 2대 대성에 속하는 성이다. 노성이 대성이므로,
초와 단군조선이 멸망했을 당시에 노성이 대성이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대성이 한반도로 이주하여, 국명에 노廬자가 들어가는 여러 소국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친일파? 우리의 2세는 친미파?

노중평

일본인 남자와 오래 살다가 신이 내려 무당이 된 최호정씨와 여러 번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단군왕검에 대하여 관심이 많기 때문이었다. 마침 나가 쓴 책 〈일본의 신도와 마쓰리〉에서 단군왕검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였기에 읽으라고 주었다.

그 책에서 나는 외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고학 유물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여 단군왕검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일본에 사셨어요?”

하고 물었다.

나는 일본에 가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가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에 살았던 사람처럼 글을 썼어요?”

그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그 책에서 나는 일본이 역사를 시작한 시기가 우리 조상이 역사를 시작한 시기와 거의 같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아울러 우리와 일본이 동근동족同根同族이라는 주장도 하였다. 일본의 신화神話와 신도神道を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이었다.

그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자문을 요청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내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어떤 사람이 노선생님이 친일파라고 가까이 하지 말래요.”

최호정씨는 일본인 남자와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친일파라면 그는 골수분자 친일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여자에게 내가 친일파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아닌 듯싶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인터넷을 뒤지다가 ID 마하라자(poet6)라는 분의 글을 읽게 되어 글이 쓰고 싶어져서 최호정씨를 기억의 창고에서 끄집어내었다.

마하라자 씨가 쓴 글이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내가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는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물론이고 깊은 한숨마저 쉬게 만들고 말았다.

마하라자 씨는 일본의 땅 오키나와에 여행을 가려고 일본지폐를 환전했는데, 그가 받은 1000원 짜리와 5000원 짜리 지폐를 받아 들고 그 두 지폐에 인쇄된 남녀 초상화를 보고 그들이 누구일까 하고 궁금하여 인터넷을 뒤졌다고 한다. 그가 찾아낸 것은 놀랍게도 이미 세상을 떠난 일본의 소설가들이었다.

남자는 일본 '사소설의 대가' 나쓰메 소세키(1867~1916)였고, 여자는 '히구치 이치요(樋口奈津)'(1871~1896)로 <흐린 강>, <십삼야>, <키재기> 등을 문예구락부에 발표하고 24세의 나이에 요절한 여자였다. 나쓰메 소세키는 1000원 짜리 지폐에 초상이 올라 있고, 히구치 이치요는 5000원 짜리 지폐에 초상이 올라 있다. 남자는 신사복을 입고, 여자는 전통 키모노를 입고 있다.

나는 남자 소설가와 여자 소설가 두 사람의 초상화를 보며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치졸하고 상스럽기 때문이었다.

마하라자의 영문 ID가 poet6인 점으로 보아서 시를 쓰는 시인인 듯싶고, 혁명의 숫자 6을 poet 뒤에 붙인 점으로 보아서 혁명을 꿈꾸는 시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비 잘 만나서 왕이 되고, 중국을 모사해서 학문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고 왕이 된 세종대왕과 대학자가 된 율곡과 퇴계 두 분을 대놓고 빈정거린다.

우리가 일본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우선하는가를 분별할 줄 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해도 따라잡지 못한다. 생각 자체가 우리와 다른 것이다.

요즈음 너나 없이 자식들 영어교육에 여념이 없는 젊은 부모들을 보면서 앞으로 젊은이들의 2세들이 미국의 이름난 학자들을 열심히 모사하여 미국의 아류로 이름이 나서 그때의 대한민국 화폐에 초상화가 올라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에 가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미국의 속국이 되어 온 국민이 영어를 주절거리며 살아가는 영어권의 국가로 전락하게 되고 말지도 모른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본은 우리가 영어권의 국가로 전락해 있을 때도 건재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을 나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곳에서 상고사 찾기〉

곳은 민족의 근원을 밝힐 수 있는 역사기록물

노중평

1) 세 종류의 인종으로 구성되었다는 한민족

가 우리는 단일민족일까?

스미소니안 연구소의 알레스 흐들리카(Ales Hrdlicka) 박사는 우리 민족¹⁾에 대하여, “첫째 중국인과 같은 모습의 인종, 둘째 바이칼호 근처에 살고 있는 브리아트와 같은 인종, 세 번째 유럽의 고산족과 같은 인종의 세 종류 인종의 혼혈로 이루어져 있다”²⁾는 의미의 말을 그가 쓴 글에서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인종으로 한민족이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애초부터 단일 혈통의 단일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자주 쓰는 배달민족이라는 어휘를 분석해 보아도, 우리가 단일 혈통의 민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배달민족이라는 어휘에 감추어진 다양한 뜻

① 뱀 · 배의 2 가지 뜻

㉓ 뱀에서 태어난 민족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우리가 9,900년 전에 한국을 세운 풍이족風夷族을 조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풍이족風夷族의 풍風자에 들어 있는 충虫자는 뱀을 의미하는 문자이다. 풍이족은 뱀을 종족의 아이콘으로 사용하였다.

㉔ 배가 다르게 태어난 종족이라는 뜻이다. 배가 다르게 태어난 종족의 집단을 배달민족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배가 다르게 태어난 종족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따라서 그 명칭이 변화였다. 시대에 따라 구황족(구한족) · 배달족(구려족) · 동이족(조선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九皇族

우리 역사에서 맨 먼저 등장하는 종족명칭이 구황족九皇族인데, 구황족이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때는 한인천제가 한국을 세운 한국시대

이다. (〈三神五帝本紀〉)

우리의 황해도 철무리굴 사설에 이상하게도 구황이라는 문자가 나온다. 구황족의 최고 어른을 구황대주님이라고 하였다. 구황대주님은 구황족의 후손으로서 고향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천해天海 · 금악金岳 · 삼위 · 태백太白이 九桓에 속했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9皇의 64民이라고 하였다. 구황족 중에서 한인桓因이 나와 한국桓國을 세웠다.(〈한단고기 삼신오제본기〉 156쪽, 전신세계사) 이때 한인의 9형제가 구황을 나누어 다스렸다. 삼위 · 태백은 후대에 가서 한웅천왕이 배달나라를 세운 곳이다.

③ 九桓族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구한족九桓族이다(〈三聖記全〉). 구한족은 한국을 세운 풍이족과 제국을 건설했던 모든 종족을 말한다. 수메르도 이 구한족에 포함된다. 수메르는 메소포타미아보다 먼저 지금의 이라크 땅에 정착한 종족이다. 당시에 세계는 12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2제국의 총체적인 명칭이 한국이었고, 桓因을 한국의 천제라고 하였다.

④ 倍達族 · 九黎族

구한족 다음에 배달족이 등장한다. 배달족은 달리 구려족九黎族이라고도 하는데, 구려족도 역시 아홉 종족이라는 뜻이다. 배달족은 배달나라를 세운 한웅천왕 때의 종족 명칭이다.

⑤ 東夷族

구려족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동이족東夷族이다. 동이족은 구려족의 명칭이 바뀐 것이다. 동이족의 중심이 되는 종족이 조선족이다. 오랜 세월을 종족의 명칭이 이렇게 변천되어 왔다.

다 족성의 원칙, 한국의 姜성은 중국에서도 姜성

① 한국의 강성과 중국의 강성은 동족

알레스 흐들리카(Ales Hrdlicka) 박사가 말한 “중국인과 같은 인종이 우리에게 많다” 고 한 말이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성씨와 중국인의 성씨를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예컨대, 한국인 강姜씨나 중국인 강姜씨의 조상이 같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들이 언어가 달라진 것은 오랜 세월을 나뉘어 살았기 때문이다.

라 세 인종에 대한 추론

① 중국인과 닮은 인종

알레스 흐들리카 박사가 말한 대로, 우리민족과 중국민족은 닮은 사람들이 많다. 두 민족이 함께 구황족 · 구한족 · 배달족 · 구려족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이다. 구려족시대에 동이족과 화하족이 갈라지게 되었다.

㉔ 동이족東夷族과 하화족夏華族(華夏族)으로 나뉘게 된 탁록대전□鹿大戰

대륙은 구려족으로 불리던 시대에 중원中原은 치우천왕이 다스리는 청구국靑丘國·유망이 다스리는 유망국楡罔國(楡伯國)·황제가 다스리는 황제국黃帝國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단군신화에 나오는 웅족熊族이라는 모계집단에 속해 있었다. 이들의 성은 강성姜姓이었다. 황제가 먼저 그의 이복형 유망을 아우르고, 이어서 탁록□鹿에서 치우천왕과 10년 전쟁을 벌였다. 치우천왕이 패하여 청구국이 멸망하였다.

④ 한반도로 이주한 노성盧姓과 나성羅姓

이때 말을 잘 기르는 마가馬加에 속하는 노성盧姓 종족이 한반도로 이주하였다. 이들 외에도 나성羅姓이 함께 이주하였다. 이들은 1만여호에서 수천호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들의 나라 이름에 盧자를 넣어 불렀다. 盧는 말을 잘 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들의 원래 성은 웅성熊姓이었고, 또한 강성姜姓이었다. 청구국이 멸망하면서, 강성을 노성이나 나성으로 바꾸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에 단국檀國이 일어났고, 단국의 이름을 3대 단제檀帝인 단군왕검이 BC2333년에 배달나라倍達那羅로 바꾸었다가 10년 후에 조선朝鮮으로 바꾸었다. 배달나라의 나羅는 나성羅姓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노성은 2대 대성大姓에 속하는 성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중국인에 닮은 사람들이 많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에 살면서 우리와 닮은 사람들은 대체로 중국의 산둥반도나 만주 쪽의 사람들이다. 산둥반도 쪽에서 온 사람들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등 중국 대륙과 인접한 바다를 통하여 들어온 사람들이라 한반도에서 생활이 가능해진 사람들이다.

② 만주에서 한반도로 온 사람들

만주 쪽에서 한반도로 온 사람들이 북한 쪽에 정착하였다. 이들은 처음에 배달민족으로 중원에 정착하여 살았으나, 치우천왕 유망 황제의 제 종족으로 갈라져 살기 시작하면서 동이와 하화로 헤쳐모여가 되어 오늘날의 한국인과 중국인의 조상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㉔ 러시아 토착민 브리아트와 바이칼호

둘째로 러시아 토착민은 바이칼호 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브리아트와 같은 인종들이다. 브리아트의 무속신앙과 우리의 무속신앙이 거의 같다는 점에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종이라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브리아트 무당은 굿을 할 때 황해도 무당이 굿당에 걸고 굿을 하는 명두를 목에 걸고 굿을 한다.

④ 부리아트와 바이칼 문자 분석

부리아트나 바이칼이라는 문자를 분석해 보아도 그들이 우리와 같은 계열임을 알 수 있다. 브리아트의 브리는 부르의 변음이다. 부르는 불이고, 불을 부루와 같은 뜻이다. 부루는 단군왕검의 장자로서 조선의 제2대 단군이 된 분이다. 브리아트는 단군왕검의 대를 이어서 제2대 단군이 된 부루의 후손으로 볼 수 있다. 부르는 우리 무속신앙의 무조巫祖가 된 분인데, 그들이 무조 부루단군의 신앙을 계승했다면 우리의 무속과 그들의 무속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단군왕검의 후예인 조선족의 일부가 바이칼호 쪽으로 이동하여 정착했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바이칼은 밝은 칸, 즉 밝은 달 임금이라는 뜻이다. 박달임금은 단군을 의미한다. 바이칼호가 단군신앙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성지로 여기는 바위가 바이칼호에 있다.

③ 허연 피부를 가진 유럽 고산족

서구인을 닮은 허여멀건 피부를 가진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있다.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성이 우리나라 성 중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이다. 이들은 사천성四川省 보주普州쪽에서 이주해 왔는데, 그들의 조상은 드리비다어를 쓰며 인도 북부에 살던 드라비다인들이었다. 이들은 유럽의 아리안계 종족인데, 흉노족이 인도의 북부를 침범했을 때, 흉노족에게 쫓겨 사천성으로 이주하였다가 한반도의 남쪽으로 와서 정착한 가락국 계열의 후손들이다.

마.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

① 단일민족은 허구

이렇게 한민족은 알레스 흐르들리카(Ales Hrdlicka) 박사가 지적했듯이 ① 중국계와 ② 러시아계와 ③ 유럽 고산족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땅에 순수한 단일혈통의 단일민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민족

그러나 우리의 민족은 최소한 9개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이 살고 있던 땅도 산둥반도나 만주에 국한되지 않았고 좀더 광범위하였다. 그리고 최초로 문명을 연 문명인으로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누려왔다.

2) 삼신에서 태어나는 인류의 선조 나반과 아만

가 삼신-나반과 아만의 후에 9황 64민

한민족의 조상을 세 갈래로 정리했는데, 이들 세 갈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인류의 시조인 나반과 아만(250만년전, 한민족 상고사정립선양회 주장)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들은 구황九皇 64민의 조상이 된다. (《三神五帝本紀》)

① 종교적 의미에서 우리는 삼신의 자손인 나반과 아만의 후손

우리는 나반과 아만의 후손이다. 나반과 아만이 언제부터 인류의 조상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14,000년 전에 동이의 조상이 된 마고보다 훨씬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로 생각된다. 마고는 우리 조상에게서 삼신으로 추앙받는 분이다. 따라서 우리를 삼신의 후예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나반과 아만의 의미

① 나반은 처음 낳아 받은 사람이라는 뜻

나반은 남자이고 아만은 여자이다. 문자를 분석해 보면 나반은 처음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나’ 는 낳는다는 뜻이고, ‘반’ 은 ‘받’ 의 변음으로 보고 ‘받다’ 로 읽는다. ‘나’ 자와 ‘반’ 자를 합하여 ‘낳아 받다’ 로 읽을 수 있다. 아만의 ‘아’ 자는 ‘아이’ 로, ‘만’ 자는 ‘만들다’ 로 읽으면 ‘아이를 만든다’ 는 뜻이 된다.

또한 ‘아(阿)자’는 언덕이고, ‘만(曼)’자는 아름답다는 말이다. 아만을 아름다운 언덕으로 읽을 수 있다. ‘아름다운 언덕’은 ‘아반’이 기댈 수 있는 여자의 성적인 은유일 수 있다.

〈한단고기 삼성기전三聖記全〉에는 나반과 아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② 나반의 후예는 유일신의 자손

“인류의 조상을 나반이라고 한다. 처음 아만과 서로 만난 곳은 아이사타라고 하는데, 꿈에 천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스로 혼례를 이루었으니(〈三神五帝本紀〉), 구한九桓(풍이의 다른 이름, 동쪽에서 태어난 아홉 종족)의 무리는 모두가 그의 후손이다” 인류의 조상인 이들을 세상에 보낸 분은 유일신有一神(〈삼성기전〉 상편)이고, 유일신의 계시를 따라서 아이사타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아이사타는 순수한 우리 말 “아이가 사타구니에서 태어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아이사타 이외에 사타려아로도 불린다고 했는데, 사타려아는 아마 “사타구니로 아만이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누군가의 몸에서 나반과 아만이 각각 태어났는데, 두 분이 다 사타구니에서 태어났으므로, 그들의 조상 역시 나반과 아만과 같은 인간의 사타구니에게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반과 아만 탄생신화는 이점을 밝혀주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각자 태어났고, 또 우연히 만났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 유일신은 삼신

인류의 조상을 달리 삼신이라고도 하였고, 풍이의 후손인 동이는 삼신의 후손이라고도 하였다. 삼신에게서 인류가 태어났다는 말이다. 삼신은 모계사회를 창설한 마고와 궁희와 소희이다. 이들이 삼신이 되는 철학적인 근거는 〈천부경〉의 일석삼극一析三極에 있다.

④ 삼신은 一析三極의 원리에서 분화

하나로부터 셋으로 분화하는 현상이 일석삼극이다. 삼신은 별로서는 해와 달과 북두칠성이고, 우주를 구성하는 원리로서는 삼태극三太極이다. 삼태극은 힘으로서는 강력剛力과 유력柔力과 중력中力이고, 음양으로 보면, 음과 양과 조화이다. 이를 천신이라고 하였다.

3) 문명을 연 마고삼신의 후예

가 마고삼신의 후예 구황족에서 나온 풍이·오이, 구려·구이

신라 때 박재상선생이 쓴 〈부도지〉에 따르면, 마고(14000년 전)에 의하여 마고족이 태어난다. 마고에 의하여 태어난 궁희와 소희가 삼신이 되고, 궁희에게서 청궁과 황궁이 태어나고, 소희에게서 백소와 흑소가 태어나고, 구황족九皇族이 태어났다. 구황족에서 풍이風夷와 오이烏夷가 나온다. 우리의 선조 풍이는 삼신산에서 마고지나를 세운 마고의 후손이다. 풍이 이후에 구려九黎가 나오고, 구려 이후에 구이九夷가 나온다. 구이에서 조선족이 나온다. 이러한 민족구성의 역사를 추적하면, 태초에 나반과 아만이 문명이 없던 시대에 인류의 시조로 태어났고, 문명시대가 열리면서 마고가 문명인의 시조로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기록과 우리 무가를 비교하여 유사한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유사한 부분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한다.

① 구이족의 농사를 기원하는 철마지굿

철무리굿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의 절기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굿3)이다. 철무리굿은 철따라 하는 마지굿이다. 황해도에서는 이 굿을 철무

리굿이라고 한다. 무리와 함께 하는 굿이므로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② 철마지굿의 시작은 태양이 각수에 드는 춘분마지

마지굿에는 춘분마지, 하지마지, 추분마지, 동지마지의 네 가지 굿이 있다. 춘분마지는 우리민족의 근원이 해가 각수角宿에 드는 춘분에 있다고 하여 이를 기리는 굿이다. 우리 조상은 스스로를 각수라고 생각하였고(〈태현경太玄經〉 이괘夷卦), ‘이夷가 해를 맞이하는 천제’를 ‘춘분마지’라고 하였다. ‘이’에 속하는 사람들을 모두 ‘구이九夷’라고 하였다. 구이를 동이족이라고 하였는데, 동이족은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하는 종족들’이라는 뜻이다.

③ 일월마지의 의도는 〈천부경〉의 인중천지일

〈천부경〉에는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 안에 천지가 하나 된다’는 말이다. 사람 안에 천지가 하나 되어 일월마지를 나왔다고 하였다.

④ 추분마지

추분마지는 가을걷이를 하면서 농사를 마감하는 굿이 된다.

⑤ 동지마지

동지冬至마지는 동지가 당시에 세수歲首였으므로, 이 세수를 기리는 굿으로 자리 잡았다. 나라를 세울 때에, 세수 때, 나라를 세우면서 천제를 지냈다. 이때 행한 굿이 동지마지이다.

⑥ 마지굿의 종교화 덕교

단군왕검시대에 철마지굿을 체계화 하고 형식을 만들어 가르치면서 덕교德敎(神敎)라고 하였다. 쌀은 살의 변음이다. 무사巫祀에 제미쌀을 올리고, 쌀을 찌 떡을 만들어 덕으로 하였다.

⑦ 〈황동태일〉과 대신칼과 신장칼과 비파형동검

초楚나라4)의 굴원屈原(BC343~290?)은 그가 쓴 〈초사楚辭〉의 구가九歌 가운데에 ‘황동태일皇東太一’이 있는데, ‘황동태일’은 단군왕검에게 바치는 축문祝文이다. “제삿날(吉日)을 택하여 제사시간(辰良)에 상황(上皇-황동태일-단군왕검)을 즐겁게 하려 하네. 장검의 옥으로 만든 칼자루(玉珥)를 어루만지면, 옥이 우네.”라는 글이 있다. 단군왕검의 검과 〈황동태일〉에 나오는 劍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무당들이 대신곳에서 대신칼을 들고 춤을 추고, 신장곳에서 신장칼을 들고 춤을 추는 것은 이 〈황동태일〉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단군왕검이 무조巫祖임을 입증하는 것일 것이다. 단군조선시대의 무기인 비파형동검이 국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⑦ 춘분에서 갈라져 나간 夏至族 華夏

동이족에서 한 분파가 떨어져나가면서 스스로 화하족華夏族이라고 하였다. 화하족은 ‘하지夏至에 핀 꽃’, ‘최상’, ‘얼굴’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들이 동이족에서 떨어져나갔으므로, 하지에 핀 꽃을 의미하는 하지족夏至族이라고 하든가, 하이족夏夷族이라고 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스스로를 높여 화하족이라고 하였다. 동이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화하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주: * 蘇豊은 한국을 세운 한인천제의 61세 손이다. 그의 아들 부소갑의 딸 하백녀가 단군왕검의 비가 되었다. (<扶蘇譜序>)

⑧ 마지굿을 덕교로 승화한 단군왕검

단군조선은 3에서 확장하여 4로 완성된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종교로 나타난 것이 4계절 마지굿이다. 봄마지굿(춘분마지굿) · 여름마지굿(하지마지굿) · 가을마지굿(추분마지굿) · 겨울마지굿(동지마지굿)이 그것이다. 단군왕검시대에 철마지굿을 체계화 하고 형식을 만들어 가르치면서 덕교德敎(神敎)라고 하였다. 단군조선의 마지굿이 동족인 초나라사람에 의하여 초나라의 세시풍속5)에 반영되었다고 본다.

④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한자 영고 · 무천 · 동맹으로 바꾼 굿의 명칭

진시황(BC246~206) 8년(BC239)에 단군조선(47세 고열가단군 58년 계해 BC238)이 멸망하였다. 고열가단군은 이해에 황해도 구월산에 은거하였다.(<檀君世紀>) 이후로 굿이라는 명칭이 한자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삼한시대(BC238~AD42)로 가면서, 한자 이름인 부여(북부여 동부여 합쳐서 BC239 ~AD22)의 영고迎鼓, 예濊(예맥시대 BC 1286 ~128, 李相時씨의 주장)의 무천舞天, 고구려(BC37~AD642)의 동맹東盟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자로 쓰기 위하여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철무리굿의 원형이라고 본다.

⑤ 철무리굿 일월마지에서 경관만신이 보여주는 단군왕검

굿을 할 때 무당은 굿을 바치는 신명에게 드리는 상을 차리고, 굿에 등장하는 신명의 옷을 입고 굿을 한다. 철무리굿에 속한 일월마지굿에서는 경관만신境管萬神(굿을 관장하는 만신)이 먼저 삼신과 일월칠성을 나타내는 상을 차리고, 홍치마에 남색패자를 입고, 홍색관대를 두르고, 흥배를 매고, 등 뒤에 일월꽃을 꽂은 다음에, 머리에 수건을 매고, 호수갓을 쓰고, 일월대를 들고 그 자리에서 한바퀴 맴돌아 사방에 절하고, 장고 앞에 서서 만세받이를 한다. (김금화 저 <검으나 따에 희나백성> 철무리굿 일월성신마지 44, 45쪽)

위에 인용한 글에 나오는 복장6)과 유사한 복장이 단군조선시대의 일월마지에서도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치마와 남색패자의 색깔이 해와 달을 상징하고 있고, 일월대를 들고, 등에 일월꽃을 꽂고 있으니, 이 또한 해와 달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홍색관대를 두르고, 흥배를 매었다는 것은 그가 나라에서 임명한 관리이고, 또한 나라에서 임명한 제관이라는 뜻이다. 무당이 호수虎鬚갓을 썼으니, 호수갓이 호랑이수염으로 만든 것이라, 이 갓은 그가 백수의 왕인 호랑이의 수염을 차용했으므로, 제왕임을 상징한다. 따라서 부루단군이 다스리던 종족인 호족虎族(虎加)의 임금이라는 뜻도 된다. 그가 한 바퀴 맴돈다고 했는데, 이는 1년이 지나갔음을 의미한다.

⑥ 일월마지는 일월칠성마지

일월성신마지는 일월칠성마지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천부삼인天符三印마지가 된다. 천부삼인을 형상화한 것이 황해도무당이 굿을 할 때 마지를 걸어두는 굿상을 차린 벽의 상단에 걸어두는 명두明斗이다. 명두의 뒷면에 새긴 일월칠성이 일월성신마지의 대상이 된다.

⑦ 일과 동일시되는 구황대주 한인천제와 월과 동일시되는 나라천대주 단군왕검

일월마지에 나타나는 구황대주님은 한국의 한인천제이다. 무당은 무가사설을 구연할 때 한인천제의 근력을 먼저 빈다. 그리고 나서 나라천대주님을 빈다.

“...철무리를 대령할 제 구황대주九皇大主님의 근력으로 / 나라천 대주님의 정성으로 / 식구들의 일심정성으로 / 한마음 한뜻이 되어 / 일월마지 나왔습니다. / 해가 돌아 日萬國을 비추고 / 달이 돌아 화산국을 비칠 제....” (김금화 저 <김금화 무가집> 검으나 따의 나라 희나백성의 노래) 철무리굿 일월성신마지 45쪽)

⑧ 일월성신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문자해석

위에 인용한 글을 역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무가사설에 나오는 몇 가지 문자를 해석하여, 해석을 토대로 하여, 추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일월성신의 실체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철무리를 대령할 제”는 “어느 누구에게 철무리궂을 바칠 때”라는 뜻이다. 그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위 인용문에 보면, 철무리궂을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돕는 엄청난 세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구황 대주님이 근력으로’ 돕는다. 두 번째로 ‘나라천 대주님이 정성으로’ 돕는다. 마지막으로 ‘식구들이 일심정성으로’ 돕는다. 이렇게 ‘구황의 대주님’과 ‘나라천의 대주님’과 ‘식구’가 함께 일월마지를 돕고 있는 것이다.

⑨ 대주님을 대인주인(한웅천왕주인)으로 해석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대주님’이 무엇인지 ‘대주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대주님은 대주大主님으로 볼 수 있는 분이다. 대주大主는 대인주大人主로 해석된다. 大人의 주인이 되는 분이라는 뜻이다.

‘대인의 주인’은 우리 역사에서 배달나라를 세운 ‘한웅천왕桓雄天王’으로 볼 수 있는 분이다. 배달나라의 역대 천왕이 모두 ‘대인’이었으므로 이분들의 주인이 되는 분을 ‘대인주인’ 즉 ‘대주’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⑩ 웅족과 호족시대 서자부 대인

‘대주’는 본문에서 ‘九皇의 大主님’으로 나온다. ‘구황’은 웅족熊族과 호족虎族이 서로 다툰 때에 있었던 종족 이름이다. 이때에 한웅천왕이 있었는데, 배달나라의 천왕天王으로 등극하기 이전이었고, 서자부대인庶子部大人으로 있었다.

⑪ 일월마지는 묘한족의 천문제례

서자부에 속했던 종족이 구황족九皇族이다. 구황족 중에서 묘한족苗桓族이 역사에 종족 이름을 남겼다. 묘족한은 치우천왕(자오지한웅천왕) 때에 묘족苗族으로 불리었다. 묘한족은 유목을 하고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천부경>의 가르침을 철저히 지켰다.(<桓檀古記 三神五帝本紀> 198쪽, 정신세계사) 한웅천왕은 율놀이를 창안하여 백성들에게 율놀이를 가르쳤다. 이렇게 묘한족의 배후에 한웅천왕이 있어, 백성들에게 천문을 가르쳤다. 일월마지는 당시에 해와 달에게 행했던 천문제례天文祭禮였다고 생각된다. 묘한족-구황족이 행하던 일월마지가 지금도 전해 내려온다.

⑫ 나라천의 나는 노의 변음 라는 나 그대로 원음

나라천대주님의 나라천은 那羅川으로 볼 수 있는 이름이다. 國國이 모인 것이 나라이다. 천은 나라의 강이니,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과 같은 강이다. 식구는 일월마지를 하는 사람들이다. 구황을 천천으로 본다면, 나라천은 지地가 되고, 식구는 인人이 된다. 천지인의 구도가 이 무가사설 가운데에 있다. 사설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월마지 나왔습니다’라고 했으므로 천지인으로 한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다.

치우천왕이 다스리던 청구시대에 청구를 구성하는 종족으로 마가馬加로 볼 수 있는 종족이 웅족熊族에 속한 강성姜姓에서 나온 노성盧姓과 나성羅姓이었다. 나라那羅는 오늘날의 국가에 해당하는 말인데, 노盧의 변음인 나那와 나성을 뜻하는 나의 합성어이므로, 웅족에 속한 노성과 나성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마가가 살던 곳을 나라라고 하였다고 본다. 이들이 탁록강□鹿江가에 살았으므로, 노성과 나성을 따서 탁록강을 우리 무가에서 나라천那羅川이라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가 배달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배달나라의 나라도 또한 노성과 나성이 주축이 되어 이룩된 나라를 뜻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배달민족이라고 할 때는, 웅성·노성·나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⑬ 조선의 해가 비추는 일만국과 조선의 달이 비추는 화산국

‘해가 돌아 일만국을 비치고 달이 돌아 화산국을 비친다’ 고 했으니, 일월마지를 하고 난 다음에, 동쪽으로 뜨는 조선의 해가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비치고, 달이 이 나라의 서울을 비친다 ‘는 말이다. ’ 일만국 ‘은 일만국日萬國이므로 ’ 온 나라에 해가 비친다 ‘는 뜻이다.

‘달이 화산국華山國에 비친다’ 고 했으니, 華山은 삼각산三角山이므로, ‘달이 삼각산의 나라, 즉 서울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게 비친다’ 라는 뜻으로 풀이 된다. 또한 國國에는 서울이라는 뜻도 있으므로, 화산이 있는 서울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달이 서울의 삼각산을 비춘다’ 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서울의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들로 해석된다. 일월마지의 의미가 이러하다.

⑭ 일월성신마지는 한인·한웅·단군왕검이 각 인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한 제천의식

일월성신마지는 한인·한웅·단군왕검 세 분의 시대에, 세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각 인종을 농사로 통합하는 수단으로 행해 오던 제천의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굿을 행함으로써, 한인시대에는 구황족(구한족)을 통합하려 하였고, 한웅시대에는 구려족을 통합하려 하였고, 단군왕검시대에는 동이족을 통합하려 하였다.

1) 굿은 민족의 근원을 밝힐 수 있는 역사기록물의 보충자료

종족에서 분리되는 인종 : 종족은 동식물이 본능적으로 생산해 낸 부류를 말한다. 그러므로 종류가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다. 이 종족에서 인종人種을 분리해 내어 비로소 종족과 인종이 구별된다.

인종은 同人種과 他人種으로 분리 : 인종은 역사적 환경·자연적 환경·지역적 환경·인위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환경적 요인으로 같은 인종과 다른 인종으로 구별되게 된다.

역사적으로 구별되는 인종 : 역사적 환경에 의하여 구석기인·신석기인·현대인종 등이 구별된다.

자연조건에 의하여 구별되는 인종 : 자연환경 요인에 의하여 바다나 강가에 사는 漁撈族, 산에 사는 狩獵族, 들에 사는 農事族 등으로 구별된다.

지역적 조건으로 분리되는 인종 : 아시아에 사는 아시아인종, 유럽에 사는 유럽인종, 아프리카에 사는 아프리카 인종 등으로 구별된다.

인위적으로 구별되는 인종 : 경제의 발전, 이념의 대립,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의하여 인종이 경제동족, 이념동족, 문화동족 등으로 구별된다. 우리는 미국과 자본주의 동족이 되고, 북한은 중국과 사회주의 동족이 된다.

민족의 구성

민족은 출신성분이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하나의 혈연 공동체를 만들고,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전통을 계승하면서 민족으로 발전하게 된다.

민족의 다양한 개념화

민족의 역사는 적어도 14000년 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 민족의 태동은 마고에 의하여 구성된 모계사회인 麻姑之那이다. 삼신을 섬기며 시작하였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종교를 토대로 구성된 종교민족, 신체의 특징을 토대로 구성된 혈연민족, 문화적 특성을 토대로 구성된 문화민족 성향을 구성요소로 하여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민족이 형성된다.

언어를 민족분리의 기준으로 하여 <조선족>·<인디언족>·<게르만족>·<라틴족>등으로 불린다. 또한 생활수단을 토대로 하여, <농경민족>·<유목민족>·<기마민족>등으로 불린다.

민족관념 형성

고대 그리스인은 자기와 언어가 통하지 않는 민족을 바르바로이(barbaroi)라고 하였다. 바르바로이를 우리 조상인 풍이족의 문자로 바꾸어 쓰면, 발발이發發夷가 된다. 즉 발이發夷라는 뜻이다. 발이는 발인發人이다. 관자管子는 발인을 동이東夷라고 하였다. 동이라는 말은 구려족이 동이족과 화하족으로 분리된 이후에 생겨난 호칭이다. 이들은 모두 산둥반도와 그 이북 지역을 생활의 터전으로 하였다. 이들의 일부가 그리스 쪽으로 이주하여 바르바로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본다. 그러므로 바르바로이·發夷라는 말이 민족의 근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족을 의미하는 겨레족族자는 발을 의미하는 母과 發(사람의 발, 동이족의 발)자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와 같은 사고를 자민족중심주의

(ethnocentrism)라고 한다.

훗카이도北海島·사할린·쿠릴열도에 사는 인종을 ‘아이누’라고 하는데, 몸에 털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누런 털이 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누’라고 했다고 본다.

18세기 중엽에 들어서서, C린네가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는 학명을 부여하여 잡다한 인종을 단일 인종으로 통합하여 불렀다. 18세기 말까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종족이 다 파악되었다. 이후로 단일인종을 인류(man; mankind; humankind; humanity; the human species [race]; human beings)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인류와 국가

인류에게는 국가라는 전제가 있다.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 그가 소속한 국가의 이념적 성향과 국가가 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이념적 정치성을 띤 인류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현대적 의미의 민족을 의미하는 국민성이 결정된다.

갈등이 심한 복합민족국가에서는 2개의 국민성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국가에 속한 두 민족이 각기 가지고 있는 정치적·경제적·종교적·문화적 이데올로기가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특정한 민족집단(ethnic group)이 주도권을 쥐게 됨으로써 사회성층社會成層을 형성하고, 주도권을 쥐지 못한 집단이 사회성층에 편입되고 동화됨으로써 두 민족의 갈등은 완화될 수 있다.

민족주의의 대두

국가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민족은 존재한다. 희랍에서는 바르바로이라는 말이 사용되면서 자민족과 이민족을 구별하였다.

우리는 이미 마고시대부터 마고족麻姑族·부도족符都族·삼신족三神族 등 다양하게 불릴 수 있는 민족이 생겨났다. 이들이 삼신과 마고의 유시인 해혹복본과 천부삼인을 민족 이데올로기로 하여 민족을 결성했다고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록이 〈부도지〉이다. 부도지에는 마고의 후예로 황궁黃宮·청궁靑宮·백소白巢·흑소黑巢의 네 종족이 생겨났다. 이 네 종족이 민족구성의 시초이다.

민족주의는 이때에 처음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이 민족주의는 종교적·혈연적 민족주의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민족주의가 단군조선 멸망 때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학자들은 이 상고시대의 민족주의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다.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와조시대에도 민족주의가 없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민족주의 형성기를 1876년 강화도조약에서부터 본다.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동으로서 민족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두 번째는 실학사상의 대두에서 민족주의를 찾고자 한다.

세 번째는 서구 열강과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자주성을 찾기 위하여 민족주의가 대두했다고 보는 것이다.

네 번째는 3.1운동을 민족주의의 시발로 본다.

배달민족 : 9900년 전에 한인천제가 한국桓國을 세운 풍주배곡風州倍谷에서 태어난 민족.

2) “한국인은 신체적으로 백인의 특정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 사이에는 3가지 구분이 가능한 인종적 특질이 있다. 한 부류는 중국에 가장 인접한 지역에 살면서, 중국인과 비슷한 모습이다. 또 하나, 키가 작고 단단하고 피부색깔이 짙은 부류는 시베리아 토착민과 유사한 모습이다. 세 번째 부류는 한국인의 대부분을 점유하는데, 키가 더 크고 옅은 피부를 가졌다. 이 부류의 젊은 사람들은 뺨의 색깔이 홍조를 띠는데, 이는 몽고족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다. 남성의 일부는 두부의 형상이 유럽의 고산족과 흡사하다. 이러한 백인과의 유사점은 한국인들의 조상 중에서 아시아계 백인의 계통이 숨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인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는 안개 속의 미스터리이다. 그들은 선사시대에 인도 북부로부터 현재의 반도로 이주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나 중국인들의 역사에 의하면,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다.” (〈부도지〉 474~475쪽 윤치원)

위 글은 신라 때 사람 박재상이 쓴 〈부도지〉를 다양한 학문을 동원하여 해석을 시도한 윤치원씨가 윌리엄 R 콜린스가 쓴 고대인(Ancient Man)에서 번역하여 소개한 글이다. 윌리엄 콜린스는 그가 쓴 글에서 한국인을 구성하는 종족으로 3가지 부류의 종족이 있음을 말했던 것이다.

3) 중원에서 굿은 삼국시대에 한나라와 라이벌관계에 있었던 초나라 때에 이미 나라에서 제사의 한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초나라 때 사람 굴원이 쓴 초사에는 무가로 보이는 시들이 기록되어 있다. 초나라는 단군왕검과 같은 웅족熊族 출신이고, 처가 쪽의 사람인 소풍蘇豐 계

열의 사람 웅역熊繹이 세운 나라이다. 때문에 초나라는 단군왕검을 초나라의 조상신인 황동태일皇東太一로 모시고 숭상하였다. 태일은 단군왕검의 시호이기도 하다. ‘황동皇東’은 ‘동이족의 황제’, 또는 ‘동쪽 구황족九皇族의 태일(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말이다. 태일은 복두칠성 선기옥형의 머리 쪽에 떠있는 태일성을 의미한다. 태일성은 철학적인 의미의 단일신인 하나님이다. 초나라사람들이 단군왕검을 조상신으로 모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시하여 모셨던 것이다.

4) 최근에 중국소수민족 전문가인 중국 우한(武漢)의 중남민족대학 남방소수민족연구소의 양완위안(楊萬娟) 교수가 ‘신라의 뿌리가 초나라’라는 가설을 내놓았다.([국민일보] 2004/ 12/ 10) 안위안 교수는 이어서, 환웅이 천부인(天符印.거울, 칼, 방울) 3개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 왔다는 것은 무속신앙의 무구를 가리키는 것인데 초나라는 무속신앙이 성행했고 초나라 후에 묘족(苗族)은 아직 각종 무속신앙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묘족은 지금도 단오절에 마늘과 쑥으로 잡귀를 쫓는다고 하였다.

5) 이들의 세시풍속이 북주北周 때 사람 종림(500년대 사람)이 편찬한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남아 있는데, 단군조선과 같은 동이족계열의 사람들인 초나라사람들이 남긴 세시풍속이므로, 사라진 단군조선의 세시풍속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초나라 때 사람 굴원이 쓴 <초사楚辭>에도 무당이 굿하는 시가 나온다. 우리가 굿을 연구할 때는 우리와 같은 동이족이 세운 국가들의 유적과 유물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본다.

<초사> 구가에, “북채(포袍)를 들어 북(고鼓)을 치고, 박자(절節)를 맞추어 편하게 노래하네. 피리(간□)를 불고 거문고(슬瑟)를 뜯으며 크게 노래하네. 무당(영자靈子)이 춤을 추니 신복(服)이 아름다워라. 꽃은 방안에 가득하고, 오음五音이 웅장하여 어지러이 모이니, 신이 기뻐하여 즐기고 편안하네.” 초나라는 여무에게 신이 내리므로 영자라고 하였다.

6) 팔도무당 중에서 무복을 20여 가지나 가지고 있는 무당이 황해도 무당이다. 다음에 한양무당이다. 이외에 다른 고장의 무당은 무복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무당은 巫服으로 주로 무복武服을 입는다. 이는 고조선이 멸망할 때에 무당이 전쟁터에서 싸움굿(전쟁굿)을 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 유습이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 전라도와 제주도 무당은 2벌 정도를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굿을 한다. 다만 칠성거리에서 흰 고깔을 쓴다.

붉은 색의 무복은 지금도 황해도무당이 굿을 할 때 입는 무복이다. 필자는 단군왕검을 상징한다고 본다. 단군檀君의 단檀(밝다는 뜻)이 단丹(붉다는 뜻)과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巫服은 조선시대의 관복官服이다, 굿을 할 때, 홍천익紅天翼과 남천익藍天翼을 입는데, 홍천익은 당상관의 관복이고, 남천익은 당하관의 관복이다. 궁중무녀는 궁중무녀복으로 몽두리를 입었다. 원래 남천익에는 흰 끝동을 달지 않는데, 무복에는 신의 옷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흰 끝동을 달아 입는다. 백의민족을 상징한다고 한다.

박정희를 청산하고 새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까

노중평

어느 분의 글을 읽으니 “우리사회는 박정희가 지배하는 사회” 라고 하였다. 고인이 된 사람이 우리사회를 지배한다고 했으니 이처럼 이상한 말은 없을 것이다. 열린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의 신봉자들의 정부가 아니고 현직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니까 이걸 박정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님이 분명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받아들일 만큼 열리지 못한 정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차라리 “박정희정신이 지배하는 사회” 라고 하는 것이 진실에 한발 접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고, 많은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을 한국의 인물로 뽑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역사적 인물에서 1위,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로서 1위로 아예 숭배하고 있고,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이순신장군, 안중근, 유관순, 김구, 김대중 등등 모든 분이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는 분들이라고 저자는 한탄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사 최고의 영웅’ 이 되어 있고, 국민의 마음속에는 한강의 기적, 5천년 가난의 역사를 끝장낸 초인적 존재로 각인되어 있으니, 경제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박정희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했으니 극복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의 글은 박정희 대통령을 극복해야 할 대상, 숙청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저자의 이러한 비판은 비판이라기보다 혈통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이 그를 경제의 신으로 모시든, 역사의 영웅으로 대접하든, 한국의 인물로 손꼽든, 자국민이 행하는 행태이므로 이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이 1위로 뽑은 인물을 혈통고 폄하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본다. 저자는 과연 국민이 숭배하는 인물을 혈통고 폄하해야 할 만한 지고지선의 위치에 자신이 처해 있는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신격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장기집권과 유신체제 하에서 독재를 휘두르며 신처럼 군림한 때문이라고

한다. “국민이 주권자이므로 이제는 죽은 그를 욕이라도 해야 정상이 아니냐” 고 그분을 숭배하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비난한다.

그는 신의 나라에서 10년 20년 살게 되면 개인의 주체성과 주권의식은 사라지고 나라사람은 주권자에서 국가교신도로 바뀌게 된다고 말한다. 독재자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전지전능한 국가신이고, 국민은 살기 위해서 독재자를 섬긴다고 한다. 이런 말처럼 진실이 왜곡되는 말은 없을 것이다. 일반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며 신으로 군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독재권력을 휘둘러 선거제도를 없애지도 않았다. 지독한 독재국가에서 불행하게도 선거 때는 그를 반대하는 야당입후보자도 많은 수의 득표를 할 수 있었다.

저자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낡은 신격화 되어가는 한 위대한 인물을 극복해야 하는 것인지, 그를 극복한다면 과연 박정희 대안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박정희를 졸업하고 새 패러다임은 시작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다가 5천년 후에나 박정희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오게 되는 것이나 아닌지 심히 궁금하다.

수술

노중평

친구들은 한두 번씩 수술을 받았다.
 나만이 아직 몸에 칼을 대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비인후과에서 왼쪽 코 안에 물혹이 생겼다고 하여 수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계로 촬영하니 축농증이 겹쳤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오른쪽은 괜찮았다.
 드디어 친구들이 했던 대로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 공짜 삶은 없는 법이다. 남이 하는 대로 다 따라 해야 하는 것이 삶이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별을 연습하고 죽음을 연습하는 시간이 왔다는 생각을 한다.

수술실에 최근에 수술을 받은 한 기독교인 친구가 말했다.
 “실려 들어가는데 기분이 이상하더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누워서 대기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천주교인 누이동생이 말했다.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날 입원했다.
 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휠체어에 실려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수술실로 갔다.
 한잠 자고나면 수술이 다 끝나 있을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다.

며칠 전부터 기도했다.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마고 한인 한웅 단군왕검 네 분 조상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수녀가 한 분 와서 내 머리를 흰 수건으로 감싸며
 조용한 음성으로 회복을 비는 기도를 해 주었다.

수술실은 8호실이다. 여자가 3인 남자가 1인인 듯싶다.

마스크로 코를 덮어씌우더니 잠이 들었다.

이제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하직이다.

수술시간 1시간 20분. 회복시간 30분.

나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기분이 상쾌했고 내가 만나고 싶어 했던 그분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수술실 밖으로 나오니

“뒤를 돌아보지 않고 냉정하게 들어가더라고. 당신이 회복하는데 30분 걸렸어.”

수술시간 내내 가슴조리며 눈물을 흘린 마누라가 말했다.

드라마 대조영에서 대조영이 세운 발해국과 대진국

노중평

드라마 대조영大祚榮을 보면서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발해渤海라는 나라 이름과 발해라는 지명이다. 발해는 조선이 건국한 지역인 발해의 현덕부顯德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덕은 덕을 드러낸다는 말인데 현덕부와 이웃한 창덕부彰德府와 함께 조선의 고토였다고 생각된다. 창덕부는 덕을 밝힌다는 뜻이다. 조선은 덕을 국시國是로 삼아 이를 덕교德教로 불렀고 덕교로 만방을 교화하였다. 신라 말의 고은 최치원 선생의 글에 조선이 멸망할 때 대국이 9나라요, 소국이 12국이라고 했으니, 이들 나라에 덕교를 펼쳤다고 볼 수 있다. 발해국의 국도 중경현덕부中京顯德府가 있었던 곳이 여기이다.

그러나 사가들은 이상하게도 발해에 건국한 나라가 발해국이었다가 대진국大震國이 되었다고 밝히지 못하고 고구려의 고토에 건국했다고만 말하고 있다. 물론 드라마 대조영에서도 고구려의 고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연변대학의 박학봉교수는 <발해사연구>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일본의 <유취국사類聚國史> 권193에는 "발해국은 고구려의 옛 땅(高麗之故地)에 세워졌다... 땅은 2천여 리에 뻗치고 주현관역州縣館驛이 없었으며, 이르는 곳마다 마을(村里)이 있었는데, 모두 말갈부락靺鞨部落이었다. 백성은 말갈인이 많고, 토인(土人, 토착인)이 존장을 하였다."

대진국이 건국한 곳이 고구려의 옛 땅이라고 기록한 사람은 왜인사가倭人史家였다. 단군조선의 실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왜인들인데 역사를 왜곡하기 위하여 대진국이 건국한 곳이 고구려의 고토였다고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봉학 교수는 말갈에 대하여, "통구스(通古斯)족 계통에 속하며, 장백산 이북과 송화강, 흑룡강 유역 일대에 거주하였다. 그들은 역사상 부동한 시기에 부동한 명칭이었다. 진나라 이전에 숙신肅慎, 양한, 삼국 때 읍루毼婁라고 불렀다. 양진남북조兩晉南北朝시기에, 물길勿吉, 수`당시대에 말갈이라고 불렀다. 속말갈粟靺鞨은 고구려에 종속되었다...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大祚榮은 속말갈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발해국을 세웠다."라고 하였다.

통구스의 한자가 통고사通古斯이므로 이를 해석해 보면, 고사古斯를 고지아사달古地阿斯達로 볼 수 있으므로 통구스가 고조선족古朝鮮族 계열의 인종임을 알 수 있다. 고조선족 계열의 인종이 장백산 이북과 송화강, 흑룡강 유역일대에 살았다고 본다. 이들이 조선이 진에게 멸망(진시황 8년) 이후에 숙신·양한·읍루·물길·말갈 등으로 불려왔다. 숙신은 조선의 변음으로 볼 수 있고, 물길은 말이 가는 길, 말갈은 말을 갈아탄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들이 말을 잘 다루는 마가馬加의 후예임을 알 수 있다. 읍루邑累는 그들의 나라형태가 읍邑이고 그들이 단군왕검의 아들인 부루夫累 단군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뜻이다.

발해는 원래 우리 말 발(足)과 해(태양)이라는 뜻으로 단군조선시대의 동이족을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해의 발'이라는 뜻이다. 아침 일찍 해마지를 한데에서 연유한 말로 보인다.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속말갈지역에 정착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단국檀國의 홍제洪帝 때에 부족을 이끌고 온 기풍己豐(제곡고신의 침입을 물리친 후로 홍제가 蘇姓을 사성하여 기성己姓이 소성蘇姓으로 불리게 된 사람. 진주소씨晉州蘇氏의 시조가 된다, 〈朝鮮紀〉, 〈扶蘇譜書〉)이다. 그러므로 속말갈지역은 단군조선의 전신인 단국(단군왕검은 홍제의 태자로 있었다)의 영토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후예인 발해국의 발해라는 문자에는 이러한 역사가 숨어 있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의 역사를 기록한 〈신당서〉 권 219 〈발해전〉에는 중요한 단서가 기록되어 있다. 발해 사람의 생산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물품의 생산지-즉 발해 땅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백두산(태백산)의 토끼, 남해(단군왕검이 순시를 갔던 곳, 발해만 남단)의 곤포, 책성의 된장, 부여의 사슴, 막힐의 돼지, 솔빈의 말, 현주의 천, 옥주의 풀솜,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벼, 미타호의 붕어, 환도의 추리, 낙유의 배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발해국은 일본, 거란, 당과 무역을 하였다. 조선업과 항해술이 발달하였고, 무역항은 신주神州(오늘의 길림성 훈강시 임강진)과 산동성의 봉래였다. 이 항로를 압록강조공도라고 하였다. 이때 65명이나 되는 발해국의 사절단이 일본을 왕래하였다. 727년에 발해국의 무왕武王 대무예大武藝가 첫 국서를 일본에 보냈다.

발해국은 중경현덕부中京顯德府에 나라의 서울인 국도를 두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현덕부는 단군왕검이 조선을 세웠을 때의 첫 국도였다. 이로 미루어, 대조영의 꿈이 고구려를 계승하는 데에 있지 않고 단군조선을 계승하는 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대기〉에는 개화 27년 9월 21일, 고구려의 진국장군振國將軍 대중상大仲象이 평양성이 당과 신라군에게 함락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평양성을 회복하려고 출정했다가 동모산東牟山에서 나라를 후고구려라고 칭하고, 기원을 중광이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 대중상이 붕어하자, 태자 조영이 제위에 올라 당에 대하여 복수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말갈의 장수 걸사비우와 거란의 장수 이진영과 손을 잡고, 당나라 장군 이해고를 천문령에서 격파하였다.

이후 발해국은 나라 이름을 대진국大震國이라고 하고, 대조영을 비롯하여 15명의 왕들이 다스렸다. 이들 왕 중에서 발해국 초기의 왕인 대원の大元義, 대화어大華璵, 대명충大明忠을 제외한 11명의 왕들이 일본

과 돈독하게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대조영의 뒤를 이어 무왕武王(~737)은 당과 불화하여 732년에 당의 땅 등주(登州, 山東省 蓬萊)를 장문휴張文休를 보내어 공격하였다. 등주는 발해만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 대진국의 현덕부가 있어서 발해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므로 이 싸움이 요동반도의 대련을 건너온 대진국 군대와 등주를 지키는 당군 사이에 해전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巫敎學 講義 1 整理 노중평

1 巫敎神學이 存立하려면

1) 巫敎原理 究明

* 一神과 三神의 同一體論-認識論

하?님-三神으로 3分化. 해 달 칠성-天地人으로 定立 天符三印이 됨.

마고시대에 ‘解惑復本’ 이라는 神學的 메시지 完成

〈天符經〉의 原理-天地人-三神

* 天의 原理-太陽 太陰 星辰이라는 물질적 세계에서 天符三印이라는 〈천부경〉적 근본원리인 一析三極의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우주의 본원적 생명으로 보고 해·달·칠성의 물질적 존재는 사라지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았다.-觀念論

* 一析三極 分化-萬物이 분화하고 생성하는 원리이다. 이 원리에 의하여 생성하는 만물은 우주에 존재하는 독립적 존재들이다.-實在論

* 檀君神話의 生成-觀念論

* 地의 原理-發芽 生産 生育-實在論

* 人의 原理-造化 調和 神格化-觀念論

2) 巫敎資料 解析의 方法論 探究

解析方法論導出

〈符都誌〉〈檀君神話〉〈周易〉의 解析

遺物-방울·부채·天文 등의 解析

3) 巫敎資料 批判으로 眞僞, 他宗教의 侵蝕與否糾明

仙(천부삼인)이 巫(명두)로 轉移(고열가단군 때)-神仙敎가 巫敎가 된다.

仙-해·달·북두칠성-天地神 - 三神 - 一析三極 - 三太極 - 天符三印

巫-明斗, 神仙이 巫神으로 바뀜(삼불제석·일월성신·칠성·별상마누라·삼부 인·아기씨·선관·도령·글문도사·천문도사·감흥신령·서낭신·용태부인·신장 산신·용왕·백학선관·백옥선관부인·오방

신장 · 장군 등등)

仙에서 儒佛道가 나왔다는 證據

- * 佛教의 仙敎侵奪-三極을 三寶로 바꾸었다. 三寶歸依(佛寶 法寶 僧寶)
佛法(覺)-佛道(覺)-法과 道가 같고, 같음을 인식하는 것이 佛이다.
- * 儒敎의 仙敎侵奪-三極之義-一析三極의 義(義는 極의 認識論)
一析三極의 天符經의 三太極論을 一析二極의 兩太極論으로 바꿈
太極-兩儀-四象-萬物로 思惟가 發展

3의 사유체계(한국적)가 2의 사유체계(중국적)로 바뀐다는 矛盾

- * 道敎의 仙敎侵蝕-仙을 無爲自然으로 바꿈-道의 宇宙觀-兩太極
陽太極의 宇宙觀은 儒와 道가 같음.

2 巫敎의 克服

1) 四神時代에 四神神學體系 完成

단군왕검시대에 <천부경>적 四神의 神學 · 哲學體系 元亨利貞 完成

一析三極(三神-分化的 神)이 運三四成環(四神-生成消滅하는 萬物의 神)으로 發展

一析三極이 만들어내는 세계-産神의 세계

- * 天地人 - 天神 地神 人神
- * 自然神 - 構成神 因果神 生成消滅神
- * 宇宙神 - 日月星辰
- * 構成神 - 力神(強力 弱力), 質神(物質 非物質), 陰陽神, 萬物神
- * 産神 - 人産神 動物産神 木草山神 巖産神 土産神 水産神 風産神 雷産神

2) 國運과 歷史에 元亨利貞의 原理 適用

生成消滅의 觀點에서 擴大解釋

고열가단군의 결정으로 秦始皇 8년에 조선이 貞-消滅을 맞음.

九月山에 隱居하며 三聖堂을 짓고 天符三印을 明斗로 바꿈

九月山에는 朝鮮의 歷史를 完成했다는 뜻이 있음.

(九는 九夷의 完成, 月은 朝鮮의 月)

仙의 시대를 마감하고 巫의 시대로 들어감.

3) 巫의 使命

仙으로 元始返本 또는 解惑復本해야 한다는 使命을 가지고 있다.
이때의 선은 仙 이 아니라 僊이다.
僊은 大人이 西域으로 가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포럼에 대한 소견

노중평

노무현 대통령이 6월 2일 오후 4시간 동안 행한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행한 연설이 인터넷에 소개 되어 와글와글 떠들게 된 내용들을 짚어 보기로 한다.

1. 이명박 전 시장의 국토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대운하 건설 주장에 대하여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토론이 본격화되면 밀천이 드러나게 될 것” 이라고 하였다.

-처음에 이 전시장이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말을 내놓았다고 보도되었을 때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할 때, 점심시간 때 동네 식당에 가면 여러 직장 에서 나온 사람들이 끼리끼리 둘러 앉아 식사를 하는데, 경찰서 사람은 경찰 얘기만 하고, 우체국 사람은 우체국 얘기만 하고, 신문사 사람은 신문 얘기만 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얘기만 하고, 택시 운전 하는 사람은 택시 얘기만 하는데, 그 얘기들이 그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약이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시시껄렁한 이야기들뿐이었다. 지금 기억해 보려고 해도 아무 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으니 그때 그 시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한 이야기가 수준 미달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전 시장의 “밀천이 드러나게 될 것” 이라고 하였는데, 그런 점이 걱정이라는 것이다. 내 개인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에서 우러나온 말보다 비전공의 생소한 분야에 대하여 역사와 나라와 국민의 앞날에 대하여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다. 그런 수준이라야 그를 좋게 보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대통령께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말씀하셨는데,

-내 개인의 소견으로는 소외되고 이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을 발전시키는 균형발전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국토를 파괴하여 못쓰게 만들어가는 발전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혜택은 결국 돈 잘 버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이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뿐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참여정부의 업적이라고 들고 나온다면 이미 참여정부에서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고 잊고 싶어도 잊혀 지지 않는 000독재자께서 이루어 놓은 업적과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간 독재자의 후예들이 간 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것은 마치 역사와 국가와 민족이라고 이름이 붙은 트랙에서 계주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1번 주자는 박정희 선수, 2번 주자는 전두환 선수, 3번 주자는 노태우 선수, 4번 주자는 김영삼 선수, 5번 주자는 김대중 선수, 6번 주자는 노무현 선수, 7번 주자는 이명박·박근혜·또 얼굴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000 선수 중에서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계주선수들이다. 누구 하나 빠끗하면 계주는 만사휴의가 된다. 이 계주에 다양한 성분을 가진 선수들이 참여했다. 독재자가 있는가 하면 독재자 추종자가 있고, 반독재자가 있고, 민주투사가 있고, 참여자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달린 선수가 1번 선수이다. 그러므로 참여정부가 내세운 선수가 이 독재자의 총알 같은 속도의 그늘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입으로만 독재자와 자신을 차별화 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속에 독재자가 퍼트린 독재 바이러스가 DNA로 자리 잡은 이상 이 DNA를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 몸 안에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이 독소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DNA를 제거해 보라. 그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시시콜콜 독재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면 이를 보는 사람이나 보지 않는 사람이나 동기반응을 보여 정신과 몸만 피곤해 질뿐이다.

3. 참여정부의 업적으로 내세운 국방개혁과 용산미군 기지 이전

-이에 대해 나는 지식이 없으므로 할 말이 없다. 나의 소견은 참여정부에 점수를 주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4.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 내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을 이 프로젝트가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행정수도라는 말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제1부인 행정수도를 만들면 제2부인 입법수도도 만들어야 하고, 제3부인 사법수도도 만들어야 하고, 제4부인 언론수도도 만들어야 하고, 언론을 감시할 제5부인 시민단체수도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고 해도 행정수도를 따라 입법·사법·언론·시민단체가 모두 남부여대하여 행정부를 따라가게 될 것은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온다면 나라꼴이 우습게 되고 말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행정수도가 이전함과 동시에 세계 수도를 하나 건설하는 것이 어떨까?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점하고 한성을 경성으로 이름을 고치고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세계화를 꿈꾸었다. 중국의 국도가 북경이고, 일본의 국도가 동경이고, 일제에 강점당한 한국의 국도가 경성이라면 결국 경성이 북경과 동경의 중심지가 된다는 말이 아니었던가? 명치유신 때 경성천도론이 나오기도 한 배경에는 이러한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일제는 경인철도를 놓았고, 격암 선생(명종 때 사람)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소사에 세계의 국도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도부신인桃符神人이 와서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실천하고자 소사에 복숭아를 심어 무릉도원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소사라는 이름도 부천富川으로 고쳤다. 부천은 인천과 부천 사이에 무릉도원이 이룩한 부의 나라의 국도가 들어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게 된 배경에는 격암 선생의 비결이 숨겨져 있다. 일제가 역부족으로 물러갔으니 이제 이 땅의 주인인 우리가 일제가 남긴 역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언론개혁

- 대통령과 언론이 토론을 벌인다면 언론이 수세에 몰리리라고 보는 것이 내 소견이다. 이 토론에는 언론과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제3의 눈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석촌 무교대학강의 2007. 6. 13.

태극기천도太極氣天圖

노중평

“동지를 貞이라고 한다.” “왜 정이라고 하느냐?”

이 물음은 원형이정元亨利貞에 대한 물음이다. 정貞을 동지冬至라고 했으므로 동지가 원형이정에서 나왔느냐는 물음도 된다.

이 물음에 대하여 <태극기천도太極氣天圖>로 설명이 가능하다. (주, 기氣자의 고자古字는 无+아래火(,,,) 자이다.

<태극기천도>에는 태극은 음양의 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蟲-三魚

三太極

음기는 양기의 끝에서 나오고 양기는 음기의 끝에서 나온다. 기가 오르내리는 공간, 운행하는 공간을 하늘이라고 하였다. 공간에 가득찬 기가 일석삼극-삼태극의 형상으로 움직이는 것이 삼태극이다.

주, 어魚의 고자古字는 벌레蟲자이다. 벌레蟲자는 의미가 사巳(뱀)이다. 사巳는 풍風(巳族이라는 뜻)에서 나온다. 풍은 풍이風夷이고, 풍이에서 풍성風姓이 나오고, 풍성에서 사성巳姓이 나오고, 사성에서 기성己姓이 나온다. 사성巳姓에서 어족魚族이 나온다. 그 연원은 한국을 세운 풍이족에 있다. 풍이족이 나온지 1만년 후에 배달나라에 속한 유망국(유망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어족이라는 인종 아이콘을 쓰기 시작한 사람은 유망楡罔의 3자인 희熙이다. 희熙의 의미는 사성巳姓 출신으로 사성巳姓에서 나온 어족魚族이라는 뜻이다.

〈태극기도설〉에서는 백白을 양의陽儀라고 하고 흑黑을 음의陰儀라고 하였다.

백이 점차 자라는 것을 원형元亨이라고 하고, 흑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이정利貞이라고 한다.

원형을 춘하春夏라고 하고 이정을 추동秋冬이라고 한다.

이들이 회전한다. 1년이 이와 같이 운행하고, 1시간이 이와 같이 운행하고, 1분이 이와 같이 운행한다.

정貞이 동지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형이정元亨利貞에 있는 것이다.

“기에는 네 가지가 있다”

기(无+아래,,,,)가 있다.

- * 기氣-쌀米를 먹어서 생겨나는 인기人氣이다.
- * 옛날 사람들은 태양의 기를 氣자에서 米자를 빼고 그 안에 일日자를 넣어 표현하였다.
- * 또 달의 기를 氣자에서 米자를 빼고 그 안에 월月자를 넣어 표현하였다.
- * 기无기자가 있는데 무기無氣한 기이다.
- * 불을 때어 생성되는 기를 无+아래화,,,,라고 하였다.

7월 칠석은 음양이 균형이 되는 날.

일월오악도에서 일월은 음양이 균형잡히는 칠월칠석을 뜻하고 조선이 견우와 직녀(나반과 아만)의 후손임을 나타낸다. 오악의 가운데 있는 봉우리는 삼각산이고 삼각산의 주봉인 인수봉이다. 삼각산이 오악의 중심임을 나타낸 것이다.

주돈이의 태극도설에 담긴 성리학의 근본원리

송나라의 주돈이周敦이는 〈태극도설太極道說〉을 지어 〈주역〉에 나타난 본체관을 해석하였다.

주역의 본체관은 “역易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는다” 는 것이다. “양의는 음양을 낳고, 음양은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은 팔괘八卦를 낳는다”고 하였다.

음양의 고고학적 기원

〈어정비魚鼎匕〉의 銘文 : 충蟲에서 위에 있는 충자 하나를 뺀 자(수신水神이라는 뜻-대감거리에서 무당이 복어 2마리를 양손에 들고 굿을 한다)자와 상에 又 하에 두개의 충자가 있는 2개의 문자는 어씨족魚氏族에서 나온 문자이다. 어씨족과 〈복희여외교미전설伏犧女媧交尾傳說〉의 신앙이 반영된 문자이다. 용사신앙龍蛇信仰(주, 풍이족(巳)이 한인천제(巳)를 숭상하는 신앙으로 볼 수 있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노령관전부魯靈光殿賦〉에서 복희를 복희인신伏犧麟身이라고 하였다.(주, 복희인신은 복희가 뱀이라는 뜻, 풍이족이라는 말이다.) 복희인신이 교룡蛟龍의 상狀이 된다고 하였다. 고유高誘는 〈회남자주淮南子注〉에서 형상을 인충鱗蟲이라고 하였다. 인신鱗身과 인충鱗蟲은 물고기형태의 상이다.

1981년에 산둥성山東省 래양현萊陽縣에서 출토出土된 도배陶盃의 배(腹)에는 충蟲자가 새겨져 있다. 물고기 3마리(三魚라는 뜻)가 새겨져 있다. 3태극의 형상이 문자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해경山海經〉대황서경大荒西經에 〈뱀이 물고기로 변하는 전설〉에는 “뱀이 변하여 물고기가 된다(蛇乃化爲魚) 물고기로 돌아간다(是爲魚歸) ‘복희와 여와의 교미’ 라는 전설적인 신앙이 끝에 가서는 어씨족이 만든 청동기 명문 가운데 고대문자로 나타난다.

魚자 명문이 들어간 제기에는 종류가 많다. 어부을정魚父乙鼎, 어부정魚父鼎, 어야임정魚冶妊鼎, 어종정魚從鼎, 어정魚鼎, 어작魚爵, 어반魚盤 등등.

주돈이는 태극을 무극無極으로 보고, 양의를 동정動靜으로 보았다.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태극이 동하면 양이 되고, 정하면 음이 된다” 고 하였다.

또 오행을 덧붙여 태극→음양→오행→만물의 우주론을 성립시켰다. 그는 다시 이 과정을 역추逆推하여 “오행이 음양이고, 음양이 태극이며, 태극이 무극이다” 라고 하였다.

주역에서의 태극→양의→사상→팔괘의 이론은 중화사상을 형성하게 한 핵심사상으로서 1→2→4→8→10의 우수수리체계를 형성하였다. 중화사상의 기본은 이 우수의 수리체계다. 반대로 우리는 1→3→5→7→9의 수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공자는 이를 알았기 때문에 주역에서 육효지동삼극지도六爻之動三極之道라고 하였다. 육효가 삼태극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삼극지도는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석삼극一析三極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태극의 원인이 일석삼극이라는 우주의 생성과 분화의 원리에서 나온다고 한 것이다. 〈천부경〉의 이러한 사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 성리학性理學이다. 성리학에서 성리학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것이 삼극지의三極之義(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라는 뜻)인데, 삼극지의는 일석삼극을 말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우리의 유학자들이 성리학만을 취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이유가 우리의 사유체계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일석삼극의 수리체계에 삼극지의의가 맞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삼극지의의는 일석삼극을 개념화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나 하화족(화하족)이 철학을 자주 바꾸었던 이유는 그들이 택했던 수리체계인 우수의 수리체계에 그들의 철학이 맞지 않았던 때문이다. 왜냐하면 $1 \cdot 2 \cdot 4 \cdot 6 \cdot 8 \cdot 10$ 의 수리체계에 맞아야 하는데, 주돈이가 기수의 중심에 있는 5를 우수의 수리체계에 넣어 수리체계에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태극은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괘를 낳고” 한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를 느낀다. 일석삼극, 즉 삼극지의의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태극은 삼극을 낳고, 삼극은 육효를 낳고”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십진법에서 기수체계의 완성수는 9가 된다. 이 완성수 9를 음+양으로 보고, 이를 역으로 표현하면, 9양+9음=81이 된다. 역이 원래 81괘였다고 생각된다. 이 81괘역을 <태현경>이라고 하였다. 아마 최초의 역은 81괘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십진법에서 우수수리체계에서 보면 우수의 완성수는 8이 된다. 이 완성수 8을 음+양으로 보고, 이를 역으로 표현하면, 8양+8음=64괘가 된다. 이 역이 지금의 주역이다.

그러므로 태극을 논하려면, 태극이론의 원리가 일석삼극, 삼극지의이므로, 일석삼극의 기수수리체계에서 나온 81괘역을 가지고 논해야 한다고 본다. 우수수리체계에서 나온 64괘를 가지고 논한다면, 주돈이의 혼란스러운 태극론이 될 것이다.

복희와 여와의 교미도

우리나라 태극기에 실린 역학사상

답변자는 태극기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사유체계가 <천부경>에서 적시하고 있는 일석삼극—析三極, 즉 1→3의 수리체계를 기초로 한 기수의 수리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우리가 기수를 선호하고, 3이란 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다. <성리학>에서는 <천부경>에서 일석삼극을 가져다가 삼극지의三極之義라고 말하고 있다.

<천부경>의 역사는 9천9백 년 전에 한국을 세운 한인천제 때부터 시작한다. 그 시대에 <천부경>이 구전되기 시작하였고, 5천9백 년 전에 한웅천왕이 세운 배달나라시대가 시작되면서 <천부경>을 녹도문자로 기록

하여 전해 오다가 신라 말에 최치원이 한자로 번역하여 오늘에 전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태극기에 나타나는 일석삼극의 수리체계의 역사가 9,900 년이다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수리체계가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집단무의식화 하면서 우리민족의 고유한 사유체계思惟體系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유체계에서 나온 것이 우리 철학의 기본이 되는 태극사상이다.

태극사상의 출발은 1→3의 수리체계에서 0(1태극)→?(3태극)의 사유체계로 발전하였다. 1의 수리체계에서 태극이라는 철학적 사유체계가 발생하였고, 태극에서 양태극의 사유체계가 발생하지 않고 직접 삼태극?의 사유체계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태극의 사유체계가 생겨난 때는 배달나라의 6세 다의발한웅천왕 때, 즉 복희시대에 복희에 의하여 일석이극一析二極의 사유체계가 창안되었다. 1→3의 수리체계에서 1→2의 수리체계로 축소된 우수의 수리체계가 발생한 것이다. 이리하여 1태극→양태극의 사유체계가 성립하였던 것이다.

일석삼극의 수리체계는 원의 둘레를 3분할하여 원주율(3.14)을 얻고, 이 원주율이 3효가 된다. 역易의 기초가 되는 효조를 이렇게 얻는다. 3효, 즉 원주율의 의미는 1→3, 1→4이다. 이를 <천부경>에서는 운삼사성환運三四成環이라고 하였다. 3 이 원을 한바퀴 돌고나면 4를 완성한다는 뜻이다. 3효의 각효를 양효陽爻라고 하고, 또한 3효 모두를 합하여 소성괘小成卦라고 한다.

우주에 양효가 있으면 반드시 음효陰爻가 있게 되는데, 이 음효는 양효를 2분할하여 얻는다. 이리하여 3음효를 소성괘라고 한다. 소성괘 2을 합하여 대성괘大成卦라고 하는데, 원의 둘레는 양효 3과 음효 3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효와 음효는 서로 표리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실제의 효는 3효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수로 표시하면 양효는 1, 음효는 0으로 표현된다. 디지털의 표현과 같은 것이다.

3효를 2분할하여 6효를 얻고, 3효를 3분할하여 9효를 얻고, 3효를 9분할하여 27효를 얻고, 3효를 27분할하여 81효를 얻는다. 1을 도道, 3을 방方, 9를 주州, 27을 부部, 81을 가家라고 하였다. 0은 현玄이라고 하였고, 방주부方州部를 삼상三相이라고 하였다. (출전 春秋戰國時代 <太玄經> 103쪽, 玄所用一道 分用三 轉相三成四位)

복희는 여기에 반기를 들고, 원을 2분할하여 반지름을 얻고, 이를 음양이라고 하였다. 다시 반지름을 2분할하여 사상四象이라고 하였다. 사상을 다시 2분할하여 8괘를 얻었다.(<呂氏春秋> 仲夏紀 : 太一出兩儀 兩儀出陰陽 萬物所出 造於太一於陰陽) 이리하여 64괘를 얻었고, 이 64괘가 주역의 괘가 된 것이다.

우리의 철학사는 이렇게 배달나라시대에 한웅천왕에 의하여 완성된 일석삼극사유체계가 복희에 의하여 일석이극의 사유체계로 양분된다.

배달나라의 치우천왕 때 황제가 반기를 들고 일어나 시작된 탁록의 10년 전쟁에서 치우천왕을 멸망시키고, 그를 추종하는 소호少?, 제곡고신帝?高辛, 지摯, 요堯, 순舜, 우禹의 계열에 의하여 황제가 하화족夏華族(華夏族)의 시조로 받아들여지면서, 복희의 사유체계를 자신들의 사유체계로 확정하였다. 이리하여 하화족의 양태극사상, 즉 음양사상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사상이 음양조화라면 저들의 사상은 음양대립이다. 3이 조화를 의미하는 반면에 2가 대립을 뜻하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사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하화와 다른 점은 우리가 배달나라의 장손長孫이고, 하화가 지손支孫아라는 점이다. 저들을 지나支那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나족이 우리가 저들을 지나라고 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의 태극기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사유체계대로 한다면 태극기의 태극을 삼태극으로 그렸어야 한다. 우리가 태극기에 양태극을 그렸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우리의 사유체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그러므로 양태극을 삼태극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태극의 머리의 방향이 좌선左旋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선右旋해야 하느냐 하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좌선은 우리 국악의 이론서인 <악학궤범樂學軌範>에 따르면 12진의 방향이고, 우선은 12월의 방향이다. 즉, 좌선은 우주 중력의 회전축이 도는 방향이고, 우선은 해와 달이 도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좌선은 영원하고 무한을 의미하고, 우선은 유한을 의미한다. 1→3의 수리체계는 조화調和의 수리체계이므로 영원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2의 수리체계는 대립對立의 수리체계이므로 유한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태극의 방향도 좌선으로 돌려놓아야 맞는다고 본다.

고지도에는 남북의 방위가 바뀌어져 있다. 북쪽이 남쪽으로 가있고, 남쪽이 북쪽으로 가 있는 것이다. 이는 언젠가 지구가 뒤집어졌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민족임을 태극기에 표현하려면, 북쪽을 아래쪽으로 하고, 남쪽을 위쪽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자민족임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국토가 신들이 활동하는 방위인 동북간방東北艮方에 가로놓여 있고, 마리산에 북극성에서 오는 천기天氣가 떨어지고, 국토 안에 종자식물, 종자동물, 종자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구의 종자방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괘의 방위와 배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괘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괘가 방위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감괘坎卦는 북에, 이괘離卦는 남에, 건괘乾卦는 서북방에, 곤괘坤卦는 서남방에 배치해야 한다. 감괘와 이괘는 아들과 며느리에 해당하고, 건괘와 곤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해당한다.

태극을 삼태극으로 할 때, 수水를 표현하는 흑색, 화火를 표현하는 적색, 토土를 표현하는 황색으로 해야

한다.

TV에서 무당 스타가 되기 시작한 박미령의 신 내림을 통해 본 쑤의 세계

노중평

장영호씨가 내게 말했다. 박미령씨가 천신암 김혜숙씨의 신딸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때 나의 반응은 누군가 또 신딸로 들어왔구나 하는 정도였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김혜숙씨에게는 내림곳에 실패한 애동 무당들이 찾아온다. 박미령씨도 그런 무당 중에 한 사람이다. 몇 번 곳을 해도 제대로 무당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므로 심신과 제물이 그로기 상태에 있는 애동 무당들이 찾아온다고 볼 수 있다.

김혜숙씨 입장에서 보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까먹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찾아오게 됨으로 사실 본인에게는 득이 될게 없는 곳을 해 준다. 자신이 무당이니까 업보로 생각하고 해 주는 것이다. 기이하게도 그가 곳을 해 주면 가리가 제대로 잡혀서 재수 삼수 하던 애동 무당들이 드디어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정도로 신명시험에 통과하게 된다. 내가 몇 번 보아 온 김혜숙과 애동 무당과의 관계는 이러하다.

대한민국에 무당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개중에는 엉뚱하게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돈이나 벌려는 무당들이 있어 신병을 앓다가 온 사람들 잘 인도하지 못하고 알거지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왕왕 있다. 김혜숙씨에게 그런 애동 무당 등쳐먹는 기질이 없어서 그런지 김혜숙씨를 둘러싸고 있는 신명들은 사기꾼 무당의 공범자 노릇은 하지 않는다.

또 장영호씨가 내게 말했다. 김혜숙씨가 곳을 하는데 함께 가 보자는 것이었다. 곳을 보러 가는 날 부천역 앞에서 만났다. 장영호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을 했는데, 박미령씨와 〈인간극장〉을 촬영하게 될 PD와 카메라맨이 동승하고 있었다.

나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무당을 촬영하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곳 잘하는 원로무당을 소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 무당을 소개하면서 무교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보도를 해 준다면 훌륭한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영방송이 너무 인기몰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미령씨가 꽤 유명한 하이틴 스타였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그런데 별 관심이 없었던 내게 박미령씨는 내가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러나 박미령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간극장>이 방영되면서 그 반응은 대단했다. 박미령이라는 캐릭터가 주는 효과로 볼 수 있었다. 공영방송이 5부작이 나 연속방송을 했으므로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반응이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읽어 보니, 대체로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박미령씨 개인에 대한 호기심이요, 둘째는 기독교인들의 무교 혈통기요, 셋째는 안티기독교인들의 반박성 반응이다. 공영방송이 본의 아니게 박미령씨를 TV에 등장시켜 네티즌들 사이에 종교논쟁을 유발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나는 이런 저급한 소모성 논쟁에는 별 흥미가 없다. 편견을 갖고 시작하는 논쟁, 무식을 유식처럼 보이게 요사를 떠는 말꼬리 잡기 논쟁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고, 들은풍월로만 떠들어대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독교인의 편견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기독교인은 기독교만이 절대적 진리라는 입장에서 무교를 바라본다. 성령과 악령, 성신과 마귀라는 이분법적 배척논리에 빠져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과 성신이고 무교는 악령과 마귀이므로 악령과 마귀는 멸망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에서 흑백논리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무교와 무교에 호의적인 사람들을 적대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무교인들, 또는 무교에 호의적인 사람들은 반대로 기독교나 기독교인에 대하여 이분법적 배척논리에 빠져 있지 않고 기독교를 멸망해야 할 종교로 보지도 않는다. 따라서 적대시하지도 않는다. 상대가 적이 아니고 싸우려 들지 않는데, 기독교인 혼자서 적이라고 규정하고 시비를 건다면 제 3자가 누구 편을 들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은 구약성경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하듯이 우리 상고시대 역사에서 무교 역사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즈음 추천할 만한 책 <무교경전 1>이라는 소책자가 서점에 나와 있으니 구입해서 읽어 보기를 권한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 역사에 내재한 신들 알게 될 것이고 무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이 많이 누그러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다음은 신 내림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유독 무교만이 극심한 신 내림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당을 빼고 다른 종교인으로서 어떠한 사람도 신실한 무당만큼 혹독한 신 내림을 체험하지 못한다. 박미령씨에게서 보았겠지만 신 내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된다. 가족이 죽기도 하고 파산하고 종래에는 자신도 미치거나 폐인이 되어 죽게 된다. 이는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데 대한 징벌이 된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의 사제도 박미령씨가 당하는 신 내림의 1/10도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사제는 사제인데 진짜 신명을 모르는 사제가 되는 것이다. 그분들이 아는 신명은 책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워 지식으로 터득한 신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진짜 사제가 아니라 학교선생님 수준의 사제일 뿐이다.

무교의 역사를 보면 무교는 마고에서 시작된다. 후손에게 ‘해혹복본解惑復本’을 명하고 그 징표로 ‘천부삼인天符三印’을 준다. <단군신화>는 이 천부삼인이 제왕들에게 어떻게 대대로 전수되는가를 보여준다. ‘천부삼인’은 ‘해·달·칠성’을 돌이나 청동에 새긴 것이다. 이 역사를 하늘의 별자리에 기록하고, 이 별자리를 ‘북극오성北極五星’이라고 하였다. 북극오성은 작은곰별자리를 말한다. 이 별자리의 끝에 북극성이 있다. 북극성인 1번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천추성, 2번별은 마고를 의미하는 황후성, 3번별은 한웅천왕을 의미하는 서자성, 4번별은 한인천제를 의미하는 천제성, 5번별은 단군왕검을 의미하는 태자성이다.

이 천부삼인은 한웅천왕이 배달나라를 세워 각 천왕이 계승하도록 하였고, 단군왕검이 조선을 세워 47대나 계승하도록 하였다. 47대 고열가 단군 때 조선이 진에게 멸망(진시황 8년)하여, 고열가 단군은 황해도 구월산에 은거하며 ‘삼성당三聖堂’을 짓고 여무女巫를 당주로 임명하여 삼성이신 한인·한웅·단군왕검에게 제사지내고 천부삼인을 계승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천부삼인이 신당의 벽에 걸리게 되고 무당의 신 내림에 공식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

멀쩡하던 사람이 무병을 앓다가 신을 받고 무당이 되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이 의식을 소슬 굿이라고 한다. 소슬이란 단군왕검의 장인인 부소갑의 따님 소갑녀蘇岬女(소갑의 딸이라는 뜻)를 하백녀河伯女(하백은 소갑의 직위이고 하백녀는 하백의 딸이라는 뜻이다)로 세우면서 행한 신발이굿에서 유래한 말이다. 굿은 단군왕검시대에 나라에서 행했던 나라축제인 국중대회國中大會의 준 말이다. 또한 구지龜旨의 준 말이기도 하다.

고열가 단군 이전에 천부삼인을 계승하던 시대를 신선시대神仙時代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열가 단군이후에 천부삼인을 계승할 왕검이 없으므로 삼성당 당주무당이 솟을 굿을 하여 하백녀를 임명하면서 천부삼인을 내려주었다. 이때부터 천부삼인을 천부삼인이라고 하지 않고 명두明斗라고 하였다. 명두는 천부삼인의 다른 이름이다. 명두를 계승하는 시대가 무교시대巫敎時代이다. 지금은 무교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무당이 신병을 알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가 명두-천부삼인을 받아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자각시켜 주기 위해서 이다. 그가 천부삼인을 받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한인·한웅·단군왕검(삼성이라고 한다)에게 제사지내는 일이다.

지금 무당이 되어 신당을 차리고 나서 구월산의 당주무당들처럼 삼성에게 제사지내는 무당은 없다. 그러나 10월이 되면 나라 굿을 한다고 난리법석을 피우게 되는 이유가 나라 굿이 삼성에게 제사지내는 제례이므로 그의 몸 안에 계신 삼성의 신명이 그를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업 무당과 앞으로 무당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쓴 소리를 한 마디 해야 하겠다. 현대는 어떠한 신들보다 물신이 우선하는 시대라고 사제들이 돈 버는 일에 열을 올리면 언젠가 그 종교는 그 종교를 대표하는 신들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리라고 본다. 신들이 할 일이 없어서 불상한 사람 등이나 처먹는 종교사기에 동참을 해 주시겠는가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이는 타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속은 맹탕인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나라는 절부자요 교회부자이다. 기고만장하지 말고 신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일들이 다 신을 기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무당일 하다 굶어 죽게 생긴 무당들이라면 작심하고 신에게 매달려 볼 일이다.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는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요즈음 김금화 선생이 한 독일 여자에게 솟을 굿을 해 주었다. 그 독일 여자는 굿을 하고 나서 독일로 돌아갔다. 이번 일은 앞으로 인종을 초월하여 많은 한국형 무당이 나오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본다.

요즈음 무교계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무교계에 입문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입문하는 것을 본다. 학력이 고학력자가 입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 직업을 버리고 입문한다. 또 마고를 찾는 무당, 단군왕검을 찾는 무당들도 많이 생겼다.

무당들의 전력을 보면 의외로 천주교인들이 많다. 타고 출신의 무당들이 기이하게도 영검한 무당들이다.

무당에게 천주교인이 많다는 것은 천주교와 무교의 호환성 찾기라는 점에서 볼 때 두 종교 간에 서로 주고받을 부분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무교가 불교에 많은 부분이 습합되어 있듯이 머지않아 무교와 천주교 사이에 습합이 가능해 질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은퇴자와 젊은 유학생

노중평

-자식을 공부시키는 사람이라면 하버드와 같은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고자 할 것이다. 해마다 하버드 입학에 성공하는 코리언 학생이 상당수에 이른다.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는 것이다. 그런데 들어간 이후에 문제가 있다.

코리언 학생이 하버드에 입학한 이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 낙제하는 것이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해마다 숫자가 하버드에서 낙제하는 동양계 학생들 10명 중에서 9명이 코리언이라는 통계다. 이러한 특이한 형상에 대하여 하버드 교육위원회에서 그 원인을 공식적으로 조사한 보고서가 나와 있다.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No long term life goal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

이 말의 의미를 한국 사람이라면 얼른 알아들을 것이다.

소위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에서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지 ‘삶 자체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겠다’는 목표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버드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성공을 하였는데, 들어간 후에 그러한 확고한 목표가 없었기에 투자를 잃고 방황하다가 낙제생 신세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인생의 소중함은 명문대학이 아니라 3류, 4류 대학에 다닐지라도 “어떤 분야에 어떻게 헌신하며 어떤 삶을 살겠다”는 긴 안목의 목표와 사명과 비전, 꿈이란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 글은 <파도와 등대> 편집위원인 심산 선생이 email로 보내 온 글이다. 감꽃 사진 한 장을 동영상으로 올리고 소곡을 올려서 붙여 온 글이라 몇 번이고 조용한 음악을 들을 겸해서 읽어 보았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야 말로 은퇴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마음의 충족도는 서서히 높아 가는데 실생활은 그렇지 못하다. 무엇인가 늘 발목을 잡

고 놓아 주지를 않는다. 마음을 비우며 산다고 하면서 영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내가 살아 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실패하는 인생인지 성공하는 인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지만 나를 깊이 이해하는 몇몇 사람은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해 준다.

생활을 포기하면서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은 무巫의 세계를 뛰어 넘는 일이었다. 그러나 무巫 앞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하였다. 낙제하는 하버드 대학생이 되려는 찰나에 나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 내 앞에 격암 선생이 뚫어 놓은 길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분은 내가 깊이 빠져 있던 우리에게서 사라진 상고시대 역사를 졸업하고, 무巫의 종교를 졸업하고, 천문의 비밀도 풀어내고, 문자의 비밀도 풀어내고, 우리 앞에 우리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여주었다.

그분은 무巫를 뛰어 넘어야 선僊에 간다고 일러 주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선의 세계로 나를 안내하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족종교들이 격암 선생의 소매 속에서 나왔음도 알려주었다.

요즈음 나는 무巫를 뛰어 넘고 싶어 하는 몇몇 사람들 앞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강의를 한다. 지난 수요일엔 처음 보는 어느 남자 분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손뼉을 쳐주며, “대학원 수준의 강의입니다”라며 흡족해 한다. 나는 그분이 무얼 하는 분인지 알지 못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대학원 수준의 강의가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강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분은 강의가 어렵다고 한다. 처음 듣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은 강의가 거듭되면서 사라진다. 내가 가는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이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야 말로 내가 하는 말이 신명들과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신명을 체험하거나 조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강의자일 뿐이다.

앞은 거리를 하는 한 여무女巫가 내게 물었다.

“앞으로 무巫가 도道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놀랍군요.”

그가 가야 한다고 말한 도道가 선僊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 주었다.

“실은 답을 달라고 기도 중에 도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가끔 무인巫人과 대화하면서 신명이나 조상이 나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어느 분이 내게 말했다.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드는 부분을 선생님이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풀어 주시니 신기합니다.”
하긴 나는 그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그런 말을 듣게 된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나로서는 신기할 뿐이다.

그러나 심산 선생의 동양계 하버드대학 낙제생 10명 중에서 9명이 코리언 학생인데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글을 읽으며 역시 내 자신도 저들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들 때문이다.

한나라당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노중평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2007년 6월 5일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선거법과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 개인의 견해는 필자가 선거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현행 선거법에 대하여 세상에 유례가 없을 듯싶은 악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상위의 두 당만 입후보 등록을 하면서 기탁한 5,000만원 공탁금을 선거가 끝나면 찾을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천문학적 숫자의 선거비용을 물 쓰듯 쓰게 만들었다. 게다가 일정한 득표수를 획득하지 못한 당이나 무소속 입후보자는 공탁금마저 날리고, 선거비용은 자비로 써야만 하도록 만들었다.

선거에서 나타나는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선거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언론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한나라당의 대선후보자에 대한 보도가 경쟁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공천후보자를 내지 못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처럼 불공평한 처사가 없을 것이다. 언론사가 본의 아니게 특정 정당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선거법으로 언론사의 특정 정당이나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선거업무방해를 규제하지 못한다면 선거법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보아도 언론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국민이 선거에 선거권자로 참여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 대하여 평등권을 누리고 있

다는 전제하에서만 당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현직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평등권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제 권위주의가 허물어진 사회로 가고 있으므로 공무원이나 대통령이 하는 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본다. 사회에 비중 있는 인사가 반론을 펴고 언론이 이를 공정하게 보도만 해 준다면 선거는 오히려 토론문화를 신장한다는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은 버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입후보자에 대하여 토론을 벌일 수 있도록 토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설사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비난하고 특정후보를 비판했다고 해도 국민이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를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평산 소놀이곳에서 法古創新과 溫故而知新

노중평

주, 2007년 5월 6일 하루 종일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 공원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된 황해도 평산 소놀이곳 공연이 있었다. 전통황해도굿이 진행되다가 본곳인 칠성굿에 들어가서 따로 띄어내어 공연되는 곳이 평산 소놀이곳이다. 발표된 원제목은 평산 소놀이곳인데 놀이곳이 맞는 말 같아서 본문에서 놀음굿이라고 하지 않고 놀이곳이라고 하였다. 굿에 출연한 사람들은 황해도평산소놀이굿보존회 이선비 회장을 비롯하여 소놀이공연팀, 안금순, 이용녀, 김혜숙 등이다.

우리 전통문화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말이 法古創新이라는 말과 溫故而知新이라는 말이다. 법고창신 法古創新은 1792년 정조의 명령으로 시행된 문체반정文體反正을 의미하는 말로, 연암 박지원의 글을 모범답안으로 하여, 향간에 나도는 패관잡기稗官雜記들을 단속하여, 널리 퍼지지 못하게 하자는 데에 그 의도가 있었다. 그러므로 엄격한 형식의 유교사상이 담긴 문체만을 요구하였다.

말하자면 논술시험을 치르는데, 모범답안 하나를 정하고, 이 모범답안 대로 논술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사문난적시斯文亂賊시되는, 위험천만한 국가시책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정조시대에 나라에서 모범답안으로 제시된 것이 연암의 문체였다.

지금은 한 시대가 흘렀으므로, 문체반정에서 연암류의 법고창신이 의미가 없어졌지만, 시대적 상황에 휩쓸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이, 좌파적 문체와 우파적 문체이다. 엄밀한 의미를 따져보면, 이들 문체는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역사성과 정통성과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체가 아니라,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 이 땅에 쏟아져 들어온, 서양의 좌익과 우익으로 분류되는 사상문체에 기생하는 아류문체이거나 모방문체이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버려야 할 쓰레기와 같은 서양풍의 패관잡기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엔 우리에게서, 모범답안이 사라져, 눈에 잘 띄지 않는 시대이므로, 무주공산無主空山에서, 법고창신이라는 말을 쓰기가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도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문체가, 서양사상문체에 기생하는 아류문체이거나 모방문체이므로, 문체의 본말이 전도된 경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말이 전도된 문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하겠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은 공자가 한 말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가이위사의可以僞師矣라는 말 중에서 앞부분만 딴 말이다. 그 뜻은 “이미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간다면 가히 스승이라고

할만하다.”는 뜻이다. 이미 배운 것을 잘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어느새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배운 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매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니 이처럼 힘든 일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할 만 하다고 했으니 현 시대에 잘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린다.

평산 소놀이곳을 보면서 법고창신과 온고이지신이라는 두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평산 소놀이곳이 우리 곳에서 최고의 거리로 치는 칠성거리의 문체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 때문이다. 지금 곳 12거리에서 우리가 보는 칠성곳은 불교가 덧씌워져서 정체성이 많이 훼손된 곳이다.

우리 곳에서 당면과제가 덧씌워진 불교를 벗겨내는 일인데 텍스트로 삼아야 할 것이 평산 소놀이곳 사설에서 추구하고 있는 칠성님 정체성 세우기이다. 말하자면 칠성님을 훼손하고 있는 제석을 벗겨내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평산 소놀이곳이다.

평산 소놀이곳은 칠성님이 주장이 되어 진행된다. 우리 곳에는 이 곳처럼 칠성님이 당당하게 등장하여 곳을 이끌어가는 곳이 없다. 모든 곳이 제석이라고 불리는 종교 사기꾼에게 곳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이름조차 변성명하여 제석거리나 제석곳으로 불린다. 칠성곳이 칠성곳으로 불리지 못하고 제석곳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곳판에 조폭이 들어와 난장을 치고 있는 데도, 무당이나 장구재비는 이를 깨닫지 못하여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평산 소놀이곳에서는 칠성님이 칠성의 본 모습을 지니고 있다. 곳은 소복을 하고 머리에 흰 관을 쓴 팔선녀를 선두로 마부와 암소와 송아지, 남녀노소 마을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이들은 농사의 역사를 사설하며 양 팔을 호느적거리며 너울너울 춤을 춘다. 선창은 칠성님으로 분장한 소리꾼이 한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먼저 팔선녀가 등장하는데 팔선녀에 대한 의미부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목욕하는 팔선녀로 등장할 뿐이다. 칠성님 앞에서 팔선녀가 목욕을 하는 것은 별의 미가 없는 사족일 뿐이다.

팔선녀의 등장은 마고가 태어난 팔려八畝의 음흉의 상징이다. 여기에서 마고가 태어남으로써 마고가 칠성님의 부인인 매화부인이 된다. 매화는 마고를 상징하는 꽃이다. 마고가 매화로 신화적 변용이 되어 칠성님의 부인이 되는 것이다. 사실 중에 “팔선녀를 함양하고”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팔선녀의 역할이 조만간 들어날 것임을 알 수 있다.

칠성의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칠성복은 원래 칠성의 의대가 아니라 삼신의 의대이다. 장삼의 색이 백색인 것은 장삼이 삼신의 장삼이기 때문이다. 칠성이 삼신의 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칠성과 삼신이 한 몸이라는 뜻이다. 원래 삼신은 마고삼신을 의미한다. 마고와 그의 두 따님 궁희와 소희를 의미하는 것이다. 칠성님의 몸에 이 세 분이 들어가 있다. 마고가 팔여의 음에서 태어났으므로 칠성님도 팔여의 음인 팔선녀와 일체로 볼 수 있다.

우리의 하나님을 삼신일체상제三神一體上帝, 또는 삼신상제三神上帝라고 하였다. 삼신이 마고 궁희 소희이므로 삼신일체상제에서 일체는 삼신이 한 몸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상제는 삼신일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칠성곳에서 칠성님이 삼신의대를 하고 있으므로 칠성과 삼신이 하나라는 표현인데, 삼신일체상제는 삼신칠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마부가 장구산을 찾아가면서, 곳이 본격화 된다.

여기에서 마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마부는 소를 이끌고 있는 견우를 바꾸어 말한 것이다. 마부가 견우라면 소놀이곳이 농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역사구연자로 자리매김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소놀이곳에서 마부는 칠성님과 장구산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마부가 장구산에 나타남으로써 곳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먼저 도착한 마부가 둘러보니 칠성님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 앞에 장구산이 나타난다. 마부가 장구산에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칠성님을 보았느냐고 묻는다. 장구산은 본 것도 같고 보지 못한 것도 같다고 수작을 부린다. 그러면서 5백년 되면 여기서 만나게 될 것인데, 장구산 아래 징산이 있으니, 징산에 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칠성님이 찾아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1초도 지나지 않아서, 즉각 칠성님이 나타나, 장구산에게 마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 장구산은 칠성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건 뭐냐?” 고 어이없는 짓을 한다. 칠성님은 내가 나줄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나줄을 보지 못했느냐고 묻는다. 장구산은 글썽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다고 또 수작을 부린다. 칠성님에게도 5백년 쯤 기다리면 나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장구산은 칠성님에게 나줄을 찾으려면 자기에게다 정성을 들여 보라고 또 수작을 부린다. 그런데 칠성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다 떨어진 헌 고깔하고 장삼뿐이다. 정성드릴 재물이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다.

장구산은 8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하는 곳에 가서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옥경청수玉京淸水(주, 칠성님이 계신 옥경에서 내려오는 천수天水) 한 그릇 갖다가 삼배고두배三拜叩頭拜(주, 원래 단군조선시대의 절법으로 1배는 큰절, 2배는 고두배이다.)하고 정성을 극진히 드리면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칠성님은 목욕재계하고 지극하게 정성을 드린다.

서천서역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천서역국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에게 마고성이 있었다. 마고성을 마고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고대성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마고성은 마고가 패역해진 후손들을 내쫓으면서 해혹복본解惑復本' 하라고 명령한 곳이다. 해혹복본은 마고성에서 퇴출당하게 된 의혹을 풀고 복귀하라는 명령이다. 따라서 서천서역은 인류가 궁극적으로 찾아가야 할 마고성으로 고쳐 써야 한다.

장구산은 보수로 헌 고깔과 장삼을 모두 받고 칠성님은 빈털터리가 된다. 장구재비는 칠성님에게 신명들의 이름을 불러들이라고 알려준다. 칠성님이 신명들의 이름을 부른다.

드디어 마부가 자기를 호명하는 칠성님의 목소리를 듣고 칠성님 앞에 나타난다. 벌거벗은 칠성님을 보고

마고할멈(주, 사실에 마귀할멈으로 되어 있으나, 마고의 오기이다)으로 착각한다. 칠성님이 고깔과 장삼을 벗으면 마고할멈과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마귀할멈이 마고할멈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삼 입고 고깔 쓰면 칠성님이 되고, 장삼 벗고 고깔 벗으면 마고할멈이 된다는 놀라운 변신을 소놀이곳이 알려주고 있다.

마부는 고깔과 장삼을 어떻게 했느냐고 마고할멈에게 묻는다. 마고할멈(칠성님)은 장구산에게 보수로 다 주었다고 털어놓는다. 마부는 장구산에게 고깔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다. 장구산은 김 서방네가 무감으로 사갔다고 말한다. 장구산과 무감은 다 한통속이다. 마부가 김 서방에게 물으니 샀다고 대답한다.

마부는 마고할멈이 서천서역국으로 갈려면 그걸 입어야 칠성님으로 인정을 받으니 돌려주라고 말한다. 장구산은 마음먹은 대로 소원성취만 해 달라고 하면서 고깔과 장삼을 돌려준다. 마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고깔과 장삼을 받아 칠성님에게 입혀드리고 씩씩드린다.

“아! 없는 자손 돌려주고 있는 자손 수명장수 시켜주고 세대봉사 이어주고 5대 출신 나게 도와주고 7대 정승 나게 도와줄게요.”

소놀이곳에서 칠성님과 마부가 장구산에서 만난다. 이 날을 칠월칠석날로 보면 좋을 것이다. 두 분이 만나자 마자 마부는 너덜너덜 다 떨어진 곤룡포를 벗으며 칠성님에게 옷 좀 해 달라고 한다. 칠성님은 “서천서역국에서 나올 때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느냐?”고 묻는다.

마부는 곤룡포를 입고 나왔음을 넌지시 내비친다. 5백 년 동안 입고 다니다 보니 다 헤어졌다고 말한다. 직녀의 남편이자 상제의 사위인 견우가 마부가 되어 칠성님과 헤어진 후 5백년 만에 세상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다. 칠성님이 “서천서역국으로 들어가서 상전으로 잘 모셔주마.” 고 말한다. 칠성님이 마부를 상전으로 잘 모셔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마부가 상제의 사위임으로 하늘에서 그의 위계가 국무총리급인 칠성님보다 높다는 뜻이다.

다음에 칠성님은 서천서역국에서 나올 때 신은 무슨 신을 신고 나왔느냐고 묻는다. 마부는 미투리를 신고 나왔다고 대답한다. 이번에도 칠성님은 “서천서역국으로 돌아가면 상전으로 잘 모셔주마.” 고 말한다. 이로써 '마부가 말이나 끌고 다니는 예사 마부가 아니라'고 뜻을 박은 것이다. 칠성님 위에는 높으신 상제님이 계심을 알리기 위하여 이러한 대화를 나눈 것이다. 상제님은 곧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마부가 하는 일은 서낭곳에 등장하는 사자가 사자곳에서 하는 일과 유사한 일이다. 이리하여 <소놀이곳>에서 마부의 역할이 <서낭곳>에서 아기씨와 혼인하여 아기씨를 호위하는 서낭장군이 된 사자의 원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낭사자는 이기씨가 대한민국에서 소한국에 나올 때 상제님의 사자가 된다. 마부가 지금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부는 칠성님에게 이름이 없는 인간들에게 이름이나 지어주자고 한다. <소놀이굿>이서 이 부분은 이 신화가 창조신화임을 의미한다. 칠성님이 마부에게 이름을 지어보라고 말한다. 마부가 이름을 지어준다. 또 인간들에게 명과 복도 나누어준다.

마부는 칠성님이 알곡을 만들어 먹는 조화의 신이라고 한다. 인간은 재주가 없어서 잡곡만 먹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방아 찧는 방법이나 가르쳐주자고 한다.

그뿐만 아니다. 마부는 서천서역에서 세상에 나올 때 약대를 가지고 나온다. 약대는 아직 길들이지 않은 들소로 볼 수 있는 짐승이다. 몸의 색깔은 황색이요, 얼룩덜룩 별이 박힌 점박이이다. 머리는 삼태머리요, 뿔은 삼각뿔이요, 두 귀는 무쇠고리처럼 생겼고, 눈은 초롱같은 검은 테두리 눈이다. 코는 들창코요, 입은 동굴입이요, 꼬리는 석자세치 검은 꼬리이다. 무쇠 투갑신을 신고, 좌측우측 어석버석 걷는다. 이것이 약대의 형상이다.

약대가 세상에 와서 한 일은 삼천리강산 고을고을마다 소 한 쌍씩을 물어다 주는 일이다. 그런데 소가 뛰어나가 부리지를 못한다. 수소가 되어서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마부는 칠성님에게 조화를 부려 소를 길들여 달라고 한다. 칠성님은 코뚜레를 해서 끼우면 말을 잘 듣는다고 가르쳐준다.

농경을 시작한 초기에 야생소를 잡아다가 길들여 농사에 쓰기 시작했음을 사설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 소를 잡아다 길들이는 사람을 견우牽牛라고 한다. 견우는 직녀의 남편이다. 북쪽 하늘에서 직녀3성과 마주 바라보고 있는 견우6성 중에서 가운데 허리별이 우성牛星이다. 견우가 길들이는 소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마부가 코뚜레를 만들어 소를 길들인 견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나무로 코뚜레를 만들면 언젠가 썩어버림으로 영원히 코뚜레로 쓸 만한 나무가 없다. 마부가 칠성님에게 영원히 쓸 수 있는 코뚜레를 만들 수 있게 조화를 부려달라고 조른다.

칠성님은 썩지 않는 코뚜레를 만들려면 배꼽 밑 두덩산에 난 싹을 무쇠 낫으로 베어다가 꼬아서 황소에게는 황굴레로 씌우고 암소에게는 청굴레로 씌우면 소가 뛰지 않을 것임으로 만백성이 좋아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소를 길들인다.

소를 길들였는데 또 문제가 있다. 인간들이 농사짓는 재주가 없으니 또 칠성님의 조화를 기대한다. 두덩산 동술 밭을 지나 쌍봉알산에서 연장을 취해다가 농사를 짓도록 하라고 가르쳐준다.

다음엔 농사를 다 지어 벼를 베어 실어 와야 하는데 수레가 없으니 수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상이 칠성님이 인간에게 소를 길들이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수레를 만들어 수확물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한 농사의 과정이다. 칠성님이 조화를 부려 농사를 짓게 해 주었다는 메시지가 있다.

견우와 직녀 신화가 칠성님신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마부와 칠성님이 <소놀이굿>에서 칠성님과 마부가 <농경신화>를 만들어내고, 견우가 상제님을 만나 농사를 망치는 6월 장마를 그치게 하는 <지우止雨신화>가 만들어진단다. <지우신화>에서 견우는 인류의 시조 남자 나반이 되고, 직녀는 인류의 시조 여자 아만이 된다. 나반은 6월장마를 그치게 해 달라고 청원하러 칠월칠석날 밤에 그의 상제를 만나러 간다.

하화가 동이에서 갈라져나가면서, 농사의 신 신농神農을 만든다. 신농이 <소놀이굿>에도 등장한다. 씨종자를 신농씨에게서 받아온다고 한 것이다. 신농이 윗대에는 복희가 있고, 복희의 윗대에는 고시가 있다. 고시는 배달나라에서 초대 농관農官을 지낸 분이다. 그러므로 씨앗을 받아오려면 고시에게서 받아와야 이치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

칠성굿에서 칠성님은 제석에게 칠성의 자리를 빼앗긴 상태에서 굿을 끝내며 입고 있던 칠성복을 벗는다. 벗은 옷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며 여주네에게 넘겨준다. 여주네는 거므나 따(검지지儉之地-단군왕검의 땅 조선)에 희나백성(희씨나라熙氏那羅-단군왕검 조상의 백성)을 대표한다.

사실상 칠성굿은 그것으로 끝이다. 칠성님이 하시는 일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다.

(만세받이)

탈이로다 탈이로다 옷을 벗어 탈이로다

이 염주를 벗어 줄 테니

돈 많이 벌면은 수판으로 사용하고

홍가사 청가사를 받아 두었다가

아들 딸 장성해 시집장가 갈 때

청실홍실 인연을 맺어 주고

그 다음 가사 나무에 걸고

(목에 걸어) 가사(위로 내리는) 염주는 유자나무에 걸어놓고

장삼은 주고 갈 테니 칠성당에 걸었다가

아들애기 크거들랑 곤룡포로 입혀 줘요

괘자를 벗어 줄 테니 나졸들에게 입혀주고

치마를 벗어 줄 테니 며늘아기 얻을 적에 위치마로 사용하고

손자 낳으면 뒹개로 띠어 입혀줘요

고깔을 벗어 줄 테니

받아 두었다가 후대지석으로 아랫목에 모셔놔요

아들애기 장성하면 익선관으로 씌워줘요

삼년 후에 다시 찾으러 오겠시다.

(괄호 안 필자 보충) (김금화 무가집 <거르나 따에 희나백성> 철무리굿 칠성굿 89쪽)

이 무가사설은 서글프고 비장하기까지 하다. 칠성님(여기에서 칠성님은 하나님이다)이 쓰고 있던 것, 입고 있던 것을 모두 벗어서 여주네에게 주고 떠나겠다는 것이다. 칠성님의 시대가 끝났으니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위하여 떠나겠다는 것이다. 이제 떠나면 3년 후에나 돌아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3년이 우주에서의 3년인지, 지구에서의 3년인지 알 수 없다. 칠성님이 다시 온다고 했으니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탈이로다 탈이로다 옷을 벗어 탈이로다

옷을 벗지 않아야 하는데, 옷을 벗음으로 탈이라는 것이다. 대단히 암시적이고 예언적이다. 앞으로 닥쳐 올 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칠성님이 논아주는 옷을 장차 입게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칠성님의 옷을 입히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각처로 퍼져나가서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새삼스럽게 사라진 칠성신앙을 다시 찾아다 전파하라는 것인가? 그런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번잡스럽고 시간이 걸리는 일을 하라고 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소놀이굿>의 말미로 써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소놀이굿>도 <칠성굿>으로 보기 때문이다.

소놀이굿은 지경 닦기를 하면서 끝이 난다.

소놀이굿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소놀이굿이 칠성굿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칠성굿이 제례의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굿이라면 소놀이굿은 연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재미와 대중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의굿에서 훼손된 원형을 노리굿에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 굿이 가지고 있는 오락성에 원형이 묻혀 구연되어 왔기 때문에 보존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소놀이굿이 굿이라는 제의에 포함된 일부이기 때문에 재미와 대중성만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제약이 따르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소놀이굿을 마당극으로 보여준 소놀이굿보존회 회원들은 연극·음악·춤 전공자들이다. 굿을 공연하는 무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나 소놀이굿이 칠성굿이라는 제의 안에서 수행이 되는 놀이인 만큼 이 굿에서 종교성을 배제해서는 아니 된다는 책임을 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굿이라는 전통종교제례를 공부하지 않으면 재미와 오락성을 추구하다가 언젠가는 전통제 의와 괴리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예술의 전공자들은 종교적 창법과 종교적 춤사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지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문자 그대로 국기에 대한 맹세이다. 특정한 정권에 대한 맹세나 정권에 대한 충성이 이니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과 팔괘가 의미하는 철학적 사상적 정서적 상징물을 앞에 놓고 마음을 추스리기 위하여 하는 사랑의 맹세와 같은 것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며 마음을 추스리다 보면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우리의 역사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하려는 맹세일 뿐이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좌우명과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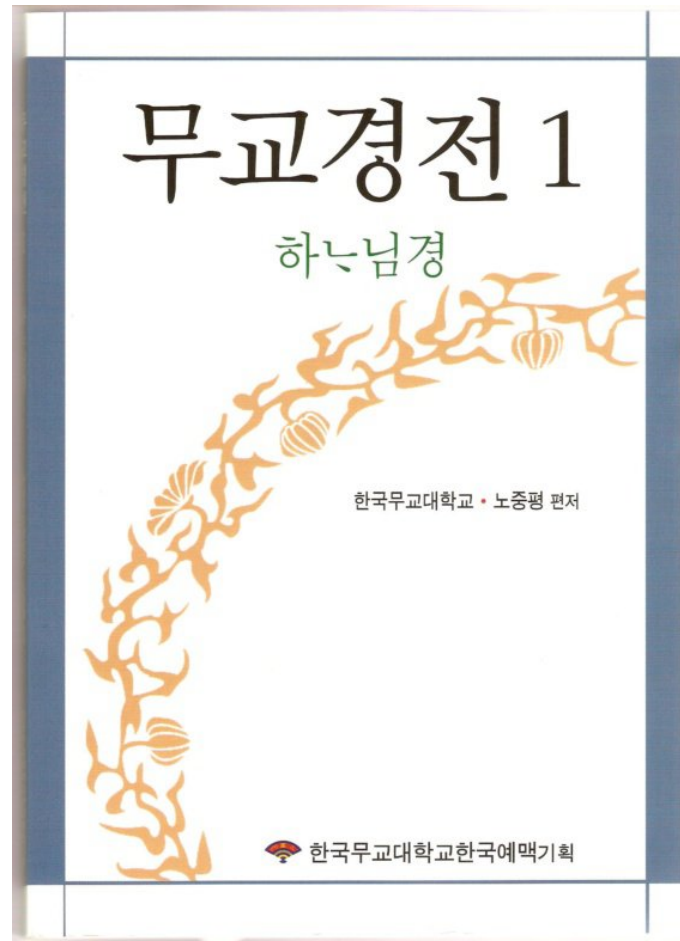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상징하는 상징물 앞에서 잠시 기도문을 읽듯이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운다고 해서 양심의 자유가 침해를 받는다면 그런 양심이 무슨 양심인지는 몰라도 여러 사람을 위하여 가슴 한가운데에 숨겨두는 것이 국기를 위해서 좋고 사람들을 위해서도 편안할 것이다.

외국에 나가서 사는 동포들을 생각해 보라. 그분들이 양심의 자유 운운하며 국기에 대한 맹세를 없애자고 하겠는가를. 나라가 뭔지 국민이 뭔지, 애국심이 무언지, 국기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해대는 잠꼬대와 같은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귀찮으면 혼자서만 입다물고 있으면 된다. 또 대한민국이 지긋지긋하게 꼴 보기 싫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을 엮어버리든가 떠나든가 택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정신병자들이나 중언부언 떠들어댈 일이다.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히 그런 망발은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이상한 말을 천연덕스럽게 짓거려 대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내가 정상적인 사람인가 비정상적인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정상으로 간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떨른지?

주제 : [‘국기에 대한 맹세’ 존폐 논란](#) [미디어다음]



〈무교경전〉 1권 출간

노중평

우리나라는 절대논리보다는 상황논리가 지배하는 나라이다. 정해진 원칙이 상황논리에 따라 변한다. 모든 것이 상황이 유리한 쪽에 편재되어 있다. 상황이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그래서 집단화 된 권력이 형성이 된다. 그 예를 든다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절대로 평등한 사회로 갈 수 없도록 구조화 된 국가가 우리나라이다.

그 안에서 먹고사는 방법, 명예를 얻고 돈을 버는 방법, 권력을 얻는 방법, 그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나온다. 그들이 누리게 되는 사회가 천국이 된다면 그들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홀대를 받아 온 것 하나를 든다면 무교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고 한인 한웅 단군왕검으로 이어온 무교가 종교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편재된 상황논리 때문이다.

모든 종교가 다 경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전 하나 갖지 못했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습관화 된 불평등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불평등한 것이 너무나 많다. 이 많은 불평등한 것 중에서 불평등한 것 하나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교경전>1권을 내놓았다. 무교가 대접받는 종교로 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한 것이다.

앞으로 2권, 3권 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축복을 받느냐 재앙으로 떨어지느냐는 우리가 하기 탓이다

노중평

최근에 한미 간에 체결된 FTA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FTA를 받아들이면 국가적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단을 하고 다방면에서 부정적인 글을 써대거나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이런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향이 너무 편향적이고 급속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론을 피고자 해도 겁이 나서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현상 탓에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엔트로피(entropy)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엔트로피의 증가는 "FTA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게 무차별적인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확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엔트로피의 감소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방법을 찾기 보다는 FTA를 반대하는 여론 물이에 몰두함으로써 이 사회를 패닉 상태로 몰아가는 가학성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에 흐르고 있는 이러한 기류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반대만을 확대 재생산하는 맹목성으로 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만큼 반작용으로 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힘도 따라서 증가한다. 그래서 반 엔트로피의 증가로 무질서해져 가는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가해 가고 있는 엔트로피를 감소시켜야 하는가?

같은 사안을 놓고서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기도 하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일단 시점을 정했으면 이 시점을 확대해 가며 논리전개를 해

나야 하는데 부정적인 관점에서 논리 전개를 해 나간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논리 전개를 해 나간다면 최선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으므로 균형을 맞추어 가며 논리 전개를 해 갈 필요가 있다.

요즈음 우리는 데모는 다반사이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 분신자살을 하는 등 FTA를 저지하는데 총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왜 이렇게 극으로 달리며 반대만을 해야 하는지 나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무리 부정의 논리가 그럴듯하다고 해도 이견 정도를 넘는 것이다.

나는 그런 극단적인 행위를 하기보다는 앞날을 대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축복을 받느냐 재앙으로 떨어지느냐는 우리가 하기 탓이다. 이 번 기회를 실기하면 재앙으로 떨어질 것이요, 기회를 잘 활용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나는 충격적인 논리를 하나 제공하려고 한다.

백사람의 분석자들이 백인백설로 부정적인 논리를 펼친다고 해도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도자한 사람의 예지력과 통찰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관점에서 이 논리를 펼쳐 보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 보기로 한다. 뉴욕 타임즈가 2006년도의 사업가로 선정한 사람이 있다. 그가 아랍 에미리트의 7국가에 속한 두바이의 국왕 셰이크 모하메드(57)이다. 그는 1995년 왕세자로 책봉되면서 “미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노예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 정부와 공무원을 변화시키는 데에 앞장섰다. 그리하여 지금은 온 국민이 희망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전 세계는 그의 행보를 경이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자, 두바이의 현실을 보기로 한다. 두바이는 면적이 3,900km² (서울의 6배, 제주도의 2.1배)이고 전국토의 90%가 사막이다. 국민의 수는 토착민 30만 명에 외부유입인종이 100만 명이다. 연강우량은 150mm에 지나지 않는다. 산유량은 25만 배럴(2006)이고, 오일달러 수출액은 471억5,100만불(2006)이다. 그러나 2020년이 되면 석유생산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한다.

두바이로서는 넘쳐나는 오일달러를 어떻게 유익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앞날에 희망을 갖게 되느냐 다시 조상 대대로 벗어나지 못했던 유목민의 생활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는 기로에 처해 있었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셰이크 모하메드이다. 그는 두바이가 과거의 유목생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혁명가적인 기질과 예술가적인 기질을 발휘하여 국가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돌려놓았다.

그는 65km에 불과한 해안선의 길이를 1,500km로 늘이고, 바다를 매립하고 인공섬 3개를 만드는 ‘팜 아일랜드계획’ 을 입안하여 시행하였다.

‘팜 제벨 알리’ 와 ‘팜 데이라’ 는 건설 중이고, 가장 작은 섬 ‘팜 주메리아’ 는 완공하여 분양하였다.

이 섬 ‘팜 주메리아’는 세계적인 거부들이 사들였다고 하는데,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리고 있다.

두바이는 가히 세계 최고만을 고집한다. 세계 유일의 7성급 호텔인 ‘버즈 알 아람’ (세계에서 가장 높은 321m이다)이 있고, 300개의 인공섬을 만들어 ‘더 월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50억불을 들여 사막에 ‘두바이 랜드’를 짓고 있다. 자동차경기장을 짓고 있고, 스키장은 완공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다. 세계 일류 기업 700개가 모인 ‘인터넷 시티’가 있고, CNN을 비롯하여 850개의 언론사가 들어 있는 ‘미디어 시티’가 있다. 세계의 유명대학과 분교가 들어선 ‘지식마을’이 있고, 세계최고의 존스 홉킨스 병원이 들어오기로 된 ‘헬스 케어 시티’가 건설 중이다.

두바이는 앞으로 관광, 무역, 금융의 허브가 될 것을 꿈꾸고 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2020년에 기름이 바닥이 난다고 해도 두바이의 국가의 운명이 최악의 상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두바이는 세이크 모하메드의 상상력과 의지, 나라 돈의 삼박자가 결합하여 격암 선생이 말씀하신 삼변성도三變成道를 이루어 냈다.

지금 우리와 두바이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세이크 모하메드와 같은 의지와 상상력이 출중한 인물로 키워내지 못하고 “우리는 모두 FTA를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미국이라는 탱크에 깔려 죽게 될 것”이라는 장송곡을 부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FTA를 저지한 이후에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확고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한다는 신념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나 하고 보자는 식의 판지나 걸고 있다. 역사공부의 부재가 이러한 극단적인 편협성을 내보이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지식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지식인이 할 일은 무모하게 국가의 앞날에 판지나 거는 일이 아니라 합심하여 난관을 헤쳐 나갈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결과에 책임 질 준비가 되어 있으면 판지를 걸든 업어치기를 하든 용인이 될 것이다.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 우리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를 슬기롭게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때 지식인이 앞장서서 이 일을 주도한 적은 없었다. 판지거는 일에 열심이었을 뿐이다. 지금도 지혜를 모을 생각은 하지 않고 쓸모없는 반대나 하는 사람이 많으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격암 선생의 예언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격암格菴 남사고南師古(1509~1571)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436년 전에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예언하였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는 생몰하기 21년 이전에 임진왜란 · 병자호란 · 조선왕조멸망 · 대한

민국건국 · 6.25남침 등을 〈격암유록〉으로 알려진 〈남사고비결〉에서 정확히 예언하였다.

격암 선생은 앞으로의 세계는 지구에 산재한 다수의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고, 국가통합의 선두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 통합된 지구나라의 이름을 선국仙國이 될 것이고, 국가통합의 시대를 유리시대琉璃時代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유리시대란 크리스털시대, 투명한 시대라는 말이다.

양자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앞으로의 지구는 태양과 플레아데스 성단 사이에 있는 양자대陽子帶(Photon belt)를 통과(지구태양Solar은 플레아데스성단의 태양Alcyon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하게 됨으로써 크리스털 형태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형상도 에테르형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에테르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은 신선이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시대가 곧 멀지 않아 올 것이고, 그때 세계의 중심이 인천과 부천 사이의 한강변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격암 선생은 미래의 인류지도자로 나서게 될 분을 도부신인桃符神人(신선의 지도자라는 뜻)이라고 호칭하였다. 한반도에서는 인류의 지도자로 도부신인만을 내게 될 뿐이고, 미래의 행정기관과 군대조직 등은 모두 외국에서 들어오게 될 다인종多人種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시대에 전 세계인을 통치하는데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인仁(격암 선생이 말한 인은 천지인天地人사상이다)이라고 하였다.

요즈음 우리나라 남성들이 외국인 여자들을 데려다 결혼하고,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학이민들이 생기는 현상은 우리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를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유학이민파들이 우리나라 땅으로 피드백 하게 될 신인류의 조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각종의 전문가가 되어서 지구를 이끌어가게 될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지구인의 운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 정부가 발 빠르게 타결을 본 FTA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운명이 이미 예정이 된 수순대로 우리에게 닥치게 될 미래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오히려 이를 발판으로 하여 우리의 후대가 지구인의 엘리트그룹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터 닦이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무교대학교재 2 종교로서의 무교

종교로서의 무교

영혼과 종교

1 概念의 整理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필요로 한다. 영혼이 없다면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 앞에 차려 놓는 밥상인 종교에 필요한 다양한 반찬으로서의 呼名이 생겨났다. 그것은 마치 무 한 개를 가지고 9가지 반찬을 만드는 것과 같다.

2 무 한 개 靈魂

영이라는 무 1개를 가지고 영혼이라는 이름의 16가지 반찬을 만들 수 있다. 문자놀이.

- 1 靈 : * 祈雨祭나 止雨祭를 지내는 巫堂 3인 (巫覡 巫舞 祝, 귀신을 부르는 사람)
* 비를 다스릴 龍神을 부르기 위하여 祭祀를 지내는 사람(已知)
* 무당이 불러서 오게 되는 魂魄
- 2 魂 : (云鬼-鬼는 아니고 鬼와 친한 存在, 鬼와 수다를 떠는 存在)
- 3 넛 : 넛반(魂盤-魂飯, 혼은 넛 반에 담는다)
- 4 魂靈 : 鬼를 부르는 사람(靈=巫, 영과 무가 同一視되는 현상)이 불러서 오게 되는 鬼와 친한 존재.
- 5 魂魄 : 魂은 귀신과 친한 존재. 魄(음은 백색의 鬼. 영적인 존재. 靈加.
- 6 精魂 : 精은 精神, 따라서 정신에 깃들인 魂. 혼은 정시에 깃 드려 있다.
- 7 精靈 : 精은 精神. 무당이 鬼(靈加-陽光子)를 부르면 무당의 정신에 憑依하는 陽光子
- 8 精魄 : 精은 精神. 무당이 魄(中性子)을 부르면 무당의 정신에 깃들이는 靈加
- 9 精爽 : 精은 精神. 爽은 神靈한 鬼가 깃들여 神聖해진 무당의 精神
- 10 識神 : 神을 鬼와 구분하여 認識하는 段階.
- 11 陰影靈 : 陰電子 靈. 中性子
- 12 靈加 : 무당이 불러서 오게 되는 일찍이 五加에 속했던 魂魄
- 13 靈覺 : 자신의 존재가 무당이 불러야만 올 수 있는 魂魄임을 깨달은 靈加
- 14 英靈 :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부르는 靈魂·魂魄·靈加
- 15 英顯 : 顯身하기를 바라며 부르는 英靈
- 16 尊靈 : 尊敬하고 崇拜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靈魂·魂魄·靈加

이들 중에서 역사와 관련이 있는 영혼의 호명은 靈加이다. 영가는 달리 加亡이라고도 한다. 가망은 五加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3 宗教

종교는 人이 神과 靈과 疏通하는 행위이다.

神에게 依支하려고 소통한다.

靈과는 맺힌 고를 풀고자 소통한다.

1 석가 이전 : 桓因을 造化의 신, 桓雄을 教化의 신, 檀君王儉을 治化의 신이라고 하였다.
 2 석가 : 弟子가 “신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상을 만들지 말고 절을 짓지 말라”고 유언하였다. 그는 영혼을 부정하고 죽음 다음의 생은 없다고 하였다. 無神論者.
 3 석가 이후 예수 : 예수는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고, <도마복음서>에, “제자들이 물었다. ‘우리도 천국에 들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안을 바깥같이, 위를 아래같이, 아래를 위 같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남성이 이미 남성이 아니며, 여성이 이미 여성이 아닐 때, 그때 너희가 천국에 들리라.’”고 하였다. 남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아닐 때 태어나는 인간은 복제인간이다. 複製人間의 시대에 天國에 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천국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4 天國

천국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곳이 광자대인 Photon belt이다. 인간은 죽으면 육신은 원소로 돌아가고 영혼은 陽光子와 中性子로 분리되어 하늘로 가는데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을 Photon belt로 볼 수 있다.

5 종교의 始原

靈加의 生命인 靈을 宇宙的 生命으로 轉移시키기 위한 生命 解體와 魂魄의 分離, 이에 隨伴한 일련의 社會的 宗教的 儀式을 宗教行爲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宇宙的 時間과 地球的 時間 사이에 乖離가 일어난다. 우주적 생명은 무한하지만 지구의 생명은 하루살이생명으로 지극히 짧다.

지구적 시간은 유한한 생명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고 우주적 시간은 지구에서 생명을 끝내고 돌아가는 영혼이 맞게 되는 무한한 시간이다.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나서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는 가는 시간은 일생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어떤 사람에게 짧은 일생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긴 일생이 되기도 한다.

종교는 인간이 지상에서 우주의 영원한 시간으로 가기 위한 워밍업과 같은 것이므로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궁도를 보면 우주의 시간을 지구의 시간으로 2000년을 한 사이클로 끊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2000년은 지상에 출현하는 종교의 변환주기로 볼 수 있는 년도가 된다. 麻姑의 시대인 雙女宮시대에는 三神敎가 출현하였고, 이 삼신교는 한인시대에 선교로 업그레이드되었다가 한웅시대에 와서 다시 업그레이드되어 太白眞敎로 바뀌었다. 태백진교는 단군왕검의 시대에 와서 다시 업그레이드되어 德敎가 되었다가 마지막으로 조선이 멸망하면서 巫敎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나라 밖에서는 2500년~2000년 사이에 불교 도교 유교가 일어나 덕교와 무교를 뒤집어버렸다.

인류는 직녀성시대인 쌍여궁 시대에 織女星에서 지구에 와서 韓半島 中原에 정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天樞星 시대엔 황소자리에 있는 플레아데스聖團으로부터 中原에 이주해 온 사람들, 시리우스에서 와서 이집트 쪽에 정착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고도의 문명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종교의 기원은 이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에 따라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조상이 이들 성단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연구자들은 종교적 공포심(fear)을 현생 인류의 DNA에 심어준 사람들은 이들 별들에서 온 사람들(GOD)이라고 말한다.

“그 이전에는 인류가 종교적 공포심을 갖지 않았다. 인간의 육신이 갖게 되는 공포심은 인간이 갖게 되는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육체가 이를 극복할 수 없음으로 이 공포심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여 조상과 하늘이 준 영혼이 복합된 영혼 중에서 몇몇 각성한 영혼만이 이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인류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다. 우주적 인간들이 인류의 종교적 각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정치적이고 군주적인 형태의 신들의 이야기를 발명해 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신들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들은 이를 믿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 종교를 위하여 순교를 하기도 하였다.

우주에서 온 사람들은 인류에게 기술을 심어주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지구는 문명의 발달로 자연을 남용하고 훼손하고, 국가 간에 전쟁을 유발하여 지구의 원래의 모습, 인류가 타고난 순박한 원래의 모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종래에는 대홍수나 화산의 폭발 지진 등으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

역사에 나타나는 대홍수와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뮤 대륙의 침몰이 이들 자연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서 시작하여 우리는 순환주기를 한 바퀴 돌아 그들이 당했던 그 위기의 시대에 다시 진입하였다고 한다.

나는 인류가 언제부터 종교를 갖기 시작하였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보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초고대문명을 알고 싶어 한다는 점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다른 行星의 地球支配(control)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역사적 업, 또는 집단적 업으로 보고 이 업(카르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들이 자신들이 우주로부터 수신하는 메시지들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를 보면 종교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는 설은 신뢰하기 힘든 허구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다수의 인간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허구의 종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6 巫敎와 科學

이들에게 미신으로 불리는 무교는 사실 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방울 · 부채 · 사설 · 경문을 통하여 우주과학으로부터의 逸脫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 1) 방울 : 八呂의 音, 八仙女, 九宮
- 2) 부채 : 八風, 八卦
- 3) 깃발 : 感應天 蘇堂旗 五方旗
- 3) 辭說 : 선 거리
- 4) 經文 : 앞은 거리

7 巫敎가 가지고 있는 종교 스토리

巫敎의 巫는 하늘 땅 신 인간을 나타내는 문자이다. 敬天 敬地 敬神 敬人 4가지를 포함한다. 敬天敎 敬地敎 敬神敎 敬人敎의 4가지 종교가 나올 수 있다.

8 巫堂의 能力

무당의 능력에 따라 그 무당이 어디에 속한 무당인가를 알 수 있다.

- 1) 敬天敎에 속한 무당 : 三神 七星이 주가 되는 무당
- 2) 敬地敎에 속한 무당 : 山神 龍神 서낭(城隍)이 주가 되는 무당
- 3) 敬神敎에 속한 무당 : 祖上이 주가 되는 무당
- 4) 敬人敎에 속한 무당 : 祈福이 주가 되는 무당
- 5) 巫敎에 속한 무당 : 敬天敎 敬地敎 敬神敎 敬人敎를 하나로 체계화 하여 종교적 普遍性을 추구하는 무당

9 무교로 가는 길 (世界化, 宇宙化)

- 1)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한다
 - 2) 새로운 해석을 해야 한다
- 우리의 경문과 행위를 歷史的, 宇宙的, 神學的, 科學的 觀點에서 해석을 시도해야 한다.
- 3) 타종교와의 호환성을 찾아야 한다.

드라마 장희빈에 나오는 무당

노중평

드라마 장희빈에 무당이 등장한다. 종전마마 여흥 민 씨를 시기하는 희빈 장 씨가 시키는 대로 악역을 도맡아서 한다. 중병이 들어 알아 누운 인현왕후의 화상을 그려 벽에 붙이고 활을 쏘아 얼굴을 맞힌다. 누가 보아도 극악무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거나 인현왕후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희빈 장 씨는 이 일이 발각되어 그 또한 사사賜死되니 두 사람이 다 함께 요절하는 비운을 겪게 된다. 이분들의 뒤에 거대한 서인과 남인도 사리고 있어서 서인과 남인이 대치한 최전방에서 줄병 노릇을 하다가 전사한 셈이다.

인현왕후는 아버지가 노론老論의 거두인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유중維重이고 어머니가 서인의 거두인 송준길宋浚吉의 딸이었다. 무고사巫蠱事로 사사된 희빈禧嬪 장씨張氏는 역관의 딸이었다고 한다. 역관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의 지위에 드는 집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순수 권력가와 재벌가의 알력이 이 갑술환국甲戌換局에 한몫 거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남인이 몰락하고 소론이 정권을 장악한다. 결국 아름답고 지체 높은 여인들이 목숨을 바쳐 정당 싸움에 놀아난 셈이 되었다.

드라마는 희빈 장씨의 수족처럼 움직이던 상궁과 나인 그리고 무당 3인을 군기시 뜰로 끌어내어 참수한다. 상전이 죽으라면 찢소리 못하고 죽어야만 할 수 밖에 없는 그 시대에 상궁과 나인은 희빈 장 씨에게 충성한 죄로 인하여 목이 잘리게 된 것이다. 무당은 그가 희빈 장 씨를 도와 악역을 한다고 해도 그의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 만큼 왜 그런 일에 발이 빠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비록 드라마이지만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이 드라마 이외에도 드라마에 등장하는 무당들은 한결 같이 교활하고 음흉한 사회악의 화신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그 상투적인 극의 전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드라마작가와 감독들은 전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 외국 영화 오멘에 등장하는 귀신을 쫓는 신부처럼 우리 무당을 업그레이드 하여 그려내지 못하는 것일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무당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던 존재인가를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자료를 찾아내고 추론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 만날 비슷비슷한 드라마를 만들어 우려먹는 것이 아니겠는가.

치우천왕과 황제의 □鹿大戰 미스터리

노중평

상고사로 들어가면 하화족과 동이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나는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가 치우천왕과 황제의 싸움이다. 치우천왕과 황제의 싸움에 대하여 치우천왕 쪽에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는데 황제 쪽에는 이런 저런 기록들이 있어서 맞추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 쪽 기록은 황제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고 하화족의 기록은 치우천왕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지나족의 예를 하나 들어 보기로 한다.

송나라 서자평徐子平의 <연해자평淵海子平>이라는 기록을 보기로 한다. 연해자평은 점술가들이 보는 책이다.

話說黃帝時期，妖怪四出，又有蚩尤作亂，弄至民不聊生，黃帝因此而討伐蚩尤，與蚩尤在□鹿這個地方大戰，士兵死傷無數，血流百里 黃帝為求戰事盡早結束，決定齋戒沐浴，設壇祭天禮地，求天神之指示□助 황제 때의 설화에, 요괴가 사방에서 나타났다고 하고, 또 치우가 난을 일으켰다고도 하는데, 민심이 어지러워 황제가 치우를 토벌하였다. 치우와 더불어 탁록에 있었는데, 곳곳에서 싸워 사병의 사상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고 유혈이 백리에 이르렀다. 황제가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목욕재계하고 제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제사지내고 땅에 제사지내며 천신이 가르치고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이 기록은 도가道家의 술서인 <육정육갑금쇄경六丁六甲金鎖經>에 기록된 기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기록이다. 말하자면 <육정육갑금쇄경>의 기록을 약간 손질을 하여 달리 기록했을 뿐이다.



탁록에 있는 황제와의 격전지인 치우천왕의 유적이다.

금쇄는 황제가 단을 쌓고 기도했다고 전해 오는 곳이다. 그는 기도하여 구천은녀九天隱女로부터 경을 한 권 받았는데 이 경을 금쇄에서 받았다고 하여 <금쇄경>이라고 하였다. <금쇄경>에는 육정육갑신을 부리는 비법이 적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육정육갑금쇄경>이라고 하였다. 육정육갑신은 천간신天干神과 지지신地支神을 말한다. 이들 신을 천군天軍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천군이라고 한 것이다.

<연해자평>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這時，天上降十干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及十二支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이때, 하늘에서 10간干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가 내려왔다. 또 12지支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도 함께 내려왔다.

10간 12지가 그때 내려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10간 12지는 황제가 금쇄에서 기도하기 이전에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태초부터 있어 온 천기와 지기이므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黃帝乃將十干圓形布象成天（圓形主天），而將十二支方形布象成地（方形主地），而黃帝借這十干十二支陣，破蚩尤亂軍，至於如何借十干十二支陣破敗蚩尤，至今仍是一個祕密。

황제는 장수 10명을 시켜 군사를 10개의 부대로 나누어 원형으로 포진하게 하여 진의 형상이 하늘의 모양이 되게 하였다. 원형의 진은 주로 하늘모양을 나타낸다. 그리고 장수 12명을 시켜 부대를 12부대로 나누어 방형으로 포진하게 하여 진의 형상이 땅의 모양이 되게 하였다. 방형의 진은 주로 땅모양을 나타낸다. 황제는 10간 12지 진법을 차용하여 치우천왕의 반란군을 격파하였다고 하였다. 어떻게 하여 10간 12지 진법을 차용하여 치우천왕을 격파하여 패배시켰는지 지금에 이르러서도 하나의 비밀로 남아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서 치우천왕의 군은 공격군이고 황제군은 방어군임을 알 수 있는데, 밖으로 원형의 진을 치고 안으로 방형의 진을 쳐서 원방圓方 2중의 방어망을 형성했다고 본다. 이러한 진법으로 치우천왕이 이끄는 공격군을 괴멸시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만법귀종萬法歸宗〉에 들어 있는 〈정갑대법丁甲大法〉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다음에 인용할 글을 〈자부비문동방은서紫府祕文東方隱書〉에서 인용하였다고 밝힌다. 자부는 자부신선이고, 자부신선이 주신 〈동방비서〉라는 책에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황제가 구천현녀에게서 받았다고 하여 〈구천현녀비서〉라고도 한다.

昔黃帝戰蚩尤不勝 夜祝於天 七日之內 上天勅 九天玄女 六丁六甲持 此金□玉篆天印 眞文龍章 妙訣玄女祕□授黃帝 黃帝拜謝上天 後之善惡 皆聞誅斬 鬼神萬事預知 黃帝昇天之後 禹王得此書

옛날에 황제가 치우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여 밤에 하늘에 축문을 읽었다. 7일 이내에 상천께서 구천현녀에게 칙령을 내려 육정육갑신을 잡고 이 금록(자부비문동방은서-정갑대법)과 천인(천부인이 찍힌 영장-부적) 진문용장(진문을 쓴 부적)과 구천현녀비결인 묘결(주문)을 황제에게 주니 황제가 절하고 하늘에 감사한 후에 선악을 들어 판별하여 주살하거나 참하였다. 귀신이 하는 만 가지 일을 미리 알았다. 황제가 승천한 후에 우왕이 이 책을 얻었다.

황제가 치우천왕과 싸워서 이기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황제가 금쇄에서 구천현녀에게서 받았다는 이 〈육정육갑금쇄경〉이다. 이 〈금쇄경〉을 활용한 황제의 방어전법에 치우천왕이 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듯하다.

그림은 〈韓國의 符作〉 김문기)에서 인용. 위 그림은 12지신이 원진圓陳에 배치되어 각 방위의 담당구역을 방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2지신상의 무장은 한漢이 진秦을 멸망시키고 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과시하기 시작한 한대漢代의 복장으로 보인다.

황제가 치우천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적과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황제가 10명의 장수를 데리고 원형의 방어진을 칠 때 부적과 주문을 썼을 것이라는 점이고, 또 방형의 방어진을 칠 때에도 12명의 장수를 데리고 부적과 주문을 사용했으리라는 점이다.

부적에는 십간십이지와 관련이 있는 부적으로서 오행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형의 진을 칠 때는 북쪽에 갑자甲子신장, 북동쪽인 간艮방에 정축丁丑신장, 동쪽인 진震방에 갑인甲寅신장, 동쪽인 묘卯방에 정묘丁卯신장, 동남쪽인 진辰방에 갑진甲辰신장, 남동쪽인 손巽방에 갑진甲辰신장, 남쪽인 이離방에 정사丁巳신장, 남쪽인 이離방에 갑오甲午신장, 남서쪽인 곤坤방에 정미丁未신장, 서쪽인 태兌방에 삼신甲申신장, 서쪽인 태兌방에 정유丁酉신장, 북서쪽인 건乾방에 갑술甲戌신장, 북쪽인 감坎방에 정해丁亥신장을 배치한다. 이로써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의 12지지가 12장군이 이끄는 부족

의 아이콘(족표族表)가 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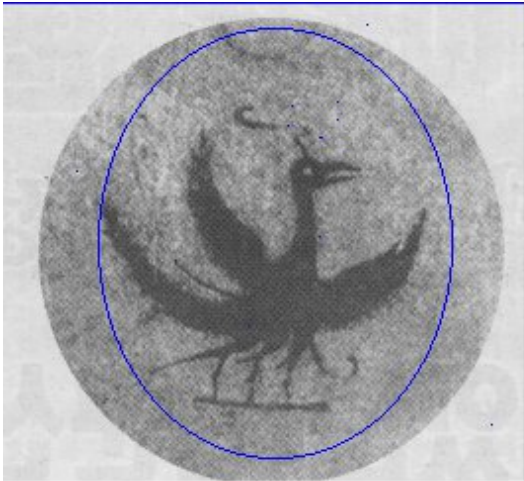
이들 12장수가 각각 부적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 이 부적의 이름이 〈육정육갑신장부〉이다.

정사신장	갑오신장	정미신장	갑신신장
정묘신장	갑진신장	갑인신장	정축신장
갑자신장	정해신장	갑술신장	정유신장

위의 12지신은 군대에 활용되기 이전의 원시적인 형태의 지신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12지신을 전술에 활용하지 않았던 시대의 방위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좌경에는 금쇄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경문이 있다. 〈지신경地神經〉·〈당산경堂山經〉·〈존신축원문尊神祝願文〉·〈육십갑자축원문六十甲子祝願文〉과 같은 경문들이 그러한 경문이다.

인두사신人頭蛇身의 한인과 향영도. 사신蛇身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四神이 된다.



해 안에 들어 있는 삼족오

四神과 三足鳥

노중평

〈중국신화대사전中國神話大詞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지금 전해 오는 사신 , 동에 청룡, 서에 백호, 남에 주작, 북에 현무는 한대漢代에는 동에 구미호九尾狐, 서에 백토白兔, 남에 삼족오三足鳥, 북에 섬여蟾蜍(두꺼비)라는 신수체계神獸體系에 따랐다고 하였다. 후에 백토(흰 토끼)는 백호(菟와 虎는 음이 비슷하다)로 바뀌었고, 삼족오는 주작(둘 다 태양조太陽鳥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섬여는 현무(둘이 형태가 비슷하다)로 바뀌었다. 구미호는 청룡(바뀐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으로 바뀌었다.”

단군조선이 진시황 8년에 진에게 멸망한 이후에 1차로 진이 단군조선의 잔재를 없애기 위하여 갱유분서坑儒焚書를 자행하였고, 한은 〈설문해자〉를 편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이 천문에서 단군조선의 천

문의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청룡을 구미호로, 백호를 백토로, 주작을 삼족오로, 현무를 섬여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대가 지난 이후에 백토와 구미호가 사라지고 원래대로 백호와 청룡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렇다면 이 사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우리의 관심을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신화시대로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신화시대란 인류의 역사가 역사로 해명이 되지 않고 신화로만 전해져 오는 시대이다. 이 시대를 연구한 신화학자들은 이 시대에 실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고 하나의 공용어가 있었다고 한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류문명의 아이콘이 뱀과 거인이다. 전 세계에 뱀과 거인의 신화가 퍼져 있다. 뱀과 거인은 특정한 지역이나 인종에게 용인되거나 배척당하는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대다수의 문명권은 뱀과 거인을 받아들이고 숭상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일부 특정한 문명권에서는 이를 철저하게 배척하였다.

우리는 뱀과 거인을 용인하는 문명을 가지고 있다. 뱀과 거인을 용인하는 문명이 풍이족風夷族의 문명이다. 풍이족은 9900년 전에 한국을 세운 한인천제를 배출한 인종이다. 풍이족의 풍風자에 들어있는 충虫이 바로 작은 뱀을 의미하는 문자이다. 풍이족이 뱀을 인종 아이콘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벽화 <오회분사호묘> 천정화인 인두사신道人頭蛇身圖에서 사신의 원형을 찾아보기로 한다. 필자는 이 ‘무덤 벽 그림’을 우리의 선조 풍이족風夷族의 시조인 한인桓因과 향영姪英을 그린 그림으로 보고 있다. 그들이 몸의 형상이 사신蛇身이라는 점에서 풍이족에 인종의 뿌리가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다.

지나인支那人이 그들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복희와 여와의 형상을 교미도交尾圖로 그렸는데, 한인과 향영은 교미도가 아니라 비천도飛天圖로 그려져 있어서 모든 비천도의 원형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한인시대가 9900년 전이므로 당연히 <한인향영비천도桓因姪英飛天圖>가 모든 비천도의 원형이 되는 비천도를 고구려에서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인과 향영을 그린 <한인향영비천도桓因姪英飛天圖>에서 보듯이 이들은 다리와 발이 없고 꼬리가 뱀의 꼬리로 되어 있는 사신蛇身의 형상이다. 이는 이분들이 풍이족의 근원이 되는 뱀에서 나온 인종임을 의미한다. 뱀은 신화시대에 전 세계에 산재하여 살고 있던 각 인종들이 신성시했던 토tem이자 인종 아이콘인데, 이 아이콘을 몸에 사용한 이들이 풍이족이었다.

풍이족의 뱀인종 아이콘은 뱀에서 시작하여 날개를 펼치고 펴려이는 새로 진화되고 진화된 새가 인간으로 진화 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조인鳥人이 해와 달을 머리 위에 들고 있는 신상회神像畫로 마무리된다. 이 진화의 과정에서 뱀이 진화의 모티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 현대인간의 원형이 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퐁이족은 뱀의 무리 중에서 특출한 뱀을 하나 택하여 용으로 삼았다. 그리고 나서 용을 천제天帝로 대접하였다. 퐁이족은 뱀을 용에게 논리적인 체계를 부여하기 위하여 문자의 출현을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 낸 문자가 뱀을 뜻하는 사巳자였다. 이리하여 사巳에서 용을 의미하는 파巴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巳는 그 형상이 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이다. 칠성님의 자손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칠성님의 자손이라는 뜻의 자子자가 사巳자에서 나오게 되었다. 칠성님의 자손이 나로 불리고 나를 뜻하는 사스자가 생겨났다. 따라서 巳자는 巳→子, 巳→龍, 巴→龍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하늘에서 칠성의 자손들이 집중적으로 모인 곳이 28수에 속한 동방창룡칠수東方蒼龍七宿이다. 창룡蒼龍은 배달나라시대의 천왕天王者인 용들을 의미한다.



몸이 뱀처럼 긴 백호. 백호가 청룡의 변형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후로 창룡은 형상을 변하여 몸이 용처럼 긴 백호가 되고, 다시 주작이 되고, 현무가 되었다. <사신도四神圖>는 이렇게 하여 완성되었다. 이 사신도의 모티브가 된 것이 비상하는 한인과 항영을 그린 <한인항영비천도>이다.

漢나라 때는 사신 중에서 남방의 서조瑞鳥가 삼족오라고 하였다. 그 이후로 삼족오가 변하여 주작朱雀이 되었다.

여기에서 삼족오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삼족오에 대한 기록은 <단군세기>에 있다. 8세 단군 우서한(혹은 오사함, BC 1993~1985) 갑인7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三足鳥飛入苑中其翼廣三尺

삼족오가 정원에 날아 들어왔는데 그 날개의 길이가 3척이다.

이 기록으로 보아서 조선시대에 삼족오로 불리는 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없는 것으로 보아서 멸종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단군세기〉에 나오는 삼족오는 동이족을 의미하는 발인發人(足人)의 인종 아이콘이었다. 진조선 · 변조선 · 막조선을 합쳐서 조선이라고 하였고, 이들을 발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삼족三族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 삼족이 삼족三足이다.

삼족이 궁중의 정원에 날아들었다는 것은 중원中原에 날아들었다는 것이고 그 길이가 3尺이라고 한 것은 임금이 3인이라는 뜻이다. 척尺에 임금을 의미하는 시尸자가 들어 있으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 때 출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춘추원명포(春秋元命苞)〉에는 삼족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春秋元命苞曰陽數起於一故日中有三足烏。

〈춘추원명포〉에 이르기를 양수는 1에서 일어나는 고로 해의 한가운데에 삼족오가 있다고 한다.

이 기록은 〈단군세기〉의 기록을 복사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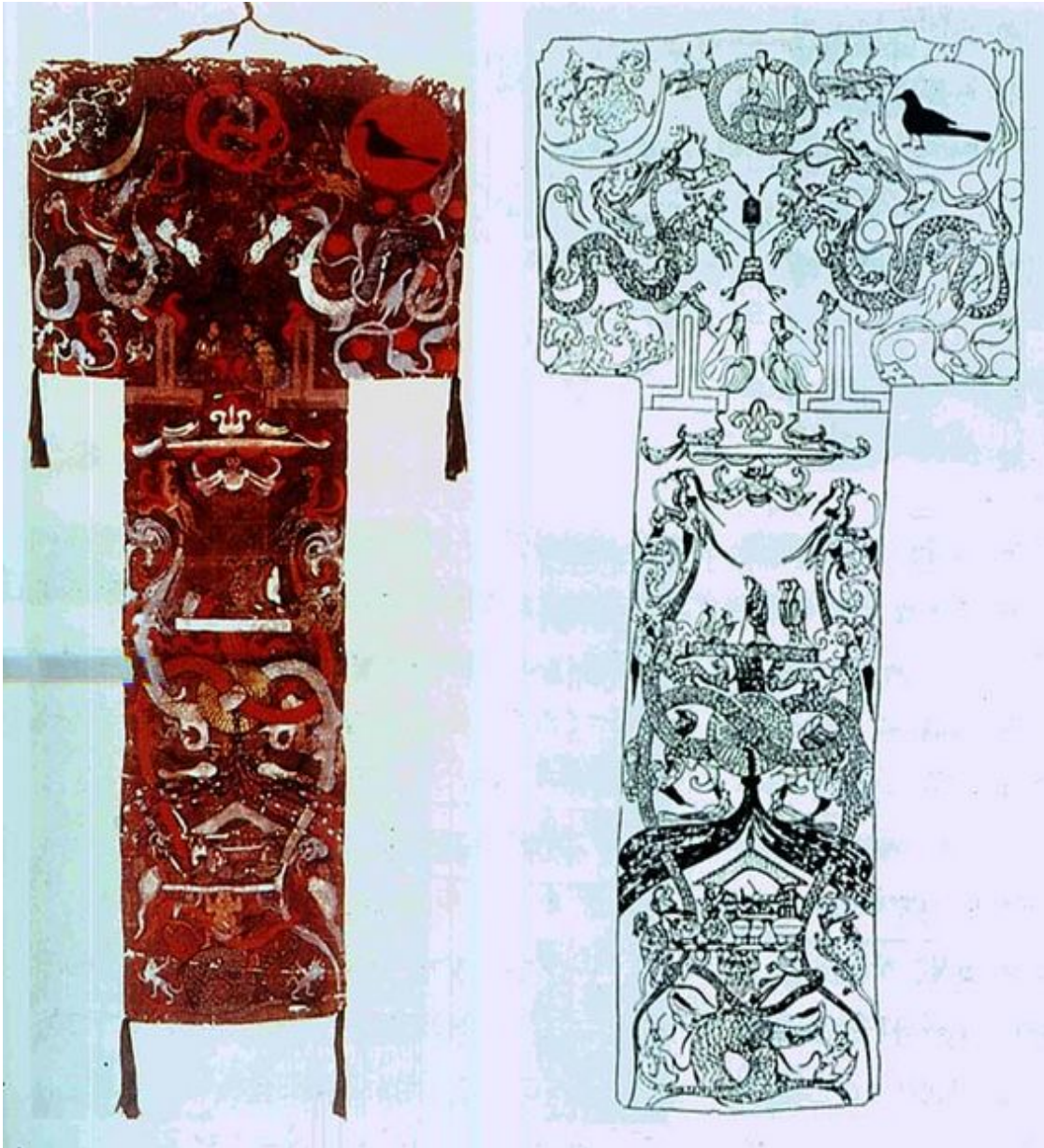
〈춘추원명포〉는 ‘춘추시대春秋時代의 근원根源이 되는 복희시대伏羲時代의 上古史’ 라는 뜻이다. 포苞를 복희를 의미하는 포희로 보아 포희로 해석한 것이다. 〈춘추원명포〉는 다시 말하면 필자가 보기에 ‘한웅천왕이 세운 배달나라시대의 역사’ 라는 뜻이다.

"양수는 1로부터 시작되어 3에서 완성된다. 그러므로 해 안에는 삼족오가 있다."

이 글은 복희시대에 〈천부경〉이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1에서 시작되어 3에서 완성된다고 한 것은 〈천부경〉의 일석삼극一析三極을 陽數起於一故日中有三足烏라고 풀어 쓴 것이다. 배달나라를 세운 한웅천왕은 배달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신지 혁덕을 시켜 녹도문자로 〈천부경〉을 기록하게 하였다. 녹도문자鹿圖文字란 사슴이 많이 나는 청구의 문자라는 뜻이다.

삼족오라는 말에는 해가 뜨는 동쪽에서 규표圭表의 해 그림자가 3이고 해가 남중할 때의 길이가 1이라는 뜻이다. 이때 규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솟대이다. 솟대를 만들 때 해가 남중하는 위치에 해를 상징하는 삼족오를 안치고 솟대 그림자의 길이를 재어서 나온 수치가 3(동):1(남중)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배달나라시대에 천문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대의 마왕퇴에서 나온 비단 그림. 오른쪽에 해가 있고 해 안에 발이 둘 달린 이족오가 있다. 삼족오가 지나족의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삼족오는 우리의 것이다.

전라남도 장성은 옛날에 사오단국斯烏旦國으로 불리던 곳이다. 사오단국은 "이 삼족오가 아침해로 뜨는 나라"라는 뜻이다.

구사오단국에서 중요한 문자는 오鳥자이다. 오자는 삼족오를 의미한다. 구舊자는 고古자와 같은 의미로 쓴 문자이다. 옛날에 있었던 나라라는 의미로 쓴 것이다. 사오단국斯烏旦國의 사斯는 사로국斯盧國이 신라新羅로 변했듯이 신新과 같은 의미로 쓴 문자이다. 그러므로 새롭다는 뜻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 세운 오단국烏旦國이 된다.

여기에서의 오鳥는 황도黃道를 따라 운행하는 해를 의미한다. 이 해를 마고시대에는 황궁黃穹이라고 하였다. 황궁은 마고가 낳은 딸 궁희穹姬의 직계 아들로 우리의 직계 조상이 된다. 황궁을 상징하는 새를 삼족오三足鳥로 볼 수 있다. 사오斯鳥는 새로 세운 황궁의 소국으로 볼 수 있다. 단鳥은 아침에 떠오르는 해로, 단군조선의 단檀이나 한국의 한桓과 같은 뜻이다. 한국의 제 한인과 배달나라의 천왕 한웅은 모두 한桓자를 썼다. 그러므로 구사오단국은 황궁·

한국 · 배달나라 · 단군조선의 맥을 이은 새로운 소국으로 해석된다.

해를 상징하는 삼족오는 황궁시대에 황궁의 아이콘으로 쓰이다가 신라시대에 와서 해를 상징하는 닭으로 대체되었다.

교재1 分野 檀君朝鮮 노중평 상고사연구회 1 2007. 3. 22.

제목 “한국 · 배달나라 · 단군조선 · 후세 역사의 고리 구월산 삼성당”

1 단군조선의 멸망

진시황 8년에 단군조선이 秦에게 멸망(BC 213년 혹은 238년)했을 때,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검인 고열가단군은 九月山으로 은거했다.

註1 : BC 213년은 단군조선이 멸망한 해, BC 238년은 고열가 단군이 구월산에 입산하여 은거한 해로 본다.

역사기록자는 이 사건을 “단군왕검이 신선이 되었다” 고 기록하였다. 이리하여 단군왕검이 무려 2000년이나 생존한 것처럼 알려지게 되었다.

2 구월산문화-굿문화의 생성

그러나 구월산에 연결되는 갖가지 단서를 추적해 보면 여기에 엄청난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면 거대한 문화가 하나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 문화가 단군조선문화이다.

3 구월산문화에 대한 연구가 없는 현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이점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학자가 황해도를 아무런 연구 없이 외국문물을 받아들여 온 곳으로 지레 짐작하여 외래문물의 종착지로 확정한 데 있었다.

“황해도는 중국과 여러 민족으로부터 많은 문화를 비교적 쉽게 그리고 빠르게 받아 들여왔던 곳이기도 하다. 황해도 무는 위와 같은 지리적, 문화적 배경 위에 살펴볼 수 있다. 해변가를 중심으로 한 해변굿과 내륙의 농경지 지역의 내륙굿, 그리고 산간지역의 산간굿 등으로 구분 발달되어 왔다.” (〈황해도평산소놀이굿〉 36쪽)

註2 : 사실 중에 : “약대가 전국 방방곡곡 집집마다 소 한 쌍씩을 물어다준다”

4 중원문화는 단군조선의 문화

그러나 이런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황해도가 곳의 중심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황해도에서 행해져 오던 곳들이 중국과 여러 민족으로부터 받아들여 왔다는 기록이 허황되다고 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황해도와 인접한 곳이 중국의 발해만인데 발해만에서 황해도로 곳과 관련이 되는 문물을 수입 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5 渤海灣과 東海濱

발해만은 단군조선시대에는 단군조선의 근거지가 되었던 곳이다. 우리의 조상인 동이족의 발생지, 예맥족의 발생지가 발해만이다. 단군조선시대에는 동해빈東海濱이 수출입항이었고, 발해만 북쪽이 단군조선의 근거지였다. 단군조선에서 해시海市(바닷가에서 여는 신시神市, 초기단군조선에서는 10년에 한 번 신시를 열었다)를 열었을만한 곳이다.

6 단군조선의 곳 舞天

이 시대에 단군조선에서 행하던 곳을 무천舞天이라고 하였다.《兔園策府》 칠월칠석날 저녁에 하늘에 나란히 뜬 해와 달을 향하여 일월마지를 하는 것이 무천인데, 무천은 왕검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제천행사祭天行事였다. 삼한시대에 동예東濊가 단군조선의 무천을 계승하였다.

註3 : 거성. 한양거리 산천곳 거성에서 신명을 신당 밖에서 신들을 모셔들여 藏堂 中堂 肉堂에 모시는데 그 거성의 형식은 《天符經》의 一析三極의 형식이다. 부채로 神饌에 感應하고 나서 다음에 절을 올렸을 때 4拜를 올렸을 것으로 본다. 이 4배가 임금에게 올리는 절 큰절1회에 叩頭拜 3회하여 一析三極의 형식에 맞추고 있다.

단군조선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검인 고열가단군은 발해만 일대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구월산으로 철수하여 은거하였다. 이때 무천인 日月마지하는 무당들을 인솔하여 구월산九月山으로 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註4 : 일월마지는 나무 중에 기가 가장 센 소나무신대에 노란 저고리 홍치마 옷을 입히고 명두를 얼굴로 세우고 떠오르는 해를 향하여 검은 물동이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춘다. 이때 신이 내려 신대가 떨어지면 일월이 감응했다고 본다.

7 고열가 단군이 구월산에 三聖堂 건립

入阿斯達山, 化神御天. 時, 大國九, 小國十二, 皆檀氏也. 太白 · 平壤, 俱在遼.滿之間, 阿斯達山即文化縣.九月山, 一名白岳. 國人立廟饗之, 稱以三聖祠. 桓因 · 桓雄 · 桓儉, 是謂三神, 而桓儉即檀君也.《帝王年代歷》 崔致遠 編著

(주 필자,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검인 제47세 고열가 단군이)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으로 화하여 하늘로 올라갔다.(주 필자, 우

화등선羽化登仙했다는 말) 이때에 大國이 9, 小國이 12이었다. 모두 단군조선에 속한 나라들이다. '태백'과 '평양'은 모두 요양과 만주의 사이에 있다. 阿斯達山은 바로 文化縣의 九月山으로 '白岳'이라고도 한다. (주, 당시의)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다 廟堂을 세워 제사를 지내며 '三聖祠'라고 하였다. 한인 · 한웅 · 한검을 일컬어 '삼신'(주, 삼신의 기원은 마고삼신이다)이라 하였는데, 한검이 곧 단군이다.

위 〈帝王年代歷〉은 김부식이 〈三國史記〉를 지을 때 인용하고 참고했음을 밝힌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다. 신라 말의 사람 최치원 선생이 지었다. 최치원 선생은 위 기록에서 구월산에 삼성사를 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이 말은 최치원 선생 시대에 이미 삼성사가 구월산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사를 지은 분이 고열가 단군이었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해진다.

고열가 단군은 구월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신 분인데, 〈단군세기〉에 따르면, 그가 신선이 되고자 입산한 때가 계해 58년(BC 238년-단군조선이 멸망한 해는 BC 213년)이다. 〈단군세기〉는 고열가 단군이 “입산수도하여 신선이 되셨다 (入山修道 登仙)” 고 하였다.

8 한국 · 배달나라 · 단군조선 3국의 仙脈

조여적이 쓴 〈청학집靑鶴集〉에서는 조선의 신선의 선맥仙脈을 광성자廣成子-명유明由-한인-한웅-단군으로 밝히고 있다.

광성자는 광廣자에 황黃자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황궁黃穹(〈부도지〉에 기록된 삼신의 한 분인 궁희의 아들)을 왜곡하기 위하여 변조한 것으로 보이고,

명유明由는 음이 유라는 점으로 모아서 유인有因(〈부도지〉에 기록된 한인의 아버지)을 왜곡하기 위하여 변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檀君朝鮮의 仙脈을 다시 쓰면 황궁-유인-한인-한웅-단군왕검이 된다. 이분 들 중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운 분은 한인 · 한웅 · 단군 세분이었다. 한인은 한국을, 한웅은 배달나라를, 단군은 조선을 세웠던 것이다.

선맥에서는 이 분들을 삼성三聖으로 호칭한다. 고열가 단군이 구월산에 은거하면서 전각을 지어 삼성을 모시며 제사지내고 그 안에서 수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추론이 가능함으로 삼성사를 지은 분이 고열가 단군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註5 : 고은선생은 〈나랑비서문〉에서 유교 · 불교 · 도교가 모두 선교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國有玄妙之道曰風流 設教之源備詳神史 實內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註6 : 격암선생은 <남사고비결>에서 유 · 불 · 도 3교가 선교로 통합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末復三合一人定 三家三道末運一 仙之造化蓮花世 自古由來預言中 (<隱秘歌>)

儒佛仙運 三合一 (<桃符神人>)

9 황해도 무교의 발생

당시에 당주堂主를 일월마지할 때 무무巫舞를 출 수 있는 여무女巫로 하였는데, 당주를 여무로 한 것은 집의 주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무를 당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무가 하는 일은 제사를 차리고, 무무를 추어 신명을 청배하여 대접하고, 함께 놀아드리고, 놀이가 끝난 다음에 보내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인근에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고, 물자를 조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고, 무당들을 교육시키는 무당조직이 되어 있어야 하였다. 삼성당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게 되자 이곳을 문화현이라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註7 : 문화란 말에서, 文은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말한다.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이 한 시대의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 문명에서 무엇인가를 생산해 낸다. 이것이 문화이다. 문화의 化는 인□(사람)에게 칠성님七(비, 하나님)이 간섭하여, 인간의 내면에서 조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칠성님의 신명이 이 일을 한다. 그러므로 칠성님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물의 총체를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상고시대에는 문화생산의 중심에 무당이 있었다. 무당이 주축이 되어 제사를 지내고 굿을 하면서 문화가 생겨났다. 구월산문화는 삼성당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문화이므로, 제사문화 · 굿문화로 볼 수 있다.

10 후조선시대에 무당이 나라에 바친 세금

후조선 世宗 때 戶曹에서 임금에게 올린 <上疏文>에, 구리를 세금으로 바치게 하는데, 정, 종일품은 10근, 8품은 8냥쫘, 국무당國巫堂은 9근, 전의 국무당은 8근, 송악松嶽무당은 8근, 덕적德積무당은 6근, 삼성三聖무당은 6근, 당무녀堂巫女는 2근, 무녀는 1근을 수납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삼성사의 무당이 세금을 구리로 6근을 내었다면, 상당히 높은 액수의 세금을 내었다고 볼 수 있다. 보통 무당이 1근의 구리를 내었으므로, 6배를 냈던 것이다. 당시에 무당이 내는 세금을 업세業稅라고 하였다.

삼성당 무당이 세금을 많이 낸 것을 보면, 평상시에 삼성사를 백성들에게 개방해 놓았던 것으로 보이며, 문중에 속한 아낙들이 이곳에 와서 치성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例 : 국무당은 대궐의 굿과 치성을 담당하는 나라무당, 송악무당은 최영장군을 모신 덕물산신당의 무당, 덕적무당은 덕적도 정상에 있는 천제단을 관리하는 무당이다. 덕적도에는 단군조선의 마지막 단군인 고열가 단군 때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제천단지가 지금도 남아있고, 당집도 많았다고 전해 온다. 삼성무당은 구월산에 있는 삼성사에서 봄과 가을에 행하는 제향을 주관하는 무당이다.

11 문화현의 廢縣

그러나 조선왕조 중기에 평양에 삼성사三聖祠를 짓고 구월산의 삼성당을 폐당廢堂 하면서 문화현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괴질이 돌아 주민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민가가 텅 비게 되었다. (주, <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임신)칠성님이 문화현에서 자신의 권능을 걸어가면서 생긴 현상이었다.

12 祈雨祭

<성종실록>에는 나라에서 삼성제례를 기우제로 지내고 있으며, 제관은 현관縣官이 맞는다고 하였다. 신주는 한인천제신주를 남향으로 모시고, 한웅천왕 신주를 서향으로 모시고, 단군왕검 신주를 동향으로 모신다고 하였다.

한인천제를 남향으로 모시는 것은 천제가 적제赤帝이기 때문에 남향으로 모시는 것이고, 한웅천왕을 서향으로 모시는 것은 천왕이 태백산에 하강했기 때문에 서향으로 모시는 것이고, 단군왕검을 동향으로 모시는 것은 왕검이 황동태일皇東太一이기 때문에 동향으로 모시는 것이다.

13 삼각산 삼성제

구월산 삼성사는 조선왕조를 멸망시킨 일제가 헐어버렸고, 삼성사에서 해 왔던 봄가을의 제사도 중단되었다. 1997년부터 국고의 지원을 받아 이 제사를 삼각산에서 부활하여 요즈음 10월 개천제로 해 오고 있다. 제사의 이름을 삼성제라고 한다. 만약 또 이 삼성제를 중단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아마 그때는 서울에 괴질이 돌고 그 여파로 모두 공가가 될지도 모른다.

결론

역사의 접근 방법은 다양하다. 앞으로의 역사연구는 역사로의 접근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풍성해지리라 본다.

(원본 정리, 원본 마고지나 2006.06.30. blog daum godam7777)

한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

노중평

지구상에는 있는 문자는 표음문자와 표의문자 두 종류의 문자가 있다. 한자는 표의문자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문자이다. 우리의 역사는 대부분 표의문자이자 이미지문자인 한자로 써져 있다. 그래서 숙명적으로 한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역사가 상대방의 역사에서 떨어져나갈 수 없듯이 문자에서도 떨어져나가지 못한다.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눈을 감고 아웅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한자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한자를 한자漢字로만 인식을 해서는 아니 되고, 한자桓字로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桓字와 漢字

한자漢字는 중국인의 문자이다. 그러나 한자桓字는 우리 선조의 문자이다. 역사적으로 한자漢字에 우선하는 문자가 한자桓字이다. 한자桓字가 먼저 생기고, 한자漢字가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자桓字는 사라지고 한자漢字만 살아남아 있다. 한자桓字가 한자漢字에 통합되거나 잠식되어 버린 것이다.

필자는 桓字 잠식의 시작을 단

군조선이 멸망한 진시황 8년을 기점으로 본다. 진시황 8년 이전의 문자를 한자桓字로 보고, 그 이후의 문자를 한자漢字로 보는 것이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漢字를 그들이 쓰지 않는 ‘고어古語’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라진 진秦나라의 문자’라고 말하기도 한다. 고조선이 진시황 8년에 멸망했다는 점에서 이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자전字典에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문자들이 나온다. 하나의 문자에 두 가지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들 문자 중에서, 그 의미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의미로 쓰였다면 한자漢字로 보고, 그 의미가 우리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의미로 쓰였다면 한자桓字로 본다.

지금 우리는 한자漢字를 중국의 문자라고 하여 버리고 쓰지 않는다.

그러나 한자의 역사를 추적해 올라가 보면, 우리의 선조가 중원에 살고 있을 때 쓰던 문자가 그대로 살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해자

한자(漢字)와 漢字(한글)가 등을 돌리고 갈라지게 되는 분기점은 후한시대에 허신(許愼)이 한자 9,358자를 모아 해석한 「설문해자(說文解字)」가 세상에 나왔을 때이다. 그 이상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도저히 중국인의 문자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설문해자」가 후한(後漢, 후한은 전한(前漢) 다음에 있었던 나라이다. 전한은 서기전 202년부터 기원후 220년까지 중국을 지배하던 왕조이다. 고조 유방이 장안(長安)에 도읍을 정하여 세웠는데, 왕망의 찬탈 기간을 계기로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으로 나뉜다. 25년에, 왕망(王莽)에게 빼앗긴 한(漢) 왕조를 유수(劉秀)가 다시 찾아 부흥시켰으나, 220년에 위(魏)나라의 조비에게 멸망하였다. -한컴사전) 때 나온 사전(字典)이므로, 한대(서기전 202-서기 220)를 한자가 중국의 문자로 정착하는 시기로 본다면, 그 이전은 한자가 오늘날의 중국인만의 문자가 아닌 시대이다. 오늘날의 중국인의 조상인 하(夏)족(夏族)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한자가 중국인의 문자가 될 수 없었던 시대인 것이다. 이 시대 이전에 중원을 통일한 진(秦,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 춘추 전국 시대, 지금의 간쑤(甘肅) 지방에서 일어나 서기전 221년 시황제가 주나라 및 육국(六國)을 멸망시키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였는데 기원전 207년 한나라 고조에게 멸망하였다. -한컴사전)나라가 중원을 지배하고 있었고, 고조(高祖)는 진시황 8년(서기전 213년)에 진에게 멸망하였다. 그러므로 한자는 이 시대에 진과 단군조선이 함께 쓰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후한 때 「설문해자」가 나온 것은 후한이 당시에 쓰던 문자에서 단군조선의 잔재를 없애기 위하여 자전을 편찬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구태여 9,353자를 모아서 해석을 시도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설문해자」가 나오기 전의 문자가 하(夏, 우(禹)가 세운 나라. 439년간 존속하다가 걸왕 때 탕왕에게 망하였다, -한컴사전), 은(殷, 서기전 1100년까지 중국 황(黃)허(河) 강 중류 지역을 지배한 고대 왕조. -한컴사전), 주(周, 서기전 1050년에서 기원전 256년까지 중국을 지배하던 왕조.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건국하여, 호경에 도읍을 정하고 봉건 제도를 시행하였다. -한컴사전) 삼국시대에 이들 나라에서 단군조선과 함께 문자를 공유하였다고 본다. 이 시대에 단군조선은 최고 선진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중원에서 유일무이하게 패권을 가진 국가였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문자가 단군조선의 문자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문자의 승계

단군조선은 마고족-구황-풍이-구려-동이로 이어지는 종족명칭변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단군조선시대는 동이의 시대였다. 나라는 마고족의 마고지나, 풍이의 한(漢)제국, 구려의 배달(百濟)나라, 동이의 고(高)조선으로 이어져 왔다. 단군조선이 진에게 멸망함으로써 당시에 공유하던 문자가 모두 진으로 넘어갔고, 진을 멸망시킨 한이 이 문자를 승계하였다.

단군조선이 쓰던 문자를 한(漢)의 문자와 구분하면 한자(韓字)가 된다. 따라서 후한 이전의 문자를 한자(韓字)라고 하고, 후한이후의 문자를 한자(漢字)라고 말할 수 있다. 한자(韓字)는 동이의 문자이고, 漢字는 오늘날 중국인의 조상인 화(華)하(夏)문자(文字)이다.

한자(漢字)에서 사라진 동이의 흔적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사라진 한자(韓字)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자(韓字)로 표현된 말이 한자언어(韓字言語)이고, 이 한자언어를 완성한 종족이 한(漢)제국(韓帝國)을 건설한 풍(風)이다. 풍(風)은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갔다. 이들은 신화학자들이 인공언어라고 말하는 사라진 한자언어를 쓰고 있었다. 그러므로 신화시대 각국의 언어에 그 흔적이 남아 있으리라고 본다.

그들은 골격이 커서 현지인들에게는 거인으로 불리었고, 스스로를 대인大人이나 발인發人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현지인에게서 신으로 대접을 받았다. 제주도에 남아 있는 비바리(처녀)라는 방언은 발인에서 나온 것이다. 비발인非發人, 즉 발인(골격이 큰 남자)이 아니라는 뜻이다.

곰과 뱀을 의미하는 문자들의 탄생

뱀은 표음문자이고, 사르는 표의문자이다. 먼저 뱀이라는 표음문자를 먼저 쓰고, 사라는 표의문자를 나중에 쓰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자를 쓰기 시작한 역사는 대략 1만 년 전으로 볼 수 있다.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하여 암각화에는 문자로 유추가 가능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다.

마고의 후예인 우리의 선조 풍이족이 뱀의 형상으로 사르라는 문자를 만들어 썼는데, 이 사자가 발전하여 자子라는 문자가 되었다. 사는 뱀을 뜻한다. 자는 아이를 뜻한다. 뱀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다.

뱀은 그 형상을 변화시키면서 다양한 의미를 가진 말로 분화하였다. ‘아기를 배다’라는 말의 ‘배다’가 뱀에서 왔고, 내장을 의미하는 뱀이 뱀이라는 문자에서 왔다. 물을 건널 때 타는 배, 사람의 배나 짐승의 배도 모두 뱀이라는 표음문자에서 나왔다고 본다.

또한 뱀을 의미하는 사르라는 문자도 함께 쓰게 되었는데, 사는 풍이족을, 또한 풍이족 조상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조상인 사를 아는 자’가 사람으로 불리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을 조상을 아는 자로 보는 것이다. 삶이란 문자도 조상을 아는 자의 생활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문자로 본다.

풍이족의 임금을 표현할 때, 사르를 파바로 만들어 썼다. 파바라는 문자에서 세월이 가면서 용龍이라는 문자가 나왔다. 파가 변하여 하가 되었다. 하는 한桓이 된다. 한은 할로 발전한다. 이리하여 하나, 할아버지 등의 문자가 나왔다.

따라서 풍이족의 문화는 표음문자 뱀과 표의문자 사의 문화라고 볼 수 있다.

곰의 형상을 의미하는 熊자, 禹자들이 이러한 문자들이다. 뱀을 의미하는 巳자, 巴자, 尸자, 辰자가 그러한 문자들이다. 이들 문자들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문자로 정착하였다.

한웅천왕시대엔 표음문자 곰과 표의문자 웅熊이 함께 쓰였다. 곰은 검은 되고, 검은 신이 되었다. 그 어원은 마고에서 비롯한다. 마고가 곰이 되었던 것이다. 화화족은 곰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못하여 고마固麻로 표현하였다. 고마란 곰이라는 뜻이다.

마고지나<http://blog.daum.net/godam777/10811452> 복사

〈단편소설〉

三 神 山

노중평

1

단군왕검이 옛날에 속말수로 불렸던 발해 현덕부1)를 떠나 방장산2)으로 가기 위하여 현덕부顯德府에 속한 동해빈東海濱으로 떠났다.

배를 타던 날, 동해빈 거수巨帥 소씨가 배를 준비했다. 동해빈의 거수는 3대째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소풍蘇豐의 후손이었다. 그의 증조부 소풍이 당시에 홍제洪帝에게 보여주었던 충성심을 그의 손자의 대에도 그대로 지켜오고 있었다.

그의 집안이 원래 멸망한 풍이족風夷族 출신의 기씨己氏 집안이었으나, 수분히綏芬河로 쳐들어온 제곡고신帝□高辛을 물리친 후로 홍제로부터 소蘇씨를 사성賜姓하여 지금은 소씨로 불리고 있었다.

바닷가에서 신시神市를 열 때, 제사 터인 소도蘇塗를 관리하는 집안이라, 소씨는 수군水軍을 지휘하면서도 나라의 제관 답게 근엄하고 신비스러운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장마가 들어 황하가 범람하면, 황해가 불어나 삼신산이 물에 잠기는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철수를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싶습니다.”

단군왕검이 배에 오르기 전에 소씨가 신중하고도 근심어린 어조로 말했다.

“소거수는 너무 심려하지 마시오. 이미 물이 미치지 못할 곳으로 거처를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여간...”

“뚫을 올려라! 노를 저어라!”

단군왕검이 명을 내리자 각 부서를 담당하는 소장들이 일일이 복창했다.

드디어 뚫이 오르고 노꾼들이 노를 젓기 시작했다. 배가 서서히 물살을 갈랐다. 이른 여름의 훈풍이 뚫을 때리고, 배가 미끄러져 나갔다. 7척의 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왕검의 배를 호위했다.

항해하는 동안 단군왕검은 올배미를 근왕병의 족표로 가지고 있었다. 올배미를 그린 당이 용머리를 새긴 뱃머리에서 펄럭펄럭 춤을 추었다.

반나절이 걸려 배가 방장산 포구에 정박했다. 포구는 신시3)의 근왕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단군왕검은 10년에 한 번 신시를 열었다. 신시를 열 때는 지구의 곳곳에서 각 종족이 파견하는 지체 높은 사신들이 물물교환할 물품들을 가득히 싣고 방장섬을 향하여 다가왔다. 엄청난 수였다.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단군왕검은 이번 장마를 치루고 나면 삼신산의 기능을 일부는 태산으로, 다른 일부는 혈구(강화도)로 분산할 생각이었다. 태산에서는 천제를 지내게 하고, 혈구산에서는 지제를 지내게 하기로 이미 내심 작정했다. 신시는 혈구의 외포에서 열기로 하였다.

신시가 열릴 때, 단군왕검에게 알현을 청한 사신들은 스리스의 우레의 신 우라노스의 자손인 제우스(帝雨師)의 후손을 비롯하여 서역에서 온 위그르족의 사신 등 다양했다. 그들은 자국에서 생산한 특산물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는 물물교환으로 교역을 마치고 돌아갔다. 신시를 폐쇄하면서 방장산은 조용해졌다.

4월 말경부터 단군왕검을 나타내는 올빼미를 그린 당(幢4)이 행궁의 뜰에 세워져 있었다. 유월이 오면 장마가 들고, 장마로 불어난 황하가 넘치면, 따라서 발해의 물도 넘쳤다, 이제부터 단군왕검이 할 일은 장마5)에 봉래와 방장과 영주가 불어난 바닷물에 얼마나 피해를 당하는지 살피보려는 일이었다.

방장산 바닷가에 있는 망루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순6)의 족표7)인 발 두개를 그린 당을 뚫대에 매단 배 한 척이 봉래8)를 출발했다는 것이었다. 방장산 바닷가에서 보니 봉래에서 다가오는 배의 뱃머리에 당이 세워져 있었다. 마침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펄럭이는 당에는 공룡의 발처럼 생긴 발 두 개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다. 순이 쓰는 당보다는 크기가 작은 깃발이었다. 무슨 이유로 순이 사신을 보내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배가 깃발에 닿고 사신이 하선을 하고나서야 그 이유가 밝혀졌다. 장마가 임박해서 순이 단군왕검9)에게 사신을 보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신시의 관문을 지키는 군사가 배를 타고 순이 보낸 사신이 타고 오는 배를 향하여 노를 저어나갔다. 삼신산을 지키는 군대로서, 신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문을 하려는 것이었다. 배안에서는 순이 보낸 사신을 네 명의 관리와 열 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었다.

“어디에서 온 사신입니까?”

이미 발을 그린 깃발에 그가 어디에서 온 사신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신시의 군대는 형식적인 절차로 배에 타고 있는 사신이 순이 보낸 사신인가를 확인하였다. 검문절차였다.

“순임금께서 보낸 사신입니다.”

사신을 수행한 문관이 대답했다.

검문관이 인원수를 헤아려보니 모두 열다섯 명이었다.

“명도전 15개를 내십시오.”

문관이 인원수대로 열다섯 개의 명도전明刀錢을 검문관에게 바쳤다. 명도전을 바친다는 것은 명도전의 수만큼의 무기를 검문관에게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였다. 무장해제를 말하는 것이다. 검문관은 명도전의 수대로 배 안에 있는 열다섯 정의 무기를 수거해 검문관의 배에 실었다.

“통과!”

검문관이 소리쳤다.

이리하여 순이 보낸 사신이 방장에 닿을 수 있었다. 사신을 영접하는 영접관이 검문관이 순이 보낸 사신을 인솔해 오기를 갯벌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밀물 때라 갯벌은 밀려온 바닷물에 잠겨 있었다. 사신의 배는 바닷물을 따라 방장산의 육지에 닿았다.

순이 보낸 사신의 문관이 영접관 앞에 가서 순이 발행한 여행증명을 내보였다. 발도장이 찍힌 청동으로 만든 패였다. 순이 보낸 사신이 틀림이 없었다.

“순임금께서 보낸 사신이요. 6월 장마에 대비하여 왕검께 도움을 요청하러 왔오이다.”

사신이 말했다.

“따라 오시오.”

영접관이 사신 일행을 인솔하였다. 영접관이 사신을 단군왕검 앞으로 데려왔다. 사신은 동이의 예로 단군왕검 앞에서 삼배하는 예를 올렸다.

“저희 왕이 천제 황동태일왕검10)께 서찰을 보내셨습니다.”

사신이 서찰을 바쳤다. 시종이 서찰을 받아 단군왕검에게 드렸다. 대나무를 깎아 만든 죽간에 금문11)으로 쓴 공문이었다. 공문의 내용인즉, 홍수를 물리칠 수 있게 태자 부루를 우12)사공이 있는 도산塗山으로 보내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

앞으로 장마가 들면, 폭우가 쏟아져 황하상류가 범람할 것이고, 황하가 범람하면, 발해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발해의 수위가 높아지면, 발해 가운데 있는 삼신산13)의 얕은 곳이 물에 잠겨 개펄에서 조개를 잡지 못하게 된다.

순에게 황하유역의 홍수가 문제이듯이 방장과 영주와 봉래가 당하는 홍수도 문제였다. 홍수는 현덕부에 국도를 두고 있는 단군왕검에게나, 곡부에 왕도를 두고 있는 순에게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골칫거리였다.

“사신은 바닷길을 오느라고 수고 하였네. 오늘 화백회의를 열어 결과를 알려줄 테니 접빈관에 가서 쉬도록 하게.”

단군왕검은 사자를 접빈관에 쉬게 하고, 나라의 원로인 우가 마가 양가 구가 저가 등 오가(14)의 우두머리들을 방장산 밑에 모이도록 통보하였다. 삼신에게 제사지내어 이를 고하고, 이어서 화백회의(15)를 열자는 것이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 자리에는 태자 부루도 참석하게 할 생각이었다.

단군왕검은 의복을 정제하였다. 바지와 저고리를 입은 후에, 허리에는 천년 묵은 쑥인 구설초(16)를 두르고, 어깨에는 지난번에 천제 지낼 때 잡은 모우의 털(17)을 둘렀다. 의관을 정제하는 일을 그의 두 번째 부인인 하백녀가 도와주었다.

오가의 우두머리들은 유망시대에 유망의 따님인 누조가 짜기 시작하여 입게 된 비단 옷으로 정장을 하고, 비단으로 만든 삼각산 형상의 흰색의 고깔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들이 고깔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은 삼신에게 제사지내는 마고의 후손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북두칠성이 방장산 봉우리 위로 떠오르는 시각에, 오가의 우두머리들이 당을 든 기수를 앞세워 방장 앞에 모여들었다. 우가의 우두머리는 소를 그린 소당을 방장 의 왼쪽에 꽃았고, 마가의 우두머리는 말을 그린 말당을 소당 옆 왼쪽에 꽃았고, 양가의 우두머리는 양을 그린 양당을 소당의 왼쪽에 꽃았고, 구가의 우두머리는 개를 그린 개당을 양당의 왼쪽에 꽃았고, 마지막으로 저가의 우두머리가 돼지를 그린 돼지당을 양당의 왼쪽에 꽃았다. 마지막으로 올빼미를 그린 단군왕검의 당을 단군왕검의 뒤 자리에 꽃았다. 황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에 오가를 나타내는 당들이 모두 일제히 위엄 있게 펄럭거렸다.

드디어 해가 지고, 하늘에 북두칠성이 떠올라, 거대한 국자 가 하늘에 걸린 듯 하였다. 자루별의 끝별인 요광성이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화백회의를 시작하는 시간이 온 것이다.

오가의 우두머리들은 화백회의를 열기 전에, 삼신(18)에게 고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관례였다. 배달나라를 세운 한웅천왕 때부터 전해오는 고래의 유습이었다. 화백회의의 정수리인 단군왕검이 제사를 주관하였다.

삼신의 신체는 방장(19)에 모시어져 있었다. 방장은 사방 3장丈 규모의 작은 당집이었다. 집사가 방장의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천부삼인을 새긴 동근 칠보옥이 은은하게 빛났다. 단군왕검은 천부삼인을 향하여 향나무를 태우고, 이어서 흙을 빚어 말린 토기 잔에 현주玄酒(제사에 쓰는 깨끗한 물)를 부어 천부삼인 앞에 올렸다. 그가 세 번 절을 하고 물러나니, 다음에 오가의 우두머리들이 당을 꽃은 순서대로 잔을 올리고, 각각 세 번씩 절을 올렸다. 다음엔 단군왕검이 두 번째 잔을 올리고 나서, 여섯 번 절했다. 이어서 오가의 우두머리들이 단군왕검이 한 그대로 따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단군왕검이 세 번째 잔을 올리고 나서, 아홉 번 절을 올렸다. 이어서 오가의 우두머리들이 단군왕검이 하는 대로 따라하였다. 후세에 이들이 올린 절을 단군왕검 때 부터 시행한 삼육구배三六九拜라고 하였다.

“칠성님과 해님과 달님이신 천부삼인에게 제사 올립니다. 순이 도산에 부루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왔으므로 천부天符의 도움을 청합니다. 화백회의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군왕검이 삼신에게 고했다.

제사를 마치고 방장의 문을 닫은 다음에, 그들은 방장 앞에 빙 둘러 앉았다. 그들이 앉은 위치가 방장산 밑이었고, 물가였다. 물에는 북두칠성이 비추었다. 가급적이면, 북두칠성이 물에 비칠 동안에 회의를 마쳐야 하였다.

“오가가 모두 모였으니, 이제부터 화백회의를 시작합니다.”

단군왕검이 개회를 선포하였다.

단군왕검은 순이 보낸 죽간을 돌려 오가의 우두머리들이 읽게 하였다. 죽간을 읽은 오가 우두머리들의 얼굴빛이 심각해졌다. 순이 풀기 힘든 숙제를 던져온 것 같았다.

“순으로부터 부루를 보내어 우를 구원해 달라는 요청이 왔오. 좋은 의견을 말해 보시오.”

단군왕검이 오가의 우두머리들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제곡고신과 지가 반란을 일으켜 곤(20)의 제위를 찬탈한 이래로, 하늘이 매년 이들의 패악 무도함을 징벌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이 하는 일에 관여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하를 관장하는 수신 공공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가의 수장격인 우가의 우두머리가 말했다.

유망(단군왕검의 3대조)과 황제(순의 조상)는 소전少典이라는 분의 배다른 아들로, 겹사돈관계를 맺고 제위를 번가라가며 세습하고 있었다. 곤은 유망의 증손자였다. 그는 전욱고양의 조카로서 양자로 들어가 황제의 손자인 제곡고신으로부터 제위를 물려받아야 할 지위에 있었으나, 제곡고신이 제위를 곤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의 아들 지에게 물려주는 바람에 제위를 잃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유망의 후손과 황제의 후손은 겹사돈관계인 푸나루아를 파기하고 갈라서게 되었다. 패악 무도함이란 이를 말했다.

악순환이 계속되어, 요가 쿠데타를 일으켜 지의 제위를 찬탈하고, 신미 원년(BC 2320)에, 순이 쿠데타를 일으켜 요를 죽이고 제위를 차지하면서, 요가 곤을 도산에 유폐시킨 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요가 그랬던 것처럼 순에게도 곤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유망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곤이 살아있는 한, 곤으로부터 제위를 찬탈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곤을 지방임금으로 임명하여 도산으로 쫓아 보냈다. 도산은 매년 홍수에 시달리는 곳이므로,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곤이 아무리 치수에 힘써도 홍수는 매년 곤의 노력을 헛되게 하였다.

장마가 들어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오면, 황하가 넘쳐 단허도 물에 잠겼다. 그때마다 당하는 피해가 컸다.

“황하가 범람하여 우리도 7년 동안이나 홍수에 시달렸습니다. 이번 우기에도 홍수는 어김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을 도울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의 우두머리가 우가의 우두머리가 하는 말에 동조하였다.

“조선에 금간옥첩金簡玉牒과 신침神針과 황거종皇鉅倥이 있다는 것을 순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검의 제후이므로 왕검으로서 제후를 돕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가의 우두머리가 말했다.

금간옥첩은 오행치수五行治水의 비법을 간략하게 기록한 옥첩이요, 신침은 땅에 박아 물의 진동을 알아보는 침이요, 황거종은 수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진 신이한 장치였다. 조선에서는 이들 세 가지를 조선의 삼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삼보를 쓸 줄 아는 사람은 부루 한 사람 뿐이었다. 부루는 용의 기운을 타고나서 그런지 이들 삼종신기를 가지고 물을 잘 다스렸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를 용왕이라고 하였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곤입니다. 곤에게 변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기는 순이 우에게 명하여, 우가 곤을 우산羽山에서 처형했다고 알려졌지만, 제가 은밀히 알아본 바로는, 우가 곤을 빼돌려 어디엔가 숨겼다고 합니다. 우가 곤을 숨긴 데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한 후엔, 언제까지나 보호하지 않으려 들 것이므로, 왕검의 나라인 우리가 나서서 이 문제에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와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순을 돕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가의 우두머리가 말했다.

양가의 우두머리는 조선이 순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야기하게 될 단군왕검과 순의 마찰을 우려하였다.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배달나라의 뒤를 이어 천왕의 임무를 수행해 온 왕검의 권위에 흠집을 내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왕검이 순과 등을 돌려야 한다면 순이 요를 죽였다는 패역함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정통성을 갖추지 못한 지의 제위를 찬탈한 요의 제위를 또한 찬탈했다는 데에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왕검은 공식적으로 순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왕검과 순이 조상이 같다는 것이고, 조상 유망의 사당이 순이 관할하는 여산에 있어서 순과 등을 돌리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단군왕검으로서는 순을 징벌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만약 군대를 출동한다면, 순이 이를 빌미로 제후의 관계를 끊고 독립하려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치우천왕시대에 반란을 일으킨 황제를 징벌하겠다고 나섰던 치우천왕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시급한 문제는 곤입니다. 순이 곤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두 번 죽이기 전에 우리가 손을 서서 살려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취약한 정통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곤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수해야 합니다.”

구가의 우두머리가 양가의 우두머리의 말에 찬성하였다.

순을 징벌하겠다고 전쟁을 하던, 순을 용납하겠다고 전쟁을 하지 않던, 조선에게 곤은 없어서는 아니 될 인물이었다. 곤의 안위에 문제가 생긴다면, 장손이 아닌 지손으로서 유망의 정통성을 계승해야 하는 단군왕검으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오가가 모여서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곤은 중국의 신화에서 백마로 나오는 분이다. 곤이 백마라는 것은 그가 마가의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산해경〉에서 그의 아버지는 낙명(洛明)이라고 했는데, 생부는 대계(大界)요 의부는 대계의 형님인 전옥고양(琬高陽)이었다. 그러므로 낙명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사람이다. 또한 그를 황제의 손자라고 했는데, 황제의 손자가 아니라 황제에게 죽은 유망의 증손자였다. 황제가 유망을 죽이고 장손인 유망의 가계를 가로챘으므로, 황제의 손자라고 하였다. 곤을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황제 쪽 사람들이 붓장난을 한 것이다.

“부루의 생각은 어떠하냐? 순을 도와야 하겠느냐?”

단군왕검이 태자 부루에게 물었다.

“순을 돕는 것이 좋겠습니다. 곤의 행방을 살필 겸해서 소자가 가겠습니다.”

부루는 덕망과 신통력을 겸비한 데다 외교적인 수완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백성들은 그가 산에 들어가면 범이 되고 바다에 나가면 용이 된다고 믿었다. 부루가 신이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소문은 도산에 있는 우에게, 또 곡부에 있는 순에게도 알려졌다. 그러나 그가 범이 되거나 용이 되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의 생각도 부루의 생각과 같소.”

단군왕검이 말하였다.

“부루가 도산에 가면 할 일이 있다. 곤이 있는 곳을 알아내야 할 것이다. 그를 찾아내면 속말수로 보내어 그가 학가와 노가와 응가(21)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가와 노가와 응가에서 곤을 요구하고 있다. 곤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장자로서 제관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므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단군왕검은 유망이 전해 준 장자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곤을 필요로 하였다. 그에게 시급한 것은 그 점이었다. 순이 서찰을 보내어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 그에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 것과 다름이 없었다.

오가의 우두머리들은 의사표시에 들어갔다. 홀을 들어 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과는 화백회의답게 전원일치의 찬성이었다. 다음 날 단군왕검은 화백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죽간에 쓰도록 하여 순에게서 온 사신에게 주었다. 사신은 배를 타고 봉래로 돌아갔다. 봉래에서는 순이 있는 곡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2

순이 단군왕검에게 보낸 사신이 돌아간 그날 밤에, 단군왕검이 계신 유궁(柳宮)으로 부루가 찾아왔다. 하늘에 별은 총총한데 어디에서 비를 맞았는지 비에 젖어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용으로 화신하여 어디인가를 다녀온 듯싶었다. 그는 오가에 편입되지 않은 호가(虎加)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홀로 비에 젖어 나타나곤 하므로 단군왕검은 그가 거느리는 호가를 용가(龍加)로 바꾸어 부르도록 해 주었다. 그 후로도 그는 자주 비에 젖어 있었다.

“아무래도 삼신산을 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루가 말했다.

“우리가 마고 이래로 삼신산을 지켜 온 역사가 1만년이나 된다. 그러므로 삼신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군왕검이 말했다.

마고에서 단군왕검 대에 이르기까지 황궁이 지키다가 이 곳 삼신산을 떠났고, 한인이 나타나서 한국(桓國)을 세우고 이 곳 삼신산에서 천제가 되어 떠났다. 그 후엔 한웅이 나타나서 배달나라를 세우고 이곳 삼신산에서 천왕이 되어 떠났다. 마지막으로 웅심국과 배달나라를 인수한 단군왕검이 이 곳 삼신산에 나타나 왕검이 되니, 이곳을 단허(檀墟)라고 하였다. 단군왕검이 삼신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조상의 고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므로 단군왕검의 입장에서 이 곳을 포기한다는 것은 선뜻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아마 한인천제나 한웅천왕이 단군왕검의 처지라면 그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곳이 천부삼인을 모시기엔 지력이 다했다는 것을 아버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가의 우두머리들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소자는 아버님의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망의 후예는 황제에게 멸망하여 뿔뿔이 흩어진 후로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러나 삼신산이 이들에게 있어서 조상 대대로 마음의 고향이었으므로, 마음의 고향을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부루는 자기가 다음 왕검으로 등극한 후에, 나라의 상징인 삼신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보다, 나라를 연 아버지가 손수 미리 옮기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곳을 버려야 한다면 우리가 새로이 삼신산으로 섬겨야 할 마땅한 곳이 있느냐?”

“갑비고차(갑곶, 현재의 강화)가 있습니다. 그곳은 원래 지제를 지내기에 합당한 곳이나, 앞으로 삼신산의 기능을 그곳으로 옮긴다면, 천제를 지내는 데에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루는 이미 갑비고차에 다녀왔음을 내비쳤다.

“갑비고차에 다녀왔느냐?”

“예, 다녀왔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만나보았느냐?”

“만나보았습니다.”

갑비고차에는 태산에서 유백국이 황제에게 멸망할 때, 그곳을 떠난 유망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사는데, 그곳을 그들이 떠난 고향 이름을 따서 고부古阜라고 하였고, 고부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됨으로 둘로 나누어, 하나는 상고부, 다른 하나는 하고부라고 하였다. 또 중시조 유망楡岡의 사당도 지어 제사를 모시는데, 제사 모시는 그 곳을 중시조의 고향이자 중시조묘를 모신 여산厲山の 이름을 따서 여제단厲祭壇이라고 하였다. 이 곳이 지금 강화의 중심인 교동면에 속해 있다.

“그래 어떻게 살고 있더냐?”

부루는 그가 본대로 왕검에게 아뢰었다.

부루가 외포에 배를 대던 날, 불 무늬에 둘러싸여 하늘을 나는 용을 그린 불용당을 뱃머리에 내건 부루의 배가 모습을 나타내자, 중시조 유망의 큰 아드님인 대화大和 직稷의 후손들이 마중을 나왔다. 여제단을 직의 장손인 이들이 관리하며 제사를 올리고 있었다. 부루는 이미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교통해 온 터였다.

“고부가 황제에게 멸망한 이래 3

대가 지나갔습니다. 당시에 갑비고차로 피란 간 무리들이 이제 큰 세력이 되어, 갑비고차는 유망 할아버지와 치우 할아버지시대의 위용을 그대로 회복하였습니다.”

"다행이다."

유망 할아버지는 생전에, 시조 신농의 뒤를 이어 물산장려와 학문에 힘쓰던 분이였다. 배달나라의 농사와 학문을 그가 관장하고 있었다. 치우천왕은 무수히 많은 종족 사이에 일어나기 쉬운 분쟁을 조정하거나 진압해 주고, 신시를 열고,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분이였다. 그가 신시를 주관하므로 천왕이라고 하였다. 지금 신시와 화백회의를 여는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단군왕검이였다.

"직할아버지의 후손들이 마을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피로 농사로 지어, 직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직외(진산稷山)라는 곳에 직 할아버지의 신상을 뒀고 살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 고부처럼 직상과 직하 둘로 나누어 살고 있었다. 부루가 먼저 직산에 갔을 때는 직산이 둘로 나뉘지 않았었다. 어디를 가나 인구가 불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했다.

"그들의 여론은 어떠하나?"

"갑비고차를 단국檀國의 제2국도로 지정해 주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단군왕검은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삼신산의 기능을 그쪽으로 옮기는 일을 구체화 하도록 시시켰다.

그날 늦게 부루는 자기의 거처로 돌아갔다.

3

부루는 향관이 제상으로 쓰기 위하여 방장 앞에 있는 너럭바위를 청소하는 동안 방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날이 완전히 저물면서 향관들의 모습이 어둠에 휩싸였다.

그는 거문고22)를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부루는 울관을 불고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머리에 떠올리는 한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이 1만 년 전 동이족의 문명을 연 마고였다. 그가 삼신산을 세웠으므로 삼신산을 폐지하게 된 지금 그 사연을 전해 주고 싶었다. 그래서 마고가 지은 막고야藐姑射라는 곡을 무야無射라는 율을 궁음함흡으로 하여 거문고를 타기 시작하였다. 음은 무겁고 비장하였다.

"마고께서 세상에 오신지 1만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후손은 그대를 뵈고 싶어서 막고야를 타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루가 음률에 목소리를 실어 소원을 아뢰었다.

아무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으나 그는 마고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게 번민하는 마음이 있더니 막고야가 들려오는 구려."

마고가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부루는 그를 환영하기 위하여 마고삼신을 뜻하는 고선姑洗의 율을 궁음으로 잡아 막고야를 다시 타기 시작하였다.

마고가 홀연히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황궁이 천부삼인을 제사지내면 나타났을 때처럼 아직도 나이가 17, 8세로 보였다. 옷은 매미의 날개처럼 투명하고 부드러웠으나 그녀의 나신은 드러나지 않았다.

"막고야산의 지력이 다한 듯싶습니다. 앞으로 이 곳의 얕은 곳이 언제나 물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마고는 머리를 끄덕였다. 부루는 곡조를 바꾸어 홍수의 곡을 타기 시작하였다.

"삼신산을 떠나야하겠습니다."

그는 세 번을 되풀이하여 말했다. 마고는 아름다운 얼굴에 슬픈 미소를 띠고 홍수의 곡속으로 홀연히 사라졌다.

4

단군왕검은 부루를 창수사자蒼水使者에 임명하고 신시황부神市黃部の 중경中經을 주었다. 신시황부는 마고의 후예인 황궁黃宮이 세운 황궁의 나라를 의미하고, 중경은 이 나라에서 황궁이 칠성력七星曆과 치수하는 비법을 기록한 경문이다. 일찍이 발귀리의 후손에 자부선생이 있어서, 해와 달을 측정하여 열두 달을 정하고, 여기에 오행의 수리數理를 따져서 일월화수목록圖로 날짜의 순서를 정하고, 이어서 24절기를 정하니, 비가 오는 때를 알 수 있어서 치수에 활용하였다.

부루는 창수사자로 임명을 받자, 먼저 간자를 도산으로 보냈다. 간자는 우의 백성으로 위장하여 살고 있는 부루의 간자에게 잠입했다. 간자는 순이 우에게 파견한 감시자의 존재를 알아내어 제거해야 하였다. 그는 순의 간자가 누구누구라는 것을 파악하자, 자객들을 잠입시켜 모두 죽여서 땅에 묻어 버렸다.

부루는 그가 지시한 일이 무사하게 끝났다는 보고를 받자, 용가에서 그를 수행할 인원 1백여 명을 차출하여 함께 도산으로 떠났다.

도산은 장강 입구에 있는 회수 동쪽 강가에 있었다. 회수와 거리를 두고 형산荊山을 바라보는 곳이다.

부루는 봉래에 도착하여 먼저 번조선을 다스리는 동평왕 즉 번한을 통하여 우에게 그가 도산에 닿을 것임을 알렸다.

부루의 통보를 받은 우는, 용문산에 굴을 뚫고 있다가, 작업을 멈추고, 부루를 마중 나왔다. 용문산이 여량산呂梁山의 산맥과 이어진 큰 산인데, 황하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여기에 물길을 내기 위하여 굴을 뚫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북극의 수정水精이신 단군왕검의 아들 부루태자입니다. 그대의 왕 순이 나에게 백성을 도와 물과 땅을 다스려 주기를 청하였는데, 삼신상제께서 내가 그대 도와주기를 허락하셨으므로 이렇게 왔습니다.”

부루는 <천자의 땅>이라는 글을 새긴 천부왕인天符王印을 내보였다. 천부왕인은 단군왕검이 발행하여 부루에게 준 임금의 표시였다. 왕인에 복두칠성과 해와 달이 새겨져 있었다. 복두칠성과 해와 달을 천부삼인이라고 하였다.

하늘은 짙게 흐렸고 곧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아 보였다. 아무래도 날씨가 심상치 않았다. 쿠데타의 기운이 아직도 그대로 이 땅에 남아 있었다. 살기였다. 살기는 좀 채로 가시어지지 않았다. 우는 이 기운에 시달리고 있었다. 쿠데타로 점철되기 시작한 이 땅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부루는 홍수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홍수매기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우리 창부 왔다가

삼재를 거두어 갈 적에

정월 드는 홍수는

이월 영등으로 막아내고

이월 드는 홍수는

삼월삼짇로 막아내고

삼월 드는 홍수는

사월사일로 막아내고

사월 드는 홍수는

오월 단오 수리치떡으로 막아내고

오월 드는 홍수는

유월유두 창포물로 막아내고

유월 드는 홍수는

칠월칠석날 견우직녀 오작교로

다리 놀 적에 까막까치가 막아내고

칠월 드는 홍수는

팔월 한가위 송편으로 막아내고

팔월 드는 홍수는

구월 구일 중양절로 막아내고

구월 드는 홍수는

시월상달 천제지내 막아내고

시월 드는 홍수는

동짓달 동짓날에 팔죽으로 막아내고

동짓달 드는 홍수는

섣달 서른 날에 막류회로 막아내고

섣달 드는 홍수는

정월 대호수로 막아내어

일년 삼재 일년 흉악은 제치어라

부루는 홍수매기에 씻겨 도산을 덮고 있는 패악한 악기가 사라지기를 소원하였다. 그는 노래를 잘 하여 후세에 창부(倡夫²³)로 알려졌다.

후에 신화가 하나 생겨났는데, 신화에 따르면, 수신 공공이 황하를 범람시켜 홍수를 일으키므로, 곤의 노력은 언제나 무위로 돌아갈 뿐이었다. 하늘이 내리는 재해를 그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그가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데, 부영이와 거북이가 다가왔다. 부영이(부영이와 올빼미를 갈게 본다. 이들 족표는 단군왕검의 조상인 희씨에서 나온다.)는 단군왕검의 족표이므로 단군왕검의 신하로 볼 수 있고, 거북이는 황하를 지키는 하신(河神) 하백으로 볼 수 있다. 하백의 집은 단군왕검의 처가가 된다. 따라서 부영이는 부루로, 거북이는 부루를 수행해 온 사람으로서, 치수를 관장하던 조선의 관리 즉 치수관으로 볼 수 있다.

부영이 부루와 거북이 치수관은 곤에게 무엇을 근심하느냐고 물었다. 곤은 그가 근심하는 것을 털어놓았다. 부영이 부루와 거북이 치수관은 곤의 고민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하늘에서 식양(息壤)이라는 보물을 갖다가 강가에 놓아두면 그것이 저절로 자라나서 독이 되고 산이 되어 홍수를 막아주지.”

둘이서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식양이란 부루가 우에게 전한 오행치수법을 바꾸어 말한 것이다. 오행치수법의 근간은 독을 쌓거나 물길을 뚫어 홍수를 막는 것인데, 이를 식양이라고 하였다. 오행치수법대로 홍수를 막으려면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한다. 순이 곤을 곤경으로 몰아갈 때, 부루가 치수의 전문가를 대동하고 곤을 돕겠다고 한 것이다.

부루는 주위를 물리치고 우에게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성인은 살아 계시오? 살아 계시다면 어디에 계시오?”

“성인은 살아 계십니다. 아직도 우산에 계십니다.”

우도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다.

“내가 은밀하게 성인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시오. 성인을 만나면, 순임금이 그대에게 가해오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오.”

그날 날이 저물어 우와 부루는 번복을 하고 우산으로 들어갔다. 산속 깊은 곳에 쫓말이 하나 서 있었다. 거기가 곤이 처형당한 자리라는 것이다. 쫓말은 세상을 속이기 위하여 땅에 박은 것이었다. 우는 좀더 산 속 깊이 부루를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에 한 여막(廬幕)이 있고 곤은 거기에 있었다. 그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 백발이 어깨를 덮고 있어서 신선으로 보였다. 부루와 첫 대면이었다.

“단군왕검의 태자 부루라고 하옵니다. 성인을 뵙고자 왔습니다.”

“순의 눈이 곳곳에 박혀 있는데, 그들의 눈을 어떻게 피했는가?”

“제게 복안이 있어서 간자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루는 간자를 색출하여 모두 죽였음을 말했다. 그가 순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한 일이었다.

“성인의 사위인 우사공과 성인을 피신시켜 드리기로 약조를 하였습니다. 이 일로 부루가 왔습니다.”

“나를 피신시킨 후에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

“제위의 정통성을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대의 선친이 이미 제위에 오르지 않으셨는가?”

“국호를 주셔야 합니다.”

“국호를?”

“조선이라는 국호를 주신다면 사해제족이 모두 속복하게 될 것입니다.”

“알았네.”

부루는 왕검시대의 예법인 3배拜의 예를 갖추고 말했다.

“성인께서 속말수로 가지지요. 그곳에 성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말수에는 누가 있는가?”

“새를 족표로 쓰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인이 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가와 응가와 노가들이 그들입니다. 이 곳은 성인께서 계 시기에 환경이 너무 척박합니다.”

“단국의 힘이 날로 커지고 있네.”

“내가 새를 족표로 쓰는 부족에게로 간다면, 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곤이 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문제를 상의 드리려고 합니다. 순이 분명히 도산을 정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전에 우사공께서 미리 손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부루가 말했다.

“우사공이 미리 손을 쓴다니 무슨 말인가?”

“성인이 제곡고신으로부터 승계해야 할 제위를 제곡고신과 지가 모의하여 찬탈하였습니다. 지의 제위는 요가 찬탈하였고, 요의 제위는 순이 찬탈하였습니다. 왕검께서 우사공으로 하여금 이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사공이 또다시 제위를 찬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성인께서 우산에 계시면 이 일을 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인께서 속말수로 떠나시면 우사공이 패역한 순을 도모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속말수로 떠나면, 곧 순을 도모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사공의 생각은 어떠한가?”

“저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를 의심하고 있는 순이 언젠가 제 목에 칼을 들이대려고 할 것입니다. 저로서 순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사공이 순을 죽이고, 제위를 승계하겠다. ... 우사공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곤이 걱정했다.

“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사공을 도울 것입니다.”

“머지않아 태산은 우사공의 땅이 되겠군.”

곤이 말했다.

“성인의 함자 중여衆餘를 본 따서 저의 이름을 중화重華라고 하겠습니다.”

우가 말했다.

“그렇게 하게. 나는 속말수로 가겠네.”

곤이 승낙하였다.

곤은 일단의 사람들에게 힘써여 곧 우산을 떠났다. 그들의 동작은 바람처럼 재빨랐다. 그들은 봉래에서 배를 탔고, 동해빈에 가서 내렸다. 동해빈의 거수가 곤을 맞아들였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부루는 회계산에서 도산회의를 소집하였다. 이해가 갑술 67년(BC 2267)이었다. 그는 아홉 제후와 만나서 유주幽州와 영주營州 두 곳을 조선의 땅으로 확정하였다.

부루는 곤을 모시고 단군왕검이 기다리고 있는 방장산으로 돌아갔다. 부루가 돌아가는 배에는 불용당 이외에, 곤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그린 물고기당과 봉을 그린 봉당이 함께 걸렸다. 뱃길은 하루의 거리가 되지 않았다. 단군왕검은 갯가에 나와 곤을 맞이하였다. 단군왕검은 곤이 돌아왔으므로, 그를 제관으로 모시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다.

“성인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여衆餘라는 문자를 넣어 제사에 쓸 술두루미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성인께 제관이 되실 것을 주청 드립니다.”

곤은 제곡고신에게 제관의 자리를 빼앗긴 후에 한 번도 제사를 지내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승낙하면, 나라 제관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좋습니다. 승낙합니다.”

“감사합니다.”

단군왕검은 곤을 행궁으로 모셨다.

곧 술두루미 주조에 들어갔다. 코뿔소 모양의 술통을 청동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술통 안에 명문을 새겨 넣었다. 이 해가 단군왕검이 왕검이 된지 10년이 되는 해인 경자 33년이였다. 제사지내는 날은 오가와 오사를 의미하는 5월 5일 단오 날로 하였다. 술두루미에 새긴 명문은 다음과 같다.

해 나라의 사위 왕검은 종묘에 제사지냈다. 왕검은 중여곤衆餘鯀을 종묘에 모시도록 비용을 하사했다. 새 왕검이 되어 왕검이 있는 곳에서, 구가狗加 응가鷹加가 해맞이를 하였다. 새 왕검 10년 5월 5일에 제사지냄.

때는 5월이므로 장마가 지기까지는 아직 한 달의 기간이 있었다. 단군왕검은 장마가 지기 전에 그가 추진하는 일을 마무리하여야 하였다.

드디어 풍백으로부터 술두루미가 완성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단군왕검은 술두루미를 살펴보고 곤에게 넘겨주었다. 곤은 만족해 하였다.

5월 5일, 단군왕검은 방장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 자리엔 팔가가 모두 참석하였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중여라는 문자가 곤에게서 단군왕검에게 넘어갔다.

우는 드디어 순을 공격했다. 순은 그의 사촌 형 오희와 함께 요의 딸인 아향과 여형 자매를 공동부인으로 맞아들여 살고 있었다. 순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동정호로 피신하였다. 아향과 여형은 난을 피하지 못하고 동정호에 몸을 던져 죽었다. 순 또한 죽어서 우가 창오蒼梧에 장사지냈다고 전한다. 우는 오희의 집안의 봉 족표와 봉 족표를 기러기雁 족표로 격하시켰다.

세상 사람들은 부루와 우가 밀약을 맺어 우가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 곤을 살려내기 위하여 두 사람이 밀약을 맺은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순이 죽었다는 보고가 단군왕검에게 들어왔다. 단군왕검은 부루의 동생 부여를 단장으로 하여 일단의 사람들을 갑비고차로 보내기로 하였다.

그곳에 삼신산을 확정하기 위해서였다. 선발대가 이미 여러 차례 현지를 답사하여 그곳에 희씨의 후예와 전옥고양의 후예가 정착하여 살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었다.

나라에서는 30여 척의 대형 선단을 준비하였고, 이 배에 탈 사람들은 자기의 족표를 그린 당을 돛대에 매달았다. 희씨 후예는 올빼미 족표와 물고기 족표를 그린 물고기당을 내걸고, 전옥고양의 후예는 양 족표를 그린 양당을 내걸었다.

갑비고차에는 이들보다 먼저 온 집단이 있었다. 봉鳳과 봉鵬 족표를 가지고 있는 오회廻回 집단사람들이었다.

우와 동맹을 맺은 단군왕검이 세 아들을 갑비고차에 보낸다는 소문이 오회에게 전해졌다. 만약 우가 오회를 잡아 압송하라고 조선에 요청한다면 그를 잡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겁을 집어먹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오회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부루의 형제들은 아무도 오회를 잡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저 기운차게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갈 뿐이었다. 그들의 희망을 반영하듯 돛대에 매단 올빼미당과 물고기당과 양당이 바닷바람에 펄럭거렸고, 그들을 매년 괴롭혀 온 지긋지긋한 홍수에서 벗어났음을 실감하며 흥분에 들떠 있었다.

“거무나 땅에 희나백성”

“거무나 땅에 희나백성”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거무나 땅〉은 단군왕검의 나라라는 뜻이고, 〈희나백성〉은 희씨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다. 희씨 나라의 백성들이 단군왕검의 나라를 넓히기 위하여 갑비고차로 가고 있다는 노래였다. 그들은 갑비고차로 단군왕검의 나라를 넓히려 가는 희씨의 후손이었다. 이들이 부른 노래는 먼 훗날 삼신산과 마리산이 바라보이는 가까운 곳 황해도 지방에서 발생한 무가에 반영이 되어 그대로 불려졌다.

그들이 배를 댄 곳이 외포리라는 곳이다.

갑비고차에는 단군왕검이 관장하는 신시의 군대가 외포에서 마리산으로 가는 길목에 주둔하고 있었다. 군대의 이름이 도깨비부대였다. 부대원들이 도깨비 탈을 쓰고 도깨비춤을 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사람이 흥분하면 경정경정 뛰게 되는데, 이런 도무跳舞를 도깨비춤이라고 하였다. 신시의 도깨비부대가 전승 춤을 추어, 부여가 인솔하는 조선 사람들을 환영하였다.

부여는 노고산에 올라 그들의 최고 조상인 마고에게 제사부터 지냈다. 단군왕검이 아들 3형제를 이곳에 보내어 마고에게 제사지내게 한 것은 한인천제 때부터 내려오는 고래의 유습에 따른 것이었다. 〈천부경〉에서 가르치는 우주의 이치 일석삼극一析三極이 반영된 것이다.

제사를 차리되, 간방良方을 향하여, 물 석 잔을 올려 삼신을 표시하고, 물 일곱 잔을 올려 칠성을 표시 하고, 단군왕검의 악기인 검은고를 올려 단군왕검을 표시하고, 단군왕검의 덕을 기리는 흰떡을 찌서 시루 째 올려 제사지낼 준비를 마쳤다.

먼저 도깨비부대가 나희儼戲패가 되어, 노고산에 미리 대기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 악귀를 쫓았다. 나희패들은 한국을 세운 한인천제 때부터 내려오는 풍물패가 해오던 길곳을 하였다. 풍물이란 한인천제가 이끌어 오던 풍이족의 문물이라는 뜻이다.

드디어 자시에 북두칠성이 머리 위에 오르니, 3형제가 초헌 아헌 종헌을 맡아 3배의 예로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마치고, 제사에 올렸던 물을 마셔 음복하였다. 이어서 도깨비춤을 추어 뒤풀이를 하고 제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렇다고 제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아직도 지내야 할 제사가 더 남아 있었다.

어느덧 동쪽 하늘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아침의 바람은 상쾌하였다.

부여는 두 아우와 데리고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정족산鼎足山으로 올라가 평평한 곳에 터를 잡고 세발술三足鼎을 걸었다. 이번에는 미리 와서 정착한 직씨, 희씨, 금정씨의 후예들이 제물을 바쳤다. 이 곳에서 잡은 짐승과 물고기였다. 부여는 세발술에 제물을 넣고 불을 피워 삶았다. 연기와 냄새와 김이 하늘을 향하여 오르고 땅을 향하여 낮게 찾아들었다. 부여는 이 곳의 하늘과 땅에게 곧 삼신산의 기능을 마리산 摩利山(24)에서 수행하도록 할 것임을 제물을 바치며 알렸다.

그들은 고기를 찢어 씹고 국물을 마시며 음복하였다. 그리고 이 곳에 성을 쌓게 하였다. 이리하여 이 곳에 정족산성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다음에 그들은 마리산을 향하여 떠났다. 그들은 여기를 땅의 중심으로 보았다. 일본신화에서 상세국常世國으로 불리는 갑비고차, 이 곳은 지구의 소도蘇塗(제사 터)가 있는 곳이다. 주변을 강과 바다가 둘러싸고 있어서 소도로서는 최고의 적지였다. 동북쪽 하늘을 관통하는 북두칠성을 향하여 제사지낸다. 그러므로 이 곳은 서남쪽이 된다.

제사를 지내려면 그 곳에 모를 꽃아야 한다. 부여는 모旄(쇠꼬리로 만든 깃발)를 꽃을 산을 정했다. 모를 꽃는 구멍을 혈구穴口라고 하였다. 또 모를 얻기 위하여 모우旄牛(천제 때 제물로 바치는 털이 긴 흰 소)를 잡을 장소를 정해야 하였다. 모우 잡을 장소를 정하니 이 곳을 석모席旄라고 하였다. 석모에서 모우를 잡아 그 꼬리는 혈구산으로 보냈고, 그 머리는 마리산으로 보냈다. 또한 단군왕검의 덕인 검덕儉德을 알려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선 시루에 떡을 찌야 하였다. 떡을 찌서 제사에 올린 곳이 덕정德政이라는 지명으로 남았다.

부여는 죽간에 한웅천왕 때부터 써오던 낭하리 문자로 이 곳이 제사지내기에 합당하며 천제를 지내든 지제를 지내든 관촬을 것이라고 적어 아버지 단군왕검에게 보냈다.

“이 곳은 나라의 제사 터로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사는 음력으로 시월 초사흘 날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날이 단군왕검이 지일홍제地一洪帝로부터 배달나라를 인수한 날이다. 시월은 시월亥月이므로 저가에서 검정돼지를 제물로 바친다. 이 날 곤을 모셔다가 제사를 지낸다면 그가 조선의 제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리라. 이리하여 마리산은 삼신산으로서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먼 훗날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과 쌍계면에는 오회와 관련이 되는 지명이 나타났다. 하동에서 구례로 가는 국도 변에 악양嶽陽과 동정호洞庭湖와 군산君山이라는 지명이 생긴 것이다. 군산은 동정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섬의 이름이다. 순임금의 정비인 아황과 차비인 여영이 묻힌 곳이다. 아황과 여영은 동정호로 들어가는 두 물줄기인 완상浣湘에 빠져 죽었다. 군산이 마주 바라보이는 곳에 형제봉이 있다. 이 형제봉이 아황과 여영의 공동 남편인 순과 오회를 기억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인지도 모른다. 이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백무동이 있는데, 무당들의 집단거주지를 의미하는 마을 이름이다. 무당들이 굿을 할 때 ‘아황 만세’를 외치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가 아황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무당들이 ‘아황만세’를 외치기 시작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 속말수粟末水는 불함산을 근거지로 한 조선의 땅이다. 발해로 흘러드는 강의 이름이거나, 발해의 어느 해변 가를 지칭하는 말로 생각된다. 속말수가 가지고 있는 한자의 의미를 무시하고 말末을 말馬로 본다면, 이는 곧 오가五加之 일원인 마가馬加로 해석이 가능하다. 현덕 부顯德府는 청나라 때 지명으로, 덕을 나타내는 정부가 있는 곳이니, 덕을 나타내는 정부가 있던 곳이라면, 곧 단군왕검의 국가 시책인 덕정德政을 나타내는 곳이다.

2) 방장산方丈山은 봉래蓬萊 영주瀛洲와 함께 삼신산三神山을 구성한다. 신시神市 연구가인 장동균씨는 삼신산이 있던 곳을 발해만에 있는 묘도군도廟島群島로 비정하였다.

3) 신시神市는 상고시대의 시장. 각 종족이 교환할 물건을 가지고 와서 교환하는 호혜시장互惠市場이다. 교환해야 할 물건을 계를 모아 수 집한다. 계군의 우두머리가 왕검이다. 계는 10명이 한 단위이므로, 사실상 호혜시장에 모이는 사람은 거래의 당사자인 무수한 왕검들이다. 이때의 왕검은 제사장이나 무당으로서의 왕검이 아니라, 계주로서의 왕검이다. 왕검의 최고 우두머리가 단군왕검이었다. 단군왕검이 선출되면서 다른 왕검들은 거수가 되었다. 호혜시장은 오늘 날의 시장이 생겨나기 이전, 즉 신정시대의 시장이다.

4) 장대에 매단 당幑은 길게 늘인 깃발이다. 여기에 부족의 족표族表를 그리거나, 그 집안 아들들의 서열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린다. 가축이나 새를 그려 족표로 삼거나, 인체의 특정한 부위, 즉 발을 그려 족표로 삼았다. 체제아이콘을 나타내는 것이다.

5) 6월장마. 6월장마가 지면, 황하가 넘쳐 발해만의 물이 불어났다.

6) 재위 BC2320~BC2312 유백榆伯나라의 마지막 왕. 요를 죽이고 제위를 찬탈하였다. 하화족의 사가들이 요순堯舜의 시대를 인류 최고의 태평성대太平聖代라고 하였으나 천만의 말씀이다. 이 시대에 인류역사에서 처음으로 쿠데타가 시작되었다. 지棼 요堯 순舜 우禹의 4대가 모두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시대였다.

7)족표는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종족의 표시이다. 짐승이나 새를 족표로 쓴다.

8) 봉래는 산동반도의 끝 쪽 가까이에 발해만을 바라보고 있다. 발해만 쪽에는 방장 영주의 두 산이 있다.

9) 재위 BC2333~BC2240 조선의 시조. 14세 때 웅심국왕熊心國王의 딸 웅녀熊女에게 장가들어, 아들 부루 부여 부소 부우 4형제를 두었다. 이어서 단국檀國을 인수하고, 웅심국과 단국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였다. 이 나라의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였다. 단군왕검과 순는 원래 조상이 같았다. 모두 한웅천왕 때 농관農官을 지낸 고시高矢를 최고조상으로 두고 있었다. 복희의 대와 신농의 대를 거쳐 유망의 대에 와서 사이가 소원해졌다. 단군왕검은 유망의 8대손이었다. 그는 유망의 종손이었다. 그의 선조 유망에게 황제라는 이복동생이 있었다. 유망은 강수姜水에 살았고, 황제는 단군왕검과 순는 원래 조상이 같았다. 모두 한웅천왕 때 농관農官을 지낸 고시高矢를 최고조상으로 두고 있었다. 복희의 대와 신농의 대를 거쳐 유망의 대에 와서 사이가 소원해졌다. 단군왕검은 유망의 3대손이었다. 그는 유망의 종손이었다. 그의 선조 유망에게 황제라는 이복동생이 있었다. 유망은 강수姜水에 살았고, 황제는 현원軒轅에 살았다. 황제는 그가 적자가 되지 못하여 늘 불만을 품고 있다가 현원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유망은 동생 황제의 적수가 되지 못하여 굴복 당하였다. 탁록□鹿에서 중원의 패자로서 천왕의 자리에 있던 치우천왕이 황제를 응징하기로 하려고 10년을 싸웠으나, 끝에 가서 황제가 이겼다. 이리하여 중원의 패권이 황제에게 돌아갔다. 유망이 황제에게 멸망하면서, 유망의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단허檀墟라는 곳에 살았다. 단허라는 곳이 발해 한가운데에 있는 삼신산이다.

10) 황후는 황제皇帝, 동東은 동이東夷, 태일太一은 단군왕검의 시호, 단군왕검을 지칭한다.

11) 금문金文은 유망榆罔시대의 문자. 하夏나라 문자인 갑골문자의 시조가 되는 문자이다. 하화족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동이의 문자이

다.

12) 재위 BC2311~BC2304 하夏の 시조. 이때의 종족 이름을 하화족夏華族이라고 한다. 하화족으로 불리기 전에는 화서족華胥族으로 불리었다. 하화족은 하나라를 구성하는 종족이라는 뜻이고, 화서족은 복희와 화서 사이에서 태어난 종족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중화민족의 시조가 된다. 사공司空은 우가 임금이 되기 전의 벼슬이다.

13) 삼신산은 삼신에게 제사지내는 산이다. 삼각산의 현상이 삼신산의 기본형이다. 마고가 처음 삼신산에서 북두칠성과 해와 달을 삼신으로 정하여 제사지냈는데, 삼각산 형상의 고깔을 쓰고 제사지냈다. 삼신산을 달리 고깔산 또는 고갈산姑鞬山이라고 한다. 무당이 마음에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산이 삼신산이다. 서울의 삼각산, 강화도의 마리산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삼신산 즉 삼각산에서 나라에서 주관하는 제사를 지냈다.

봉래 방장 영주 세 곳을 합하여 삼신산이라고 하는데,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에 발해 가운데에 삼신산이 있다고 하였다. 장자는 그가 쓴 <장자> 소요유편에서 삼신산을 막고야산藐姑射山이라고 하였다. 막고야산의 막고는 마고를 뜻하고, 야는 율려의 11번째의 율인 무야無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막고야산은 마고가 무야를 궁음宮音으로 하여 만든 음악을 연주하는 산이라는 뜻이다.

<산해경> 해내북경海內北經에서는 열고야산列姑射山이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였다. 열고야산은 막고야산 즉 삼신산의 다른 이름이다. 열고야는 마고의 음악인 무야를 여러 사람이 열을 지어 연주한다는 뜻이다. 삼신산에서는 이렇게 악사들이 무야의 음악을 연주하였다.

14) 오가체제五加體制는 한웅천왕 때부터 전승되어 오는배달나라를 구성하던 나라 체제였다. 길들여 쓰기 시작한 가축을 족표로 썼다. 말 족표를 쓰는 부족을 마가馬加, 소 족표를 쓰는 부족을 우가牛加, 개 족표를 쓰는 부족을 구가狗加, 돼지 족표를 쓰는 부족을 저가豬加, 양 족표를 쓰는 부족을 양가羊加라고 하였다. 한웅천왕이 배달나라를 세우기 전에는 한웅천왕이 관장하던 서자부庶子府에 속했다.

15) 화백회의는 마고 이래로 나라의 원로들이 열어오던 부족회의였다. 삼각산 밑에서, 호수가에 7인의 칠성이 앉아 회의를 하였다. 어느 누구라도 반대가 있으면 안건이 부결되므로, 참석자가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엄격한 회의였다. 다수결 원칙이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아니 되었다.

16) 구설초狗舌草는 오래 묵은 쑥. 단군왕검의 허리에 두른 것이 구설초이다.

17) 모우旄牛의 털은 천제지낼 때 잡는 털이 긴 하얀 소의 털.

18) 삼신은 하늘에서는 북두칠성과 해와 달의 세 신명을 의미하고, 땅에서는 마고와 궁희와 소희 세 분의 조상을 의미하였다. 단군왕검시대에 하늘의 신명과 땅의 신명이 하나가 되어 삼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들 신명의 형상을 방장산方丈山에 있는 방호굴에서 캐 낸 칠보옥에 별의 모양으로 새기어, 방장 안에 신체로 모시고, 천부삼인天符三印이라고 하였다.

19) 방장은 땅에 고정하여 짓기도 하지만, 가마처럼 만들어 들고 다니기도 하고, 배에 싣고 다니기도 하였다. 종족이 가까운 거리로 갈 때는 가마처럼 들고 갔고, 먼 거리를 갈 때는 수레에 싣고 갔고, 물을 건너갈 때는 배에 싣고 갔다. 신여神輿는 이를 말한다.

20) 제곡고신의 제위는 당연히 전옥고양의 장자를 계승한 곤鯀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다. 유망 집안에서 제위를 계승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황제집안에서 이를 가로채어, 제곡고신의 후광을 업고 제위에 오른 지를 요가 반역하고, 순이 요를 반역하여 제위를 빼앗았다.

21) 학가鶴加 노가鷲加 응가鷹加는 단군왕검이 집권을 시작하면서 불어날 부족이다. 기존의 오가체제에 이들 삼가가 추가되었다.

22) 거문고란 단군왕검이 만든 고란 뜻이다. 문자로 쓰면 검지고儉之敲가 된다. 단군왕검의 매 즉 단군왕검의 음악이다.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마고시대의 음악을 율려律呂라고 하는데, 후세에 와서 오늘날 중국인의 조상이 되는 하화족이 이 음악에 이름을 붙여 ‘동이의 매’ 라고 하였다. 동이가 제사를 지낼 때, 나무를 두드려서 소리를 낸다고 하여 매라고 한 것이다. 매는 한 박자의 소리를 세 마디로 끊어서 한 마디는 칠성님에게 바치고, 나머지 두 마디는 해님과 달님에게 바쳤다. 이리하여 삼분박의 박자가 나왔다.

23) 창부는 원래 부루가 도산으로 떠날 때의 관직명인 창수사자부루태자蒼水使者夫婁太子의 약자이다. 그러나 창부가 부루의 관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다. 노래 잘하는 사내 창부로 알 뿐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신을 받은 여자 무당들이 그의 신명이 씨여 그가 부른 홍수매기를 불렀다. 그 후로 무당들은 대대로 대를 이어가며 홍수매기를 불러왔다. 지금도 굿당에서 무당이 부르고 있다.

24) 마리산엔 삼신산의 머리가 되는 산, 제사 때 올리는 모우旃牛라는 소의 머리를 바치는 산, 제관인 왕검이 모우의 쇠꼬리를 들고 춤을 추는 산이라는 의미가 있다, 마리산은 가히 하늘과 맞닿아 있는 하늘의 들이라고 할만한 곳이다. 조선의 백성은 누구나 이 곳에 와서 제사에 참여하고 싶어 하였다.

〈무교〉를 탈고하고 나서 출자성에 가다

노중평

만약에 무당들 앞에서 무교를 강의하게 되는 때가 온다면 무엇을 강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해 온지 2년이 넘었다. 이제 그 고민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무당교육용 교재로 〈무당〉을 탈고하였다. 강의를 하게 될지 하지 못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확실한 전망이 서지 않지만 이 희망이 불확실한 일에 3년 가까운 세월을 매달렸다.

부천대학 앞에 있는 복사집으로 복사와 제책을 맡기러 갔다. 원고를 책으로 묶고 2권을 복사하여 이 역시 책으로 매어 달라고 하였다. 이틀 후에 오라고 하여 이틀 후에 가서 3만원을 주고 책 3권을 받았다. 원고를 책으로 묶은 것에는 2천원을 주고, 복사해서 책으로 묶은 것은 권당 1만4천원을 준 것이다. 신간서적보다 복사본이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

한 권은 내게 이런 저런 책을 읽으라고 준 집문당의 임 사장님에게 읽어보시라고 주려고, 다른 한 권은 출자성에 모신 정체불명의 할아버지 신상 앞에 놓아 드리려고 만든 것이다.

때마침 내가 쓴 원고 〈무교경전〉 1권의 초교가 나와서 교정을 보았으므로 갖다 줄 겸해서 〈무교〉 복사본을 함께 가지고 집문당으로 갔다. 임 사장에게 읽어 보라고 〈무교〉를 드리고 나왔다. 그리고 다음 날 〈무교경전〉 2권의 원고를 쓰다가 출자성의 이성실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오라고 하였다.

남아 있는 〈무교〉 복사본 한 권을 가지고 출자성으로 가니 손님이 없었다. 이성실씨는 내가 올 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나는 할아버지신상 앞에 〈무교〉를 올려놓았다. 이성실씨가 읽어도 괜찮으냐고 묻는다. 읽으라고 하였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점심준비를 하고 있었다. 점심을 함께 먹자고 하는데 아직 점심을 먹

을 때가 아니 되어서 사양을 하였더니 막걸리나 한 잔 하고 가라고 한다.

상을 차리고 막걸리를 갖다 놓는다. 잔에 부어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 지난 번 보름 때 이곳에 왔었는데 그때 우주의 에너지와 지구의 공해에 대하여 열심히 말했던 여자가 젊은 여자가 함께 왔는데 젊은 여자가 3년 전에 내게서 마고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서 아는 체를 하였다. 그들은 지구를 살리는 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주의 다른 존재들이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중이라는 이야기도 하였다. 나는 격암 선생의 예언이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실현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성실씨가 내게 출자성에 왔다가 간 사람의 명함을 내놓는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설계한다는 사람이다. 그가 설계하는 집의 구조는 田자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검색창에 넣어 치니 카페가 하나 떠오른다. 문장을 읽어 보니 크게 황당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순교자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 고 내가 말한다. 요즈음 국민적인 애도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다산부대(건설공병부대) 소속의 윤장호(27) 병장의 죽음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한다. 신문을 보지 않고 방송을 듣지도 않으니 모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는 2월 27일 아프카니스탄의 바그람 미공군기지 밖에서 미국의 체니 부통령 방문으로 차출근무를 나가서 폭탄 테러로 사망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미국에 13년 간 거주하여 미국에 살면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는데 자원입대하였고 제대 6개월을 남기고 아프카니스탄 파병을 자원하였다가 당한 죽음이었다. 그가 죽은 후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는 등 불규칙한 기상이변이 있었다. 그의 유해가 한국에 도착하는 3월 2일 비도 내리고 있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그가 이 시대에 누군가를 위하여 죽지 않으면 아니 되는 순교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상이변이 그런 생각이 들게 하였다. 그래서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였고 집사람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만 같아서 마음이 어둡다.

그곳을 나오면서도 마음이 어둡기는 마찬가지이다. 요즈음은 <격암유록> 해석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무교>가 빛을 보게 되는 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웃김을 여미며 걷는다.

2003년 추천수필

어리석은 양 떼가 몰려가듯

어리석은 양떼가 몰려가듯

노중평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말을 깃발에 그려 족표(族表)로 쓰는 마가(馬加)라는 부족과 양을 깃발에 그려 족표로 쓰는 양가(羊加)라는 부족과 소를 깃발에 그려 족표로 쓰는 우가(牛加)라는 부족이 있었다. 당시에는 마가, 양가, 우가가 세력가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중원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 마가의 우두머리는 중여곤이라고 하는 분이고, 양가의 우두머리는 전옥고양이라는 분이고, 우가의 우두머리는 제곡고신이라는 분이었다. 전옥고양은 유망의 손자이고, 제곡고신은 황제의 손자였다.

이들이 족표로 쓰고 있는 가축들은 그들이 기르는 가축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마가는 야생의 말을 길들여 가축을 만드는 부족이고, 양가는 야생의 양을 길들여 가축을 만드는 부족이고, 우가는 야생의 소를 길들여 가축을 만드는 부족이었다.

당시의 경제를 호혜경제라고 하는데, 호혜경제란 계군이 계를 하듯 운영하는 경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부족단위로 계군의 우두머리가 있어야 했는데 계군의 우두머리를 왕검(王檢)이라고 하였다. 왕검들이 신시라는 곳에 모여서 자기가 관장하는 부족이 기른 소나 말이나 양을 모아서 다른 부족이 가져온 물품과 물물교환을 하였다.

계군경제시대에 말의 해는 말을 교환하는 해에 해당하고, 소의 해는 소를 교환하는 해에 해당하고, 양의 해는 양을 교환하는 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임오(壬午)년은 말을 교환하는 해에 해당하므로 마가가 호혜경제를 주도하는 해가 되고, 계미(癸未)년은 양을 교환하는 해에 해당하므로 양가가 호혜경제를 주도하는 해가 된다.

양을 족표로 쓰고 있던 전옥고양은 당연히 양의 생산과 유통을 책임지는 계주의 자리에 있었다. 신시가 열릴 때 깃발에 양을 그려 가지고 나갔다. 깃발에 그리는 양은 요새말로 부족의 체제 아이콘이 된다. 땅에서의 양은 하늘에서는 태양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의 족표에는 양과 함께 태양도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양은 조디악의 12궁도에 말과 소와 함께 나온다. 양은 백양궁으로, 말은 금오궁으로, 소는 금우궁으로, 양과 사촌간인 염소는 마갈궁으로 나온다. 이외에 음양궁, 거해궁, 인마궁, 보병궁, 쌍어궁, 쌍여궁, 천칭궁 등 다른 체제 아이콘도 나온다. 14,000년 전부터 2,000년 단위로 쌍여궁을 시작으로 하여 이들 체제 아이콘들이 인간의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으로부터 6,000~4,000년 전은 백양궁시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양을 체제 아이콘으로 썼던 전옥고양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대는 정치는 화백(和白)이 주도하고, 경제는 신시(神市)가 주도하던 배달나라와 단군조선의 시대였다. 이 시대에 중원 땅에는 오로지 동이(東夷)로 불리는 단일 종족만이 살고 있었다. 이 단일 종족은 이제 막 인간이 길들이기 시작한 동물들을 족표로 쓰는 오가(五加)가 구성하고 있었다. 오가를 구성하는 동물들은 소와 말과 양 이외에도 돼지와 개가 더 있었다. 양은 메리노처럼 털을 깎는 양이 아니라 뿔이 둘 달린 염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羊)자를 보면, 뿔이 달린 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추가 가능한 것이다.

전옥고양이 제곡고신에게 물려준 제위가 그의 양자 중여곤에게 돌아와야 하는데, 제곡고신은 제위를 중여곤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의 측실이 낳은 지(摯)에게 물려주었다. 전옥고양과 중여곤이 눈을 뻘히 뜨고 제위를 도둑맞은 것이다. 제곡고신은 인류역사상 첫 쿠데타에 성공하였다.

계미(癸未)년의 계미는 물에 빠진 양을 의미한다. 양이 들이나 산에 있지 못하고 물에 빠졌으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양을 족표로 썼던 전옥고양의 후예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물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물이라면 샘물이든 우물물이든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재앙이 될 것이므로 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수 없다. 물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흥청망청거렸다가는 큰일이 난다.

이 물은 북방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물이기도 하다. 그 물이 임진강물이든, 평화의 댐 물이든, 물결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또 다른 물이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수로와 관련이 되는 물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새해에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부도 바뀐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전옥고양과 중여곤이 제곡고신과 지에게 당하여 제위를 찬탈당했듯이 눈을 뻘히 뜨고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거창하게 일을 벌이는 따위의 무모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어리석은 양처럼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꼴이 되고 만다. 아무래도 나라 안팎으로 단속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말은 도망가고 양은 뒤따라간다. 말을 쫓아내는 것이 양이다. 양이 보면 말은 지는 해와 같고, 양 자신은 떠오르는 해와 같다. 그래서 늘 말을 뒤따라가며 의기양양해 한다. 그러나 술수에 능한 원숭이가 뒤따라오고 있으므로 의기양양해야 할 일은 아닌 듯싶다.

전옥고양과 중여곤은 단군왕검의 선대에 속하는 분들이다. 중국의 금문학자 낙빈기는 중여곤에게서 조선(朝鮮)이라는 문자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인쇄

모든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수필닷컴

정월 대보름에 ‘出子成’ 에 가다

노중평

출자성의 이성실씨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집에 오면 문갑 위에 차린 솥대 신단神壇에 봉투를 하나 놓는다. 내가 이사 온 후로 3번이나 와서 그때마다 봉투를 놓았다. 솥대에 오시는 마고신명께서 그렇게 하도록 시키시는 것일까? 출자성은 나와 함께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게 될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니 나로서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보름날 하루 전에 손님들이 왔는데 오지 않겠느냐는 연락이 왔다.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가 보기로 하였다. 손님 7명이 밥상을 가운데 펴놓고 소주를 한 잔씩 앞에 놓고 앉았는데, 들어보니 우주와 통신을 한다는 사람들이다. 에너지와 파장과 관련이 있는 말들을 하고 있다. 외부 사람들이 들으면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 같은 말들이다.

대구에서 왔다는 한 여자 분이 내가 책을 묶어서 출자성에게 준 〈격암 선생 사상의 핵심 生初之樂〉을 읽었다고 하면서 감명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사유의 틀에 억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오락가락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내가 문자를 해석할 때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음으로 나로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나는 책으로 써보라고 말한다. 책을 쓰는 소명은 내게 있다는 대답을 듣는다. 몇 시간을 그들과 함께 앉았다가 밖으로 나와 헤어졌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어제 오후에 계양굿당에서 본 새내기 젊은 무당이 가리굿을 하면서 처음 작두타는 이야기를 이제 막 탈고를 한 〈무교〉의 서문으로 쓰고 나서 마무리를 하였다. 무당학교의 선생이 되면 교재로 쓰겠다고 만든 원고이다.

11시에 출자성에서 의식儀式이 있으므로 집을 나서야 하였다. 흰 봉투에다 〈聖柱 出子成〉이라고 쓴다. 돈 3만원을 신권으로 넣어 주머니에 넣는다. 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서 우산을 받치고 갔다.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출자성이 있다. 성주산 쪽으로 경인국도 길가의 뒤쪽으로 두 번째 집 4층이 출자성

이다. 수십 명의 사람이 빼곡 앉아 있다. 주로 여자들이고 남자는 몇 사람 되지 않는다.

통도사가 있는 토굴에서 올라온 안 선생이 큰 징을 쳐주고 있다. 흰 옷으로 단장한 출자성이 제단을 향해 앉아 있다. 징소리가 장중하고 아름답다. 문득 옛날에 의식을 할 때 징·방울·북이 울어대는 소리를 가지고 의식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출자성은 우주로부터 누구에게선가 신어神語를 받아서 좌중에 전한다. 대체로 기복에 관한 말들이다. 출자성이 신어를 전할 때는 어린애 목소리가 된다. 출자성이 행하는 의식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의식이다.

의식에는 다양하게 행사되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의 체험과 생각에 따라서 자기들만의 형식으로 의식을 행한다. 무의식으로서 가장 전통적인 의식은 선거리와 앉은거리 의식이다. 요즈음은 의식을 하는 이의 개성이 전통의식을 무시해버리기 일수이다. 일장일단이 있다.

출자성이 액막이 사설을 한다. 소창으로 엮은 고를 푼다. 내게 한 끝을 잡으라고 한 끝을 잡는다. 베 가르기를 한다. 베라는 말은 마고 때 나온 말로 본다. 마고가 베를 짜기 시작하여 베가라는 말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가르기는 하늘이 인간에게 준 영靈을 말한다. 가르기를 해야만 그 영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액막이를 한다. 액막이란 하늘이 주신 영에게 액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풀어주는 의식이다.

정월보름날은 이 액막이를 하는 날이다. 접은 한지를 한 장씩 돌리며 소원을 쓰라고 한다. 소지 올리면 그 소원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믿는다. 나는 사인펜으로 여러 가지 소원을 적는다. 인간적이고 소박한 소원이다.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응어리가 풀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베란대로 나가 여러 사람이 소지를 올린다.

의식이 다 끝나고 상을 펴고 오곡밥을 먹는다. 나는 아침을 먹은 지 얼마 아니 되므로 사양한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좋은 소식이 있다고 12시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그래서 막걸리를 3잔 마시게 되었다. 안선생과 또 다른 분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

안 선생의 소개로 소리를 눈으로 보게 만드는 분과 인사를 나눈다. 3년 전에 내게서 마고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는 젊은 여자와 어제 만났던 여자와도 만나서 맥주를 한 잔 따라놓고 이야기를 나눈다. 내게 강의를 들었다는 젊은 여자는 내가 북두칠성과 시리우스를 거쳐서 왔다고 말한다. 다른 여자는 나의 파장이 세다고 말한다. 선생님의 전생은 노자예요 하고 우스개 소리도 천연덕스럽게 한다. 나는 가겠다고 일어서서 나온다. 출자성이 아래층까지 배웅한다.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출자성이 인사차 왔다. 역시 또 하양 봉투를 가지고 와서 솥대 앞에 놓는다. 봉투에 "소서노래요. 기다렸습니다"라는 말과 이해할 수 없는 신어들이 적혀 있다. 기도 중에 받은 말들로 보인다.

나는 <격암유록>에서 '생초지락', '도부신인', '세론시', '은비가'를 번역하면서 소래포구로 가는 길을 감싸안고 있는 소래산은 소서노召西弩가 십제를 이끌고 소래에 상륙하여 제사를 지낸 산이라고 풀이한 바가 있다. 그로부터 한강 이남 일대를 정벌하여 잉벌노仍伐弩라는 지명이 생겼다. 소서노가 정벌하여 얻은 땅이라는 뜻이다.

봉투에 쓴 말이 여러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말이다. 출자성이 나와 함께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 그 일이 무엇일까?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교>를 출판하는 일인데 어떻게 출판해야 할지 막막하다.

최근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고사연구회'를 발족시켰는데, 그때 참석했던 무용가 장일승씨가 내가 쓴 <고조선의 역사천문>이라는 책을 읽고 싶다고 하여 '한국문학도서관'에서 '노중평문학서재'로 들어가면 다운을 받아서 읽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더니 email이 왔다. 서재에 책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들어가 보았더니 상고사관련 서적들이 필자와 아무 상의 없이 모두 내려져 있었다.

<사라진 역사 1만년>, <고조선의 종교혁명>, <일본의 신도와 마쓰리>, <고조선사람의 근원적 사유>, <마고지나역사>, <고조선의 역사천문> 이런 책들이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출자성이 곧 돌아간다. 나는 <무교경전>작업에 들어간다. 일이 잘 되기를 빌면서.

또 다시 별내면에 가다

노중평

몇 사람이 최 선생이 운영하는 국악학원에 모여 앉아서 무엇인가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집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별내면에 가자는 것이었다. 석화를 먹으러 오라는데 그래서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 2시에 석계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대화가 끝나고 나니 지하철 1호선 제기역 가까운 곳에서 최 선생이 제공하는 점심을 대접받기로 하였다. 최 선생을 따라 음악학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갈비탕 집으로 간다. 두어 번 친구를 따라 왔던 적이 있는 곳이다. 그때도 손님이 많았는데 오늘도 역시나이다.

점심식사를 끝내고 최 선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전철을 타고 석계역으로 간다. 시간이 너무 이른다.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집사람에게 전화를 거니 제기역을 통과하고 있다고 한다. 집 사람이 도착할 동안 역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 노점에서 여자가 토스트 굽는데 숙련된 손놀림이 보기가 좋다. 기계가 돌아가듯 움직인다.

드디어 집사람이 도착해서 함께 별내면으로 가는 버스를 탄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하고 물으니 30분 걸린단다.

차가 출발한다. 승객은 많지 않다. 빈자리가 많다. 지난번에 집사람과 차를 가지고 갔을 때는 눈에 띄지 않던 광경들이 많이 눈에 들어온다. 그때는 헐린 집들이 많지 않더니 버스가 구석구석을 돌아서 가서 그런지 길가에 있는 집들이 온통 폭격 맞은 집들처럼 허물어져 있다. 좋은 집들이 많이 허물어졌다. 아까운 일이다. 이제 이곳도 아파트들이 뽁뽁하게 치솟아 불암산과 수락산을 가리게 될 것이다. 집값이 올라가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발전했다고 기고만장해 질 것이다. 지금까지 나라에서 해온 정책이 그런 것들이다. 만인 평등의 사회주의를 지향해간다면 나타나는 결과는 반사회주의, 소수 귀족주의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상에서 인류역사상 유일하게 역사를 후진시키면서 잡탕주의로 가려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그 부작용은 엉뚱한 데에서 터지고 있다.

도사견처럼 짚어대는 시민단체들, 충견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선생님들, 분노로 이글거리는 운동가들, 조용하고 신성해야 할 나라에서 불가사의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누군가 나누어 준 태극기를 들고 이들의 질풍노도와 같이 날뛰는 힘을 저지해보겠다고 강연회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집회에 참가하는 힘없는 늙은이들, 날로 깡패가 되어가는 나라꼴에 머리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드디어 현장에 도착한다. 흰둥이 녀석들이 반갑다고 짚어댄다. 이 집 주인이 개 짚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반갑게 맞는다. 거실로 올라서면 마루문과 창문을 겸한 창가에 한 줄로 늘어선 화분들과 상견례를 한다. 번동에서 부천으로 이사 가면서 이곳으로 실려 온 것들인데 이제는 몸살을 다 끝내고 다행스럽게도 이곳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묵은 정이 우러나 정겹다.

나는 화초를 기를 줄을 몰라서 몇 번 죽인 경험이 있다. 그래서 기르기를 전혀 엄두를 내지 못한다. 아파트에 살 때는 모두 베란다 밖에 놓아두었고 물을 주더라도 집사람이 주었다.

이곳에 와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이 내가 이들 화초에 정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번에 왔을 때에도 그랬는데 사람의 정과 식물의 정을 교감한다.

문득 경물사상의 요체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성적으로 물을 공경해야 하겠지만 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경물의 경지에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심성이다. 그래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자연을 마구 파헤쳐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집 주인은 유난히 몸살을 하는 화초가 하나 있는데 거대한 꽃을 하나 피웠다고 경이로워 한다.

“첩 순으로 담은 술을 들어보셨어요?”

하고 이 집 주인이 묻는다. 아직 마셔 본 경험이 없다. 오늘 첩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한다. 먼저 첩 술을 내오고 이어서 두꺼운 껍질이 덮인 석화를 삶아 내온다. 껍질을 까서 안에 든 굴을 먹으라고 준다. 굴 껍질 속에 든 굴을 삶아 먹어보기는 처음이다. 작은 잔에 술을 따르는데 색깔이 샴페인 술처럼 곱다. 잔을 부딪치고 마셔보니 향도 그만하면 합격점이다. 나는 6잔이나 마셨다. 굴을 까면 굴 물이 굴 껍질에 남는데 이 굴 물을 모아서 굴물탕을 끓여온다. 별미가 아닐 수 없다. 술 마시고 흥분할 대로 흥분한 속을 달래는 데엔 이만한 게 없다고 한다. 그럴 수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집 사람이 마당인 산자락에 화초를 하나 아파트에서 캐다가 심었다는데 지금은 이 화초가 번식하여 집 앞을 덮는다고 한다. 아직 싹이 나지 않았으니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꽃이 피면 다시 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술을 다 마시고나서 노래를 부르기로 하였다. 노래를 몇 곡 불렀는데 부른지 오래 되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가 다 엉망이다. 역시 무엇이든지 연습만한 게 없다.

집주인은 노래를 아주 잘 부른다. 인생을 되씹어보게 하는 한이 우러나온다. 저녁까지 대접을 받는다. 나

는 불암산을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자고 말한다. 해가 넘어간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해가 넘어간 길을 반짝이는 샛별이 따라간다. 샛별은 태양의 호위별인 태백금성이다. 나는 금성의 8자주기에 대하여 설명한다. 백제와 신라의 신전 터가 팔각의 터인데 그 이유는 금성이 주인인 태양을 호위하는 충직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한다. 해가 불암산을 넘고 또 삼각산을 넘어간 지 오랜데 금성이 떠서 유난히 반짝거리며 그 길을 지키고 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간다. 생일선물리라고 칩술을 한 병 선사받고 또 과일도 싸가지고 집주인이 운전하는 차에 실려 석계역으로 달린다. 그는 길가에서 꽃을 하나 캐어다가 집 앞에 심었는데 이제 그 꽃이 많이 퍼져있다고 한다. 길가에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는 건데 하고 말한다.

나는 언젠가 누구에게서 들었을 법한 말을 한다.

“요즈음 식물들이 공해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작은 소나무가 솔방울을 많이 여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아마 그 꽃이 길가에 방치되어 있으면 자기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여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신호를 접수하고 산자락에 옮겨다 심게 된 것일 것입니다.”

上古史研究會의 출범

노중평

오늘 오후 1시에 친구들과 서울대 입구 전철역에서 만나서 함께 점심을 하고 나서 헤어져 오늘의 행사장이 있는 을지로 3가로 향했다. 사당역에서 내려 을지로 행으로 갈아탄다. 을지로3가역에서 3번 출구로 나오니 국민은행 옆에 ‘우신도기’가 있고 그 3층이 오늘의 행사장이다. 행사 시작이 저녁 6시임으로 아직 1시간여의 여유가 있다. 행사명은 ‘상고사연구회 발기인총회’이다.

지난번에 정 회장과 상의하여 행사 날짜를 정할 때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따져 정했다. 공교롭게도 2007년 2월 22일이다. 7은 생수生數 5를 빼면 성수成數 2가 남음으로 2가 모두 2004개인 셈이다. 2라는 수가 2004개째 되는 날 우리는 모임을 발족시킨다. 2의 의미는 음陰이고 4의 의미는 완성이다. 음이 완성된다는 뜻이다.

역사는 사라진 것, 음적陰的인 것을 살려내는 작업이다. 그것도 우리의 관심은 그 근거가 불분명한 상고사 쪽에 있다. 상고사에 약간의 초기 고대사를 포함할 생각이다. 무엇인가 느낌이 좋다.

지난번에 정 회장과 함께 사무실에 왔을 때보다 컴퓨터가 여러 대 늘었고 탁자와 의자도 늘었다. 프로젝트를 천장에 달아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화면을 스크린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기다리는데 참석자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오래간만에 전일 스님이 오셨다. 단군왕검을 모시는 스님이다. 이일봉 한배달 사무국장도 와 주었다. 무용가 이귀선씨와 장일승씨가 참석했다. 그 외에 학술원 회원, 방송국에서 은퇴한 분, 은퇴한 대학교수 등 다양한 면면들이 참석한다. 어느덧 25명이 참석했고 회의는 시작되었다. 정 회장이 먼저 인사말을 하고 그가 초대인사를 한 분 한 분 소개하였다. 우리 상고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다. 다음엔 내가 인사말을 하고 ‘역사천문학회’ 측 사람들을 소개하였다. 소개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업그레이드된다.

회장·부회장·총무를 뽑자는 제안이 있어서 이분들을 뽑는다. 회장에는 정효길 회장, 부회장에는 손광춘 사장, 총무에 역사천문학회 유승엽 총무를 선출한다. 나는 무관의 핵심 멤버가 된다.

오늘의 모임을 주선한 정 회장이 저녁을 사기로 하고 중앙극장 앞에 있는 한식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긴다. 나는 정 회장과 나란히 앉는다. 소주에 곁들여 부침과 만두정골로 안주를 하고 이어서 냉면을 반 그릇 먹는다. 옆자리와 앞자리에 앉은 분들과 대화를 나눈다.

“회장·부회장·총무·나 네 사람이 만나서 앞으로의 진로며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자” 고 정 회장이 내게 말한다. 나는 좋다고 동의한다.

모임을 끝내고 나는 이은화 어린이역사문화학교 교장과 무용가 장일승 씨와 지하철로 내려와 헤어져 지하철 홈으로 내려간다. 마침 곁자리에 앉았던 분과 만나게 된다. 어디에 사시느냐고 물었더니 부평에 산다고 하신다. 내가 부천에 산다고 하고 부천까지 오는 동안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금방 시간이 가는 듯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분과 헤어져 집으로 온다.

집에서는 컴퓨터를 켜고 오늘의 모임을 기록한다. 이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내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 종류의 글이든 상고사와 초기 고대사와 관련이 있는 글이라면 회원들에게 제출하고 회원들은 심의위원이 되어 상고사연구회가 인정하는 역사기록물로 평결하도록 한다. 평결 참석자의 80%가 찬성하면 심의에 통과시킨다. 심사위원들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제출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로 정리하여 컴퓨터에 올리고 책자로 발간하도록 한다. 나는 이러한 일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먼 훗날 우리가 한 일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2월 22일 역사천문학회이 다시 모이기로 하였다

노중평

반 선생이, “금년 여름 방학에는 모임을 쉽시다” 하고 제안을 하여, 역사천문학회의 모임을 쉬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갔다. 그 3년 동안에 나는 이틀에 하루 꼴로 글을 한 편씩 써서 카페와 블로그에 올렸다. 많이 쓴 셈이다. 글을 쓰면서 내가 추구하는 학문을 발전시키며 또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내가 이 일을 해 온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그 힘은 아주 특별한 힘이다. 어떠한 힘이라고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종교인이 아닌 이상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작년부터 내가 해온 일의 성과를 정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일을 벌이기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이 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부천 소사의 성주산 밑을 택했다. 이때 나는 격암유록을 붙잡고 있었다. 격암 선생이 펼쳐 보이는 미래의 역사를 누군가 시작할 수만 있다면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일에 미력하나마 일조를 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작년 말에 친구들과 교보문고 앞에서 만나서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우연히 상고사에 폭 빠져 있는 정 사장을 만났다. 그가 요즈음 무슨 모임을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없다고 대답하였다. 정 사장은 그가 사무실을 하나 비울 테니 함께 상고사 공부나 하자고 하였다. 나는 승낙하였다.

그 후에 연락이 와서 정 사장과 함께 빈 사무실로 갔다. 사무실은 을지로 3가에 있었다. 내가 6.25사변이 나기 전까지 총무로 3가 중 부경찰서 맞은편에 살았으므로 그곳은 내게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이다.

길 위로 전차가 다녔고 선로 위를 제비가 날아다녔다. 육이오 사변이 나던 해에 그 길로 미아리를 넘어온 인민군 탱크가 굴러왔다. 을지로 4가 코너의 2층 건물에 후퇴하지 못한 국군이 숨어 있다가 탱크를 공격하여 탱크가 화염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물론 뒤에 오는 탱크가 포를 쏘아서 그 건물 지붕에 큰 구멍이 하나 생겼다. 한 젊은이가 관자놀이에 총알을 맞아 인도에 누워 있고 피가 흘러내려 땅을 적시는 것을 보았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연초에 제주도에서 어떤 무당이 초대하여 무당과 만났는데 그가 내게 이발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발을 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것이었다. 성주산 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이발을 하기 싫어서 3개월 이발을 하지 않았는데, 성주산 밑으로 오니 이상하게도 이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이다.

내일 2월 22일은 역사천문학회 멤버와 정 사장이 하는 컴퓨터 동호회 멤버가 모여서 상고사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출범을 하려고

하는데 새 꼬랑지 길이만큼 긴 머리로 모임에 나가게 생겼다. 앞으로도 머리를 자르지 않을 생각이다. 무슨 성공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핑계 김에 잘 되었다 싶은 것이다.

요즈음엔 내 주변에서 몇 사람이 무교대학을 세우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나는 그런 일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 그룹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내가 써온 글들은 무교巫敎學으로 불릴 만한 학풍을 세우기에 손색이 없는 저술들이라고 생각한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학사행정을 손대고 있는 임 교수가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서 고무적이다.

나는 언젠가 이러한 때가 오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누가 하더라도 이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무교대학이 세워지고 무교학이 생겨난다면 이 학문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학위를 따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존경을 받는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한다. 무당도 격이 높아지고 사제로서 존경을 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문제는 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지금이다.

우리는 개업을 하기 전에 무교경전 제1권의 출판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립해 보자고 쓴 경전이다. 집문당으로 원고가 넘어간 지 한 주일이 된다. 내가 잘 아는 어느 무당은 학교가 개업을 하면 등록하여 공부하겠다고 한다. 무엇인가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음을 느낀다.

'중공 탈당 1800만' 성원행사 열려

“중공 공산당 해체는 역사적 필연 “

등록일: 2007년 02월 08일

[대기원] 중국 공산당을 탈당한 인원수가 1월 31일 180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캐나다·일본 등 각국에서 중공 탈당을 지지하고 중국의 민주화를 기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가운데 한국에서도 지난 4일 관악산에서 대기원시보가 주최하고 중국 인권 단체 '신중국 인권사랑'이 후원하는 '중공탈당 1800만 성원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 대기원시보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 “1800만이라는 이 경이로운 숫자는 과거 어느 국가나 단체에서도 있어본 적이 없는 대규모의 전면적인 인권 회복 운동이며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공산당 반대 운동이다.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 “라고 말했다.

중공탈당센터 한국지부의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관광 온 중국인

들이나 교포들이 탈당을 신청하는 등 중공 탈당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고 전하면서 탈당 인원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선 이후 중공 고위 관리들도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극심한 인권탄압을 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을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파룬따파학회 오세열 대변인은 “지금 큰 파문이 일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 장기적출 사건은 중국 공산악당의 사악의 극치를 드러낸 것 “이라 며 각국 정부와 언론의 동참을 촉구했다.

입춘을 맞아 봄맞이 나들이를 나온 많은 시민들은 처음 접하는 중공탈당 소식과 탈당성원 퍼레이드에 큰 관심을 표했다.

한 시민은 “자료를 읽어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중공이) 파렴치하고 잔혹하다 “고 말했다. 퍼레이드에 참여한 송정숙 씨는 “설명을 들었을 때 참혹함을 느꼈다. 내 일과 마찬가지로인 것 같다. 만약 내 자식이 중국 공산당에 잡혀 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나?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나도 참석해보자 그래서 참석했다 “라고 참여 취지를 얘기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학철 구명위원회'의 한 관계자를 통해 중국 내 인권탄압의 현실을 직접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관계자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돼 모진 고문을 받고 있는 김학철씨를 꼭 구원하자고 제안하면서 중국 교포인 김학철씨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직접 지방의회를 방문하며 구명지지 결의안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등이 동참했다고 전했다.



소련 붕괴는 공산당을 탈당한 인원이 430만 명에 이르는 시점에 이뤄졌다. 반복되는 역사의 교훈에서 중공의 해체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은 서울 관악산 일대에서 진행된 1800만 탈당 성원대회.© 안희태

이번 1800만 탈당은 2004년 11월, 대기원에서 ‘9평 공산당(9評共產黨)’이란 평론을 통해 중공의 사악한 면을 폭로한 이후 시작했다.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신앙 등 다각도로 중국공산당의 기만성, 폭력성, 사악함을 전면적으로 폭로한 9평 공산당은 발표되자마자 인터넷, 전화, 팩스, TV, 광고지, 소문 등으로 중국 전역에 확산됐고, 이를 접하고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인식한 사람들이 대기원 웹사이트를 통해 공산당과 그 관련 조직으로부터 탈퇴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전세계 탈당센터의 대변인 가오다웨이 박사는 2006년 중국대륙의 탈당 열풍을 정리하는 발언을 통해 “중국대륙의 민심이 각성하고 있고 중공의 군심이 동요되어 당심이 붕괴되고 있다. 중공 사당(邪黨)의 해체는 이미 역사의 필연이 되었으며 어떤 힘도 역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얼마 전 공개적으로 탈당을 선언한 중국 산시성 과학기술전문가 협회전 비서장 자자(賈甲.55)는 “현재 중국 대륙에서 탈당하려는 사람은 모든 당원의 95% 정도로 추정된다. 만약 천안문 광장에 장소를 지정해 자유롭게 공산당 조직에서 탈퇴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최후에는 중공 중앙만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백동하 기자

별내(은하수)에서 수락산아기씨가 삼각산고깔 벗어 놓고 불암산서낭신장님과 동침중이시군요

노중평

집사람과 시간을 내어 별내면에 들르기로 하였다. 집 사람과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이가 있는데 벌써부터
함께 가보자고 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큰마음을 먹고 가게 된 것이다.

별내면은 남양주시에 속해 있는데 주변의 지세가 심상치 않다. 의정부로 가는 도로가 가로놓여 있는데, 집
앞 서쪽에는 불암산이 바로 눈앞에 있고, 불암산에 붙어서 거대한 수락산이 북쪽으로 연결해 있다. 등 뒤
로는 천마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미리내(은하수)로 불리는 한강이 있다. 하기가 한강 자체도 은하수라는 뜻
이다.

양수리 용문 양평 쪽은 자주 다닌 편이어서 낯설지 않는데 이곳은 와보지 않은 곳이라 낯설다. 나는 오는
도중에 집 사람에게

“아들을 낳고 싶으면 불암산 밑에 와서 살면 되겠군”

하고 말한다. 집 사람은 왜 그러냐고 묻는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다. 삼각산은 삼신할머니가 쓰시는 고깔 형상의 산이고 도봉산의
주봉은 선인의 머리와 같은 산이다. 수락산과 불암산 사이의 공간은 인체의 가슴과 배에 해당하는 곳이다.
불암산과 수락산이 동북쪽으로 돌출하는데 불암산은 불알산이고 수락산은 여음산이다. 마치 남녀가 교접
하기 위하여 한 몸이 되어 있는 형상의 땅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 불암산 밑에 살면 아들을 낳겠다고 한
것이요, 딸을 낳고 싶으면 수락산 밑에 가서 살면 될 것이요, 아들 딸 구별 않고 낳고 싶으면 불암산과 수
락산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 살면 된다고 뜻으로 말한 것이다.

천마산이 동북쪽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 불암산 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천마를 타고 싶어 할 것이다. 천마
는 하늘의 말이라 하나님이나 타시는 말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배와 가슴에 해당하는 공간에 사는 백성
들의 동태가 오만방자하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천마를 땅에 내려 보내 불암산에서 태어난 아들이 타게 하

고 아들로 하여금 이들의 오만방자함을 다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암산 밑에 화랑대가 있는데 이곳에서 화랑이 태어나 하나님의 충실한 신장노릇을 하려 들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군의 6.25남침 때 불암산에서 화랑대의 젊은이들이 불암산을 사수하다가 많은 피를 흘렸는데 이들이 흘린 피가 우리 역사에 두고두고 피 값을 물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부질없는 생각을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니 밤 발에 터 닳아 세운 거처 하나가 나와 집사람을 맞는다. 이곳을 지키는 개들이 있는데 모두 흰둥이들이다. 풍산개와 진돗개는 어느 날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돗개를 닮은 놈들이 댕 마리가 된다. 제일 영악한 놈이 낯선 손님이 왔다고 짖어댄다. 집주인이 나와서 맞는다. 형제가 따로 없는 듯하다. 집 안으로 들어간다.

집 사람은 여기에 앉아 밖을 내다보면 가슴이 탁 트인다고 말한다.

“여기는 밤에 좋아요. 별들이 쏟아져요.”

집 주인이 말한다.

문득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를 한 장 복사 해다가 걸도록 해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밤에 별들을 보며 즐겨야하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역사천문학회> 멤버들이 여기에 와서 별을 보며 공부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천마산에서 북두칠성이 떠서 삼각산 위에 가면 날이 밝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가 묘 터라고 해서 기분이 상한 적이 있어요.”

하고 집 주인이 말한다. 북두칠성이 뜨는 산 밑에 집이 있으니 여기가 명당이라는 뜻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죽은 사람의 명당은 음택陰宅이라고 하고 산사람의 명당은 양택陽宅이라고 한다. 산이 좌우에 둘러 있어서 휘몰아쳐 오는 바람을 막아 주어야만 아늑하여 명당의 조건에 든다. 조산祖山에서 뻗어 내리는 산세를 용맥龍脈이라고 하는데 용맥에 혈이 있고 이 혈을 명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은 쉬운데 그런 곳을 찾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집 주인이 심식사가 늦었다고 부랴부랴 상을 차린다. 방금 지은 굴밥을 한 그릇 퍼서 준다. 나와 집 사람을 보고 짖어대던 녀석이 창을 넘겨다보고 있다. 표정이 사람의 표정과 같다. 발로 미달이문을 옆으로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온다. 사람처럼 행동한다. 대단히 영악한 녀석이다.

노중평입니다

오늘 정기모임에서 초대하시고 과분한 대접을 해주신 이재선`오혜영 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혜영씨께서 제가 쓰는 글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도 감사합니다. 마침 오혜영씨께서 마고지나에 대한 자료를 읽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마고지나에 관한 글과 다른 분들이 마고지나에 대하여 인터넷 상에서 보여준 반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대화 중에, 꿈에 벼락대신이 현신하셨다고 하셨는데,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벼락대신을 마고대신으로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적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소서노와 관련이 있는 글을 쓰면서 소서노와 온조왕이 도읍한 한성백제를 백제시대에 위례성이라고 호칭했던 이유가 삼각산에 벼락이 떨어져서 위례성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 벼락이라는 말이고, 벼락이라는 말에는 벼락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위례성은 벼락하나님의 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꿈에 현신하신 벼락대신은 거인이고 할머니이고 스스로 "내가 벼락대신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마고대신의 변신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신내림을 할 때 보신 도깨비상은 동두철액을 쓰신 치우천왕상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래 글을 참고로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월계자가 어아가(於阿歌)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다가 '인터넷과 무당'이란 웹사이트에 게재된 고담중평(세계무속신문 주간, 역사천문학회 부회장, 소설가)님의 글 <우리나라 최초의 이름 '마고지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고담중평님의 글 속에 우리 한민족사의 이해에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우리 한민족이 상고시대 인류의 선진文明 가운데 하나를 창조하였음

--> '동이문명'의 탄생을 역경(易經)에서는 지화명이(地火明夷)라고 말한다. '지화'가 바로 문명의 모체가 된다.

2. 한단고기(환단고기=桓檀古記)와 부도지(符都誌)의 관계

--> '마고지나'의 문명은 우리 최고의 조상인 '마고'에 의하여 시작된다. 그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14000년 ~ 12000년 전에 해당한다. 이때가 한웅천왕이 신시국가를 세우기 이전에 최초로 세운 신시국가시대였다.

3. 상고시대의 시원적 국가 형태

--> '마고지나'는 땅에서 우주의 중심과 일치하는 곳에 우리의 조상 마고 할머니가 세운 최초의 나라, 지금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나라였다. 영토에 대하여 개념정립이 전혀 아니 되었던 나라,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모이는 사람들의 나라, 초국가적인 나라였

다.

4. 한민족 상고시대의 국가경영의 원리

--> 삼태극 원리 위에 세워진 나라가 신시였다. 삼태극의 원리란 음양조화의 원리이다. 이 원리를 원시신앙으로 발전시킨 분이 마고였다. 그래서 삼신신앙이 나왔고, 삼신신앙의 성지인 <봉래>, <방장>, <영주>의 삼 신산을 기점으로 하여 삼신신앙이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마고의 뒤를 이어서, 삼태극의 원리에서 나온 신시의 원리를 삼신철학으로 정리한 분이 한웅천왕이었다. 그는 일석삼극(一析三極)의 원리로 신시의 원리를 정리하였다. 이 원리를 국가체제에 적용하여 화백(和白)과 시장(市場)과 인사(人事)의 세 축을 만들어 이끌어 갔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하여 나라가 당하는 자연재해에 대하여 자신을 책화(責禍)로 다스렸다. 이를 공동선(共同善)의 실현, 곧 덕(德)으로 보았다. '마고지나'가 고려시대까지 백성의 마음에 그대로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왜소함과 달리 선조들의 그 당당한 거대함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5. 고려의 백성들은 왜 '고려'라는 나라 이름을 탐탁치 않게 여겼나

당시의 사람들은 고려가 멸망한 고구려에서 나온 문자이므로, 고려가 언젠가는 당나라에게 멸망한 고구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려는 국가로서 존립의 기반이 되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실한 채 원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러한 결과로 충혜왕은 원에 체포당해 갔고 귀양길에서 죽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의 백성들이 이러한 나라 같지 않은 나라의 이름 '고려'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 阿也 '麻古之那' 從今去何時來 "아아 '마고의 나라' 이제 떠나가면 언제 돌아오려나"

6.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적합한가

--> <한국문자학회>와 중국인 금문학자 <낙빈기(駱賓基1919~1993)>에 따르면, '대한민국(大韓民國)'의 '한(韓)'자는 "요(堯)임금을 죽이고 제위(帝位)를 찬탈한 순(舜)임금"에게서 나온 문자라고 한다. 그 어원적인 의미가 순시대(舜時代)에 "쿠데타, 반역, 모략, 살해" 등이었으므로, 과연 이 '한(韓)'자를 그대로 국호로 써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 원문 전체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www.shaman.co.kr/mago/03.htm>

** 그동안 저 월계자는 막연하게 홍익인간의 이념 등이 우리 상고시대 국가경영의 원리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정도만 생각하고 깊이 있게 그 내용을 연구해 보지 못하였는데 이런 글들을 보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원리와 비슷한 화백(和白) 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의 맹아가 되는 시장(市場) 제도 등이 이미 그 당시에에도 있었군요. 우리 역사 속에 숨쉬고 있는 우리 조상님들의 사상과 제도 등을 오늘에 되살려서 현대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활용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법고창신이라는 새 문화 창조의 방법을 실천하는 길이 되겠지요. 참, <고려사>에 나온다는 '마고지나(麻古之那)'라는 나라 이름은 <부도지>에서 말하는 시원적인 이상국가인 '부도(符都)'에 해당합니다.

이은화 선생! 벽랑국에 잘 다녀 오세요!

노중평

어린이역사문화학교의 이은화 선생이 목요일마다 만나서 맥주하기로 한 첫 날, 맥주 집에 가서

생맥주를 시켜 놓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나누다가,

“선생님, 벽랑도를 찾아갑니다. 황 선생에게 가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해서 갔다 오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불쑥 말한다.

뗏목인지 떼배인지를 만들어 타고 제주도의 제주시의 화북 포구를 떠나서 망망대해를 물결 따라 물 흐르는 데로 따라 흘러 3박 4일 만에 강진 근처에 있는 벽랑국碧浪國에 닿는다는 것이었다. 떼배(제주도의 전통 뗏목이라고 한다. 삼나무를 엮어 길이 7.5m, 폭 2.5~2.9의 배를 만든 것이다.)를 타기 위하여 아마추어무선사 자격증도 따놓았다고 한다.

떼배가 출항하는 날 아침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나는 그때까지 그가 내게 한 말을 모두 잊고 있었다. 그래서 왜 문자를 보냈는지 궁금하여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오후 2시경에 전화가 왔다.

“오늘이 벽랑국을 찾아서 떠나는 날입니다.”

라고 말한다. 탐라국과 벽랑국의 역사에 대하여 찾아보아 달라는 주문도 하고 있다.

지금 출항식이 진행되고 있어서 출항한 다음에 전화를 하겠다고 한다. 그날 저녁에 TV에 출항식 광경과 떼배가 잠깐 비치는데, 바다 위에 거적이 하나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 부실한 것을 타고 벽랑국을 찾아 갈 수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로 인터넷 뉴스에 그들의 출항 소식이 올라와 있다. 조선일보 오재용 기자가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 올려놓았다. 두 사람이 노를 젓고 있는 사진인데, 두 사람 중에서 위에 선 사람이 이은화 선생이다.

기사를 보니까, 채바다(고대항해탐험연구소장)라는 분이 팀장이다. 채바다씨의 지휘로 120km를 항해한다고 한다. 항해를 하는 목적은 제주도의 옛 왕국인 탐라국에 문화를 전해 준 벽랑국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주 목적은 탐라국과 벽랑국 사이에 열려 있었던 뱃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코스는 제주도-추자도-보길도-소안도-대모도-완도-강진이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동국여지승람에 현 소랑도가 벽랑도로 나와 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어업지도선 3척과 해경 경비함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지원해주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벽랑국을 검색하니, 지금은 폐간된 <세계무속신문>에 내가 실었던 시리즈 ‘신시는 세계 최초로 동이(東夷)가 세운 무(巫)의 나라였다’가 검색됨으로, 이 글 중에서 영주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여기 옮기기로 하였다.

제주의 옛 이름 '영주(瀛洲)'에 숨겨진 '마고지나'

제주는 삼신나라인 '마고지나'에서 나온 '영주'

제주도는 삼신산에서 건너간 섬이다. 그래서 옛 이름이 영주(瀛洲)이다. 영(瀛)은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산(瀛洲山)에서 갈라져 나간 산이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영주산이 새끼를 쳐서 옛 영주가 된 것이다. 옛 영주가 지금의 제주이다. 영주산이 의미를 갖게 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14000년~에서 12000년 전 사이의 일이다. 동 이의 조상인 마고가 그의 후손과 함께 삼신산에 세운 신시(神市)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비롯한다.

그가 세운 '마고신시' 즉 마고의 나라인 '마고지나'가 있었던 곳이 지금의 봉래와 발해만을 잇는 일직선상에 징검다리처럼 일곱 섬이 칠성의 형상으로 늘어서 있는 바다 한가운데였다.

이곳의 섬들을 묘도군도(廟島群島)라고 한다. 여기에 두 섬이 있으니 이 두 섬이 영주로 비정할 수 있는 장산도(張山島)이다. 북쪽에 있는 섬을 북장산도라고 하고, 남쪽에 있는 섬을 남장산도라고 한다.

영주산은 남장산도나 북장산도 두 섬 중의 하나에 있는 산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우리가 '남과 북'을 '북남'이라고 하지 않고 '남북'이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서 남쪽이 북쪽보다 우선하므로 남쪽에 있는 남장산도를 영주로 보고자 한다. 제주도의 옛 이름이 영주인 것은 마고시대 사람들이 이 고장에 건너와서 살았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일 것이다.

제주의 옛 이름 두 가지 '영주'와 '탐라'

제주도의 옛 이름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영주'이다. '영주'는 마고가 다스리던 '마고지나'의 삼신산(三神山)인 '영주', '방장', '봉래'의 세 산 중의 하나인 '영주산'에서 퍼져 나온 이름이다.

제주신화에 따르면 삼신이 이 고장의 시조인 고씨 양씨 부씨에게 시집을 옴으로써 비로소 영주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신화에 나오는 삼신은 태초의 삼신인 마고 궁희 소희 세 분의 후손이다.

둘째는 탐라(耽羅) 또는 탐랑(耽浪)이다. '탐라'는 북두칠성의 첫째 별인 탐랑성(貪狼星)이 관장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곳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주(星主)라고 하였다.

이 말은 곧 성주가 '마고'라는 의미가 된다. 이 말은 마고가 직녀성(織女星)의 화신이므로, 탐랑성 을 관장하는 마고가 성주가 된다는 말이다. 제주도 사람은 제사를 지낼 때, 자기의 직계 조 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성주상'을 차리고 자기 조상과 함께 성주에게도 제사를 지낸다.

여기에서 "직녀성이 탐랑성을 관장하는 별"이라는 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므로 설명을 해 보면, 마고가 우리의 직계조상으로 직녀성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던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데에서 설명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천추성이 북극성이 되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마고는 직녀성이 북극성이 되어 지구에 영향을 미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지금으로부터 14000년~12000년 전에 지구중력의 회전축의 중심이 직녀성을 향하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말이 된다.

삼신의 나라 영주 탐라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엔 신화나 설화나 무가나 지명에 마고삼신이 남긴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 흔적은 다른 고장에선 대부분 깊이 파고 들어가야 찾아 낼 수 있으나, 제주에 남아 있는 것은 다른 고장에 남아 있는 것과 달리 기록과 구전으로 나타난 것들로 사실적이고도 구체적이라 쉽게 찾아 진다. 먼저 역사기록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고려사 지리지(高麗史 地理地, 단종端宗 2년 1454년 간행)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탐라현(耽羅縣)은 제주도 남쪽에 있다.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태초에 사람이 없더니 세 신인(神人)이 땅에서 솟아났다. (지금 진산鎭山:한라산 기슭에 구멍이 있어, 모흥혈毛興穴이 라 하니, 이것이 그 땅이다) 맏이를 양을라(良乙那)라 하고, 다음을 고을라(高乙那)라 하고, 셋째를 부을나(夫乙那)라 했다. 세 신인은 황량한 들판에서 사냥을 하여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하루는 자주 빛 진흙으로 봉인한 목함(木函)이 동해빈(東海濱)에 떠밀려 오는 것을 보고 나아가 이를 열었더니, 석함(石函)이 있고, 붉은 띠를 두르고 자주 빛 옷을 입은 사자가 따 라와 있었다. 돌함을 여니 쪽빛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송아지, 망아지, 그리고 오곡의 씨가 있었다. 이에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세 따님을 낳으시고 이르시되, 서해(西海) 중악(中嶽)에 신자(神子) 세 사람이 계셔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다고 하시며 신에게 명하여 세 따님을 모시도록 하므로 왔으니, 마땅히 배필 을 삼아 대업을 이루소서."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사라져 버렸다. 세 사람이 나 이 차례에 따라 장가를 들고, 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가 사시복지 (射矢卜地)하니, 양을나가 거

쳐하는 곳을 제일도(第一都)라 하고, 고을나가 거쳐하는 곳을 제 이도(第二都)라 했으며, 부을나가 거쳐하는 곳을 제삼도(第三都)라 했다. 이와 유사한 기록으로 세종 32년(1450년)에 간행한 영주지(瀛洲誌)에 실린 삼성신화(三姓神話)가 있다. 실린 내용은 고려사 지리지에 실린 것과 거의 같으나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① '탐라'를 '영주'라고 하였다.

② 세 처녀와 사자가 온 나라 '일본국'을 '동해(東海碧浪國)'이 라고 하였다.

제주대학의 현용준(玄容駿) 교수의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에 자세한 연구가 실려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기로 하고, 마고삼신과 관련하여 아직 연구가 안된 부분만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국호(國號)에 관한 것이다. '탐라'는 북극성인 탐랑성에서 온 것이고, 영주는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탐라'는 인류가 아직 대량으로 출현하지 않고 소수의 인종만 살았던 선천시대(先天時代, 지구의 회전축이 천추성을 향하기 시작한 천추성시대)부터 지명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영주'는 동이(東夷)의 시조인 '마고'가 삼신산(三神山)에 신시(神市)를 열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이름이므로, 후천시대(後天時代)부터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탐라'와 '영주'는 선천개천이냐, 후천개천이냐 하는 시대적 차이를 보이는 이름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동해빈(東海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해빈'을 '동해바다 해안가'로 해석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동해빈'을 지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고선(李固善)이 쓴 '조선기(朝鮮紀)에 이와 똑같은 지명이 이미 단군조선시대에 나온다. 평제(平帝) 구을(丘乙) 단군 때인 병인 5년(B C 2092) 여름에 신독(身毒, 지금의 인도)국 사 람이 표류하여 '동해(지금의 황해)빈'에 닿았다는 기록이다.

세 번째는,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이라고 한 , 한 대목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기'가 고려사에서 영주와 탐라의 출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고기'는 옛 사서(史書)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고기'의 기록을 옮겨서 고려사 를 편찬할 때, 당시 기록자들이 고려사를 펴내하기 위하여 저지른 '붓 장난'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고기'에 '을나(乙那)'가 어떻게 기록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之那)'가 '을나(乙那)'로 곡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고려사 충혜왕조에, 고려의 옛 이름을 '마고지나(麻古之那)'라고 하였다. '마고의 옛 나라'라 는 뜻이다.

나(那)는 나라를 의미하므로, 고씨 양씨 부씨가 탐라(영주)의 시조인 만큼 이들 의 나라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면, 마땅히 을나(乙那)를 지나(之那)로 고쳐서, 그 뜻을 '나라' 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나라로 읽으면

'고을나'는 '고지나'가 되고, '양을나'는 '양지나'가 되고, '부을나'는 '부지나'가 된다.

네 번째는, '목함'과 '석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다. 함(函)의 의미는 문자로 해석할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린 해"가 들어 있는 상자이다.

또한 목함은 '동쪽으로 가는 배'를 상징하고, 석함은 '서쪽에서 실려 온 귀중한 물건'을 상징한다.

다섯 째는, 세 신인과 세 처녀의 의미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삼이라는 숫자는 이들이 '마고삼신(麻姑三神)'의 자식임을 상징한다.

세 신인은 모흥혈(毛興穴)에서 출생했다고 한다. 모(毛)는 "털이 흰 소의 쇠꼬리"인 모()로 바꾸어 읽어야 한다. 모는 무당이 모무(舞, 쇠 꼬리 춤)를 출 때 들고 추는 쇠꼬리이다. 혈(穴)은 모()를 쫓는 구멍이다. 흥(興)은 모를 구멍에 쫓아 일으켜 세웠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이상 말한 것을 정리하면, 모흥혈은 춘분 마지굿을 할 때 모를 쫓아 세우는 구멍이다.

그러므로 고 양부 세 사람이 모를 쫓아 놓고 쇠꼬리 춤을 춘 곳이 모흥혈이 되는 것이다.

세 처녀는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를 찾아 온 '마고삼신'의 후예임을 상징한다. 아마 세 처녀가 가지고 온 것에 종자 이외에 마고의 신표인 '천부삼인'과 '해혹복본'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은 기록에는 아니 나오나 이 고장 무가사설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고장 무가사설에 "할로(漢拏) 영주(瀛洲) 삼신산(三神山) 상상고고리(上峰) ..."

라는 대목 이 있다.

무가에서 한라산을 영주 삼신산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이 고장에서 하는 영등제는 2월 바람으로 오는 마고삼신을 마지하는 마지굿이다.

영등제에 오는 마고삼신은 어디에서나 두 딸을 데리고 나타난다. 이들이 삼신이기 때문에 마고와 궁희와 소희가 함께 오는 것이다.

다섯번째는, 일본국과 벽랑국에 대한 해석이다. 일본국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은 붓장난이다.

탐라나 영주에 걸맞지 않은 상대가 일본국이라는 말이다. 오늘날의 제주가 탐랑성과 마고삼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후세의 사가가 제주의 역사를 폄하하기 위하여 붓장난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벽랑국은 '바다나라'라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해석 된다.

제주무가에 나오는 할로 영주 삼신산인 제주도 한라산, 민족의 영산이다.

마고가 보낸 삼신은 삼신신앙의 선교사

마고는 왜 삼신을 '할로 영주 삼신산'에 보낸 것일까? 그 이유는 삼신신앙의 전파에 있었지 않나 한다. 모흥혈에서 삼신신앙의 흔적을 유추할 수 있는데, 모흥혈에서 남삼신과 여삼신을 '할로 영주'의 시조로 모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마고는 선교사로 떠나는 삼신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보냈다. 그 하나가 북두칠성과 해와 달을 신체로 모신 '천부삼인(天符三印)'이고, 다른 하나가 삼신시대의 삼신신앙의 교리인 '해혹복본(解惑復本)'이다.

삼신들이 곳곳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해혹복본'을 교리로 하는 삼신 신앙과 칠성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동이(東夷)가 마고할머니가 가르친 '해혹복본'의 보호막 안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다.

기러기로 둔갑한 오리

전통혼례 때 보면 북두칠성이 뜨기 시작하는 초저녁에 혼례婚禮를 시작한다. 저녁에 결혼의례를 치르므로 혼례라고 하는 것이다. 북두칠성이 뜨는 시각에 혼례를 올린다고 하여 이 혼례를 초례醮禮라고 한다. 이때 <기러기>아비라는 사람이 기러기 한 마리를 붉은 보자기에 싸서 들고 신랑을 뒤에 세우고 신부 집에 도착한다. "기러기는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짝의 연분을 지킨다고 하여, 신랑이 백년해로百年偕老 서약의 징표로서 신부 어머니에게 바친다"고 하나, 이 말은 그럴 듯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오리가 기러기로 둔갑을 한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기러기아비가 신부집에 기러기를 모시고 가는 것"은 기러기가 마고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러기아비가 모시고 가는 것"은 기러기여서는 아니 되고 오리여야만 한다. 따라서 이 말을 바꾸면, "오리아비가 신부집에 오리를 모시고 가는 것은 오리가 마고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옛날에 마고가 보낸 삼신을 모시고 간 사자의 역할을 지금도 오리아비가 대를 이어 하고 14000년 동안 해 오고있는 것이다."

집안에서 오리아비로부터 오리를 받는 사람은 신부의 어머니이다. 신랑집에서 신부의 어머니를 마고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의식이 바로 오리를 전달하는 의식이다. 마고를 기억하고 숭상하자 하는 전통이 오리를 매개로 하여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 의례를 전안례奠雁禮라고 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는 말이므로 정체성을 살리는 말인 전압례奠鴨禮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압鴨자를 여종 또는 하비下婢의 뜻으로 함께 쓰고 있고, 안雁자를 가짜 모조품이라는 의미로 함께 쓰고 있는 것을 보면, 혼례와 관련하여 문자에 무엇인가 의미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역사에서 보면 전시대의 문자의 의미가 후대에 와서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변혁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임금시尸자가 시체시尸자로 둔갑을 한 예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시자는 원래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문자로 치우천왕시대만 해도 치우천왕을 의미하는 임금이라는 문자로 쓰였다.

그러나 황제가 치우천왕을 죽이고 중원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 기가 막힌 멋진 문자는 시체시자로 의미가 바뀌고 말았다.

마고삼신에게서 나온 삼신사상

영주로 시집온 마고삼신은 요즈음 말로 삼신종교의 선교사였다. 이들은 오리를 앞세워 어디든지 바람처럼 파고들었다. 이것이 지금도 마을 입구에 서있는 솟대의 유래이다. 마고삼신은 무엇을 이 땅에 전파하고자 이 땅에 아리따운 처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일까? 이는 천주교가 성모 마리아를 내세워 전 세계를 상대로 포교를 해 온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마고가 성모 마리아로 변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성모 마리아의 모델이 바로 마고가 된다. 마고의 원형상징이 마리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고삼신은 무엇을 전파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것은 지상에 생겨난 어떠한 종교도 깰 수 없는 <천부삼인天符三印>과 <해혹복본解惑復本>이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원형原形의 교리敎理였던 것이다.

서울마고' 에 대하여

노중평

1 마고의 의미

‘서울문학’의 제호를 ‘서울마고’로 바꾸는데 있어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마고’를 초기백제시대의 남제南齊의 표현으로 하면 ‘고마固麻’이고, 또 초기 백제의 표기로 하면, ‘곰’이다. 서울의 표기가 초기백제 당시의 국제어로는 ‘고마’, 백제어로는 ‘곰’이 되는 것이다. ‘고마’나 ‘곰’의 어원은 마고麻姑이다.

마고는 한중일韓中日 삼국이 모두 공유하는 구원의 여인상이다. 적어도 아시아 대륙에서 우리의 선조인 풍이족風夷族이 한국족(東夷)

族)과 중국족(夏華族)과 일본족(倭族)으로 분화하기 전 까지는 마고를 인류 최고의 조상, 문명인의 조상, 구원의 여인상으로 공유하였다. 그러나 풍이족이 구려족九黎族으로 불리던 시대에 구려족에서 하화족이 분화해 나가면서, 이들은 마고를 금모낭낭金母娘으로 부르다가 서왕모西王母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단군조선이 진나라에게 진시황 8년에 멸망하면서 1차로 일본 땅으로 흘러들어간 사람들과 2차로 가야제국이 멸망하면서 일본 땅으로 흘러들어간 사람들이 마고를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는 단군조선시대나 가야제국시대의 우리 고어로 볼 수 있는 말인데, 아마테라스를 한자(한자는 고유한 우리문자이다)로 바꾸어 쓰면 阿麻洞窟宿이 된다. 이를 풀이하면, 阿는 나라의 도움지나 임금의 무덤으로, 麻麻는 마고로, 洞窟은 절로, 宿은 별로 볼 수 있다. 이 말을 하나로 엮으면 ‘마고를 모신 동굴무덤을 비추는 별’ 이 된다.

천문에서 마고와 동일시되는 별은 베가성으로 불리는 직녀성이다. 베가성이란 서양사람의 말이 아니라 풍이족시대에 우리 조상이 쓰던 말로 ‘베를 짜는 집안 여자별’ 이라는 뜻이다. 이 말을 한자화 하여 직녀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테라스는 직녀성으로 풀이가 되는 말이라고 하겠다.

우리 조상은 상고시대에 절이나 사찰로 불리는 절을 짓기 전에는 동굴을 절로 하였다. 그러므로 굴과 절은 같은 말로 볼 수 있다. 지금도 곰굴이나 범굴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데, 곰굴은 모신(할머니 신) 즉 여신에게 제사지내던 절이었고, 범굴은 남신(할아버지신)에게 제사지내던 절이었다. 지금도 종교인들이 토굴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토굴이 태초의 절이었기 때문에 이 태초의 절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2 역사적 사실

마고는 우리의 시조이고 문명의 창시자

① 우리 신화와 역사 기록에 麻姑가 처음 등장하는 때는 신라 내물왕(奈勿王) 때이다. 당시의 재상 朴堤上(363-419?)이 정심록澄心錄 15誌를 지었는데, 5誌 부도지符都誌에 인류문명인의 시조로 나온다.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마고가 등장하는 때가 지구의 운동으로歲差運動으로 지구가 뒤집어져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던 때라고 한다. 혹은 해성과의 충돌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도 한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14,000년 전으로, 대빙하기의 말기의 혹독한 추위가 걷히어 가던 때이다.

이때 남태평양 상에서 무 대륙이 침몰하고, 대서양에서 아틀란티스가 침몰했는데, 무 대륙 침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 대륙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마고로 유추할 수 있고, 아틀란티스 침몰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틀란티스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멜키세덱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마고는 인도 등 동남아시아의 사원에 보관되어 있는 토판에 채기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멜키세덱은 구약성서 창세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 자’ 로 기록이 되어 있다.

② <부도지>에 따르면, 인류의 조상 마고는 두 딸 궁희와 소희를 낳았고, 궁희에게서 청궁과 황궁이 태어나고, 소희에게서 백소와 흑소가 태어난다.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원시인이 아닌 문명인으로 불리는 인류는 이분들의 후손이 된다. 우리는 황궁의 후손으로, 황궁에게서 유인이 태어나고, 유인에게서 한인이 태어나고, 한인에게서 한웅이 태어나고, 한웅에게서 단군왕검이 태어난다. 마고에서부터 단군왕검까지의 역사가 1만년이다.

③ 이후로 마고에 대한 기록은 우리 역사 곳곳에 나온다. 마고는 태초의 하늘에서는 직녀성이고, 북두칠성에 좌정하여 곰으로 불린다. 큰곰별자리와 작은곰별자리가 이리하여 생긴다. 마고의 자손은 칠성의 자손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곰은 단군왕검 때에 와서 검은 변한다. 검은 곰이고 곰은 한자로 쓰면 고마固麻이다.

固麻는 풀어 쓰면 口자 안에古자를 써서 固자를 만들고 달리 麻자를 써서 만든 문자이다. 이 문자는 口자 안에 姑자르 넣어 만들어야 하는 문자인데, 女자를 띄어내어 麻자로 독립시킨 문자이다. 그러므로 女자와 麻자를 같은 뜻의 문자로 볼 수 있다. 이때의 麻자는 女를 의미하는 麻자이다. 女를 의미하는 麻자는 母자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女 麻 母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

④ 삼각산 기슭에 소서노와 온조 모자가 백제를 세울 때, 이곳을 한자로 위례성慰禮城이라고 하였다. 인수봉에 우레가 치므로 우례성이라고 한 것을 한자로 바꾸어 쓰다 보니 위례성이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표기는 그리스의 최고신 우라노스가 우레신이라는 점, 그의 아들 제우스가 제우스帝雨師로 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화학자들에 따르면 신화시대에 전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 있었고, 단 하나의 공용어인 인공언어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당시에 전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은 풍이족을 추축으로 한 한국桓國, 인공언어로 풍이족의 언어인 한국어桓國語가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우라노스나 제우스나 우례성은 모두 풍이문자의 변형문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⑤ 南齊史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북두칠성은 그 음이 백제어로 곰이다. 한자로 고마固麻로 풀어쓴다.

고마는 남제에서 부르던 백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남사백제전南史百濟傳」(「康熙字典」 부수-麻 1622쪽 國際文化出版公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남사는 南齊史이다.

百濟國號王所都城曰固麻邑曰檐魯如中國言郡縣也
백제국호왕소도성왈고마읍왕첨로여중국언군현야

백제의 국호는 왕이 머무르는 도성으로 하는데, 고마읍이라고 하고, 첨로라고도 하고, 중국말로 군현과 같다.

위 글에서 고마固麻는 우리글 곶을 한자로 바꾸기 위하여 고마로 풀어 쓴 것이다. 이글은 백제의 도성이 ‘곶’으로 불렸다는 증거이다. 첨로檐魯의 ‘첨’은 단군왕검의 검儉과 같은 뜻으로 쓴 말이다. 두 말 다 ‘처음’이라는 뜻이다. 이들 문자는 모두 다 마고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 말의 중요한 점은 마고를 계승한 조선과 백제가 국조國祖를 마고로 하였다는 점이다.

곶이 다시 한자화 하여 웅진熊津이라는 지명이 생긴다. 웅진은 곶나루(지금의 公州)의 한자화이다. 마고는 지방마다 사당을 지어 모시는데, 이 사당을 할미당 또는 삼신당이라고 하였다. 할미는 한어머니라는 뜻이다.

고마를 처음 쓰기 시작한 때는 소서노와 그의 아들 온조가 하북 위례성을 세웠을 때이다. 하북 위례성을 北漢이라고 하였는데, 北漢은 廣州의 옛 이름이다. 하북 위례성의 백제 이름이 우리말로 곶이고, 한자음으로 固麻라고 썼다. 하북 위례성의 중심에 마고사당麻姑祠堂을 지어 좌정시키고 이를 곶 즉 固麻라고 했으므로 국도의 이름이 된 것이다.

⑥ 고려시대의 기록은 좀더 확실하다. <高麗史36卷-世家36-忠惠王>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戊辰宰相會百官及國老欲署名呈省書國老多不至事
竟未就王傳車疾驅艱楚萬狀未
至揭陽丙子薨于岳陽縣. 或云遇 或云食橘而
國人聞之莫有悲之者小民至有欣躍以爲復見更生之日.
初宮中及道路歌曰:"阿也麻古之那從今去何時來?" 至是人解之曰:"岳陽亡故之難今日去何時還?"
王在位前後六年壽三十.

무진일, 재상들이 백관들과 나라의 원로들을 소집하여 원나라 중서성에 제출할 서한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나라의 원로들 대부분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성사하지 못하였다.

왕(원에 납치되어 후에 살해당하게 되는 충혜왕)은 전거傳車(역마)에 실려서 급히 달려가는 도중에 천신만고를 겪으며 계양까지 가지 못하고 병자일에 악양현에서 죽었다. 혹은 “독살되었다” 하고, 혹은 “굴에 중독되어 죽었다” 고도 하는데, 본국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가난한 백성들은 기뻐 날뛰면서 이제 다시 갱생할 날을 보게 되었다고까지 말하였다.(주, 이 글은 친원파親元波의 기록을 조선 초기에 고려사를 편찬하는 사람들이 다시 펴낸 글이므로 왜곡되고 훼손된 글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음에 궁중과 향간에서 노래가 유행되기를, “아아 마고지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라고 하였다. 왕은 전후하여 재위 6년이며 수명 30세이었다.

⑦ 古韓語 연구자들은 우리 말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에 쓰이는 고마가 마고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 ‘神 같다’는 표현으로 썼는데, 오늘날 ‘고맙’다는 표현으로 의미가 바뀌었다고 한다. ‘곶 같다’ → ‘검 같다’ → ‘신 같다’로 보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神을 かみ라고 한다. か미는 우리 말 검(神)의 일본어화이다.

우리말의 ‘곶삭았다’는 말은 ‘무르익었다’는 말인데, 곶처럼 되었다는 말, 단군신화에서 곶이 쑥과 마늘을 먹으며 인내하여 여자로 환골탈퇴換骨脫退할 때가 되었다는 뜻에서 왔다고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곶곶히’라는 말도 곶+곶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곶곶히’라는 말에는 ‘인내하며 차근차근 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역시 단군신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⑧ 우리 음악의 고유한 이름을 매를라고 한다. 매는 북두칠성에 소속한 별이다. 매를 친다, 두드린다는 의미가 있다. 두드린다는 ‘두(북두칠성)에 드린다’는 의미이다. 곶에게 드린다는 뜻이기도 한다. 곶은 검이다. 검에게 드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신에게 드린다는 뜻이 된다. 매는 신의 의미로 쓰는 마고에서 나온 것이다. music은 마고에서 온 것으로 본다.

⑨ 엄마의 마나 어머니의 머는 마고에서 온 것으로 본다. 따라서 母가 麻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

3 이 시대에 마고를 되살려야 하는 이유

중국의 한국역사 중국사편입연구와 관련하여

① 현재 중국은 5년에 걸쳐 200위엔(우리돈 3조원)을 투입하여 한국의 강단사학의 연구성과물을 수거하여 조선족 역사 학자를 주축으로 한 <한국 고구려사 중국사 편입을 위한 연구>를 서두르고 있고, 고구려 유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바, 이를 <東北工程>(동

북아프로젝트)라고 한다.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면, 우리의 역사는 중국의 변방역사로 전락하게 되는데, 한국을 중국의 속국, 변방국가로 자리매김을 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② 중국은 앞으로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북공정>은 이때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북한지역을 중국화 하려는 음모를 노출하는 것으로, 북한이 고구려를 계승하였고, 고구려를 계승한 북한이 멸망하였으므로, 북한 땅은 당연히 고구려의 역사를 귀속한 중국에 속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게 될 것인 바, 정부나 국민 모두가 이때를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③ 마고는 우리의 시조로 조선, 고구려, 백제, 고려를 통하여 그 맥이 이어져 오고 있으므로, 마고의 역사를 복원해야만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논리의 구축이 가능해진다.

마고의 변음인 곱이나 고마를 처음 쓴 사람이 소서노召西弩이다. 그는 마고신앙인 할미신앙 즉 삼신신앙을 후손에게 남겨준 사람으로, 고주몽을 도와서 고구려를 세웠고, 그의 아들 온조를 도와서 백제를 세웠다. 인류 역사에서 한 여자가 두 나라를 세운 예는 동서고금에 없다.

우리가 이 위대한 소서노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로 편입하고자 했을 때, 대항논리의 중심에 소서노가 서있으므로, 소서노를 대한문학의 신으로 영신한 문학인들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역사와 조상에게 충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소서노가 처음 세운 백제의 도성 이름의 어원이 되는 마고를 우리가 서울문학에 씌움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학인들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④ 아울러 마고상을 남산에 있는 <문학인의 집>이나, 국도 서울의 주산인 삼각산 자락에 현신하게 하여 우리 역사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⑤ 문화민족은 각 민족이 국민적 사표가 될만한 구원의 여인상을 가지고 있는바, 중국의 서왕모, 일본의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유태인의 마리아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시조 마고를 우리 구원의 여인상으로 내세움으로써 정신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취약한 이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혼 - 천문의 정체성
밤하늘엔 고조선의 별들이 총총

노 중 평

한글 학자인 한 갑수 선생이 밝힌 바에 따르면 1971년 당시 이태리 정부의 초청으로 로마에 가서, 세계적인 석학인 자코모 박사로부터 ‘숫대’를 비롯한 11가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설명해 주자 2시간이나 감격하여 눈물을 흘린 후,
“코리아, 당신의 나라가 세계에서 단독으로 최고 선진국입니다. 왜냐 하면 당신의 나라가 확실히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절대자를 모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희랍 사람이 아니라 한국이 단독으로 제일 선진국

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나의 학설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 조상은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절대자 하느님을 알려 주기 4천년 전(BC 4000)에 절대자 하느님을 먼저 알고 있었으며, 고대 이집트인보다 2세기 반에서 2세기 전에 황하 연안에서 인류문명을 싹 틔웠다. 음력을 BC 2357년에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1/100의 오차도 없어 수정한 적이 없었다. 자코모 박사는 그 당시에 황하 유역엔 중국사람들 즉 지나족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지나의 금문학자 낙빈기도 동이족이 동양에서 최초로 나라를 세웠다고 그가 쓴 금문신고에서 말했다.

우리 민족이 유일신 하느님을 모셨다는 것은 고대에 천문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다. 천문을 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있는 유일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전해오는 동양의 천문도는 대체로 진한(秦漢) 시대에 완성한 천문도이다. 그러니까 한족이 중원에서 동이족을 중원 밖으로 몰아내고 우리 조상이 만든 천문도를 제멋대로 뜯어 고친 천문도라는 말이다.

고대 천문은 하늘이 자미원(紫微垣) 태미원(太微垣) 신시원(神市垣)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태미원은 우주의 중심이 되는 북쪽의 하늘이다. 태미원은 자미원 밖에 있는 은하수가 흘러가는 하늘이고, 신시원은 은하수 밖의 하늘이다.

우리 조상은 자미원의 중심이 되는 별자리인 북극오성(北極五星: 작은곰별자리)에 우리 역사를 기록했다. 한인천제, 한웅천왕, 단군왕검, 웅녀의 역사를 별자리로 표시하였다. 서쪽 하늘에서부터 동쪽하늘을 향하여 북극성, 황후(皇后)성, 서자(庶子)성, 천제(天帝)성, 태자(太子)성이 일자로 서 있는데, 북극성을 천추(天樞)성 즉 하느님으로 표시하고, 이어서 단군신화에 나오는 한인천제, 한웅천왕, 단군왕검, 웅녀 네 분을 각 별의 신명에 올린 것이다. 그래서 서자한웅은 서자성에, 한인천제는 천제성에, 태자 단군왕검은 태자성에, 웅녀는 황후성에 맞는다.

한단고기 삼한관경본기(三韓管境本紀)에 보면 ‘단군조선을 진국(辰國)이라고 한다. 진국은 하늘에서는 태자성이 있는 북극오성을 말한다. 진(辰)은 북극성 또는 대화성(大火星)이므로 진국은 북극성 즉 천추성의 나라라는 뜻이다. 단군조선은 변조선(番朝鮮: 番韓)과 막조선(莫朝鮮: 莫韓)을 좌우에 거느리고 있는데 변조선은 진국을 호위하는 나라라는 뜻이요, 막조선은 변조선과 막상막하의 실력이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이들 세 나라를 자미원에서 찾아보면 북극오성의 천추성(북극성)의 왼쪽에 좌추(左樞: 여덟 개의 별자리를 구성한다)가 있고, 오른쪽에 우추(右樞: 7개의 별자리를 구성한다)가 있다. 진국이 천추성에 해당하므로 변조선은 좌추에 해당하고 막조선은 우추

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자미원 하늘엔 고조선(진국, 삼한시대에 오면 진한이 된다)의 별이 중심에 있고, 그 왼쪽 자미원에 변조선(변한, 삼한시대에 오면 변한이 된다)의 별이 있고 오른쪽 자미원에 막조선(막한, 삼한시대에 오면 마한이 된다)의 별이 있는 것이다. 좌추, 우추가 하는 일은 천추를 둘러싸서 호위하는 일이다. 이들 별자리는 두 팔을 벌린 듯 북극오성을 감싸고 있다. 좌추와 우추는 승이라는 별자리에서 끝나는데 이들 별자리가 끝나는 곳에 오제좌(五帝座)로 불리는 제좌성(帝坐星)이 있다. 한인의 시대에 한인천제가 오가(五加)를 다스리셨고 단군도 오가를 두었으므로 오제좌 즉 제좌성은 바로 오가를 다스리신 한인, 한웅, 단군왕검의 자리라고 할 것이다.

좌추에는 상제(上帝), 필(畢), 상보(上輔), 소보(少輔), 상위(上尉), 소위(少尉), 승(丞)의 별들이 있고, 우추에는 소위(少尉), 상보(上輔), 소보(少輔), 상위(上尉), 소위(少尉), 승(丞)의 별자리가 있다. 이들 관직명은 고대 우리 조상이 가지고 있던 관직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고대에 우리가 중원에 나라를 세우고 최초로 천문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천문도에 이러한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1993년 지나 사회과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순시아오천의 ‘한대(漢代)의 중국 하늘 연구’에 보면 한대 이전의 고대 하늘에 대하여는 전혀 연구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족의 역사가 우리 고대사를 말살해 왔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싶어도 우리처럼 한단고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박사 학위 논문에서조차도 동이족의 별들에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순시아천은 한대 별자리의 기원을 황제(黃帝)에 두고 있는데 우리 선조가 황제 이전에 천문을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연구가 시작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다. 황제는 천문도에 보면 현원성(軒轅星)으로 나타나는데 황제는 우주의 중심인 자미원에 들지 못하고 28수의 남방 주작칠수에 속한 유성(柳星), 성성(星), 장성(張星), 익성(翼星) 사이에 16 개의 별자리로 구성되어 자미원 밖인 황도 위쪽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황제는 하늘에서는 크게 대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현원성이 혹시 치우성이 아닐까 하고 의심한다. 의심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지면 관계로 이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우리는 지금부터 5,6천 년 전의 별자리를 연구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별자리를 찾아내야 한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과 잃어버린 역사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5,6천 년 전

의 역사를 복원해 내지 못하면 우리의 역사는 머리 없는 시체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아무 의식 없이 돈 벌 궁리나 하며 머리 없는 역사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다. 끔찍한 일이다. 이러면 서도 과연 나라가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단기 4340년 춘분날 14시 18분에 부암동 산에서 天祭를 지내다

노중평

유승구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번 춘분날이 2007년 2월 4일(단기4340년 설달 17일)인데 부암동付岩洞 산에서 천제天祭를 지내기로 하였으니 와 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춘분 날 천제를 지내고 나서 <시민당>을 창당하였는데 이번 춘분날 천제를 지내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유승구씨의 생각이었다. 나는 <시민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가장 큰 제사인 '삼성제례'를 강북구에서 기획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한 바가 있음으로 이제 고고의 성을 지르며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아니 되어 나이가 일천한 <시민당>이 다른 당에서 지내지 않는 천제天祭라 조상님들이 내게 내리는 명령으로 알고 참가하기로 하였다.

춘분에 드는 시각은 14시 18분이다. 이날 28수에 속한 동방창룡7수의 첫째 별자리인 각수角宿에 태양이 들어 춘분의 기가 발생한다. 춘추전국시대의 천문서인 <태현경太玄經>에 춘분의 기氣를 이夷라고 하였다. 이夷가 원래 각수임도 <태현경>에서 밝혀주고 있다. 그럼으로 단군조선시대에 우리 조상의 인종명칭을 동이족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춘분의 기에서 처음 나온 인종이라는 의미로 썼던 말이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을 춘분의 기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민족은 없었다. 이후로 동이족에서 갈라져 나가 화하족華夏族(夏華族)을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족夏族이라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夏가 夷(角)에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이 당에게 멸망한 이후에 우리 선조는 스스로를 낮추어 동생인 하족夏族을 숭상하여 소중화小中華라고 하였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작년에 천제를 지냈던 멤버들을 지하철 경복궁 3번 출구에서 만났다. 부암동 현장에 도착하려니 마침 춘분날이라 절에 온 사람들이 타고 온 자가용 승용차들이 산길 길가에 줄줄이 서있다. 현장에는 이미 제상이 마련되어 있었다. 오곡이 준비되어 있고, 백병을 원형질시루에 찌고 팔떡을 네모형철시루에 찌고 북어를 삼각형의 형상을 만들어 쌓아 놓았다. 제단에 천지인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외에 사과 배 굴 밤 대추가 준비되어 있다.

천제상의 오른쪽에는 거리를 멀리 두고 왼쪽에 산신상, 오른쪽에 조상상을 준비하였다. 제를 지내기 전에

미리 산신과 조상에게 참가자 각자 잔을 올리고 각각 3배씩 절을 하였다.
드디어 국민의례를 하고 제사로 들어갔다. 제사의 순서를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日時：檀紀4340年 12월 17日 (西紀 2007年 2月4日) 14時18分

場所：百濟古都 漢城 서울 鐘路區 付岩洞 山

-에서 시민당 춘분마지천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三神天祭笏記

執祭官：三神天祭를 올리겠습니다 (捧行 三神天祭)

먼저 參加者 모두 三拜하겠습니다. (皆 三拜)

이현명 박사님은 天符經을 奉讀하십시오. (奉讀 天符經)

① 初獻官(최용기) 尊香禮를 하겠습니다. (行 初獻官 尊香禮)

初獻官은 香을 올리시오 (執 初獻官 香禮)

三獻官 三拜하고 일어나시오 (三獻官 三拜 興 平身)

② 初獻官 祝典禮를 올리겠습니다 (行 初獻官 祝典禮)

初獻官 무릎을 꿇고 祝文을 읽으시오 (初獻官 跪讀祝)

三獻官은 三拜하고 일어나시오 (三獻官 三拜 興 平身)

③ 三獻官 獻爵禮를 올리겠습니다 (行 三獻官 獻爵禮)

初獻官은 獻爵하십시오 (行 初獻官 獻爵)

亞獻官은 獻爵하십시오 (行 亞獻官 獻爵)

終獻官은 獻爵하십시오 (行 終獻官 獻爵)

④ 三獻官 三拜하겠습니다.

三獻官 三拜하고 일어나시오 (三獻官 三拜 興 平身)

⑤ 祝典禮를 올리겠습니다 (行 大祝禮)

大祝(亞獻-고준환)은 出師表를 봉독하십시오 (大祝 奉讀 出師表)

大祝은 三拜하고 일어나시오(大祝 三拜 興 平身)

⑥ 飲福禮를 올리겠습니다 (行 飲福禮)

初獻官은 무릎을 꿇고 앉아 飲福하십시오

(初獻官 跪 受爵受俎 飲福)

⑦ 望□禮를 올리겠습니다

三獻官 이외의 분들이 三人 씩 獻爵하고 三拜하겠습니다

(三人合同 獻爵 三拜)

모두 허리를 굽혀 3번 절하고 일어나시오 (各位 鞠躬 三拜 興 平身)

饌을 거두시오 (撤饌)

이상으로 檀紀 4340年 西紀 2007年 춘분마지 市民黨 天祭를 마치겠습니다.

천제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제단 앞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하다가 헤어졌다. 국가나 개인이
나 다 화합하고 잘 되기를 축원한다.

역사천문학회와 歷史人智學

노중평

2007. 1. 23. 아침에 을지로 3가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정모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몇 번 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기도 하여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생각을 했던 분의 전화였다. 사무실에서 상고역사 강좌를 열자는 것이었다. 그는 그의 사무실에서는 토요일 오후에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컴퓨터동호회를 열고 있었다. 내가 맡고 있는 역사천문학회와 정 사장의 지인들이 함께 공부를 시작한다면 모임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역사를 연구하거나 공부하는데 3가지 갈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지금까지 학자들이 답습해온 [역사지굴학歷史地掘學]이다. 문자 그대로 땅을 파서 유물이 나와야만 역사로 인정하는 편협한 학문이 [역사지굴학]이다. 유물이 발굴되지 않으면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10년 전에 몇몇 사람이 〈한단고기〉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한단고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땅을 파서 역사자료를 찾는 [역사지굴학]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그래서 〈한단고기〉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을 찾아야 하였는데 그 결과로 [역사천문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몇 사람이 중국의 태백산· 탁록· 천수· 보계· 천산을 돌고 와서 인사동에 있는 사단법인 한배달 사무실에서 *역사천문학회를 결성하였다. 하늘에서 상고시대 역사를 찾자는 것이 취지였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회원들이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나는 이 기간 동안 20여 권의 책을 극소량을 만들어 출판하였다.

정 사장은 내가 쓴 〈사라진 역사 1만년〉을 여러 권 복사하였다. 〈사라진 역사 1만년〉은 〈주역〉의 효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상고사로 풀어낸 그야 말마따나 황당한 책이었다. 정 사장은 〈주역〉을 이렇게도 볼 수 있

구나하는 말을 하였다. 그의 지인 몇 사람이 〈사라진 역사 1만년〉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한다는 말을 내게 한 적이 있었다. 〈사라진 역사 1만년〉 이외에도 역사천문 관련 서적으로 〈고조선의 역사천문〉, 〈일본의 신도와 마쓰리〉, 〈고조선사람의 근원적 사유〉, 〈고조선의 종교혁명〉이라는 책을 역시 극소량을 써서 대형서점에 올린바 있다.

상고시대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역사지굴학], [역사천문학]을 섭렵했으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역사인지학]을 생각하고 있다. [역사인지학]은 인간에게서 상고시대 역사를 찾자고 붙인 학문 이름이다.

“아니, 인간에게서 어떻게 상고시대 역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과 집단무의식과 접신을 통한 계시에서 사라진 역사가 추론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무당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 취재한 것을 분석하고 추론하여 상고시대 역사를 꼬집어내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한웅천왕과 접신이 되는 사람과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는 그가 접하게 된 마고 지나시대의 언어에 대하여 말하기도 하였다.

요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접신하여 체험한 것을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예컨대, “天地人三神中에 人有最靈하사 數千年於上帝하고 誕血於父母라” 이러한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살려내는 해석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역사를 살려내지 못하는 해석이 되기도 한다.

*역사천문학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역사천문으로부터 일구어 낸 성과를 [역사인지학]의 밑거름이 되게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시대에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있게 마련인데, 박정희시대의 새마을정신과 같은 것이 그러한 것이다. 새마을정신은 누구나 잘 살기를 제창했던 경제정신이다. 요즘은 문화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문화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퇴보에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퇴보가 시대정신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문화퇴보의 시대에 역으로 [역사인지학]을 제창하고 담론으로 삼는 것이 무익하고 고루한 일은 아닐 것이다.

격암 선생

노중평

격암 선생을 알면
우리 조상의 천문을 알게 되고
우리 조상의 역사를 알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
그래서 선생은 不知야 不知
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선생의 철학과 사상을
슬쩍 넘겨다보았네.

공자와 맹자와 성리학을 찾던 시대에
선생은 그런 것을 외양간에 던져주고
소 울음소리나 들어보라고 하셨지

이제 선생님이 내게 가서 살라고 하신
沈谷洞에 와서 보니 허접 쓰레기만 있고
외양간은 단 한군데도 없는데
어디에 가서 외양간을 찾지?

외양간 하나 주시든가
선생님이 감추어 두신
소 한 마리 달라고 기도했지

牛鳴地가 있는 곳
福崇兒나무가 즐비하게 서있는 곳
桃符神人이 올 곳에 가보지 않겠나?

선생은 나를 끌고 소래에 가서
전어구이에 소주나 한 잔
하자고 하시더군.

때가 오면 그가 타시던
소 한 마리 물려주겠다고 하시면서.

2007

希望

한국 무속과 시대의 흐름을 읽는 문화 코드 한국의사머니즘

황금돼지해 복 많이 받으세요
꿈해몽과 굿/공연 게시판
새롭게 선보이니
상담의 문을 두드리세요.



한국의사머니즘과
컬쳐뉴스문화21의 고문이신
고담 노중평선생님의
역사천문학회 회장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꿈해몽 상담

Q. 예사롭지 않은 꿈, 꿈풀이가
궁금하다면 상담의 문을 ...

꿈해몽 GO!



굿/공연 문의

Q. 굿에 대한 궁금증, 굿공연
무속제례를 문의하시려면...

굿상담 GO!



- 한국의 사머니즘 배상 -



팔도명산의 첫째인 삼각산에서 역사천문학회회원들이 칠석제를 지내고 있다.

〈천부경〉의 一析三極 논리에서 나온 한양거리 산신마지에서 거성

노중평

앞으로 무교대학이 설립되면 교수진으로 편성될 몇 분이 의정부에 있는 ‘신의 소리 무속대학원’을 찾았다. 이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는데, 금년 첫 주인 지난주 1월 3일에 제기동 (사) 한국설화신화토속문화진흥협회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이번에는 의정부에 있는 ‘신의 소리’ 무속대학원(송영수 이사장)에서 실기교육을 참관하기로 한 것이다. ‘신의소리’ 무속대학원에 도착하니, 선생님과 학생들이 참관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교육을 시작하였다.

♣ 6명의 여무들이 함께 무무巫舞를 실습하는데, 강사선생(여)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선생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었다. 강사선생이 시범을 마치고 장구 앞에 앉아 장구를 치고, 강사선생의 시범을 따라 하던 학생들이 선생이 보여준 시범을 기억했다가 그대로 따라한다. 초보학생들이 연습하기 때문에 미숙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의미전달은 가능하였다.

복장은 홍철릭을 입고 홍갓을 들고 있다.

♣ 춤은 우보牛步로 진행되었다. 먼저 왼쪽으로 왼발이 앞으로 나가 한발 내딛고 오른발을 살짝 갖다 붙인다, 이렇게 하는 것을 소당이라고 한다. 다시 뒤로 일보 물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 오른 발이 앞으로 한발 내딛고 왼발을 갖다 붙인다. 이렇게 하는 것을 육당이라고 한다. 다시 한발 뒤로 물렀다가 가운데로 일보 나갔다가 뒤로 물린다. 이렇게 하는 것을 중당이라고 한다. 이렇게 3보를 전진후퇴로 움직이고 나서 역행(반시계방향)으로 1회전한다. 전진 후퇴할 때는 양팔을 귀중한 신찬神饌을 조심스럽게 받들고 앞으로 나가는 자세를 취한다. 회전할 때는 왼팔을 약간 구부려 펴고 오른 팔을 들어 올려 7자 형상을 만든다. 신맛이를 하기 위한 예비동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거성한다고 한다.

전진할 때마다 이름이 붙여지는 소당·육당·중당의 삼당에 대하여 이해가 필요하다. 통상 신찬으로 육식이 아닌 소식을 바치는 곳을 소당이라고 하고, 소식이 아닌 육식을 바치는 곳을 육당이라고 하고, 소식 육식을 다 바치는 곳을 중당이라고 한다. 어떤 신찬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소당 육당 중당으로 나뉘는 것이다.

주 : 이 3당에는 상고시대의 역사가 숨어 있다. 소당은 소당기蘇堂旗로 대표되는 소도신당蘇塗神堂의 줄임말이고, 육당은 피를 필요로 하는 육당肉堂으로 육정육갑신당六丁六甲神堂의 줄임말(六堂)이고, 중당은 나라에서 관장하는 한양의 중심에 있는 국도당國都堂을 일컫는다.

* 소도당은 ‘소도에 세운 신당’이라는 뜻인데, 소蘇자에 신찬으로 바치는 물고기와 나물과 쌀·메가 표시되어 있다.

* 육당六堂은 육당肉堂이다. 천신군대天神軍隊인 육정육갑신을 부리는 장수인 군웅신·장군신들이 대접을 받는 곳이다. 군웅신이나 장군신이 있는 산봉우리를 장군산봉우리라고 하고 이분들이 관장하는 서낭이 있다.

* 중당中堂은 소당과 육당의 가운데에 있는 도당이라는 뜻이다. 도당은 국도인 한양의 중심에 세운 당집이다. 원래 한양의 도당은 대궐에서 관장하여 운영하는 곳이다. 조선왕조 때 왕십리 밖에 있었던 수풀당과 같은 서낭이 대궐에서 관리했던 도당이다. 백제에서 한성백제를 세울 때 한성의 행정구역을 오행에 맞추어 5구역으로 나누고 마고의 신상을 5장소에 모시는 데에서 도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한성의 이름을 고마라고 하였다. 고마는 곶 즉 마고여신이라는 뜻이다. 임금이 출정을 할 때 임금의 지휘기인 독纛을 세우고 출정식을 하던 곳을 독실이라고 한다. 무당이 무명천으로 독을 복사한 독대를 만들어 군웅곳에 쓴다. 독대에는 왕명을 받아 산 희생제물을 타살한다는 의미가 있다. 임금이 천제天祭를 지낼 때는 이렇게 하였다. 오늘날 천제지낼 때 무당이 독대를 가지고 위엄을 세우는 일이 옛날에 임금을 천제지낼 때 하던 일을 그대로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 : 3당(왼쪽은 소당, 가운데는 중당, 오른쪽은 육당이다. 3당에 모시는 신들은 마지(환, 무신도)를 그려 모신다. 소당에는 천신인 칠성님, 대신 할머니, 용왕할아버지(용왕대신), 사해용왕, 용태부인, 불사할머니, 대신 할머니를 모신다. 이분들은 고기를 받지 않는 분들로 알려져 왔다. 중당에는 용신, 지신, 대신 할머니, 산신 할아버지(산왕대신)를 모신다. 대신 할머니는 소당에 모시지 않고 중당에 모시는 사람도 있다. 오방신장과 백마신장은 육당에 모신다. 그러나 백마신장은 천상계 신이므로 소당에 모시는 사람도 있다. (daum 홍민 blog)

거성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거성은 擧聖이라는 뜻이다. 성신聖神의 신명을 일으켜 세운다는 말이다. 거성의 운보법은 <천부경>의 일석삼극一析三極에서 나온 것이다. 그 형상은 마치 이집트의 음양 양성의 신 아툼(모든 물질의 근본이라는 뜻)이 들고 있는 원에 붙어 있는 3개의 앙크와(신성기하학에서 3을 의미) 같다. 1보 전진 1보 후퇴는 1로 나갔다가 원위치하여 0이 되는 디지털부호의 의미, 그리고 음양을 의미한다. 원은 생명이 태어나는 알을 의미하며 우주를 의미한다. 이는 마치 생성되는 쿼크처럼 보인다.

♣ 홍갓을 든 채 거성을 하고 나서 3배하고, 몸이 리듬을 타며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홍갓을 쓰고 짧은 갓끈은 턱에 매고 긴 갓끈은 매서 등 뒤로 넘긴다. 이어서 1회 거성을 하고 산신령님들을 청배하여 모셔 들인다.

황해도 철무리곳 산거리 사설에는 다음과 같은 사설이 있다.

팔도명산 신령님 / 육도당 육부군님 / 소태양 소부군님 / 산상도당님네 / 하강하여요

육도당은 한양곳의 육당과 같은 육당이고, 소태양은 한양곳의 소당과 같은 소당이고, 산상도당은 한양곳의 중당과 같은 중당이다. 이들 각 당의 주인인 소당신령 · 중당신령 · 육당신령의 신적인 위계는 무당이 거성을 하며 모셔 들이는 팔도명산신령과 같다. 육부군은 육산신령, 소부군님은 소산신령, 산상도당은 중당신령 즉 도당신령이다. 이분들이 하강하라고 청배한다.

팔도명산은 우리 국토가 한반도로 축소된 이후에 정해진 명산이다. 우리국토가 중원과 한반도를 포함한 대륙이었을 때는 모두 12명산이 있었다. 그러나 이 12명산이 어느 산인지 지금은 알 수 없다. 다만 불함산이 <산해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불함산 하나 만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함산은 단군왕검이 신선이 되었다는 아사달로 알려진 곳이다.

지금 12명산 산신령을 알 수 없으므로 한반도에 있는 팔도명산 산신령만을 찾아보기로 한다.

평안도 묘향산산신령 / 함경도 백두산산신령 / 황해도 구월산산신령 / 강원도 금강산산신령 / 충청도 계룡산산신령 / 전라도 지리산산신령 / 경상도 태백산산신령 / 제주도 한라산산신령 (김황룡씨는 제주도 한라산 산신령을 여장군님으로 구연하였다. 장군은 신령보다 위계가 한 단계 낮다)

김황룡과 유옥선 2분은 곳창곳 무가사설에서 산상부군신이라는 관직을 호칭하지 않고 신령님이라고만 호칭하였다.

주 : 산신각에는 산신도가 걸려 있는데, 산신도에는 ‘호랑이 1마리와 산신을 함께 그린 산신도’와 ‘호랑이 2마리가 산신의 좌우에 함께 있는 산신을 그린 산신도’의 2종류가 있다. 산신의 곁에는 동자가 1명 그려져 있거나, 부인 1명이 그려져 있거나, 부인 2명이 그려져 있다.

산신은 <산해경山海經>에서는 대인大人으로 불린다. 대인은 발이 큰 사람이라는 뜻이다. 배달나라시대에 배달나라를 다스리는 천왕天王的의 직에 있던 분들을 대인이라고 하였다. 이분들의 후손을 발족(發足-發族-발인 큰 인종)이라고 했는데, 발족을 달리 발인發人이라고 하였다. 관자管子는 발인을 동이東夷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인은 천왕을 의미하고 천왕의 백성을 발인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인은 동이족을 의미한다. 동이족은 대인이 천왕으로 호칭되던 시대에 구려족九黎族 또는 배달족倍達族이다.

산신도에 그려지는 호랑이는 백호이다. 백호는 서쪽과 금성金星을 의미한다. 하늘에서 천제天帝의 호위를 담당하는 별이 금성이다. 그러므로 산신도에 모셔진 산신이 금성의 호위를 받는 천제의 화신임을 알 수 있다. 천제의 화신은 곧 천자天子이다. 호랑이 2마리가 호위하는 대인, 즉 천제의 화신은 한웅천왕이고, 호랑이 1마리가 호위하는 대인도 천제의 화신인 단군왕검이다.

동자는 마고의 외동아들을 상징한다. 그를 막동이라고 한다. 막동이는 막동이邋東夷, 즉 마고에게서 태어난 동이족을 의미한다. 부인 1명은 한웅천왕의 부인인 매화부인, 즉 직녀이고, 부인 2명은 단군왕검의 2부인, 즉 웅심국왕의 딸인 웅녀熊女와 하백 부소갑의 딸인 하백녀河伯女이다.

한웅천왕과 단군왕검이 산신으로 모셔지는 이유는 한웅천왕이 태백진교를 창교創敎한 분이고, 단군왕검이 덕교를 창교한 분이기 때문에, 두 종교의 교조로 모셔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팔도명산에 모셔지는 산신령들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팔도명산에 모셔지는 산신령들은 그 고장에 처음 터를 잡은 인종의 우두머리이거나, 역사에 위인으로 남은 분들이다. 개성 덕물산에 모셔지는 최영장군과 같은 분이 위인에 속하는 분으로 볼 수 있다. 신령님을 청배할 때는 먼저 팔도강산 신령님을 청배한다. 이들 산신령님을 청배하면서, 가까운 산의 신령님을 함께 청배하겠다는 허락을 받아(이를 화해 받는다고 한다) 인근 산의 산신령을 함께 청배한다.

예컨대 황해도 구월산 산신령의 화해를 받아 인천 문학산에 수봉산신령과 응봉산신령을 하강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황해도 구월산 산신령의 화해를 받아, 강화도의 마리산 산신령과 김포·통진의 문수산 산신령을 하강하게 하는 것이다.(김황룡의 고창곳 산거리)

이렇게 하강하는 산신령에는 3종류가 있다. 첫째는 본산신령, 둘째는 먼산신령, 셋째는 본향신령이다. 본산신령은 무당이 직접 청배하여 모시는 천산·태백산·아사달의 산상부군신이고, 먼산신령은 팔도명산에 은거하는 팔도명산산상부군신이고, 본향신령은 고향을 하는 곳 부근 산에 은거하는 산신령이다. 산거리에서는 이런 분들을 모셔 들이는 것이다.

♣ 이때 방울과 부채를 들고 안당의 문꺼로 나가서 산신령들을 모셔 들인다. 방울을 울림은 울려(울림이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어 쓴 울림의 음차이다)를 만들어 내는 일이고, 부채를 부쳐 바람을 일으켜 산신령들보다 먼저 융풍融風에 실려 오시는 한인천제, 명서풍明庶風에 실려 오시는 한웅천왕, 청풍淸風에 실려 오시는 단군왕검을 모셔 들이는 일이다. 이분들의 뒤를 이어 단군조선시대에 정한 12명산의 신령들이 부채에 실려 오시고,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시대에 나라에서 정한 8도명산의 산신령이 실려 들어오신다.

단군조선 제11세 도해단군(재위 57년, BC1891~1835) 때인 경인원년(BC1891년)에 단제가 오가에 12 명산의 가장 뛰어난 곳을 골라서 국선國仙의 소도蘇塗를 설치하라고 명을 내린 바가 있다. 소도에 박달나무를 둘러 심고, 가장 큰 것을 골라 한웅천왕의 상으로 모시고, 여기에 제사지내며, 웅상雄常이라고 하였다. (〈한단고기〉 단군세기)

위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단군조선시대에 이미 12명산이 있었다. 그런데 그 12명산이 지금 어느 산인지 알 수 없다. 다만 불함산만은 그곳에 웅상을 모시는 소도를 설치하였으므로 12 명산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곳이 아사달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산상부군신의 위계를 정리해 보면, 1위가 천산·태백산·아사달에 근거를 둔 3위의 본산산상부군신(본산신령)이고, 다음 2위는 단군왕검시대에 12명산의 산신령으로 정해진 먼산산상부군신(먼산신령)이다. 3위는 고향을 하는 그 고장의 산신인 본향산상부군신이다.

12명산의 산신령은 도해단군 때 산상부군신으로 모셨던 분들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산상부군신은 배달나라 때에도 산상부군신으로 모셔졌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배달나라의 산상부군신이 단군조선에 전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부군신이 고향에 올 때 함께 들어오는 신들이 있다. 이들이 본산장군과 먼산장군·산천장 과 본향장군, 본향서낭님, 도당서낭님이다.

♣ 산신령님들을 모셔 들여 전물상 앞으로 가서 방울과 부채를 약간씩 흔들며 감응을 시켜 드린다. 전물상에는 시루 지화를 꽂은 시루 7개를 놓아 칠성님을 표시한다. 그 앞쪽에는 떡·나물·한과·과일 등을

차려 놓았다.

그러나 조선왕조시대에 와서, 사대주의와 타종교가 곳에 덧씌워져 곳은 본래의 모습이 많이 변질되었다. 불교와 도교가 과도하게 덧씌워져 있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 보기로 한다.

건곤이 개벽 후에 명제산천이 생겼구나 / 수미산이 제일이라 / 동악태산 / 남악화산 / 서악으로 금산이요 / 북악으로 형산이요 / 중앙으로 고산이라 / 산악지의 조종이요...(김황룡의 꽃창굿 산거리)

라고 한 것이다. 우리 팔도명산은 이들 산이 거론된 이후에 나온다. 불교의 수미산을 가운데에 두고 도교의 오악이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다. 이들 산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산들이다. 앞으로 불필요한 이러한 사설은 우리 곳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결론으로 강조할 것은 거성춤이 <천부경>의 ‘일석삼극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천부경>을 기억한다면 곳에서 보여주는 갖가지 기능에서 <천부경>에 근거를 두고 형상화되었음을 하나하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은영 중에 자신에게 실리게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본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신학적·철학적 논리로 무장된 무巫에 대한 자긍심일 것이다. 끝

♠표시는 ‘신의 소리 무속대학원’ 실습현장에서 견문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역사천문과 창덕궁’ 다큐멘터리 촬영

‘역사천문과 창덕궁’ 다큐멘터리 촬영

‘역사천문과 창덕궁’ 다큐멘터리 촬영

노중평

2006. 8. 16.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모 채널에서 북두칠성과 관련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전화였다. <유적에 나타난 북두칠성>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1997년에 출간한 이후로 만 9년 만에 TV쪽에서 보내온 첫 반응이었다.

나는 <유적에 나타난 북두칠성>을 출간한 이후에, <고조선의 역사천문>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상고시대의 우리 역사를 도출해 내는 작업을 시도하면서 <고조선의 역사천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역사천문’은 추론의 학문이다. 추론 자체가 전임미답의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황당한 작업을 하면서 흥미진진해 질 때가 많았다.

나는 9년 동안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 조상이 ‘별에 쓴 역사’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을 해 왔다. 지금은 나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느 분은 내가 쓴 글들을 스캔하여 <우리 민족의 혼 - 천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브리핑> 회원게시판에 올려놓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시작한 ‘역사천문’이라는 분야가 대중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없게 되었다. 학문으로서의 성공여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앞으로 참여자들이 나오면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내가 전화를 받은 이틀 후에 작가는 촬영하면서 내게 할 질문 항목을 정리하여 e-mail로 보내왔다. 나는 질문에 답할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주었다. 촬영은 8. 28. 13시부터 창덕궁에서 한다고 하였다.

이날 13시에 PD 한 사람과 촬영 기사 2 사람을 창덕궁의 서쪽문인 금호문金虎門에서 만났다. 창덕궁 직원 한 사람이 우리를 안내하겠다고 따라붙었다.

나는 1970년에 창덕궁에 처음 들어와 보고, 1998년에 두 번째 들어와 보았다. 이번에 들어오니 3번째가 된다. 1970년에는 내

가 근무했던 직장에서 윗분이 이곳에 오셨다가 가시는 데에 물어 들어와서 주마간산으로 한 바퀴 둘러보았고, 1998년에는 별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들어와 본 것이다. 그때는 나와 함께 [역사천문학회]를 결성하였던 회원들과 함께 주로 소요정逍遙亭과 삼각산 주변을 천문과의 연관성을 찾으려 돌러보았다.

나는 PD와 촬영기사와 함께 금천교를 지나서, 인정전 앞을 통과하여, 낙선재를 오른쪽에 두고 동북쪽으로 나 있는 코스를 밟았다. 오늘의 창덕궁은 월요일 쉬는 날이라 너무나 조용하다. 안내를 맡은 분은 평소에 창덕궁이 하루에 3번 매회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받은 50명의 인원만 한하여 공개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궁장을 끼고 걸어가면서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석가래에 청구칠성무늬와 연화문 두 무늬가 쓰이고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청구칠성무늬는 28수 가운데에서 남방주작칠수의 맨 끝 별자리인 진수분야(辰宿分野)에 속하는 별들인 청구칠성을 벽사의 무늬로 쓴 것이다.

촬영팀은 부영지를 촬영하고, 북쪽에 서있는 어수문魚水門과 그 뒤쪽에 있는 주합루宙合樓를 촬영하였다. 어수문은 물고기과 물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인데, 의미심장한 다른 뜻도 있다. 어魚는 조선朝鮮의 선鮮에 들어 있는 魚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백성이라는 뜻이 있다. 수水는 북극수北極水를 의미한다. 옛날에 단군왕검을 수정水精-북극수라고 하였고, 부루태자를 수정자水精子-북극수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수문에는 조선의 백성과 단군왕검이 통과하는 문이라는 의미가 있다.

어수문 아래에 있는 부용지芙蓉池는 연꽃연못이라는 뜻이다. 연꽃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이 아니라, 마고가 우리의 조상이 되기 이전에, 태평양에 가라앉은 류 대륙에 실재했던 류 제국의 국화였다. 그러므로 부용지는 사라진 류 제국으로 가는 시간의 문이 되는 것이다. 부용지의 한가운데에 원형의 섬이 있는데, 이 섬은 마고가 사는 삼신산이다. 부용지의 남쪽에는 부용정이 있는데, 부용정은 1/3은 연못에 기둥을 내려 연못에 잠겨 있고, 2/3는 땅에 자리 잡고 있다. 지붕은 정丁자형의 지붕과 아자형의 지붕이 복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丁은 머리를 의미하고, ㄱ는 국란을 당했을 때 최후의 피란처가 되는 십승지十勝地를 의미한다.

어수문을 통과하여 북쪽으로 놓인 계단을 올라가면 장엄하게 주합루가 서있는데, 여기가 우주가 합치는 곳, 즉 우주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조선왕조시대에는 이곳에 선비들을 불러 모아서 나라에서 동량으로 쓸 인재를 뽑는 과거를 치렀다. 우주의 중심에서 선관仙官을 뽑았던 것이다.

나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이러한 심오한 의미를 학생들에게 반영하지 못함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를 설명해 보았자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깊이 있는 설명을 할 수 없었다. 설명해 보았자 대부분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므로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이다.

드디어 소요정逍遙亭에 도착하였다. 소요정에서 만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든 하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소상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였다. 소요정에서, 소逍에는 삼신(小-해 · 달 · 북두칠성)을 달밤에 제사지내러 간다는 의미가 있다. 요遙에는 저녁에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고 바가지를 얹어 놓고 두드리는 악사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소요정은 삼신에게 제사지낼 때 악기를 두드리는 장소라는 뜻이다.

소요정 앞으로 옥류천玉流川이 흐른다. 옥류천의 玉은 북두칠성을 의미한다. 북두칠성이 있는 하늘에서 흘러오는 물이 옥류천이라는 뜻이다. 소요정의 왼쪽에는 삼각산 형상의 바위가 있다. 통바위 하나를 무당이 칠성궁 때 쓰는 삼각고깔의 형태로 다듬고, 그 앞을 평평하게 깎고,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사행천蛇行川을 만들어 놓았다. 이곳에 삼각산을 삼신의 신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삼신의 신체 왼쪽에는 어정御井이 있다. 창덕궁의 북쪽에서 흘러오는 계곡수와 어정에서 샘솟아 나오는 어정수가 삼각산의 왼쪽 모퉁이에서 합수하여, 북두칠성 형상으로 파놓은 사행천의 물길을 따라 삼각산 앞을 돌아나가며, 북두

칠성의 공간 안에 요지瑤池를 만든다. 이는 여기가 북두칠성의 머리가 만들어내는 사각의 공간인 선기옥형璇璣玉衡임을 말하는 것이다.

소요정에서 보면, 삼각산의 뒤쪽에서 계곡수로 흘러 내려오는 옥류천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 와가로 지은 북극정이 있고, 왼편에 초가로 지은 청의정이 있다. 북극정은 임금이 좌정하는 자리이고, 청의정은 백성이 좌정하는 자리이다.

북극정과 옥류천 사이에는 삼각산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소각물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든 8각형상의 조형물이 있는데, 내부를 둥글게 파고, 외부로 돌을 깎아서 8각면체를 만든 것이다. 8이라는 숫자는 우리 조상이 신전을 지을 때의 건축양식을 규정하는 숫자이다. 말하자면 신전의 형상을 8각정의 형상으로 지었던 것이다.

백제의 이성산성에서 발굴된 유구와 신라의 나정에서 발굴된 유구에 8각건물지가 있다. 이들 건물지가 신전의 터이다. 조선 왕조시대에는 지금의 조선호텔 자리에 팔각정 형상의 천제단을 짓고 고종 임금이 천제를 올린 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위에 올랐다. 태극정과 옥류천 사이에 8각의 소각장을 만든 것은 소요정 일대가 야외 신전임을 보여준다. 임금이 밤에 은밀하게 이 곳에서 천제를 지냈을 것으로 추론이 되는 곳이다.

이곳을 촬영하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나서 인정전仁政殿으로 내려왔다. 임금이 인仁을 정사로 펼치는 전각이 인정전인데, 〈격암유록〉은 앞으로 전 세계가 단일국가로 통일이 되어 선국仙國으로 불리게 되고, 한강 연안에 선국의 도성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도성을 도부桃符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도부가 〈부도지〉에서 말하는 해혹복본의 시대에 세우게 될 부도가 된다. 도桃는 도화桃花를 의미한다. 도화가 선국의 국화이다.

인정전의 안에는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가 용상의 위편에 있다. 오봉은 이 나라에 있는 오악五嶽을 의미하고, 오악 중에서 가운데 봉우리는 삼각산이다. 하늘에는 왼쪽에 해가 떠 있고, 오른쪽에 달이 떠있다. 해는 태양이고, 달은 태음이다. 칠월칠석날 저녁에 한반도 위에 뜨는 해와 달의 배치를 그린 그림이다. 음양이 넘치고 처짐이 없도록 조정하는 자리인 북극성의 자리에 임금이 앉아 있음을 나타낸다. 임금의 머리 위에 다섯집이 솟아 있는데 다섯 집 즉 오가五家라는 뜻이다. 오가는 단군조선시대에 조선을 구성했던 다섯 부족인 오가五加를 의미한다.

원래 인정전의 바닥은 흙바닥이었는데, 마루로 바꾸어 놓았다. 대궐의 정전의 바닥을 흙바닥으로 했던 이유는 지기地氣를 차단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용상의 아래 계단 밑에는 검은 전석을 깔아서 그곳이 북극성의 자리임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바닥을 마루로 까는 바람에 인정전이 가지고 있는 북극성-천추성의 의미가 퇴색해 버렸다.

인정전에서 펼쳐게 될 仁은 조선왕조가 일제에게 멸망하면서 그 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천기와 지기와 수기를 받아서 음양의 차수를 조절하여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인이다. 말하자면 천지인天地人의 중용中庸이 인인 것이다. 지금은 용상에 앉을 사람이 없고, 흙바닥을 마루로 갈아 천지인 기의 소통을 차단해 버렸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본다.

〈격암유록〉에서 선국에서 전 세계의 인류에게 인을 펼치는 것을 정도인鄭道仁이라고 하였는데, 정도인의 원형을 이곳에서 있는 그대로 보존해줄 필요가 있다. 요란하게 전각만을 복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창덕궁의 의미를 해석하여 우리의 철학과 사상으로 가르쳐야 한다.

창덕궁의 창昌은 해를 말한다는 뜻이고, 덕德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덕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미래에 인류통일제국이 나와서 1만 년 전에 사라진 한국桓國의 영화를 재현하게 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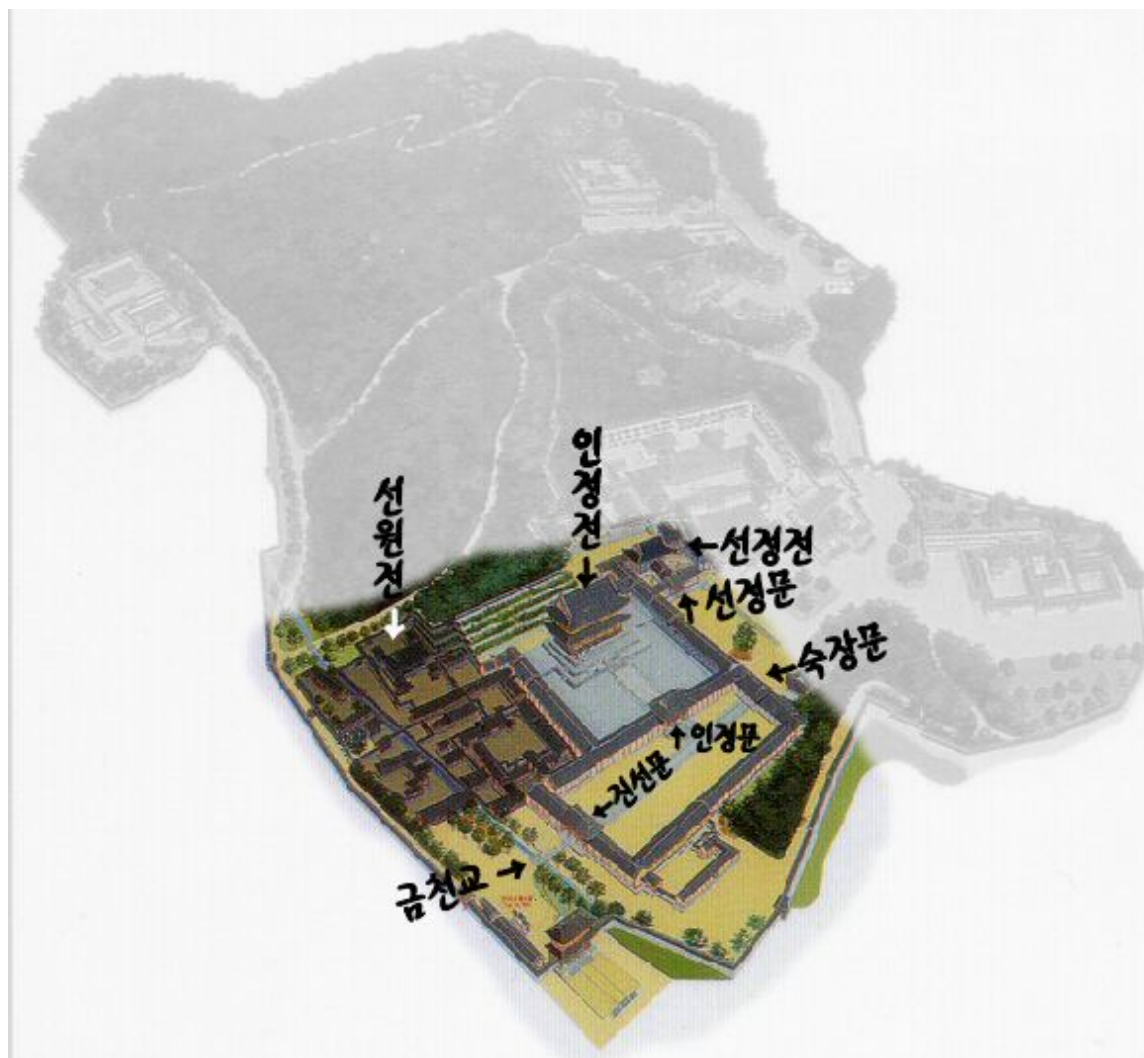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금천교에서 해치를 촬영하였다. 해치는 북두칠성의 건청궁乾靑宮 문을 지키는 문지기 동물이다. 그의 배후에는

도깨비가 있다. 이 해치가 금천교 남쪽 흥εδ다리 중앙에서 남쪽을 향하여 지키고 있다. 금천교錦川橋는 비단개울다리가 아니라 곰개울다리라는 뜻이다. 공주와 부여를 흐르는 금강이 백제의 국가적 아이콘인 곰의 음차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곰은 한성백제시대 도성의 이름인데 마고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금천은 마고개울이라는 뜻이다. 이 마고개울을 가로지르는 다리에는 마고개울을 남북으로 가르는 경계선이라는 의미가 있다.

북은 감坎이고 남男이라 양陽이고, 남은 이離이고 여女라 음陰이다. 그러므로 금천교는 음과 양의 균형점이 되어주는 다리가 된다. 이 다리가 하늘에서는 은하수를 가로지르는 오작교烏鵲橋일 수 있다. 해치가 이곳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음양의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점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 있다. 그의 배후에는 치우천왕의 아이콘인 도깨비가 버티고 있다.

촬영을 다 하고 나니 16시가 넘었다. PD와 촬영기사가 처음 접해 보았을 생소한 역사천문을 어떻게 작품에 구현하여 금년 추석날 TV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했다.











마고지나 <http://blog.daum.net/godam777/8920936> 복사

아래 글은 역사천문학회의 칠석제가 대중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기록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역사천문학회라는 이름으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월미도 칠석제

노중평

칠월칠석 날 좀 이른 시간에 집사람과 함께 월미도로 떠났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우선 황해바다를 바라보고 싶어서였다. 이날 저녁에 해와 달이 어느 방향에 나란히 떠 있을까 궁금했던 것이다. 이날은 음기와 양기가 교차하는 날이고, 음기를 대표하는 달과 양기를 대표하는 해가 임무를 교대하는 의식이 서쪽 하늘에

서 거행될 것이므로 이 장엄한 의식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차가 인천으로 들어섰는데, 빗방울이 차창을 때렸다. 12년 동안 지내온 다른 칠석제 때처럼 어김없이 비가 오려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인천에서 지내게 되는 첫 칠석제이므로 무엇인가 이적이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

월미도로 가는 길에, 길가에 낮게 서있는 비석이 하나 눈에 들어온다. 인천상륙작전 때 미군과 한국군이 상륙한 상륙지점에 표석을 하나 세운 것이다. 이 자리를 미군이 'Red Beach'라고 명명하였다. 피를 많이 흘려 붙인 이름인지, 붉은 군대가 지키던 곳이라 붙인 이름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다. 6.25동란 때 <인천상륙작전>을 달리 <월미도상륙작전>이라고 한 것을 보면, 월미도가 <인천상륙작전>에서 교두보가 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월미도상륙작전>에서 흘린 피가 칠석제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하나 제공한 셈이다.

현장에 도착하니 인천칠석제보존위원회회장 김석렬씨가 몇 사람을 데리고 간편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제단을 짜놓았고, 현수막을 붙인 벽을 만들어 세우고 있었다. 현수막에 <四三三九년 七夕天祭>라고 써 있다. 살풀이춤이라도 추었으면 좋으련만 준비한 리플릿에는 살풀이춤이 나와 있지 않다. 여기에서 군웅굿·비수굿·조상굿을 한다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집사람과 문화의 거리로 불리는 바닷가 광장을 걸었다. 횃집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줄줄이 서있다. 관광선이 나가고 들어온다. 영종도가 인천공항이 된 후에 월미도와 영종도를 오가는 유람선이 생겨 관광수입에 한몫을 하고 있다. 바닷가 공원에 행락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 꽤나 많다. 선착장에 큰 배가 닿더니 섬에서 실고 온 승용차며 트럭을 쏟아놓는다. 아마 이들 차들이 대부분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집사람과 차를 댄 주차장에 딸린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제일 싼 것을 찾으니 6,000원 짜리 백반이 있다. 주문하여 먹는데, 바닷가 음식리라서 그런지 간이 짜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서 다시 바닷가로 나왔다.

바닷가에 설치한 불박이의자에 앉아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모시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김혜숙씨가 나타난다. 두어 군데 산기도를 다녀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에 왔으니 잠을 제대로 잤을 리가 없을 것이다. 마침 김혜숙씨가 이 고장 출신이라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었다.

섬 한가운데에 있는 높이가 낮은 산을 팔미산이라고 한다고 한다. 또 섬 이름은 원래 팔미도로 불렸다고 한다. 팔미도가 월미도로 바뀐 것이다. 팔미산도 월미산으로 바뀌었다. 화요일(2006. 7. 18.) 김석렬씨와 이곳을 돌아보면서, 여기에서 8선녀를 보여주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곳의 지명에서 8선녀를 유추할 수 있는 이름이 나왔으니, 우연치고는 묘한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섬의 이름이 팔미도이고 섬의 중심에 있는 산의 이름이 팔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팔각신사八闕神社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팔각신사는 해·달·칠성 삼신을 모시거나, 삼성으로 불리는 최고 조상들을 모시는 신사이다. 해·달·북두칠성을 천신天神으로 모시고, 황해장수할미나 아기씨를 해신海神으로 모셨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조상은 여신을 아기씨라고 부르고 도당都堂에 모셨다.

18일 월미도에 다녀온 후에 〈월미도 여신〉의 제목의 시를 한 수 써서 〈마고지나 블로그〉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들어와 읽고 간다.

월미도 여신

노중평

달에 꼬리가 있다기에
꼬리 나오는 때 보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홀쩍 한 세월이 지나갔지

막내 딸 여신 되어 돌아와
바닷가 공터에
여신상으로 서는 날

日出山에 해질 때
石井水 퍼서
彌鄒忽에 말라붙은
피비린내 닦아 내려나

한심해라
홍수로 지세는 이 나라
사방에 독이 터지고
멀쩡한 사람 휩쓸려 떠나가는데

천제 만나 6월 장마 그치기를 담판지은
나반님의 호된 꾸지람
알아듣지 못 하네

황해바다 바라보니
사해용왕이 현신하고
月尾島 女神 고고하게 서계신데
내 무엇을 할까

이제 알겠구나

준비가 다 되어 예행연습을 하고 나서 본행사로 들어갔다. 나는 제사지낼 때 해설을 맡아 하였다. 제관으로 참가한 사람들은 헌관 3인, 팽주 3인, 집사 2인, 찬창1인, 대축1인, 시자 3인, 선녀 7인이었다. 이들이 지극히 천천히 제사를 모시는 동안 나는 해설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나리로 솟대에 매단 소원지를 풀어 화로에 태우며 칠석제를 끝냈다. 사전행사로 칠성거리를 해준 김혜숙씨가 맡아 해 주었다.

donga.com

enjoy the news donga.com

아래 글은 주간동아에 실렸던 글인데 역사천문학회의 활동을 기록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올린 것입

니다. 노중평

안영배 기

http://210.115.128.43/docs/magazine/weekly/2002/12/18/200212180500054/200212180500054_1.html

우리 고대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역사천문학회 회” 우리나라 사람만큼 북두칠성에 목을 매다시피 하는 민
원들. 왼쪽부터김대성, 유승엽, 김세환, 노중평, 족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북두칠성에 대한 선조들의 관심은
이승평, 한은희씨. 말과 행동에 고스란히 드러나지요. ‘북두칠성이 앵돌아졌



네’ ‘마음 한번 잘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본다’ 하는
옛말을 보면 북두칠성이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고 있
다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정화
수를 떠놓고는 칠성 별에 소원을 빌었고죽어서는 칠성판
에 누워야 하늘문을 통과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상여가
나갈 때도 좌우로 7명씩 양두칠성과 음두칠성이 배치됐었
구요. 왜 우리 민족이 북두칠성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유적에 나타난 북두칠성’의 저자이자 ‘한배달 역사천문학회’ 부회장 노중평씨의 말이다. 그는 선조들
이 별에 부여한 신화나 상징성을 잘 해석하면 태고 의 우리 역사까지도 유추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
두칠성을 화두 삼아 우리 민족의 원형을 찾아내려는 모임인 역사천문학회가 창설된 것도 바로 그런 목적에
서다.

일본 고유 축제로 둔갑 세계에 소개

이 모임이 결성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거치? ?동안 잃어버린 칠성 신
앙을 오히려 일본이 계승해 최근 해외로 문화수출까지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세환 역사

천문학회장의 말.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음력 칠월칠석 날 부녀자들이 내당의 우물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7월에 수확하는 가지와 오이와 호박 등을 제상에 차려 칠석제를 지내는 전통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런 칠석제는 일본에도 전해졌는데, 그중 센다이(仙台) 지역의 다나바타 마쓰리가 가장 유명합니다. 칠월칠석 전 날 밤 자신의 희망이나 소망을 종이에 써 대나무에 매단 뒤 북두칠성에 기원하는 행사지요. 그런데 이 축제가 브라질의 상파울로시에 소개된 후, 지금은 아예 ‘센다이 축제’라는 고유 명칭으로 상파울로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매년 축제가 거행되고 있어요. 일본의 문화를 대표하는 고유한 축제로 말이지요.”

우리가 잃어버린 칠성 신앙이 일본의 고유 축제로 둔갑해 세계에 소개되고 있다는 얘기가. 이 때문에 역사천문학회 사람들은 매년 칠월칠석이면 우리 전통의 의식을 복원, 칠석제를 지내고 있다. 올해도 음력 7월7일(양력 8월15일) 자시에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백석동천(청와대가 ! 있는 북악산 뒷줄기)에서 회원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칠석제를 개 최했다. 제관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란 점, 제사를 지낼 때 술이 아닌 차를 올리는 점도 칠석제의 특성. 차(茶) 칼럼니스트이자 역사천문학회 회원인 김대성씨의 말.

“칠월칠석 날 은하수의 물은 예로부터 차꾼들에게는 ‘천일수(天一水)’로 불릴 만큼 최고의 차물이었지요. 고려 때 차승(茶僧)으로 유명한 진각국사(1178~1234)는 ‘...북두칠성 국자로 은하수를 길어 달이는 한 밤의 차, 차 연기는 싸늘하게 계수나무를 감싸네(斗酌星河煮夜茶 茶煙冷鎖月中桂)’라고 노래했습니다. 진각국사뿐 아니라 옛 차인들은 은하수에 흐르는 물을 이상적인 차물로 여겼지요.”

칠월칠석은 흔히 은하수 때문에 만나지 못하던 견우성과 직녀성이 까치와 까마귀가 놓아주는 오작교를 건너 1년에 딱 한 번 만나는 날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북두칠성과는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걸까. 김대성씨는 “칠월칠석의 밤은 단순히 견우와 직녀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던 우리 민족의 별인 북두칠성의 일곱 별과 남두육성의 여섯 별도 1년에 한 번 서로 만나는 날”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날 밤에는 국자별 4개가 포개듯 서로 마주보고(북두칠성과 ? 껌똥??, 견우와 직녀가 만나 운우의 정을 나누는 것을 축복해준다는 것.

이 때문에 역사천문학회 회원들은 칠월칠석제를 우리 고 **북두칠성의 정기가 가장 강력하게 내려온다는 북**유의 문화적 이벤트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악산의 뒷자락에 위치한 ‘백석동천’에는 7개의**오랜 옛적부터 이날 밤은 임금이나 백성 할 것 없이 정화 **바위로 이루어진 칠성바위가 있다. 회원들이 칠**수를 떠놓고 축원하던 날이었고, 남녀칠세부동석이 엄격히 **성바위에 서 있는 모습.** 지켜지던 옛날에도 이날만은 젊은 남녀의 만남을 눈감아 줄 정도로 ‘관대한’ 날이라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칠성 신앙의 기원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최근 서울대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는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라는 저서에서 우리 민족과 북두칠성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북한에서 발견된 고인돌의 덮개돌에는 인위적으로 별자리를 새긴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평남 증산군 용덕리 고인돌(BC 30세기경), 평남 평원군 원화리 고인돌(BC 25세기경), 함남 함주군 지석리 고인돌(BC 15세기경) 등에서는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이 선명히 새겨져 있다. 남한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아득이 마을 고인돌(대청댐 수몰지역), 함안 동촌리 고인돌 등에서 북두칠성과 주변의 별을 새긴 돌판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를 보면 우리 조상들이 북두칠성에 대해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멋진 만남의 날’ 신풍속 수출할 터

그러다가 별자리 이름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 때부터. 고구려의 경우 돌로 무덤의 방을 만들었던 고분의 벽이나 천장에 그려진 벽화에는 별 그림이 유난히 많다. 예를 들어 서기 408년에 지어진 덕흥리 고분(북한 남포시 강서구역 소재)의 경우 북두칠성과 여러 별들이 그려져 있고, 5세기 중엽의 고분인 장천1호분(중국 집안시 소재)에는 북두칠성을 뜻하는 ‘북두칠청(北斗七靑)’이란 한자도 씌어져 있다. 백제의 경우 백제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하남시 교산동 토성에는 바위 7개를 약 30여m 간격으로 배치한 ‘칠성바위’가 최근 발견됐다.

비단 유적뿐만 아니다. 노중평씨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인물 중에는 칠성별의 기운을 띠고 온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고 말한다.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장군은 ‘칠요(七曜)의 정기를 타고 나 등에 칠성의 무늬가 있었다’ (삼국유사)고 하고, 고려의 강감찬 장군은 북두칠성의 한 별인 문곡성이 떨어진 낙성대에서 태어났다 한다. 이외에도 정몽주, 안중근 등도 모두 북두칠성과 ‘인연’을 맺어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위인들만 북두칠성의 정기를 독차지한 것은 아니다. 고대 동북아시아에서는 ‘별 제사’를 초제(醮祭)라고 했는데, 결혼식 역시 초례(醮禮)라고 불렀다. 원래 초례는 신부가 해가 지기 전 신랑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별이 뜰 무렵에 칠성님에게 먼저 인사 드리는 예법이었다 한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도 ‘너도 하늘의 별이고, ㄸ?하늘의 별’이라는 인식이 있음을 뜻한다.

아무튼 한국인의 길흉화복과 생사를 주관하는 북두칠성의 의미를 되살려 21세기 우리 민족의 축제로 만들려는 것이 ‘북두칠성을 찾는 사람들’인 역사천문학회 회원들의 꿈(cafe.daum.net/oldhistory). 발렌타인 데이니 화이트 데이니 하는 국적 불명의 신풍속 대신 우리의 멋진 만남의 날인 칠석 축제를 되살려 전 세계로 퍼뜨린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듯하다. (끝)

역사천문학회 이야기

아래 글은 1999년에 경향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역사천문학회가 해 온 일을 기록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올린 것입니다. 노중평

- 글 : 김희연 기자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서양의 목동들은 별을 길잡이 삼아 먼 곳을 오가며 술한 별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여신 헤라의 질투로 큰곰자리별이 된 칼리스토, 하늘을 달리는 천마 페가수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하늘에 올려놓은 카시오페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별 이름과 신화들은 하나같이 먼 나라의 이야기. 우리의 별들은 잊혀지고 하늘에는 서양의 별들만 가득하다.

대학생·아동작가·소설가·사진작가·주부 등이 모여 만든 「역사천문학회」는 우리별을 찾으려는 모임. 유적과 고서적의 자료를 통해 수 천년을 거슬러 오르며 우리 역사 속의 별 이야기를 쫓는다.

우리 전통향을 알리는 모임 「향기를 찾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박희준씨(42)가 회장. 서울 인사동에서 울릉도 향나무, 자단향 나무, 솔잎, 솔방울, 쑥 등 천연의 향재료로 일본, 중국향에 밀려난 우리의 향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차와 향을 연구하다가 자연스럽게 우리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차와 향은 모두 제사의식에 쓰였던 것이고, 제사는 곧 하늘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죠. 별에는 우리의 신화와 역사가 투영돼 있습니다.』

1911년 계연수가 펴낸 「한단고기」는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등 우리의 고대 역사서를 하나로 묶은 책. 한단고기에는 단군의 선대인 치우천황에 얽힌 이야기가 등장한다.

『지금의 중국 산둥성 일대에는 치우라는 이름의 별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길게 두개의 꼬리를 단 별인 치우가 나타나면 병란이 일어난다고 믿고 모두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기(史記)에도 치우해성에 대한 이야기인 「치우기(旗)」가 등장합니다.』

박씨는 97년 「향기」 회원들과 함께 중국 산둥성 답사를 다녀왔다. 태산(泰山)에 있는 치우사당 안에는 북두칠성 등 별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중국인들은 태산을 「청구(靑丘)」라고도 부른다. 청구는 바로 「동이」의 땅. 태산에서 발견된 「대문구」는 8,500여년 전의 그림글자로 동이민족이 남긴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대문구는 「천문(天文)」으로 만들어져 우리 민족의 하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게 해준다.

『우리 선조들은 별과 하늘을 통해 문자를 만들고 별에 역사를 담아 후세에 알리려고 했죠. 그러나 영토를 빼앗기면서 별에 대한 주체성이 사라지고 사대주의 역사관에 묻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답사를 다녀온 회원 9명이 매주 금요일 한자리에 모여 별을 공부하기로 한 것이 모임의 시작.

역사천문학회가 처음 밝혀낸 우리별은 「광개토왕별」이다. 흔히 큰곰자리라고 부르는 북두칠성의 국자모양 첫머리별이 바로 광개

토왕별. 만주 집안현 통구에 있는 「광개토왕비」에서 근거를 찾았다. 비문에 적힌 광개토왕의 시호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그러나 원래 비문의 「강」자는 「언덕 강(岡)」이 아니라 「북두성 강」자의 「결획」이라고 주장한다. 결획이란 임금이나 특출난 귀인을 한자로 쓸 때 두려워하는 뜻에서 일부러 글자의 한 획을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비문을 새길 때 「북두성 강」자 속의 「정(正)」자 첫 획을 뺐는데, 훗날 그 글자가 왜곡돼 비슷하게 생긴 「언덕 강(岡)」자로 둔갑했다는 것.

「광개토왕의 사후 이름을 「국강상」이라 하여 「북두성이 뜨는 나라 땅 주인」임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북두성이 바로 광개토왕의 별이라는 뜻이죠. 경주에서 발견된 호우총의 청동호우에도 광개토왕비와 똑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역시 북두성 「강」자를 쓰고 있죠. 별은 권력의 상징으로 중국에서도 춘추전국시대 때 권력자들을 별 이름으로 칭하거나 따왔죠. 중국인들은 중심에서 벗어나거나 희미한 별들을 일부러 「동이별」, 「오랑개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장호씨(24.서울산업대 환경공학과 4년)와 노중평씨(59.소설가), 황정희씨(30.아동문학가), 이강근씨(33.사진작가) 등이 참여하면서 모임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때부터 별에 관심이 많았던 소씨는 대학생 아마추어 천문연합회(UAAA)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가 UAAA 모임을 통해 광개토왕별 등을 소개하면서 우리별에 관심을 보이는 대학생들이 부쩍 늘었다.

「동양의 천문학은 과학적입니다. 서양 천문도의 88개 별 사이에 있는 별들은 설명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별자리를 억지로 신화에 꿰맞추다 보니 연관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노씨는 소설을 쓰기 위해 오랫동안 「북두칠성」을 공부했다. 그는 「우리의 민족문화 속에는 「칠성줄을 타고 태어난다」, 「돌아갈 때는 칠성판을 타고 간다」는 우리 고유의 칠성신앙처럼 별과 관련된 민간신앙과 언어, 의식 등이 많다.」면서 「앞으로 「칠성」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문화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동북아를 호령하는 선인들의 숨결을 동화로 쓰고 있다.

두 번째로 찾아낸 별은 「해모수별」. 목동자리의 일등성인 아크투르트 별을 말한다. 해모수는 고구려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주몽의 아버지. 천제의 아들로 서기전 58년 오룡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세상을 다스렸다고 한다. 한단고기 북부여기편은 음력 4월8일날 「천왕랑」이 동쪽하늘에서 왔다고 적고 있다. 해모수별은 음력 4월8일 동쪽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2년 넘게 연구한 결과로서 흡족한 성과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껏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 이들은 윗놀이판도 하늘의 별자리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희준씨는 「우리에게는 고구려인들의 해박한 천문지식과 조선시대때 만들어진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같은 빛나는 천문학의 전통이 있다.」며 「일제때 들어온 별자리 이름을 지금도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역사천문학회는 오는 20일 충북 보은군 마루면 임곡리 대모산으로 별자리 답사를 떠난다. 박희준씨는 「대모산은 광개토왕이 하늘에 제사지낸 천제단이 있던 곳.」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서당골 천문대」가 자리잡아 별자리 관측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서당골 천문대 오훈창 소장은 「어느 민족이든 별에 얽힌 신화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서양의 관측기술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우리만의 별 이야기가 거의 사라졌다.」면서, 「요즘 어린이들까지도 우리별 알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우리 고유의 별이름도 되찾고 있다. 금성은 내행성으로 하루에 두 번 떠오르는 별. 해질 때는 「개밥바라기」로, 새벽에는 「셋별」로 불린다. 또한 「좀생이별」은 28수의 묘성에 위치한 별로 우리 민족이 농사를 점칠 때의 밝기와 모양을 참고했다.

『지난해 3월 일본에서 발견된 세계 최고의 「기토라 천문도」가 고구려의 하늘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잊혀지고 있는 우리의 선진 천문학을 꼭 복원시켜야 합니다. 별은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 고대사의 웅혼한 꿈을 간직한 별들. 그러나 서양의 신화에 가려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다. 과거의 비밀이자 미래의 꿈인 별. 「우리별 찾기」 운동은 이제부터가 시작일 뿐이다.

(egghee@kyunghyang.com), 1999

다음 카페에 기록 : 2003/09/18

역사천문학회 5000년 만에 탁록을 가다

<http://cafe.daum.net/godam>

본문은 월드컵의 열풍과 함께 우리 앞에 홀연히 현신한 치우천왕의 정체를 밝히기 위하여 역사천문학회 회원들이 탁록을 답사했던 답사기입니다. 물론 월드컵이 있기 훨씬 전에 탁록의 땅을 밟았고, 고 조자용선생이 중국이 중공시절에 중국 땅을 밟고 나서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후에 단체로서는 처음 그곳을 답사하였습니다. 우리 무가에서 도깨비대왕으로 불리는 그분, <천상열차분야지도> 28수 중에서 진수분야에 청구 칠성의 별자리를 남긴 치우천왕이 신화로서가 아니라 역사로 우리 앞에 다가설 것입니다. 답사기이기는 하나 자료가 될만한 것은 가급적 많이 올렸습니다. 사단법인 한배달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하여 한배달 잡지에 치우천왕 특집을 한바가 있습니다. -노중평 기-

1) 탁록을 연구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전제

우리나라의 강단 사학자들 중에는 지금 중국 땅에 탁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탁록이 상고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상고사를 기록한 <삼성기전>, <신시본기>, <소도경전본훈>, <단군세기> 등을 사서를 사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을 수 없다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고사는 강단사학자가 보듯이 절대로 엉터리가 아니다. 이를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강단 사학자들이 엉터리인 것이다. 우리의 상고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전제조건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 첫째가 우리 상고시대의 천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천문학계에서 우리 상고시대의 천문을 아는 천문학자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문학계의 사정이 이러하니 강단사학자가 상고시대의 천문을 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할 것이다. 그러니 강단사학에서 천문과 관련이 되는 기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자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자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 상고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물에 가서 송늬를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자학은 동이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신농 조선시대의 문자인 금문(金文)을 기초로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 강단사학엔 금문이 소개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우리의 고유한 무속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무속을 이해하는 강단 사학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속학자나 국문학자들이 관심을 갖지만 그들의 관심 또한 역사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번째는 우리의 전통종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전통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상고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전통종교는 한인

천제시대의 삼신교, 한웅천왕시대의 태백진교, 단군왕검시대의 덕교를 말한다. 무속이 곳으로서 체계를 잡아나가기 시작한 것은 단군조선 초기이다.

다섯 번째는 역경易經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경에는 우리의 종교와 역사가 시퍼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다. 우리는 역에서 상고시대의 역사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역에 역사와 천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단 한 사람도 없는 듯 하다. 이상 다섯 가지를 상고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들었는데, 이들 다섯 가지에 대한 소양을 갖춘 후에 우리의 상고사를 연구한다면 감히 우리 상고사에 대하여 믿을 수 없겠는지, 위서니 하는 학자답지 않은 깡패 소리는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 행태로는 상고사에 심도 있게 접근하지 못하므로, 강단 사학자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탁록을 향하여 출발하다

한국역사천문학회 회원이 단기 4332년(1999)6월 5일 시작하여 6월 17일 까지 13일 동안 중국을 답사하면서 제일 먼저 가게 된 곳이 탁록이다. 탁록엘 가려면 먼저 중국 북경 공항에 내려야 한다. 다음에 차량으로 출발하여 탁록으로 가야 한다.

학회 회원은 11: 40에 김포공항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인솔 단장인 재봉 선생이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재봉선생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는 13: 20에 CA-124편 B-2558기에 탑승하여 14: 11에 이륙하였다. 15: 48(북경시각 14: 48)에 북경공항에 닿았다. 서울 공항을 이륙하여 북경공항에 착륙하기까지 약 1시간 반이 걸린 셈이다.

공항에서 최경화라는 한국 이름의 가이드 아가씨를 만난다. 최양의 안내로 북경 공항을 나와서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탁록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차번호를 보니 冀 61140번이다. 번호판에 冀자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탁록에서 차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현지답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冀자는 기주冀州를 뜻한다.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기주는 치우천왕이 황제와 결전을 벌이다가 전사한 곳이다. 그러나 탁록에 가서 그곳의 기록을 구하기 전까지 冀자에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숨어 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

우선 우리가 가는 곳이 탁록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는 하북성河北省의 장가구張家口시이다. 장가구시로 가는 동안 전개되는 주변의 풍경은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드넓은 벌판이 펼쳐지는가 하면 갑자기 산이 솟아오른다. 도대체 들과 산이 이어지는 중간 지대인 밋밋한 것 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장가구시로 들어가기 전에 어느 한쪽에서 한쪽 아가씨 2 명이 동승한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성씨가 손씨와 허씨이다. 이 아가씨들이 우리를 상고사의 현장인 탁록으로 안내할 것이다. 공안원이 탄 지프차가 에스코트를 해준다. 여러 사람이 현지의 아가씨와 대화가 시작된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오시는 첫 손님입니다."

라고 한 아가씨가 말한다. 일본 사람은 자주 온다고 한다. 아무래도 역사에 관심을 갖는 일엔 일본 사람이 우리 보다 한 수 위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이외에 한국에서 탁록에 먼저 왔다면 사람이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국교가 트이기 전에 민속학자 조자용 씨가 다녀간 것이다. 민속을 연구하다가 탁록을 찾게 된 듯싶었다. 상고사를 모르고 민속을 연구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그가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황제와 신농과 치우를 이 고장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한쪽 아가씨야."

"황제는 정치가이고, 신농은 과학자이고, 치우는 군사가라고 가르칩니다."

중국에서 5천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철천지원수였던 이족과 한족의 적대감이 사라진 듯 하였다.

"아가씨야, 세 분의 관계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지?"

이들은 모두 강羌족 출신이었다. 이점을 물었던 것이다.

"그분들은 같은 집안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었다.

이 곳은 포도의 주산지이고, 황제연주黃帝宴酒라는 특산품이 생산 된다고 한다. 술꾼들은 저녁 식사 때 황제연주를 마셔야 한다고 떠들어 대었다.

탁록에 들어서니 입구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를 맞는다. 원자력발전소를 지나니 범상치 않게 생긴 산이 하나 다가선다.

"저 산 이름이 무엇이나?"

고 물었더니,

"계명산鷄鳴山이라고 하기도 하고, 할머니 산이라고도 한다."

고 대답한다.

계명산이라면 닭이 우는 산인데, 이는 나라를 세운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말이다. <할머니 산>이라는 말도 이 고장이 신농과 관련이 있으니, 그의 딸이자 황제의 부인인 뉘조를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다. 이 말은 결국 황제가 세운 나라를 은유한다고 생각된다.

3) 탁록에서 첫 밤을 보내고 나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

18: 40 탁록현 정부 초대소에 도착하였다. 우리가 묵게 된 곳이 탁록의 초대소招待所인 서화원西花苑이었다. 이곳 초대소 여행사의 총경리總經理 조애평趙愛萍이라는 여자가 인사를 왔다. 이 고장의 안내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미 토요일 오후이고 내일은 일요일이라 모두 놀아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20시 경에 이곳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기념이 될 것 같아서 이 곳에서 먹은 음식을 대충 적어 보았다.

메밀을 기름에 부쳐서 만든 것, 가지겹질을 볶은 것, 마늘장아찌(한국의 마늘장아찌와 맛이 비슷하다), 붕어탕, 오향장육, 군만두, 밥, 국수, 술은 배주(맥주)와 황제연주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배정받은 방으로 갔다. 나는 단장인 재봉선생과 한방을 쓰게 되었다. 서화원은 중정이 있고, 회랑에 중국식의 붉은 등근 등이 걸린 중국풍이었다. 이곳의 별을 보고 싶어서 잠을 자다가 두어 번 밖으로 나갔지만 날씨가 나빠서 별을 볼 수 없었다. 이 곳은 맑은 날이라고 해도 늘 하늘이 뿌옇다고 한다.

다음날 우리가 갈 곳은 탁록의 유적지이다. 출발하기 전에 조 총경리로부터 유인물을 하나 받았다. <簡談 "三祖文化" 始說>이라는 제목이 붙은 14포인트 활자로 8쪽 분량이었다.

글을 쓴 사람은 <중공탁록현위부서기中共鹿縣委副書記, 탁록중화삼조문화연구회집행회장鹿中華三祖文化研究會執行會長, 중화염황문화연구회이사中華炎黃文化研究會理事라는 직함을 가진 임창화任昌華라는 사람이었다.

중국 역사에서, 중화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가장 큰 담론은 "염황문화炎黃文化"가 정설이다. 1993년 10월에, 임창화는 염제, 황제, 치우가 탁록에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사서와 옛 유적지를 찾아 연구한 결과를 모아서, 제 1차로 "염황치 삼조문화의 관점"이라는 논문을 완성하여, <중화염황문화연구회>, <중국선진先秦사학회>, <대만중화논리교육학회> 등에 제출하였다.

<탁록삼황삼조문화학술연구토론회>를 개최하면서, 1995년 9월부터 "삼조문화"가 전국에 소개되고, 중화민족문명의 근원적인 명제로서 널리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다. 또한 국내외에서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삼조문화"가 알려지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중화민족에 대한 연구와 역사저작물의 생산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삼조문화는 다음 3가지로 의미를 말할 수 있다.

1. 중화민족의 문명을 시작한 시조는 세 사람이다. 염제와 황제 두 분만이 아니라 치우를 포함한 세 분이 있다.
2. 중화민족의 문명을 창시한 분은 염제 황제 치우 삼조가 그분들이 있는 곳에 대 표적인 마을과 마을연맹공동체를 만들었다.
3. 염제 황제 치우 삼조는 처음으로 중화문명을 만들었다. 이들의 발자취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남아 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구체적이고도 결정적 인 사건이 탁록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4) 우리가 탁록을 찾아야 하는 이유

중국인들은 하북성河北省 탁록현鹿縣에 있는 탁록을 중화문명이 시작된 곳이라고 하여 소중하게 여긴다. 중화문명을 시작한 사람을 황제라고 생각하여, 중국 5천년 역사의 머리에 올려놓았다. 적어도 1980년대 초까지 중국인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의 문턱에 서있는 지금 중국인은 황제만을 고집해 온 생각을 바꾸었다. 1980년대 초까지 그들은 스스로 <황제의 자손黃帝之孫>이라고 웅고집을 부리다가, 1980년대 말부터 갑자기 <염제와 황제의 자손炎黃之孫>임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황제를 밀어내고 그 위에 그들이 동이족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5천년 동안 버렸던 염제신농炎帝神農을 복권시켜 황제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말하자면 한족의 족보를 동이족의 족보로 바꾼 것이다. 어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에 성과 이름을 바꾼 사람의 중

가에서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조상이 기록된 족보를 버리고 다른 족보를 들고 나와서 자기의 족보라고 떠들어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가짜 족보를 가지고 행세해 오다가 진짜 족보를 찾았다고 떠들어대는 웃지 못 할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심한 우리는 왜 중국인이 그렇게 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상고시대 역사와 중국의 상고시대 역사에 청맹과니가 되어 있으니 알 턱이 없는 것이다.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여행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들이 왜 그렇게 변해 가야 하는가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는 듯 하다.

우리의 역사에서 중국 상고사의 역사 현장인 탁록의 역사를 가르쳤다면, 왜 한족이 〈황제의 자손〉에서 〈염제의 자손〉으로 족보를 바꾸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탁록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던 탓에 중국의 변화에 대하여 아무 것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사람들이 이렇게 관찰력과 변별력이 없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한 일차적인 책임은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나라가 저야 할 것이고, 이차적인 책임은 엉터리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게 한 역사가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중국인이 5천년 동안 줄기차게 지켜 온 〈황제의 자손〉이라는 주장을 〈염제와 황제의 자손〉으로 바꾸게 된 이면의 사정을 알려면 상고시대 역사의 현장이었던 탁록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만 왜 그들이 〈황제의 자손〉에서 〈염제와 황제의 자손〉으로 변해가는 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도대체 탁록이 지금도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가자는 것이 이 글을 쓰고자 하는 이유이다.

그 시대에 탁록은 염제 신농이 다스렸던 동이족의 땅이었다. 그러나 황제가 염제 신농을 굴복시키고 염제 신농을 도우려 간 치우 천왕과 싸워 이기고 그를 죽임으로써 한족의 역사가 시작 된다.

5) 삼조문화의 근원지 탁록

탁록으로 가는 동안 흰 산들이 보인다. 땅은 척박하고 메말랐다.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고,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다. 밑 등에 일정한 높이로 흰 철을 하여 도로 가에 가로수가 서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인가가 없는 곳엔 발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간혹 시장市場을 표시하는 문이 서 있다. 부도符都의 시대엔 시장을 해시海市, 조시朝市, 신시神市라고 한 적이 있었다. 달리는 차는 별로 없는데 주유소가 많이 서 있어서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음식점도 자주 눈에 뜨인다.

09: 50 아침 일찍이 귀근원歸根苑에 도착한다.

중국사람들이 〈삼조문화〉를 거론하기 시작한 이후에 탁록에는 거대한 귀근원이 들어섰다. 염황치 세 분의 신상을 모신 사당이다. 동남아시아 쪽에서 성공한 한 화교 주영남周穎南이 건립을 지원하였다. 230만 위엔을 투자하였는데 100만 위원은 싱가포르 화교가 대고, 나라에서 130만 위엔을 댔다고 한다. 귀근원으로 들어가면 사당이 서 있는데, 중화삼조당中華三祖堂이다.

정면의 중앙에 황제상이 있고, 오른쪽에 신농상이 있으며, 왼쪽에 치우상이 있다. 우리가 상고시대 역사를 버린 탓에 중국은 이족의 조상인 치우와 신농을 힘 안들이고 자기들이 조상으로 모시게 된 것이다.

귀근원을 나와서 차례로 황제성黃帝城, 황제천黃帝泉, 염제영炎帝營, 치우천, 치우재를 답사한다. 황제성은 황제가 진을 쳤던 곳이고, 치우재는 치우가 진을 쳤던 곳이다. 치우재라고 한 것은 당시에 목책을 둘러 요새로 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치우재에 올랐다. 치우재의 땅 속엔 치우릉이 있다고 한다. 과수를 심어서 밭으로 쓰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밭굴을 금하고 있는데 이는 동이족의 수장의 능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므로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치우재는 높은 곳에 위치하여 탁록의 중심부가 멀리 내려다보였다.

불치 않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온다. 우리가 동이의 후손으로서 뚜렷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폐허가 된 조상의 능을 찾았다고 해서 환영의 뜻을 표하는 듯 하다. 찌푸리고 있던 하늘이 머리 위에서 열려 파랗게 구멍이 났다. 여자 분들이 차와 다식을 준비하여 동북쪽에 진설하고 삼배하여 제를 지냈다. 축문을 지어 오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다.

5) 탁록의 지명

탁록은 경도 115도22분 ~ 115도 30분, 북위 45도 ~ 58도 15분 사이에 있다. 천문으로는 염황치시대에 북두칠성이 조응하는 자리에 있었다. 탁록산 북쪽으로 구릉지대로 되어 있다. 탁록에 있는 중요한 지명은 다음과 같다.

□鹿之野 탁록산 북쪽에 탁록산을 아우를 듯 펼쳐져 있는 들판

□鹿山 경도 115도 22분 ~ 115도 30분, 북위 40도 61분 ~ 40도 72분에 위치한다. 서쪽의 주봉은 해발 1293m, 동쪽의 주봉은 해발 920m.

冀州之野 탁록의 중심지로 치우천왕이 전사한 곳

□鹿泉水 치우천에서 흐르는 물, 흥여지곡 북쪽에 있다.

龍王塘 치우 우물에서 흐르는 물이 고이는 곳, 치우 우물 북쪽에 있다.

蚩尤泉 치우 우물, 치우사 구지 북쪽에 있다.

蚩尤祠舊址 치우천 남쪽에 있고, 흥여지곡 북쪽에 있다.

蚩尤城遺址(凶黎土丘)북쪽에 있다.

凶黎之谷 영산하의 동쪽과 탁록산이 만나는 계곡

阪泉之野 탁록지야의 서쪽에 있다.

上七旗 염제가 작전사령부로 썼던 도교절이 있는 곳이다. 판천의 중심부에 있다.

黃帝都城 상칠기의 북쪽에 있고, 탁록지야의 중심지이다.

應龍祠舊址 황제도성의 동북쪽 모퉁이에 있다.

黃帝祠舊址 황제도성의 동쪽 모퉁이에 있다.

黃帝泉 황제도성의 동쪽 모퉁이에 있다.

황제는 먼저 염제를 아우르고, 염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출동한 치우와 무려 10년 동안 73회나 싸웠으나 한 번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싸움에서 치우를 패배시켜 목숨을 빼앗았다. 그가 다시 살아날까 두려워하여 시신을 토막 내어 네 부위를 탁록의 네 군데에 묻고, 다른 부위를 다른 두 곳으로 나누어 장사지냈다고 전한다. 다음에 오게 되면 시신을 어디 어디에 묻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문득 치우재가 군웅거리의 발상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6) 탁록은 한웅천왕이 첫 도읍인 신시를 천도한 곳

탁록은 한웅천왕이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내고 신시국을 세운 곳이다. 그곳의 이름을 청구라고 했는데 옛 기록을 보면 탁록이 청구로 나와 있다.

倍達桓雄定有天下之號也 其所都曰神市 後都靑邱國 傳十八世 歷一千五百六十五年
배달한웅정유천하지호야 기소도왈신시 후도청구국 전십팔세 역일천오백육십오년
배달한웅은 천하를 평정하고 그가 있을 도읍을 신시라고 하였다. 후에 도읍을
청구국으로 옮겼다. 18세를 전하니 1565년의 역사를 기록했다. (〈신시역대기
神市歷代記〉)

한웅천왕이 태백에서 나라를 세워 청구로 옮겨 갔다는 말이다. 한웅천왕이 청구
국에 도읍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록이 귀장(歸藏)에 있다.

蚩尤出自羊水 …黃帝殺之于靑丘

치우출자양수 …황제살지우청구

치우는 양수에서 태어나 …황제가 청구에서 죽었다. (〈歸藏〉)

이렇듯 청구는 동이족의 역사가 시작되고 종말을 고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한웅천왕이 시작하여 치우천왕에서 끝이 난 것이다.

7) 같은 조상 소전에서 나온 염제와 황제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염황치 세 분은 모두 조상이 같은 이족夷族이었다. <이족>이란 <춘분의 기>를 받은 종족이라는 뜻이다. 황제 현원은 이족에서 갈라져 나와 화서족華胥族이라고 하였고, 하夏나라를 세우고 난 후에 하화족夏華族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한漢나라 시대가 되면서 이 시대 사람을 후대에 한족漢族이라고 하였다.

한족은 <수로왕>이 김해 김씨의 시조이고 김해 김씨의 삼현파는 김관金管이 중시조中始祖)이듯이, 한족의 시조는 이족의 시조인 한웅천왕이 한족과 공동의 시조이고 중시조는 이족에게서 갈라져 나온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시조인 황제만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내세우는 어이없는 짓거리를 해 왔다.

황제가 한족의 중시조가 되기 이전에 황제의 형제인 신농은 이족의 중시조였고, 황제와 신농은 형제지간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배다른 형제라고 한다.

神農少典之子 少典與少□皆高氏之傍支也

신농소전지자 소전여소호개고씨지방지야

신농은 소전의 아들이다. 소전과 소호는 고씨씨의 방계이다. (〈태백일사〉 신시본기)

孔子曰黃帝少典之子 曰軒轅

공자알황제소전지자 알현원

공자는 황제가 소전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현원이라고 한다. (〈大載禮〉 五帝德)

〈태백일사 신시본기〉는 우리 측의 기록이고, 〈대재에 오제덕〉은 중국측의 기록이다. 〈신시본기〉는 신농이 소전의 아들이라고 하고, 〈대재에〉는 〈황제〉가 소전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신농과 황제는 형제일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조상이 고씨씨라고 〈신시본기〉에서 밝힌 것이다. 〈신시본기〉란 〈한웅천왕이 세운 나라 〈신시국의 역사 기록〉을 말한다.

震域留記神市紀云 桓雄天皇見人居已完 萬物各得其所 乃使高矢禮專掌饋養之務

진역유기신시기운 한웅천황견인거이완 만물각득기소 내사고시례전장궤양지무

是謂主穀

시위주곡 (「태백일사」 신시본기)

진역유기신시기에 이르기를, 한웅천황께서 사람의 거처가 이미 마련되고 만물이 각각 소임을 맡으니, 고시례를 시켜 먹여 살리는 임무를 주어 전담하도록 하고, 이를 주곡이라고 하였다.

〈진역유기신시기〉에 따르면, 신농과 황제는 고시례의 후손이다. 고시례의 후손은 단군시대에도 농사를 주관하여 한웅시대의 조상인 고시례가 맡았던 주곡의 임무가 세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시례의 후손 고시는 단군왕검이 배달나라의 임금인 되면서 고시를 우가를 삼아 주곡을 맡도록 한다.

辛卯二十四年 (BC 2310) 定官制有八加之稱 命太子夫妻爲虎加率諸加 二子夫餘 신묘이십사년 (BC 2310) 정관제유팔가지칭 명태자부루위호가 술제가 이자부여

爲馬加主命 三子夫宇(虞)爲鷲加主刑 高矢爲牛加主穀 特明爲熊加主兵朱因爲鶴

위마가주명 삼자부우(우)위로가주형 고시위우가주곡 특명위웅가주병주인위학

加主善惡 余守己爲狗加主忍 (「조선기」)

가주전악 여수기위구가주인

신묘 24년 (BC 2310) 관제를 정하고 팔가라 칭했다. 태자 부르는 호가를 삼아 다른 일곱 가를 이끌게 하고, 둘째 아들 부여는 마가로 삼아 포로와 순장하는 자들의 수명을 담당하게 하고, 셋째 아들 부우는 로가를 삼아 형벌을 담당하게 하고, 고시는 우가를 삼아 농사를 담당하게

하고, 특명은 웅가를 삼아 군대를 담당하게 하고, 주인은 학가를 삼아 종교를 담당하게 하고, 여수기는 구가를 삼아 지키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호가는 후에 웅가가 된다. 고시씨는 소전 이후에 단군조선에서는 고시씨 그대로 이어지고, 유망은 신농으로, 현원은 황제로 3파로 갈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살펴 모아야 할 것은 우가가 된 고시, 웅가가 된 특명이다. 이들은 단군시대 초기에 단군왕검의 통제를 받는 신농 계열의 집단과 황제계열의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당시에 신농 계열의 집단은 부족의 표시가 소였고, 황제계열의 집단은 곰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족은 치우 천왕과 염제 신농을 버리고 오로지 황제현원만을 짝사랑해 왔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황제의 자손〉이라고 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와서 치우 천왕과 염제 신농도 그들의 조상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조상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내버린 우리에게 있었다.

치우 천왕과 염제 신농이 〈이족〉의 조상이자 우리의 조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5천년 동안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초한 결과였던 것이다.

한족의 출처가 이족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와 탁록에서 신농과 치우를 아우른 이 골육상쟁의 비극은 후에도 계속 되어 중국의 역사는 이족과 한족의 투쟁의 역사로 전개 된다. 이족인 상을 멸망시킨 하화족인 주, 하화족인 주를 멸망시킨 이족인 진, 이족인 진을 멸망시킨 하화족인 한 등 끊임없이 이 골육상쟁은 되풀이 된다.

이 유습은 한반도에서도 계속되어 우리 민족도 민족 구성원 가운데 이족과 한족이 대립하고 있다. 이족의 흐름은 재야 쪽에, 하화족의 흐름은 세도가 쪽에 맥을 이어 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군웅거리를 좋아하는가? 그것은 군웅거리가 불거리와 재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심성이 군웅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8) 무속에 나타나는 치우천왕과 황제의 싸움

황제가 염제의 땅을 빼앗았다. 황제가 빼앗은 땅이 청구였다. 치우는 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황제를 토벌하려고 판천의 들판으로 갔다. 판천은 청구, 곧 탁록에 있다. 황제는 호(虎, 범), 표(豹, 표범), 비족 등을 이끌고 판천의 들판에서 싸웠다. 익주의 한가운데에서 치우를 죽였다. 그는 청구에 도읍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탁록에서 바라보이는 교산에 묻혔다.

동한말의 학자 문영文穎이 〈한서 형법지〉의 탁록의 들판을 주석하면서, "탁록은 상곡上谷에 있다. 지금 판천지阪泉地와 황제사가 있다."고 하였다. 그를 교산에 묻은 후에 황제사라는 사당을 지었던 것이다. 지금도 그 옛 터가 탁록에 있다.

황제가 치우와 싸울 때 무함巫咸을 시켜서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점쳤다. 무함은 점을 치고 나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귀장歸藏〉 아마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점을 쳤던 듯싶다. 〈무함〉은 무함국의 왕으로 중국 측은 역사상 최초의 무당이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그가 동이족이므로 동이족의 무당이 된다.

도가서에는 무함이 점을 쳤다는 기록보다 좀더 신비하게 그려져 있다. 먼저 역행서국力行書局에서 발간한 〈중국명상총서(中國命相叢書)〉인 〈비전만법귀종(秘傳萬法歸宗)〉에 실린 〈정갑대법(丁甲大法)〉을 보기로 한다.

자부紫府선생의 비전문서秘傳文書인 동방은서東方隱書에, "옛날에 황제가 치우와 싸울 때 이기지 못하므로 하늘에 축문을 지어 제사 지냈다. 7일 안에 상제가 하늘에서 구천현녀에게 명하여 육정육갑경六丁六甲經을 내려보냈다. 이 경을 〈금록옥전천인진문용장묘결현녀비서金錄玉篆天印文龍章妙訣玄女祕書〉"라고 한다. 비결과 부적이 함께 든 비서였다. 경의 제목이 길어지게 된 것은 후세에 와서 본래의 제목을 꾸미려고 했기 때문이다.

처음 나온 것으로 보이는 도가의 비결은 〈육정육갑금쇄경六丁六甲金鎖經〉이다. 이 기록은 〈정갑대법〉보다 좀더 자세하다.

황제가 치우와 싸울 때 이기지 못하므로, "치우는 일개 서인에 불과한데 내가 이기지 못하니 참을 수 없구나." 조용한 곳에 단을 쌓고 마음을

다하여 7일 동안 정성을 드렸다. 7일 만에 천제께서 현녀를 시켜 〈육정육갑신부전인용장묘결〉을 보내 주었다.

〈구천현녀자부비결〉이라는 책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황제는 기주에서 싸워 이겼고, 치우의 시신을 토막을 내어 묻었다. 탁록에 넷, 산동성 동평군 수장현 관향성關鄉城에 하나, 또 다른 곳에 하나 묻혀 있다고 한다.

9) 치우천왕과 군웅거리

곳을 아는 사람이라면 척박한 탁록의 토폰에 있는 치우천왕의 유적지를 돌아다니면 군웅거리에 나오는 오제를 청배하는 한 가락의 무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동에 청제 들어오는 군웅

남에 청제 들어오는 군웅

서에 백제 들어오는 군웅

북에 흑제 들어오는 군웅

군웅은 탁록의 싸움에서 황제에게 패하여 육시를 당한 치우천왕의 조각난 몸을 하나하나 불러들이는 무가이다. 필자는 그렇게 믿고 있다. 중국사람은 황제에게 죽임을 당한 치우천왕을 탁록에 〈삼조당〉을 지어 황제와 염제와 함께 모신다. 철천지원수가 되어 5천년 가까이 살아 온 세 분에게 어느날 갑자기 사당을 짓고 세 분의 신상을 함께 모신다면 과연 이러한 사당을 염제, 치우, 황제 세 분이 과연 미음에 들어 할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중국에서 세 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싶다면 먼저 치우천왕에게 제帝라는 호칭을 드려야 한다.

군웅은 군제軍帝가 군웅軍雄으로 폄하한 말임을 알아야 한다. 웅雄자는 〈韻會〉에,

本□郡地周置雄州 (〈韻會〉)

본탁군지주치웅주

본래 탁군 땅을 뺀 둘러 웅주를 두었다.

탁군은 탁록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탁록 주변에 웅주를 두었다는 것은 치우천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치우천왕을 군웅이라고 했다면, 황제가 치우천왕을 임금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속마음을 내보이는 것이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탁록을 지키는 〈웅주〉의 지위로 격하시켰다고 해야 할 것이다. 〈웅〉자는 자웅雌雄에 쓰이는 말이며, 암컷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치우천왕을 〈암컷〉이라고 했다면 대단한 모욕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10) 부족을 표시하는 족표에서 나온 부적과 무신도

요즈음도 무인巫人들이 부적을 그린다. 부적은 그 원조를 찾아가면 첫째가 별을 그린 부적이고, 둘째가 짐승을 그린 부적이다. 이들 〈별〉과 〈짐승 그림〉 부적은 그 기원이 종족을 상징하는 그림에서 나온다. 후에 문자가 나오면서 부적에 문자가 추가된다.

단군왕검 이전 시대엔 오가五加라는 관직이 있어서 오가를 나타내는 그림이 부적이 되었다. 그러나 단군왕검시대에 와서 단군왕검에게 귀속한 부족이 늘어나서 오가가 팔가八加로 증가한다. 따라서 팔가 부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팔가는 모두 짐승으로 족표族標를 삼았으므로 여덟 종의 짐승 그림이 부적이 되었다. 이들 부적은 대부분 벽사부적으로 쓰였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龍加 龍 降龍符

虎加 虎 家內安寧三災消滅符,

富貴 業障消滅符, 萬福雲興千災雲消符

牛加 天輔 도깨비符, 丁丑神將符

馬加 白馬 降神符

狗加 戌 忍符

鶴加 鶴 召鶴符, 天地大明德符

이들 중에서 후대에 와서 중요하게 무속에서 쓰이는 족표는 용족표와 호족표이다. 용족표는 용가의 상징물로 무신도에 그려져서 무신도에 그려지는 주인공이 단군왕검과 그의 태자 부루단제임을 암시한다. 부루단제는 단군왕검이 돌아가시자 단군청배 굿을 시작한 분으로 우리 역사에서 단군청배 굿을 처음 시작하였다.

壬辰 二十五年 (BC 2309) 帝出巡南 海上赤龍呈瑞 因龍祥改虎加爲龍加

임진이십오년 (BC 2309) 제출순남 해상적룡증서 인용상개호가위용가

(〈조선기〉)

임진 25년 (BC 2309) 제께서 남쪽으로 나가 순행하시다가 바다에서 적룡이 나타나서기를 드리므로 용의 상서로움으로 인하여 호가를 용가로 바꾸었다.

단군왕검이 임진년에 남쪽지방을 순시하다가 바다에 나타난 붉은 용을 보고 그 상서로움에 감명을 받아 그의 대를 이를 태자 부루가 다스리는 호가를 용가로 바꾸었다는 기록이다.

호족표도 호가의 상징물로 무신도에 그려져서 무신도에 그려지는 주인공이 단군왕검과 그의 태자 부루단제임을 암시한다. 당시에 호랑이는 호가에서 가축처럼 길을 들여 호신용 동물로 쓰였음을 보여주는 그림이 〈군자지국사신도君子之國使臣圖〉라는 이름으로 산해경山海經에 실려 있다.

역사천문학회 정해년 첫 모임

노중평

정해년에 들어서면서 ‘역사천문학회’가 2007. 1. 7. 17:00 인사동 비빔밥 집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회장 제봉 김세환 선생님을 비롯하여 몇 사람 아니 되는 회원들이 모조리 감투 하나씩을 쓰고 있는 별난 학회인데 회원들의 실력이 만만치 않다. 학회지 한 번 낸 적이 없지만 지금이 인터넷 시대라 ‘역사천문학회’를 검색하면 ‘역사천문학회’의 활동사항이 줄줄이 밝혀진다. 역사천문학회에 대하여 ‘한배달의 산하 단체’로 등재되어 있는가 하면, <경향신문>과 <주간동아>의 취재기사도 실려 있다.

‘역사천문학회’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칠석제’를 길거리로 끌고 나와 대중화시켰어요.” 하고 대답할 수 있다. 칠석제는 “우리의 시조 나반과 아만, 견우와 직녀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이 제사가 이제는 문경시민, 광화문에 있는 모 불교단체, 월미도의 상인단체, 모 여성단체의 공식행사가 되었다. 어디에선가 칠석제를 지내고 싶다면 칠석제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용의가 있다. 그러므로 제례문화의 한 형태를 확립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 중국의 동북공정과 2002년 월드컵 축구 덕(?)에 도깨비대왕인 치우천왕을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는데, 치우천왕을 처음 세상에 알린 사람들이 우리 ‘역사천문학회’ 멤버들이다. 이 멤버들이 탁록·보계·천수·천산의 문화탐방루트를 개발하였고, 지금은 이들 고장이 역사를 좀 안다는 사람들의 필수탐방코스가 되었다. 내가 당시에 쓴 기행문에서 우려했던 사항들이 지금은 현실적인 국가적 과제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행문도 인터넷에서 ‘역사천문학회’를 검색하면 읽을 수 있다.

역사를 기록하는 셈을 치고 오늘 서로 만난 면면들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내 앞에는 모 대학에서 교편을 잡는 공학박사인 이승평 교수인데 사주를 <천부경>에 붙들어 매려고 몇 년 째 고민 중이다. 그 곁에는 나와 ‘칠석제’를 10년 가까이 함께 해 온 박송희 시인이 있다. 작년에는 인천 월미도에서 제관이 되어 딱 벌어지게 칠석제를 치렀다. 그 곁에는 울려 춤을 만든 재기와 영기가 넘치는 이귀선 선생이 앉아 있다. 그

가 추는 춤이 ‘칠석제’와 ‘삼성제례’ (강북문화원에서 한인·한웅·단군왕검에게 올리는 제사)에서 레퍼토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 곁에 사단법인 한배달의 이일봉 사무국장이 앉아 있다. 그의 반대편 자리에는 학회 유승엽 총무가 앉아 있다. 유승엽 총무는 ‘칠석제’와 ‘삼성제례’를 완성하는데 숨은 일꾼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 곁에는 나와 삼성제례를 10년이나 함께 해 온 김용자 선생이 앉아 있는데 작년에 <차례진설>로 석사학위를 땀고 학교에 출강도 한다. 그 곁에는 제봉선생이 앉아 있는데, 한글연구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가이다. 나는 사람들이 반무당정도로 생각할 만큼 무당학문에 발이 빠져 있고 가끔 무당이 자문을 요청해 오면 자문에 응해주기도 한다. 역시 학문적인 재주가 많은 반재원 선생이 인도에 가느라고 불참이다. 우리 멤버들이 세상에 발표한 저술만 해도 합하면 3~40권은 된다. 모두 자비출판을 한 셈인데 같은 글을 가지고 연구비를 타서 재탕 삼탕 해 먹는 양심불량인 분들과 비교하면 순수하다 못해 미련하기 짝이 없는 분들이다. 그저 묵묵히 자기의 관심사를 세상에 펼쳐 보이며 살아왔다.

금년에는 제봉 선생이 기습적으로 회장감투를 벗어서 내게 씌워주셨다. 회원들은 두 손 모아 짹짹인데 희희낙락이다. 도깨비감투를 얻어 쓴 셈인데 여니 학회 같으면 회장이 찬조금을 내고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정견발표를 하듯이 정치가 흥내를 내야 할 텐데 9년 초에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로 만년 백수니 감히 정치가 흥내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회비 없는 학회다. 만나면 1만원을 내어 저녁을 먹으며 콩닥콩닥 하다가 헤어지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면면들이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저녁을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나 하며 즐겼다. 신선이 학을 타고 북두칠성에 가는 그런 애기들과 진배없는 애기들이다. 누구인가 우리들 곁에 와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면 “맛이 간 사람들”로 오해를 당하기 십상이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또 만족한다.

오늘 박송희 시인이 술잎 술을 한 병 가지고 와서 한잔 씹 했다. 술은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하면서 누구를 주겠다고 마음이 동하면 술을 담가왔는데 가끔 비법으로 담은 술을 가져와 자리를 즐겁게 한다. 식당에서 안주로 빈대떡, 돼지고기 볶음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비빔밥이 나왔다.

오늘 나는 격암 선생을 식탁 위에 끌어드렸다. 격암 선생은 무식한 사람들에게 점쟁이 정도로 알려진 분인데 내가 보는 격암 선생은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역사가요 천문학자요 사상가요 철학자요 종교가요 점쟁이이다. 세상에서는 그분의 점쟁이적인 한 면만을 보고 점쟁이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분은 독창적인 사상가이다. 우리 민족종교로 일컬어지는 여사여사한 종교들이 격암 선생의 조끼 주머니나 팔소매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모모한 변종기독교들도 그분의 팔소매 속에서 나왔다. 그분의 품은 마치 장자가 말한 곤鯁이라는 물고기의 뱃속, 봉鵬이라는 새의 날개처럼 넓다. 단군조선과 조선왕조 두 조선이 곤이라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왔으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듯이 그분의 뱃속에서 앞으로 무엇이 나오게 될지 알 수 없고 설사 나온다고 해도 아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격암 선생은 시공을 초월하여 자신보다 500년이나 뒤 늦게 태어난 내게 믿기 힘든 다발성 퀴즈를

던졌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던졌다.)

“그대가 내가 역사가라는 사실을 믿느냐?”

“믿습니다.”

“내가 천문학자라는 사실을 믿느냐?”

“믿습니다.”

“내가 사상가라는 사실을 믿느냐?”

“믿사옵니다.”

“철학가라는 사실도?”

“그렇습니다.”

“종교가라면 어떻겠느냐?”

“믿지요.”

“그런데 점쟁이로서는 손색이 없겠지?”

“노스트라다무스가 선생님을 알현하려면 성주산 밑에서 기어 성주산 꼭대기로 오른다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각설하고, 조선시대에 다른 사상가들이 성리학에 코가 빠져 있을 때 선생은 그런 것을 걷어차 버렸다. 그리고 500년 이후에나 자신이 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한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역사·천문·사상·철학·종교·국가경영·세계경영·우주경영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놀랍게도 미래국가의 비전, 미래 세계의 비전을 제시했다.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종교는 격이 높은 하나의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세상을 仁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보니 왜 창덕궁에 인정전을 지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격암 선생이 앞으로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 단일국가로 되고 그 이름을 선국이라고 하고, 국도의 이름이 금성이 될 것이라고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하였다.

격암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계룡지라는 풍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내가 최근에 이사 간 곳은 신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다. 단군조선의 마지막 단군인 제47세 고열가 단군이 구월산에 들어가 삼성당을 짓고 한인·한웅·단군왕검의 신상을 모시고, 명두(천부삼인)를 걸어놓고 당주를 여무로 임명하여 수천 년을 굿을 하며 내려왔는데, 명두를 전승해 온 황해도무당들이 개미떼처럼 몰려 사는 곳이 인천과 부천 사이이다. 격암 선생 신봉자들도 세상에 소문을 내지 않고 와서 살고 있다.

좌중에서 금년은 어떻게 되어 갈 것 같으냐고 묻는다. 나는 “세상에서 황금돼지의 해라고 기대하는데 내가 보기엔 돼지귀신의 해가 되어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다” 고 말한다. <한배달> 잡지에 싣겠다고 이일봉 국장이 원고를 써달라고 하여 email로 부쳐주었는데 받았느냐고 물으니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문경에 칠석제를 퍼뜨린 박희준 선생이 발효차를 마시러 오라고 하여 차방으로 간다. 한배달이 있었고, 우리가 ‘역사천문학회’를 만들었던 그 사무실이 있었던 곳이다. 한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고대조선천문>과 <한단고기>를 해석하며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때는 학회가 처음 생겨 새로운 학문에 목말라 있을

때였다.

도깨비감투를 썼으니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문득 치우천왕이 떠오른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 지금은 그때보다 의욕이 많이 줄었고, 격암 선생과 대화하기도 바쁜 때가 되었다.

앞으로 ‘역사천문학회’에서 치우천왕을 어떻게 예우해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기로 하였다. 집이 부천이니 가는 길이 바쁘다. 부천에 마고님 솃대를 하나 세워 드려야 하는데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고민 중이다.

요즈음의 공무원과 박정희대통령 당시의 공무원은 정신적으로나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나는 당시에 공무원생활을 한 사람인데 당시의 공무원은 나 개인보다 나라를 우선하여 생각했다. 요즈음의 공무원은 국가보다 나 개인을 우선하여 생각한다. 그러므로 노조를 만들고 1주일에 2일을 논다. 당시에는 거의 무제한의 근무를 하였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의 공무원이 당시의 공무원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역대대통령을 박정희대통령과 비교할 때 어느 누구도 박정희대통령만큼 초인적인 성과를 거둔 대통령이 없었다. 박정희대통령 당시에 후진국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박정희대통령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지도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시대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나라를 부강하게 한 성공적인 기틀을 잡은 분은 박정희대통령 단 한분 뿐이었다고 단언해도 틀리는 말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수긍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과거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일은 쉽다. 그러나 깎아내리려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쉽다.

주제 : [盧대통령 "박정희 아니래도, 공무원이 성장 기틀 잡았을 것"](#) [미디어다음]

丁亥年 벽두에 무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만남

노중평

내가 이번 연말연초年末年初에 만난 분들은 특이한 분들이었다. 무교라는 말에 폭 빠져 있는 분들이다. 무당이 아니면서 무당보다 더 무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다. 이 모임을 주도하는 분이 우리가 통칭 소서노라고 부르는 차 원장이다. 표면에 나타난 멤버는 모두 대부분 사회에서 은퇴한 남자들인데 차 원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그날의 모임이 된다. 연말 모임 5사람이 모였는데, 내게

“내년엔 시작을 해야 한다”

고 주문하였다.

“선생님, 1월 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첫 강의를 내가 하도록 하였다.

1월 3일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든다.

나는 내 나름대로 2005년 2월부터 daum에 <마고지나 블로그>를 만들어 600여 건의 글을 올렸는데, 대부분 무교와 상고시대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글들이었다. 글들을 복합기에 출력하여 책을 묶었다.

<상고시대 역사문화> · <시민을 위한 巫敎강의> · <시민을 위한 巫歌해설> · <무당이 되는 사람 곁을 하는 사람> · <격암선생사상의 핵심 生初之樂>의 5권이다. 여기에 이미 출판한 바 있는 <고조선사람의 근원적 사유>를 보태니 어느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외에도 이미 <고조선의 종교혁명> 등 7~8권의 다른 저작들이 있으니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온 셈이다.

강의 초안을 잡았다. 이제 무교를 세상에 종교로 내놓으려면 무교가 종교로서 논리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다. 내가 화두를 던진다고 해서 내 혼자서 안고 씨름해야 할 말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동참을 해야 완성이 될 수 있는 주제의 말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이 된 장소는 제기동에 있는 모 제단의 사무실이다. 인원이 모두 모이고 보니, 사각의 테이블을 가운데에 놓고 오늘 모인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 있다.

내가 출입구 오른쪽으로 칠판 가까이에 앉아 있고, 내 곁에 〈백십자운동白十字運動〉을 벌이는 권모 목사님이 앉아 있다. 그분이 벌이는 〈백십자운동〉은 격암선생의 〈도부신인桃符神人〉에 나오는 십자음양사상十字陰陽思想과 맥이 닿아 있다. 근본주의 기독교인의 배척을 받기에 손색이 없을 이론이므로 격암선생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동지를 한 분 얻은 셈이다.

권 목사님 옆에는 모 민족운동단체에서 세운 민족학교의 학장을 맡고 있는 통칭 안 학장으로 불리는 분이 앉아 있는데, 민족학에 정진하는 분이라 무교와 관련이 있다.

그의 곁에는 나와 역사천문학회를 만들어 이끌어 온 김 학회장이 앉아 있다. 김회장은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지하철 전동차를 처음 대우에서 만들 수 있게 엄청난 도움을 분이다.

그의 곁에는 공학박사이고 외국대학으로 국내에 연고가 있는 어떤 대학의 학장으로 계시면서 주역에 조예가 깊은 박사님이 앉아 있다.

그의 곁에는 의정부에서 무속대학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무당에게 실무교육을 교육하고 있는 송원장이 앉아 있다.

그 곁으로는 무속인 협회에서 연수원장을 맡고 있고, 역시 용산에서 무당의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 박 원장이 앉아 있다.

나와 마주보는 자리에 앞으로 이 모임을 이끌어 갈 차원장이 앉아 있다.

송 원장은 나를 보자 초면인데도 반가워한다.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서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말이다. 박 원장과는 매년 〈삼각산축제〉 때 행사관계로 만나게 됨으로 벌써 10년 가까운 구면이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 차례가 와서 '무교의 논리적 합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했다. 이론의 틀을 제공해 준 것은 〈천부경〉이다.

잠깐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에 들어갔다. 협회에서 점심식사를 배달하여 테이블을 식탁삼아 그대로 먹었다. 다음 강의는 의정부에 있는 송 원장 사무실에서 송 원장이 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정해년의 <천부경>

노중평

<천부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사람이 저마다 틀려 일치하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본문은 3과 음양을 주제로 하여 해석하였다. 丁亥년이 중국의 해가 될 것 같으므로 우리민족 最古의 경문인 <천부경>을 읽어 내 마음을 가다듬기로 하였다.

天 符 經

一始無始 / 一析三極 / 無盡本 / 天一一 / 地一二 / 人一三
 一積十鉅無匱化 / 三天二 / 三地二 / 三人二 / 三大三合
 六生七八九 / 運三四成環 / 五七一妙衍 / 萬往萬來
 用變不動本 / 本心本太陽昂明 / 人中天地一 / 一終無終一

天 符 經

一로 始하여 始가 無하니 (처음이 있으나 하나로 시작한 처음은 없네)
 一에 析하여 三極이라 (하나가 갈라져 세 끝으로 가다가)
 無는 盡의 本이라 (없어짐은 다함의 근본이라)
 天은 一로서 一이요 (우주는 하나로 시작하여 전체가 되며)
 地는 一로서 二요 (땅은 하나로 시작하여 개체가 되며)
 人은 一로서 三이라 (사람은 하나로 시작하여 부모와 자식이라)
 一이 積하면 十鉅하고 (하나에서 쌓여 열이 되고)
 無로 匱化니 (없어지는 것으로 쌓이네)
 三天은 二요 (三極하는 天은 음양 둘이요)
 三地는 二요 (三極하는 地는 음양 둘이요)
 三人은 二라 (三極하는 人은 음양 둘이라)

三은 大하여 三으로 縮이 되네 (삼극은 크도다 삼극으로 함이 되네)
 六은 七을 生하니 (삼극이 합하면 육이요 육은 칠을 생하니)
 八을 생하고 九를 생하네 (팔을 생하고 구를 생하네)
 運하여 三이 되고 (하나가 운행하여 삼극이 되니)
 五七—妙衍하고 (五가 앞이요 七이 그 다음이요 —은 세번째라 妙衍하고)
 萬으로 往하고 萬으로 來하네 (만물이 오고 만물이 가네)
 用하고 變함은 不動하는 本이요 (써서 변하다 해도 본질은 움직이지 않음이 본이요)
 本은 心이라 本은 太陽과 昴明이라 (본은 마음이니 본은 양을 크게 하고 음을 높임이라)
 人의 中에 天地가 —이라 (사람 안에 천지가 하나 되어)
 —은 終이나 無가 終하고 —하니라 (처음은 끝이 있으나 없음이 끝나는 것이요 하나가 시작하는 것일세)

주

〈천부경〉은 9900년 전에 한인천제가 세운 한국의 시대에 구전으로 전해오기 시작하다가 5800년 전에 배달나라를 세운 한웅천왕이 신지 혁덕에게 명하여 녹도문자로 기록하였다. 신라말에 최치원이 전문을 한자로 해석하여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갑골문자로 쓴 〈천부경〉도 전해온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 〈천부경〉을 모 민족종교 교단의 경문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종단이 생긴 때는 일제침탈기에 해당하므로 사실 그 종단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전수되어 온 경문임을 알아야 한다.

백성을 거지로 만드는 나라 백성의 꿈

노중평

내가 22세 때
시청 앞으로 탱크가 굴러왔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행진을 하였다
혁명공약을 읽었다
총칼을 들고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그때
배웠다.

나의 5대조고모할머니
고종황제의 시녀였던 5대조고모할머니가
근엄한 상궁의 복장을 하고 나타나셔서
문득 나를 불렀다

내가 고종황제의 밑에서 그분을 위하여
생애를 바쳤던 것처럼
너는 저 분의 밑에 가서
면발치에서 저분을 위하여 생애를 바쳐야 한다
고 말씀하셨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요?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조상들이 너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야 저분 밑에 가서
생애를 바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

내가 면학을 포기하고 공직에 들어서면
저분 가까이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스스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조상들이
너를 그리로 보낼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자
내게 내 인생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5대조고모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나는 훨훨 날고 싶었던 꿈을 접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노력하지 않고서도
5대조고모할머니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다

나는 먼발치에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정원사처럼 역사를 아름답게 가다듬었다
그의 손은 신의 손이었고
그의 생각은 신의 생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하여 일했다
그는 조상들이 시키는 대로 목숨을 바쳐 헌신했다

어느 날 그분은 비명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나는 주인을 잃고 이제 은퇴한 늙은이가 되었다
가난했던 나를 집이라도 지니고 살게 해 준 건 그 분이였다

요즈음 나는 집을 팔았다
5대조고모할머니가 오셨다
큰일났다 이 나라에 거지들만 우글거리게 생겼구나
하며 우셨다
이제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

아주 특별한 동짓날

노중평

집사람이 돈 3만원을 솥대 앞에 놓으면서 <출자성出子成>에 다녀오라고 한다. 동짓날이 되었으니 우선 동지팔죽을 먹어야 하고 우리가 내가 살기 시작한 곳에 이사 왔을 때 <출자성>의 이성실씨가 다녀갔으니 예의상 다녀오라는 것이었다. <출자성>은 내 집이 있는 곳에서 직선거리로 1km가 채 안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고 두 집이 같은 소사구 심곡동에 있으므로 이웃인 셈이다.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격암 남사고 선생의 비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차수건을 만들었는데, 그가 신어로 받은 문자들이 적혀 있었다. 우牛자를 빼고는 두자가 망가진 글자였다. 그러나 남사고 선생을 연상하기에 손색이 없는 문자들이었다. 기도 중에 남사고 선생이 실려 알게 되었다고 한다.

<출자성>이 내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내가, “격암 선생님이 미래에 세계국가의 수도가 들어설 곳이라고 예언하신 이곳에 미리 와서 살아 보려고 이사 왔다” 고 하자, “내가 먼저 이사 와서 선생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 말하였다. 사실 그는 나보다 2달 전에 먼저 이곳에 이사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그의 신도회장과 몇 사람을 <출자성>에 초대하여 내게 인사시켜 주었다. 그 자리에 가수를 하며 그림을 그리는 안 선생이 합석해 있었다. 안 선생과는 여러 곳에서 만난 적이 있으므로 구면이었다. 신도회 회장은 고위공직자로 있다가 퇴직한 분으로 기氣에 관하여 깊이 연구하여 출간한 저술을 여러 권 갖고 있었다.

오늘(2006. 12. 22.)은 동짓날이라 13시에 교보문고 앞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으므로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09시가 조금 넘어 집을 나섰다. 골목을 착각하는 바람에 한 바퀴 돈 후에야 <출자성>이 있는 빌딩으로 들어섰다. 경인국도京仁國道の 남쪽 인도 변에 약국이 하나 있고, 그 약국의 뒤에 있는 건물의 4층에 <출자성>이 있었다. 계단에 올라서니 징소리와 북소리가 어우러져 들려온다. <출자성>이 독경을 하는 듯싶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그가 5백 나한 앞에 앉아서 독경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아침에 목욕재계하고나서 [嘉慶眞]이라고 쓰고 집사람이 준 돈을 넣은 봉투를 불단佛壇이 아닌 우리 조상을 모신 불단□壇 위에 올려놓았다.

불단에는 생명록에 이름을 쓴다고 앉아계신 최씨 할아버지 한 분, 인삼을 들고 서 계신 산신할아버지 한 분, 또 서낭으로 서계신 장군 한분이 신상으로 모셔져 있다. 벽에는 왼쪽에 단군왕검의 영정이 걸려 있고, 오른쪽에 <출자성>이 검은 갓 쓰고 도포 입고 찍은 사진이 걸려 있다. 신상으로 찍은 사진이다.

이 불단은 출입문 옆(북쪽을 향하여)에 차려져 있고 장군을 모시고 있어서 출자성의 서낭역할도 겸직하고 있다. 중앙(서쪽)에는 3존불이 좌정해 있고 작은 불상들이 삼존불을 모시고 근엄하고 장난기어린 표정으로 세상을 지극히 내려다보며 앉아 있다.

나는 <출자성>이 무엇을 독경하나 하고 귀 기울려 들어보았다. <천수경>을 독경하고 있는 듯 했다. 독경을 하다가 신이 오는지 독경을 떠나 격렬하게 북과 징을 치면서 목청을 높여 무엇인가를 빠른 리듬을 타고 말씀하는데 북소리 징소리에 묻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독경소리에 떠밀리며 부처님들을 향해 앉아 있었다. 드디어 독경이 끝났다.

“언제 오셨어요?”

나를 보더니 반가워한다.

“1시간 쯤 되었어요.”

“09시 22분 동지시간에 맞추어 오셨군요.”

나는 몇 시 몇 분이 동지가 되는지 알지 못하고 왔는데 <출자성>은 그 시간을 알고 있었다. 내가 갑자기 동지대사冬至大使가 된 셈이다. 신들께서 나를 동지대사로 출자성에 보내신 셈인가?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기가 센 분이 오시고 있어서 누군가 했는데 내가 왔다고 말한다.

“팔죽 한 그릇 드셔야죠?”

“들어야죠.”

우리는 옆방으로 갔다. 옆방에는 몇 분의 여자신도들이 있다. 상이 놓이고 팔죽상이 차려진다. 팔죽은 동지 액막이를 한다고 먹는 음식이다. 유태인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액막이를 한다. 그들에게 팔죽이 있었다면 애꿎게 양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상을 치우고 나서 내가

“동지를貞이라고 한다.”

고 말했다.

“왜 정이라고 하느냐” 고 묻는다. 나는 <태극기천도太極□天圖>라는 글을 인용하여 설명해 주었다. <태극기천도>에는 태극은 음양의 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음기는 양기의 끝에서 나오고 양기는 음기의 끝에서 나온다. 기가 오르내리는 공간, 운행하는 공간을 하늘이라고 하였다. 백白을 양의陽儀라고 하고 흑黑을 음의陰儀라고 하였다. 백이 점차 자라는 것을 원형元亨이라고 하고, 흑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이정利貞이라고 한다. 원형을 춘하춘夏라고 하고 이정을 추동秋冬이라고 한다. 이들이 회전한다. 1년이 이와 같이 운행하고, 1시간이 이와 같이 운행하고, 1분이 이와 같이 운행한다. 정貞이 동지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

가 여기에 있다. 원형이정元亨利貞에 있는 것이다.

“기에는 네 가지가 있다” 고 내가 말한다. 백지 위에 4가지의 기를 써보였다.

기기가 있다.

기氣-쌀米를 먹어서 생겨나는 인기人氣이다.

옛날 사람들은 태양의 기를 기자 안에 일日자를 넣어 표현하였다.

또 달의 기를 기자 안에 월月자를 넣어 표현하였다.

기뿔자가 있는데 무기無氣한 기이다.

불을 때어 생성되는 기를 기□라고 하였다.

여자신도들이 재미있어한다. <출자성>이 내게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법당 뒤에 있는 작은 방으로 불러들인다. 내게 큼직한 나경羅經패철을 내놓는다. 기품이 있게 만든 것이다. 나무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패철을 넣은 것이다. 여의주如意珠를 가운데 두고 청룡靑龍과 주작朱雀이 다투고 있다. 솜씨가 정교하고 아름답다. 근래에 만든 것은 아닌 듯하다.

나경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은 “포라만상包羅萬象에서 羅자를 따고 경륜천지經綸天地에서 경經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라고 한다. 나경을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패철佩鐵이라고 하였다. 풍수지리에서 용, 혈, 사, 수, 향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여 길방吉方과 흉방凶方を 판별하는데 쓴다. 태극에 나경의 원리가 있다. 태극은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는데 나경패철의 한가운데 원으로 된 부분이 태극이고, 남북을 가르치는 자침磁針이 음양이다. 원을 기준으로 하여 밖으로 나가며 글자가 배열되어 있는 층을 순서대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으로 구분하는데, 우주의 운행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며 36층으로 이루어 졌으나 풍수지리에서는 보통 9층까지만 사용한다.” 고 하였다.

제1층은 팔요황천살八曜黃泉殺을 표시했다. 모두 8개 방위의 황천살을 나타낸다.

제2층은 팔로사로황천살八路四路黃泉殺로 황천 방위를 표시했다.

제3층은 오행五行으로 목木, 화火, 금金, 수水 사국四局의 삼합오행三合五行을 표시했다.

제4층은 지반정침地盤正針으로 기준선이며 24방위를 큰 글자로 표시했다.

제5층은 천산72룡穿山七十二龍으로 60갑자와 12개의 공란을 표시했다.

제6층은 인반중침人盤中針으로 24방위를 표시했다.

제7층은 투지60룡透地六十龍으로 60갑자를 표시했다.

제8층은 천반봉침天盤縫針으로 24방위를 표시했다.

제9층은 분금分金으로 120칸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48개의 갑자를 표시했다.

내가 나경패철을 들고 풍수지리를 보러 다닐 일은 없겠으나 언젠가 딱 한 번 써먹을 때가 올지도 모르므로 나경 보는 법을 훈련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내가 나경을 써먹을 때가 온다면 아마 그때는 성주산 위에 전 세계인류가 볼 수 있도록 솟대를 하나 세우는 장소를 찾는 일일 것이다. 그런 때가 온

다면 나는 <출자성>과, 또 격암 선생에게 꼭 빠져 있는 몇몇 사람들과 이 일을 함께 하게 될지도 모르리라. 어쨌거나 즐거운 상상이 아닐 수 없다.

<출자성>은 내게 내년은 정해丁亥년이 됨으로 돼지를 한 마리 주겠다고 콩알크기만한 황금돼지 한 마리와 보석처럼 깎은 운석 1개를 내놓는다. 정해 년에 운수가 대통하라고 주는 것이다.

내년은 음해陰亥年인데, 음해는 활동하지 않는 돼지요 진열장 안에 단장하고 들어앉아 있는 돼지이다. 그러므로 돼지를 신단에 모시는 한 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구 잡아먹는 것을 삼가하고, 먹고 싶으면 제사에 제물로 올리고 나서 먹는 것이 어떨지. 정해丁亥가 음해陰害로 발전하는 것을 막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 보자는 것이다.亥가 북방北方이니 북방에서 음해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기르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해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해亥가 핵核으로 발전하여 썩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다.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해 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각설하고, <출자성>이 내게 나경패철과 황금돼지를 주는 것이 격암 선생이 <출자성>을 원격조정하여 나를 성주산에 묶어두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은 아닌지-잠시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내가 일어서야죠. 그래야 신도가 많이 오죠."

내가 일어선다.

<출자성>을 나와 전철을 타고 종각역에서 내린다. 교보문고 앞에서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이다.

2006년은 저물어 가는데 모처럼 남태령 한양굿판에서 하루해를 보내다

노중평

늦은 나이에 무당의 길로 들어선 외사촌 여동생이 자기를 가르치는 박수선생이 굿을 한다고 한번 와서 보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풀코스로 제대로 하는 한양굿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터라 가보기로 하였다.

굿당이 남태령에 있다고 한다. 서울에 수십 년을 살면서 가 본 적이 없었으므로 남태령이 내게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동생이 가르쳐주는 대로 지하철 1번 출구로 나오니 출구가 주택가에 폭 파묻혀 있었다. 핸드폰으로 통화하여 파악한 대로 길을 따라가니, 교회가 나오고 교회를 끼고 도니 바로 산길이 나왔다. 길이 끝나는 산 중턱에 <영진암>으로 불리는 굿당이 하나 있다. 군웅굿을 하는 장소가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지 굿당이 음습한 느낌을 주지 않았다.

동생이 아는 체를 하는 방으로 들어가니 굿을 하는 박재균 선생과 장구 조순실, 피리 임기택, 외사촌 동생 장희자, 김보살 등이 오늘의 제가집 박모씨와 함께 있다.

박 선생이 장구 앞에 앉아서 가볍게 장구를 두드리며 부정청배를 하고 있다.

내가 그동안 주로 보아 온 굿은 황해도굿이라 황해도굿에는 익숙해진 편이나 한양굿은 조선왕조시대 한양에 살았던 양반들을 상대하여 행했던 굿이라 사설이 생소하여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대부분이라 익숙하지 못하다. 소사, 소사 하며 이어지는 사설에서 금일정성, 삼재팔란, 관재구설 등의 말이 귀에 잡힌다. 금일정성 드리오니 삼재팔란 관재구설 막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제단을 상단 중단 하단으로 구분하고 제물을 차렸는데, 하단엔 왼쪽에서부터 쌀을 담은 그릇, 북어 2마리를 여덟八자로 벌려 올린 네모난 팔떡시루, 전을 부쳐 푸짐하게 여러 줄로 담은 적대炙臺 4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첫 번째 적대에는 나물과 전이 나뉘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적대에는 두부와 호박전이 반반씩 담겨 있고, 세 번째 적대에는 산적과 전이 반반씩 담겨져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적대에는 나물이 담겨져

있다. 적대 앞에 빈잔 3개가 놓였는데, 막걸리 잔으로 쓰게 될 잔이다. 그 곁으로 오른 쪽에 소주잔 3개가 각각 기대 위에 놓여 있다. 그 아래쪽에 향로와 대접이 놓여 있다.

네모난 시루(원래는 원형의 검은 시루라야 하나 방아간에서 그런 시루에 떡을 찌지 않음으로 구하기 힘들다)는 나라를 의미하고, 시루 위에 여덟팔자로 놓인 북어는 태백금성을 상징한다. 태백은 한웅천왕이 천제를 지내던 산이고, 북어는 동이족 자손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한웅천왕이 천제를 지냈을 때를 상기하기 위하여 만든 고사음식으로 볼 수 있다.

제단의 중단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과일을 괴었다. 왼쪽에 배, 사과, 반시, 굴, 파인애플을 괴었고, 가운데에 백사탕, 팔을 담은 과자, 웨하스, 색사탕, 약과, 산자 등을 괴었고, 오른쪽으로 파인애플, 바나나, 굴, 감, 배, 사과 등을 괴었다.

제단의 상단에는 왼쪽에 잔, 흰 고깔을 놓고, 양은시루 2개를 나란히 놓았다. 가운데에 인절미를 길이로 편을 만들어 3편을 올렸고, 시루와 인절미 사이에 별떡을 놓았다. 편 위에 살재비꽃을 분홍, 노랑, 자색 순으로 한 송이씩 꽂았다. 네 번째 편에는 팔떡을 올려놓았다. 그 옆 오른쪽으로 인절미 2 편을 올리고, 그 위에 분홍살재비꽃과 자주살재비꽃을 꽂았다. 인절미 편이 끝나는 곳에 별떡을 놓았다. 그 옆으로 육적을 놓았다.

오른쪽 옆으로 조상상을 별도로 차렸다. 흰살재비꽃을 상 상단 왼쪽에 꽂아 두었다. 조상을 상징하는 꽃이다.

“00박씨 안당 기주 관재구설 걷어내고 삼재팔란 소멸하고 전안의 제문 열어주고 불의 영산 신의 영산 산에 올라 호영산으로 내려 제갈영산 못 영산 수많은 때.....”

제금이 울리며 굿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굿은 창으로 진행된다. 노랫가락이다. 움직임이 많지 않다. 신은 무악巫樂에 실린다. 황해도굿이 무반의 굿이라면 한양굿은 양반의 굿이다. 그래서 놀이성이 강하고 굿의 음악은 서글프기도 하고 때로는 신명이 나기도 한다. 조용히 듣고 있으면 환상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

제금이 울리고, 주무가 물을 가지고 나가 밖에 뿌리고 온다.

“조상님네 오시는 길에는 가시는 길에는 업장소멸 알려 주옵시고, 00 박씨 병오생 도우시고, 죽은 나무 고목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어가듯 금일정성 올리고서 차차 좋은 일이 있게 도우시고.....금년보다 내년이 더 낮게 하옵소서. 마음먹은 대로 소원성취 도와주소. 정성덕을 입혀 주고-”

피리가 함세한다. 조무가 제가 집에게 묻는다.

“절 좀 하실래요 천제단에 3번, 조상상에 3번 하세요.”

안당 기주가 시키는 대로 절한다. 제금을 쳐준다. 장구가락이 힘차지나 느리게 간다. 사설은 반복되는 듯하다.

“관재구설 물리쳐주시고.....”
곳은 조용하게 진행된다. 편안하다.

독경을 멈추고 잠깐 쉰다.

“1년 12달 제가가 빌지 못하는 것을 단번에 대신 빌어주는 것이 곳이다. 인간은 신을 보지 못하지만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 갈구해야 도와준다.”

라고 박 선생이 제가에게 말한다.

제가는 처음 곳을 해 본다고 한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곳을 이해한다는 것 도차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뭐가 뭔지 모를 것이다.

“제가 본인, 신당, 조상과 신들의 마음이 맞아야 신들과 조상이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정성이 필요하다. 제물을 차리는 일에서부터 신에게 바치는 지전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바치는 일이다. 옛날엔 한양에서 돈 많은 임금과 양반이 곳을 했으므로 곳을 할 때 돈을 많이 썼다. 양반 곳을 하듯 지금도 무당이 돈을 달라고 한다. 빌어 보니 잘 될 것 같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 재작년에 괜찮았고 작년에도 괜찮았다.”

다시 곳으로 들어간다. 이제 독경은 없다. 선거리로 직행하는 것이다.

주무, 청치마 위에 홍치마를 입는다.

“대감 댁 마나님이 12폭 치마를 입는 것과 같다.”

홍치마를 허리에 두르며 말한다.

위에 백색 포를 입는다. 홍색 의대를 한다. 다 입고 나니 칠성복이다. 칠성방울과 칠성부채를 든다.

주무가 선창하면 장구가 받는다.

동두칠성 / 동두칠성

서두칠성 / 서두칠성

남두칠성 / 남두칠성

북두칠성 / 북두칠성

장구가락이 유연하다. 주고받는 소리가 장구가락에 실린다. 이 파장이 하늘로 전달되어 칠성님을 움직인다. 북두칠성이 12진을 공전하면서 동쪽에 있으면 동두칠성이 되고, 서쪽에 있으면 서두칠성이 되고, 남쪽에 있으면 남두칠성이 되고, 북쪽에 있으면 북두칠성이 된다. 12폭의 치마는 북두칠성이 공전하는 12진을 상징한다. 해가 공전하는 황도의 범위를 12월이라고 하고, 북두칠성이 공전하는 천도의 범위를 12진이라고 한다.

주무, 방울을 내려놓고 고깔을 쓴다. 장구, 제금, 피리가 어우러진다. 특이하게도 황해도굿판에서 열심히 두드려대는 징이 보이지 않는다.

칠성님을 모셔오셨는데 어디에 모실 것인가? 제단 상단에 진설한 인절미와 팔시루떡에 꽃은 색색의 살제비꽃들이 칠성님 7분의 자리가 된다. 부처님이 연화대 위에 앉는다더니 칠성님들이 살제비꽃 위에 앉으시는 것을 복사하여 써먹는 것이다. 서양동화에 빵과 과자로 집을 짓고 의자도 과자로 만들어 손님을 모시는 행위와 유사하다. 서양동화에서는 흉물스런 마녀가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빵과 과자로 집을 지어 아이들을 현혹시키지만 칠성님이 떡편 위에 좌정하시는 것은 무당이 당일當日정성으로 칠성님을 모시기 위하여 일일一日정성으로 하는 일이다. 칠성님이 혹시 배고프실지 모르므로 인절미라도 떼어 잡수시면서 앉아 계시라는 듯- 멋진 재미있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주무가 1번 살제비꽃이 있는 쪽으로 절한다. 1번 살제비꽃이 천추성(자미성이라고도 한다)의 자리임으로 칠성님의 우두머리인 천추성에게 예를 올리는 것이다. 천추성은 ‘하늘 척추의 머리별’이라는 말이다. 하늘의 척추가 용의 형상이라 12진을 한 바퀴 돌고나면 4개의 칠성이 된다. 4개의 칠성이 자미원 밖으로 나가면 사신四神이라고 부른다. 사신은 동방창룡칠수, 서방백호칠수, 남방주작칠수, 북방현무칠수이다.

본격적으로 칠성춤으로 들어간다. 칠성춤의 운보運步하는 법은 우보법牛步法이다. 신선의 걸음걸이인 소 걸음이다. 전진했다가 후퇴하고 이렇게 하기를 정자丁字 형상으로 한다. 정자는 백정白丁이라는 뜻이다. 백정은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관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은 1번 살제비꽃이 있는 방향이다. 그러므로 장구의 방향이 되지 않는다.

“할머니 때 공을 들이던 집안이 아니냐? 안당安堂 기주祈主 남모르는 설음 많구나. 부모형제가 알 리가 없지. 밤이면 술 한 잔 하고 베개 적시는 형국이 아니시더냐. 외주 따라 신 따라 오셨구나. 금전으로 도울 수 없었지만 머리 좋아 서방 만나 잘 살 줄 알았지만 마음고생 많았다.”

공수가 위로의 말씀이다. 제가가 눈물을 보인다. 무악이 구성지게 흘러간다.

“여기서도 말 못하고 병어리 냉가슴으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내 조상들 화회 받아 도와주마. 걱정하지 마라. 이 정성 하고 나서 열심히 빌어. 불사□事 할머니 다녀가서 도와줄게.”

무당이 구연하는 불사할머니는 절에서 스님이 구연하는 불사佛事와는 성질이 다르다. 옛날 신시시대에 각 인종이 모이던 시장市場에서 무교巫敎의식이 벌어졌으므로 시장에서 행한 무교의식이라고 하여 불사□事라고 했던 것이다. 불사할머니라면 모계시대에 불사를 관장했던 최고 지위의 할머니를 말한다. 이 불사가 그대로 발전하여 단군조선시대에 대감거리가 되었다. 대감은 남자였고 비왕에 버금하는 지위였다.

춤이 천천히 계속된다. 동두칠성, 서두칠성, 남두칠성, 북두칠성, 사두칠성이 구연된다.

“자손들 수명장수 정성덕精誠德이 피어난다.”
고 구연한다.

주무, 칠성 의대를 벗으며,
“오늘 안당 기주 자손창성 도와주시고”
제금을 치며 도무를 춘다.
“백양사 중상님도 오셨었지. 조상님 화해 받아서 백팔염주 목에 걸고”
재금 치며 창한다.
“자녀여식 명바라시주 복바라시주라. 기주가 욕심이 없는 듯해도 욕심이 많아.”
제단에서 대추와 밤을 가져다준다. 안당 기주가 대추와 밤을 받는다.

주무, 장군복으로 갈아입는다. 청치마, 청쾌자, 홍저고리를 입고 홍갓을 쓰고 오방기를 든다. 처음 굿을 하는 안당 기주는 그냥 멍하니 서있다.
“안당 기주가 신령님 전에 발원하는 것이 초등학생 같애.”
오방기 위에 지전을 놓지 않는다고 한마디 한다. 아마 옛날에는 굿거리거리마다 돈을 놓았을 것이다. 당시가 호혜경제시대이므로 굿비용을 이렇게 하여 충당했던 것이다.
“뭐가 급해서 혼인했나. 공부해 교수나 하지. 신장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신다. 덩덩덩 얼씨구 절씨구-”
춤이다.
“금년에 삼재팔란 걷어내고 관재구설 걷어내야 하니까”
안당 기주가 푸른 지전 석장을 오방기 위에 놓는다.
“” 어디에서 얘기 들었어? 3개씩 내는 거. 대감님이 거들어서 거치게 도와주고-”

주무, 전립을 벗고 나서 대감복을 벗는다. 연두색 몽두리로 바꾸어 입고 창부가 된다. 창부가 하는 일은 홍수막이이다. 부루태자夫婁太子가 창수사자蒼水使者가 되어 아버지 단군왕검의 명을 받들어 우사공 앞에 가서 황하의 홍수가 넘치지 말라고 12달 홍수막이를 해 주었다. 그때 무악이 큰 역할을 하였다. 부루태자가 직접 피리나 대금을 불었다. 그래서 창부蒼夫가 창부倡夫로 와전된 것이다.

“삼재팔란 관재구설 걷어주고-”
주무가 제단에서 술잔을 들어 방문 밖으로 3번 뿌린다.

주무, 홍철릭으로 갈아입고 검은 갓을 쓴다. 소당기나 신대를 대신하여 한지를 길게 삼각으로 접은 것을 양 손에 든다. 소당기에 붙이는 것을 폭이 크게 접은 것이다. 걸음걸이는 칠성거리와 비슷하다. 제단과 제가를 오간다.

“칠갑 산 산신님 인왕산 산신님 삼각산 산신님 화해 받으시고, 옥설 없고 구설 없고 삼재팔란 없게 도와 주고, 지리산산신님 금정산산신님 백두산산신님 관악산산신님 남한산성산신님 아니시던가. 안당 기주가 이 정성 다하고, 산신님 수위에서 세계각국산신님 화해 받아, 마음먹은 대로 소원 이루게 하여 주신다. 부군도당님 아니신가. 부군도당 문 열어 삼재팔란 없게 도와주신다.”
삼지창에 일월도를 들고 도무로 들어간다. 군웅거리다.

“군웅할아버지 얼굴 보니까 늘 얼굴 찡그리고 살아 마음이 편치 않아. 할머니가 군웅문 열어 도와주시고-”

주무, 갓 벗고 삼지창과 칼 내려놓는다. 홍치마를 머리에 덮어쓰고 방울 들고 호구아씨가 된다.

“남한산성 산신호구 호구씨들 화해 받자고 오셨는데, 호구씨가 이 너울 벗고 가자고 하니 벗고 가라는 데-”

안당 기주, 지전을 놓으니 너울을 벗는다. 잠깐 도무를 춘다.

“너울을 벗고 보니 안당 기주 보이지 않고- 내 안당 기주 잘 되게 도와주고-”

주무, 황색 포로 갈아입고 녹색도포를 위에 입는다. 삼각한지를 양손에 들고,

“삼위삼당 00의 가중에 외조 집 본향 아니신가. 혼을 주신 본향 아니신가. 본향님들 다녀가시는 길에 사위삼당 화해 받으시고 오늘 삼재팔란 거두어 도와주소서. 내 12대문집이 아니신가.”

“할머니가 도와주고- 얼씨구절씨구, 절씨구나-”

주무, 황포를 벗는다. 조상옷을 들고 조상굿으로 들어간다. 안당 기주 앞에 가서 조무와 함께 베를 가르고,
“할아버지가 오셨다, 할머니가 오셨다고 하면 그런 줄 알지 무엇을 알겠느냐. 할아버지가 소원 이루게 거들어주마.”

베를 찢는다.

할아버지가 오셨다는 말이다.

“대대로 여자가 드센 집안이야.”

주무, 소복 치마저고리로 갈아입는다.

할머니가 오셨다.

“천금같은 내 손녀야. 할아버지 다녀갔으니 내가 도와줄게. 아깝구나. 아까워. 외국 타국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이왕지사 만났으니까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니.”

장구 : 애들 같이 살게 해 주세요.

“신령님 전에 빌어서 관재 벗어나게 도와줄게. 울지 마라. 펑펑한 네 심정을 누가 아느냐. 너희 아버지 잘 있지? (대금소리가 구성지다) 할머니가 도와줄게.”

장구 : 도와주세요.

“올해만 잘 넘기면 괜찮으니까 조심조심해.”

장구 : 잘 도와주세요.

아들 베를 찢어준다. 할머니 돌아간다.

“외할아버지 왔어. 잘 살지.”

주무, 조상복을 걸친다. 피리소리가 구성지다.

“안 살듯 하더니 어찌 그리 오래 살았지.”

외할아버지가 씌 듯 절뚝거리며 걷는다.

“외할머니 잘 계시냐? 네 외할머니는 천상 여자다. 참고 살라고 했다.”

주무, 애들 옷가지를 가지고 와서 베를 찢는다.

“자손인데 뭐 그러냐고 정리되게 해 달라고 해. 조상들이 화해 받고. 누가 옆에 있는 게 안 지겹냐?”

“지겹죠.”

“속상해 하지 말고 살아.”

옷을 다 내려놓는다. 방문으로 베를 가지고 가서 조무와 함께 가른다. 가른 베로 안당 기주의 몸을 휘둘러 준다.

주무, 부채와 방울을 든다.

“신사덕이시오.”

남치마를 벗어 조무에게 준다. 제단에 절하고 일어선다.

장구 : 조상이 험한 조상이 없어.

안당 기주의 집안 조상이 험하게 죽은 조상이 없다는 뜻이다.

주무, 황포를 입고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춤을 춘다. 소매를 푼다. 오방기를 들어 올려 멘다. 오방기는 황기·백기·흑기·청기·홍기이다. 다들 꺼려하는 흑기黑旗를 쓰는 점이 특이하다. 격식에 맞추어 쓰는 것이다. 일월도를 전횡 위에 대어 본다. 옛날에 군대에서 전사한 원혼을 달리기 위하여 했던 것이다. 원혼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지시해 주는 것이다.

“관성제군 화해 받아, 장장군에 조장군에 화해 받아서, 삼재팔란 거두게 이 정성드립니다- 동남풍이 불어오듯-”

오방기를 내려놓고 일월도를 들고 춤을 춘다. 관성제군은 도깨비대왕 치우천왕의 직계 후예이다. 탁록에서 청구가 망하고 연나라도 망한 후 후한시대에 태어나 동향 출신 유비를 도와 촉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날리다 그의 조상 치우천왕처럼 목이 잘려 전사했다. 동남풍은 조조의 수군을 괴멸시킨 태풍이다.

“감악산 비뜰(벼슬)대왕 오늘 인왕산에 화해 받으시고 삼재도 거두게 도와주라 안방 기주 편들어 도와주시고- 백마장군 아니신가 용마장군 아니신가- 명잔에 복잔에 거들어 도와주고-”

관성제군에게 화해 받는 조정자가 되어 달라고 비는 것이다. 감악산 비뜰대왕은 왕검산에서 벼슬한 대왕

이라는 뜻이다.

주무, 흥갓 쓰고 흑괘자 입고 주황색 천과 홍색 천이 반반으로 섞인 포를 입고, 왼손에 삼지창을 들고 오른손에 부채를 든다.

“경복궁 윗대궐- 쌍작두는 칼날을 타시고 관재구성 거두시고 삼재팔란 거두어서 (절한다) 신사덕을 세우시고 마장군 오대장군 화해동심 받으시고-”

월도를 사슬 세운다. 사슬이 선다. 친다. 쓰러진다.

주무, 밖으로 나가 돼지사슬을 세운다. 장구 · 제금 · 피리소리가 소란스러워진다.

주무, 안당 기주를 마당에 입구를 향하여 쪼그려 앉힌다. 오방기를 머리 위에 덮어씌운다. 미나리 등으로 부정을 씻어내고 삼색 끈으로 맨 북어를 마당 출입문 쪽으로 던진다. 이어서 한지에 불을 붙여 돌려준다. 삼지창과 일월도로 가볍게 쳐주고 삼색 천을 갈라준다. 액운을 물리치는 의식이다. 때로는 병마를 물리치는 의식이 되기도 한다. 삼색 끈으로 맨 북어는 삼신에게 매인 동이죽을 의미한다.

주무가 안당으로 들어와 오방기를 휘두르며 몇 바퀴 돈다.

“육갑신장 아니시냐”

육갑신장은 북두칠성이 공전하는 12진에 속한 신장이다. 양신을 육갑신六甲神이라고 하고 음신을 육정신六丁神이라고 한다. 이들 신의 우두머리 장수가 육갑신장이다.

주무, 안당 기주를 세우고 오방기로 돌려준다. 육갑신장이 보호해 준다는 의미이다. 칠성님이 보호해 준다는 의미도 된다. 오방기를 뽑아 점을 친다. 점괘가 괜찮게 나온다. 이제 육갑신장이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어도 좋으리라.

“신장님이 거들어 도와주시고 둔갑신장 육갑신장 벼락신장 이 정성 받으시고 거들어 도와주시고 가시자 - 열씨구절씨구 안당 기주 신장님들이 나쁜 액은 다 거두고 도와준다고 하신다. 그래도 앉아있고(일어서라는 뜻이다) 신장님들 거들어서 나쁜 액 막아주고 관재구설 가려주고.....”

주무, 잠깐 도무.

“대감 아니신가. 별성대감 화해 받아서 대감님 돈 들어오게 도와줄게. 벼슬하시던 참봉 오시고- 나쁜 수 거두게 도와주시고- 회사에서 잘 되게 도와주시고- 잔치하시면 큰 소 잡아 소양품에 받으시고- 물을 잡수시면 국화주로 받으시고 어느 대감님 화해 받고 상덕 입혀 도와주고 쳐들어서 도와주고- 열씨구절씨구 대감님 도와서 삼재팔란 물러가게 도와주고.....박씨, 조상대감 제장 대감 오셨어. 돈 많이 벌었어? 대감님들 화해 받고”

안당 기주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오냐. 이 정성 하고 나서 여러 대감 화해 받아서 내년에 잘돼.....”

주무, 도무를 춘다. 안당 기주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 내가 오셨네.”

주무가 한마디 한다.

장구 : 직성대감 오셨어.

“작년 재작년에 돈 들어왔어. 대감님께 종합소득세 좀 내 봐. 동서사방문 열어 도와주고. 욕심 많고 탐심 많고- 내 대감이 화해를 받아서 돈 잘 벌면 갚아야 해. 이걸 내가 특별히 주는 거야.”

대감이 안당 기주에게 무엇인가를 준다.

“마음을 넓게 써야 해. 이제부터 도와야 하니까. 우리 대감님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안 놀로 열심히 살았나? 애가 상전 되고 신랑이 상전 되었지.”

주무, 전립을 뒤로 젖히고 시루를 머리에 인다. 시루 위에 놓였던 북어를 오른손에 든다.

“대감님이 안당 기주를 도와주라고 하셔서, 삼재팔란 들어서 입술 막아주고 가야하고-”

안당 기주가 지전을 2마리 북어의 입에 물려준다. 주무가 문 밖으로 막걸리를 뿌린다.

“명떡에 운세떡에 이 떡을 사 갈 거요? 말거요? 대감님이 가만히 보니 돈이 없는데 수표딱지도 없는데 여기 사인해야 해. 욕심 많은 내 대감, 탐심 많은 내 대감 여기 받아.”

떡시루를 안당 기주에게 준다. 안당 기주가 받아서 조무에게 주고 조무가 시루를 제자리에 놓는다. 쾌자 자락을 키 삼아 북을 떠 담아 안당 기주에게 준다.

주무, 옷 벗고 절하고 끝낸다.

주무, 홍철릭을 입고 검은 갓을 쓰고 오른 손에 부채를 들고 왼손에 소당기에 매다는 백지를 들고 성주궁으로 들어간다. 도무 후에 사설한다.

“성주 아니신가. 성주 삼부인 마누라 인 받아서 업성주 복성주 복을 내리듯 삼부인 마누라- 박씨의 가중에 조양 전에 공들이던 가중에 도와 달라는 정성- 삼성떡 입혀 도와주시고 천하장군 지하장군 화해 받아서-”

삼부인 마누라를 삼부인三符印 마누라로 보면 천부삼인天符三印이 된다. 천부삼인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천부인이고 무당이 쓰는 명두가 된다. 삼성떡은 삼성덕三聖德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한인 · 한웅 · 단군왕검의 덕으로 볼 수 있다.

한지를 촛불에 붙여 안당 밖으로 나가서 소지올리고 들어온다.

“삼재팔란 나쁜 운세 거두어 금일 정성 드리고서 신사덕神祀德을 입혀서-”
홍철릭을 벗어 안당 기주에게 준다. 신령에게 제사지내고 받은 덕을 준다는 뜻이다.

주무, 몽두리차림이 된다. 창수사자 부루태자인 창부가 왔다.

“경상도 안동 창부 전라도 순천 창부 (등등) 신령진전 화해 받고 잘 되게 도와주시고 걱정하지 말우. 기주 마음 모질지 못한테 이득이 될 건지 모르고 사회생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얘기 못하는데- 연말, 지금 시절 애들 생각나고 심란하다. 창부씨 가보니. 창부씨도 도와주어 삼재팔란 거두고 관재구설 잘 넘어가고- 안당 기주 창부씨 볼 거야 말 거야?”

“볼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얼씨구 절씨구 창부-”

12달 홍수매기로 넘어간다. 홍수막이 하는 창부씨 말씀 들었느냐고 묻는다. 듣지 못했다고 대답한다.

“홍액수 막아내고 액은 액살 막아주고 도와주고 삼재팔란 거두어서- 금잔에 금을 뜨고 재수잔에 재수 뜨고 은잔에 은을 떠서- 못 들었다니 못 받아가야지. 들었거나 못 들었거나 중요한 거야. 들었거나 못 들었거나 창부씨가 다 막아주었으니 외상으로 해?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랬어. 도와주고 이 정성 화해 받았다고 신사덕이 빌어드려서 인간이나 신이나 섭섭함이 없어야 해. 투자해야 되는 거야. 창부씨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인간이 나타나도 보지 말고 내년에 해야 해. 올해는 손재형국이야. 내년 위해 잘했어. 이 정성 드렸으니까 3년 씨 뿌렸다고 해.”

덩덩덩 춤으로 넘어간다.

“다 받아갔으니 복을 쓸어 준다. 동서사방 문 열어서 창부 재수 문 열어서 나쁜 운수 걷어주고 이돈 명돈 복돈 재수돈 된다. 아까 창부씨 돈도 갚아.”

주무, 제단에 절하고 끝낸다.

약 6시간 동안 주무 박재균 선생이 단독으로 점심시간 빼고 쉬지 않고 굿을 하였다. 요즈음 굿을 이렇게 하지 않고 무당 여럿이 나누어 한다. 그러므로 1인 굿을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굿은 박재균 선생이 나를 위하여 배려를 한 굿이라고 하겠다. 나는 그가 길길이 날뛰는 굿을 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다. 한양굿이 옛날에 양반가에서 하던 기품 있는 점잔은 굿이었으므로 그 기품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굿을 하는 무당으로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굿판에서 신명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명에게 지면 제가를 위한 굿이 되지 못하고 신명의 잔치가 되고 만다. 제가로서는 손해 보는 굿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냉정하게 진행하는 굿도 필요하게 된다.

무당은 굿을 하기 전에 대게 제가에 필요한 공수가 어느 거리에서 나오게 될 것인가를 안다. 그 거리에서 공수가 나오면 그날 제가 굿은 그것으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공수가 안 나오면 군웅으로 넘어가고, 군웅에서 풀리지 않으면 조상으로 넘어간다. 만약 그래도 안나오면 그때부터 비상이 걸린다고 봐야 한다. 풀리지 않는 굿을 억지로 하면 굿이 뒤집어진다고 한다. 문제를 해소하려고 한 굿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굿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 책임지는 굿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친구들 45년 만에 안면도에 가서 함께 하루를 보낸 이야기

노중평

45년 전에 직장에서 만나 친구가 된 몇 사람이 모처럼 안면도安眠島에 가기로 하였다. 김용철 부부, 임우상 부부, 박석영 부부, 이규은 부부, 이정노 부부, 나의 부부, 그리고 사망으로 남편을 잃은 김혜숙씨가 동행이 되었고, 칠순해외여행을 하기로 한 윤우영 부부가 빠졌다.

나는 비교적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닌 편인데도 불구하고 안면도에는 초행이었다. 몇 번 갈 기회가 있었지만 연이 닿지 않아 가지 못하다가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가게 된 것이다. 요즈음 어디를 가보면 처음 가는 곳일 때가 많다. 흥미를 느낀다. 그래서 당장 해야 할 일거리를 뒤로 미루고 친구들과 휩쓸려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안면도행은 12월 13일 09:00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나는 안면도로 떠나기 전날 몇 가지 여행 도구를 챙기면서 금년에 만든 <파도와 등대> 몇 권과 최근에 몇 달 동안 블로그에 올렸다가 출력을 하여 책으로 묶은 <격암 선생 사상의 핵심 생초지락生初之樂>과 해석을 붙여 주면서 윤문을 해야 할 어떤 분의 원고를 함께 싣다. 오가는 차 속에서 시간이 되면 작업을 해 볼 생각이었다.

이번 여행에서 친구 윤우영 부부가 빠져서 섭섭했으나, 세상을 떠난 친구 김종건의 부인 김혜숙씨를 모처럼 보게 되니 가슴 한쪽이 저려 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번 큰 딸을 시집을 보낼 때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을 때도 내내 가슴이 쓰렸다.

모두 모이자 회장인 김용철이 서산瑞山으로 가는 차표를 샀다. 안면도로 직행하는 버스가 11시 이후에 출발한다고 하니 기다릴 수 없어서 서산으로 가는 차표를 끊은 것이다. 1시간 반 정도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려 서산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다시 태안泰安으로 가는 버스표를 끊었다. 서산에서 태안까지는 차비가 1,000원이다. 태안에 도착하여, 다시 안면도로 가는 차표를 샀다. 차비가 3,000원이니 서산에서 태안까지

가는 거리의 3배가 되는 모양이다. 드디어 안면읍에 도착하였다. 거기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오션 캐슬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떠났다.

운전기사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있다가 조금 달리더니 차를 세우고 식당으로 보이는 집으로 들어가 손자를 내려놓고 나와 “미안합니다” 한 마디하고 달리기 시작한다. 관광요원으로 훈련을 받았는지 청산유수로 강변의 풍광을 설명한다.

바다에 할머니바위와 할아버지바위가 있고 이 두 바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그래서 전설이 하나 생겨났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작은 고기잡이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풍랑으로 돌아오지 못하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해난사고를 당하여 물에 빠져 죽은 줄 착각을 하고 할아버지 없는 세상 살기 싫다고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죽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할머니가 물에 빠져 죽은 후라 할아버지 역시 할머니 없는 세상 살기 싫다고 물에 빠져 죽어 바다에 할머니바위와 할아버지 바위가 생겨났다고 한다. 이야기를 마칠 즈음이 되니 두 바위가 눈에 들어왔다. 바위를 멀리 바라보며 바다 옆길을 달리는데 할아버지바위는 빠죽하고 할머니바위는 펄펄잡하다. 바위에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서 신기하다. 택시가 달려가는 방향에 따라 두 바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

한참을 달리더니 명사십리로 보이는 모래사장이 보이고, 모래사장과 육지를 갈라놓은 해안도로를 달리다가 거대한 건물이 나타나는데 그곳이 호텔풍의 콘도인 오션 캐슬이라고 한다. 이렇게 달려온 시간이 약 3시간이 좀 넘었다.

임우상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서 1박 2일 그의 신세를 지기로 하고 온 것이다. 우리가 배정 받은 방은 7층에 있는 702호와 703호이다. 짐이라고 할 것이 없는 짐들을 풀고 점심을 먹으려고 밖으로 나갔다. 명사십리를 걸어서 방포에 도착한다. 방포엔 고기잡이배들이 한가롭게 부두 가에 매어 있고 비수기의 평일이어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눈에 띄이지 않고 침묵을 하듯 조용하다.

수족관에서 횡감을 사다 회를 쳐주는 곳으로 가서 회를 치고 다시 식당으로 가서 술을 마시든 밥을 먹든 할 수 있게 분업화 되어 있다. 대하大蝦 철이라 대하를 사서 프라이 판에 굽고, 해삼을 썰어 놓고, 횡감을 푸짐하게 회를 쳐 놓았다. 남자들은 소주를 몇 병 주문에서 마시기 시작한다. 몇 끼고 회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술 몇 잔 마시며 회를 먹으니 평범한 안주가 생각난다. 회는 이것으로 족할 것 같다. 전과 찌개를 앞에 놓고 막걸리나 마셔야 제격인데.....

밥마저 시켜 매운탕에 말아 먹고 식당을 나오더니 모두들 노래방으로 몰려간다. 노래방에서 장장 4시간을 휘젓다가 밖으로 나오니 석양이 이미 사라진 뒤라 어둠이 덮였다. 할머니바위와 할아버지 바위 뒤로 넘어가는 해를 보고 싶었는데 깜빡한 것이다. 칠월칠석날 저녁에 나란히 떠있는 해와 달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 궁금해진다.

해안가 도로를 걸어 방으로 돌아와서 다시 술자리가 시작된다. 다행스럽게도 술자리가 오래 가지 않았다.

술자리를 치우고 이런저런 대화가 시작된다. 한 친구가 내가 열렬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왜 무당 쪽으로 돌아섰느냐고 궁금해 한다. 그건 학문으로 하는 거지? 하고 다른 친구가 묻는다. 내가 무당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내가 종교적으로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무당에게 깊이 빠져 본 적은 없었다. 무당에게 점을 치러 다닌 적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열렬하게 무당의 옹호자가 되고자 하였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고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다. 이제는 더 이상 무당파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사실 내가 기독교와 결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30년 전 쯤에 내가 다니던 교회로부터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하여 목사가 되라는 권고를 받고 나서였다. 그때 나는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 교육전도사 두 분이 토요일 대학생성경공부시간에 열심히 내가 하는 말을 받아 기록하였다. 그들이 하는 말은 내가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하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노트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에 나가는 일을 중단하였다. 내가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교회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나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때가 그때였다.

기독교와 결별한 후에 나의 관심은 불교와 기독교가 이 세상에 생겨나기 전에 우리의 조상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데에 있었다. 불교의 역사가 2500년,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고, 우리의 역사사 14000년이나 되는데, 1만년 동안 우리 조상이 어떠한 종교를 믿어왔는지 궁금하여 혼자서 연구하며 자료를 찾았다. 그 결과를 책으로 쓴 것이 <고조선의 종교혁명>이다.

최근에는 무교대학을 설립하고 싶어 하는 어떤 분으로부터 무교학巫敎學이라는 학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 나는 무교대학이 설립되고 무교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강의를 해 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강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 한지 2년이 넘었다. 최근에는 그것들을 출력하여 나홀로의 책으로 묶었다. 그리고 제목을 붙였다. <고조선의 역사문화>, <시민을 위한 무교강의>, <시민을 위한 무가해설>, <무당이 되는 사람 곁을 하는 사람>, <격암 선생 사상의 핵심 생초지략>, 이외에도 책을 엮을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더 있다.

나는 가방을 열어 내가 싸가지고 갔던 자료들을 꺼내어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어느 무당이 내게 읽어달라고 보낸 원고는 이런 것을 접한 바가 없는 친구들에게는 지극히 생소한 것이었다.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거침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김용철 회장은 내가 책으로 묶은 것과 원고를 주의 깊게 읽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가민가 하는 눈치다. 어쨌거나 친구들 앞에서 무교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무교의 발전을 위해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다음날 아침엔 유황해수사우나에 가서 몸을 간단히 씻고 해수탕에 담았다가 나왔다. 옷을 입고 나니 땀이 났다. 해변 길을 걸으며 모래사장을 유심히 보았다. 모래가 씻겨나가고 검은 바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전에는 이곳이 아름다운 모래밭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도로를 내고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자연환경을 본래의 모습대로 되돌려 놓으려면 바닷가에 만든 인공의 길을 없

애고 건물도 헐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을 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드디어 서울집이라는 간판이 붙은 곳으로 들어가 콩나물북어해장국을 먹었다. 시원하다. 다시 바닷가 길을 걷는다.

"어, 할머니바위와 할아버지바위의 위치가 뒤바뀌었어!"

하고 한 친구가 탄성을 지른다. 과연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 어쩌구 하며 자갈밭길을 걷는다. 굴을 까는 할머니 몇 분이 굴을 안주삼아 소주한잔 하고 가라고 부른다.

이제 짐을 챙겨 서울로 떠나는 일만 남았다. 귀성하는 차는 2시 반에 출발하는 직행버스표를 끊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안면도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남짓하다.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드디어 서울행 직행버스에 올라탔다. 안면도를 출발하여 홍성 IC에서 서해안고속도로로 들어선다. 3시간 남짓 달린 후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서울 근교에서부터 차가 밀리지 않았다면 30분을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계양산 1인 단독시위를 계기로 찾아보는 계양산 추론의 역사

노중평

계양산의 소나무에서 계양산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1인 시위기사가 실렸다.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올렸는데 모 뉴스사에서 보도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블로그 글번호 13097 | 2006 -12 -08 | 추천 7 | 조회 9233이다.

내가 계양산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때는 우연히 칠월칠석 날 계양산 앞으로 난 도로를 지나가면서였다. 계양산을 가운데에 두고 해와 달이 양쪽에 나란히 떠 있었다. 나는 계양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칠월칠석날 저녁에 계양산위에 뜬 해와 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에 이곳에 독실이라는 지명이 있고, 독실에 굿당이 있음을 알게 되어 <한국의 샤머니즘>의 장영호씨와 여러 번 찾아서 여기서 행하는 황해도굿을 본 적이 있었다. 이곳은 황해도굿을 하는 경인지방의 무당들이 모이는 장소였다.

독(독 · 뚝이라고도 함)실은 독실蠹實 · 蠹室의 변음이다. 그곳에 독신사蠹神祠가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지명임을 상고사上古史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대변에 간파할 수 있도록 감이 오는 곳이다.

지명에서 보면, 서울 뚝섬도 치우천왕의 사당인 독사蠹祠가 있어서 뚝섬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독이란 말, 독에 속한 땅인 둔치란 말도 치우천왕에게서 나온 말로 본다. 치우천왕이 진을 친 데서 나온 말이 아닌가 한다.

우리 굿거리 중에 군웅거리가 있다. 본디 군웅이란 뭇 영웅을 나타내는 말인데 언제부터인가 군이란 글자의 한자를 군사 軍軍자로 사용하면서 무녀들이전쟁, 또 사고로 피 흘리고 죽은 사람, 비명횡사한 사람들을

군웅이라고 해왔다.

지나족의 역사에서 치우천왕과 황제 헌원이 탁록에서 10년 동안 싸운 탁록대전은 상고시대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유명하다. 그들이 이 전쟁에 대하여 보이는 관심도 대단하다. 74회의 전쟁에서 73회는 치우천왕이 이겼으나 74회째의 전쟁에 패하여, 황제가 시신을 다섯 토막으로 시해하여, 산동성 동평군 수장현 관향성과 탁록의 치우재 등에 나누어 묻었다고 기록하였다.

타살 군웅거리에서 돼지를 여섯 조각으로 해체하는 이유가 치우천왕의 죽음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나오지 않았나하고 추측한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치우천왕의 혼백을 위로하기 위하여 후손들이 드렸던 치우제가 변형되어 군웅거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이다.

곳을 아는 사람이라면 무당이 오제를 청배할 때, 치우천왕의 유적지에서 울리는 제사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황제가 치우천왕의 시신을 다섯 토막으로 나누어 사방에 묻고 난 후에 생겨난 무가로 보이는 곳거리가 군웅거리이다. 군웅거리에 나오는 오방신장은 토막난 치우천왕의 시신을 지켜 오는 다섯 분의 신장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웅거리를 탁록의 싸움에서 황제에게 패하여 사방에 묻히게 된 치우천왕의 조각난 몸을 하나하나 불러들이는 무가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동에 청제 들어오는 군웅

남에 적제 들어오는 군웅

서에 백제 들어오는 군웅

북에 흑제 들어오는 군웅

군웅軍雄이는 말에는 치우천왕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韻會〉에서, 웅雄자는,

本□郡地周置雄州

본탁군지주치웅주

본래 탁군 땅을 뺄 둘러 웅주를 두었다.

고 하였다. 탁군은 탁록군을 말한다. 탁록 주변에 둔 웅주를 치우천왕을 지칭하는 지명으로 보자는 것이다. 치우천왕을 군웅이라고 했다면, 황제가 치우천왕을 임금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속마음을 내보이는 것이었다고 본다. 탁록 주변의 땅 〈웅주〉도 치우천왕의 지위를 격하하려는 의도로 두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웅〉자가 자웅雌雄에 쓰이는 말로, 수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렇게 보는 것이다. 치우

천왕을 <수컷>이라고 했다면 대단한 모욕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내가 독실에서 추론해 낼 수 있는 것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치우천왕이다. 초기한성백제시대 당시에 이 고장 일대의 지명을 잉벌로仍伐弩라고 하였는데, 잉벌로란 소서노召西弩가 백제를 세우기 위하여 정벌한 땅이라는 뜻이다. 이곳에 독신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독실이라는 지명이 생겼을 것으로 본다.

나는 독실을 세운 사람이 소서노였을 것으로 본다. 그의 성 소검가 무당이 칼을 물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자이고, 노弩가 쇠뇌를 무기로 썼음을 보여주는 문자이므로 그를 무당이자 무사로 보면 그가 무슨 이유로 이곳에 독신사를 짓게 되었는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그가 잉벌노를 개척하기 위하여 전투를 하면서 통과하며 제사를 지낸 곳에 노고산老姑山이라는 지명들이 붙어 있는데, 노고는 마고를 의미하는 문자다. 서울 독섬에 있었던 독신사도 전쟁신으로 추앙받는 치우천왕을 모시기 위하여 이 고장을 처서 잉벌노仍伐弩로 부르게 되면서 지은 사당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양산을 통과한 소서노가 이곳에 군웅거리를 하기 위하여 독신사를 지었다고 보는 것이다.

독신굿당이 있는 곳은 후진 곳, 퇴락한 시골로 보이는 곳이다. 다른 곳은 거의 다 발전(?)을 했는데 이곳만은 그렇지 못하다. 아마 사라진 독신사의 재건을 기다리는 신장이 있어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실굿당이 있던 이 곳 어디엔가 두 곳의 서낭이 있었다고 한다.

계양산 소나무 1인 단독시위가 우리에게 독실을 회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자연의 훼손뿐만 아니라 역사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의미있는 시위가 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골프장 건설을 저지하는 일 뿐만 아니라 독신사를 복원하고 치우천왕을 우리 조상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자리매김을 하는 일이다. 이 일이 당장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없다. 역사에 관심이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의식이 없고 무식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돈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을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산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하직 인사 오고 죽은 사람은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간다

노중평

12월 초하룻날 김매물 선생의 행사에 가기로 약조를 했는데,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내 밑에 동서 김택수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의 큰아들 영일이가 전한다. 김매물 선생과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뱅이염감굿>을 하고 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연다는데 뱅이영감과 아직 연이 닿지 않는 모양이다.

김택수는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부론의 손곡리에서 폐암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군대생활 할 때엔 장사씨름대회에 나가 황소를 너끈히 타오던 경력을 지녔는데, 제대하고 처제와 혼인하여 한평생 농사꾼으로 성실하게 살며 오랜 동안 이장을 했고, 손재주가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그의 신세 한두 번 안진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몹쓸 암님 앞에는 살아남을 장사가 없는 모양이다. 저승사자가 따로 없다.

그의 고향 손곡리에는 임경업장군 생가 터가 있고,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이 고려에 반기를 든 이성계 태조의 추종세력에게 붙들려 <고려왕국 포기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고장 궁터 골이 있다. 그래서 손곡리의 지명이 손위실遜位室이기도 하다. 손위는 임금이 혁명군에게 자리를 내주었다는 뜻이고, 실은 역사의 산실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손곡이라는 지명은 허균 선생의 스승인 손곡 이달 선생이 이 고장에 사셨기 때문에 생긴 지명이다. 그는 서자로 태어나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조선왕조의 신분제도에 가로막혀 절망의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허균과 같은 제자를 두어 세상에 그 이름과 작품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직장생활을 했던 휴가 때 손곡리에 가서 소주 몇 병 사들고 저수지 독에 앉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마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향토사학자마냥 글쟁이인 내게 손곡리의 역사를 고장 난 축음기를 틀어놓

듯이 되풀이하여 들려주었다. 그는 말년에는 지필묵을 가지고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써서 대문이나 벽에 붙이기도 하고, 동제 때 축문을 써서 읽기도 하였다. 그러던 그가 뒤늦게나마 손곡리 출신의 최고 문사였던 손곡 이달 선생의 뒤를 따라 훌훌 떠나간 듯싶다. 동서가 모두 5명이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6.25 참전용사 출신의 첫째 동서, 둘째 동서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더니, 이제 막내동서가 세상을 떠났다. 세째와 네째가 살아 남았는데 모두 부천 시 소사의 성주산 사람들이다. 나는 최근에야 성주산 사람이 되었는데 격암 선생이 삼신산의 하나로 예언한 지명의 덕을 보는 모양이다.

빗방울이 안개가 날리듯 떨어진다. 방송에서는 비가 그치면 날이 추워지고 빙판이 질 것이라고 한다. 부천에서 부론의 손곡리까지 운전을 집사람이 하며 가야 하는데 빙판이 지면 죽은 사람 원망 듣게 생겼다.

일거리가 있어서 서울에 가서 일을 보고 오니 4시나 되어 같은 동네에 사는 손위 동서와 처형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나와 내자가 앞좌석에 타고 출발했다. 내가 성주산 밑으로 이사 가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마누라가 내 뜻을 꺾지 못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했는데, 아파트를 팔고 나서 집값은 유토피아시대를 구가하는 값으로 꺾충 뛰었지만 덕택에 이렇게 동서, 처형, 내자, 나, 넷이 동승하여 한 번에 어디를 떠나게 되었다. 차창 밖의 온도가 차서 실내에 성애가 낀다. 열심히 닦아 보지만 신통치 않다.

손곡리에 닿으니 날이 어두워졌다. 상가에 온 차들이 대로변에 쭉 늘어서 있다. 언제나처럼 대문은 활짝 열려 있다. 마당에는 대솔과 중솔이 걸려 있고, 화덕의 아궁이에서 통나무장작이 불타고 있다. 마당 한가운데에 아들 3형제가 굴건제복을 하고 대나무지팡이를 짚고 서있다. 이모 둘과 이모부 둘이 들어서자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시작한다.

안방 아랫목에 병풍을 비스듬히 쓰러뜨려 세우고 그 뒤에 시신을 모셨다. 처형과 집사람은 방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곡을 한다. 손위동서가 분향하고 절을 한다. 나도 함께 절을 하는데 1회만 하고 서서 격식을 차린 곡을 한다. 나는 얼결에 2배를 걸레했다. 처제며 다른 식구들은 애가 끓는 곡을 한다. 나는 도회지에서 수십 년을 제사를 지내지 않고 살아서 그런지 곡을 하거나 축을 읽는데 서투르다. 잘 되지를 않는다.

내가 2살 때 생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가 친가와 인연을 끊고 수십 년을 살아온 때문에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내가 직장에 사표를 내고 퇴직한 후에 수소문하여 친가를 찾은 후로 제사에 참가하게 되었으니 그런 일이 몸에 배지 않아 적응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 여파가 지금도 남아 있다.

안방을 물러나 나와 옆방에서 밥상을 받으며 죽은 동서의 친형이며 사촌이며 안면이 있는 친척들과 인사를 나눈다.

건물 밖에 있는 하우스엔 주방을 차리고 상을 길게 놓고 손님을 받았다. 봄엔 모를 키우던 곳이다. 여름엔 채소를 기르기도 했고, 고추를 말리기도 했다. 하우스 밖에 천막을 치고 밖에 모닥불을 피웠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발인은 내일 아침 09시라고 한다. 사랑방 한쪽에서는 고스톱 판이 벌어졌는데 나는 그런 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므로 뒷목에 누워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고 밀렸던 잠을 청했다.

어느덧 날이 밝았다.

“하우스에 가서서 아침 드세요.”

누군가 방문을 열고 한마디 한다.

모두 하우스로 간다. 콩나물해장국을 끓였다. 밥은 생 쌀밥이다. 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동네방송이 들린다.

“동네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아침이 준비되었으니 상가에 오셔서 아침 드시기 바랍니다.”

'과연 농촌은 농촌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조반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대문 밖 대로변에서 상여를 짜기 시작한다. 상여는 손곡리 마을 재산이다. 의정부 상여제작소에서 만든 것이다.

관이 장정 8명에게 들려 대문 밖으로 나온다. 관을 좌정하고 병풍을 치고 제상에 제물을 차린다. 교의를 놓고 영정을 올려놓는다. 제사가 시작된다. 절은 3배다. 정통격식을 차리고 있다. 먼저 처제가 잔을 올리고 아들들이 잔을 올린다. 제사를 마치고 병풍과 제상을 치우고 관 위에 상여를 씌운다. 상여의 색깔이 울긋불긋하고 화려하다. 세상을 떠난 동서들 장사를 치를 때 본 상여에 대한 의문이 이번에도 머리를 치민다.

청룡을 상여 지붕에 배치하고 주작을 앞뒤에 배치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주작을 지붕에 배치하고 청룡을 앞쪽에 배치했다면 이해가 갈 텐데 위치가 맞지 않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백제대향로에서 보듯이 주작의 위치는 지붕이다. 청룡은 사신 중 리더가 됨으로 앞쪽에 배치해야 한다. 현무는 시신의 방위로 치고, 백호는 사망의 방위로 치쳐서 상여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상여가 가는 최종 목적지는 햇별이 드는 마을인 손곡리의 양지마을이다. 복숭아밭이 있었던 곳이다. 상여가 콘크리트로 잘 포장된 농로를 따라 궁터 골로 향한다. 궁터 골에 복숭아밭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심으라고 하여 심은지 3년 되어 또 베어버리라고 하여 베어버린 곳이다. 복숭아나무는 단 한 그루가 없는데 손위실이나 궁터골이라는 지명이 생기듯이 복숭아밭이라는 지명이 하나 생겼다. 내가 금년 11월 17일 복사골로 이사를 갔는데, 이곳의 지명이 복숭아밭이 되었으니 묘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든다. 복숭아와 나와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곳이 농로에서 올려다보인다. 천막을 두 개 쳐놓았고, 포크레인 한 대가 땅을 파고 나서 서있다.

동쪽 하늘에 해가 떠오르고 있다. 해가 지나가는 자리에 궁터 골이 있다. 옛날에 대궐을 지으려면 해가 지나가는 자리에 지었다. 그리고 그곳에 해돋을 엄□자를 각자한 돌을 세웠다. 여기가 궁터 자리라는 뜻이다. 궁터 골에 내자가 70년대 초에 사 둔 땅과 동서의 땅이 나란히 아래위로 붙어 있어, 이곳에 오면 어쩔 수 없이 <고려왕국 포기각서>를 쓴 공양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고려는 망하고 조선왕조는 나라를 얻

은 장소가 여기라고 알려준 사람이 동서 김택수이다.

하관은 12시이다. 12시라면 해가 중천에 와 있는 시각이다. 동네 사람이 총동원이 되어 나이 든 여자들은 밥 짓고 국 끓이고 남자들은 상 놓고 젊은 여자들은 음식을 차리고 먼 곳에서 온 손님을 대접한다. 천막 안에 상청을 차려 늦게 온 손님들이 와서 예를 표한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하직 인사를 온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산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래되어 노쇠한 밤나무를 베어다가 통나무로 모닥불을 지펴 사람들이 와서 언 몸을 녹인다. 커피며 녹차를 돌리는 사람도 있다. 북소리가 울리고 회 달구질하는 창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앞으로 몇 번 달구질하는 창이 울릴 것이다.

선소리꾼이 북을 메고 묘 자리 밖에 서있고, 후렴꾼들 8명이 한손에 대를 들고 서있다. “한 발 치달고” 하고 선소리꾼이 매기면 후소리꾼들이 “아이고 달고” 하며 받는다. 이어서 선소리꾼이 “한발 내달고” 하고 매기면 후소리꾼들이 “아이고 달고” 하고 받는다.

묘자리를 내려다보며 선소리꾼이 '산신 지신 정령님께' 하고 선소리를 매기면 묘자리에 들어가 있는 후소리꾼들이 '아이고 달고'하고 후렴한다. 선소리가 '달고 소리로 고합니다'하면 후렴이 '아이고 달고'하고 매긴다.

'산기 지기 정기 흘러' '아이고 달고'
'혈을 맺은 이 명당에' '아이고 달고'
'가락 김씨 영가된 이' '아이고 달고'
'천년만년 살아 나갈' '아이고 달고'
'잔디 집을 지으오니' '아이고 달고'
'영가된 이 왕생극락' '아이고 달고'
'세세손손 대를 이어' '아이고 달고'
'발복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달고'

'영가된 이 살아생전' '아이고 달고'
'쌓은 공덕 지대하니' '아이고 달고'
'하나하나 읊어보세' '아이고 달고'
'배고픈 이 밥을 주어' '아이고 달고'
'아사구제 하였으며' '아이고 달고'
'헐벗은 이 옷을 주어' '아이고 달고'
'구란공덕 하였으며' '아이고 달고'
'목 마른이 물을 주어' '아이고 달고'
'급수공덕 하였으며' '아이고 달고'

문득 ‘아이고 달고’에 어떤 의미심장한 의미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兒孩姑 達姑”로 읽히기 때문이다. ‘아해고’는 아기를 안고 있는 마고라는 뜻이다. 달고를 풀해보면 아사달고阿斯達姑로 풀림으로 아사달의 여신이 된다. 따라서 ‘아이고 달고’는 ‘아이를 안고 있는 마고가 아사달의 여신이다’라는 뜻으로 풀리는 것이다. 아사달은 ‘아이사타의 들판’이라는 뜻이다. 아이사타는 인류의 시조 나반과 아만이 만난 곳이다. 달고에는 이렇게 ‘아이사타의 여신’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제 삼배건을 쓴 장정들이 관을 운구하여 묘 자리 앞에 놓는다. 지관이 시신의 머리쪽에 앉아서 패철들 들여다보며 방위를 살핀다. 처제가 이 마을에 시집 올 때 시모와 미자 아버지의 어머니가 의남매를 맺어 주어 평생을 의남매로 살아 온 미자 아버지가 아무래도 호상을 맡은 모양이다. 그가 하관을 지휘하고 있다.

탈관지시가 떨어지고 소창으로 묶은 끈을 풀러 탈관하니 칠성판 위에 누여 단단히 묶은 시신이 드러난다. 소창끈을 칠성판 밑에 넣어 네 사람이 들어 묘광에 내린다. 직사각의 직6면체 형으로 판 묘광에 시신이 꽉 차게 들어간다. 시신을 누이고 나서 지관이 다시 패철을 보며 시신의 향을 본다. 묘자리보는 법에 대한 책을 읽었을 때는 글이 하도 난잡하여 무슨 말을 썼는지 모르겠더니 지관이 하는 양을 보니 그가 무엇을 보는지 한눈에 알겠다. 지관은 시신과 복두칠성이 지나가는 길이 어긋나지 않도록 향을 잡아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가 향을 잡아주고 나서 시신 위에 검은 옷칠을 한 사각의 판 7개를 시신의 몸위에 덮는다. 머리에서 3번 재 검은 널판을 벗겨내어 집사가 청색단자를 왼쪽에 홍색단자를 오른쪽에 올려놓는다. 상주에게 삼폐포에서 왼쪽 팔을 벗게 하여 집사가 주는 단자판을 받게 한다. 상주가 단자판을 돌려주니 묘광으로 내려보내 본래의 자리로 원위치시킨다. 이어서 상제들이 3배하여 작별을 고한다. 가족들이 곡을 한다. 장례의식만 아니라면 아름다운 의식이다.

이어서 상제가 차례로 흙을 한 삽씩 퍼서 시신 위에 뿌리는 일로 하관을 마친다. 다시 달구질이 시작된다.

‘한발 치달고’ ‘아이고 달고’

‘한발 내달고’ ‘아이고 달고’

달구질꾼들이 한발 치달을 때 치달는 발 쪽의 손으로 대를 잡고 한 두발로 뛰어 내달되 한발을 크게 벌려 앞으로 내놓는다. 이어서 한발 내달 때도 같은 동작을 취한다. 경쾌하고 빠르고 신명이 난다.

달구질이 얼마나 남았느냐고 한 사람에게 물으니까, 아직도 두 쾌는 더 달구질을 해야 한다고 한다. 갈 길이 멀고 날씨고 좋지 않고 하니 그곳을 떠나기로 하였다. 앞으로 가락 김씨 김태수가 이곳 복숭아밭에서 천년만년 살아가길 빈다.

인천 서구 연희동 도당산에서 맥이 끊긴지 60년 만에 다시 올리기 시작한 도당제 2006.11.27 12:06



인천시 서구 연희동 도당산에서 당제를 지내기 전에 제관과 무당들이 기념촬영. 도당굿의 명맥이 끊긴지 60년 만의 재현이다. (사진촬영 <한국의 샤머니즘> 지경용)

인천 서구 연희동 도당산에서 맥이 끊긴지 60년 만에 다시 올리기 시작한 도당제

노중평

인천무당 이용녀씨가 당주무당이 되어 인천서구 연희동 도당산에서 도당굿을 재현한다고 하여 도대체 어떤 곳을 어떻게 복원하는가 궁금하여 가 보기로 하였다. 김혜숙 씨로 부터 미리 여행연습을 한다는 말을

들었던 터였다. 장영호씨가 병원에서 퇴원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2006년 11월 26일(일) 09시부터 굿을 시작한다고 하루 전날인 토요일 알려졌다.

김혜숙 씨의 동생 김민정 씨가 운전하는 차를 주안에서 만나 지경용 씨와 함께 타고 가게 되었다. 약속한 장소에 약속시간 10분 전에 현지에 도착하니 한복을 차려 입은 김민정 씨가 미리 와서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징을 치나요?”

하고 물었더니, 상황을 보아서 치게 되면 친다고 한다. 지경용 씨가 와서 출발했다.

날씨는 굿을 하기에 좋은 날이다. 춥지 않고 바람 불지 않아 괜찮다. 저녁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날은 신령이 감응해서 그런지 대체로 비가 오지 않는다.



이 고장을 18대 째 지켜 온 문화원장 정인표 할아버지가 감개어린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촬영 <한국의 샤머니즘> 지경용)

도당산은 물어 물어 갔는데, 연희동連喜洞의 아파트와 빌라촌의 뒷산이었다. 얇은 야산인데 도당할아버지 산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디엔가 도당할머니 산이 있다는 말이 된다. 현지에 도착해 보니 당주무당 이용녀 씨, 김혜숙 씨와 김혜숙 씨의 신딸 김선미 씨가 있고, 천안의 송인당 임영선 씨도 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있으나 나와는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도당할아버지 산 주변을 둘러보니 당굿을 하는 장소 아래쪽에 북쪽으로 터를 다지고 돌을 깎아 제단과 함께 토지지신비土地地神碑를 세워 놓았고 그 아래쪽에는 돌제단과 함께 무문비無文碑를 하나 세워 놓았다.

인천 서구 문화원에서 만든 팸플릿을 펼쳐 보니 오늘 도당굿을 하게 된 연유를 소상히 밝혀 놓았다. 1960년대까지는 도당굿을 행했으나 1990년대에 명맥이 끊겼다고 한다. 인천 서구문화원장을 2대째(임기 4년) 해오고 있는 정인표鄭寅杓 (75세, 그는 18대를 살아 온 원주민이다)문화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가 어려서 도당굿을 많이 보았는데, 당대에 명맥이 끊어지는 것을 애석히 여겨 복원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근의 교회에서 죽은 귀신을 왜 불러들이느냐고 반발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김포의 검단이 인천 서구에 통합되는 바람에 인천에서 가장 큰 구가 되었고, 인구도 40만으로 불어나 제일 인구가 많게 되었는데, 이고장의 인천 토박이는 15%도 안 된다고 귀 뚫 한다. 그러니 외지인들에 불과한 그들이 이 고장의 향수 어린 전통에 무슨 애착이 있겠냐는 것이다.



경인지역 황해도굿의 大母 이선비 선생과 김매물 선생, 그리고 오늘의 당주무당 이용녀씨
(사진촬영 <한국의 샤머니즘> 지경용)

인천의 대 무당 김매물 선생이 모습을 드러내신다. 잠시 인사를 나눈다. 초대장을 보냈는데 받았느냐고 묻는다. 12월 1일 굿 공연이 있다고 한다. 나는 가겠다고 약속한다.

도당굿은 유교식으로 3헌관이 제사를 올리면서 09시 15분에 시작되었다. 3헌관이 차례로 막걸리와 소주로 헌작하며 2배하였다. 집사는 문화원부원장이었고, 당주무당 이용녀 씨가 도왔다. 헌작하는 동안 피리가 은은하게 소리를 내었고, 징도 부드럽고 느리게 쳤고, 장구도 얹은 소리를 내었다. 제관들이 모두 합동으로 배례하면서 제사를 끝냈다. 이어서 제관과 무당들이 도열하여 기념사진을 찍었다. 제사에 소요된 시간은

10분이었다.



칠성굿 한 거리라.....굿 잘하기로 소문난 연희동 도당산 당주무당 이용녀씨
진촬영 <한국의 샤머니즘> 지경웅)

(사

무당이 도열하여 북쪽에 차려진 제단에 합동으로 배례함으로써 굿이 시작되었다. 먼저 꽃갓 쓰고 홍철릭을 입고 의대단장을 한 당주무당 이용녀 씨가 장구 앞에 서서 “모여라오 모여라오 본산신령님 전” 하면서 신들을 청배한다. 그의 좌우에는 오늘 도당굿에 한 거리씩 할 무당들이 도열해 있다. 마이크와 스피커 장치를 하지 않아서 듣기에 불편하다. 주의해서 들으니, “일심정성으로 에헤헤 주역선생 생기복덕 가려다가 한국 신당에 모셔놓고 상탕에 머리 감고 중탕에 하탕에 수족 씻고 모시랴오 모시랴오” 라는 말들이 귀에 잡힌다.

이용녀 씨가 한 거리 하고 나서 문화원부원장 사회로 간단한 식이 진행된다. 문화원장이 인사말을 한다. 구청장이나 구의회의장은 참석하지 않은 모양이다. 내가 강북문화원에서 당시의 문화원장(지금의 구청장)과 10년 전에 삼각산에서 한인한웅 단군왕검에게 제사지내는 삼성제례를 복원하고 굿판을 벌렸을 때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나 지금은 구민들이 삼각산축제를 통하여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와 있다. 8년의 세월을 공을 들여야 그제야 사람들이 호응한다.



칠월칠석 날 광화문 네거리와 인천 월미도에서 칠석제 굿판을 벌여 칠석제 무당으로 알려진 김혜숙씨 (사진촬영 <한국의 샤머니즘> 지경용)

그러나 노인정의 멤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잔칫날이라도 만났다는 듯 화기애애하다. 문화원장이 인사한다. “도당제는 이미 60년 전에 맥이 끊겼고, 그나마 매년 10월에 길일을 택하여 밤 12시에 몰래 고사를 지내오다가 이도 명맥이 끊겼는데, 당대에 도당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쉽고 죄송스러워 복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 말한다. 문화원장은 전통문화계승과 향토문화발전을 목청을 높여 외친다. 당연한 말씀이다. 내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을 가져다 문화 어저고 해 보았자 원숭이 흉내에 불과하다.

식을 마치고 김혜숙 씨가 한 거리 들어간다. 복장은 당주무당과 같은 복장이다. 사설을 좀 들어 보려는데, 문화원장께서 내게 열변을 토하고 계셔서 서울보살이 무슨 사설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 노인정의 어른인 듯싶은 헌관들은 계속 서계시기만 한다. 김혜숙 씨가 헌관들에게 공수를 준다.

할아버지 도당산 건너편에 아파트가 들어선 할머니 도당산이 있는데 원래 옛날엔 그곳에서 굿을 나흘 하고 이곳 할아버지 도당산에 와서 이틀 동안 굿을 하여 마무리를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할머니 도당산 쪽에서 모모한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바람에 새벽 2시경에 몰래 가서 할머니를 할아버지 도당산으로 모셔왔다고 한다.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할아버지 도당산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할머니 도당산에 계신 할머니에게로 가야 하는데 후손이 불민하고 무식하고 몰상식하여 무조건 소음타령·귀신타령·삿대질을 해대기 때문에 굿을 거꾸로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나는 문득 눈앞에 버티고 있는 산을 올려다보며 묻는다.

“저 산이 무슨 산이지요?”

“계양산이라고 합니다.”

계양산이 이 고장의 진산일 것이므로 연희동산을 도당산으로 정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도당산은 이 고장 사람들이 도당을 짓고 제사지내도록 나라에서 승인해준 산이라는 뜻이다.

“3년 있어야 제대로 된다!”

고 김혜숙 무당이 소리치는 바람에 도당제가 자리매김을 하려면 3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된다. 어쨌거나 도당굿을 시작했으니 끌고 나가기만 하면 성공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어서 이용녀 씨가 칠성거리, 강화 출신의 정오철 박수의 별상거리로 이어진다. 임선영 씨도 영정물림으로 거든다. 예정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소놀이곳의 인간문화재 이선비 노 만신이 등장하여 그의 제자인 이용녀 씨와 김혜숙 씨를 격려한다. 노 만신은 별로 움직이지 않아도 쌓아 온 연륜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장내를 압도하는 힘이 있다. 김매물 만신도 자리를 뜨지 않고 사라진지 60년 만에 재현되는 굿판을 정성스럽게 보고 있다.



군웅거리에서 군웅칼을 들고 멋진 춤을 보이고 있는 김미성씨. 역시 인천지역의 황해도굿의 명인들이 다. (사진촬영 <한국의 사머니즘> 지경용)

김미성 씨가 군웅거리로 들어가서 벌거벗은 돼지 한 마리를 사슬 세우려고 하나 장소가 경사가 져서 설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는 마침 가지고 있던 나침반을 꺼내어 본다. 제물의 방향을 남북으로 하지 않고 동서로 한다면 설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제물의 방향을 동서로 트니 드디어 벌거벗은 돼지가 만신과의 싸움에서 항복하고 만다. 문득 이 곳의 도당산 할아버지와 도당산 할머니가 젊은 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마지막으로 정오철 박수가 대감거리를 하면서 오늘 연희동 도당산 도당굿은 막이 내린다. 속전속결 하듯 숨차게 지나간 하루다.

격암 선생 사상의 핵심 〈生初之樂〉

노중평

〈생초지락〉이란 “새로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자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다. 자기가 태어나 백성노릇을 하며 살다가 살기에 신물이 난 자가 오매불망寤寐不忘하던 새 세상에 첫발을 딛고서 느끼는 감회라고 할까 그런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미래를 위하여 자나 깨나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던 그 세상이 격암 선생이 〈생초지락〉에서 그려내는 세상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소생이 불가능하다 싶을 때 보트피플이 발생하거나 국외탈출자들이 생겨난다. 월남이 패망할 때 보트피플이 발생했고 지금의 북한에서 국외탈출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격암 선생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앞으로 닥치게 될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요즈음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바라만 보며 그대로 방치한 채 손을 놓고 있다가는 아마 북한보다 먼저 멸망의 비운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부동산투기, 교육이민, 학생을 학원으로 등을 떠밀어 내보낸 선생들이 데모꾼으로 전락하고, 노동자들이 데모나 하며 한세월을 보내는 이 나라가 망하는 수 밖에 다른 방도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격암 선생이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한다면 세계통합을 이루어내는 선도 국가로 존경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가 머지않아 쓰러질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격암 선생은 〈생초지락〉에서 이런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위기가 닥쳐올 때는 나라 중앙에서 황조黃鳥가 울어 나라 안이 떠들썩해지고, 나라 남쪽에서 주작朱雀이 울어 어수선해지고, 서쪽에서 백조白鳥가 울어 어수선해진다. 황조는 내부의 적이고, 주작은 빨갱이들이고, 백조는 서양에서 들어오는 외세이다. (1장)

이 나라 땅은 복숭아를 심어서 선원仙源이 됨을 알려야 하는데, 나라가 난장판이라 복숭아를 제대로 심을 수 없다. 이러면 끝장이다. 그러나 격암 선생은 기상천외한 방법을 보여주며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준다. 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생초지락〉을 42장으로 나누어 번역을 하고 각 장을 해석하였다.

〈생초지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두성으로 칭하면서 우두성이 20세기 후반에 동방에 와서 서양에서 맺힌 원한을 풀리라고 하고 (2장) 지금 원한을 풀면 마음 가운데에 공덕수功德水가 넘친다고 하였다. (3장)

지금은 세상이 악독하고 부패하고 병든 사람뿐이다. 짐승들이 싸우는 시대라 처처에서 살인이 자행된다. 석정곤에서 나는 석정수를 마셔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석정수란 칠성에서 나는 물이다. (4장)

우리 앞에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성주산聖柱山이 나타난다. 성주산 사방으로 1천리 공간에 부도符都가 들어서고 해혹복본解惑復本하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 부도는 신선들이 사는 곳이다. 해상으로 만 리나 떨어진 곳에서 열방이 양식을 싣고 온다. 만국이 충신가忠信歌를 부르며 춤을 춘다. 이곳은 청정지역으로 별천지가 될 것이다. (5장)

세계인들이 성주산으로 모여들고 성주산에서는 가야금으로 청아곡淸雅曲을 연주한다. 성주산에 금동金童이 · 옥녀玉女 · 천군天君 · 선비가 있다. (6장)

성주산에 부도가 들어설 때는 한 · 중 · 일이 통일되어 유리국琉璃國으로 불리게 되고, 유리국이 다른 나라가 통합하는데 모델이 된다. (7장)

이때부터 성주 · 소래 · 노고 등 3개의 산에서 장수의 영약인 불로초를 구하게 된다. (8장) 사람은 각자 자기를 운반할 이동수단을 갖게 되어 홀로 유리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것이다. (9장)

인간은 장이 퇴화되고 새로운 식량인 불로초만을 먹고사는 시대가 된다. 감성의 문화가 사라지고 이성의 문화가 도래한다. (10장) 여권시대가 오고 모후를 관장하는 음도국陰道局에서 〈천부경〉의 일석삼극一析三極의 원리를 삼변성도三變成道의 원리로 변형시킨 새 패러다임의 시대가 온다. (11장) 인도人道는 천지인天地人의 도로 불린다. (12장) 천도天道가 끊이지 않고 화기로 온다. (13장)

웅가熊加의 본성은 변했으나 호가虎加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14장) 역사는 웅가와 호가의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친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십승지十勝地는 고사하고 떡반에 떨어져 죽을 수 있다 (15장)

이리하여 성주산에 삼재팔난三災八難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때는 액막이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래

야만 선국의 기틀이 잡힐 것이다. (16장) 이리하여 새로 출현하는 나라는 과거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다. (17장)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중원의 장자임을 모르고 사대주의자가 되어 중국을 떠받들며 스스로 서자임을 자인해 온 죄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삼산에 성인이 출현한다. (18장) 나라 안은 부동산투기로 멸망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한다. (19장) 이를 계기로 도부신인桃符神人이 나타난다. 그의 손바닥 안으로 천지가 스스로 찾아 들어간다. (20장) 하늘의 뿌리가 성산聖山과 성지城地에 있으므로 각국에서 현사賢士들이 모여든다. 부모의 기운이 천기를 환원시킨다. (21장)

도부신인이 본모습을 드러내어 대호大虎의 형상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대호는 산신도에 그려져 있는 백호이다. 천지대도의 기가 돌아와 좌정한다. (22장) 이리하여 해혹복본이 이루어진다. (23장) 비로서 해혹복본이 삼신의 도임을 깨닫는다. 삼신을 믿는 신도로 군대를 만들고 활을 들어 백마를 견제한다. (24장)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풍이족이 다시 등장한다. 이들이 만리의 땅을 덮을 것이다. (25장) 아울러 한강 동쪽에 홍도화가 피어 선국의 개국이 임박했음을 알린다. (26장) 이 시대를 차가운 모성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한다. 인종은 많아도 우두머리는 없는 시대이다. (27장) 지구의 질서가 정해져 있는데 인위적으로 핵을 가지고 장난치면 끝장이 온다. 이때 마고의 도가 완성을 보게 되는 때이다. (28장)

가가호호 집집마다 해와 달을 밝히고 젊은 남녀가 음양을 교감하여 조화를 이룬다. (29장) 앞으로 신성을 타고난 지도자가 나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31장) 청가를 작곡하여 성산에서 생황으로 연주하고 엄택을 짓는다. 세상이 안정이 되고 흠어진 풍이족의 후예들이 모여든다. (32장) 풍이족은 사형蛇形인간인데, 사형인간의 시대가 가고 조형鳥形인간의 시대가 온다. 청가淸歌를 부르고 주곡主曲을 연주하고 검무를 추어야 한다. 그래서 새 세상을 열게 되는 것이다. (33장)

십승지의 시대는 지나갔다. 동이족이 나와서 대도大道와 대덕大德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를 아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다. (34장) 그러나 조선이 선국이 되면 나라가 중흥하고 사람들이 始興을 통하여 모여들게 될 것이다. (35장) 앞으로 우주를 주재하는 신을 <천부경>에서 말하는 천일天一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36장) 격암 선생이 홀연히 깨달은 것이 해혹복본의 이치와 부도의 이치이다. (37장)

성주산에 궁궐이 들어서고 새로운 가야금을 만들어 율려를 올리면 만국이 조선화朝鮮化 할 것이라고 하였다. (40장) 앞으로 여자들의 세상이 오고 남녀진인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이 선약仙藥을 개발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41장) 두 산에 사슬을 올리고 몸을 낮추어 날아오는 화살을 막으면 하늘에서 화답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신선(선국의 백성)이 되는 도道가 천지에 통하게 될 것이다. (42장)

어머니의 시계

박 형 호

시계가 흔치않던 시절
어머니는 닭 우는소리 맞춰
아침을 짓고
새벽별 바라보고
통학 길 놓아 주셨네
찬 겨울 어둠을 녹이시며
생수를 지피시던 어머니
안개처럼 질게 깔린 푸른 연기는
늘 온 동리를 감싸 안았네
그러나 철부지는 몰랐네
그냥 혼자 큰 것으로 알고
그 흔하디 흔한 시계로도
때늦은 시각 맞추지 못했네
이제야 눈을 들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강산을 보네
눈물로 얼룩졌던 어머니의 시계
한번도 틀림없던 어머니의 금시계
어찌하면 꽃시계로 안겨드릴까
세월가면 갈수록
뜨거운 보살핌으로만 가던
어머니의 시계가 그리워지네

〈천부경〉과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논리구조

노중평

필자는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 이론적인 근거를 〈천부 경〉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부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천부경〉을 소개한다.

〈천부경〉

天符經

一始無始一析三極無
盡本天一一地一二人
一三一積十鉅無匱化
三天二三地二三人二
三大三合六生七八九
運三四成環五七一妙
衍萬往萬來用變不動
本本心本太陽昂明人
中天地一一終無終一

〈천부경〉의 천부는 천문을 말한다. 우주의 생성과 운행의 이치를 81자로 경문화經文化 한 것이 〈천부경〉이다.

중국에는 〈천부경〉이 없고 우리에게만 있다. 〈천부경〉에 관한 기록은 〈한단고기〉 〈태백일사太白逸史〉, 〈소도경전본훈蘇塗經典本訓〉, 〈단기고사檀紀古事〉, 〈삼일신고三一神誥〉, 〈봉장기奉藏記〉등에 보인다. 〈소도경전본훈〉에서는 “한국桓國을 세우신 한인천제桓因天帝 때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귀중한 말씀” 이라고 하였다.

〈한단고기〉를 번역한 임승국씨는 한국에 3301년의 역사가 있었다고 주석을 하였다. 주석에 따르면, 한웅천왕이 세운 배달나라 1565년과 단군왕검이 세운 조선 3896년의 역사를 합하여, 지금으로부터 9199년 전

부터 〈천부경〉이 구전으로 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천부경〉을 문자로 기록한 때는 한웅천왕 때이다. 그는 신지神志 혁덕赫德에게 명하여 녹도문자鹿圖文字로 기록하게 하였다.

한웅천왕은 〈천부경〉과 〈천부경〉을 풀어 쓴 〈삼일신고〉를 설교하여 백성을 가르쳤고, 이를 '태백진교太
白眞敎'라고 하였다. 배달나라 14대 한웅인 자오지천왕 때 자부선紫府仙人이 〈천부경〉으로 율놀이를 창
안하여 28수 천문을 가르쳤고, 또한 한역桓易도 만들어 가르쳤다.

자부선인이 창안한 율놀이 그림이 포항 칠포리 곤륜산 암각화 등 전국 각지에 암각화岩刻畵로 남아 있
다. 한역은 후대에 와서 주역으로 발전하였다.

단군왕검 대에 와서는 〈천부경〉에서 나온 태백진교를 발전시켜 덕교德敎라고 하고 이를 가르쳤다. 2세
단군 부르는 남산에 '〈삼일신고〉비'를 세웠다. 26년에는 삼신전三神殿을 세우고, 한인 한웅 단군왕검
세 분을 삼신으로 모셨다. 11대 단군 도해는 46년 3월 삼신을 제사지내고,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강
론하였다.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고구려를 거쳐서 발해로 이어졌으나 발해가 멸망한 후로 그 명맥이 끊어졌다.
그러나 신라 말에 최치원이 신지의 전문을 옛 비석에서 발견하고 한자 8자로 번역하여 후세에 전했다.

고려 말에 와서 문하시중을 지낸 행촌 이암(1296~1364), 이면, 범세동이 천보산 태소암에서 〈천부경〉 진
결眞訣을 발견했고, 이암이 강화도에 들어가 〈단군세기〉, 〈태백진훈太白眞訓〉, 〈태백일사太白逸史
〉(1520~1528사이) [1\)](#) 등을 저술하면서 〈천부경〉을 기록으로 남겼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천부경〉은 〈한단고기〉에 실린 것으로 계연수桂延壽(?~1920)가 묘향산에서 발견하
여 탁본(1916)하여 이듬해인 1917년에 단군교당에 보내어 해석을 의뢰하였다. 1976년에 대종교大倣敎에
서 〈천부경〉을 경전으로 인정하였다.

〈천부경〉이 실린 〈한단고기〉는 1979년에 이유립李裕宥(1907~1986)이 편찬하여 발간하였다. 이를 1982
년에 일본인 가지마(鹿島昇)가 일본어로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한글 번역본은
가지마의 일어 번역본에 자극받은 국내 인사들이 한역하여 나오게 된 것이다.

〈천부경〉 이설異說

현존하는 〈천부경〉에는 최치원의 사적本事蹟本과 묘향산의 석벽本石壁本의 2 종류가 있다고 전해온다.
사적본은 1925년 최치원의 후손인 최국술崔國述이 편찬한 〈최문창후전집崔文昌候全集〉에 수록된 〈천부
경〉이고, 석벽본은 1917년에 계연수桂延壽가 단군교당 앞으로 보낸 편지에 동봉한 〈천부경〉이다.

〈최문창후전집〉에 기록된 것은 〈단전요의檀典要義〉에, “태백산에 단군전비檀君篆碑가 있었는데, 바르

게 읽기가 어려운 것을 고운孤雲이 역譯한 글이 사적본” 이라고 했다.

이 사적본은 고운의 친필이 아닌 것으로, 암송暗誦이 되어 전해오던 것을 후일 구술口述로 쓴 것이기 때문에 묘향산 석벽본과 틀린 곳이 7곳이나 된다.²⁾ 글자 수로는 81자 밖에 되지 않는 〈천부경〉 원문이 기록자가 다르다고 해서 7자나 틀리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천부경〉 해석자들이 대부분 해석의 텍스트로 택하고 있는 〈천부경〉이 계연수 기록본인 점으로 보아서 계연수 기록본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최치원 기록본이든 계연수 기록본이든 의미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최치원 기록본은 향찰이다. 향찰로 써진 부분을 계연수가 원문자로 환원하여 놓았다고 생각된다. 향찰을 원문자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은 이를 읽는 사람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碩
一始無始一析三極無
盡本天一一地一二人
愧
一三一積十鉅無匱化
三天二三地二三人二
三大三合六生七八九
香
運三四成環五七一妙
演 同
衍萬往萬來用變不動
仰
本本心本太陽昂明人
中
中天地一一終無終一

본문에서는 틀린 문자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왜 틀렸는가 하는 이유를 밝혀 보기로 한다.

碩과 析 :碩은 ‘크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이다. 그러나 이 크기는 물질적인 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세상에 물질로 존재하지 않는 것의 큰 것을 말한다. 析은 ‘나누는 것’ 을 말한다. 그러므로 큰 것과 나누는 것은 성질이 다르다. 그런데 이 나눔은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라 비물질적이고 원리적原理的인 나눔을 의미한다. 석碩과 석析이 원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碩은 ‘나누어도 큰 것’ 이고, 석析은 ‘큰 것을 나누는 것’ 이다. 따라서 비물질적인 것, 원리적이라는 관점에서 두 문자는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 안에 셋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나는碩이고, 셋은析이다.

愧와 匱 : 괴愧는 ‘부끄러워하다’ 는 뜻이다. 그러나 괴塊자로 바꾸어 쓰면 ‘흙덩어리’ 를 의미하게 된다. 匱는 ‘함’ 이나 ‘삼태기’ 이다. 물건을 담아 옮기는 그릇이다. 괴塊가 ‘흙덩어리’ 이므로 匱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괴塊를 지구로 본다면 匱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겉껍질이 된다. 대기권大

氣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𩇛와 𩇛는 ‘삼태기에 들어가는 흙덩어리’ 라는 의미로 썼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삼태기 안에 들어가는 흙덩어리’ 에 비유하여 말했다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𩇛자는 𩇛자의 오식誤植으로 보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香과 妙 : 향香은 ‘향기’ ‘소리’ ‘빛’ ‘모양’ 이다. 파동과 관계가 있는 문자이다. ‘향기’ ‘소리’ ‘빛’ 은 파동에 의하여 확산되고 전달된다. ‘모양’ 또한 사이클의 상승으로 만들어지는 형상이다. 묘妙는 ‘묘하다’ ‘절다’ 는 뜻이다. 그러나 음양론에서 보면 여女자가 음陰이고 소少자는 ‘작다’ 는 의미이므로 약한 음陰의 파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묘□로도 볼 수 있는 문자인데, 묘□자가 현玄자와 소少자가 결합한 문자이므로, 현玄은 북쪽을 의미하고 소少는 약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니 이 역시 북쪽에서 오는 약한 음의 파동이다. 따라서 향香자와 묘妙자는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演과 衍 : 연演은 ‘멀리 흐르다’ ‘통하다’ ‘윤택하다’ ‘스며들어오다’ ‘물 흐르다’ ‘물이 흘러 윤택하게 되다’ 는 뜻이다. 문자를 분석하면 ‘물’ 을 의미하는 수□자와 ‘범’ 을 의미하는 인寅자가 결합한 문자이다. 연衍자는 ‘넘쳐흐르다’ 라는 뜻이 있다. 연演과 연衍은 ‘물이 흐르다’ 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느 문자를 쓴다고 해도 의미에 혼란은 오지 않는다. 따라서 연衍자의 향찰로 연演자를 썼다고 볼 수 있다.

同과 動 : 동同자는 ‘한 가지’ ‘함께’ ‘함께 다같이’ 등의 의미가 있다. 동動은 ‘움직이다’ ‘나다’ ‘살아나다’ ‘변하다’ 등의 의미가 있다. 동動자는 중重자와 역力자가 합해진 문자이다. 중력重力이라는 뜻이다. 중력은 어느 위치에서나 동일同一하게 미친다. 그러므로 동同자와 동動자는 같은 의미로 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문자는 음가가 같다.

仰과 昂 : 양仰자는 ‘우러르다’ ‘믿다’ ‘따르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양昂자는 ‘들다’ ‘머리를 들다’ ‘높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러르다’ 는 의미와 상통한다. 그러므로 양仰자와 양昂자는 같은 의미로 썼다고 볼 수 있다. 또 두 문자의 음가가 같다.

中과 地 : 중中자는 ‘가운데’ ‘마음’ ‘치우치지 아니하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地자는 ‘땅’ ‘토지의 신’ ‘처지’ ‘처해있는 형편’ 등의 의미가 있다. 땅의 의미를 보면 ‘땅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중심적인 역할’ 을 수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땅이 만물의 중심이 된다.’ 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中과 지地는 같은 의미로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유독 최치원이 쓴 문자에만 이렇게 오자誤字로 보이는 문자가 7자나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최치원이 신라시대의 문자인 향찰鄉札을 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𩇛자 대신에 𩇛자를 썼고, 𩇛자 대신에 𩇛자를 썼고, 묘妙자 대신에 향香자를 썼고, 연衍자 대신에 연演자를 썼고, 동動자 대신에 동同자를 썼고, 양昂자 대신에 양仰자를 썼고, 지地자 대신에 중中자를 썼다고 보는 것이다.

문장의 분석

〈천부경〉 연구자들은 〈천부경〉의 81자 문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문장을 구분한다. 그러나 문장 해석은 문장 구분이 다양한 만큼 다양하지 못하고 엇비슷하다. 연구자들은 〈천부경〉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어떠한 원리를 찾아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천부경〉을 다양하게 해석할 능력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장 구분이 어떠한 원리를 도출하는 데엔 실익이 거의 없다고 하겠다.

앞에서 말했듯이 〈천부경〉 연구자들은 〈천부경〉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해석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

〈천부경〉이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깨달음의 차원을 보지 못한다. 〈천부경〉의 해석은 깨달음을 잡아내는 데에 그 뜻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천부경〉을 해석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제

〈천부경〉 해석자들은 「천부경」의 주제를 다음 3 가지로 보고 있다. 一을 주제로 하는 경우, 三을 주제로 하는 경우, 天地人을 주제로 하는 경우의 세 가지이다. 이들 주제는 영세불변永世不變의 원리를 나타낸다. 일과 삼이 결합하여 ‘일석삼극’을 나타낸다고든, ‘일석삼극’이 천지인으로 발전한다고든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러나 이들 원리는 〈천부경〉에서 천부天符가 하늘의 기호나 부적, 또는 별을 한정하듯이 〈천부경〉이 제시하는 우주에 한정한다. 그러나 〈천부경〉 해석자들은 하늘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늘을 무시함은 천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부경〉에서 찾아지는 의미나 상징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건강부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부경〉에서 일—이 신으로 해석이 될 때는 우주적 존재로서의 신의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 삼 또한 우주적 존재로서의 삼신적三神的 기능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상 ‘일’과 ‘삼’에서 살펴 보았듯이 천문의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一을 주제로 하는 경우

일—을 주제로 하는 경우는 우주의 주재자主宰者를 일신—神, 태일太一, 하나님으로 보는 경우이다. 해석의 대상이 되는 문장은 일시무시/무종일—始無始/無終—이다. 81자 문장을 20개의 문장으로 나누고 각 문장 앞에 일—을 놓고 해석한다. ‘일’은 우주를 무시한 ‘일’일 수 없다.

이때의 ‘일’은 각 문장의 앞에 놓여, 문장의 의미를 한정한다. 예컨대 —이 三天二의 앞에 놓이면 ‘일’이 ‘천삼이’의 내용을 한정하거나 또한 ‘천삼이’를 의미한다.

天符經

- 一 = 一始無始
- 一 = 一析三極無盡本
- 一 = 一天一
- 一 = 一地二
- 一 = 一人三
- 一 = 一積十鉅無匱化
- 一 = 三天二
- 一 = 三地二
- 一 = 三人二
- 一 = 三大三合
- 一 = 六生七八九
- 一 = 運三四成環
- 一 = 五七一妙衍
- 一 = 萬往萬來
- 一 = 用變不動本
- 一 = 本心
- 一 = 本太陽
- 一 = 昂明人中天地
- 一 = 一一終
- 一 = 無終一

삼을 주제로 하는 경우

삼삼을 주제로 하는 경우는 우주의 주재자의 역할과 기능을 三神으로 보는 경우이다. 삼신이 우주를 운행한다고 해석한다. 삼신의 역할은 크다. 과학자가 보면, 1이라는 전체 안에 3이라는 개체가 있다고 파악한다.

기독교인이 보면, 성신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파악한다. 국악을 하는 국악인이 보면, 삼분박이라는 기본박자가 파악된다. 주제가 되는 문장은 일석삼극一析三極이다. 각 문장 앞에 삼삼을 놓고 해석한다.

이 삼삼 또한 천추天樞, 좌추左樞, 우추右樞의 삼추三樞와, 자미원紫微垣, 천시원天市垣, 태미원太微垣의 삼원三垣이라는 천문의 범위를 일탈하지 못한다.

天符經

- 三 = 一始無始
- 三 = 一析三極無盡本
- 三 = 天一一地一二人一三
- 三 = 一積十鉅無匱化
- 三天二三地二三人二三大三合
- 三 = 六生七八九

三 = 運三四成環
 三 = 五七一妙衍
 三 = 萬往萬來
 三 = 用變不動本
 三 = 本心
 三 = 本太陽
 三 = 昆明人中天地
 三 = 一一終
 三 = 無終一

天地人을 주제로 하는 경우

우주의 주재자를 천지인天地人으로 보는 경우에는 천지인을 앞으로 내세운다. 이때의 문장 해석은 천지인과 관련하여 해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천지인天地人 삼신三神과 천지인 삼재三才를 도출할 수 있다.

〈천부경〉의 수리와 운동의 논리구조

〈천부경〉의 수리적 논리구조는 1에서 3을 기본단위로 하여 확장하고, 10에 가서 확장을 종료한다. 또한 10에서 시작하여 1로 축소한다. 〈천부경〉에는 이렇게 3을 기본수로 하여 확장하고 축소하는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天地人의 리는 수리 1

〈천부경〉에서는 수리數理가 ‘천즉리天卽理’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지즉리地卽理’라는 의미와 ‘인즉리人卽理’라는 의미도 갖는다.

〈천부경〉에서 1이라는 수가 ‘이理’를 나타낸다. 〈천부경〉에서 천일天一이라고 할 때는 ‘천즉리’를 나타내고, 지일地一이라고 할 때는 ‘지즉리’를 나타내고, 인일人一이라고 할 때는 ‘인즉리’를 나타낸다. ‘천즉리’, ‘지즉리’, ‘인즉리’에서 ‘이’를 분리하면 천지인天地人만 남는데, 천지인의 이치가 1이라는 수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천지인’ 자체가 ‘이’가 되는 것이다.

운동의 원리 시始와 석析

시始는 시작을 뜻하고, 석析은 확장을 뜻한다. 시작은 음양론에서 볼 때, 음陰에서 비롯한다. 확장은 음양론에서 볼 때, 양陽에서 비롯한다. 음은 시작하고, 양은 확장한다.

음의 축소 시始

시始자를 파자하면, 여女자와 태태자로 나뉜다. 여는 음이고, 태는 복두칠성(사♣)의 성기星氣가 입(구口)에 내림을 형상화 한문자이다. 음의 입에 복두칠성의 기가 내림으로서 음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양의 확장 析

석析자를 파자하면, 목木자와 근斤자로 나뉜다. 木+斤은 오행의 첫째인 ‘목’을 도끼로 베어낸다는 뜻이다. 이리하여 ‘목’이 확장한다. 따라서 「천부경」의 ‘석’에는 목이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유有를 전제로 한 무존재無存在의 무無

시始와 석析이 있기 전의 상태가 무無이다. 무존재의 상태에 있는 것이 ‘무’이다. 그러나 이 ‘무’는 유有를 전제로 한 무이다. 무에서 유가 생한다. 그래서 ‘유’에서 ‘시’와 ‘석’이 생겨난다.

음양의 축소와 소멸 진蠹

목木이 확장하면 상대성원리에 의하여 목의 극蠲이 되는 금이 생성生成한다. 목과 금은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금이 목을 극하므로, 어느 시점에 가서 목과 금의 균형은 깨진다. 이리하여 금이 목을 극하므로 목이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성 원리에 의하여 금도 목과 함께 소멸한다. 목과 금이 함께 소멸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존재하는 제 3의 조정자를 필요로 한다. 이 제 3의 조정자가 신이다.

극極의 造化조화와 조화調和로서의 합합

〈천부경〉에서 1에서 3이 생성하는 이유가 1이 2와 합을 이루어 공존하기 위해서이다. 1에서 1이 생성한다는 것은 논리상 무생성無生成이다. 상대성원리에 의하여 2가 생성하는데, 「천부경」에서 1이 목이고 2가 금이므로, 생성한 왕성한 금에 의하여 목이 극을 당하여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목이 소멸하므로, 금의 생성원인이 소멸함으로써 금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확장한 1이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이때에 ‘합’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3이다. 3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목’과 ‘금’의 중간에 있는 토土이다. ‘토’는 ‘목’을 극하는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목’으로부터 극을 받아 ‘금’을 생하는 역할이 미미하게 된다. 따라서 ‘금’이 ‘목’을 해할 만큼 극기蠲氣가 왕성하지 못하다. 그래서 3이 2에 견제하는 힘이 되어 1, 2, 3은 소멸하지 않는다.

12지支라는 시간관념이 생기면서, 음양론자들이 하루를 12지로 나누고, 오행이 생겨나는 시간을 해묘미亥卯未 시간이 만나서 목木을 만들고, 인오술寅午戌 시간이 만나서 화火를 만들고, 신자진申子辰 시간이 만나서 수水를 만들고, 사유축巳酉丑 시간이 만나서 금金을 만든다는 사유체계를 세웠다. 이렇게 상생하는 세 시간이 만나서 오행의 하나를 만드니, 이 또한 일석삼극의 논리가 작용하여 합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양陽의 축적 積積

소멸을 면한 1, 2, 3은 1, 3이 양陽이고, 2가 음陰이다. 양과 음의 비율이 2 : 1이다. 양 2 중에서 하나는 음양의 균형, 즉 1 : 1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떨어져나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떨어져 나간 양은 상대성원리에 의하여 음이 생성된다. 음은 다시 양을 생성한다.

이리하여 <천부경>의 일석삼극—析三極은 제 2차 일석삼극의 원리가 작용하여 제 2차 1, 2, 3이 된다. 제 1차 일석삼극에서 보면, 제 2차 일석삼극의 수는 4, 5, 6이 된다. 이러한 논리로 제 3차 일석삼극을 하게 되면, 제 3차 일석삼극의 수는 7, 8, 9가 된다. 이리하여 10이라는 수에 도달한다.

성수成數를 생생하는 6의 생생

‘일석삼극’은 상생의 논리이다. 제 2차 ‘일석삼극’의 논리에 의하여 6이 생성되는데, 6이 제 3차 ‘일석삼극’의 원리에 의하여 7, 8, 9를 생성한다.

천도天道와 백도白道の 운행 運運

우주에서 일석삼극의 원리에 의하여 별들이 생겨난다. 우주에 중력이 생기고, 별들과 별사이에도 인력이 생긴다. 별들과 별들 사이에 생겨나는 인력引力이 균형을 유지하려면, 별들이 자전自轉해야 한다.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公轉한다. 이를 지구가 천도를 공전한다고 한다. 달은 지구의 주위를 공전한다. 이를 달이 백도를 공전한다고 한다. 「천부경」에서 공전은 곧 운행이다. 3에서 운행을 시작하여 4를 완성한다. 이를 ‘운삼사성환’이라고 한다.

확대와 축소 연衍

<천부경>에서 생수를 시작하는 수 1은 5로 확대하여 생수의 머릿수가 된다. 생수의 머리 수 5는 성수 7로 확대된다. 7에서 다시 생수 1로 축소된다. 1에서 3이 한 사이클이듯, 5에서 7이 한 사이클이다. 7에서 1은 두 사이클이다. 확대할 때는 한 사이클씩 확대하고, 축소할 때는 두 사

이클씩 축소한다. 이를 묘연妙衍이라고 하였다.

확대하는 왕往 축소하는 래來

1에서 시작하여 10까지 가는 것은 확대이다. 이를 왕이라고 할 수 있다. $3 \times 3 = 9$ 는 ‘왕’이고, $9 \times 3 = 27$ 도 ‘왕’이고, 또한 「천부경」의 완성수인 $27 \times 3 = 81$ 도 ‘왕’이다. 그러나, $81 \div 3 = 27$ 은 ‘내’이고, $27 \div 3 = 9$ 도 ‘내’이고, 또한 $9 \div 3 = 3$ 도 ‘내’이다.

수리대로 쓰이는 용用

〈천부경〉은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생성하여 확대하고, 축소하여 소멸한다. 〈천부경〉은 이리를 가지고 있다. ‘일석삼극’에서 1은 ‘이’이고, 3은 ‘용’이다. 1 즉 ‘이’가 쓰이니 3이 생성된다. 이를 ‘용’이라고 한다. ‘용’에 의하여 완성한 것이 사事나 물物이다.

이理가 기氣가 되게 하는 변變

이리가 감각화感覺化하면 기氣이다. ‘이’를 느끼면 ‘기’라고 한다. ‘이’의 변수變數가 ‘기’이다. 1이 ‘이’라면 3이 ‘기’가 되니 변수라고 한다.

始.析,無,盡,積.生.合,運,衍,往,來,用,變은 동動

〈천부경〉에 쓰이는 모든 움직임은 동動 단 한 자로 바꿀 수 있다. 그만큼 ‘동’의 의미는 크다.

인인에 천지가 있으므로 받들어 모시는 양昂

〈천부경〉에서 받들어 모실 수 있는 대상은 천지인天地人이다. ‘인’ 안에 ‘천지’가 있다.

인에 천지가 있음을 밝히는 명明

〈천부경〉을 배워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인에 천지의 이치가 있음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천지인의 이치를 밝혀주는 것이 〈천부경〉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

〈천부경〉과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논리구조는 근본이 같다. 같은 철학적 의미와 수리체계數理體系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체體(本, 理)에서 용사用事가 나오므로, 〈천부경〉을 체로 본다면,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체인 〈천부경〉의 용사로 보게 되는데, 〈천부경〉의 '수리적인 논리체계'와 '천지인적인 논리체계'를 상象(그림)으로 형상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천부경〉의 수리적인 논리체계와 천지인적인 논리체계는 '천즉리天則理'³⁾라는 성리학적性理學的 철학 체계를 낳는다. '천' 이 곧 이치理致이므로, 「천부경」적 이치라고 할 때, 이는 곧 하늘의 이치를 말한다.

〈천부경〉적 이치에서는 '천' 에서 '지' 가 나오고, '천' 과 '지' 의 결합에서 '인' 이 나온다. 이때의 '천' 과 '지' 와 '인' 은 '이' 에 속한다. '천즉리'에서는 '지즉리地則理'가 나올 수 있고, '천즉리'와 '지즉리'의 합에서 '인즉리人則理'가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천에 속한 '이' 이든, 지에 속한 '이' 이든, 인에 속한 '이' 이든, '이' 는 하나의 '이' 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천지인적인 '이' 가 용사用事가 되려면, '기' 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 '기' 가 '이' 의 본성을 형상화 하면 용사가 된다. 이러한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 〈천상열차분야지도〉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논리구조

〈천부경〉의 철학적 의미와 수리체계가 〈천상열차분야지도〉에 그대로 반영된다. 〈천부경〉은 한인천제가 세운 한국 때부터 구전되어 왔다.

배달나라를 세운 한웅천왕은 신지 혁덕에게 명하여 문자를 만들게 하고 이 문자로 〈천부경〉을 기록하게 하였다. 〈천부경〉이 문자기록으로 완성된 후에, 하늘에 반영하여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들었다.

〈천상도天象圖〉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열차列次와 분야分野'라는 문자를 집어넣어 〈천상열차분야지도〉라고 한 것은, 세종대왕이 〈천부경〉에 대응하는 한글 28자를 만들고 나서,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지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활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천상天象의 구성

천상은 3 원垣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에 북극 자미원紫微垣이 있고, 축인묘진丑寅卯辰 방위 즉 진방震方(東北方) 안에 천시원天市垣이 있고, 진사오辰巳午 방위 즉 손방巽方(東南方) 안에 태미원太微垣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리 위에 보이는 방위를 자미원으로 정하고, 동이쪽이 발생한 방위인 진방을 중심으로 동북방에 천시원을 두고, 동남방에 태미원을 두었다.

서쪽인 태방兌方을 중심으로 하여, 서북쪽인 건방乾方과 서남쪽인 곤방坤方은 방치한 채로 놓

아 두었다. 일석삼극의 원리에 의하여 3 원으로 나눈 것이다.

수리체계와 방위

〈천부경〉은 1-10까지의 일적십거—積十鉅의 수리체계와 1-3-9-27-81의 천지인수리체계天地人數理體系의 두 가지 수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수리체계가 〈천상열차분야지도〉에 그대로 적용된다.

수리체계

‘일적십거’의 수리체계는 별과 별을 연결할 때, 그대로 쓴다. 예컨대 북두칠성이라고 할 때의 일곱 별 하나하나를 연결하는 방식이 ‘일적십거’의 수리체계이고, 북두칠성을 왜 일곱 별로 끊었느냐 하는 이론을 제공해 주는 것이 천지인의 수리체계이다.

북방과 「천부경」수 1, 자정子井

〈천부경〉에서 방위를 나타내는 수는 북방에 시작 수 1을 놓는다. 북방에 1을 놓는 이유는 북방 곧 현무玄武에서 태초의 기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1을 현亥이라고 한다.

현은 하늘의 방위이고, 물이 생성되는 방위이다. 10간干의 임계壬癸에 해당한다. 역에서는 감방坎方에 해당한다. 한웅천왕 때 국도의 방위를 잡기 위하여 북극성이 조응하는 북쪽에 자정子井을 팠는데, 자정을 찬물우물이라고 하였다.

남방과 〈천부경〉수 2, 여정女井

〈천부경〉의 두 번째 수 2는 땅의 수이고 남방의 수이다. 천간으로 병정丙丁에 해당한다. 역에서는 이방離方에 해당한다. 하지夏至의 기가 발생하는 곳이다. 한웅천왕 때 국도의 방위를 잡기 위하여 남두육성이 조응하는 장소에 여정女井을 팠는데, 여정을 더운물 우물이라고 하였다.

동방과 〈천부경〉수 3, 한桓 소목蘇木 솟대

〈천부경〉의 세 번째 수 3은 목木의 수이고, 동방의 수이다. 천간으로 갑을甲乙에 해당한다. 역에서는 진방震方이라고 한다. 진방은 춘분의 기가 발생하는 방위이다. 춘분의 기를 이훤이라고 한다. 비가 오고 벼락이 쳐서 만물이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인천제와 한웅천왕의 시대에 해가 뜨는 땅 진방에 나라를 세우니, 한국, 또 배달나라라고 하였다. 「동근구보서」에, “옛날에 임금(필자 주, 한인천제의 뒤를 이은 유소국有蘇國의 임금들, 유

소국은 단국의 홍제가 소씨를 사성한 소씨나라이다.)이 인仁을 지키는 일로 덕을 닦아 행했는데 덕이 목덕木德에서 나왔다.

목덕은 소목蘇木의 덕이다. ” 라고 하였다. ‘소목’은 해가 솟는 곳에 세운 솟대를 말한다. 또한 “솟대가 풍도風道의 대본大本이라”고 하였으니, ‘풍도’란 풍이죽이 행한 도이다. 풍이죽이 행한 도란 소도에 솟대를 세우고 제사지내는 일이었다. 후대에 와서 화랑이 이를 계승하여 풍류라고 하였다.

서방과 <천부경> 수 4

<천부경>수 4는 금의 수이고, 서방의 수이다. 천간으로 경신庚申에 해당한다. 역에서는 태방兌方이라고 한다. 태방은 추분의 기가 발생하는 곳이다.

<부소보서>에 따르면, 한인천제의 10세 손 화인和仁이 오이烏夷의 여자 여서女瑞와 혼인하여, 여서가 후후가 되었는데, 큰아들 호룻와 둘째아들 밀유密由둘을 낳았다. 호가 적제赤帝 부통扶通이 된 후에, 동생 밀유에게 명하여 서역西域에 봉하니, 그가 동막東莫의 시조가 되었다. 동막을 수미을須美乙이라고 하였다. <삼성기전>하편(<한단고기>27쪽 임승국 역 정신세계사)에 한국시대에 수밀이국須密爾國이 있었다고 했으니, 수밀이국은 고대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슈메르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중앙과 <천부경> 수 5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천부경> 수 1, 2, 3, 4, 5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동서남북 방위의 방方인 동서남북과 중앙을 나타내는 수자가 된다. <천부경>에서 중앙을 나타내는 수는 5이고, 5는 또한 머리수가 된다.

방위方位의 位는 전후좌우와 상하

동서남북 중앙 즉 방에 대응하는 위위에 해당하는 전후좌우와 상하는 해가 뜨고 지는 위를 가지고 정한다. 머리 위를 위쪽, 발아래를 아래쪽, 해가 뜨는 쪽을 오른쪽, 해가 지는 쪽을 왼쪽, 내가 서있는 눈앞을 앞쪽 눈 뒤를 뒤쪽이라고 한다.

문득 백제를 추억하고 싶어서 의자왕이 당나라에 끌려가면서 잠시 머물렀다가 갔다는 유왕산 이야기를 여기에 실었다. 백제는 망하고 의자왕은 당나라로 끌려 갈 때 왜 유왕산 밑에서 쉬어 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산에 올라서 유장하게 흐르는 금강을 바라보면서 아련히 가슴이 아파 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 홈페이지를 만든다기에 글을 주었더니 그때 찍은 사진과 함께 홈페이지에 올렸다. (사진 촬영 지경용)

추석연휴가 끝나는 날 장영호씨로부터 유왕산축제(원 제목은 유왕산 추모제)를 보러가자는 연락이 왔다. 나는 이미 9월 9일 김혜숙씨·장영호씨와 함께 유왕산에 올라가서 유왕산과 유왕산 주변을 둘러보고 느낀 것을 써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올린 <백제 망국의 한은 곳으로 풀어야>라는 제목의 글과 <유왕산에 올라 소서노를 그리워하다>라는 제목의 시와 역시 가화저수지 건너편에 짓고 있는 SBS 서동요 촬영장을 돌아보고 지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올린 글을 뽑아 가지고 오후 3시 반경에 집을 나섰다.

내가 차에 타게 되니, 장영호씨가 “자, 이제 출발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차를 출발시킨다. 늦게 출발한 탓에 양화면에 도착한 시간은 8시가 넘어서였다. 밤길을 가느라고 해마다 늦어버린 것이다. 내일 곳을 할 김혜숙씨 일행과 징을 칠 김민정씨, 성남 솃대 단원 등 일행들과 합류했다.

“유왕산에서 의자왕 추모제사를 지낸다는데 그리로 갈까요? 아니면 저녁을 먹으러 갈까요?”

김혜숙씨가 내게 묻는다. 나는 밥을 먹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므로 제사를 보러 가자고 하였다. 차 석대가 일렬로 늘어서 유왕산으로 출발하였다. 마을에는 빛바랜 청사초롱을 집 처마 밑에 매달아 길 양쪽으로 늘였는데 호롱불을 밝힌 듯 빛이 밝지 못하다. 그러나 이 고장에 축제가 있음을 알기에는 충분했다. 사람들이 너무 없다. 금강 입구에 하구언을 막은 후에 이 고장에 살기를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 생긴 현상이다.

마을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1층 2층 집들은 낡았는데 희미하게 불만을 밝힌 유령마을만 같다. 차들이 마을을 빠져 나와 독길을 달렸다. 논과 강을 제방이 갈라놓고 있다. 깊은 어둠이 깔려 있다. 유왕산이 가까워지니 햇불을 밝혀 그 곳에서 무엇인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린다. 차를 강가에 대고 차에서 내려 불을 따라 가니 불들이 계단을 밝히고 있다.

강이 내려다보이는 정자 밑에서 떨어져 아래로 내려와 상석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곳에 제물을 차리고 병풍을 뒤에 세우고 왼쪽에 차일을 치고 석상 앞에는 유건을 쓰고 도포를 입은 삼헌관과 향관 3인(초헌관만이 정자관을 썼다)이 서 있고, 상석 양옆에는 집사가 서있다. 찬창이 오른쪽에 떨어져 서 있다.

비가 뿌려 바닥이 축축하다. 제사가 유교식으로 진행이 된다. 진행 과정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 제사로 생각되었다. 제사가 끝난 후에 폭죽을 터뜨려 불꽃놀이를 하였다. 이 곳에서 9월 9일 만났던 김정은 구의회의원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었다.

제사를 보고 나서 마을회관으로 돌아왔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내일 행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잡담도 하면서 잠자리에 드니 새벽 3시가 넘었다.

다음날인 20일 트럭이 와서 곳에 소용이 되는 물건들을 실어 내가고, 09시에 일행도 유왕산으로 향했다. 먼저 사전 행사로 강에서 낚 건지기가 시작됨으로 강둑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 하며 건지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10시경쯤에 드넓은 강에 배 여덟 척이 나타났다. 당나라군사가 백제사람들을 압송해 가는 장면을 재현하는 광경이다. 백제의 남녀는 백제 옷을 입고 있고, 당나라군사는 갑옷과 투구로 군장을 갖추고 있다. 거리가 멀어서 낚 건지기 하는 광경을 볼 수 없었다.

입포 쪽에서는 만장을 앞세운 행여가 들어오고 있었다. 가까이 오는 데 보니 낚을 상여에 태워 오고 있었다. 낚을 상여에 태운다는 것이 언 듯 납득이 가지 않았다. 행여는 유왕산 밑 계단 아래에서 멎었다. 나는 장영호씨와 함께 계단을 따라 유왕산으로 올라갔다.

12시 전에 이 고장 사람들이 풍물을 쳐주었다. 곳은 다섯 거리를 축약해서 하는데 순서는 1 부정거리(김혜숙) 2 산청거리(김민애) 3 칠성거리(김혜숙) 4 장군거리(김혜숙) 5 조상거리(김혜숙)이다. 장구는 서정운, 징은 김민정으로 하였다.

칠성님 축원

장군거리

이 고장의 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상거리에서 낚 건지기 해온 낚을 풀어야 하였다. 수왕천 가르기를 하여 꽃길로 보내드리는 것인데, 뒤에 들어오는 산유화가공연과 이어지는 다음 행사에 떠밀려 해야 할 것을 제대로 다 할 수 없었다.

이 곳은 옛날 삼국시대의 전쟁터였고, 현대에 와서는 6.25전쟁 때의 전쟁터였으므로, 전쟁으로 죽은 군인들의 군웅이 많은 곳이다. 군웅거리에서 사슬을 세우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시간에 떠밀려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앞으로 곳을 한다면 최소한 4시간은 해야 표현해야 할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작두거리

조상거리중 백제유민 망자보내기

이번 행사를 보면서 이 행사는 발전적으로 모두 해체하고 살려야 할 부분은 살리되 앞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곳을 끝내고 무대 아래 옆에서 산유화가 공연을 잠시 보다가 유왕산으로 오르는 계단 쪽으로 나오니 부여군의회의원 김정은씨가 “김학원 의원님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겠다고 하니 인사를 하자” 고 말한다. 그래서 이 고장 유지들이 앉도록 마련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김학원의원이 와서 “노 선생님이 인터넷에 쓰신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시도 잘 읽었습니다. 그런 글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한다. 김혜숙씨를 도와주러 왔다가 인터넷 덕에 생전 처음 국회의원이라는 분에게서 인사를 받게 된 것이다.

그곳에 좀 있다가 산 밑으로 내려와 김혜숙씨와 풍물패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검은 차가 지나가다가 서더니 김학원 의원이 내려 산 위에서 했던 인사와 똑같은 인사를 다시 되풀이하고 떠나갔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지금의 구청장이 된 당시의 문화원장과 삼각산축제를 만들었으나, 지나간 축제 때 많은

여러 어른들이 다녀갔지만 그분들에게서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치하의 인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점에서 이 곳 사람이 서울사람과는 인심이 다름을 실감할 수 있었다.

■ 글쓴이

드디어 절망으로 가는 사회가 되다

노중평

내가 관여하고 있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1년에 한 번 회원들의 원고를 모아서 책을 만든다. 회원들은 문단에 등단해야 한다는 요식행위를 거친 사람들로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대부분 현직에서 은퇴한 사람들이다.

책 편집을 마무리작업을 하던 날 젊은 편집자가 나와 함께 사무실을 나오며 내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나라가 이제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월급을 타서 결혼하기 힘들고, 부모가 사주지 않으면 집을 살 수도 없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교육을 시킬 수 없고.....”

말하는 그의 얼굴이 어둡다.

나는 그 젊은 편집자가 결혼을 했는지 아니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결혼을 했느냐고 묻고 싶지 않았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첫째는 교육이고 둘째는 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자신을 느끼고 있다. 그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절망의 양도 비례한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하여 절망하고,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자신의 앞날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둘러본다. 공직생활을 할 때는 근면성실하다는 평을 들었다. 상사에게 아첨한 적이 없었다. 부하직원에게는 매사에 공정하게 대하려고 하였다. 재직 중에 훈장·포장·대통령표창·그 외에 여러 가지 표창을 탔다. 그렇다고 로비를 해서 표창을 탄 적이 없었다. 다만 상복이 있어서 상을 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차라리 저금통장에 단 돈 1백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만 못하다.

누군가 내게 말했다.

“다 늙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그 집 팔아서 전세로 가고 그 돈으로 살아가는 게 나을 게야.”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고?”

“굶어 죽는 거지.”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아?”

어쩌다가 이렇게 암담한 현실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IMF를 겪은 후로 글을 써서 벌던 수입이 뚝 끊겼다.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렸고, 그의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대통령은 아무도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구 정권 하에서 수배를 받아 쫓기던 사람들이 실세가 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을 팔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마다나 공평하게 가난해지는 사회로 가고 있다. 사회주의 모델을 열심히 실습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집을 팔고 나서 정부에서는 검단신도시계획을 발표하였다. 집값이 오를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던 내가 살던 동네 집값이 갑자기 2천만 원이나 치솟았다고 한다.

내가 젊은 편집자에게 말한다.

“그거야 생각하기에 달렸지. 전 국민이 임대주택에 살 생각만 가지면 해결이 되는 문제일 텐데.....”

젊은 편집자가 빙그레 웃는다.

“그래도 사회가.....우리를 벼랑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하겠지. 투기꾼을 쫓아가려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니까 내 집 안 갖기 운동이라도 해 보자고. 우리를 살리는 일을 그 일에서 시작해 보는 거야.”

내 자신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데 횡설수설 하고 있는 것 같다.

오후 1시에는 은퇴한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다. 젊은 편집자와 헤어져 우리가 만나기로 한 교보문고 앞으로 간다.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멤버 6명 중에 4명이 최근에 약속이나 한 듯이 이사를 했다. 그들이 속내를 보이지 않으므로 왜 이사를 가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건 우연치고는 묘한데."

공직에서 은퇴한 친구가 말한다.

"기운이 바뀌고 있는 거야."

내가 말한다.

"무슨 기운인데?"

국영기업에서 은퇴한 친구가 묻는다.

"혁명의 기운이지."

점심을 먹기 위하여 청계천 입구에 있는 대구불탕집으로 간다.

“우리들 중에 이제 서울 사람은 이 친구 하나 남았군.”

건설회사에서 은퇴한 친구를 지목하며 내가 말한다.

“우리는 모두 경기도사람이군.”

국영기업에서 은퇴한 친구가 말한다.

한때는 우리가 모두 서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경기도사람이 되었다. 이제 서울 토박이시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경기도에 뿌리를 내리기엔 너무 나이를 먹어버렸다. 언젠가 갑작스럽게 차에 받쳐 공중에 붕 떠버버렸을 때 느꼈던 멍멍한 기분이다.

“이사를 잘못하면 죽는다던데.”

교직에서 은퇴한 친구가 말한다.

“살만해지면 죽는다는 게야.”

공직에서 은퇴한 친구가 말한다.

“그게 인생이야. 등이 따뜻해지면 죽게 되어 있어.”

다른 친구가 말한다.

“처지를 낮추어 가면 안 죽어. 높여가면 죽는 거야.”

내가 말한다. 처지를 낮추어 이사 간다고 천년만년 살 것은 아니겠지만.

점심을 먹고 나서 건설회사에서 은퇴한 친구와 나 두 사람만 남았다. 둘이서 전철을 타려고 을지로 입구 쪽으로 가니 울긋불긋한 깃발을 어지럽게 휘날리며 데모대들이 종로 쪽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다. 상행차선 하나를 점령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중무장한 군대처럼 무시무시한 모습이다. 데모대들을 보면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열린 정부가 들어서면 저들이 점잔아 질줄 알았더니 더 극성맞아졌어.”

우리가 투덜거린다.

도부신인이 올 복사골 심곡동에 자리 잡은 巫家 〈出子成〉의 格菴類的 해석

노중평

〈격암유록〉을 해석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인부지간仁富之間에서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갈 신인류新人類가 출현한다는 것이었다. 〈격암유록〉에서는 신인류를 천민天民이라고 하였고, 신인류가 출현하는 곳이 삼신산 아래 소울음소리가나는 곳이라고 하였다. 〈세론시〉라는 글에 그곳이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놓았다. 이 글을 살펴보기로 한다.

三神山下 牛鳴地 牛聲浪藉 始出天民
삼신산하 우명지 우성낭자 시출천민

삼신산 아래가 소가 우는 땅이다. 소 울음소리가 낭자하다. 시흥에서 하늘백성이 나온다.

격암 선생은 삼신산을 성주산·소래산·노고산 3산을 삼신산이라고 하였다. 삼신산이라면 〈마고신화〉에 나오는 산인 영주 방장 봉래 3곳을 이르는데, 신인류가 출현하게 될 때는 이들 3산이 성주 소래 노고 3산으로 바뀌는 것이다.

격암 선생이 왜 이 곳을 삼신산으로 정했는지 3산의 의미분석을 해 보면 이유가 밝혀진다. 새로 삼신산으로 등장하는 삼신산 아래가 소가 울어대는 우명지牛鳴地가 되기 때문이다. 성주는 성인이 사는 곳이라는 뜻인데, 성인을 천민이라고 하였다. 천민은 천손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태어나게 될 신인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성주산은 신이 사는 산이라는 뜻인데, 우명성을 내는 소와 관련이 있는 신을 든다면 견우와 직녀가 될 것이다. 성주산을 견우와 직녀의 산으로 보면, 소래산은 견우가 천제로부터 소를 받아 끌고 오는 산이 된다. 소래를 현재의 지명인 소래蘇萊로 보지 않고 소가 오는 곳(牛來)으로 보자는 것이다. 하늘에서 소를 끌고 오는 사람이 〈견우직녀신화〉에 등장하는 견우이다. 견우가 소를 끌고 온다는 것은 그가 천제로부터 하사

품으로 소를 받아 온다는 뜻이다.

우명지牛鳴地란 하늘에서 소 울음소리가 울리면 공명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하늘에서 소울음소리가 울릴 수 있는 날이 칠월칠석날이다. 건우가 직녀를 만나러 가서, 직녀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서, 6월 장마가 그치게 해달라는 주청을 드리면, 칠월칠석 날을 기점으로 해서 장마가 지나가게 된다. 그 징표로 하나님이 소를 한 마리 주어서 보낸다. 건우는 그가 받은 소를 이끌고 측실인 수녀와 함께 사는 곳으로 떠난다.

그가 수녀와 살고 있는 구국狗國으로 불리는 나라에 도착하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 농토인 천전天田이 있다. 그는 수녀와 함께 다음해 6월 장마가 들 때까지 1년 내내 농사를 짓는다. 이때 밭을 갈도록 예비된 소가 건우가 받아온 천우天牛이다. 6월이 오면 장마가 들게 되고, 천우가 자동으로 울게 되는 그 날이 칠월칠석날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밭을 농사 짓다가 하늘소가 울게 되는 천전이 있는 곳이 삼신산 아래이다.

격암 선생은 〈남사고예언서〉 서문의 첫 글에서 양궁쌍을지우마兩弓雙乙知牛馬라고 하였다. 소와 말이 궁궁을을이라는 말을 알아듣는다는 뜻이다. 牛는 양陽을 뜻하고, 馬는 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궁궁은 양의 소리의 울림이고, 을을은 음의 소리의 울림이다. 또한 궁궁은 건방乾方(건우가 사는 방위)에서 나는 소리이고, 을을은 곤방坤方(직녀가 사는 방위)에서 나는 소리이다. 이들 음양 두 음이 합이 드는 때는 일인계룡一人鷄龍이 되어 그의 몸 안에서 상극하는 음과 양이 인신人神의 조화로 화해가 되는 경우이다. 상극이 상생으로 가기 위하여 내는 진동의 소리가 바로 소 울음인 우명이 되어 울리는 것이다.

소 울음을 내게 되는 당사자는 칠월칠석 날 합궁하는 건우와 직녀이다. 건우와 직녀가 교접을 하면서 운우지정雲雨之情을 나눌 때 비가 오고 하늘을 뒤흔들어 놓는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 천둥치는 소리가 신인류의 출현을 예고하는 소 울음소리가 된다.

신인류가 출현하는 때가 "불교(大道)가 퇴조하는 때라고 격암 선생은 〈생초지략〉에서 말했다. 그때 새로운 대도大道인 인仁을 밝혀서 천지에 덕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격암 선생이 말하는 새로운 대도를 마고의 유시인 해혹복본解惑復本으로 보고 있다. 격암 선생은 "성주산과 성주산 아래 심곡이 장차 해혹복본을 실행하게 될 곳"이라고 여러 암시를 통하여 말했다. 해혹복본을 하려면 이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는 곳을 시始라고 하였다. 시는 성주산으로 넘어가면 나타나는 시흥이라는 말이다. 그곳에서 천민이 나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시출천민始出天民이라고 한 것이다. 나는 장차 해혹복본의 중심지가 부천 소사의 심곡深谷이 될 것으로 보고 이곳으로 이사오고 싶어서 병이 될 뻔하였다.

내가 부천으로 이사 오자, 이번에 인천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유승엽씨가 환경이 열악한 내 집에 들르겠다고 한다. 그가 이귀선씨와 같이 왔다. 나와 내자는 그들 두 사람을 동네 불고기집으로 안내하였다. 수십년을 그 곳에서 영업을 해 온 집인데 공교롭게도 상호가 '소 한 마리'이다.

우리는 소고기는 피하고 돼지갈비를 구우며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돼지가 단군조선시대에 저가猪加에서 제사지낼 때 제물로 바치던 동물이다. 그러므로 제물을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된 것이다.

유승엽씨가 내가 몇 번 만나 구면이 된 무당 이모씨가 도당동에서 무업을 하며 살다가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이사 온 곳과 가까운 데로 먼저 이사 와서 자리 잡고 법사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에는 선 거리를 했는데, 선 거리를 접고 앓은 거리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법회에 더 열심이라고 한다. 무당이 법회를 연다니 신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법회(무회巫會라고 해야 할 것이다)를 열면 신이 들리고 신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고 한다. 그를 찾는 신도들은 그가 타고난 이러한 신이한 능력을 보고 뒤집어진다고 한다. 유승엽씨가 하는 말을 듣자 그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유승엽씨가 핸드폰을 걸으니 조금 있다가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리하여 합석하게 되었다.

그가 나를 반가워 한다. 그의 안에 계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어, "내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내가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 한 말은 아닌 듯 싶었다. 이야기 붓다리를 풀면서 보니 요즈음 내가 심취해 있는 <격암유록>을 담론으로 삼아도 될 듯싶었다.

그의 말을 들어 보니 한의를 하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등 <격암유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히 이 고장에 와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언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 주겠다고 대답한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가 새롭게 뿌리를 내린 무가巫家로 가자고 한다. 그는 먹자골목에 해당하는 곳에 서 있는 건물 4층에 무가를 차리고 있었다. 건물 입구에 걸린 현판을 보니 <出子成>이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식이 태어나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성주산 일대가 신인류 출현이 예언된 곳이 아니라면 그런 해석을 하지 않고, “아들을 낳아 성공한다”로 해석해도 좋을 말이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 쓰게 된 당호”라고 말한다. 그 할아버지가 혹시 격암 선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승구씨는 그냥 묻히기에 가까운 사람이다

노중평



유승구씨

나에게는 유승구라는 이름보다 유승엽이라는 이름이 친숙하다. 그를 처음 만날 때 그는 자신을 유승엽이라고 소개했고, 우리는 [역사천문학회]를 만들면서 10년 세월을 유승엽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지내왔기 때문이다.

그를 처음 만나기 전에 나는 [한배달]이라는 단체에 발을 들여 놓았다. 내가 <유적에 나타난 북두칠성>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인사동에 있는 사회단체 [한배달]에서 금문金文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서 ‘북두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북두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나를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나는 “만날 수 있다”고 대답하고, “마침 내가 한배달이라는 단체에서 북두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으니, [한배달]로 나오라”고 하였다. 그가 [한배달]로 나왔고, 그래서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한배달]에서 금문·천문·한단고기·주역 등을 공부하며 교분을 쌓아갔다. 그러다가 중국을 다녀오기로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땅인 탁록·보계·천수를 처음 답사하였다. 탁록은 치우천왕의 유적을 찾아갔던 것이고, 보계는 복희의 유적을 찾아갔던 것이고, 천수는 신농의 유적을 찾아갔던 것이다. 그 외에 한국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은 태백산에 4번째로 다녀왔고, 천산에도 2

번째인가 다녀왔다. 우리가 〈한단고기〉를 통하여 '상고시대역사'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다.

중국에 다녀와서 결성한 것이 [역사천문학회]였다. 제봉 김세환 선생이 회장을 맡고, 나와 이승평 교수가 부회장을 맡고, 유승엽씨가 총무를 맡았다. [역사천문학회]를 만들면서 우리는 금요일에 만나서 공부를 하였다. 공부를 마치면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으며 담론을 벌이곤 하였다. 우리의 모임을 주선해 온 사람이 유승엽씨였다.

내가 [강북문화원]에서 삼각산축제를 기획하여 강북구민의 잔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구민의 축제를 만들었을 때 유승엽씨는 김용자씨와 함께 한인·한웅·단군왕검 세분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삼성제례三聖祭禮]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지금은 나와 그가 관여를 하지 않아도 [삼성제례]가 자리를 잡아 뉴스에도 나오고 세상에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 김용자씨는 지금도 팽주로서 시자를 데리고 제사를 돕고 있다. 김용자씨는 이 제례를 기초로 하여 〈제례진설에 관한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받기도 하였다.

나와 유승엽씨와 박송희씨는 [삼성제례] 이외에도 유승엽씨가 사는 부암동 산에서 10년 세월을 매년 자시子時에 [칠석제]를 지내왔다. 비용은 모두 유승엽씨가 부담했고, 헌다는 박송희씨가 담당했고, 나는 출기를 맡아 하였다. 3인이 주동이 되어 이 일을 해 온 것이다. 재작년(2005년)에 박송희씨가 [칠석제]를 광화문으로 가지고 나가 큰 행사로 벌였을 때도 이 [칠석제]를 도우면서 전날 자시에 부암동에서 전에 하던 대로 따로 제사를 지냈다.

이 외에 세상에 알리지 않고 3월과 10월에 유승엽씨가 홀로 [천제]를 지냈고, 이 일에는 나와 김용자씨가 참가하였다. 누가 보면 제사지내는데 미친 사람들처럼 행동하였다. 2년 전부터 이귀선씨가 가세하면서 나와 김용자씨는 떨어져 나왔다. 그가 이귀선씨와 만나면서 몇 사람이 모여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시민당]을 창당하였다. 창당을 하기 전에 부암동 산에서 창당 멤버들이 천제를 지냈다. 이때도 내가 갑자기 출기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가 주동이 되어 창당을 하게 되었고, 사무총장이 되었다.

그가 내게 [시민당] 홈페이지를 만드니까 홈페이지에 올릴 칼럼을 써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가 해 달라는 대로 긴 글 11편을 써서 〈시민당 홈페이지〉에 올려주었다. 그 글이 인터넷에 있어 클릭하면 읽을 수 있다. 그도 [시민당] 정책에 관한 글을 써서 올렸다. 그가 나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도운 보답을 한 것이다.

그는 무용가인 이귀선씨를 [시민당]의 '서울시장후보'로 내세웠다. 물론 낙선하였지만, 다른 사람은 꿈조차 꾸지 못할 일을 하였다. 만약 이귀선씨가 시장에 당선했다면, 그에게서 대한민국을 살릴 만한 획기적인 정책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10년 동안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석하고 비평하는 능력을 타고 났고, 남이 생각지 못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놀라운 혜안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직관적인 사유에 관심이 많았으나, 그는 분석적인 사유에 능하여 서구적인 사유를 하고 있었

다. 그러나 동양적인 직관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고 있어, 대단히 훌륭한 장점을 지닌 재사였다.

칼을 빼면 무라도 잘라 본다고, 그는 인천의 모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시민당]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출마하였다. 그에게는 한나라당 · 열린 우리당 · 민주당 후보와 같은 지원유세 없이 홀로 이 시대의 돈키호테처럼 싸웠다. 나는 인터넷에 들어가 그가 발표하는 정견을 읽었다. 그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낙선이다. <시민당>이 인지도가 낮으니 낙선은 예상했던 대로라고 하겠다.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 글은 늘 내게 호의를 가지고 대해 왔던 그에게 위로라도 좀 됐으면 하고 쓴 글이다. 인생사는 다 남가 일몽南柯一夢이요, 돈키호테가 낡은 칼을 휘두르며 풍차를 향하여 돌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데, 그의 인생이 돈키호테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비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렇게 된다면 이 나라가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민 간 한 재외 동포 金鐘琬 선생이 잡지의 날 받은 은관문화훈장

노중평

2006년 11월 1일은 제41회 째 맞는 잡지의 날이다. 이날 내자의 집안 쪽에 특이한 경사가 있어서 이를 소개해 볼까 한다. 친·인척에 대하여는 집사람이 별로 말을 하지 않아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거의 모르고 살아왔는데, 집사람과 동연배의 조카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의 내용인즉 집사람의 외사촌 오빠이자 조카딸의 아버지인 김종완이라는 분이 호주에 이민 간지 오래되었는데, 새삼스럽게 상을 받게 되어 귀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수상식장에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

그전부터 집 사람에게서 잡지사를 했던 사촌오빠 한 분이 있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분이 무슨 잡지를 발행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집사람이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세상사에 별 관심 없이 살아온 집 사람이 그런 것을 세세하게 기억할 리가 없으므로 내 또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여의도에 있는 수상식장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외 이민자인 내자의 외사촌 오빠가 국내에 와서 상을 받아야 한다면 이건 큰 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잡지의 날이 언제인지 알 리가 없으므로 잡지의 날 기념식장에서 정부의 포상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무엇인가 집히는 것이 있어서 함께 가자고 운을 띄었더니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가느냐고 핀잔만 듣고 말았다.

집사람은 아침 일찍 집을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다. 그리고 (사)한국잡지협회에서 발간한 팸플릿을 한 권 주는 것이었다. 이 팸플릿을 펼치고 나서야 외사촌 오빠가 받게 된 상이 은관문화훈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41회 잡지의 날 정부포상자의 명단에 기록된 기사는 다음과 같다.

金 鐘 琬 (1925년 생) | 前 희망사 사장



1951년 5월 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월간 <희망>을 창간, 발행하고 1952년부터 월간 <여성계> <문화세계> <야담> <자유세계> <동서춘추> <사담> 등 수많은 잡지를 창간, 발행하면서 건전한 잡지언론 창달에 기여한 바 크며, 한국잡지협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 잡지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

1925년생이면 금년 81세이다. 후진들이 잊지 않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민 간 선배의 공을 챙겨 정부포상을 받게 했다는 점에서 한국잡지협회가 일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잡지를 낸 1951년이라면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나 하는 조무래기였던 시절이다. 전쟁 통이라 공부도 무엇이고 다 집어치우고 고생 줄에 들어서 있었다.

중고등학교시절에 만나 우정클럽을 만들어 우의를 다졌던 내 친구들과 정년으로 퇴직한 이후에 어울려 호주에 관광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가이드가 데리고 간 바닷가에 면한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집 사람이 여기가 외사촌 오빠가 사는 곳이라는 말을 하여,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살고 있음을 알았다. 이민 간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친구 부인들도 함께 갔음으로 듣기에도 괜찮은 말이었다.

지금 나는 호주에서 제일 부촌이라는 그 마을의 이름을 잊었지만, 가이드가 사진 한 장 찍어주는 바람에 그때 찍은 사진이 집안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아직 퇴직연령 미달로 퇴직하지 않은 이형행 교수와 집 사

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고, 사진을 열심히 찍어 준 이상윤은 월남전에 가서 베트남을 취재하겠다고 부비트랩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새기도 했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어 세상에 없다.

내가 조무래기였던 시절에 서울과 영동을 오가며 치룬 6.25 전쟁 때가 문득 머리에 떠올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써보았다.

창수사자 부루태자가 굿판에서 창부가 되어 주는 검단 대곡의 가 현산

노중평

내가 청학보살의 굿을 처음 보았을 때는 2006년 6월 10일 억수로 쏟아지는 빗속에서 거행된 제1회 황해도 대동굿 굿판에서였다. 군웅굿을 잘 하는 만신이 있어서 유심히 보았으나 전에 그를 만나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그날은 날씨가 사나워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장대비가 간간히 쏟아졌다. 그래도 굿을 보겠다고 온 사람은 임시로 쳐놓은 천막 안에 들어가 있거나 천막 밖에서 우산을 쓰고 굿판을 주시하고 있었다. 장대비를 맞으며 인상적인 굿판을 벌인 사람은 김매물 만신, 귀걸이 만신과 청학보살이었다.

김매물 만신의 굿은 공연 굿을 몇 번 본 기억이 있고, 귀걸이 만신의 굿은 제가 굿을 한번 보고 나서 그가 하는 굿이 좋아 몇 번 본 적이 있다. 청학보살의 굿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청학보살은 김매물 만신과 귀걸이 만신보다 연배가 훨씬 낮아 보였다. 그가 하는 굿이 인상에 남았다. 그러나 눈과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그를 잊고 있었다.

나는 우연히 내 앞에 나타난 무당들이 하는 굿을 보면서 역사추론에 빠져들곤 하였다.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처음 대하는 내게 내가 궁금해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다. 신기할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보여 달라고 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굿판에서 그러한 것을 바랄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하는 굿을 보면서 굿을 무巫의 역사로 해석을 하거나 굿의 일부분에서 사라진 역사를 추론하였다.

경험상 강렬하게 굿을 하는 무당에게 가면 무엇인가 건지게 되는 것이 있었다. 내가 찾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인천시 검단면黔丹面 대곡리大谷里에 있는 [가현산굿당]에서 2006년 10월 28일 (토) 청학만신이 제가굿을 한다고 하여 가보기로 하였다.

내가 하는 일에 늘 동조자가 되어 준 장영호씨가 이번에도 가현산용궁굿당을 찾아 나를 데리고 갔다. 가현산 자락을 밟으면서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이곳에 숨어있음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내가 도착해야 할 현장을 찾아갈 때마다 겪는 일이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중심에 두고 길을 찾지 못하여 뱅뱅 돌아야 하였다. 가야 할 곳을 곁에 두고 해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조상님의 메시지가 오는군” 하고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요.” 장영호씨가 입버릇처럼 말한다.

청학보살의 부군이 차를 가지고 다리 앞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를 인솔해 구릉지 사이에 난 산길로 달린다. 훼손된 고인돌이 길 우측에 철제 울타리에 둘러싸인 채 방치되어 있다. 단군조선시대로 들어가는 느낌이 온다. 드디어 서낭목이 보이고, 그 앞에 있는 것이 굿당이다.

나는 경기도 하남에도 검단산이 있어서 검단이라는 지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검단이라는 문자에서 검단儉檀이 읽어지기 때문에 언젠가 검단면에 와서 역사와 관련이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아내어 풀어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기회가 오면 그 일을 해왔고, 늘 결과에 만족하였다.

검은 왕검王儉으로 단은 단군檀君으로 읽어진다. 인천의 검단은 인천과 강화의 접경에 있는 지명으로, 원래 김포의 검단이었으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인천에 속하게 되었다. 하남의 검단은 검단산黔丹山(657m)이다.

하남의 검단은 한강의 동쪽에 있고, 인천의 검단은 한강의 서쪽에 있다. 한강을

끼고 2개의 검단이 있는 것이다. 두 지명을 연결하면 한일—자가 된다. 이들 두 검단 이외에 또 다른 검단은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의 검단과 충북 중원군 이유면 검단리의 검단이다.

하남의 검단산은 초기백제인 한성백제의 성산聖山 (격암 선생이 <격암유록>에서 성산으로 호칭) 이었다. 부천에서 시흥의 소래(소래는 백제를 세운 소서노와 백제를 멸망시킨 소정방이 들어온 포구이다)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성주산聖住山과 함께 성산으로서 쌍벽을 이룬다. 인천의 검단이라는 지명도 무시할 수 없는 지명이다.

전해 오기로는 흙이나 바위가 검붉어서 검붉은 산이라 검을 검자와 붉을 단자를 함께 써서 검단산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는 믿기 힘든 말이다. 하남의 검단산과 이곳의 검단을 연결해 보면, 이곳에 대곡리大谷里로 불리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의 산 이름이 가현산歌鉉山(215.3m)이다. 산 이름 치고는 특이하다. 가현이란 삼공三公이 노래 부른 산이라는 뜻이다.

삼공이 노래 부른 산이라면 검단을 검붉은 흙으로 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고, 삼공이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어느 특정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곳에 비록 형체가 허물어지기는 했으나 고인돌들이 구릉지 정상부에 분포해 있는 점으로 보아서 대곡리가 오랜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만한 취락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인돌은 단군조선시대의 무덤이기도 하고 제사 터이기도 하다. 용궁굿당

으로 올라오는 길 오른편에 고인돌 3기가 함께 있는 곳이 삼태성삼태성이 지나
가는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강화도를 무대로 하여 부루태자 · 단군왕검 · 종여곤 ·
우사공을 등장시켜 홍수매기하는 이야기를 단편소설로 써서 <삼신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월간문학』에 실은 적이 있었다. 이 소설에서 부루태자는 거문
고를 뜯는 창부로, 호풍환우하는 용왕으로 등장하였다.

이곳 대곡리 가현산에 있는 용궁굿당에서 신어머니 청학보살이 굿을 하는데 신
어머니를 수발하러 온 새내기무당이 동자를 놀다가 동자가 실려, 자기가 피리
부는 동자라고 한다. 문득 어린 시절의 부루 단군이 실렸음을 직감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새내기 무당이 이를 알 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피
리를 하나 사 달라고만 조른다. 이 무당이 상고시대 역사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몸에 전율이 와서 졸도했을지도 모른다.

桃符神人마지를 위하여 삼각산을 떠나 富川의 시민이 되다

노중평

강북구 번동에 가서 살면서 양력 10월 3일이면 내가 만든 삼성제례의 홀기대로 강북구를 대표하는 구청장 · 문화원장 · 의회의장 새 분이 한인 · 한웅 · 단군왕검 세분 조상에게 늘어지게 제사를 지내 드리는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자축하는 일이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해 온 일이었다. 내 주변에는 몇 사람이 모여 막걸리나 마시며 하루를 즐겼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나의 고등학교 때 친구 이상윤이가 삼각산축제를 여는 솔밭공원 뒤쪽에 지은 아파트에 와서 살면서 풍악이 울리면 축제장에 나와 신문사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사진을 찍곤 하였다. 몹쓸 중병에 걸린 후로는 손녀를 데리고 나와서 보여주곤 하였다.

처음에 삼각산축제를 만들었을 때 공영방송에서 방송트럭을 보내어 리포터가 생중계를 해 주기도 하였다. 그때는 축제할 곳이 없어서 도선사로 올라가는 길가에 만든 소공원에서 하였다. 4.19국립묘지 · 솔밭으로 돌아다니며 이 행사를 하다가 구청에서 축제 때마다 전용으로 쓸 솔밭공원을 만들어 이제는 매년 10월 3일이 되면 거창한 축제를 벌인다.

처음엔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당시에 문화원장을 하던 분이 구청장이 되어 제관인 3헌관이 구청장, 의회의장, 문화원장으로 고정화 되어 명실상부하게 강북구의 대표축제가 되었다.

제단에 올릴 차를 만들어 내는 일을 10년 동안 해 온 김용자씨는 작년에 <제례진설>이라는 제목의 중후하고 재미있는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이후로 여기저기에서 강의를 요청해 와 이제는 대학에서도 강의를 할 정도로 인생살이가 발전하였다.

몇 년 전에 제삿날 와서 기념사를 한마디씩 하고 간 조순영 · 김근태 이런 분들은 높은 자리에 올랐고, 당시의 문화원장은 금년에 2번째나 구청장을 하고 있다. 조상들이 음우하셔 좋은 일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하자는 대로 나를 도와준 유승엽씨의 노고도 잊을 수 없다. 그가 무엇을 도왔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조상이 알 것이다. 그만하면 되었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삼성제례를 만들 때, 다음엔 치우·유망·황제 세분을 위하여 제사지내는 행사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마고를 위하여 제사지내는 행사를 만들려고 했으나, 역부족으로 이 일은 성사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다른 곳에 가서 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나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미적거렸다.

이번 10회 째 삼성제례를 보면서, 10이라는 수에는 다음으로 영원히 넘어간다는 일종무종일—終無終—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제는 떠나야 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마고제사를 지내고 싶어서 금년 내내 관심을 두고 글을 써왔던 곳을 찾아 가자는 생각에서였다.

내가 보기에 마고행사를 하기 딱 좋은 곳이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성주산이다. 500년 전에 격암 남사고 선생은 성주·소래·노고 3산을 하나로 묶어서 삼신산이라고 하였고, 이곳에서 도부신인桃符神人마지를 하면 인류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다.

마고를 그린 그림엔 마고가 주로 복숭아를 들고 있거나 동자를 안고 있는 인물상으로 그려지는데, 그가 도부신인임을 상징하는 그림들이다. 복숭아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동자이다. 일본의 기비지방에는 복숭아에서 태어나는 모모타로상신화가 전해온다. 아사가와에 수많은 배를 띄우고 각 시와 현에서 오는 대표들이 모여서 거대한 축제를 벌인다. 이름 지어 모모타로상축제이다. 그 신화와 맥이 닿아 있는 곳이 복사골인 성주산이다. 이렇게 보면 한강이 성주산 복사 골에서 복숭아가 떠내려가는 강인 아사가와가 되는 셈이다.

도부신인인 마고를 격암 선생은 <남사고비결>인 <격암유록>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다. 서호진인·진사성인·화룡적사·근화계룡·진룡·삼신산인·삼신제왕·근화중주인·정도령·등등 그러므로 어느 특정인을 정도령으로 건강부회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부천에서 마고신화를 모르면서 복숭아축제를 한다는 것은 견목구어나 다름이 없다. 아직 마고축제를 할 때가 되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성주산으로 이사를 가고자 결심한 이유가 이런 데에 있다. 성주산에 살아야만 자유스럽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6년 10월 19일 정든 삼각산을 뒤로 두고 성주산으로 떠났다.

성주산으로 떠나면서 많은 것을 버렸다. 아파트에서 빌라로 가자니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의 1/3을 버렸고, 1/3을 후배를 주었고, 1/3만을 싸가지고 떠났다. 집사람도 장롱이고 옷이고 살림살이를 버리기도 하고 시골로 보내기도 하였다.

서양 사람은 쓰던 물건을 대물림을 하여 가보로 삼는다는데 우리는 버리는 것이 많아서 문화고 전통이고 없다.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버려야 할 판이니 이래가지고 문화며 역사를 말한다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심히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새집으로 와서 집을 풀어 놓으니, 정돈을 한다고 해도 6.25동란 때의 피란민 살림살이 같다. 그때의 부모며 친척 어른들이 다 돌아가서 아니 계신데 허접 쓰레기 같은 짐들이 옛날을 회상시켜 준다.

이사를 떠나기 전날 집을 싸다 말고 화가 유진수씨의 연락을 받고 그의 작품전시장에 가서 묘한 충격을 받았다. 그가 무당처럼 신당을 하나 꾸며 놓고 전시회를 하고 있었다. 전시회장이 신당이었던 것이다. 이러다가 앞으로 화가가 무당의 고유한 영역인 신당을 본격적으로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옛날엔 무당이 의술을 했지만, 의원이 생겨 제일 먼저 의술을 챙겨갔다. 무당의 전유물이었던 춤과 노래가 있었다. 그러나 춤은 춤꾼이 가져갔고, 노래는 소리꾼이 가져가더니,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고 무당이 따라가지 못할 기량의 춤과 노래로 발전시켰다.

이제 신당마저 그림쟁이가 뺏어가기 시작했으니, 유진수씨의 아류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무당은 점쟁이가 되는 일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춤과 노래, 음식, 진설, 복장, 등등 챙겨간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앞으로 무당이 할 일은 점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은 없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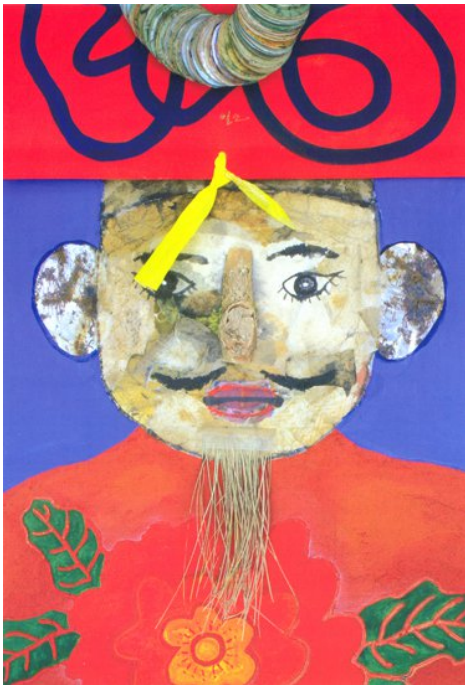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엔 고급인력에게 신이 내려 무당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전에는 가족이 몸주로 왔는데 이제는 단군할아버지가 몸주로 오신다. 신명의 세계가 가족신의 시대를 접고 민족신의 시대로 개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무당이 승려나 기독교 사제가 해 오던 일을 인수해야 하는 때가 오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다.

앞으로 새로운 종교가 이 땅에서 출현하게 되고, 무수한 외국인들이 와서 새로운 종교를 공부하고, 무당이 신도를 가르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나라에서 준비해 주어야 한다. 이 일로 국민이 먹고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인즉 나라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명으로 보아서, 격암 선생이 말한 미래의 종교가 출현할 곳으로 합당한 곳은 성주산이다. 신을 찾아서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종교, 앞으로 재구성하여 세상에 펼쳐야 할 종교, 기성종교를 부정하는 새 종교가 나와 가르치고 배우는 시대를 성주산에서 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천성적으로 巫畵를 그리는 화가 兪辰守씨와 나는 황당한 대화

노중평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을 싸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화가 유진수씨의 전화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받는 전화다. 나는 그의 전화번호 적은 수첩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는 내 전화번호를 잘 간수해 두었다가 전화를 걸어준 것이다.

나는 그를 10년 전에 만났다. 서울의 강북문화원에서 삼각산축제를 기획하면서 그와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인사동 화랑에서 태극을 그려 전시하고 나서 서울을 떠나 대구에 가 있었다. 주거지가 대구였다. 그를 만나려면 대구로 가야 하였다. 대구로 가서 그가 조각보를 수놓아 화려하게 만든 대형태극 그림을 빌려다가 병풍 대신에 세우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삼각산축제는 말이 축제지 한인·한웅·단군왕검 삼성(〈조전왕조실록〉에서는 이 세분 조상을 三聖으로 호칭한다)에게 올리는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기획한 행사였다.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이어서 무당이 굿거리 한판을 하게 되어 있었다.

태극그림을 빌리러 대구로 갔다. 첫 행사장은 삼각산의 도선사로 올라가는 길의 오른쪽이었다. 천도교 수련관 아래쪽에 있었다. 봉황각에서 담 넘어 내려다보이는 곳이었다.

축제하기 전날 유진수씨가 대구에서 부쳐준 대형 태극그림을 무대를 짜고 무대 전면에 걸었다. 장엄하게 보이는 태극이 무대를 압도하고 있었다. 행사 당일에 ‘우이시낭송회’에서 개막사전행사로 시낭송회를 열었다. 이날 원로시인 박희진 시인이 태극그림을 보고 정교한 솜씨, 색채, 아름다움, 장엄함에 감탄하였다.

이 일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유진수씨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나와 유진수씨 사이에 마무리해야 할 일이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던 것이다. 내 자신이 무엇을 마무리 지어야 할지 궁금했다. 나는 작업을 중단하고 집을 나섰다.

그는 ‘성곡미술관’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꼬부라져 올라가다가 서있는 한 건물의 4층 전체를 빌어 전시회를 열고 있었다. 아트센터라고 이름이 붙은 건물이었다. 그는 전시회장을 〈동이신당東夷神堂〉이라고 불렀다. 유진수씨는 나를 데리고 〈동이신당〉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가면 좌우에 벽이 없이 탁 터진 방들이 있었다. 방 2개를 전시실로 쓰고 있었고, 방 하나는 손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나는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림이며 설치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무기巫氣가 물씬 풍기는 작품들이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신명을 따라 그린 그림이었다.

이번 전시회에도 태극이 주제였다. 내가 처음 보았을 때의 절학적인 의미의 태극이 발전하여 종교적인 의미의 태극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가 10년 전에 내게 보여주었던 초대형의 태극이 초소형의 태극으로 분해되어 좁은 공간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색채가 약간 어두워진 듯싶었다. 반갑지 않을 수 없었다.

초소형의 태극은 살아있는 별들이다. 별들이 각자 자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전의 태극은 천 조각을 바느질로 붙여서 거대한 태극을 만들었는데, 지금의 태극은 그린 태극과 바느질을 하여 만든 태극이 섞여 있다. 크기가 작아지고 자유스러워졌다.

자유스럽게 떠다니는 작은 태극이 모여 거대한 태극을 이룬 것이 유진수씨의 우주이다. 유진수씨는 초대형의 우주를 조각조각 조각을 내어 초소형의 우주를 만들어 자유롭게 떠다니게 하였다.

이 작은 우주는 한 순간에 인간의 얼굴들로 변한다. 우리 얼굴과 같은 얼굴, 우리 조상의 얼굴과 같은 얼굴로 변해 있다. 치마저고리를 입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가 하면 신사숙녀의 양복이나 양장을 한 사람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그저 평범한 생활인으로, 어느 한 순간에 사진에 박힌 얼굴들처럼 정답게 있고, 초등학교 앨범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다.

이 안에는 내 얼굴도 있을 듯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얼굴은 지지고 붉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성을 거부하고 신격화되기를 원한다. 대부분이 다 여자들이다.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혹시 내 마누라도 이 속에 몰래 들어와 있지 않나 하고 찾아본다. 마누라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마누라인지 아닌지 눈이 나빠서 잘 구별이 가지 않는다. 안경을 바꾸어 쓰고 들여다보지만 공부가 덜 되어서 그런지 영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한쪽 방에는 신당을 차려놓았는데, 병풍을 세우고 향과 옥수와 초를 올렸다. 방 밖에는 신목을 좌우에 세우고 오색 천을 매어 두어 여기가 신당임을 알리고 있다. 오색 천을 둥글게 올려서 만든 엽전다발이 걸려 있고, 그 밑에 하이칼라 머리를 하고 검은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그림 속에서 “압길이 흰히 열렸도다” 하고 한마디 한다.

유진수씨는 태극기를 그려 온 작가답게 <동이신당>을 각양각색의 태극기를 걸어 장식하였다.

“사람들이 동이라는 문자가 중국 사람들이 만든 문자라 좋지 않으니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고 묻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춘추전국시대에 세상에 나온 <태현경太玄經>이라는 천문서에는 夷를 ‘춘분의 기’라고 하였습니다. 동이라는 말은 춘분의 기에서 나온 인종이라는 말입니다. 중국인은 화하족華夏族이라고 했

는데, 하夏는 하지夏至의 기氣에서 나온 인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동이가 화하의 형이고, 화하가 동이의 동생이 됩니다.”

유진수씨가 머리를 끄덕인다.



우리는 탁자를 마주하고 앉았다. 그가 가져온 차를 한 잔 마시며 대화로 들어갔다. 나는 주로 그의 이름을 읽으며 대화를 하였다. 그의 이름에서는 무기가 풍긴다. 또 숙명적으로 종교를 벗어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 준다.

“이삿짐을 싸다가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무엇인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온 것입니다.”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찾아야 하였다.

“어디로 가시는 데요?”

“부천으로 갑니다.”

나는 격암 남사고 선생의 <격암유록>을 읽어 보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읽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풀릴 것 같았다.

“부천富川 소사素砂 심곡沈谷에 성주山聖住山으로 불리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사 가는 곳입니다. 500년 전에 격암 선생이 성주·소래·노고 3산을 삼신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불로초가 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불로초는 요즈음 말로 우주인식량과 같은 말이지요.”

나는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하고 있어서 듣기에 지루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지루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마고가 해혹복본解惑復本하라고 명하고 부도를 세우라고 했는데 성주산이 앞으로 세우게 될 부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선국仙國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인천과 부천사이에 선국의 국도가 들어서고 삼신산인三神山人으로 불리는 신인류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활짝 피는 것을 본다.

“선생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머리를 길게 기르면 산신과 같은 위엄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무화를 그리는 화가가 내 얼굴을 보며 말한다.

아직 성주산엔 가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산신의 기운이 돈다는 말로 들린다. 만일 내게 그런 기운이 돈다면 소래와 노고를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두 산을 성주산에 합쳐야 삼신산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찾아

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헤어질 때가 되어 블로그에 올려 소개할 그림사진 몇 장을 고른다. 대신 할아버지 그림이 마음에 든다. 대신 할아버지를 신당에 모시는 무당은 효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떠올린다.



〈동이신당〉을 나오기 전에 작년의 전시작품을 수록한 팸플릿을 보여준다. 태극판화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작품들의 색깔이 황색과 갈색이 섞여 있는데, 만들기 힘든 색깔로 보인다. 색깔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정역正易〉을 쓴 김일부 선생의 상, 유진수씨 본인으로 보이는 여왕상이 눈에 띈다. 아직 여신임을 선포하지 않은 여신들도 있다. 어젠가 여신임을 선포하고 세상에 나오게 될 신들이다.

팸플릿에 소개된 그의 호는 일소一素이다. 내가 가려는 곳이 소사素砂이다. 나는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되기를 바라며 소사로 간다. 일소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유 선생과 내가 인연이 있군요.”

내가 일소라는 문자를 풀이하며 말한다.

“제가 많은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더군요.”

그가 말한다.

“그냥 하는 일을 그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한다.

내가 하는 말은 중이 되는 것은 반대!라는 뜻이다. 그가 내가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듣는다. 됐다. 그가 중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차례 상에 오르는 제물에 숨겨진 역사

노중평

금년 추석 차례 상에 작년에 이어 또 피자가 올랐다. 조카가 피자가게를 시작하고 나서 생겨난 풍속의 변화이다. 조카가 피자가게를 지속하는 한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아마 다음 대에도 피자는 차례 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차례 상에 오르게 된 제물로 확정이 된 메 · 탕 · 술 · 떡 · 나물 · 과일 · 한과 · 어포 · 적은 내 조카가 차례 상에 피자를 올려 제물로 확정이 되듯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제사상에 오르게 되어 제물로 확정이 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 반영되어 있다.

무엇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물이 차례 상이나 제사상에 오르게 된 경위를 추론해 보는 것이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제일 먼저 무엇이 제물로 제상에 올랐을까?

제물을 올릴 제상을 만들면서 진설陳設이 본격화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이전에는 거적居嫡(제관인 장남이 제물을 진설하는 자리와 절하는 자리라는 뜻)을 깔고 제물을 올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당이 1년에 한 번 자기가 모시는 성주(星主로 볼 때는 해 · 달 · 북두칠성 천부삼인, 聖主로 볼 때는 무당이 모시는 뫼주)에게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진적(필자는 진작進爵의 변음으로 보지 않고 眞嫡으로 본다)이라고 함으로 거적에서 온 말로 본다. 제물로 구운 고기를 올릴 때는 진적進炙이라고 썼을 것이고, 맏아들이 무무巫舞의 도움을 받으며 제사를 올렸을 때는 진적進嫡이라고 했을 것이다.

거적을 사용하기 전에도 제물은 있었을 것이므로, 태초에는 제물로 무엇을 올렸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구석기시대의 사람인 홍수아이 주변에서 발견된 곰의 뼈들이 곰의 형상을 갖추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서, 수렵시대의 제물은 곰이나 물고기나 조개류를 썼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제물을 올렸을 것이므로 무엇을 제물로 올렸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거적을 절하는 자리(蓐位-거적)로 물리고, 그 자리에 제상이 놓이게 된 때는 나무로 상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도구 사용에 익숙해졌을 때였을 것이다.

여자들이 우물가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빌어 온 유습으로 보아서, 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 물을 제사에 쓸 때는 현주玄酒라고 하였다. 술을 뜻하는 주酒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북극수北極水를 현주로 호칭하였을 것이다.

玄은 북극이다. <부도지>에 마고가 마고성을 폐쇄할 때 우리의 조상인 황궁黃穹이 무리를 이끌고 북쪽에 있는 천산주天山洲를 찾아 정착하였다. 천산주란 북쪽바다에 떠있는 섬으로 천산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마고는 마고성을 폐쇄할 때 두 딸 궁희와 소희를 데리고 천수天水로 성을 청소하였다. 천수로 마고성을 정화淨化시킨 행위가 후대에 성수로 인간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는 정화행위로 전수된다. 이 물이 정화수 井華水+ 淨化水=淨華水이다. 井華水의 정은 북극성에 있는 우물이고, 화는 북극성이다. 그러므로 정화수는 북극수를 뜻한다.

북극수에 수정水精이 있다. 수정은 마고성을 천수로 정화시킨 마고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마고가 황궁·유인·한인·한웅·단군왕검으로 전수한 천부삼인은 수정의 징표가 된다. 그래서 한웅천왕으로부터 천부삼인을 인수한 단군왕검을 수정이라고 하였고, 그의 아들 부루를 수정자水精子라고 하였다.

부루가 단군왕검으로부터 제위인 왕검의 위를 물려받으면서 그를 용왕龍王이라고 호칭하였다. 용은 수정의 결실인데, 그가 왕검이 되었으므로 용왕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용신각이나 용왕전에 모시는 용왕은 부루단군의 신상이다.

다음에 오곡이 제상에 올라간다. 쌀농사의 역사가 15000년 오곡의 역사가 5000년이므로 오곡이 제상에 올라가게 된 역사는 적어도 5000년이 넘는다.

충북 청원군 소로리에서 1994년에 출토되어 ‘소로리법씨’로 알려진 법씨를 제례 역사상 최초로 생미生米로 제상에 올렸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년 1월 충북 옥천 대천리 유적인 신석기시대 집자리에서 탄화된 쌀과 보리·밀·조·기장 등 ‘오곡’이 발굴되었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결과 오곡이 생산된 때가 BC 3500~BC 3000년으로 밝혀졌다. 벼와 조, 기장은 봄·가을 작물이고 보리·밀은 늦가을~초봄 작물이므로 신석기인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었음을 보여준다. 김포 가현리와 일산 가와지 유적 토탄층에서도 BC 3000~BC 2000년 전에 벼농사를 지었음이 밝혀졌다.

천제를 지낼 때는 오곡을 모두 생미로 올리는데, 오곡의 생산이 메와 떡과 술의 발명으로 이어졌고, 이들 3가지가 조상제사 때 제상에 올려졌다.

메는 묘에서 제물로 올림으로 메라는 이름이 생긴 듯하고, 떡은 나라의 덕을 의미하는 뜻에서 떡으로 이름

이 정해졌을 것으로 본다. 최초의 술은 막걸 리가 되었을 것이다. 막걸리는 마고에게 올리는 동이족의 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막걸리를 걸러 약주를 뿔아냄으로써 약한 술의 의미로 약주로 불리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적솥은 사냥하여 잡은 고기로 만든 육적肉炙과 어로로 잡은 물고기로 만든 어적魚炙의 둘로 나눈다. 사슴 · 닭 · 소 · 돼지를 육적에 썼고, 북어 · 조기 · 문어 등을 어적으로 썼다. 이는 수렵시대의 유습으로 보인다.

이어서 과일도 제상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감은 벼슬하는 무당인 대감大監의 의미로 쓰였다. 감을 시柿(柿 · □의 약자)라고 했는데, 시尸(칠성신, 임금) · 신神(일 · 월 · 성신 삼신)과 관련이 있는 문자로 본다.

사과에는 사과巳果(뱀을 인종의 아이콘으로 쓰는 풍이風夷의 자손)의 의미가 있다. 배에는 주舟의 의미가 있다. 주의 음차로 본다. 밤에는 밤(夜)의 의미가 있고, 대추를 대주□晝의 음차로 보면 대낮이 된다. 따라서 밤과 대추가 밤과 낮을 상징한다고 본다.

한과는 산자와 약과와 약식과 다식을 제상에 올린다. 이 풍습은 먹을거리가 화려해진 고려시대의 풍습이다. 제상에 올리는 나물 종류는 인체의 뼈와 살과 체모 등을 뜻한다.

우리가 제사를 지낸 역사가 1만년이 넘으므로 제물의 가지 수도 많이 늘어나 종묘제례 때는 엄청나게 많은 제물이 제상에 올랐다. 고려시대의 기록에는 임금이 지내는 제사에서 제상에 올리는 술만 해도 청주 · 약주 · 막걸리 · 현주 · 감주 등등 6가지나 되었다. 기이하게도 소주를 쓰지 않았다. 아마 만족의 술이라고 쓰지 않았던 듯하다.

제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제정일치시대의 임금이었던 무당이었다. 구한말에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무당내력>에는 시루 1개에 떡과 잔을 올리는 것으로 검소하고 단출하게 하였다. 다만 국가기관인 화방에서 만들어 주는 꽃인 수팔련을 제물과 함께 올렸다.

그러나 오늘날 굿을 할 때와 차례를 지낼 때 올리는 제물은 가지 수가 많고 분량도 많다. 그러므로 옛 모습을 찾을 길이 없다. 옛 모습을 찾는다면 물과 막걸리와 떡과 메와 소찬으로 족할 것이다.

단군왕검에게 사로잡힌 재일한인 최호정씨를 삼각산축제에 초대하다

노중평

〈삼각산축제〉를 만든 지 어언 10년이나 된다.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몇 사람이 〈삼각산축제〉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10년이라는 세월을 쌓아 온 것이다. 처음엔 삼각산에서 한인·한웅·단군왕검 삼성에게 제사 올리는 〈삼성제례〉를 복원하는 일로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규모가 커졌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알찬 축제로 성장하였다. 여러 해 전에 '강화문화원'에 자료를 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삼각산축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서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삼성제례〉 때문에 〈삼각산축제〉가 그곳 문화원에 알려진 듯싶었다.

처음 〈삼각산축제〉를 만들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인과 한웅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단군왕검만은 알고 있었으나, 그나마 신화적인물이니 뭐니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입씨름을 하여야 하였고, 결국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은 현직 대학교수들을 몇 사람 불러다가 아카데미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나서야 빈정거리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 오는 의도적인 반대를 잠재울 수 있었다.

나는 그 당시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삼각산은 의구하여 말이 없는데

내가 어려서 삼각산이라 불렀는데
일본사람 들어와서 북한산이라 부르고

세 산봉우리에서 무슨 음모를 꾸미겠다고
三角
삼각

北漢
으로 북한
고치고

을 대
로 고쳤는가

하인

한웅
에게 제사 올렸고

단군왕검 삼조

이 일 하기 위하여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방과 아전들 설득하느라고
주머니 털어 차비 쓰며 신발이 다 닳았지

신화니 뭐니 알지 못하는 말 주워대며
안된다는 사람 많았네
증거가 있느냐고 따졌었지
삼각산이 죄인이냐 증거를 찾게

삼각산 영기가 미치는 곳에
땅 파고 들어앉은 절들은
천년 묵은 절이든 오백년 묵은 절이든
삼각산 산 이름 절 이름 앞에 붙여
산신을 노하지 않게 하려 하였고

이 고장에 세운 모든 학교들
백년 되었든 오십년 되었든
교가에 삼각산 이름 넣어 부르고 있지

이 고장에 사는 글쟁이들도 그들이 쓰는 글 심는
잡지 만들어 <삼각산>이라 이름 하였네

드디어 정부가 북한산이라는 이름
대한민국이 버릴 때가 되었다고 선언했더군

이제야 하는 말인데 들어 보게나
삼각산은 해와 달과 북두칠성이 지나가는 곳
마고가

전한

解惑
해혹

천부(天符)
三印
삼인

復本
복본
의 징표가 되는 땅이라
전에

이천 년

소서노와

온조가

잉(仍)
벌(伐)
貉
노
를 만들어

하늘에 제사한 곳이야

부아(負兒)
악(嶽)
이 거기라더군

도선스님은 인수봉 밑에 절을 지었고
일본사람 들어와 헐어버렸지
지금은 깨어진 기와 파편 몇 개가 묻혀 있고
흠쳐갈 수 없었던 장대석 몇 개가 뒹굴고 있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의암 손병희 선생이
폐사지 밑 우이천 건너에 터를 잡고

봉황(鳳凰)
閣
각
을 세웠지

이곳에서 1912~1914 동안 483명의 인원이
7차로 나누어 매회 49일 씩 교육을 받고
전국으로 퍼져나가 3.1만세를 주도한 곳이야

자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
풍물패들이 풍악을 울리고 있네 그러
비나리 선고사 소리 좌계봉 한 대목 들어보게나

천개(天開)
宇宙
우주
하늘이요
지개(地開)
조(造)
築
축

땅 생길 제

범(汎)
연(延)
者
자
時化
시화
延風
연풍
돌아들고

가우리

꿈

받들

三角山
제 삼각산

鳳凰
봉황

起峰
기봉
하고

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천(天)
坪
평
짓고

천평

和白
앞뒤에는 화백

이로다

다음엔 예산확보가 문제였는데, 신과 조상의 가호가 있어서 그런지 잘 해결되어, 정부에서 행사비용을 지원해 줄 정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래서 <삼성제례>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행하는 유일무이한 행사가 되었다.

당시엔 제례를 지낼 장소도 문제였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도선사로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소공원에 제물을 차리고 제1회 <삼성제례>를 지냈다. 여러 해를 여기저기 다니며 행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구청에서 <삼각산축제> 때 전용으로 쓸 솔밭공원을 만들어 이곳에서 마음 놓고 <삼성제례>를 올리고 있다. 초창기에는 문화원장·노인회회장 이런 분들이 제관이 되었고, 관청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수년 동안 외면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구청에서 적극 나서고 있고, 지방과 자매결연을 하여 매년 손님맞이를 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삼각산축제>는 내용이 풍부해지고, 이 나라의 문화원에서 행하는 행사로서는 가장 역사성이 깊은 행사가 되었다.

제7회 행사 때 구청에서 중국의 공무원들을 초대하였다. 나는 이 축제를 기획했으므로 필담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삼성제례>를 설명해주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인·한웅이 지금의 중국 땅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이라는 말에 놀라는 눈치였다.

작년엔 문화원에서 헌관들이 유건을 쓰고 도포를 입고 지내던 제사를 조선왕조시대의 공복을 입고 사모관 대하고 지내는 제사로 바꾸어 구색을 맞추었다. 양반의 복식을 하고 소사小祀로 지내던 제사를 중사中祀

로 격상시켜 지내게 된 것이다.

나는 이번 제사를 보기 위하여 09시 10분경에 집을 나섰다. 행사장인 솔밭공원에 도착하니, 인수봉·백운봉·만경봉이 올려다 보이는 무대에 제단을 설치하고 제물을 차리고 있었다, 왼쪽에는 칠성궁에 쓸 제물을 차리고, 오른쪽에는 삼성의 위패와 위패 앞에 오곡을 차렸다.

무대 전면의 왼쪽에 쳐둔 텐트 안에 음향기기를 차려놓고 음향을 조절하고 있었고, 무대 앞에는 카메라를 세우는 등 분주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엔 전에 없었던 대형스크린을 무대 앞쪽으로 오른쪽에 설치하여 넓은 화면으로 무대 위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가깝고 크게 생중계로 볼 수 있게 하였다.

나는 이번 축제가 내가 이 고장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보게 될 축제가 될 것임으로 축제장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부천으로 이사 가기로 한 것이다. 그곳에 가면, 격암 남사고 선생이 삼신산이라고 부른 성주산·소래산·노고산이 있으므로 삼신산에 걸 맞는 일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마음먹은 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될지, 일을 하지 못하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걱정스럽기도 하다.

나는 일본의 국적을 가지고 일본인과 살고 있는 최호정씨를 〈삼각산축제〉에 초대하였다. 〈월미도칠석제〉때 그가 여자제관들만이 올리는 〈칠석제〉를 보았으므로, 그 제사의 원형인 〈삼성제례〉를 보라고 초대한 것이다. 그가 〈삼성제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대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으며 3년 동안 고생하였다. 통증을 이기려고 양주를 마시는 바람에 일상생활과 건강이 말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신병을 앓게 된 것이다.

웬 할아버지가 꿈에 자주 나타났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몸이 낫게 해 달라고 대한민국사람들이 자주 찾는 기도터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아픔이 나을지 안 나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루는 어떤 기도 터에 갔는데, 그곳에서 벽에 걸린 초상화를 보게 되었다. 그 초상화에 그려진 할아버지가 그의 꿈에 나타났던 그 할아버지였다.

그는 일하는 여자에게 저분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일하는 여자는 그 분이 ‘단군할아버지’라고 일러주었다. 그는 그 후로 단군할아버지에 대하여 부쩍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고국에 사는 언니에게 단군할아버지에 관련이 되는 자료들을 구해서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언니가 보내주는 자료를 읽었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내가 인터넷에 개설해 놓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올린 글들을 읽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쓴 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군할아버지가 병을 낫게 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대한민국 행 여객기에 탔다. 여객기가 현해탄을 건널 때 거짓말처럼 몸에서 통증이 싹 가시는 것을 체험하였다.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내게, “아무래도 단군할아버지를 일본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단군할아버지가 제게 나

타나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자, 내가 쓴 <일본의 신도와 마쓰리>, <유적에 나타난 북두칠성>, <고조선사람의 근원적 사유>를 주었다. 그는 <일본의 신도와 마쓰리>에 관심을 보였고, 내게 “일본에 살지 않았느냐?” 고 묻기도 하였다. 나는 단 한 번도 일본에 가 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이다.

나는 <삼성제례>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년 <삼성제례>에서 헌관들이 차를 올릴 수 있도록 돕는 팽주를 맡아 온 김용자 씨를 최호정 씨에게 소개해 주었다.

<삼성제례>가 끝나고, 우리는 무대 뒤쪽 공터에 돛자리를 깔고 좌정하였다. 점심시간이었다. 나는 밀전병, 떡볶이, 족발 등으로 식사하며 김용자 씨가 만들어 주는 차를 마시며 우리들의 관심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후 2시경에는 이귀선 씨가 <울려춤>을 추도록 시간이 잡혀 있었다. 유승엽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자기들은 무대 왼쪽에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가 모 방송에서 VJ를 하는 김성준 씨와 함께 내가 있는 곳으로 왔다. 그들은 한동안 나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이 온 곳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간 다음에 우리는 그들이 있는 무대 오른쪽으로 옮겨갔다. 그곳에서 처음 보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막걸리를 한 잔 하고 이귀선 씨가 추는 <울려춤>을 보았다.

이귀선 씨가 춘 춤은 삼태극을 풀어서 춘 춤이다. 소품은 대형 삼태극선 1개와 중형 삼태극선 2개, 오색 천, 솟대, 무궁화 다발이 전부였다. 춤에서는 삼색 천으로 삼태극의 기운을 풀어내고 감아주고 하여 삼태극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삼성제례>에서 삼태극은 삼성을 상징한다.

행사가 다 끝나고 어느덧 저녁이 왔다. 이렇게 4339년 10월 3일 개천절 하루가 지나갔다.

꿈을 꾸며 한 세상을 살아가다

노중평

-신교는 인적이 끊어진 곳을 찾아다니기를 좋아하였다.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곳이라면 호기심이 발동하여 일부러 찾아들어가지 않고는 백여 나지 못하였다. 밤이든 낮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의 성격이 두려움을 모르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수부대에 복무할 때에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특이한 교육과 작전으로 몸을 단련한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는 상고시대에 세상을 풍미하다가 사라진 종교를 찾는 연구에 매달려 세상을 살고 있었다. 오로지 그 일에만 매달려 있을 뿐, 세상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신교는 그가 찾아낸 종교에 관하여 글을 한 편을 쓰고 나면 장소를 이동하여 다음 장소로 갔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연구에 진척이 없기 때문이었다. 늘 폐가가 있는 마을을 수소문 하였다. 그래서 미지의 장소로 이동하고 싶어 늘 들떠 있곤 하였다. 무엇인가 그를 불러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당신이 글을 쓴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 괴이한 행동을 그만 둘 때가 되지 않았나요?』

마누라가 한 10년을 참아주더니 드디어 분통을 터트렸다. 그런 괴이한 행동을 그만두든가, 집을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득달하였다. 그렇다고 마누라의 의도에 따를 생각은 없었다.

『당신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누가 불러내는 것만 같아서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

』

그는 무엇인가 그를 불러내는 소리에 이끌리며 말했다. 그것은 마치 그에게 수신을 바라는 어떤 파장과 같은 것이었다.

앞에 인용한 글은 내가 어떤 문학지에 실었던 글의 서두를 인용한 것이다. 내 자신의 내면생활을 그대로 한 편의 단편소설로 엮었다.

내가 공직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시간을 쪼개어 틈틈이 소설을 써서 문학지에 발표하는 일을 내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지하의 단칸 셋방에 살고 있었다. 아침마다 직원이 차를 가지고 와서 나를 태워 직장엔 출근시켰다.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심한 그런 생활을 하는 나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교활하게도 가면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날 총무처에서 공문이 왔다. 번동과 창동에 아파트를 짓는데 몇 %를 공무원에게 분양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늘 살고 싶어 했던 삼각산과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번동에 짓고 있는 아파트에 시선이 갔다. ‘주택청약통장’에 얼마간 적금을 부어야만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아파트였다. 나는 적금을 붓지 않았으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삼각산에 이끌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심사하는 날이 왔다. 심사 장소에 나갔다. 총무처직원이 심사하고 있었다. 총무처직원은 내가 제출한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고 합격 도장을 찍어 주었다.

내가 이사 가야 할 번동樊洞의樊자는 수풀림林자 안에 육효효갇자가 들어 있고, 그 아래에는 임금을 의미하는 큰대大자가 들어있다. 나는 이 문자를 보고, 이 문자가 나를 위하여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사를 하고 나서, <역경易經>의 효사를 우리 상고시대역사로 해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해석을 마치고 <사라진 역사 1만년>이라는 제목을 붙여 1백 권 정도를 만들어 어떤 서점에 내었다. 이후로 돈과는 인연이 없는 23권의 책을 썼다.

1987년에 내가 사는 고장 사람들과 어울려 <삼각산축제>를 만들었다. 축제에는 한인·한웅·단군왕검 삼성에게 올리는 제사가 들어 있다. 금년 10월 3일에 이 제사를 지내면 꼭 10회 째가 된다. <칠석제>도 만들었고, <칠석제의궤>라는 책도 썼다. 덕수궁에서 <고려연등회의>를 복원한 적도 있었다.

금년은 삼각산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곳에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 그래서 진이 다 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

요즈음은 5백년 전에 남사고 선생이 후손에게 전한 <남사고비결>, 즉 <격암유록>에 폭 빠져 있다. 격암선생은 부천에 있는 “성주·소래·노고 3산을 삼신산이다”라고 하였다. 삼신산에서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으므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나는 내가 번동에 이사 오기 직전에 그곳이 내가 가지 않으면 아니 될 곳으로 받아들였듯이 지금은 내가 이사를 가야 할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가면 무엇인가 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슴이 설레인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의 그때처럼 지금도 들떠 있다.

나는 1991년부터 살아 온 아파트를 팔았다. 서울시내에서 집값이 가장 싼 곳에 살았던 탓에 집값은 몇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동이 없다. 오히려 부천의 집값이 더 비싸다.

10여 년 동안 내가 살아 보고 싶었던 삼각산 밑에서 내 집을 가져 보았으니, 이제 집에 대한 미련은 없다. 부천으로 이사가서 셋집이라도 하나 얻어 살면서, 격암 선생이 예언한 삼신산을 어떠한 형태로든 복원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감긴 내 눈을 뜨게 해 준 마고 할머니에게 감사할 뿐이다.

집을 팔았으므로 집을 구하려고 부천의 성주산 밑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일이 쉽지 않고 고생스러웠다. 이리다간 전셋집이나마 제대로 구해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사람은 마고의 신체로 모신 솃대에 정화수를 갈아가며 매일 3배하는 정성을 올린다. 나는 아직 한 번도 절을 해 보지 않았지만 마고 할머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 못지 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일요일 오후에 ‘우덕당’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일본에서 온 일본인 손님 부부와 장영호씨와의 동행이다. 우덕당에 도착하자 마자 현존하는 마고 할머니의 현신에 대하여 김 사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듣게 되었다. 그는 밝은 날 마고 할머니가 스스로 오셔서 좌정하시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 나는 마고 할머니가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거의 20년 동안을 찾고자 했던 마고 할머니였다.

나는 마고할머니를 찾는 작업을 하다가, 마고 할머니가 세운 나라가 '마고지나'임을 알게 되어 인터넷에 올렸고, 이제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름이 마고자나"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마고 할머니가 막걸리와 물을 좋아하십니다. 제물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김 사장이 말한다.

“마고 할머니가 좌정하셨으니 함께 막걸리나 한잔 하십시오.”

내가 김 사장에게 말한다.

김 사장은 부인에게 감자전을 안주로 부쳐 오라고 이르고 막걸리가 든 병을 가지고 왔다. 나는 마고 할머니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게 되어 즐거웠다.

“막걸리가 막고야에서 나온 말갈습니다.”

장영호 씨가 말한다. 막고야는 마고라는 말이다.

나는 집에 와서 마고 할머니가 현신하는 이야기를 써서 <우덕당에 좌정한 마고 할머니>라는 제목을 부쳐 블로그에 올렸다.

월요일 아침에 집 사람이 솃대에 3배 올렸다. 우리는 오후에 또 집을 보러 부천으로 떠났다. 어제 들렀던 부동산소개소에 다시 들었다가 뜻밖에 시흥으로 넘어가는 길가에 서있는 빈 빌라를 하나 보게 되었다. 집이 반듯하고, 밖으로 나오면 성주산이 그대로 올려다보였다. 마고 할머니가 내게 모종의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2년 전세로 계약했다. 이제 격암 선생이 말한 삼신산에 들어오게 된 셈이다. 앞으로 2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게 될 일은 이 곳에 삼신산이 있

고, 마고 할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다.

집계약을 마친 후에, 빌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처형과 동서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들며 소주를 한 병 마셨다.

“부천사람 되는 신고식입니다.”

하고 내가 말했다.

“이제 이곳에 할머니를 상징하는 솟대를 세울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는 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고할머니가 현신하여계신 사주각재 내 마고당

優德堂에 좌정한 마고 할머니

노중평

일요일에 최호정씨 부부와 장영호씨와 함께 우덕당에 가기로 하였다. 장영호씨가 우덕당에 도착하기로 잡아 놓은 약속시간은 14시이다. 우덕당에 가기 전에 먼저 녹천역 뒤에 있는 아파트로 가서 최호정씨 부부와 만나기로 하였다. 거의 12시가 다 되어 아파트에 도착했다. 최호정씨 부부와 만나서 일상적인 이야기,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내가 한 이야기는 우리의 민화 <아기장수와 진인>, 일본의 민화 <모모타로상> 이야기였다.

우덕당의 김 사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는다. 굿당을 지을 때 부처님 세 분을 모셨는데, 굿을 몇 번 한 다음에,

“아무래도 부처님을 밖으로 내모셔 드려야 하겠지요?”

하고 김 사장이 내게 물었다.

김 사장은 굿을 할 적마다 부처님에게 피를 보여드리게 되어 고민하고 있었다. 나도 부처님이 굿당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조언해 줄 수 있는 말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될 것”

이라는 말 밖에 달리 해 줄 말이 없었다.

김 사장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부처님을 내모시기로 결심하였다.

세 분의 부처님을 내모실 때는 스님들이 와서 버스 3대로 내모셨다고 한다. 그 후로 김 사장은 부처님에 대한 고민을 접을 수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우덕당이 마고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덕당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마고를 모시는 사당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우덕당을 완공하고 낙성하는 곳을 하던 날, 얼굴이 약간 얇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무당에게 실렸는데, 무당은 그 할머니를 서낭 할머니로 오인하여 김 사장에게 그 분이 누구임을 제대로 알려 주지 못했다.

할머니는 天자를 써서 무당에게 내려주었다. 그러나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김 사장에게 전해주지 못했다. 무당이 전해 주지 않으니 김 사장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14시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을 넘기고, 우리가 우덕당에 도착하니, 김 사장이 한옥韓屋 고가古家 앞에 나와 있다가 반갑게 맞는다.

“마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경과보고라도 하듯 김 사장은 만나자 마자 숨가쁘게 이런 이야기부터 꺼낸다. 직접 현신하는 마고 할머니를 고가 앞에서 보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을 절로 내모신 후에, 마고 할머니는 그의 9대조 직사공파 김씨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그 밑의 조상님들을 앞령 세우고, 조상님들의 뒤를 따라,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의 모습으로 직접 현신하였다. 얼굴은 구석기시대 사람의 모습인데 약간 얇아 있었다. 인자한 표정으로,

“내가 마고할머니야.”

하고 말했다.

말로만 들어 온 마고 할머니를 직접 만나게 된 것이다.

“언제 적 마고 할머니세요?”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김 사장이 물었다.

“만 년이 넘어.”

만년이란다! 그렇다면 마고지나를 세우고 삼신산에 사셨던 그 마고할머니이다.

김 사장은 이곳에 와서 곳을 한 다른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고 할머니를 직접 보았다고 말하니, 그 무당도 허리가 구부러지고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를 보았다고 말하였다. 그 할머니가 그 무당에게도 ‘天’ 자를 써서 주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김 사장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김 사장이 전화를 걸으니, 비로소 전화로 알려주었다.

왜 마고 할머니는 ‘天’ 자를 써서 보여주진 것일까? 그 의문을 풀어야 하였다. 김 사장은 무당을 데리고 감악산 정상에 올랐다. 메를 지어 올리고 기도에 들어가 기도를 마치고 메를 담은 그릇의 뚜껑을 여니 ‘天’ 자가 박혀 있었다.

“비로소 뜻을 알았습니다.”

라고 김 사장이 내게 말한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천사天事다. 메는 산山이고 묘墓이다. 이곳이 천산天山이 되고, 또한 천묘天墓가 된다는 뜻일 것이다. 천묘는 또한 천묘天廟이다. 천묘는 천신天神을 모신 사당祠堂이다. 말하자면 하늘의 종묘宗廟가 되는 셈이다.

우리는 천신 중에서 제일 윗분을 상제上帝(하나님)라고 한다. <격암>선생은 <생초지락生初之樂>에서 상제의 아들을 두우성斗牛星이라고 하였다. 두우성은 28수중에서 북방현무칠수北方玄武七宿에 속한 첫째별과 둘째별이다. 북방현무칠수는 우리의 조상 황궁이 마고성을 떠날 때 그의 부족을 이끌고 가서 정착한 천산주天山洲를 조응하는 별이다. 현무玄武는 뱀과 거북이가 뒤엉켜 있는 상인데, 뱀은 우리의 조상 풍이를 나타내고, 거북이는 천산주가 있는 방위를 나타낸다.

斗는 상제의 가족으로서의 북두칠성이다. 그러므로 두는 북두칠성과는 같은 의미를 가진 별이다. 우성은 견우성이다. 견우의 부인이 직녀이고, 직녀는 상제의 따님이므로, 견우는 상제의 가족이 되는데, 직녀와 혼인하여 상제의 사위가 되기 때문이다. 옛날 상고시대에는 사위가 데릴사위라고 하여 처가의 아들 노릇을 하였다. 아들을 의미하는 ‘子’ 자가 이를 의미한다.

마고 할머니가 우덕당을 낙성하는 곳에 나타나셔서 ‘天’ 자를 써서 우덕당이 장차 상제와 그의 가족을 모시는 천묘가 될 것임을 가르쳐주었는데, 무당이 이를 해석해 내지 못했다.

“웃을 해 준 것도 고맙고.”

마고 할머니가 말했다.

“그렇다면 우덕당이 들어선 도당산이 원래 할미산이었던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도당산의 뒷산이 개명산開明山이므로 일과 월이 함께 떠있는 산이라, 칠월칠석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조朝자를 의미하고 있어서, 칠월칠석날 아침에 상제에게 제사 올리고, 저녁에 상제의 가족인 견우와 직녀에게 제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

김 사장은 원래 건설회사 사장인데, 건물을 하나 지어주고 이 땅을 대토로 받았다가, 마고 할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덕당을 짓게 된 것이다. 우덕당을 짓게 되는 바람에 나와도 만나게 되었고,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써서 e-mail로 부쳐주기도 했는데, 내가 써 준 글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마고 할머니는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하며 200년 이상 된 한옥의 건넌방을 가리켰다.

“나는 막걸리를 좋아하니까 물하고 막걸리만 놓아 주어. 그러면 돼.”

그러면서 그간 김 사장이 가지고 있던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일실된 족보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족보에 대해서는 내가 마고들을 시켜서 알아오라고 하여 알려 줄게. 내가 불러 모으면 마고 할머니들이 동서남북에서 모두 다 모여들어.”

라고 약속해 주었다.

“지금 저 방에 마고할머니가 계십니다.”

김 사장이 조용조용 말한다.

내가 신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 만났지만 마고의 현신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만난 것은 김 사장이 처음이다.

“선생님이 매화나무를 심으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라고 김 사장이 말한다.

내가 홍매화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홍매화가 마고를 상징하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마고가 현신하셨으니 마고 할머니와 함께 막걸리 한 잔 함께 마시자” 고 했더니, 김 사장이 부인에게 감자전 좀 안주로 부쳐 달라고 주문한다. 막걸리 병을 열어 대접에 한 잔 따라서 내 곁에 있는 단 위에 올린다.

일본인 손님이 막걸리와 감자전이 맛있다고 한다.

〈소놀이곳〉에서 칠성님과 마부

노중평



견우는 남편, 직녀는 견우의 정실, 수녀는 측실이다.
칠월칠석날 동북 간방에서 떠오른다. 칠월칠석날 저녁에 해와 달이 나란히 마주보고 떠 있을 때의 직녀와 견우 별자리의 천문도이다. 우리역사에서 농경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소놀이곳〉에서 칠성님과 마부가 장구산에서 만난다. 이 날을 칠월칠석날로 보면 좋을 것이다. 두 분이 만나자 마자 마부는 너털너털 다 떨어진 곤룡포를 벗으며 칠성님에게 옷 좀 해 달라고 한다. 칠성님은 "서천서역국에서 나올 때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느냐?"고 묻는다. 마부는 곤룡포를 입고 나왔음을 넌지시 내비친다. 5백 년 동안 입고 다니다 보니 다 헤어졌다고 말한다. 직녀의 남편이자 상제의 사위인 견우가 마부가 되어 칠성님과 헤어졌지 5백년 만에 세상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다. 칠

성님이 “서천서역국으로 들어가서 상전으로 잘 모셔주마.” 고 말한다. 칠성님이 마부를 상전으로 잘 모셔 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마부가 상제의 사위임으로 하늘에서 그의 위계가 국무총리급인 칠성님보다 높다는 뜻이다.

다음에 칠성님은 서천서역국에서 나올 때 신은 무슨 신을 신고 나왔느냐고 묻는다. 마부는 미투리를 신고 나왔다고 대답한다. 이번에도 칠성님은 “서천서역국으로 돌아가면 상전으로 잘 모셔주마.” 고 말한다. 이로써 '마부가 말이나 끌고 다니는 예사 마부가 아니라'고 뜻을 박은 것이다. 칠성님 위에는 높으신 상제님이 계심을 알리기 위하여 이러한 대화를 나눈 것이다. 상제님은 곧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마부가 하는 일은 서낭곳에 등장하는 사자가 사자곳에서 하는 일과 유사한 일이다. 이리하여 <소놀이곳>에서 마부의 역할이 <서낭곳>에서 아기씨와 혼인하여 아기씨를 호위하는 서낭장군이 된 사자의 원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낭사자는 이기씨가 대한민국에서 소한국에 나올 때 상제님의 사자가 된다. 마부가 지금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부는 칠성님에게 이름이 없는 인간들에게 이름이나 지어주자고 한다. <소놀이곳>이서 이 부분은 이 신화가 창조신화임을 의미한다. 칠성님이 마부에게 이름을 지어보라고 말한다. 마부가 이름을 지어준다. 또 인간들에게 명과 복도 나누어준다.

마부는 칠성님이 알곡을 만들어 먹는 조화의 신이라고 한다. 인간은 재주가 없어서 잡곡만 먹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방아 찧는 방법이나 가르쳐주자고 한다.

一析三極, 運三四成環 七星圖



김금화씨 소장인 칠성도. 칠성중 옥형성, 개양성, 요광성은 남신으로, 천추성, 천기성, 천선성, 천권성은 여신으로 표
현되어 있다. 여신이 쓴 고깔은 삼신을 나타낸다. <천부경>의 의미를 무신도에 반영한 경우이다.

그뿐만 아니다. 마부는 서천서역에서 세상에 나올 때 약대를 가지고 나온다. 약대는 아직 길들이지 않은 들소로 볼 수 있는 짐승이다. 몸의 색깔은 황색이요, 얼룩덜룩 별이 박힌 점박이이다. 머리는 삼태머리요, 뿔은 삼각뿔이요, 두 귀는 무쇠고리처럼 생겼고, 눈은 초롱같은 검은 테두리 눈이다. 코는 들창코요, 입은 동굴입이요, 꼬리는 석자세치 검은 꼬리이다. 무쇠 투갑신을 신고, 좌측우측 어석버석 걷는다. 이것이 약대의 형상이다.

약대가 세상에 와서 한 일은 삼천리강산 고을고을마다 소 한 쌍씩을 물어다 주는 일이다. 그런데 소가 뛰어나가 부리지를 못한다. 수소가 되어서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마부는 칠성님에게 조화를 부려 소를 길들여 달라고 한다. 칠성님은 코뚜레를 해서 끼우면 말을 잘 듣는다고 가르쳐준다.

농경을 시작한 초기에 야생소를 잡아다가 길들여 농사에 쓰기 시작했음을 사설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 소를 잡아다 길들이는 사람을 견우牽牛라고 한다. 견우는 직녀의 남편이다. 북쪽 하늘에서 직녀3성과 마주 바라보고 있는 견우6성 중에서 가운데 허리별이 우성牛星이다. 견우가 길들이는 소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마부가 코뚜레를 만들어 소를 길들인 견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나무로 코뚜레를 만들면 언젠가 썩어버림으로 영원히 코뚜레로 쓸 만한 나무가 없다. 마부가 칠성님에게 영원히 쓸 수 있는 코뚜레를 만들 수 있게 조화를 부려달라고 조른다.

칠성님은 썩지 않는 코뚜레를 만들려면 배꼽 밑 두덩산에 난 싹을 무쇠 낫으로 베어다가 꼬아서 황소에게는 황굴레로 씌우고 암소에게는 청굴레로 씌우면 소가 뛰지 않을 것임으로 만백성이 좋아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소를 길들인다.

소를 길들였는데 또 문제가 있다. 인간들이 농사짓는 재주가 없으니 또 칠성님의 조화를 기대한다. 두덩산 동술 밭을 지나 쌍봉알산에서 연장을 취해다가 농사를 짓도록 하라고 가르쳐준다.

다음엔 농사를 다 지어 벼를 베어 실어 와야 하는데 수레가 없으니 수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상이 칠성님이 인간에게 소를 길들이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수레를 만들어 수확물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한 농사의 과정이다. 칠성님이 조화를 부려 농사를 짓게 해 주었다는 메시지가 있다.



1987년 7월 7일 子時에 삼각산 인수봉 밑에서
〈역사천문학회〉가 올린 칠석제.

견우와 직녀 신화가 칠성님신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마부와 칠성님이 〈소놀이굿〉에서 칠성님과 마부가 〈농경신화〉를 만들어내고, 견우가 상제님을 만나 농사를 망치는 6월 장마를 그치게 하는 〈지우止雨신화〉가 만들어진다. 〈지우신화〉에서 견우는 인류의 시조 남자 나반이 되고, 직녀는 인류의 시조 여자 아만이 된다. 나반은 6월장마를 그치게 해 달라고 청원하러 칠월칠석날 밤에 그의 상제를 만나러 간다.

하화가 동이에서 갈라져나가면서, 농사의 신 신농神農을 만든다. 신농이 〈소놀이굿〉에도 등장한다. 씨종자를 신농씨에게서 받아온다고 한 것이다. 신농이 뿔대에는 복희가 있고, 복희의 뿔대에는 고시가 있다. 고시는 배달나라에서 초대 농관農官을 지낸 분이다. 그러므로 씨앗을 받아오려면 고시에게서 받아와야 이치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

〈소놀이굿〉과 〈칠성굿〉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곳이다. 〈소놀이굿〉이 〈칠성굿〉의 원초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의 굿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칠성굿〉의 마지막 부분이 칠성굿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음으로 〈소놀이굿〉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칠성굿의 마무리 부분을 살펴 보기로 한다.

칠성곳에서 칠성님은 제석에게 칠성의 자리를 빼앗긴 상태에서 곳을 끝내며 입고 있던 칠성복을 벗는다. 벗은 옷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며 여주네에게 넘겨준다. 여주네는 거므나 따(검지지 儉之地-단군왕검의 땅 조선)에 희나백성(희씨나라熙氏那羅-단군왕검 조상의 백성)을 대표한다.

사실상 칠성곳은 그것으로 끝이다. 칠성님이 하시는 일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다.

(만세받이)

탈이로다 탈이로다 옷을 벗어 탈이로다

이 염주를 벗어 줄 테니

돈 많이 벌면은 수판으로 사용하고

홍가사 청가사를 받아 두었다가

아들 딸 장성해 시집장가 갈 때

청실홍실 인연을 맺어 주고

그 다음 가사 나무에 걸고

(목에 걸어) 가사(위로 내리는) 염주는 유자나무에 걸어놓고

장삼은 주고 갈 테니 칠성당에 걸었다가

아들애기 크거들랑 곤룡포로 입혀 줘요

괘자를 벗어 줄 테니 나졸들에게 입혀주고

치마를 벗어 줄 테니 며늘아기 얻을 적에 위치마로 사용하고

손자 낳으면 뒹개로 띠어 입혀줘요

고깔을 벗어 줄 테니

받아 두었다가 후대지석으로 아랫목에 모셔놔요

아들애기 장성하면 익선관으로 씌워줘요

삼년 후에 다시 찾으러 오겠시다.

(팔호 안 필자 보충) (김금화 무가집 <거므나 따에 희나백성> 철무리곳 칠성곳 89쪽)

이 무가사설은 서글프고 비장하기까지 하다. 칠성님(여기에서 칠성님은 하나님이다)이 쓰고 있던 것, 입고 있던 것을 모두 벗어서 여주네에게 주고 떠나겠다는 것이다. 칠성님의 시대가 끝났으니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위하여 떠나겠다는 것이다. 이제 떠나면 3년 후에나 돌아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3년이 우주에서의 3년인지, 지구에서의 3년인지 알 수 없다. 칠성님이 다시 온다고 했으니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탈이로다 탈이로다 옷을 벗어 탈이로다

옷을 벗지 않아야 하는데, 옷을 벗음으로 탈이라는 것이다. 대단히 암시적이고 예언적이다. 앞으로 닥쳐 올 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칠성님이 논아주는 옷을 장차 입게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칠성님의 옷을 입히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각처로 퍼져나가서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새삼스럽게 사라진 칠성신앙을 다시 찾아다 전파하라는 것인가? 그런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번잡스럽고 시간이 걸리는 일을 하라고 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소놀이굿〉의 말미로 써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소놀이굿〉도 〈칠성굿〉으로 보기 때문이다.

무당이 고깔 벗고 장삼을 벗으면 마고할머니 되고, 고깔 쓰고 장삼 입으면 칠성님이 되는 소놀이굿

2006.09.20 17:35

무당이 고깔 벗고 장삼을 벗으면 마고할머니 되고, 고깔 쓰고 장삼 입으면 칠성님이 되는 소놀이굿

노중평



〈소놀이굿〉에서 무당이 백장삼 입고 흰 고깔 쓰면 칠성님이 되고, 백장삼 벗고 흰 고깔 벗어 장구재비에게 주면 마고가 된다. 놀라운 신적 변용, 신화적 변용이 아닐 수 없다.

칠성님이 주장이 되어 진행되는 굿이 〈평산 소놀이굿〉이다. 우리 굿에는 이 굿처럼 칠성님이 당당하게 등장하는 굿이 없다. 대부분 제석이라 불리는 종교 사기꾼에게 칠성굿을 빼앗기고, 이름조차 변성명하여 제석으로 불린다. 칠성굿이 제석굿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굿판에 조폭이 들어와 난장을 치고 있는 데도, 무당이나 장구재비는 이를 깨닫지 못하여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평산 소놀이굿〉에서는 칠성님이 제석에게 백장삼과 흰 고깔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지니고 있어

서 칠성궁의 본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구산으로 불리는 장구재비가 칠성님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재비가 무당을 재껴두고 칠성님에게 수작을 부리려 드는 것이다.

〈평산 소놀이굿〉에는 장구재비는 장구산으로, 징재비는 징산으로 나온다. 장구와 징이 받쳐주지 않으면 굿이 되지 않으니, 굿대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주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구재비와 징재비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재비가 자존망대 해져서 무당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는 비난일 수 있다.

마부가 장구산을 찾아가면서, 굿이 본격화 된다.

마부는 칠성님과 장구산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마부가 둘러보니 칠성님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 앞에 나타난 것은 장구산이다. 마부가 장구산에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칠성님을 보았느냐고 묻는다. 장구산은 본 것도 같고 보지 못한 것도 같다고 수작을 부린다. 그러면서 5백년 되면 여기서 만나게 될 것인데, 장구산 아래 징산이 있으니, 징산에 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칠성님이 찾아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1초도 지나지 않아서, 즉각 칠성님이 나타나, 장구산에게 마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 장구산은 칠성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건 뭐냐?” 고 어이없는 짓을 한다. 칠성님은 내가 나줄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나줄을 보지 못했느냐고 묻는다. 장구산은 글썽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다고 또 수작을 부린다. 칠성님에게도 5백년 쯤 기다리면 나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장구산은 칠성님에게 나줄을 찾으려면 자기에게다 정성을 들여 보라고 또 수작을 부린다. 그런데 칠성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다 떨어진 헌 고깔하고 장삼뿐이다. 정성드릴 재물이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다.

장구산은 8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하는 곳에 가서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옥경청수玉京淸水(주, 칠성님이 계신 옥경에서 내려오는 天水) 한 그릇 갖다가 삼배고두배三拜叩頭拜(주, 원래 단군조선시대의 절법으로 1배는 큰절, 2배는 고두배이다.)하고 정성을 극진히 드리면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칠성님은 목욕재계하고 지극하게 정성을 드린다.

장구산은 보수로 헌 고깔과 장삼을 모두 받고 칠성님은 빈털터리가 된다. 장구재비는 칠성님에게 신명들의 이름을 불러들이라고 알려준다. 칠성님이 신명들의 이름을 부른다.

드디어 마부가 자기를 호명하는 칠성님의 목소리를 듣고 칠성님 앞에 나타난다. 벌거벗은 칠성님을 보고 마고할멈(주, 사설에 마귀할멈으로 되어 있으나, 마고의 오기이다)으로 착각한다. 칠성님이 고깔과 장삼을 벗으면 마고할멈과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마귀할멈이 마고할멈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삼 입고 고깔 쓰면 칠성님이 되고, 장삼 벗고 고깔 벗으면 마고할멈이 된다는 놀라운 변신을 소놀이굿이 알려주고 있다.

마부는 고깔과 장삼을 어떻게 했느냐고 마고할멈에게 묻는다. 마고할멈(칠성님)은 장구산에게 보수로 다 주었다고 털어놓는다. 마부는 장구산에게 고깔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다. 장구산은 김 서방네가 무감으로 사갔다고 말한다. 장구산과 무감은 다 한통속이다. 마부가 김 서방에게 물으니 샀다고 대답한다.

마부는 마고할멈이 서천서역국으로 갈려면 그걸 입어야 칠성님으로 인정을 받으니 돌려주라고 말한다. 장구산은 마음먹은 대로 소원성취만 해 달라고 하면서 고깔과 장삼을 돌려준다. 마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고깔과 장삼을 받아 칠성님에게 입혀드리고 씌워드린다.

“아! 없는 자손 돌려주고 있는 자손 수명장수 시켜주고 세대봉사 이어주고 5대 출신 나게 도와주고 7대 정승 나게 도와줄게요.”

글쓰기에서 일제청산과 중국청산

노중평

글을 쓰면서 항상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띄어쓰기나 철자법이 잘못된 것이 어디에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떨어버리지 못하는 점이다.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 다음에 며칠 후에 읽어 보면 나를 조롱하듯이 버젓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읽기를 네다섯 번은 한다. 요즈음은 몇 번 고친 글을 블로그에 올려놓는다. 그래도 후에 다시 읽어 보면 오자와 탈자가 나온다. 이러한 일을 반복하면서 정신수양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요즈음 나는 글을 쓸 때 글을 시작하는 문자를 한

자 띄어 쓰지 않고 그냥 쓴다. 원고지가 사라진 시대에 그렇게 쓸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꼭 그렇게 쓰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조상이 글을 쓸 때는 첫 자를 띄어 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원고지를 쓰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부터였다. 그래서 일본에서 원고지 쓰는 방식에 따라 첫 자 띄어쓰기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자판을 눌러 글을 쓰는 시대가 된 지금 첫 자를 띄어 쓰는 일이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오히려 줄을 바꾸어야 할 때 뒤에 오는 글자와 잘 띄어 주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뒤 문자를 제대로 띄어 주지 않으면 문장이 줄줄이 붙어 버린다.

우리는 지금 일제를 청산하자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 주도로 이 일을 해 왔다. 그러나 이 일은 원수를 갚듯이 하는 인적청산에만 머물러 있다. 역사청산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일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에서 일제의 잔재를 몰아내는 것인데,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원고를 써서 보내면 원고를 받는 곳에서 친절하게 첫 자를 띄어 책에 실어 보낸다. 교정을 본 것이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설명해 준다. 그제야 편집자는 의도를 이해한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한자를 쓸 때 괄호를 치지 않고 쓰는 것이다. 예컨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고 쓰지 않고,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고 그냥 쓰는 것이다. 한자가 중국의 문자가 아니라 우리 문자로 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괄호를 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역사천문학회〉 회원들과 함께 우리에게 중국의 전입미답지로 있었던 탁록 보게 천수에 갔을 때, 현지의 중국인들과 필담을 나누면서 머리를 망치로 얻어 맞는 듯한 충격을 받고나서부터 이 일을 해 오고 있다.

그때 현지인은 필자가 쓰는 한자를 보며 "이 문자는 秦의 문자"라고 하였다. 단군조선이 진시황 8년에 진에게 멸망했는데, 그 당시의 문자를 우리가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은 문자의 역사가 단군조선이 진에게 멸망하면서 우리에게서는 정지가

되었는데, 당시의 중국인들에게서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는 증거가 되는 말이다.

단군조선에서 써 온 문자를 우리는 한글전용이다 뭐다 하면서 다 역사의 쓰레기로 취급하여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반드시 괄호를 없애고 한글에 나란히 한자를 붙여 써오고 있다.

이상 두 가지 과제를 실천하는 일이 일제청산과 중국청산이라고 보고 있다.

이해경 무당이 출연한 영화 '사이에서'

노중평



무당이 굿을 하는 굿판을 돌아다니면서 무당이야 말로 배우이고, 춤꾼이고, 소리꾼이고, 재비라는 생각을 아니 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흔들어대는 방울에서는 청동팔령을 흔들며 불러대던 마고가 떠오르고, 그들이 던졌다가 걸어 들이는 부채에서는 용풍에서 춤을 추는 한인천제, 명서풍에서 춤을 추는 한웅천왕, 청풍에서 춤을 추는 단군왕검이 어우러져 너울너울 춤을 추기도 하고, 저만큼에서 휘돌면서 불러대기도 한다.

요즈음은 조상을 마음대로 불러대고 휘돌아가는 무당을 만나기 힘들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제정신이 무엇인지, 전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곳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진작 신학대학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무당신학박사라도 만들어냈다면 허가 낸 도둑질이라도 가르치련만,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하니, 무당사회도 제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신없이 돌아가는 나라꼴처럼 엉망진창이다.



그래도 내가 관심을 두고 바라보는 무당이 한 분 있었다. 그분이 김금화 무당이다. 칠순 나이에든 식솔들을 이끌고 외국나들이를 나가는 무당, 그런 분이 있기에, 외국의 종교학자나 민속학자나 인류학자가 껌뻑 죽게 되어 있다. 그만했으면 나라가 하지 못한 일을 해 온 셈이다.

그러나 이제는 김금화 무당이 울긋불긋 원색으로 차려입고 휘둘러대는 공연만으로는 한계가 왔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좀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진 무당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나의 의구심을 일시에 불식시켜주는 돌발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이해경 무당이다. 스스로 날라리 무당이라고 하고, 미꼬라고도 한다. 날라리라니, 내가 나리라는 뜻인가? 대감나리? 그런 뜻일까? 하기가 大監은 단군조선시대에 최고의 관직을 가진 최고의 제관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말이다. 그가 슬그머니 자신의 역사정신을 내비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게다가 또 미꼬라고 했으니, 미꼬는 일본에서 부르는 무당이라는 뜻이다. 그러고 보니 그가 미꼬처럼 보이

기도 한다.

이해경씨가 표를 사서 기다릴 테니 그가 출현한 영화를 와서 보라는 것이다. 장소는 월드컵상암경기장이다. 그의 전화를 받고서, 월드컵상암경기장에 극장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상연이 시작되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 4시 30분이라고 한다. 집사람과 함께 가니 그가 기다리고 있다. 표를 받아가지고 영화상연장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영화를 보았다.



웬일일까? 그가 처음부터 관객을 압도하고 나온다. 무당이 굿을 할 때보다 더 무당 같다. 아, 이런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힘 빼! 힘 빼!” 그의 얼굴, 그의 목소리, 상당히 인상적이다. 대단히 암시적인 도입부이다. 다큐의 수법으로 영화가 진행되어 가는데, 나중에 감독으로부터 들으니, 외국 영화제를 겨냥하여 만들었는데, 국내에서 개봉했다고 한다.

이 영화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을 든다면, 우리의 고유한 신명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신명체험이 너무나 엄숙하고 숙연하다. 무당이 인간적인 욕망과 신의 강제적 소명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타종교에서 재주를 팔딱팔딱 열두 번을 넘는다고 해도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가사설이 얼마나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도 큰 수확이라고 할 것이다.

영화는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어졌고, 우리의 전통종교인 무교를 알리는 데 손색이 없다. 출연한 사람들이 무당이거나 무당이 될 사람이고, 여기에 현역 재비들이 출연한다. 만약 진짜 배우를 쓰고 직업적인 악사들을 썼다면 영화가 맨송맨송해져서 실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우의 연기와 연주자의 연주의 기량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무당이다. 무당이 그의 배후에서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신명을 화면에 실어 주어야 하는데, 배우가 이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실패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무당이나 다 출현한다고 해서 영화를 성공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무당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이해경 무당의 강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실패없이 수행하여 스타 아닌 스타로 떠올랐다.

이런 점에서 탁월한 연기력을 타고난 이해경 무당이 앞으로 무당이 굿과 예술을 겸직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보아서 높이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의 성공으로 극영화제작의 가능성도 점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욕의 티라고 할까 지적하고 싶은 것도 있다. 앞으로 무교영화나 무교관련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교를 공부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엽적인 것을 몇 가지를 지적해 보려고 한다.

첫째 무교가 다신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무교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유일신교이다. 그 신을 九皇大主라고 하였다. 구황은 九桓이 받들어 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구황은 9900년 전에 한국을 세운 9인종을 뜻한다.

둘째 칠성굿을 자막에서 제석굿이라고 하였다. 칠성굿에서 받들어 모시는 신은 구황대주의 신체인 북두칠성을 의미한다. 제석은 2500년 전에 이 나라에 들어온 외래신이다. 외래신이 칠성신을 덮어쓴 명칭이 제석굿이다. 말하자면 불교의 무교침탈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영화를 외국에 수출하려면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인 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제석굿'을 '칠성굿'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세째 칠성굿을 제석굿이라고 하더니, 한술 더 떠서 "불교적 색체가 짙다"고 사족을 달아 놓았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자막은 당장 지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격암유록〉에 기록된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

노중평

산양은 리더가 앞으로 돌진하면 그를 따라 전원이 함께 돌진한다고 한다. 아무도 리더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리더가 무리를 벼랑으로 몰고 가면 벼랑으로 몰려간다. 그리고 리더가 벼랑 밑으로 떨어지면 모두 다 벼랑 밑으로 떨어져 죽는다.

나는 머리에 ‘투쟁’ 이라고 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TV에 비춰지는 사람들을 보면 산양과 그들을 혼동한다. 그들이 산양인지 산양이 그들인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존권의 도’ 를 넘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곧 이 사회에 이슈가 된다.

지금 그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순수한 노동운동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엇인가 일을 벌이기 위하여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들이 TV에 비춰지면 알 수 없는 불안이 온 나라를 덮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그들이 비추어진다. 한국적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21세기는 미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대결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피를 흘리는 시대이다. 미국적 민족주의와 반미국적 민족주의가 대결을 벌인다. 미국이 배타적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주의는 미국적 민족주의로 변모하여 보신을 하든가 반미국적 민족주의로 미국의 적이 되어 미국과 대결을 벌이든가 둘 중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세계를 이렇게 ‘친미냐, 반미냐’ 로 양분하는 분리주의 · 배타주의가 미국주의이다.

미국주의를 정의해 보면 다민족이 뒤섞인 단일국가를 민주주의로 지탱해 가는 다색다혈의 신민족주의이다. 개방적이면서 폐쇄적인 모순의 양면성을 검의 양날처럼 휘두르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에서 내세우는 주의를 미국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기독교적 · 배타적인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주의를 선으로 보고, 미국주의 이외의

민족주의를 악으로 보아 미국의 적으로 취급한다. 기독교적, 이분법적 사유체계가 미국적 민족주의 이외의 다른 민족주의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다른 민족은 미국에게 코앞의 적으로 노출되거나 잠재적인 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부에서 시작하여 노태우 정부까지 친미민족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래서 미국적 민족주의의 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반미적 색채를 들어내기 시작하여 천방지축으로 날뛰다가 IMF라는 직격탄을 맞아 국민을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였고, 김대중 정부에 와서 대통령이 수억 달러를 싸다가 김정일에게 바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구걸하였다고 하여, 미국의 심기를 심히 불편하게 하였다. 노무현정부에 들어서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우방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제는 반미민족주의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미국의 코앞에 노출된 미국주의의 적으로 분류된 지 오래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의 민족주의는 미국의 잠재적인 적으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정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여기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본다. 미군이 국군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을 행사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한반도에서 철수 하여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하게 미국주의의 적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의도가 감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남한을 뒤덮고 있는 붉은 세력들이 어느 날 갑자기 파출소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국군에 침투해 있는 적화세력들이 국군의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려 할 때가 오면 치안은 극도로 악화될 것이고, 경찰에 침투한 적화세력이 경찰을 장악하면 이때가 미국이 독자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을 응징하고 국내에 있는 친미주의자들에게 종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국군 내부에 있는 친미세력과 연대하여 현 정권을 무너뜨리고 제2의 5.16군사혁명을 획책하게 될 것이다.

이때 일본은 미국의 등에 얹여 어부지리를 보려 할 것이고, 중국은 <동북공정>을 내세워 한의 고토를 수복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무조건 북한을 덮치려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절반의 영토를 중국이 동북4성으로 편입하고,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이 먹어 치우고, 남한을 미국이 먹어치운다면, 그때 우리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격암유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이 글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구분쟁심일통猪狗分爭心一通 선동지시하시先動之時何時 백호사살전白虎射殺之前 무신지발위야無神之發謂也

돼지(중국)와 개(북한)가 다투다가 마음이 하나로 통한다. 돼지의 마음이 먼저 동하는 때는 언제인가. 백호(미국)가 개를 쏘아 죽이기 전이다. 무신론자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저구분쟁猪狗分爭에서 猪는 돼지이다. 단군조선시대에 오가五加가 있었고, 저가猪加는 오가의 일원이었다. 저가의 인종 아이콘이 저(돼지)이다. 본문에서 중국을 저로 표현하였다. 중국의 전신이 청淸인데, 청이

저가의 후예가 된다. 일본사람들은 지금도 청인淸人을 돼지라고 하고, 우리도 옛날엔 청인을 돼놈이라고 하였다. 돼놈은 돼지놈 즉 저가라는 뜻이다.

구狗도 또한 단군조선시대에 오가에 속한 구가狗加였다. 개가라는 뜻이다. 저가와 구가 사이에 북한 땅을 놓고 분쟁이 일어난다. 저가가 ‘고구려역사’가 ‘중국의 변방국가역사’라고 우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불리는 한반도 집어삼키기 프로젝트의 시행이다.

중국은 200억 위엔(우리 돈 3조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국책사업으로 이 일을 추진하여 완성하였다, 과거에 고구려의 영토였던 중국의 동북3성의 역사학계 관련자들이 주축이 되어 이 일을 하였다. <동북공정>이 목표로 하는 것은 고구려사를 중국의 변방역사에 편입하고, 아울러 고구려를 중국의 변방국가에 편입함으로써, 현재 고구려의 정통성을 승계했다고 주장해 온 북한의 입지를 중국의 변방국가화 하자는 데에 있다.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점은 바로 중국의 이러한 모험주의적인 아시아제국주의화의 현상이라고 하겠다. 만일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중국은 <동북공정>에서 구축한 “고구려중국변방화의 이론”을 내세워 북한에 진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중국의 이러한 고도의 역사적 정치적 군사적 책략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책략에 버금하는 국가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주변 3국의 책략에 대하여 국가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역사 연구자가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역사 직관력과 역사 통찰력

노중평

동북공정이 우리에게 알려진 때는 2003년이였다. 이때 지나가 국책사업으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연구를 조직화하였고,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손진기라는 사람이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동북공정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그 결과는 고구려·단군조선의 역사를 지나 본토역사에 기록된 고구려와 단군조선의 역사에서 지우고, 지나 역사로 편입하는 것이었다.

이 3년 동안에 우리나라와 학계에서 한 일은 몇몇 강단 연구자들이 세미나 열고, 고구려연구재단을 만들었다가 부수고, 재탕삼탕의 책 100여 권을 낸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면서 한 말은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고구려연구재단(2004년 출범)을 해체하고, 최근에 정부지원을 받아 동북아역사재단(2006년 출범)을 만든 사람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단군조선과 고구려의 역사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로만 남을 것이냐, 지나가 교과서를 개편하여 지나의 역사로 편입하도록 놓아두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역사연구자들의 심심풀이로 남을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나는 ‘다민족국가론’을 들고 나와 티베트를 강점하여 합병한 선례가 있었다. 이번에 동북공정에서 들고 나온 것도 ‘다민족국가론’이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고구려역사·발해역사와 단군조선역사를 지나 역사로 변방역사화 하고,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때 다물군을 몰아 단군조선의 옛 영토인 현토·진번·임둔을 수복하여 고구려영토에 편입하려고 했듯이, 진·한의 고토를 회복하겠다고 한반도로 침공해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되면 1차로 고구려의 고토인 북한지역이 침공의 대상이 될 것이고, 2차로 백제의 고토인 한강 이남의 서쪽이 침공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백제가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이론을 세우기만 하면 백제고토 수복의 명분이 설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험주의와 패권주의가 고개를 들 수 있다.

예상되는 지나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 정부 당국자나 동북아역사재단 측의 반응은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였을 때 당나라 세력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보여주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반응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정부 쪽에서 지나의 입지를 돕는 말을 공개적으로 무

책임하게 하는 위험수준에 와 있다.

지금 동북공정을 가지고 와글와글 떠들어야 할 사람들은 언론과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차분하게 대응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밥을 빌어먹고 있는 현 위치에서, “지나가 3년 동안 연구하여 동북공정의 성과물을 이만큼 내놓았으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연구한 성과물을 이만큼을 내놓겠다.” 하고 연구 성과물을 역사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차분하게 대응하자니 그런 것은 학자나 정부에서 할 말이 아니다. 그들의 무 대응에 대하여 국민이 질책을 한다면 예산과 인력과 법제화의 미비점을 들어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떠넘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가 외침을 당하여 어리바리 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나라를 구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관군이 호강을 하며 나라를 구한 예가 거의 없었다. 그대들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라. 많은 의병들이 어느 누구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각자 활동하고 있다. 이제 북에 겨운 사람들의 잠꼬대는 집어치워야 한다.

요즈음은 어느 때보다 남북한이 가까워져 있는 때이다. 우선 실세학자들이 신라 · 고려 · 조선 왕조시대에 당시에 재야사학자들이 쓴 〈한단고기〉 류의 저작들을 역사서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합의를 보도록 하라. 북한에서 역사서로 인정하는 책들을 위서라고 버리는 행위는 역사연구자들이 할 행위가 아니다. 단 하나의 단서만 있어도 수사하는 범죄수사관처럼 그런 책에 기록된 단서에서 사라진 역사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역사가의 사명이다. 상고사라는 머리는 잘라버리고 몸통만을 가지고 연구 성과를 낸다고 한들 그 연구 성과가 온전하겠는가?

역사연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서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직관력과 통찰력이다. 땅에서 파낸 유물의 연구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직관력과 통찰력을 갖춘 다음에 그대가 위서라고 버린 쓰레기를 다시 찬찬히 읽어 보라. 아마 몸에 소름이 돋아날 것이다. 직관력과 통찰력이 결여된 역사연구자는 역사가라고 말할 수 없다.

지나정부의 대변자가 된 대한민국 정부의 고급공무원

노중평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에서, "동북공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정부의 한 고위 공직자가 당당하게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발표를 하는 우리 정부에 중국의 첩자가 있든가, 중국에 충성하는 이중국적자가 있든가, 나라를 중국에 넘겨줄 기를 학수고대하는 이완용보다 더 악질적인 매국노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언젠가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이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발표하기를 순진하게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정부가 멍청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 중국은 북한이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자멸할 때

가지 공식발표를 미루게 될 것이다. 드디어 북한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발 빠르게 북한영토를 차지하기 위하여 동북공정이 중국의 공식입장이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다.

주제 : [정부 "왜곡 고구려사 中 공식입장될 때 문제제기"-1](#) [미디어다음]

노중평의 나라

블로그 거리검 이야기 <http://blog.daum.net/godam7777>

저자 고담 노중평

발행일 2011.05.30 14:35:40

 블로그